

연구보고24-연적금01

가정·학교 밖 이종 취약 청소년 실태연구 : 청소년쉼터를 중심으로

김희진 · 김경준 · 박지수 · 조혜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과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만들어갑니다.



가정·학교 밖 이중 취약 청소년 실태 연구: 청소년심터를 중심으로

저 자 김희진, 김경준, 박지수, 조혜영

연구진 연구책임자 김희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김경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
박지수(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조혜영(공주교육대학교 교수)
연구보조원 이미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원)

연구요약

■ 연구목적

- 청소년의 성장·발달에 가장 중요한 체계인 가정과 학교에서 동시에 벗어남에 따라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 밖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
- 본 연구는 가정과 학교로부터 소외된 가정·학교 밖 이중 취약 청소년들에 주목하여 이들의 생활 경험과 어려움 등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음. 또한, 이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조명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연구결과에 기반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연구내용

- 가정·학교 밖 청소년의 이중 취약에 대한 논의, 가정 밖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심층적인 이해 도모, 관련 지원 현황·정책 파악
- 설문조사 방식의 실태조사와 심층면접조사를 통한 가정·학교 밖 청소년의 경험 및 생활 실태, 지원 요구 파악
- 학계 및 현장전문가와 현장실무자들로부터 가정·학교 밖 청소년 이슈 탐색 및 지원 방안 모색
- 연구결과를 토대로 가정·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안 제안

■ 연구방법

- **문헌연구:** 가정·학교 밖 이중 취약 청소년에 대한 논의, 가정 밖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및 정책 자료 검토
- **전문가 자문 및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취약·위기 청소년 분야 학계 전문가와 청소년 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관계기관 현장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연구 자문 실시,

설문조사를 위해 관계기관(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회장단 및 각 지역 이사진 등과의 간담회, 협의회 추진

- **가정 밖 학생·학교 밖 청소년 설문조사 실시:** 전국 140개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자립 지원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정 밖의 학생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을 구분하여 총 46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추진, 학교 재학 여부에 따른 비교 분석과 가정·학교 밖 청소년이 직면하는 다양한 어려움 및 지원 요구를 예측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 실시
- **가정·학교 밖 청소년 심층면접조사 실시(In-depth Interview):** 가정·학교 밖 이주 취약 청소년 15명에 대한 개별심층면접을 실시하여 가정과 학교를 떠나는 과정과 맥락, 이후의 경험에 대해 심층분석 실시
- **전문가 의견조사 수행:** 취약·위기 청소년 분야 학계 및 현장전문가 15명을 대상으로 가정·학교 밖 청소년의 당면 문제와 필요한 지원 등을 파악하기 위해 2회에 걸쳐 조사 실시, AHP, Borich 요구도, The Locus for Focus 분석 수행
- **현장실무자 FGI 실시:** 청소년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현장실무자 11명을 대상으로 2개 집단으로 구분하여 FGI 실시
-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최:** 조사관련 의견 수렴, 연구결과 공유 및 정책적 합의 논의
-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청소년 대상 설문지와 면접지, 조사수행 과정과 내용 등에 대한 승인 절차를 거친 후(승인번호: 202408-HR-연개금-001) 조사에 활용, 전문가 의견조사와 현장실무자 FGI는 심의면제 승인 후 조사 수행
- **주요 연구 내용 및 방법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음.**



■ 연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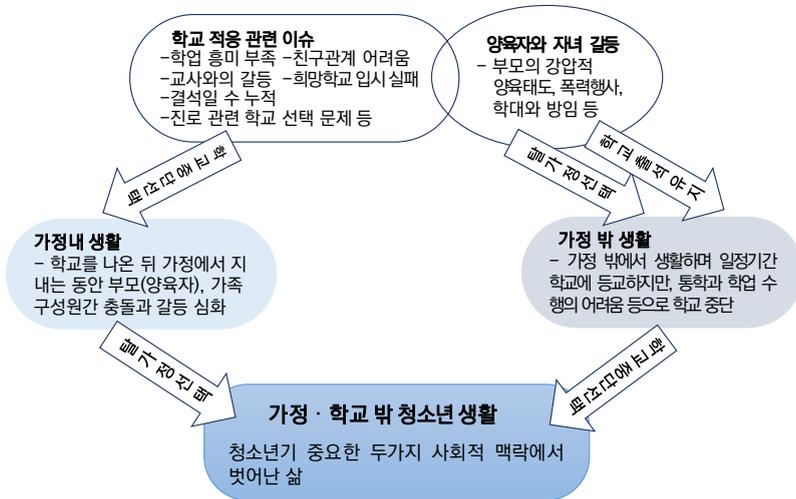
주요 연구결과

- **문헌고찰 결과**, 가정·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논의와 관련 정책 현황 검토를 통해 이러한 이중 취약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지원 필요성 확인
 - 청소년의 성장·발달에 가장 핵심적인 보호·지원 체계인 가정과 학교 모두에서 벗어나 있어 심리정서, 진로진학, 취업 등에서 다양한 어려움 경험 조명 필요
 - 가정 밖 청소년은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으로부터,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원을 제공받고 있음. 그러나 이중, 다중 취약한 상황의 가정·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집중 지원은 강조되지 않음.
- **가정 밖 학생·학교 밖 청소년 설문조사 결과**, 청소년 463명 중 학생 청소년은 79.3%, 학교 밖 청소년은 20.7%였음(학교를 그만둔 경험은 23.5%).
 - 학교를 그만둔 주요 이유는 심리정서적 문제, 공부하기 싫어서, 부모님과의 갈등/가정불화였음. 학교를 그만둔 이후 경험한 어려움 중에는 부모님과의 갈등, 학교 친구와의 관계 단절, 소속감 부재/혼자라는 불안감, 무기력, 적성에 맞는 진로 탐색/대학 진학 정보 찾기 등의 응답이 많았음.
 - 가정·학교 밖 청소년 중 절반 가까이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용 경험이 없었고, 주요 이유는 '센터를 잘 몰라서', '방문하기 귀찮아서'였음.
 - 절반 이상이 진로와 관련하여 특별히 하는 일이 없었고, 희망 교육수준으로 학생 청소년은 4년제 대학을, 학교 밖 청소년은 고등학교를 더 많이 응답함.
 - 학교 밖 청소년이 학생 청소년에 비해 일(아르바이트) 경험이 많았으나, 진로성숙도는 낮았고 다양한 진로교육/활동 경험도 적었음.
 -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가정 밖 청소년 중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학교 밖 청소년일수록 의식주 해결에 대한 어려움과 교육, 진로 및 취업에 대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고 회복탄력성도 낮았음. 우울, 자살 생각 등 정신건강에 더 취약했으며, 사회적 고립감도 높았음. 우울증, 불안장애 등 정신과 질환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였고, 심리사회적 지지체계가 더욱 부족하였음. 주거비 등 자립정착금 등에 대한 수요도 더 높게 나타났음.

주요 연구결과(계속)

- **가정·학교 밖 청소년 심층면접조사 결과**, 부모(계부모 포함)의 강압적 양육과 학대 및 폭력, 부모 간 갈등 심화, 부정적 양육/폭력 노출 등으로 집을 나왔으며, 그 과정 전후로 학교를 그만둔 과정도 관련이 있었음.
- 학교를 그만둔 후 가정 내 갈등 심화로 집을 나오거나, 또는 가정에서 갈등이 심해져 집을 나온 뒤 학교까지 그만두기도 하였음. 등교/학업성취 부담, 진학 문제, 학교 부적응, 학교를 그만둔 후 어려움 등 학교 관련 문제에서 가정의 완충 역할/해소 기능이 없어 학교생활 유지가 어려웠음.
- 가정 밖 생활 중에도 청소년쉼터-학교 원거리 문제, 학교생활 부적응, 학업 부진, 학교 재학 시 소재 노출 등의 이유로 학교를 그만둠.
- 성인기 이행 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은 구체적인 진로 설계에 관한 어려움과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을 토로하였고, 향후 안정적인 거주지 부재 우려 등으로 불안감, 우울감 등 부정적 정서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음.

청소년의 가족과 학교 생활 맥락



[심층면접조사 결과: 가정과 학교를 떠나는 과정]

주요 연구결과(계속)

-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가정·학교 밖 청소년에 주목해야 할 특성은 심리정서적 불안, 경제적 어려움, 범죄 등 고위기 노출 위험, 미래 진로에 대한 희망 부재 순이었음.
 - 가정·학교 밖 청소년의 어려움으로 정서적 지지체계 취약에 따른 우울, 불안, 무기력 문제, 원가정 지지체계 붕괴·부재, 학력·직업능력 등 취업 조건 부족, 진로관련 무기력·두려움, 자기관리능력 미흡 등이 조사됨.
 - 사례관리를 통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상담 개입, 의식주 지원과 자립을 위한 직업교육훈련과 일자리 제공, 진학을 위한 학원비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가정·학교 밖 청소년 발굴 체계 강화, 사회적 관계 기회 확대, 부모·양육자 교육, 가족연계 프로그램 지원, 학교 지지체계 구축 등 필요성 제기
 - The Locus for Focus 모형 분석 결과, 복지정책에서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주거정착금 지원 등이 중요도-효과성 불일치 정도가 가장 높았고, 복지서비스에서는 취업 후 사후관리, 심리상담 지원, 주거지 마련(주거비 지원) 등이 중요도-지원 정도의 불일치 정도가 가장 높아 향후 강화되어야 할 정책 및 서비스로 나타남.
 - 가정 밖,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어려움으로 가정 밖 학생 청소년의 경우에는 개인 발달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부족이,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다양한 직업군 탐색 및 체험 한계 등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조사됨.
- **현장실무자 FGI 결과**: 가정 밖 청소년, 가정·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하여, 취약한 사회성과 사회적응의 어려움, 분노 조절, 공격성 등 정서적인 어려움, 인지·정서·행동적인 문제, 가정에서의 학대, 부모 방임 및 가정폭력 피해 경험, 무기력, 소속감과 끈기 부족, 성인 역할모델의 부재 등의 특성이 지적됨.
 - 지원 서비스 예산의 부족, 지속적인 지원의 어려움, 지원에 대한 청소년들의 무관심과 꾸준함 부족, 전문적인 지원 한계, 청소년 특성에 맞는 서비스 및 실효성 부족, 일자리 지원 어려움, 지지체계 부족 등이 조사됨.
 - 가정·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 파악, 동기부여 서비스, 시설 청소년 대상 복지혜택 확대, 시설 인력의 전문성 확대, 지역사회 연계 강화, 고위기 청소년 연계를 위한 관련 법 개정 등이 제안됨.

핵심 정책제언

- 본 연구는 가정과 학교로부터 동시에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의 실태와 경험을 조명하고 적절한 지원 방안 탐색에 목적이 있음. 이에 따라 정책제언은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성인기 이행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견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정책과제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 ① 가정·학교 밖 이중 취약 청소년의 발굴 및 지원체계 개선, ② 가정·학교 밖 이중 취약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지지체계 강화, ③ 가정 밖 학생·학교 밖 청소년 개별 맞춤형 진로 지원, ④ 다중 취약 고위기 가정 밖 청소년 지원 등 변화하는 환경 대응으로 영역을 구분하여 정책과제들을 제안하였음.

가정·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사회인으로서의 성장 견인

지원 목표

정책 영역	추진과제
I. 가정·학교 밖 이중 취약 청소년 발굴 및 지원체계 개선	I-1. 가정·학교 밖 청소년 발굴을 위한 관련 지침 강화 I-2. 가정·학교 밖 청소년 실태 파악을 위한 다양한 조사·연구 추진 I-3. 가정·학교 밖 청소년 중심 지원체계 강화 I-4. 가정·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 범위 확대, 연계 절차 간소화
II. 가정·학교 밖 이중 취약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지지체계 강화	II-1. 심리적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한 거점 기관 지정 및 설립 II-2. 사회적 지지체계 구축: 성인 역할모델, 멘토링 프로그램 확대 II-3. 무기력 청소년에 대한 동기부여 강화 프로그램(가상 사회생활 등) II-4. 건강한 사회관계 형성을 위한 기회 제공(문화·체육활동)
III. 가정 밖 학생·학교 밖 청소년 개별 맞춤형 진로 지원	III-1. (공통) 단계별 진로설계 및 진로준비 지원 III-2. 가정 밖 학생 청소년 대상 지원 개선 : 학교와의 연계 등 III-3. 가정·학교 밖 이중 취약 청소년을 위한 지원 : 꿈드림센터 지원 강화
IV. 다중 취약 고위기 가정 밖 청소년 지원 등 변화하는 환경 대응	IV-1. 다중 취약 고위기 가정 밖 청소년 발굴·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 IV-2. 자립을 위한 경제적 지원(자립정착금)·주거 지원 확대 IV-3. 가정 밖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가정·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영역 및 추진과제]

가정·학교 밖 이중 취약 청소년 실태 연구: 청소년쉼터를 중심으로

연구보고24-연적금01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 내용	6
3. 연구 방법	7
4. 연구추진체계	12

II. 연구의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가정·학교 밖 이중 취약 청소년에 대한 논의	15
1) 연구 대상으로서의 가정·학교 밖 청소년	15
2) 가정·학교 밖 청소년의 이중 취약성에 대한 논의	18
2. 가정 밖·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특성	23
1) 가정 밖 청소년 현황 및 특성	23
2)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특성	30
3. 가정 밖·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현황과 함의	36
1) 가정 밖 청소년 지원 정책	36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50
3) 소결	56

III. 가정 밖 학생·학교 밖 청소년 설문조사 결과

1. 조사 개요	63
----------	----

1) 조사 대상	63
2) 조사 방법	65
2. 조사 내용	68
1) 조사지 개발	68
2) 설문조사 내용	74
3. 분석 방법	78
4. 분석 결과	80
1) 기술분석 결과	80
2) 심화분석 결과	152
5. 소결	167

IV. 가정·학교 밖 이중 취약 청소년 대상 심층면접조사 결과

1. 조사개요	175
2. 면접조사 내용	177
3. 면접조사 방법	180
1) 면접 진행 방법	180
2) 연구 윤리 및 개인정보 보호	181
4. 분석 방법	182
5. 분석 결과	186
6. 소결	245

V. 전문가 의견조사·현장실무자 FGI 결과

1. 전문가 의견조사	253
1) 조사 개요	253
2) 조사 내용	254
3) 조사 및 분석 방법	255
4) 분석 결과	258
2. 현장실무자 면접조사: 초점집단인터뷰(FGI)	277
1) 조사 개요	277
2) 분석 결과	280
3. 소결	298
1) 전문가 의견조사	298
2) 현장실무자 초점집단인터뷰(FGI)	303

VI. 정책제언	
1. 연구결과 요약	307
2. 정책제언	312
참고문헌	333
부 록	345
1. 기관담당자 조사 결과	347
2. 가정 밖 학생·학교 밖 청소년 설문조사 조사지	351
1) 가정 밖 학생 청소년 설문지(A유형)	351
2) 가정·학교 밖 청소년 설문지(B유형)	371
3. 전문가 의견조사지	390
1) 1차 조사지	390
2) 2차 조사지	395
국문초록	405
Abstract	407

표 목차

표 II-1.	선행연구에서의 가정 밖 청소년 중 학생 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 비중	20
표 II-2.	실종아동(9~17세) 현황	24
표 II-3.	가출 경험 학생 현황	25
표 II-4.	청소년의 가출 유형	26
표 II-5.	청소년쉼터 및 자립지원관 이용 위기청소년의 가출 이유 (복수응답)	27
표 II-6.	가정 밖 청소년 관련 국내 정책	36
표 II-7.	지역별 청소년쉼터 현황	39
표 II-8.	청소년쉼터의 유형	40
표 II-9.	청소년자립지원관 현황 및 유형	41
표 II-10.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지원 종류 및 내용	43
표 II-1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능 및 사업 예시	44
표 II-12.	학교 밖 청소년 관련 국내 주요 정책	50
표 II-13.	꿈드림센터 운영 현황	51
표 II-14.	국민취업제도 I 유형과 II 유형	56
표 III-1.	청소년쉼터 등 기관담당자 조사 내용	66
표 III-2.	조사참여 기관 및 표본 수	67
표 III-3.	설문조사의 주요 영역과 내용	69
표 III-4.	전문가 주요 자문 의견 및 조사표 반영 결과	71
표 III-5.	척도 문항 정리 예시	73
표 III-6.	설문조사 내용 및 문항, 출처	74
표 III-7.	위계적 회귀분석에 활용된 종속변수	79
표 III-8.	가정·학교 밖 청소년의 생활 실태 및 경험에 대한 기존 실태조사와의 비교	79
표 III-9.	응답자 특성(전체)	81
표 III-10.	현재 재학 여부(전체)	82
표 III-11.	그만둔 학교급(가정·학교 밖 청소년)	83
표 III-12.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지와 그 이유	

(1+2순위)(전체)	84
표 III-13. 학교를 그만둔 이유(1+2순위)(가정·학교 밖 청소년)	85
표 III-14. 학교를 그만둔 후 어려움(가정·학교 밖 청소년)	86
표 III-15. 복교 이유(복수응답) 및 만족도(복교 청소년)	88
표 III-16.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용 여부 및 미이용 사유 (가정·학교 밖 청소년)	89
표 III-17. 향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원 참여 의사 여부와 이유 (가정·학교 밖 청소년)	90
표 III-18. 향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원 참여 의사가 없는 이유 (가정·학교 밖 청소년)	91
표 III-19. 진로 관련 활동 유무와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 일 (복수응답)(전체)	93
표 III-20. 검정고시 준비 교급(가정·학교 밖 청소년)	94
표 III-21. 대입준비 장소 및 경로(전체)	94
표 III-22. 검정고시/대입준비 장소 및 경로(가정·학교 밖 청소년)	95
표 III-23. 희망 교육수준(전체)	96
표 III-24. 향후 진로 계획(전체)	97
표 III-25. 진로결정에 영향을 준 대상(전체)	98
표 III-26. 진로성숙도(전체)	100
표 III-27. 직업/진로 관련 활동 참여 경험 유무(전체)	101
표 III-28. 진로관련 교육 및 활동 장소(전체)	102
표 III-29. 희망하는 직업교육·훈련 유무 및 받고싶은 과정 (복수응답)(전체)	103
표 III-30.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나는 신체적으로 건강하다(전체)	105
표 III-31.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나는 정신적으로 건강하다(전체)	107
표 III-32. 치료가 필요한 질병 유형(복수응답)(전체)	108
표 III-33. 흡연 경험(전체)	109
표 III-34. 음주 경험(전체)	111
표 III-35. 자아존중감(전체)	113
표 III-36. 회복탄력성(전체)	115
표 III-37. 최근 12개월 동안의 우울감 경험(전체)	116
표 III-38. 사회적 고립감(전체)	118
표 III-39. 최근 12개월 동안의 자살 생각 유무 및 이유(전체)	121
표 III-40. 최근 12개월 동안 자살 시도 유무(전체)	122

표 III-41. 현재 일(아르바이트) 여부(전체)	124
표 III-42. 현재 일(아르바이트) 유형	125
표 III-43. 일(아르바이트) 이유(복수응답)(전체)	126
표 III-44. 구직 시 어려움(복수응답)(전체)	127
표 III-45. 경제 상황(저축)(전체)	129
표 III-46. 경제 상황(빚)(전체)	130
표 III-47. 월 평균 수입(전체)	132
표 III-48. 수입의 출처(복수응답)(전체)	133
표 III-49. 부모의 방임/학대, 역기능적 생활사건 경험 유무(전체)	135
표 III-50. 현재 부모님(보호자) 태도: 나와 주기적으로 연락을 한다(전체)	136
표 III-51. 현재 부모님(보호자) 태도: 나의 생활에 필요한 비용 (용돈, 공부 등)을 대고 있다(전체)	137
표 III-52. 도움 요청 대상(민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전체)	139
표 III-53. 지원시설 이용 여부 및 도움 정도(전체)	140
표 III-54. 지원 정책(서비스) 수요(전체)	141
표 III-55. 가정 밖 생활 시작 연령 평균(전체)	143
표 III-56. 가정 밖 생활 기간(전체)	145
표 III-57. 집을 나오게 된 이유(1+2순위)(전체)	146
표 III-58. 청소년쉼터 이용 계기(전체)	147
표 III-59. 집을 나오면서 가장 힘든 점(전체)	148
표 III-60. 원가정 복귀 의향 및 미복귀 이유(복수응답)(전체)	150
표 III-61. 자립에 대한 의지(전체)	151
표 III-62. 가정 밖 어려움(의식주 해결 문제)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152
표 III-63. 가정 밖 어려움(교육·진로 및 취업)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153
표 III-64. 흡연 경험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155
표 III-65. 음주 경험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156
표 III-66. 회복탄력성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157
표 III-67. 우울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158
표 III-68. 치료가 필요한 질병: 정신과 질환 선택 여부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159
표 III-69. 지지체계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160
표 III-70. 진로성숙도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161
표 III-71. 진로교육 및 활동 경험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162

표 III-72. 일(아르바이트 경험) 여부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	163
표 III-73. 주거비 지원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164
표 III-74. 자립정착금 지원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165
표 III-75. 검정고시 준비 지원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166
표 IV-1. 면접조사 참여 가정·학교 밖 이종 취약 청소년 특성별 구성 ...	176
표 IV-2. 가정·학교 밖 이종 취약 청소년 대상 면접조사 내용	178
표 IV-3. 연구 참가자 주요 배경	185
표 IV-4. 가정을 나오게 된 배경	191
표 IV-5. 집을 나온 뒤 청소년쉼터 연계까지의 여정	198
표 IV-6. 학교를 그만둔 배경과 가정 밖 생활	205
표 IV-7. 학교와 학력 관련 인식	209
표 IV-8. 진로 관련 인식과 대응	216
표 IV-9. 거주지로서 청소년쉼터 생활	222
표 IV-10. 용돈 마련과 소비, 저축	226
표 IV-11. 심리 정서 상태	229
표 IV-12. 원가족과의 관계	232
표 IV-13. 청소년쉼터 퇴소 후 계획	235
표 IV-14. 지원 정책에 대한 제안	244
표 V-1. 조사 참여 전문가 현황	254
표 V-2. 전문가 의견조사 내용: 1차 조사	255
표 V-3. 전문가 의견조사 및 분석 방법	256
표 V-4. 가정·학교 밖 청소년: 가장 주목해야 할 특성	258
표 V-5. 가정·학교 밖 청소년: 어려움(불리함)	259
표 V-6. 가정·학교 밖 청소년: 신체적인 건강 문제	260
표 V-7. 가정·학교 밖 청소년: 정서적 어려움	261
표 V-8. 가정·학교 밖 청소년: 경제적 어려움	262
표 V-9. 가정·학교 밖 청소년: 사회적 관계 문제	262
표 V-10. 가정·학교 밖 청소년: 비행 문제	263
표 V-11. 가정·학교 밖 청소년: 진로 문제	264
표 V-12. 가정·학교 밖 청소년: 지지체계 문제	265
표 V-13. 가정·학교 밖 청소년: 정서적 문제를 위한 개입(지원) ...	266
표 V-14. 가정·학교 밖 청소년: 경제적 문제를 위한 개입(지원) ...	267
표 V-15. 가정·학교 밖 청소년: 기타 문제에 대한 개입(지원) ...	267
표 V-16. 가정 밖, 학교 밖 청소년 관련 복지정책 중요도와 효과성 불일치 정도, The Locus for Focus 모형 분석 결과	268
표 V-17. 가정·학교 밖 청소년 관련 복지서비스의 중요도와 지원정도	

불일치 정도, The Locus for Focus 모형 분석 결과 ...	270
표 V-18. 가정 밖 학생 청소년 대상의 지원 영역 중요도	272
표 V-19. 가정·학교 밖 청소년 대상의 지원 영역 중요도	273
표 V-20. 청소년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원 중 가장 초점을 두고 있는 내용	274
표 V-21. 청소년쉼터 제공 지원의 한계	276
표 V-22. 현장실무자 FGI 참여자 정보	277
표 V-23. 현장실무자 FGI 주요 내용	278
표 V-24. 응답자 소속 시설의 가정·학교 밖 청소년의 일반 현황 ..	280
표 V-25. 전문가 의견조사 주요 결과와 시사점	301
표 V-26. 현장실무자 FGI 주요 결과	304
표 VI-1. 주요 조사 결과 및 정책적 함의	308
표 VI-2. 가정·학교 밖 청소년 진로 지원을 위한 관련 법률 조항 신설 예시	329

그림 목차

그림 Ⅰ-1.	연구추진체계	12
그림 Ⅱ-1.	연구대상: 가정·학교 밖 이종 취약 청소년	15
그림 Ⅱ-2.	가정·학교 밖 청소년의 생태체계 도식 예시	18
그림 Ⅱ-3.	초·중등 학생 수 추이(2016~2024년)	31
그림 Ⅱ-4.	초·중등 학업중단자 추이(2016~2022년)	31
그림 Ⅱ-5.	학교 밖 청소년 규모 추정(2013~2023년)	32
그림 Ⅱ-6.	청소년쉼터 운영체계	38
그림 Ⅱ-7.	청년일경험 지원사업: 기업탐방형 일경험 프로그램 추진 절차	48
그림 Ⅱ-8.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원내용	52
그림 Ⅱ-9.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항목	53
그림 Ⅲ-1.	조사설계 과정 및 결과	66
그림 Ⅲ-2.	설문조사 조사표 개발·확정 과정	74
그림 Ⅲ-3.	학교를 그만둔 이유(1+2순위)(가정·학교 밖 청소년)	85
그림 Ⅲ-4.	학교를 그만둔 후 어려움(가정·학교 밖 청소년)	87
그림 Ⅲ-5.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용 여부 및 미이용 사유 (가정·학교 밖 청소년)	89
그림 Ⅲ-6.	향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원 참여 의사 여부와 이유 (가정·학교 밖 청소년)	91
그림 Ⅲ-7.	진로 관련 활동 유무와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 일 (복수응답)(전체)	93
그림 Ⅲ-8.	희망 교육수준(전체)	95
그림 Ⅲ-9.	진로결정에 영향을 준 대상(전체)	99
그림 Ⅲ-10.	직업/진로 관련 활동 참여경험 유무(전체)	101
그림 Ⅲ-11.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나는 신체적으로 건강하다(전체)	106

그림 III-12.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나는 정신적으로 건강하다(전체)	107
그림 III-13. 치료가 필요한 질병 유형(복수응답)(전체)	109
그림 III-14. 흡연 경험(전체)	110
그림 III-15. 음주 경험(전체)	112
그림 III-16. 자아존중감(전체)	114
그림 III-17. 회복탄력성(전체)	115
그림 III-18. 최근 12개월 동안의 우울감 경험(전체)	117
그림 III-19. 사회적 고립감(전체)	119
그림 III-20. 최근 12개월 동안의 자살 생각 유무 및 이유(전체)	120
그림 III-21. 현재 일(아르바이트) 여부(전체)	124
그림 III-22. 일(아르바이트) 이유(복수응답)(전체)	126
그림 III-23. 구직 시 어려움(복수응답)(전체)	127
그림 III-24. 경제 상황(저축)(전체)	128
그림 III-25. 경제 상황(빚)(전체)	130
그림 III-26. 월 평균 수입(전체)	131
그림 III-27. 수입의 출처(복수응답)(전체)	133
그림 III-28. 현재 부모님(보호자) 태도: 나와 주기적으로 연락을 한다(전체)	136
그림 III-29. 현재 부모님(보호자) 태도: 나의 생활에 필요한 비용(용돈, 공부 등)을 대고 있다(전체)	138
그림 III-30. 도움 요청 대상(믿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전체)	139
그림 III-31. 지원시설 이용 여부 및 도움 정도(전체)	140
그림 III-32. 가정 밖 생활 시작 연령 평균(전체)	144
그림 III-33. 가정 밖 생활 기간(전체)	145
그림 III-34. 집을 나오게 된 이유(1+2순위)(전체)	147
그림 III-35. 자립에 대한 의지(전체)	151
그림 IV-1. 가정·학교 밖 이중 취약 청소년 연구 참여(면접조사) 대상자 개요	176
그림 IV-2. 가정·학교 밖 이중 취약 청소년 면접조사지 개발 및 면접 착수 과정	177
그림 IV-3. 가정·학교 밖 이중 취약 청소년 면접조사 자료분석 단계 개요	184
그림 IV-4. 가정과 학교를 떠나는 과정 도식	249
그림 V-1. The Locus for Focus 모델	257

그림 V-2.	가정 밖,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복지정책 요구도의 The Locus for Focus 모형	269
그림 V-3.	가정·학교 밖 청소년 대상 복지서비스 요구도의 The Locus for Focus 모형	271
그림 V-4.	현장실무자 FGI 결과 분석 방법	279
그림 VI-1.	연구내용 및 방법, 절차	307
그림 VI-2.	정책영역 및 추진과제	312
그림 VI-3.	학교생활의 어려움, 가족 갈등, 가정 밖 결정까지의 과정	316
그림 VI-4.	가정·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예시	317
그림 VI-5.	느슨한 컴퍼니 홍보 및 니트컴퍼니 홈페이지	322
그림 VI-6.	가정 밖 청소년의 단계별 진로설계 및 진로준비 과정 예시	326

○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 연구 내용
- 3. 연구 방법
- 4. 연구추진체계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는 가정과 학교에서 동시에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함에 따라 가정과 학교 밖이라는 이중 취약(double vulnerabilities) 상황에 처한 청소년에 주목하였다. 실제로 가정 밖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중 일부는 가정과 학교 양쪽 모두에서 소외된 이중 취약 청소년으로, 이들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정과 학교 체계 모두에서 벗어나 있어 더욱 집중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가정 밖 청소년은 가출 및 가정 내 폭력·학대, 빈곤 등의 이유로 가정에서 생활할 수 없는 사회적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대상이며,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부적응, 또래와의 문제, 심리적 사유, 자신만의 진로 목표 등 다양한 이유로 자발적, 비자발적으로 정규 제도권 교육을 중도에 그만둠에 따라 학교 교육을 중요시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대상이다. 이 두 집단의 청소년들은 과거 일탈 청소년, 비행 청소년, 중도탈락학생 등으로 불리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점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대상으로 인식이 전환되면서 가정 밖 청소년은 청소년쉼터,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를 중심으로 각각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해 지원받고 있다.

가정 밖 청소년 지원의 최일선에 있는 청소년쉼터는 이들이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지원하는 시설로(여성가족부, 2024b), 2018년 청소년쉼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가정 밖 청소년의 46.9%가 학교 밖 청소년이었다(김희진, 백혜정, 김은정, 2018). 2020년의 청소년쉼터 입소 청소년 및 종사자 실태조사연구에서는 32.7%가 학교 밖 청소년이었으며(손재환, 김범구, 한유화, 김세진, 2020),

1) 이 장은 김희진 선임연구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다.

가정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장 최근에 수행된 한 연구에서 학생 청소년은 74.5%, 학교 밖 청소년은 25.5%였다(김범구, 김수영, 진영선, 김민정, 조은실, 2023a). 이렇게 청소년 보호시설 내 학교 밖 청소년의 비중이 감소하였으나, 이들은 여전히 청소년쉼터 내에서 가장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는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실시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서도 어느 정도 확인된다. 이 조사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생활 및 진로 준비과정 등에서 가족 및 부모의 지원과 지지 정도에 따른 격차가 매우 컸는데, 청소년쉼터 소속의 학교 밖 청소년들은 부모의 지지나 지원, 심리정서적 측면과 진로준비 등에서 다른 기관 소속/이용 학교 밖 청소년보다 더욱 부정적인 결과를 보였다(김희진, 임희진, 김정숙, 2023b). 즉, 학교 밖 청소년 중에서 가정 밖 청소년은 안정적인 생활 기반과 또래 청소년에게는 당연하게 보장된 가정의 보호와 지원을 전혀 기대할 수 없으며, 한편으로 가정 밖 청소년 중에서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은 학교를 통한 다양한 교육지원과 진로지원, 소속감, 교사와 같은 의미있는 성인과 관계 및 또래 교류 등에서의 부재까지 경험할 수 있다. 결국 가정·학교 밖 청소년들은 부모와 학교로부터의 지원에서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혼자 힘으로 자신의 삶을 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중적 또는 다중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매우 취약한 상황에 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가정 밖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각각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다수 수행되었으나, 이렇게 가정 밖과 학교 밖이라는 이중 취약성에 노출된 청소년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례로 최재광 외(2023)의 연구에서는 두 대상 집단을 한 연구에 포함하였으나 집단별로 연구를 수행하였고 위기청소년으로 묶어 결과를 도출하였다(최재광, 한지현, 이유경, 송원영, 2023). 청소년들이 집을 나오고 또 그 전후로 학교까지 그만두는 일련의 과정과 이후 경험, 그리고 어떻게 성인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²⁾ 이는 장기적으로 가정과 학교의 지원과 보호를 받지 못한 청소년들이 안정적인 심리정서적 지지와 지원, 체계적인 진로준비 없이 진입장벽이 낮은 일들을 경험하며 성인기로 이행할 것으로 우려됨에도 이에 대해 심층적인 이해가 부족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바로 이 점이 가정과 학교 밖의 이중 취약 청소년에 대해 본격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2) 일부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질적 연구와 실태조사에서 청소년쉼터에 소속되어 있는 소수의 비재학 청소년들이 향후 생활, 심리정서적 차원에서 더욱 어려움을 경험하였고 또 진로와 관련하여 더욱 막막한 상태가 포착되면서(김희진, 장근영, 이동훈, 윤철경, 2020; 김희진, 조혜영, 한지형, 2023a; 김희진, 임희진, 김정숙, 2023b), 가정과 학교 모두에서 벗어나 있는 청소년을 본격적으로,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을 조명하였다.

보여주는 이유이며, 이 연구의 출발이기도 하다.

상술한 바와 같이, 가정 밖 상황과 학교 밖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청소년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각각 지원받고 있고, 검정고시 준비 등 필요시 연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의식주 보장과 검정고시 준비를 넘어서 이러한 이중 취약성을 전제로 한 더욱 집중적인 보호 및 지원, 특히 진로 탐색 및 준비 등 실질적인 진로설계를 위한 지원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제공되고 있는 지원 현황을 살펴보고 가정과 학교의 지원을 받는 또래 청소년에 비해 이들에게 더욱 부족할 수 있는 지원에 대해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현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으며,³⁾ 같은 맥락에서 또래와 달리 혼자 힘으로 성인기 삶을 준비해야 하는 매우 취약한 집단으로서 가정과 학교에서 동시에 벗어나 있는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관심과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대상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가정과 학교의 보호와 지원에서 모두 배제되면서 이중적으로 취약한 상황의 청소년들을 가정·학교 밖 청소년으로 통칭하고, 이들이 경험하는 생활 실태 및 다면적 어려움 등에 대한 본격적인 실태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이에 기반하여 가정·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일차적으로 요구되는 생활기반 조성⁴⁾과 심리적 지원, 검정고시 준비 지원을 넘어서, 향후 안정적인 성인기 삶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지원 요구를 도출하고 이들의 특수한 상황과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궁극적으로, 가정·학교 밖 이중 취약 청소년의 생활실태 분석을 통한 근거 기반(evidence-based) 정책 마련에 토대가 되어,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정책 대상자로서의 가정·학교 밖 청소년을 조명하고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며, 향후 이들의 사회적 고립이나 진입장벽이 낮은 한정적인 취업 우려 등에서 벗어나 건강한 성인기 이행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3)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40075>에서 2023.04.25. 인출)

2. 연구 내용

1) 가정·학교 밖 청소년의 이중 취약에 대한 이해와 지원 현황 검토

가정과 학교로부터 동시에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함에 따라 경험하는 다양한 어려움과 취약성을 이해하고, 이들과 관련된 지원 현황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가정 밖과 학교 밖을 모두 경험하고 있는 이중 취약 청소년으로서의 가정·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조작적 정의하고, 선행연구 및 이론적 고찰을 통해 이들이 처한 이중적 취약성, 또 그로 인해 경험하는 다면적 어려움과 불리함 등을 조명하였다. 그리고 유관 법제도 및 현재 가정 밖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이 현장에서 지원받고 있는 수혜 내용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위한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2) 가정·학교 밖 청소년의 경험 및 생활 실태와 지원 요구 파악

가정과 학교 모두로부터의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이중으로 취약한 상황에서의 생활실태와 경험, 어려움, 심리사회적·신체적 건강 상태, 향후 진로 계획, 지원 요구 등을 파악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청소년쉼터의 모든 가정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통해 학교 재학 여부에 따른 심리정서적 상태와 진로 계획 및 준비, 지원 요구 등에 있어서의 차이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가정·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이중 취약성을 조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가정 밖 상황에서의 학생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있어서의 함의도 모색하였다. 또한, 가정·학교 밖 이중 취약 청소년 대상의 개별심층면접조사를 통해 더욱 심층적으로 가정·학교 밖 생활에 따른 애로 사항과 가정 밖 및 학교 밖 상황에 이르게 된 과정과 배경,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지원 함의를 탐색하였다.

3) 전문가 및 현장실무자를 통한 가정·학교 밖 청소년 이슈 탐색 및 지원 방안 모색

취약·위기 청소년 분야의 학계, 현장전문가와 실무자들을 통해 가정·학교 밖 청소년 관련 이슈들을 탐색하고 이에 기초한 지원 방안 모색에 참고하였다. 학계,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가 의견조사를 두 차례 실시함으로써 가정 밖이면서 동시에 학교 밖인 청소년들의 실태와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 및 필요한 지원, 지원 우선순위와 개선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청소년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가정 밖/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현장실무자 대상으로 FGI를 실시함으로써 현장에서 직면하는 이중 취약 청소년들의 애로사항과 필요 지원 등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의견들을 수렴하여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였다.

4) 가정·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안 도출

선행연구 고찰, 관련 지원체계 검토 및 분석, 가정 밖 학생·학교 밖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및 가정·학교 밖 청소년 면접조사, 전문가 의견조사, 현장실무자 FGI 결과 분석,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논의된 내용들을 종합하여 이에 기반한 지원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통해 파악된 가정·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태와 현안, 지원 우선순위, 현 지원체계에서의 개선 사항 등에 기초하여 가정·학교 밖 이중 취약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인기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차원의 지원 방안들을 도출하였다.

3. 연구 방법

1) 문헌연구

본 연구의 대상인 가정·학교 밖 이중 취약 청소년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포함하여 이론적 고찰을 수행하고, 가정과 학교에서 동시에 벗어나 있는 청소년에 대한 현황자료가 부재함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과 특성, 이들을 지원하고 있는 정책 현황을 개별적으로 살펴보고 가정·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문헌연구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 대상의 설문조사 조사표와 면접조사를 위한 면접지를 개발하였으며, 이외에 전문가 의견조사지 개발 등에도 참고하였다.

2) 전문가 자문 및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취약·위기 청소년 분야 학계 전문가와 청소년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관계기관 현장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연구내용과 연구방법에 대해 자문을 실시하였다. 이후 청소년쉼터의 가정 밖 학생·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등 관계기관의 회장단, 실무자, 전국 각 지역 이사진(쉼터 소장)을 대상

으로 자문 및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전국의 청소년쉼터에 소속된 청소년들을 접촉하여 조사에 성공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과 조사 방법을 논의하였다.

횟수	자문영역(내용)	자문진	일정
1	• 연구내용, 조사설계, 조사 내용 및 방법 자문	학계/현장전문가	5/17
3	• 설문조사지(안) 검토를 위한 전문가 서면 자문 실시	학계/현장전문가	6/17~24
4	•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내용과 방법을 위한 자문	현장전문가	7/12
5	• 전문가 의견조사 내용 검토와 실사 방안 모색을 위한 자문 및 간담회 개최	현장전문가	8/5
6	• 기관담당자 조사 및 실사 방안 모색을 위한 자문	현장전문가	8/14

3) 가정 밖 학생·학교 밖 청소년 설문조사

전국 140개의 청소년 이동/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이 용하고 있거나 소속되어 있는 가정 밖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기간과 조사 참여가 가능한 청소년의 규모 등에 대한 현장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현실적인 조사 표본 수는 450여명으로 결정하였다. 주요 조사 내용은 가정 밖 청소년의 신체적, 심리사회적 건강, 학교재학 여부에 따른 관련 경험, 진로준비 및 경험, 아르바이트/취업, 경제적 상황, 지원체계, 가정 밖 경험 등에 관한 것으로 조사 결과는 학교재학 여부(학교 밖 경험 유무)에 따라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기술통계분석을 위해 교차분석(Chi-squared test), t-검정과 일원분산분석(ANOVA) 등을 활용하였고, 심화분석을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주요 요소	내용
모집단	전국 140개 청소년쉼터(이동, 일시, 단기, 중장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 가정 밖 청소년
표집 틀	상기 시설에 이용/등록된 청소년 중 중·고등학교 학령기 연령대 청소년
표본 수	450명을 목표 표본으로 함
표집 방법	성별과 지역별 할당 표집
조사 방법	기관방문을 통한 설문조사 및 유치/우편조사
자료수집방법	조사표 활용 조사(PAPI)
조사 시기	2024년 9월~10월

이를 위해, 먼저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기관의 현황 (이용 청소년 수, 지원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적으로 조사 대상자 현황 파악과 대상자 섭외를 위한 것이었으나, 아울러 현 가정 밖 상황에서의 학생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현황, 지원대상 발굴 경로, 주요 지원 내용, 필요 지원 등에 대해서도 간단한 웹/모바일 조사를 실시하였다.

4) 가정·학교 밖 청소년 심층면접조사(In-depth interview)

설문조사와 같은 양적 연구방법을 통한 연구결과를 상호보완하고 가정·학교 밖 청소년의 생활과 심리정서적 상태, 진로관련 경험, 애로사항과 지원 요구 등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질적연구방법의 일환으로 개별 심층면접조사(In-depth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와 마찬가지로 전국의 이동/일시, 단기, 중장기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이용하고 있거나 소속되어 있는 청소년 중 현재 가정과 학교를 동시에 그만둔 만 14~18세 청소년 1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하였다. 또한 이들 청소년쉼터와 관계기관을 이용하거나 소속되어 있는 청소년, 또는 이들 기관담당자들로부터 사례관리를 받고 있는 만 19~24세 청소년 5명에 대해서도 면접을 실시하였다. 이제 성인기 이행기에 있는 20세 전후의 청소년들을 면접하고자 한 이유는 이들이 과거 가정 밖, 학교 밖 경험을 어떻게 회상하고 있으며 현재 어떠한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을 경험하고 있는지, 또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소년쉼터 현장전문가들의 자문의견을 반영하였다.

주요 요소	내용
면담참여자 섭외과정	• 전국의 청소년쉼터 기관담당자를 통해 기준(면접참여자 특성 참조)에 부합하는 청소년 추천 및 섭외(성별×지역×연령대 고려) 진행
면담참여자 수	• 15명(만 14~18세 청소년 10명, 만 19~24세 청소년 5명)
면담참여자 특성 개요	• 현재 가정과 학교를 동시에 그만둔 만 14~18세의 가정·학교 밖 청소년, 과거 가정과 학교를 동시에 그만둔 경험이 있는 만 19~24세 청소년
면담방식	• 반구조화된 면접조사지를 활용하여 개별 심층면담 진행 • 청소년들의 여건과 선호에 따라 온라인화상(Zoom)/오프라인 방식 면담 병행
면담시간/횟수	• 각 60분 내외/ 1회
면담자료 기록/ 녹취 여부	• 분석을 위해 면접결과 녹취 및 자료 전사
면담자	• 연구진(원내 연구진, 질적연구전문가인 외부 공동연구원), 관련 전공의 석사 면접원

5) 전문가 의견조사

취약·위기 청소년 분야의 학계 및 현장의 전문가 15명을 대상으로 가정·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된 문제와 애로사항, 지원 필요 사항 등에 대해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조사에서는 개방형 질문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가정·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문제들과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 등에 대해 파악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2차 조사지를 개발하였고, 정량조사 방식을 통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들의 시급성과 정책지원 우선순위 등을 체계적으로 도출하고자 하였다.

주요 요소	내용
조사 대상	• 가정 밖, 학교 밖 청소년 유관 분야 학계 및 현장전문가 15명 내외
선정 방법	• 목적적 표본추출(purposeful sampling)
조사 내용	• 가정·학교 밖 청소년의 이중 취약 측면 및 우선 지원과제 등 도출을 위한 의견 수렴 • 지원을 위한 정책 제언, 향후 지원 방향성 설정, 우선 지원과제 등에 대한 의견 수렴
조사 방법	• 1차 조사 후 2차 조사 실시(웹조사 방식)
조사 시기	• 2024년 10월

6) 현장실무자 FGI(초점집단인터뷰) 실시

가정·학교 밖 청소년을 현장에서 지원하는 청소년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FGI, Focus group Interview)을 실시하였다. 전국에 위치한 각 시설을 지역별로 안배하여 참여자를 선정함에 따라, 물리적 원거리 특성을 고려하여 줌(Zoom)을 활용한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직면하는 가정·학교 밖 청소년의 실태와 애로사항, 지원에서의 어려움 등을 파악하여 정책제안 도출에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주요 요소	청소년쉼터 실무자 FGI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FGI
면담참여자 섭외과정	• 전국의 청소년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중 지역 안배를 통해 해당 센터로부터 일정 수준의 현장 경력을 가진 실무자 추천	
면담참여자 수	• 청소년쉼터 실무자 5명	• 시도/시군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실무자 6명
면담참여자 특성 개요	• 종사경력 2년 이상의 팀장급 실무자 중심 (기관별 담당자 수가 매우 적음에 따라 필요시 센터장 포함)	
면담방식	• 온라인 화상 집단면접	• 온라인 화상 집단면접
면담 시간 및 횟수	• 1회 당 70~90분 소요, 총 2개 집단임에 따라 2회에 걸쳐 실시	
면담자료 기록/녹취 여부	• 녹취 후 전사	
면담자	• 연구진	

7) 기타 연구방법

○ 워크숍 개최

횟수	주요 내용	자문진	일정
1	설문조사지 개발 전문가 워크숍 개최	학계/현장전문가, 연구진, 조사 위탁기관 관계자	6/7
2	심층면접조사 관계자 워크숍 개최	질적연구전문가, 연구진, 외부면접원, 조사위탁기관 관계자	8/14
3	가정·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개최	학계/현장전문가, 연구진	11/25

○ 정책연구실무협의회

횟수	주요 내용	참석공무원 부처(과)	개최시기
1	가정 밖 청소년 실사 논의 및 설문조사 내용 의견 수렴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9월
2	이중/다중 취약 학교 밖 청소년 조사 결과 공유 및 합의 논의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11월
3	연구결과 공유 및 정책적 합의 논의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12월

8)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

가정 밖 학생·학교 밖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위해 조사 과정 및 조사 내용(설문 조사지, 면접 조사지)과 본 조사에 대한 설명문 및 연구참여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에 대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승인(IRB 승인번호: 202408-HR-연개금-001)을 받았다. 전문가 의견조사와 현장 실무자 FGI, 기관담당자 조사는 성인인 학계/현장전문가 및 현장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정책 현황 및 지원 요구 등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으로, 공공에 미치는 위험이 미미하고 개인의 식별정보 등을 수집하지 않음에 따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 심의면제를 받은 후 연구를 수행하였다.

4. 연구추진체계

본 연구의 내용 및 방법을 정리한 본 연구의 추진체계 및 연구 과정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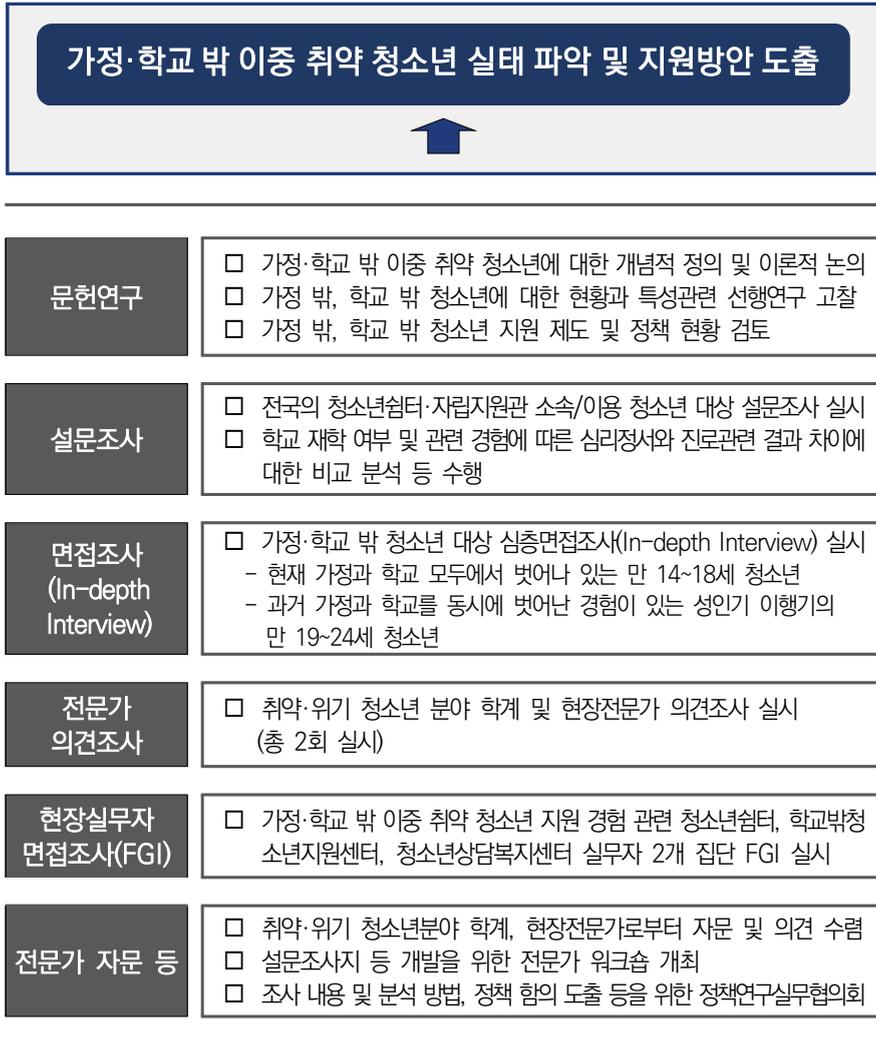


그림 1-1. 연구추진체계



제2장 연구의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 1. 가정·학교 밖 이중 취약 청소년에 대한 논의
- 2. 가정 밖·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특성
- 3. 가정 밖·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현황과 함의

1. 가정·학교 밖 이중 취약 청소년에 대한 논의

1) 연구 대상으로서의 가정·학교 밖 청소년

본 연구는 가정과 학교 모두에서 벗어나 있음에 따라, 생존을 위해 본질적으로 필수적인 요소인 가정과 현대사회 구성원으로 성장·발달하는데 있어 그다음으로 중요한 체계로 인식되는 학교로부터 동시에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가정 밖과 학교 밖이라는 이중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을 가정·학교 밖 청소년으로 통칭하고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가정·학교 밖 청소년은 가정 밖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의 교집합 성격의 집단으로(그림 II-1), 이들 각각의 특성을 공통으로 갖게 됨에 따라 여기에서는 가정 밖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각각에 대해서, 그리고 두 체계로부터 모두 벗어난 상황의 이중 취약 청소년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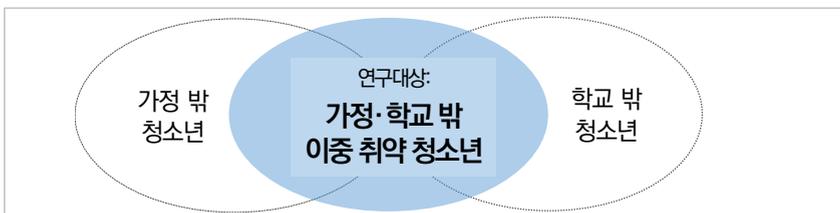


그림 II-1. 연구대상: 가정·학교 밖 이중 취약 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논의는 법률적 정의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르면, 5) “가정 밖 청소년이란 가정 내 갈등·학대·폭력·방임, 가정해체, 가출

4) 1절과 2절의 2)는 김희진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절의 1), 3절의 1)과 2)는 김범구 소장(서울시립청소년이동쉼터)이, 3절의 3)은 공동 집필하였다.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청소년이 원가정 안에서의 폭력이나 학대 피해를 포함한 다양한 이유 때문에 더 이상 가정에서 생활하지 못하고 집을 나온 청소년들로, 과거에는 보통 가출청소년으로 불렸다. 그러나, ‘가출’이라는 단어가 개인의 일탈을 먼저 떠올리게 하는 등 부정적인 낙인 효과를 불러올 뿐 아니라, 가정폭력이나 학대 피해로 불가피하게 집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⁵⁾들을 고려하여, 2017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가출청소년’이라는 용어를 ‘가정 밖 청소년’으로 변경할 것으로 권고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2017: 15-17). 이후 본격적으로 관련 법률과 제도, 지원 현장에서 가정 밖 청소년이라는 단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일탈이나 비행에 연루되면서 집을 나오는 사례도 여전히 존재하고, 또 가정 밖 사유를 불문하고 가정 밖 상황에서 많은 위험에 노출됨에 따라 관련 실태조사(예,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나 지원제도에서는 “위기청소년”으로 간주하고 있다.

가정 밖 청소년을 과거 가출청소년으로 지칭했던 것처럼, 학교 밖 청소년 역시 학업중단자, 중도탈락학생, 중퇴자 등으로 불렸다. 이는 마치 학교 교육 부적응이나 일탈 등의 개인적 문제행동을 이유로 비자발적으로 학교를 그만둔 집단으로 여겨질 수 있는 충분히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이다(김희진 외, 2020). 그러나, 이 역시 부정적 낙인 효과에 대한 우려와 실제 학교를 그만두는 많은 청소년이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하거나, 또는 다른 진로 계획으로 인한 자발성이 다수 관찰되면서 2014년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학교 밖 청소년이란 명칭이 범용되고 있다. 그리고 이 법률상에서의 학교 밖 청소년은⁷⁾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의 초등학교·중학교 등의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역시 동 법의 고등학교나 동일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제적·퇴학 처분·자퇴 상태이거나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으로 일반적인 제도권 공교육을 받고 있지 않은 상태의 집단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 역시 가정 밖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위기청소년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는 실제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5) 출처: 청소년복지지원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main.html>에서 2024년 5월 22일 인출.

6) 최근 위기청소년 대상의 대규모 실태조사에서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이 집을 나오게 된 주요 이유는 부모님, 형제·자매 등 가족과의 갈등(70.6%), 가족의 폭력(49.4%)이었다(황여정, 임희진, 정은주, 유설희, 정윤미, 2022).

7) 출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main.html>에서 2024년 5월 20일 인출.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⁸⁾을 의미하고 있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는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에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소속 청소년, 그리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용 청소년이 주요 조사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도 이를 방증한다.

만일 본 연구가 이렇게 가정 밖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나아가 이 두 집단의 교집합으로 볼 수 있는 가정·학교 밖 청소년을 위기청소년으로 보는 관점으로 출발하였다면 본 연구는 가정 밖과 학교 밖 상황에 대한 이중 위기(double jeopardy)에 더 초점을 두고,⁹⁾ 이들의 위기 행동과 태도, 문제 등에 더 주목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일면 유사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가정과 학교에서 동시에 벗어나 있는 상황을, 이중 취약 또는 이중 불리함으로(double vulnerabilities, double disadvantages) 전제하고¹⁰⁾ 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 애로사항을 조망하고 이를 더욱 보완하여 지원할 방법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가정·학교 밖 청소년 중에는 엄밀하게 아동양육시설과 가정위탁보호 상태에서 정규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청소년도 해당된다. 다만, 이렇게 대안양육체계의 경우 양육과 보호, 지원뿐 아니라 자립에 이르기까지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쉼터 이용/소속 청소년 중심의 본 연구 대상과는 구분됨에 따라 본 연구의 범위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과거에는 가정 밖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 및 개입의 목적이 주로 가정 밖 청소년은 가정 복귀, 또 학교 밖 청소년은 복교에 초점이 있었다. 그러나, 점차 국가와 사회의 직접 개입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방식으로 지원 방향성이 변화되면서, 더욱 본격적인 국가 및 지방정부의 지원이 확대된 것은 바람직한 추세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더해 더욱 다양한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러한 특수상황의 청소년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뒤따를 필요가 있다.

8) 출처: 청소년복지지원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main.htm>에서 2024년 5월 22일 인출.

9) 서구의 아동발달과 관련된 가장 최근의 'double jeopardy' 연구는 가족의 낮은 소득과 부정적 정서(스트레스)라는 이중 위험이 아동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는데(Sengül-İnal, Borgen, Dearing & Zachrisson, 2024), 이외에 이중 위기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유사하게 아동·청소년 발달에 있어 이중 위험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찾아볼 수 있다(예, Ackerman, Kogos, Youngstrom, Schoff, & IZard, 1999; Evans & De France, 2022; Shaw, Keenan, Vondra, Delliquardi, & Giovannelli, 1997). 국내의 청소년연구에서도 위기 중복지 유형 탐색이나(김형수, 최한나, 2009) 가정과 학교로부터의 중복 폭력 피해가 가출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연구들이 발표되었다(김재엽, 김준범, 장용언, 한기주, 2016 등).

10) 즉, 가정 밖과 학교 밖 상태를 위험이나 위기 자체로 인식하여 접근하기보다, 가정과 학교의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함에 따른 취약성과 불리함으로 인해 이후 위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관점으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2) 가정·학교 밖 청소년의 이중 취약성에 대한 논의

가정과 학교는 아동 및 청소년 발달에 있어서 가장 밀접하면서도 중요한 체계로 간주되지만, 가정·학교 밖 청소년에게 이 두 가지 주요 환경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잘 알려진 브론펜브레너의 생태체계이론(Bronfenbrenner, 1981)을 적용하여, 가정과 학교라는 아동 및 청소년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요 미시체계와 가정과 학교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환경인 중간체계의 부재가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그림 II-2]의 도식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일례로, 가정 안에서 자녀의 특성, 심리사회적 환경(부모양육태도, 부모-자녀 상호관계, 정서적 지지 등)이 자녀 발달 성과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해도(Bronfenbrenner & Morris, 1998), 그것 역시 가정 밖에서는 애초에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학교 교육의 질과 수준의 중요성이 아무리 강조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학교 교육이 부재한 상태에서 이 역시 학교를 나온 청소년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결국 가정·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을 위한 지원은 이 두 체계 밖의 외체계나 거시체계의 역할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즉, 지역사회 내 청소년쉼터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나아가 이러한 기관들을 통해 충분한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관련 법률 및 정책, 제도가 가정·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게 하는 핵심 체계가 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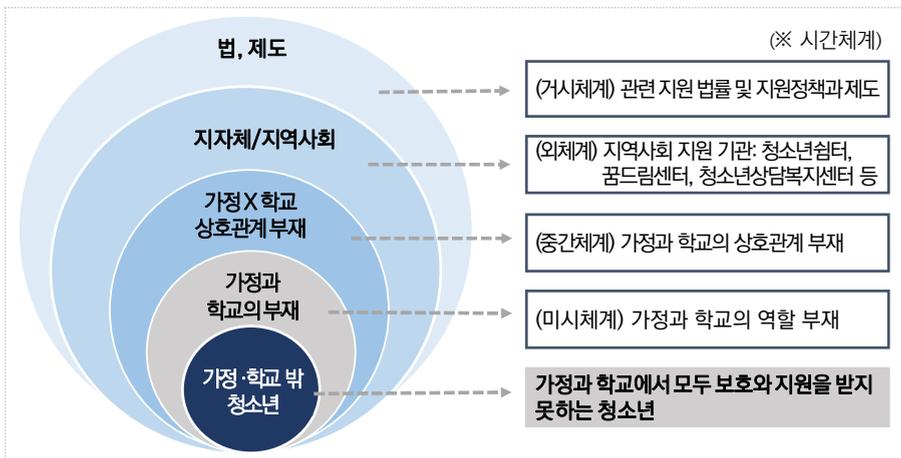


그림 II-2. 가정·학교 밖 청소년의 생태체계 도식 예시

여기에 시간체계까지 고려하면, 가정과 학교 밖의 경험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더욱 큰 변화(누적된 어려움, 취약성, 급속한 사회환경적 변화에의 적응 여부 등)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 역시 가정·학교 밖 청소년들의 성인기 삶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가정·학교 밖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주요 체계의 부재와 이에 따른 불리함 등은 이들에 대해 더욱 주목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집을 나온 이후나 집을 나오는 과정에서 학교를 그만두는 것에 대해 여러 추측이 가능하다. 가정폭력이나 학대로 집을 나오면서 자신의 거취를 부모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 학교를 그만둘 수도 있으며, 또 집을 나온 이후 경제적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면서 학교에 갈 시간이 없을 수도 있다. 한편으로는 학교를 그만둔 이유 때문에 갈등과 폭력을 경험하고 집을 나오는 사례도 있겠지만 이외에도 다양한 경우의 수는 매우 많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과정과 내용, 결과에 대해 실증적으로 밝혀진 바가 거의 없다.

드물게 가출청소년의 학업중단 영향 요인에 대해 살펴본 한 연구에서는 조사 대상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151개 표본의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는데, 가출청소년 중 과반수 이상인 53.6%가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조사되었다(김지혜, 안치민, 2006). 이외에, 가정 밖 청소년이나 현장실무자 대상의 연구 등에서 가정 밖인 동시에 학교 밖인 청소년들의 현황에 대해 일부 살펴볼 수 있다. 가정 밖 청소년 대상의 김희진 외(2018)의 연구에서는 전체 730명의 응답 청소년 중 학교에 다니는 비율이 53.1%로, 절반을 상회하였고, 46.9%는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이었다. 또한, 청소년쉼터 입소청소년 실태조사에서 전체 517명의 조사참여 청소년 중 재학청소년은 67.3%, 비재학청소년은 32.7%였으며, 동 조사에서 실시한 청소년쉼터 대상 조사에서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의 비율은 전체 20,239명의 초중고생 연령 입소자 중 39.8%로 조사되어 그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손재환 외, 2020). 가장 최근의 111개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대상 조사에서 재학 청소년은 74.5%, 학교 밖 청소년은 25.5%로 보고되면서(김범구 외, 2023a), 청소년쉼터의 가정 밖 청소년 중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선행연구들에서 조사한 가정 밖 청소년 중 학생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의 비중을 정리하면 <표 II-1>과 같다. 통계를 산출한 청소년의 연령대와 교급, 표본 수, 조사 시기 등의 차이로 절대 비교는 어렵지만, 적어도 가정 밖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에서의 학생 청소년의 비중은 증가하는 경향을 띠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1. 선행연구에서의 가정 밖 청소년 중 학생 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 비중

구분	가정 밖 청소년		표본 수 (청소년 또는 기관 수)	출처(연구자 및 기관)
	학생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청소년 대상 조사 ¹⁾	46.4%	53.6%	151명	김지혜·안치민(2006)
	53.1%	46.9%	730명	김희진 외(2018),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3%	32.7%	517명	손재환 외(2020),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79.5%	20.5%	541 ²⁾	황여정 외(2022), 여성가족부
기관 대상 조 사	39.8% ³⁾	-	20,239명 (116개 청소년쉼터)	손재환 외(2020),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74.5%	25.5%	111개 쉼터·자립지원관	김범구 외(2023a), 기아대책

주: 1) 조사 대상 청소년의 연령대, 학교급에 차이가 있음.

2) 황여정 외(2022)의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 보고서에서 조사 완료된 청소년쉼터의 청소년 표본 수는 575명이나,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https://mdis.kostat.go.kr/index.do>, 2024.09.09. 인출)를 통해 추출한 해당 변수 분석 사례 수는 541명으로 무응답 등의 차이에 따른 결과로 추정됨.

3) 2019년 기준, 초중고 학생 연령대의 청소년쉼터 입소자 중 학교에 다니는 재학생 비율(교육부 인가 대안학교 재학생 포함). 학교 밖 청소년 비율은 100% 기준 나머지만 60.2%로 추정이 가능하지만, 해당 자료에 따로 제시되지는 않음.

이러한 가정·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과 관련한 연구들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김지혜와 안치민의 연구(2006)에서는 가출청소년의 성별과 가출 기간, 교사와의 관계가 학교를 그만두는 유의미한 예측 변수로 나타났는데, 즉 성별이 남자이거나 가출 기간이 길수록, 또 교사와의 관계가 좋지 않을수록 정규학교를 그만둘 가능성이 컸다. 특히 가출 기간이 길수록 학교를 그만둘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지만, 연구 시점이 상당히 오래전이고 최근에는 중장기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과 같이 가출 기간이 긴 청소년을 위한 보호시설에서 학교 재학생이 더 많다는 보고를 고려할 때, 이에 대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¹¹⁾

가정 밖 청소년 대상의 연구에서 일부 조사 항목에 대해 학교 재학 및 비재학 여부에 따른 비교, 분석을 시도하였는데, 특히 직업 및 진로관련 활동 참여 경험에서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의 참여 경험률이 60.4%, 비재학인 청소년이 51.2%로 나타나 재학 중인 청소년들이 관련 경험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희진 외, 2018). 또한, 향후 3년 이내 진로계획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재학 중인 청소년의 상급학교 진학에 대한 응답률이

11)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개최한 청소년쉼터의 현장전문가 회의, 간담회 등에서 논의되었으며, 실증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38.2%, 취업이 46.5%로 나타난 것에 비해, 비재학 청소년은 각각 25.4%, 49.8%로 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에 비해 취업을 더 많이 계획하고 있었다(김희진 외, 2018).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지원서비스 중에서 학업 및 학력 취득 지원서비스에 대해 비재학청소년의 지원 수요가 더 높았는데(김희진 외, 2018), 이는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더라도 관련된 지원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있을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며, 복교나 검정고시 준비 등을 위한 학업지원의 필요성을 조명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쉼터 입소청소년 실태조사의 심층면접조사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대부분 학교에 재학 중이었는데, 등교 이후 급식 시간이 지나면 다시 거리로 나와 배회하기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며 지내고 있었다(손재환 외, 2020). 이들은 학교에 적을 두고 있으면서 다른 학생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급식과 학교 상담서비스 등 학교의 지원을 받고 있었지만, 사실상 다른 차원의 학교생활을 하고 있어 더욱 관심이 필요해 보이는 대상임을 시사하였다. 즉, 위의 <표 II-1>에서 가정 밖 청소년 중 학교에 재학 중으로 보고되는 청소년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경향을 보이지만, 이들이 어떻게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이외에, 대규모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서 청소년쉼터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함에 따라, 다른 기관 소속/이용 학교 밖 청소년과의 비교 결과를 살펴볼 수 있다. 일례로, 가장 최근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김희진 외, 2023b), 청소년단기쉼터의 학교 밖 청소년은 다른 학교 밖 청소년에 비해 자아존중감과 회복탄력성은 낮았고, 우울감 경험률과 자살생각률 등은 매우 높았으며, 현재 특별히 하는 일이 없다는 응답도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다. 또한 진로확신성 역시 매우 낮았으며, 진로미결정 비율도 다른 기관의 청소년에 비해 훨씬 더 높은 결과를 보였다(김희진 외, 2023b).

마찬가지로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의 질적 중단 연구에서 청소년쉼터의 청소년들이 면접조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가정과 학교에서 모두 이탈되면서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한 청소년 사례들이 일부 관찰되었다. 가정폭력과 학대 피해로 집을 나온 상태에서 학교 교직원들과의 갈등과 다툼으로 학교를 그만둔 극단적인 청소년 사례도 있었으며, 반대로 고등학교 진학문제나 학교를 그만두는 문제로 인한 갈등과 가정폭력으로 집을 나온 사례도 있었다(김희진 외, 2020; 김희진, 서고운, 김은정, 2021b). 또 청소년이 희망하는 진로 관심사와는 무관한 어머니의 진로에 대한 과도한 요구와 개입으로 학교와 집을 나와 청소년쉼터에 거주하기도 하였고 심지어 아르바이트를 통한 수입까지 어머니에게 뺏기고 집을 나와

지인과 자취 생활을 하는 사례도 있었다(김희진, 조혜영, 한지형, 2023a).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 자녀와 그의 어머니로부터 수집된 종단자료를 분석한 한 해의 연구에서, 가출청소년은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학교를 높게 평가하였으나, 어머니는 자녀가 학교를 더 자주 옮겼고 유급도 많았으며, 학교생활 경험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였다(Rafferty, Shinn, Weitzman, 2004). 또한 이들 청소년은 대학 진학 등에 대한 계획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afferty, et al., 2004).

가출청소년의 취약성에 주목한 또 다른 한 질적 연구는 17세 청소년이 경험한 학교와 가정에서의 고통과 취약성을 잘 조명해 주었다(Robinson, 2023). 이 연구에서 Viviana라는 이름의 청소년은 누적된 트라우마와 학교 및 집에서의 갈등으로 점차 압박이 증가한 상태였는데, 어머니의 학대로 두 차례 집을 나왔으며, 고등학교 재학 중에 자살을 시도하는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경험하였다(Robinson, 2023). Issy라는 이름의 16세 청소년은 학교에서 자살을 시도한 후 병원에서 퇴원하고 청소년쉼터로 되돌아갔고, 더 이상 학교에 갈 수 없었는데 이러한 일련의 경험이 매우 힘들었음을 보고하였다(Robinson, 2023).

학교 밖 청소년 연구나 가정 밖 청소년 연구, 또는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드물게 발견되는 이러한 사례들은 가정폭력 및 학대, 또는 부모와의 갈등으로 청소년 발달의 가장 기본 체계인 가정에서 이탈하게 된 청소년은 대부분 등교도 어려워지면서 학교를 그만두게 되는 과정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제한된 사례에서 확인된 것으로, 보다 광범위한 연구를 통해 더욱 실증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위의 질적 연구에서(예, 김희진 외, 2020, 김희진 외 2023a 등), 청소년쉼터에 있는 청소년 중 학력 취득을 원하는 사례들은 청소년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검정고시 준비 지원을 받았고, 또 청소년쉼터에서 다시 학교로 복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원을 받고 있는지와 함께, 이들의 지원 요구에 따른 지원 방향성과 그 내용에 대해 본격적으로 탐색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가정 밖·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특성

전술한 바와 같이 가정 밖과 학교 밖 상황을 모두 경험한 청소년에 초점을 둔 연구가 제한적임에 따라, 가정·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과 특성을 상세히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나 가정 밖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각각의 특성과 현황 파악이 선행된다면, 가정·학교 밖 이중 취약에 이해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1) 가정 밖 청소년 현황 및 특성

(1) 가정 밖 청소년의 현황

가정 밖 청소년은 2021년 이전에는 ‘가출청소년’으로 쓰이다가 청소년복지지원법의 개정으로 ‘가정 밖 청소년’으로의 명칭 변경이 이루어졌다.¹²⁾ 명칭 변경 전의 가출 청소년에 대해 이지현과 오제은(2013: 52)은 “일반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으로서 자신이 가족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해 자의로 선택하여 가족에서 이탈한 후 48시간 이상이 경과된 자”로 정의하였다. 최은진(2010: 328)은 “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은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24시간 이상 집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가족의 보호에서 벗어나 다른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상태”로 정의하였다. 또한 미국에서는 가출청소년을 “18세 이하의 아동이나 청소년이 집을 나와 최소한 하룻밤 이상을 지낸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김향초, 2009: 16). 이를 종합하면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하루 또는 이틀 이상 집을 나와 있는 현상에 대한 의미로, 이는 가출 원인에 대한 고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집을 나와 귀가하지 않은 청소년으로 규정함으로써 가정폭력·학대 문제 등의 어려움을 겪으며 생존을 위해 집을 나올 수밖에 없는 청소년의 특성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가정 밖 청소년의 특성과 가출 및 재가출을 반복하고 가출 이후 자신이 생활하고 있는 거주 환경에 대한 노출을 거부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사례가 많은 것을 고려할 때, 가정 밖 청소년의 현황을 추산하는 것은 쉽지 않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김지경, 송현주, 김균희, 정윤미, 2022)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12)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인권위원회(2017)에서 ‘가출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용어를 변경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에 따라,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 5호에 가정 밖 청소년을 ‘가정 내 갈등·학대·폭력·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다.

가출경험률은 2.5%로 이중 남자 청소년은 2.9%, 여자 청소년은 2.0%이며, 학교급별로 초등학교는 2.0%, 중학교는 3.0%, 고등학교는 2.4%로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가출 현황이나 가정 밖 청소년 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 자료는 없지만, 경찰청의 실종아동 현황과 청소년의 가출 경험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대략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먼저 가장 최근의 2023년 자료에 따르면, 만 9~17세 실종아동은 23,425명으로 나타났는데, 이전 현황과 비교할 때, 인구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증가 경향을 보인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허민숙, 2024). 특히, 실종 접수된 14~15세 아동 수가 각각 4,759명과 4,593명으로, 일반적인 중학교 3학년~고등학교 1학년 학령기 연령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표 II-2).

표 II-2. 실종아동(9~17세) 현황

(단위: 명)

구 분	소계	9세	10세	11세	12세	13세	14세	15세	16세	17세
2019	19,010	417	462	582	1,167	2,887	3,975	3,682	3,128	2,710
2020	16,963	409	419	584	1,361	2,692	3,427	2,984	2,759	2,328
2021	19,463	429	471	687	1,491	3,143	4,003	3,565	3,120	2,554
2022	24,196	479	627	1,125	1,919	3,680	5,213	4,306	3,728	3,119
2023	23,425	407	512	896	2,035	3,642	4,759	4,593	3,599	2,982

* 출처: 허민숙 (2024). 가정 밖 청소년이 센터에 입소하지 못하는 이유: 청소년쉼터 입소 절차 입법개선 시급. p.2 발췌
 * 원자료 : 경찰청 제출자료(2024.5.25.)

그러나 경찰청에 접수된 실종아동 현황보다 실제 집을 나온 청소년의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에서의 청소년 가출 경험률 수치를 청소년 인구수에 적용하여 가정 밖 청소년 수를 추산하고 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의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의 가출 경험률을 조사 대상과 같은 연령대의 학령기 청소년 학생 수에 적용하여 추산한 결과는 <표 II-3>과 같다.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2023년 기준으로 2.7%의 가출 경험률을 전체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생 수에 적용한 결과, 약 10만명 수준의 가정 밖 청소년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허민숙, 2024).

표 II-3. 가출 경험 학생 현황

(단위: 명,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대상 학생 수	4,276,585	4,064,952	3,991,089	3,998,565	3,976,997	3,913,505
가출경험률	3.8	3.5	2.9	3.2	3.6	2.7
가출경험학생 수	162,510	142,273	115,742	127,954	143,172	105,665

* 출처: 허민숙 (2024). 가정 밖 청소년이 쉼터에 입소하지 못하는 이유: 청소년쉼터 입소 절차 입법개선 시급. p.3 발제
 * 원자료 : 통계청·여성가족부, 「2024 청소년 통계」, 2024.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8~2023)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교육통계서비스, 「교육통계연보-학년별 학급수 및 학생수」, 각 년도.

* 주 : 대상 학생 수는 초등학교 4~6학년, 중·고등학생의 수를 합산한 수임.

주목할 부분은 가정 밖 청소년이지만 다양한 이유로 청소년쉼터에 자발적·비자발적으로 입소하지 않아 정책 사각지대의 청소년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허민숙(2024)은 가정 밖 청소년의 5.5%만이 청소년쉼터에 입소하고 있다고 보고하면서, 보호대상인 청소년이 사회의 가장 근간인 가정과 보호시설인 청소년쉼터가 아닌 곳에서 생활해야 하는 상황은 생존을 위한 다양한 위험 요인(의식주 제공 및 일자리 제안 등을 통한 착취 등)에 노출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였다.

(2) 가정 밖 청소년의 유형

선행연구들을 통해 정리한 청소년이 집을 나오게 된 현재 상태와 가출 원인, 목적 등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는 <표 II-4>와 같다. 먼저 남미애(2008)는 청소년쉼터의 유형과 가정 밖 청소년의 현재 상태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였다. 일시쉼터의 경우 현재 가출한 상태이며 주로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형’, 집 바깥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집을 들락날락하는 ‘배회형’, 가출경험이 전혀 없지만 일시쉼터를 이용하는 ‘일반형’으로 분류하고, 단기·중장기쉼터에서는 가정 보호가 어려워 쉼터에서 생활하는 ‘해체가정형’, 현재 가출한 상태이며 가정은 있지만 되돌아가고 싶지 않은 유형을 ‘갈등가정형’으로 분류하였다(남미애, 2008).

유성경 외(2000)는 청소년의 개인환경과 특성, 또래관계, 가출목적, 가출의 지속성과 만성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유형화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부모의 갈등 혹은 가족 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출하는 ‘시위형’, 부모의 과도한 통제나 기대로부터 자유롭기 위한 일시적 피난 행위로써의 가출인 ‘도피형’, 가정 내 폭력을 피하기 위한

‘탈출형’, 가족 내의 갈등에서 야기되기보다는 학교나 가정으로부터 충족할 수 없는 자신의 성장욕구를 실현하기 위한 ‘탐험형’, 유희추구를 위한 ‘유희추구형’, 삶의 의미나 목적 의식을 상실함으로써 목적 없이 떠도는 유형인 ‘자아상실형’, 부모의 사망·이혼 등 가정이 파괴되거나 가정으로부터 버림받아 거리로 나온 ‘버려진 가출’로 구분하였다(유성경, 송수민, 이소래, 2000).

또한 쉼터의 유형에 따라 가출 유형을 나누기도 했는데, 일시쉼터 이용청소년 중 가족, 또는 사회와 약화된 유대 정도, 거리에 익숙한 수준에 따라 ‘노숙청소년’과 ‘배회청소년’으로 구분하거나(김지혜, 김기남, 박지영, 정경은, 2006a), 단기쉼터에서의 유형으로 그 가족기능의 수준에 따라 ‘갈등가정청소년’과 ‘해체가정청소년’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김지혜, 김기남, 박지영, 정경은, 조규필, 2006b). 홍봉선과 남미애(2007)는 가출목적에 따라 시위형, 유희형, 방랑형, 추방형, 생존형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가출을 통해 가족이나 주위 환경을 변화시킬 목적으로 가출하는 ‘시위형’, 놀고 싶은 마음이 가출의 주된 원인이 되는 ‘유희형’, 밖에서 생활하는 것이 좋아 배회하면서 살아가는 ‘방랑형’, 가족의 무관심이나 방임으로 인해 가족으로부터 떠밀려 나오는 ‘추방형’, 가족의 학대를 견디지 못해 생존을 위해 가출하는 ‘생존형’이다(홍봉선, 남미애, 2007).

표 II-4. 청소년의 가출 유형

청소년의 가출 유형	연구자
일시쉼터(노숙형, 배회형, 일반형) 단기·중장기(해체가정형, 갈등가정형)	남미애(2008)
시위형, 도피형, 탈출형, 탐험형, 유희추구형, 자아상실형, 버려진 가출	유성경, 송수민, 이소래(2000)
일시쉼터(노숙청소년, 배회청소년)	김지혜, 김기남, 박지영, 정경은(2006a)
단기쉼터(갈등가정청소년, 해체가정청소년)	김지혜, 김기남, 박지영, 정경은, 조규필(2006b)
시위형, 유희형, 방랑형, 추방형, 생존형	홍봉선, 남미애(2007)

이러한 유형 구분은 청소년의 현재 상태와 가출 원인, 목적 등에 따라 유형화하여 해당 유형과 타 유형 간의 차별성이 보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청소년 가출에 있어 다양한 변인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는 청소년들의 가출 원인에는 개인적 특성과 가정, 학교, 또래관계, 지역사회, 사회문화 등 복잡하고 다양한 원인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3) 가정 밖 청소년의 원인과 특성

청소년의 가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백혜정(2009)은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싫어서(37.9%), 나에 대한 부모님의 간섭이 심해서(35.4%), 공부가 부담되어서(33.8%) 순으로 보고하였다. 김희진 외의 연구(2018)에서는 가족들과 싸워서(49.7%), 가족의 폭력을 피하기 위해서(24.5%), 자유롭게 살거나 놀고 싶어서(9.9%) 순으로 나타났다. 손재환 외(2020)는 부모와의 갈등(60.7%), 부모 간의 갈등(15.8%), 우울·불안·스트레스(4.7%), 형제·자매 등 동기 간의 갈등(3.4%), 친척·조모 등 기타 가족과의 갈등(2.8%) 순으로 보고하였다(기타 응답은 7.9%).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에서는 <표 II-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모님·형제·자매 등 가족과의 갈등(70.6%), 부모님·형제·자매 등 가족의 폭력(49.4%), 자유롭게 살거나 놀고 싶어서(36.1%), 공부에 대한 부담감(9.2%), 가정형편이 어려워(7.3%) 순으로 나타났다(황여정 외, 2022).

표 II-5. 청소년쉼터 및 자립지원관 이용 위기청소년의 가출 이유(복수응답)

(단위: %)

집을 나오게 된 이유	비율
부모님, 형제·자매 등 가족과의 갈등 때문에(가족들과 싸워서)	70.6
부모님, 형제·자매 등 가족의 폭력을 피하기 위해	49.4
가정형편이 어려워(경제적 어려움)	7.3
선생님과의 갈등, 학교규칙 때문에 학교에 다니기 싫어서	5.1
왕따 등 학교폭력 때문에	4.9
공부에 대한 부담감때문에	9.2
친구/선후배가 집을 나가자고 해서	5.2
자유롭게 살고싶거나 놀고 싶어서	36.1
기타	3.7

* 출처: 황여정 외 (2022).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 p.59 재구성

* 주 : 가정 밖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함.

이외에도, 김범구 외(2023a)의 연구에서는 부모님과의 갈등이 68.2%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부모님 간의 갈등 8.9%, 우울·불안·스트레스 8.4%, 형제·자매 간의 갈등

3.9%,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3.4% 순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폭력을 행사하고 그걸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등 결국 가정 내 양육 체계의 부재와 무관심, 방임으로 이어지면서 가정 내에 머물기보다는 가정 밖으로 몰리게 되는 상황이 관찰되었다(김은정, 백혜정, 김희진, 2019).

청소년들의 가출 이전과 가출 이후의 삶의 궤적이 다름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들의 특성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가출 이전 특성과 관련해서 손재환 외의 연구(2020)에서는 함께 살았던 가족을 살펴본 결과, 친부모 33.1%, 한부모 32.7%, 재혼가정 16.8%, 조부모 4.8% 순이었다. 김범구 외의 연구(2023a)는 친부모 41.6%, 한부모 34.5%, 재혼가정 10.7%, 조부모 5.6% 순이었으며, 김정남, 박미랑의 연구(2020)에서는 34.4%만이 친부모와 생활했다고 보고하여 친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와 맥을 같이한 김지연, 정소연의 연구(2014)에서 가정을 이탈한 청소년들의 원가정 형태를 보면, 한부모 및 재구성 가족의 비율이 상당히 높고 경제적 상황도 좋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보고한 바 있다. 가정에서 겪었던 폭력 피해에 대해 황여정 외의 연구(2022)에서는 27.9%만이 폭력 피해가 없었다고 하였으며, 손재환 외의 연구(2020)에서는 부모(보호자)로부터 심한 욕설 등 폭언이 27.2%, 부모님으로부터 신체적 폭행이나 학대가 23.7%, 부모 간의 싸움이나 갈등이 20.7% 순이었으며, 김정남, 박미랑(2020)은 신체적 학대가 57.5%, 정서적 학대가 45.6%, 방임 경험이 45.6%로 보고하였다.

청소년의 가출 이후의 특성인 가출 시 연령·횟수·기간, 가출 이후 도움을 준 사람, 학업지속 여부, 가정 복귀 계획 등을 살펴보면, 최초 가출 시 연령에 대해 손재환 외의 연구(2020)에서는 평균 13.5세, 김희진 외의 연구(2018)는 15.6세로, 황여정 외의 연구(2022)는 11세 이전이 10.7%, 12~14세가 38.3%, 15세 이상이 51.0%로 보고하였다. 가출 연령과 비행과의 연관성에 대해 김정남, 박미랑(2020)은 첫 가출 시기의 연령이 낮을수록 범죄 가해경험에 가담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보고하였다. 학교급에 따른 가출 시기는 고등학교가 40.7%, 중학교가 34.5%, 초등학교는 11.7% 순이었다(김범구 외, 2023a). 또한, 가출 횟수 및 가출 기간을 살펴본 결과 첫 가출은 44.2%, 2회 이상은 55.8%였는데, 이 중 4회 이상은 22.8%였다(김범구 외, 2023a). 총가출 기간은 1주일 이내가 33.0%, 1~3개월이 19.3%, 3~6개월이 13.7%, 1년~2년이 11.7%, 2년 이상은 9.1%였고(김범구 외, 2023a), 김희진 외의 연구(2018)에서 가정 밖 생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는 응답은 40.6%, 6개월~1년 미만은 14.0%로 보고되었다. 가출 이후 생활한

곳에 대한 복수응답 결과, 청소년복지시설이 90.9%, 가정 밖 생활 전부터 알던 친구, 선·후배집이 47.2%, PC방·찜질방·코인노래방 등 24시간 상점이 34.3%, 고시원·모텔·원룸 등이 32.2%, 가정 밖 생활 후에 알게 된 친구, 선·후배집이 25.8% 순이었다(김희진 외, 2018). 가출 이후 도움이 되었던 사람은 청소년쉼터 등 기관의 선생님이 30.6%, 친구 또는 선후배가 29.4%, 없음 11.2%, 학교 선생님이 10.3% 순이었다(손재환 외, 2020). 가정복귀 계획에 대해서는 ‘계획 없음’이 66.3%, ‘계획 있음’은 33.7%였는데, 계획이 없다는 응답의 구체적인 내용은 가족들이 반기지 않으며 이전에 경험했던 문제가 반복될 것 같다는 항목이 절반이 넘는 51.9%로 조사되었다(손재환 외, 2020).

가정 밖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자립은 더욱 절실하고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들은 자립준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질적자료를 분석한 김은정 외(2019)의 연구에서 가정 밖 청소년들은 자립에 대한 생각과 준비에 추상적으로 접근하고 있었으며, 자립을 먼 미래의 일로 생각하고 이와 관련한 준비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보고하였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자립 과정을 ‘모나고 거친 돌이 풍파에 깎이는 순환과정’을 통해 패인 곳이 새살로 채워져 등글어지는 것’ 이라고 언급하면서, 가정 밖에서 날 것의 상황을 경험하며 자연의 섭리를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나름대로 터득하여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러운 자기들만의 삶을 살아내고 있다고 보고하였다(김은정, 2019: 70).

가출 생활을 하면서 힘들었던 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황여정 외(2022) 연구에서는(복수응답 결과) 생활비 부족이 59.0%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그다음으로 갈 곳(살 곳)이 없음이 46.9%, 우울/불안/좌절/두려움/외로움 44.1%, 일자리가 없음이 25.5%, 사람들의 안 좋은 시선이 24.5%였다. 유사한 맥락에서, 손재환 외의 연구(2020)에서도, 가정 밖 청소년들은 생활비가 없을 때(29.0%), 끼니를 해결하지 못할 때(22.9%), 씻거나 잠잘 곳이 없을 때(16.9%) 순으로 힘든 점을 응답함에 따라, 이들은 가정 밖에서 살아가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잠자리 및 먹을거리 등 기초적인 부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출 이후의 스트레스와 애로사항, 범죄 연루 경험 등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먼저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 결과, 손재환 외의 연구(2020)는 미래에 대한 불안 21.3%, 경제적인 어려움 19.3%, 가정불화 12.8% 순으로 보고하였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가출경험 집단이 비경험 집단에 비해 질병경험률이 높게 나타나면서 우울, 불안 공황, 환각 행동, 망상, 자해 등 정신과적 증상을 경험한 비율이 높았다(서보람, 유현주, 김미선,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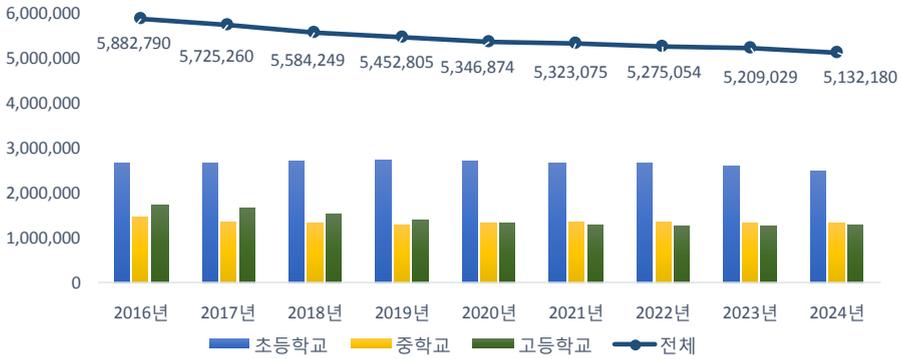
가정 밖 청소년의 자살 시도 경험 등에 대한 조사에서 최근 1년 동안 자살 시도를 경험한 청소년은 31.3%였으며, 자해시도 경험은 21.3%였고 이에 대한 이유로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54.3%, 부모의 학대 및 폭력이 20.0% 순이었다(손재환 외, 2020). 가정 밖 청소년 대상의 정서·행동실태조사 결과, 자살시도 청소년은 22.5%, 정서행동문제의 관심군은 37.2%, 우선 관리군은 23.2%로 보고하였다(김범구, 김수영, 진영선, 김민정, 조은실, 2023b).

또한, 가출청소년은 가족 내에서 신체적, 정신적 학대 가능성이 높고 가출 후 빈곤, 비행 및 범죄에 노출되어 불안, 우울, 약물중독,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심리적·정서적 문제를 가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유서구, 2017). 범죄의 가·피해 경험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도 가출 이후 61.3%가 범죄의 가·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정남, 박미랑, 2020). 성범죄 피해 경험 여부에 있어서도, 피해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11.2%, 없다는 88.8%였으며, 성범죄 피해 경험이 있다는 청소년 중 여자 청소년은 19.0%, 남자 청소년은 3.8%로 조사되었다(손재환 외, 2020).

2)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특성

(1)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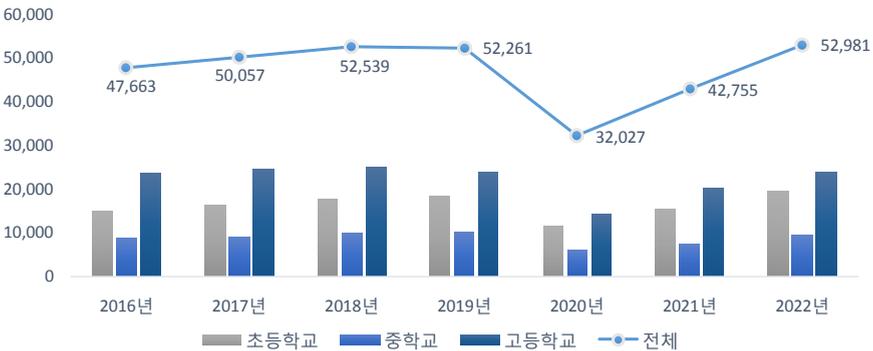
가정 밖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규모 역시 추정할 수 있을 뿐 정확한 수를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제한적이지만, 교육부를 통해 발표되는 학령기 인구수와 학업중단자 통계를 통해 그 규모를 대략적으로 추정하고 특히 시간 경과에 따른 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 먼저 학령기 인구수와 관련된 통계를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그림 II-3), 전체적으로 초·중·고 전 학교급에서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교육부는 전체 유·초·중·등 학생 수는 전년 대비 98,867명, 즉 10만 명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발표하였으며, 특히 전년 대비 초등학생 수의 감소세가 뚜렷한 것으로 보고하였다(교육부, 2024.08.29.).



* 출처: 교육부(2024.08.29). (별첨) 2024년 교육기본통계 주요 내용. p.2 유·초·중등 학생 수 통계에서 초·중등 학생 수만 발췌하여 도식화함.

그림 II-3. 초·중등 학생 수 추이(2016~2024년)

학령기 인구수는 지속적인 감소 경향을 보이지만, 학업중단자 수는 [그림 II-4]에서 보듯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학업중단자 수는 현재 2022년 통계까지만 발표되어 있어 위의 전체 학생 수 추이와 동일하게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팬데믹이 심각했던 2020년과 2021년 시기를 제외하고 학업중단자 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학업중단현황(2023년 2월말 기준). <https://kess.kedi.re.kr/index>에서 2024년 8월 29일 인출. 위의 링크에서 2016년부터 2022년 학업중단자 수 검색

그림 II-4. 초·중등 학업중단자 추이(2016~2022년)

위의 교육부 통계는 실제 학교 재학생 수와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확인되는 청소년 수에 대한 횡단자료로 매년 발생하는 학업중단자 수를 확인하고 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청소년 연령대 전체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주민등록인구현황, 교육기본통계, 국제인구이동통계 등을 활용한 만6~17세 학령기 청소년 인구수에서 학생 수를 제외한 학교 밖 청소년 규모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2023년 기준 학교 밖 청소년은 약 166,507명으로 만 6~17세 인구 비율로는 약 3.0%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하형석,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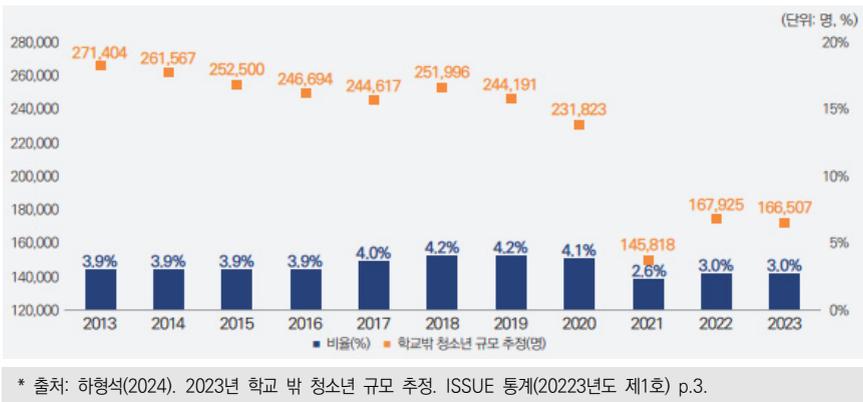


그림 II-5. 학교 밖 청소년 규모 추정(2013~2023년)

[그림 II-5]에서 2023년도의 학교 밖 청소년 규모를 전년도와 비교하면, 약 1,418명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인구 변화에 의해 약 1,623명이 감소하였으나, 학교 밖 청소년의 비율 변화로 약 205명이 증가함에 따라, 실제로는 학교를 그만두려는 학생들의 성향(학교 유예, 면제, 자퇴, 퇴학, 제적 등 다양한 이유에 따른 것으로 추정)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하형석, 2024: 4).

이러한 학생 인구수와 학업중단자 수에 대한 통계와 학교 밖 청소년 규모 추정 결과는 학교를 그만두는 청소년들의 비중뿐 아니라 절대적인 규모 역시 계속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현재의 정규 교육과정에서의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대응책 마련과는 별개로, 어떠한 청소년들이 어떠한 이유로 학교를 그만두고 있는지, 즉 학교 밖 청소년들의 성향 파악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다음으로 살펴볼, 과거와는 다른 경향성을 보이는 학교를 그만두는 이유와 이외

고교학점제와 같은 학교 교육의 큰 제도적 변화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변화 추이와 관련해서도 향후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실태조사가 법률적 근거(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를 가지고 2015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됨에 따라(2023년부터는 2년 주기), 많은 수의 학교 밖 청소년을 표본으로 한 조사 결과가 주기적으로 발표되었다. 이외에도, 연구기관과 개인 연구자들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을 보여주는 많은 연구가 발표되었으나, 여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서의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 변화, 추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가 가정 밖과 학교 밖 상황을 모두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만큼, 이와 관련된 특성에 초점을 두었다.¹³⁾

먼저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둔 시기에 대한 연도별 조사 결과를 비교한 결과, 학교를 그만두는 시기가 저연령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김희진 외, 2023b). 학교를 그만둔 주요 이유로는 조사 연도마다 응답 선택지에 차이가 있지만, 일어나기 힘들어서, 공부하기 싫어서(최인재, 이경상, 김정숙, 장근영, 2015), 또는 학교가 의미가 없어서, 공부하기 싫어서(윤철경, 최인재, 김승경, 김성은, 2018), 학교에 다니는 것이 의미가 없어서, 원하는 것을 배우려고(김희진 외, 2021a)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가장 최근 조사인 2023년 실태조사에서는 우울과 불안 등 심리·정신적 문제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김희진 외, 2023b).

사회적 고립감은 2023년 실태조사에서 처음 조사되었는데, 전체 4점 만점에, 2.01점으로 적어도 드물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희진 외, 2023b). ‘가끔 그렇다’와 ‘항상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의 합친 값을 기준으로 개별 조사항목을 살펴보면, ‘나는 이야기 할 사람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39.0%, ‘나는 혼자라고 느낀다’ 33.4%, ‘나는 외로움을 느낀다’ 39.7%, ‘나는 다른 사람들로 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낀다’가 23.9%로 응답자 10명 중 2~4명 정도가 고립과 관련된 경험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김희진 외, 2023b).

2023년 실태조사에서 부모(보호자)로부터의 정서적 지지와 경제적 지원은 학교를 그만두었던 당시보다 현재 더 높은 수준이었고, 방임과 학대는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었는데(김

13) 본 연구와 관련한 유의미한 조사 결과에 대해 각각의 실태조사에서 문항이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 실태조사 결과를, 조사 내용에 차이가 있거나 다른 보기 항목으로 응답에 차이가 있는 결과의 경우 해당 조사 결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희진 외, 2023b), 이는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둔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의 지지/지원이 더 긍정적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2018년 실태조사에서는 학교를 그만둔 이후 집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거주한 경험률이 65.5%로 나타났는데(윤철경 외, 2018),¹⁴⁾ 2021년 조사에서는 4명 중 1명으로 그 비중이 크게 감소하였다(김희진 외, 2021a).

학교 밖 청소년의 2023년 실태조사의 아르바이트 경험 비율은 42.6%로, 2015년 실태 조사의 55.5%와 비교하면 비교적 감소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김희진 외, 2023b), 이는 과거 실태조사에서보다 검정고시와 대학 진학 준비 비율이 증가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최근에는 아르바이트나 취업 준비 경험률이 감소하는 대신 학업과 관련된 활동을 더 많이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가장 오래 지속한 아르바이트 업종은 대체로 패스트푸드점, 중국집 등에서의 서빙, 카운터, 배달 등이었다(김희진 외, 2021a; 윤철경 외, 2018; 최인재 외, 2015). 이후 보기 항목 변경이 있었던 2023년 조사에서는 식당 주방/서빙/카운터에 카페 및 주점 서빙도 추가되었지만(김희진 외, 2023b), 전반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은 주로 패스트푸드점, 분식 및 중국음식점, 카페와 같은 요식업에서의 서빙과 카운터, 배달과 같은 단순하고 진입장벽이 낮은 직종에서 일하고 있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학교 밖 청소년이 검정고시나 대학진학 준비를 계획하는 비율은 계속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검정고시 준비: 2021년 58.3%→2023년 69.5%, 대학진학 준비: 2021년 22.7%→2023년 29.6%),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응답률은 감소하면서(2021년 17.4%→2023년 9.9%)(김희진 외, 2023b), 학교 밖 이후 진로를 계획하면서 학교를 그만두는 청소년 역시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실태조사에서 다소 흥미로운 조사 내용이 있었는데, 학교 밖 청소년의 약 30%(29.7%)는 어떠한 도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학교를 그만두었을 것으로 응답하였고, 36.7%의 청소년은 특기를 살려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고 또 진로를 찾을 기회가 있었다면 학교를 떠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김희진 외, 2021a).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기관과 서비스에 대해 더욱 알려지면서 학교를 그만둔 이후 해당 지원을 받는 사례가 점차 많아지고 있는 것도 유의미한 조사 결과로 볼 수 있다. 2021년 실태조사에서는 청소년의 34.5%가 학교를 그만두자마자 지원기관을 이용하였고, 지금까지 이용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13.8%였지만(김희진 외, 2021a), 2023년 조사에서

14) 또 다른 거주지로 친구집, PC방, 모텔여관, 원룸·쪽방·고시원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윤철경 외, 2018).

는 학교를 그만두자마자 계속 이용했다는 응답이 36.0%로 미세하게 증가하였고, 지금까지 이용하지 않았다는 응답률은 5.4% 수준으로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김희진 외, 2023b). 2023년 실태조사에 새로 추가된 조사 내용으로 희망하는 직업훈련·교육에 대한 조사가 있었는데, 사회복지사와 청소년지도사와 같은 복지 분야, 사진작가와 디자이너와 같은 디자인·방송 분야, 음료제조 및 제과제빵과 같은 식음료 분야를 희망하는 응답이 많아(김희진 외, 2023b), 이러한 희망 분야 직업훈련·교육에 대한 학교 밖 청소년의 접근성이 확대될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실태조사 외에도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의 종단 연구도 수행되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의 유형별 경로 이행을 중심으로 분석한 한 연구에 따르면, 직업형과 무업형 학교 밖 청소년 간 상호 이행경로 전환이 활발한 가운데 직업형에서 무업형으로의 전환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분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윤철경, 성윤숙, 최홍일, 유성렬, 김강호, 2017). 이는 학교를 그만둔 이후 대학 진학 대신 취업을 고려하고 있는 청소년이 무업형으로 전환한 이유와 정보 제공 및 진로상담에 대한 지원 수요 증가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해 보이기 때문이다. 양적자료 수집을 통한 종단 연구뿐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질적 종단연구도 수행되었는데, 수년간 면접조사에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이제 성인이 되어 과거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한 평가가 현재 개인이 상황에 따라 차이를 보였지만, 최근에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의 경우 각자의 욕구에 따른 본격적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만족하는 사례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김희진, 서고운, 조혜영, 2022). 그러나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두는 이유가 다양해진 만큼,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 요구 역시 매우 구체적이고 다양해지면서, 결국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개별화된 맞춤형 지원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3. 가정 밖·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현황¹⁵⁾과 함의

현재 관련 정책은 가정·학교 밖 이중 취약 청소년을 집중 지원 대상으로 하기보다 가정 밖과 학교 밖 각각의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을 개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가정·학교 밖 이중 취약 청소년의 지원 정책 도출에 함의를 모색하기 위해, 이 절에서는 가정 밖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주요 지원 정책 현황을 살펴보았다.

1) 가정 밖 청소년 지원 정책

가정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중앙부처별 주요 정책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표 II-6>과 같다.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에서는 가정 밖 청소년과 이들을 포함한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의식주를 제공하는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을 필두로 자립지원수당과 같은 경제적 지원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동반자 등을 포함한 심리정서적 지지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타 부처의 경우 그 성격에 맞게 주거 지원(국토교통부), 장학금 등 교육기회 제공(교육부), 일자리 지원사업(고용노동부) 등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전반적인 위기 및 취약 청소년과 청년 대상의 광범위한 사업으로, 여기에서는 가정 밖 청소년에 집중된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여성가족부의 사업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표 II-6. 가정 밖 청소년 관련 국내 정책

구분	정책	주요 대상	주요내용
여성 가족부	청소년쉼터 ¹⁾	가정 밖 청소년	-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 및 상담·주거·학업·자립 등 지원
	청소년자립지원관 ²⁾	가정 밖 청소년	- 안정된 주거지 연계 - 경제적 지원, 소득·생계·금융지원, 교육·진학 지원, 취업·훈련지원, 건강·일상생활 지원
	시설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³⁾	가정 밖 청소년	- 시설 퇴소 후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매월 40만원, 최대 60개월까지 현금 지원
	자립정착금 ⁴⁾	가정 밖 청소년	- 시설 퇴소 청소년의 안정적인 자립지원 기반 마련(부산, 울산, 제주 지원 중)
	건강지원 및	가정 밖	- 건강검진 세부 항목 검진 지원 및 치료비 실비 지원

15) 가정 밖 청소년 지원 정책은 주로 여성가족부의 '2024년 청소년사업안내'와 '2023 청소년백서',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함께 하다' 보도자료(2023.12.27)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홈페이지 (<http://www.kdream.or.kr>, 2024.7.20. 인출)에서 해당 내용을 발췌·요약하여 수록함에 따라 이렇게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를 표기하고자 한다. 이외 출처인 경우는 해당 제목과 서두 등에 각주로 별도 표시하였다.

구분	정책	주요 대상	주요내용
	의료비 지원 ⁵⁾	청소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 ⁶⁾	위기청소년	- 생활·건강·학업·상담·자립 등 현금 급여 및 물질 서비스 등 지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⁷⁾	청소년	-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 지원 -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일시보호, 자립능력 향상 지원 등
	청소년동반자 ⁸⁾	위기청소년	- 청소년 현장을 방문하여 심리적·정서적 지지 제공
	지역사회청소년통합 지원체계 ⁹⁾	위기청소년	- (청소년안전망) 청소년 발굴, 개입, 통합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연계 기관 발굴·연계를 통한 맞춤형 지원
국토교통부	주거지원 ¹⁰⁾	주거취약 계층	- 전세·매입·건설 임대 등을 통한 안정적인 주거환경 지원 (LH 공공임대주택 등)
교육부	장학금 ¹¹⁾	취약 대학생	- 입학금, 수업료 등 등록금 필수 경비 지원 - 교내 또는 교외 근로에 따른 장학금 지원
	기숙사 ¹²⁾		- 행복기숙사 이용 시 기숙사비 부분 지원
	파란사다리 ¹³⁾		- 해외 현장 학습 기회 지원
고용노동부	청년도전 지원사업 ¹⁴⁾	구직단념청년	-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촉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¹⁵⁾	중소·중견기업 취업청소년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취업애로청년 고용유지시 장려금 지급
	청년일경험 지원사업 ¹⁶⁾	미취업청년	- 15~34세 이하 미취업청년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일경험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직무역량 강화
기타 (여성가족부+민간연계)	자립지원적금 ¹⁷⁾	가정 밖 청소년	- 사회진출 시 학자금·취·창업·주거마련 등의 준비를 위해 불입 금액을 1:1로 매칭해서 추가 불입
	생활지원 ¹⁷⁾		- 건강한 식습관 지원을 위한 도시락 주거지 배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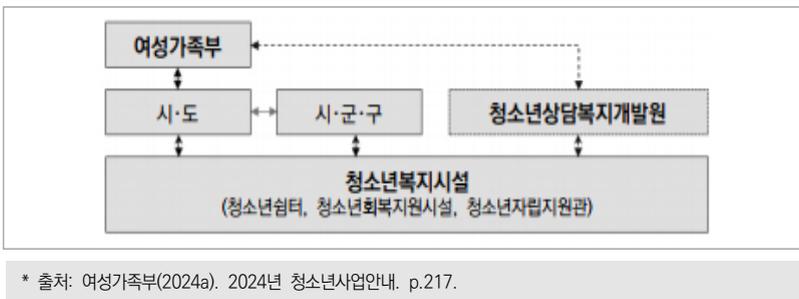
- 출처: 1) 여성가족부(2024a). 2024년 청소년사업안내. pp.214~217.
2) 여성가족부(2024a). 2024년 청소년사업안내. pp.417~420.
3) 여성가족부(2024a). 2024년 청소년사업안내. pp.464~467.
4) 여성가족부(2024a). 2024년 청소년사업안내. p.494.
5) 청소년안전망시스템 홈페이지(<http://gov.youthsafety.go.kr>)에서 2024년 7월 29일 인출.
6) 여성가족부(2024a). 2024년 청소년사업안내. pp.520~526.
7) 여성가족부(2024a). 2024년 청소년사업안내. pp.128~130.
8) 여성가족부(2024a). 2024년 청소년사업안내. pp.185~196.
9) 여성가족부(2024a). 2024년 청소년사업안내. pp.85~92.
10) 여성가족부(2024a). 2024년 청소년사업안내. pp.495~500.
마이홈포털 홈페이지(<http://myhome.go.kr>)에서 2024년 7월 28일 인출.
1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에서 2024년 7월 22일 인출.
12) 한국사회재단행복기숙사 홈페이지(<https://www.happydorm.or.kr>)에서 2024년 7월 22일 인출.
13)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s://www.kosaf.go.kr>)에서 2024년 7월 22일 인출.
14)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work.go.kr/youngChallenge/index.do>)에서 2024년 7월 22일 인출.
15)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portal/rcvfvSvc/dtlEx/149200005016>)에서 2024년 7월 20일 인출.
16)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청년일경험 지원사업(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40800703)에서 2024년 9월 30일 인출
17) 여성가족부(2024a). 2024년 청소년사업안내. p.513.

(1)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정책 주무 부처로서 가정 밖 청소년의 예방, 보호, 자립지원 등을 위해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시설퇴소청소년자립지원수당, 자립정착금, 건강지원과 의료비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 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가정 밖 청소년들이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청소년복지 시설이다. 1991년 「청소년기본법」 제정 후 최초로 1992년에 청소년쉼터가 설치되었으며 2004년에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제정됨으로써 청소년쉼터 설치를 위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다(여성가족부, 2024b). 이후 보다 다양한 유형의 지원 필요성에 따라, 2004년에 ‘일시쉼터(드롭인센터)’를 설치하기 시작하였고, 2005년부터는 중장기적인 보호 필요성으로 ‘중장기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다(여성가족부, 2024b).



* 출처: 여성가족부(2024a). 2024년 청소년사업안내. p.217.

그림 II-6. 청소년쉼터 운영체계

청소년쉼터의 운영체계를 살펴보면(그림 II-6), 먼저 여성가족부가 기본운영계획 및 사업 지침과 사업 운영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컨설팅을 총괄하며 국가보조금을 교부, 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는 관할지역의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검토·조정 및 청소년복지시설 운영과 보조금의 집행을 지도·점검한다. 청소년쉼터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가정 밖 등 위기청소년 보호와 자립지원을 수행한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와 시설운영에 대한 컨설팅과 행정지원시스템 운영 및 홍보 등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 수행, 우수사

레 발굴, 운영을 위한 매뉴얼 제작과 교육, 청소년복지시설의 홍보 등을 수행한다.

청소년쉼터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 전국에 138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표 II-7>과 같다. 유형별로 일시쉼터는 33개소(이동형 14개, 고정형 19개), 단기쉼터는 66개소, 중장기쉼터는 39개이다. 청소년쉼터 인지율은 2018년 38.2%, 2020년 39.8%, 2022년 50.7%로 점차 상승하고 있다(김지경 외, 2022).

표 II-7. 지역별 청소년쉼터 현황

구분	계	일시(33)		단기(66)								중장기(39)	
		이동형	고정형	10인 미만		10-15인 미만		15-20인 미만		20-30인 이상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계	138	14	19	3	6	12	17	12	12	2	2	18	21
서울	17	4	4	1	1					1	2	1	3
부산	5	1	1					1	1				1
대구	6	1	1					1	1	1		1	1
인천	9	1	2					1	2			1	1
광주	5	1				1	1					1	1
대전	6	1	1					1	1			1	1
울산	5		1			1	1					1	1
경기	31	2	4		1	2	6	5	3			4	4
강원	9	1	2					1	3			1	1
충북	7	1			1	1		1	1			1	1
충남	10				1	2	4	1				1	1
전북	6		1	1		1	1					1	1
전남	4					2	1					1	
경북	7				2	1	1					1	2
경남	5		1			1	1					1	1
제주	6	1	1	1			1					1	1

* 출처: 여성가족부(2024a). 2024년 청소년사업안내. p.318.

청소년쉼터는 청소년의 보호기간, 이용 대상, 핵심 기능 등에 따라 3개의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표 II-8>과 같다. 일시쉼터는 청소년을 거리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 가출 및 가출의 장기화를 예방하며 가정 밖 청소년을 사회안전망과 연계하며 청소년쉼터 시설의 이동 유무에 따라 2개의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다. 먼저, 이동형은 차량(버스)이 청소년 밀집시간에 밀집지역으로 찾아가 아웃리치를 통해 가출·거리배회·노숙청소년을 발굴하고 상담·먹거리 등을 지원한다. 고정형은 청소년들의 유동인

구가 많은 지역에 운영되고 있으며, 긴급 일시 보호를 위해 7일 이내로 보호한다. 단기쉼터는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가정 또는 사회로 복귀하기 위해 운영된다. 이를 위해 의식주·의료·법률적·문화여가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3개월에서 최대 24개월까지 생활이 가능하다. 2023년까지 보호기간은 최대 9개월이었으나 단기쉼터에서 중장기쉼터 연계 시 입소청소년의 학교까지의 통학 거리가 길어 전학이 필요한 상황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최장 15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게 되었다. 중장기쉼터는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학업 유지, 자립 및 사회복귀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가정 밖 청소년의 생활·건강·상담·활동 지원과 자립준비를 위해 경제·주거·교육·취업·자산형성·생활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최장 4년까지 보호가 가능하다.

표 II-8. 청소년쉼터의 유형

구분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
보호기간	24시간 ~ 7일 이내 보호	3개월 이내 단기보호 (3개월씩 2회에 한하여 연장 후, 15개월 한도 내에서 추가 연장 가능, 최장 24개월)	3년 이내 중장기 보호 (1회 1년에 한하여 연장 가능, 최장 4년)
이용대상	가출·거리배회·노숙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핵심기능	일시보호 및 거리상담지원 (아웃리치)	심리·정서 상담지원, 사례관리를 통한 연계	심리·정서 상담지원, 학업지원, 사회복귀를 위한 자립지원
기능	위기개입상담, 가정 밖 청소년 조기구조·발견, 단기 청소년쉼터 등으로 연계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치료 및 예방활동, 의식주, 의료 등 보호서비스 제공, 가정·사회복귀 대상 청소년 분류, 연계서비스	가정복귀가 어렵거나 특별히 장기간 보호가 필요한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자립지원 등 특화된 서비스 제공

* 출처: 여성가족부(2024a). 2024년 청소년사업안내. p.216.

○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청소년쉼터 등의 복지시설을 통해 일정 기간의 지원을 제공받았으나 여전히 가정과 학교, 사회로의 복귀 및 생활이 불가능한 청소년을 위한 곳으로, 이들이 자립하여 생활하는 데 필요한 역량과 여건을 마련하도록 돕는 시설이다. 이용 대상은 청소년쉼터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퇴소(예정) 청소년으로 이중 자립을 위한 지원이 요구되는 19~24세 청소년이다. 이 외에 원가정의 지원 없이 자립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

의 경우도 사례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을 인정할 때 해당 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2012년에 「청소년복지지원법」이 개정되면서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설치 및 운영 근거와 설치기준이 마련되었으며, 인천광역시에서는 2010년부터 자체적으로 민간의 청소년자립지원관 2개소를 지원하여 청소년쉼터 퇴소 후 가정 및 학교 복귀가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해 왔다(여성가족부, 2024b). 2023년 12월 31일 기준, 전국에 13개의 청소년자립지원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용형이 7개, 혼합형이 6개이며 이는 <표 II-9>와 같다.

표 II-9. 청소년자립지원관 현황 및 유형

구분	계	이용형	혼합형
계	13	7	6
서울	2	1(관악)	1(도봉)
부산	1	-	1(사상)
대구	1	1(남구)	-
인천	2	-	2(부평, 남동)
대전	1	1(서구)	-
경기	3	2(의정부, 군포)	1(성남)
강원	1	1(춘천)	-
충남	1	-	1(천안)
제주	1	1(제주)	-

구분	이용형	혼합형
지원내용	주거연계+자립지원서비스	주거연계+생활관 운영+자립지원서비스
생활관 이용	-	<p>생활관 입소는 사례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최초 3개월 이내, 추가 3개월 연장 가능, 1회)</p> <p>* 경계선지능청소년, 미성년자 등으로서 독립생활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생활관 이용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음(사례심의위원회 심의 후 결정).</p>

* 출처: 여성가족부(2024a). 2024년 청소년사업안내. p.319, p.419.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숙식 공간인 생활관의 운영 여부에 따라 ‘이용형’과 ‘혼합형’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용형은 청소년에게 숙박을 지원하지 않으며 이용청소년에게 안정된 주거지로의 연계와 자립지원관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혼합형은 자립지원관에서 운영하는 생활관에서 일정 기간 생활하며 동일하게 안정된 주거지로의 연계 및 자립지

원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는 시설 자원과 지역의 공공자원, 민간 자원 등을 활용한 사례관리와 주거지원을 토대로 경제적 지원과 교육 및 진학 지원, 취업 및 훈련 지원 등을 개인의 상황에 맞추어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건강 및 일상 지원, 소득·생계·금융지원 등도 제공한다. 안정된 자립준비를 위해 자립지원요원이 1년 이내의 사례관리를 실시하는데 필요시 사례심의위원회를 통해 6개월 이내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함에 따라 최장 2년까지 사례관리를 지원하며, 사례 종결 이후 6개월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추가지원이 필요할 경우 1년까지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청소년쉼터 퇴소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사례관리 중이거나 사례관리가 종료된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2021년에 도입되었다. 지원대상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일(사례관리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세부 요건은 첫째, 만 18세 이후 퇴소한 청소년으로 과거 3년 중 2년 이상 쉼터나 청소년자립지원관으로부터 보호와 사례관리를 받았고, 직전 6개월 동안 계속 보호받은 사례이다. 둘째, 첫 번째 요건에도 불구하고 지역 여건 또는 청소년의 특수상황에 따라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대상이 해당될 수 있다. 대상으로 선정되면 매월 40만 원을 퇴소일로부터 최대 60개월까지 지원하며, 수급기간 동안 해당 지역의 자립지원관(자립지원관이 없는 경우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수행)에서 주거 마련·독립 생활·진로·학업 및 취업·구직 연계를 지원한다(여성가족부, 2024a).

○ 자립정착금

자립정착금은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 종료아동의 자립정착금과 달리 가정 밖 청소년 대상의 자립정착금은 제한적인데, 2023년 기준 부산, 울산, 제주의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 중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소년(보호종료아동) 모두에게 보호 유형별·지역별 차이가 있지만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4).

○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¹⁶⁾

청소년복지시설 입소(이용)청소년을 대상으로 특별 건강검진을 지원한다. 그간 청소년 복지시설 입소(이용)청소년들은 개별 시설에 따라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자체적으로 검진을 제공받고 있었다. 건강검진은 청소년복지시설 입소(이용)청소년을 대상으로(1인당 15만 원) 연간 330명에게 전국 8개 KMI한국의학연구소 검진센터에서 검진을 지원한다. 또한, 치료비 지원은 1인당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시급성·일상생활 영향·치료 효과성·사회경제 환경 등을 고려한 심사를 통해 치료비 실비를 지원한다.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만 9~24세 이하의 위기청소년에게 생활 및 건강, 학업, 상담, 자립 등을 위한 현금 급여와 물질 서비스 등의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가정 밖·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된다. 지원 대상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9조 1항에 따른 비행·일탈을 저지른 청소년, 일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가정 또는 학교 외부의 교육적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사회·경제적 요인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이다.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면 해당 가구별 소득·재산인정액 자료를 가구 규모별로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하여 청소년 해당 가구의 소득 범위 확인 후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다(세부 내용은 표 II-10 참조)

표 II-10.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지원 종류 및 내용

지원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생활지원	일상적인 의식주 등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	- 월 65만 원 이하
건강지원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건강검진 및 치료 지원	- 연 200만 원 이하
학업지원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서비스	- 월 15만 원 이내(수업료, 학교운영비) - 월 30만 원 이내(검정고시)
자립지원	취업을 위한 지식기술기능 등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 월 36만 원 이내

16) 출처: 청소년안전망시스템 홈페이지(<http://gov.youthsafety.go.kr>)에서 2024년 7월 29일 인출.

지원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법률지원	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위기상황에 있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	- 연 350만 원 이내
상담지원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심라사회적 측면의 상담에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 지원	- 월 30만 원 이하 - 심리검사비(연 40만 원) 별도
활동지원	운영위원회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비용 및 서비스	- 월 30만 원 이하
기타지원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	- 위 제시 내용에 근접한 유형의 지원 상한액을 참조하여 규모 결정

* 출처: 여성가족부(2024a). 2024년 청소년사업 안내. pp.520-567.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립,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위한 기관으로 전국 17개 시도와 223개 시군구에서 총 240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운영 중이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가정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위기청소년을 포함한 청소년과 부모를 대상으로 상담 및 복지를 지원하고, 상담·복지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표 II-11〉).

표 II-1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능 및 사업 예시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 지원 ■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일시보호 지원 ■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할 지원 ■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지역 특성화 사업(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영역 : 폭력 피해 청소년 지원, 가정 밖 청소년 지원 ■ 비행영역: 청소년폭력예방 및 가해 청소년 지원, 소년보호 처분자 지원 ■ 후기청소년 영역: 군장병, 대학생 상담센터 연계, 무업청소년 발굴·지원(후기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진로·인성영역: 진로상담 및 지도, 직업체험, 인성교육 ■ 계층, 지역특성 영역: 다문화 및 북한 이탈 청소년, 군인 자녀 등 ■ 정책사업 영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출처: 여성가족부(2024a). 2024년 청소년사업 안내. pp.128-130.

특히, 고위기 청소년 맞춤 지원사업으로 첫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등 정신건강전문인력을 배치하여 다면적 인성검사(MMPI), 한국판 웨슬러 아동용 지능검사(K-WISC-IV)를 포함한 종합 심리 평가를(BGT, HTP, KFD, SCT, BDI 등 포함)를 수행함으로써 효과적인 개입을 할 수 있다. 또한, 자살 및 자해와 같은 위기 수준이 높은 청소년 대상의 집중심리클리닉을 운영하고, 청소년·부모 대상 근거기반 상담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집중심리상담 및 사례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 청소년동반자

청소년동반자(YC: Youth Companion)는 위기청소년에게 직접적으로 방문하여 심리적·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 아울러 지역사회의 자원들을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원대상에는 청소년쉼터와 청소년회복지원시설과 같은 청소년보호시설을 퇴소한 가정복귀 청소년, 학교와 사법기관(경찰·검찰 등) 의뢰 청소년, 보호처분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이 포함되며, 청소년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문제해결, 맞춤형 지원 강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청소년동반자는 청소년상담분야에 자격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서 위기청소년을 위해 지역사회 청소년 협력 자원을 발굴·연계하며,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위기 극복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청소년동반자는 전일제 동반자와 시간제 동반자로 자격기준, 근무시간 등에 따라 구분되는데 분기당 전일제 동반자는 12사례 이상, 시간제 동반자는 6사례 이상 기준으로 사례를 담당하며, 위기청소년의 특성상 자발적인 방문보다는 청소년을 찾아가는 형태의 상담을 실시함으로써 청소년이 희망하는 시간대에 지원하고 있다. 2005년 서울경기광주경남에서 시범운영 후 2008년 16개 시도에서 470명으로 시작해, 2023년 1,398명의 청소년 동반자가 활동하였다(여성가족부, 2024a).

○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청소년안전망)는 지방자치단체 책임하에 해당지역사회의 청소년 관련 자원 연계를 통해, 학교 밖, 가출, 인터넷 중독 등 위기 상황의 청소년에게 상담 및 보호와 교육, 자립 등 필요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즉, 가정 밖,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발견, 지원, 보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복지시설, 시·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보호관찰소,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소, 청소년 지원시설들을 필수연계 기관으로 구성하여 상호협력하면서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4a).

(2) 국토교통부¹⁷⁾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하여 공공임대주택을 가정 밖 청소년에게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 사업의 대상은 시설 퇴소 예정, 또는 시설 퇴소 후 5년 이내로, 시설 이용 기간이 2년 이상인 무주택자이다.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먼저 전세임대는 기존 주택에 대해 신청자가 원하는 주택을 찾게 되면 LH가 전세계약 체결 후 신청 대상자에게 낮은 비용으로 재임대하는 것이다. 시설퇴소 청소년의 경우는 전세금에서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낮은 이자를 월 임대료로 LH에 지급하면 된다. 매입임대는 LH가 다가구 주택과 같은 기존 주택을 매입, 공급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이때 필요한 여러 생활 집기(냉장고, 세탁기, 책상 등)도 제공하며 입주 청소년은 보증금 100만 원에 월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출해야 한다. 건설임대는 LH가 국민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통합공공임대 등의 형식으로 건설하여 공급 및 운영하는 것이다. 신청자의 소득·자산을 검증하여 주택 물색과 계약을 지원하며 입주청소년은 보증금 100만 원과 월 임대료 및 관리비를 지출해야 한다. 청소년의 입주 후에는 청소년자립지원관(자립지원관이 없는 경우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수행)에서 자립생활·정착 지도를 위한 사후관리를 1년간 지원하며 필요시 1년을 추가로 더 지원한다.

(3) 교육부

교육부의 청소년복지시설 이용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학금 지원, 기숙사 지원, 해외 현장학습 지원이 있다. 먼저, 장학금 제도는¹⁸⁾ 국가장학금 II유형(대학 연계지원형)으로 적극적인 대학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대학 자체 노력과 연계하여

17) 출처: 여성가족부(2024a). 2024년 청소년사업안내. pp. 495-500, 마이홈포털 홈페이지(<http://myhome.go.kr>)에서 2024년 7월 28일 인출.

18) 출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에서 2024년 7월 22일 인출.

실시된다. 우선지원 권고사항에 청소년쉼터 입·퇴소 청소년인 대학생이 포함되며, 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 경비(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 지원한다. 국가근로장학금은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학업 여건 조성 및 취업역량 제고를 위한 것으로,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대학생이 우선선발의 대상이 된다.

또한 기숙사 지원을 들 수 있는데,¹⁹⁾ 장기·저리의 사학진흥기금으로 기숙사를 건립하여 대학생의 열악한 거주 환경 개선 및 주거비 부담 완화가 목적인 사업이다. 청소년복지시설 이용 경험이 있는 청소년도 그 대상이 되며, 기숙사비 최소 50% 이상을 대학(법인)이 지원한다. 기숙사 유형을 살펴보면, 해당 대학부지에 건립되어 해당 대학 학생이 이용하는 행복기숙사(사립), 국·공유지에 건립되어 여러 대학의 학생이 함께 이용하는 행복기숙사(연합), LH가 기숙사로 활용 가능한 주택을 매입 후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출자한 특수목적 법인에 저렴하게 임대하여 특수목적법인이 기숙사 운영업무를 수행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이 대상이다.

파란사다리 사업은²⁰⁾ 경제·사회적 취약계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외 현장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진로탐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소년복지시설에서 3개월 이상 보호받은 자로서, 입소 중이거나 5년 이내 퇴소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외 대학에서의 연수기회를 제공한다. 해외연수를 위한 현지 교육비, 왕복 항공비 및 기숙사비 등을 지원하며, 현지 체류에 필요한 필수적인 비용(현지 교통비, 식비 등)은 학생 개인 부담이 원칙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현지 체류비를 지원하고 있다.

(4) 고용노동부

노동취약계층 중 가정 밖 청소년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정책은 청년도전지원사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경험 지원사업이 있다. 먼저, 청년도전지원사업(가정 밖 청소년 해당)²¹⁾ 구직 단념 청년을 발굴하고 구직 의욕 고취 및 자신감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노동시장 참여와 취업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전 프로그램과 도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원대상 중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자립지원관, 회복지원시설)에서 6개월 이상 생활 경험이 있는 만 18~34세 청년이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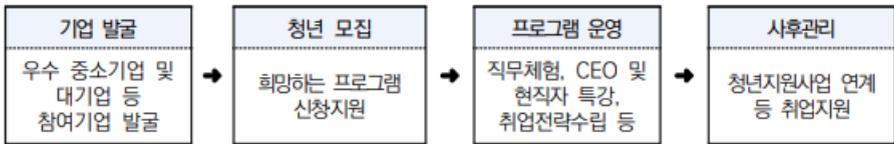
19) 출처: 한국사학재단행복기숙사 홈페이지(<https://www.happydorm.or.kr>)에서 2024년 7월 22일 인출.

20) 출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s://www.kosaf.go.kr>)에서 2024년 7월 22일 인출.

21) 출처: 고용노동부(<https://www.work.go.kr/youngChallenge/index.do>)에서 2024년 7월 22일 인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²²⁾ 기업의 청년 고용을 확대·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에 애로가 있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에는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고용주에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청년창업기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하다. 만 15~34세 이하 취업애로청년 대상 중 시설 이용기간에 제한 없이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소년도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다. 지원내용은 청년 1인당 1년 차에는 연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하며 2년 차에는 최대 480만 원으로,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한다.

청년일경험 지원사업은²³⁾ 미취업 상태로 일 경험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15세 이상~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양질의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맞춤형 일경험(체험, 실습, 프로젝트 등)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그 일환으로 추진되는 기업탐방형 일경험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추진되고 있다.



* 출처: 고용노동부(2024). 2024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p.37에서 발췌

그림 11-7. 청년일경험 지원사업: 기업탐방형 일경험 프로그램 추진 절차

기업탐방형 일경험 특화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들은 고등학교나 대학에 재학 중인 청년,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된 자립준비 청년, 군장병, 북한이탈 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청소년으로 가정 밖 청소년은 여기에 해당된다. 운영기관은 참여 청년 1인당 하루에 14만 원이, 지원기관에는 참여청년 1인당 3만 원이 지원되며 지원기간은 프로그램별 5일 내외이다.

22)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work.go.kr>)에서 2024년 7월 20일 인출.

23)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청년일경험 지원사업. (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40800703)에서 2024년 9월 30일 인출

(5) 기타²⁴⁾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준비 및 생활 지원을 위해 여성가족부가 민간 영역과의 협업을 통해 추진하는 지원사업들도 있다. 대표적인 예로, 대한상공회의소 신기업가정정신탁회와 함께 ‘제2차 다함께 나눔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자산형성(신한은행), 맞춤형 일경험(SK 그룹, 이디야커피), 행복도시락(SK)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자산형성의 경우(자립지원적금) 가정 밖 청소년의 사업진출 시 학자금과 취업 및 창업, 주거 등을 위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해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16~24세 청소년복지시설에 입소 중이거나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 5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이 매월 불입한 금액만큼 은행에서 1:1로 매칭해서 추가로 납부한다. 월 최대 15만 원 이내로 3년 만기로 추진되고, 사회에 나와 건강한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경제개념의 이해, 월급관리, 재테크 등의 경제금융교육을 추진하며 2023년 5월부터 2026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맞춤형 일 경험의 일환으로 커피전문가 양성교육 수료 청소년에게는 커피 프랜차이즈인 이디야 매장에서 실습사원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도 있다(6개월). 또한, 행복도시락사업은 식사 지원서비스로, 영양이 균형잡힌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지원 받고 있는 청소년들이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소년자립지원관 입소(이용)청소년 250명을 대상으로 주 3식(단가 8,000원) 도시락(밀반찬)을 청소년 주거지로 주 1회 배송하며, 2023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다(여성가족부, 2024a).

24) 출처: 여성가족부(2024a). 2024년 청소년사업안내.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3.12.27).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함께 하다’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n=709732에서 2024. 11.15. 인출.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에, 먼저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에서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 사업과 건강검진 지원, 자립취업 지원 등을 주요 지원 정책으로 볼 수 있다(표 II-12). 이외에, 교육부의 위(Wee) 프로젝트, 학업중단속려제,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등도 일부 해당될 수 있다. 그러나 교육부 사업의 경우 주로 정규학교를 그만두는 것을 예방하는 목적이며, 또 고용노동부 사업의 경우 위기청소년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취업 관련 취약계층 전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여기에서는 여성가족부의 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표 II-12. 학교 밖 청소년 관련 국내 주요 정책

구분	정책	주요 대상	주요내용
여성 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¹⁾	학교 밖 청소년	- 상담·교육·직업체험 및 취업 자립지원 등
	건강검진 ²⁾		- 질병의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한 기본선택확진검사 등 지원
	자립·취업지원 서비스 ³⁾		- 직업훈련·일경험(인턴십)·직장체험·취업연계 등 지원
교육부	위(Wee)프로젝트 ⁴⁾	위기학생	- 위기학생 특성에 따른 심리적 적응과 학업적응 및 중 장기 위탁 교육 등
	학업중단속려제 ⁵⁾		- 상담·프로그램 참여 등을 통한 학업중단 예방
고용 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⁶⁾	취업 취약계층	- 직업훈련참여 및 취업활동비용 지원

* 출처: 1) 여성가족부(2024a). 2024년 청소년사업안내. pp.587-589. pp.617-625.

2) 여성가족부(2024a). 2024년 청소년사업안내. pp.702-703.

3) 대한민국정책브리핑(2024.01.18.), 학교 밖 청소년에 맞춤형 직업훈련...자립·취업지원서비스 도입.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4938>에서 2024년 7월 20일 인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홈페이지(<http://www.kdream.or.kr>)에서 2024년 8월 3일 인출.

4) Wee프로젝트 홈페이지(<http://www.wee.go.kr>)에서 2024년 7월 06일 인출.

5)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홈페이지(<http://www.kdream.or.kr>)에서 2024년 7월 20일 인출.

6)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https://www.kua.go.kr/>)에서 2024년 7월 20일 인출.

(1) 여성가족부

2014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지원 수요를 고려하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건강검진, 자립·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의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과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을 제공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이용 대상은 9~24세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즉 초·중학교 3개월 이상 결석·취학의무 유예, 고등학교 제적·퇴학 처분 및 자퇴, 고등학교 미진학 청소년이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시·도 센터 16개, 시·군·구 센터 206개소가 운영 중이다(표 II-13).

표 II-13. 꿈드림센터 운영 현황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계	222	26	17	9	9	6	3	5	1	32	13	13	16	10	23	15	21	3
시·도	16	1	1	1	1	1	1	1	-	1	1	1	1	1	1	1	1	1
시·군·구	206	25	16	8	8	5	2	4	1	31	12	12	15	9	22	14	20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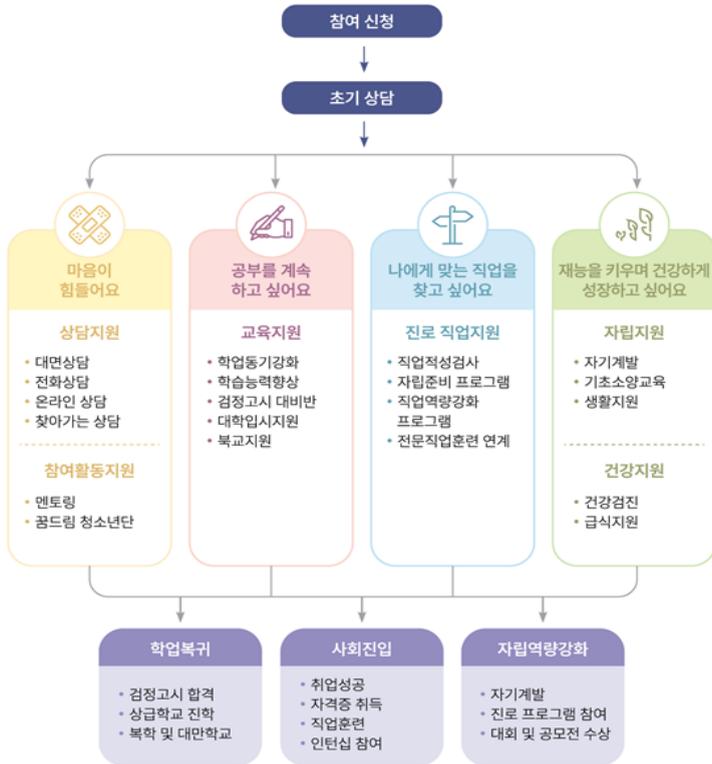
* 출처: 여성가족부(2024a). 2024년 청소년사업안내. p.594.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추진체계를 살펴보면, 여성가족부는 사업방향 설정 등 사업총괄과 함께 사업안내(지침) 마련, 예산지원 및 사업평가 총괄 등을 추진하며, 중앙지원기관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시·도 및 시·군·구 센터에서는 사업을 지원하며 직원 양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시·도 지자체는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시·도 센터의 설치와 지정, 지도, 감독 등을 수행한다. 16개 시·도 센터는 시·도 단위 지역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정책수요 분석 및 사업 등을 개발하며, 시·군·구 센터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담당한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핵심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시·도 센터의 역할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실무자의 전문성 담보를 위한 교육을 운영하고, 시·군·구 센터에 대한 매년 컨설팅 계획을 수립, 실시한다. 또한, 시·도 내 인적·물적자원 개발과 발굴을 통해 시·군·구 센터의 지역사회 내 자원에 대한 연계망을 구축, 지원한다. 아울러,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 정책 수요를 조사하여 이에 부합하는 특성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군·구 센터 보급, 지원사업에 대한 성공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을 담당하고 있다. 시·군·구 지자체는

해당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군·구 센터 설치와 지정, 지도, 감독을 수행한다.

학교 밖 청소년을 일선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206개의 시·군·구 센터는 해당 지역의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며, 학교 밖 청소년 발굴하여 상담 및 교육 직업체험, 취업지원, 자립지원, 사후관리와 같은 지원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복귀와 사회진입,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그림 II-8). 구체적으로 상담지원은 학교 밖 청소년과 가족(보호자)들을 대상으로 대면상담, 전화상담, 온라인·모바일 상담과 같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제공된다. 또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학교 밖 청소년의 정보가 연계되었음에도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지원을 거부하는 등의 이유로 지원받지 않고 있는 청소년에 대해 청소년동반자와 협력하여 상담을 실시한다.



* 출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홈페이지(<http://www.kdream.or.kr>)에서 2024년 7월 3일 인출.

그림 II-8.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원내용

교육지원은 꿈드림센터 내 검정고시반 운영 또는 검정고시 학원 연계 등을 통해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 취득을 지원하고 기존 정규학교로의 복귀나 대안학교로의 진학 등을 지원한다. 또한, 상급학교 진학을 희망할 경우 그 과정을 안내하고, 대학입시를 원할 때는 고졸학력 취득 이후(검정고시 등을 통한) 대학 진학을 위한 정보 제공과 대학입시설명회 참여, 캠퍼스 투어 등 대학입시 정보를 제공한다.

직업체험 및 직업교육·훈련 지원을 위해 직업탐색·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자립·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여성새일센터·국민취업제도 등 직업훈련 프로그램과의 연계, 지역 내의 민간 직업훈련기관 또는 작업장 등의 발굴을 통한 직업훈련 기회 제공과 창업캠프 등 창업지원을 연계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과 영양상태를 고려해서 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사례 종결은 했으나 청소년의 원활한 사회적응을 위해 상담과 현장 방문, 정보 및 프로그램 등을 최소 3개월에서 12개월까지 제공한다.

○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건강검진 서비스는 조기에 질병을 발견하고 또 예방하기 위해 10대 청소년의 생애전환기 연령 특성을 반영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검진 대상은 9~18세의 학교 밖 청소년이며, 19세 학교 밖 청소년도 가능하지만 다른 국가건강검진과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다.

구분		검사항목 및 방법									
기본 검진	건강 상담 (문진 등)	요검사	혈액검사*				B형 간염검사***		C형 간염 검사***	구강 검진	홍부 방사선 촬영
		요단백 요잠혈	혈색소**	혈당	콜레스테롤4종	AST	ALT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선택 검진	상담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HIV)			클라미디아, 임질 등 (성매개질환)			
확진 검사	상담	고혈압	당뇨병		신장질환	이상지질혈증		C형간염	매독		
		혈압측정	공복혈당		요단백, 요잠혈			C형간염 정밀검사	매독 정밀검사		

* 출처: 여성가족부(2024a). 2024년 청소년사업안내. pp.702-703.

그림 II-9.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항목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의 건강검진을 받은 이후 3년의 검진 주기가 지난 청소년은 지원이 가능하며, 외국인 학교 밖 청소년은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세대원일 때 가능하다. 건강검진을 위한 주요 항목은 상담 및 진찰, 혈액 및 간염검사, 결핵 및 구강검진 등이다(구체적인 검진항목은 [그림 II-9] 참조).

○ 자립·취업지원서비스²⁵⁾

진로탐색과 취업 등에 관심이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이 자립 및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청소년 개인의 특성에 맞춘 직업훈련, 일 경험(인턴십) 및 직장체험, 취업연계 등을 지원한다. 진로상담,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자립동기강화 프로그램 운영뿐만 아니라 맞춤형 직업훈련과 자격취득과정 지원을 위한 학원수강료 및 강사비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한다. 또한, 직장체험·인턴십 과정에는 일 경험 제공 기업을 대상으로 연계운영비를 지급하며 취업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취업 연계 및 사후관리를 위해 모의 면접, 이력서 코칭, 취업지원물품 등을 지원한다.

(2) 교육부

교육부의 위(Wee)프로젝트는 위기학생에 대한 적극적 개입을 통해 공교육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시작되었다(최상근, 금명자, 정진, 2011). 위(Wee)클래스는 위(Wee)프로젝트의 1차 기관으로서 단위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상담실로 학생들과 가장 직접적이고 밀접하게 접촉하며, 위기학생뿐만 아니라 잠재적 위기학생을 대상으로 심리적 지원과 학업적응을 도모하는 학교상담의 기반이 되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8). 위(Wee)센터는 전국 시도 교육청의 직영 또는 민간단체로 운영되며 위기 사안 발생 시 직접 개입하기도 하고 단위학교, 지역사회 등을 연결하여 학교의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김진선, 정윤경, 이민정, 신주연, 2023). 위(Wee)센터는 위기학생의 진단-상담-치료, 학교적응프로그램 운영, 관내 위(Wee)클래스 지원, 지역사회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운영, 학교 폭력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에 대한 자문과 상담 치료, 학생정신건강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다. 위(Wee)스쿨은 중·장기 위탁 교육과 상담지원, 치료를 필요로 하는 고위기 학생을 대상으로 원격 학교 학적을 유지하면서 최소 1개월에서 최장 3년까지 위탁교육을 운영한

25) 출처: 대한민국정책브리핑(2024.01.18.) 학교 밖 청소년에 맞춤형 직업훈련...자립·취업 지원서비스 도입(2024년 7월 20일 인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홈페이지(<http://www.kdream.or.kr>)에서 2024년 8월 3일 인출.

다. 이외에, 특화형 위(Wee)센터로서 가정형 위(Wee)센터와 병원형 위(Wee)센터를 운영함으로써 학생과 가정(학부모), 학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김효선, 배희분, 장덕호, 2019; 한국교육개발원, 2017).

학업중단숙려제는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을 대상으로 Wee센터(클래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의 외부전문상담을 받으며 숙려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2011년 경기도교육청에서의 시범운영, 이후 교육부에서의 2012년 6월부터 2013년까지의 시범운영 끝에 2014년부터 전면 실시되었다(최숙희, 이수정, 2022). 학업중단숙려제의 대상은 학업중단 의사를 밝혔거나, 학업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학교에서 판단한 초·중·고교생, 또 무단결석이 연속 7일 이상 또는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 검정고시를 희망하는 초·중·고교생으로, 충분한 고민 없이 충동적으로 학교를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학업복귀를 권고하고 학업중단 이후 상황을 안내하며 진로정보를 제공한다(윤철경, 유성렬, 김신영, 임지연, 임아랑, 최은희, 2013). 학업중단숙려제 도입 초기 2주간의 숙려기간은 현재 최소 1주(7일) 이상 최대 7주(49일)로 변경되었으며 Wee센터, 상담기관, 사회복지기관, 대안교육위탁기관 등에서 학업중단 숙려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학교부적응 학생의 위기 원인 및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된다(허민숙, 2021).

(3) 고용노동부

취업을 희망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I 유형은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하며, II 유형은 I 유형에 해당이 되지 않는 특정 계층과 청년 및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중 특정 계층에 위기청소년이 포함되어 있다.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 생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6개월 범위에서 한 달에 최대 284,000원의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한다. 이 제도의 참여하게 되면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6개월 범위 내). 지원 종료 후에 취업하지 못한 경우 취업정보 제공과 구직활동 지원 등의 사후관리를 최대 3개월 동안 제공한다. 또한,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별도로 지급함으로써 장기근속을 지원한다.

표 II-14. 국민취업제도 I 유형과 II 유형

구분	I 유형				II 유형			
	요건 심사형	선발형		특정 계층	청년	중장년		
		청년	비경제활동					
지원 대상	나이	15~69세(청년 : 15~34세, 중장년: 35~69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무관	무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5억 원 이하	4억 원 이하	무관			
	취업경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무관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무관			
지원 내용	취업지원 서비스	○						
	소득 지원	구직촉진 수당	○					×
		취업활동 비용	×					○

* 출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https://www.kua.go.kr/>)에서 2024년 7월 20일 인출.

3) 소결

본 장에서는 가정·학교 밖 이종 취약 청소년에 대한 논의와 가정 밖 및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과 특성, 이들에 대한 주요 지원 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가정·학교 밖 이종 취약 청소년은 청소년 시기에 가정과 학교에서의 지원 밖에 놓임에 따라 취약한 자원, 낙인, 심리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사회환경적 변화에 적응하면서 성인기로의 원활한 이행을 하기가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종 취약 청소년의 절대적인 규모는 과거에 비해 줄어들었다고 해도, 또래 청소년들과 달리 주요 미시체계와 중간체계 밖에 있는 고위기 특성을 고려할 때, 또 더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례가 많음을 고려할 때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는 청소년들이다. 즉, 최초의 사회환경이며 사회화 기능을 하는 가정의 밖에 있는 청소년과 교육·사회성 함양 및 향후 진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학교의 밖에 있는 청소년이라는 취약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이종 취약 청소년에 대해 국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정책 대상이다.

가정 밖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적 지원은 분리되어 있다. 가정 밖 청소년의 경우에게는 거주 공간(청소년쉼터, 자립지원관) 제공 및 의식주 해결, 상담·자립준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이들의 특성과 수요에 따라 상담·교육·직업체험, 건강검진, 자립·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위기청소년특별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가정 밖 청소년의 경우 좀 더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받기도 하며, 또 학교를 그만둔 상태일 경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검정고시 준비 등을 지원받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동반자 등이 가정·학교 밖 이중 취약 청소년과 같이 복합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을 위한 지원체계에 포함되지만, 구체적으로 이러한 사례에 대한 지원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와 같이, 가정 밖 또는 학교 밖 청소년 각각의 지원들은 이전에 비해 확충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중 취약 청소년들을 위한 논의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다. 따라서, 아직 이에 대한 준비와 이에 따른 실태와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며, 가정 밖 또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각각의 주요 지원 정책들은 있지만 이들을 포괄하는 이중 취약 청소년 대상의 특성화된 정책들은 부재한 상황이다. 즉, 가정과 학교라는 가장 중요한 발달 환경에서 벗어나 이중적으로 취약한 청소년을 위한 집중적인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조명되어야 할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가정·학교 밖 이중 취약 청소년에 대한 정례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실태조사는 정책 대상의 객관적인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체계적인 정책 지원의 토대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관련 연구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정례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이중 취약 청소년 욕구 기반의 지원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²⁶⁾

둘째, 가정·학교 밖 이중 취약 청소년들의 지원이 시설 밖에서의 자립을 위한 취업준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자립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진로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손재환 외(2020)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쉼터 입소 및 이용 청소년들의 취업·진로 지원 프로그램의 서비스 이용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62.5%로 있다는 응답보다 높았다. 또한, 같은 조사에서 미래를 위한 준비에 대해 학업 지속이 34.8%, 취업 준비가

26) 여성가족부 주관의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와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등에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조사가 포함되어 있지만 조사 내용의 제약과 표본 수 부족 등 가정·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25.8%, 특별한 계획이 없음 20.2%, 생활자금을 모으고 있다는 19.3%로 보고함으로써(손재환 외, 2020) 진로지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필요성을 시사한다. 하지만, 김희진 외(2018)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된 면접조사에서 적지 않은 가정 밖 청소년 청소년들이 취업 쪽으로 특별한 생각과 계획이 없는 경우가 많았으며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데에 소극적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중 취약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있는 기관에서의 자립준비는 결국 경제적인 자립을 위한 일자리가 기반이 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다. 조운정과 주경필(2018)의 사례연구에서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경제활동은 저임금의 아르바이트가 대부분이었고 몇몇은 회사원, 요리사, 헤어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으나 단순한 육체노동에 집중되어 있으며, 임금수준도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김지연과 정소연의 연구(2014)에서 가정 밖 청소년들은 원가정으로 복귀할 수 없음에 따라 자립을 할 수밖에 없음에도 각자의 여건에서 경제적인 자립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하였다.

청소년 자신이 흥미를 갖고 선호하는 분야에서 향후 미래를 위해 어떤 직업을 갖고 성인기 삶을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미래를 계획하고 진로를 선택하며 결정하기 위한 청소년기 중요한 과업이다. 그러나, 본격적인 직업선택에 대한 결정보다는 앞으로의 삶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중 이중 취약 청소년은 경제적 자립을 위해 일자리를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또래 청소년에 비해 열악한 자원과 지지체계로 이에 대한 준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진로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준비에 앞서 취업에 대한 준비가 우선됨에 따라 자립준비 과정과 자립과정에 있어 더욱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중 취약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진로 프로그램의 개발, 진로상담과 이에 기반한 유망 직종에 대한 이해, 다양한 직업군 경험 및 특강, 자격증 취득 과정 및 진로설계를 통한 특정 분야의 직업훈련, 취업준비 등 더 전문적이고 촘촘한 진로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가정·학교 밖 이중 취약 청소년들의 심리정서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가정 밖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관심군은 37.2%, 우선관리군은 23.2%였으며(김범구 외, 2023b), 자살시도 경험은 31.3%로 보고되었다(손재환 외, 2020).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은 10명 중 2~4명 정도가 사회적 고립과 관련된 경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하였다(김희진 외, 2023b). 황여정 외(2022)의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실태조사에서는 주관적 정신건강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정신건강이 안

좋은 편이라는 응답 항목에 대해 청소년쉼터·청소년자립지원관의 청소년들은 38.4%,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들은 31.4%로 답했으나, 소년원·보호관찰소와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들은 각각 14.8%, 29.6%로 응답함에 따라 가정 밖과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정서적 건강상태에 대한 응답이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이중 취약 청소년들은 가정과 학교에서부터 누적된 심리정서적 어려움에 더해, 가정 밖 생활과 학교 밖 생활의 부정적 피해 경험이 자립준비를 더욱 어렵게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해당 시설에서의 전문적인 상담과 지원뿐 아니라 치료 지원까지 지원 폭이 더욱 확대되어야 함을 조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정·학교 밖 이중 취약 청소년 발굴을 통해 정책의 사각지대가 더욱 완화되어야 한다. 가정 밖 청소년 중 청소년쉼터 입소 비율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허민숙, 2024), 가정 밖 청소년들이 청소년쉼터에 입소하지 않은 사유로, 시설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서(24.9%),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21.8%), 시설의 규칙 때문에(14.2%) 순으로 보고되고 있다(김범구, 2023a).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이후 다시 증가 추세에 있어, 더욱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정·학교 밖 이중 취약 청소년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이 충분한 정책적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마련, 홍보함으로써,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제3장 가정 밖 학생· 학교 밖 청소년 설문조사 결과

- 1. 조사 개요
- 2. 조사 내용
- 3. 분석 방법
- 4. 분석 결과
- 5. 소결

1. 조사 개요

1) 조사 대상

이 조사는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이용하고 있는 중·고등학교 학령기 연령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 재학 여부, 학교 경험에 따른 차이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가정·학교 밖 이 중 취약 청소년의 실태를 조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통해, 가정·학교 밖 이 중 취약 청소년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할 뿐 아니라 가정 밖 상황에서도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에 대한 실태도 함께 파악하고, 또 학교를 그만두었던 경험, 향후 그만둘 의향 등의 내용과 함께 학교 재학 여부에 따른 진로지원을 위한 함의를 부수적으로 찾아봄으로써, 본 설문조사 결과의 정책적, 실천적 활용도를 높이 고자 하였다.²⁸⁾

가정 밖 청소년에는 기관에 소속되거나 이용하지 않는 일명 거리청소년들이 포함되지만, 조사설계에 필요한 소재 파악 및 규모 추정에 대한 정보가 없으며 제한된 연구 기간과 자원을 고려할 때 이들을 포함한 설문조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가정 밖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 요구를 파악함으로써 정책적 개선방안에의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 이들을 위한 일차적인 지원체계인 청소년쉼터의 청소년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설문조사의 대상은 가정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전국 138개의 이동쉼터,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이용하고 있거나 소속되어 있는

27) 1절과 2절은 김희진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3절과 4절의 2)는 박지수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4절의 1)과 5절은 공동 집필하였다.

28) 여기에는 가정 밖 청소년 중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의 조사 결과 차이에 대한 비교 분석을 위한 연구 목적뿐 아니라 최근 몇 년간 없었던 가정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일정 규모의 설문조사로서 학교 경험과 진로관련 내용에 초점을 두어 현장에서의 실천적 함의와 정책적 활용도 등을 고려하였다.

청소년 중 최소 집을 나온 지 2개월 이상 된 청소년들로 확정하였다. 그리고, 조사에 소요되는 기간 및 조사 참여가 가능한 청소년의 규모 등에 대한 현장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사 표본 수는 450여 명으로 하였다. 가정 밖 청소년 중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의 조사 결과에 대한 유의미한 비교 분석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의 비중은 최대 30%²⁹⁾ 정도로 조사설계하고, 중·고등 학령기 청소년이 조사 대상이지만 현장의 청소년 연령대 분포와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신뢰성있는 결과 도출을 위해 만 14~18세 청소년을 주요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상술한 바와 같이 거리청소년을 포함한 가정 밖 청소년의 수나 규모 추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 부재로 현재 가정 밖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에 대한 조사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전국 청소년쉼터를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모집단으로 설정한다고 해도 정확한 정보 부족으로 이에 기초한 일반적인 표본 설계가 불가능하다. 이는 청소년쉼터 이용 청소년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동쉼터와 일시쉼터의 경우 계절별, 시기별, 또는 매일의 상황에 따라 이용 청소년의 수에 차이가 크고 이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추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먼저 각 청소년쉼터의 담당자 조사를 통해 현원 중심의 연령대별, 성별 학생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규모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전국 할당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본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생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을 구분하는 기준이 중요함에 따라, 가정 밖의 학교 밖 청소년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 현장전문가들과 긴밀히 소통하였다. 이는 청소년쉼터를 이용하고 있거나 소속되어 있는 청소년 중 일반 학생 청소년과는 달리 위(Wee)클래스와 같은 형태로 재학 중인 경우 졸업 후 학력은 인정되지만 정규 교육과정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다양한 유형의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청소년도 있다. 여러 차례의 현장전문가의 자문과 협의 끝에 본 설문조사에서의 가정·학교 밖 청소년은 “일반 정규학교에 재학하지 않으며(자퇴, 유예 포함), 대안학교에 재학 중이어도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으로 조작적 정의하고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 청소년을 조사 대상으로 결정하였다.

29) 최근 가정 밖 청소년을 포함한 조사에서 그중 학교 밖 청소년의 비율은 20.5%(황여정 외 2022)였으나, 본 설문조사에서는 가정 밖의 학생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조사 결과 비교를 원활히 하기 위해 이보다 높은 비중인 30%로 설정하였다.

2) 조사 방법

(1) 조사설계

본 연구에서의 설문조사의 목적과 조사 대상을 고려한 조사설계를 위해 취약·위기 청소년 분야의 학계와 청소년쉼터의 현장전문가, 실무자들과 자문회의와 간담회 등을 개최하였고, 현장전문가 및 조사위탁기관과는 수시로 업무협의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가정 밖 청소년 현장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조사 참여 청소년의 편의와 효율적인 조사 방법을 탐색하였다. 이 과정에서 최초 웹 조사를 고려하였으나 다소 복잡한 조사문항 체계와 성실한 응답 독려를 위해 조사지를 활용한 PAPI(Paper and Pencil Interview) 조사로 진행하는 것으로 방향을 변경하였다. 높은 조사 응답률 제고를 위해 인터넷 조사와 PAPI를 함께 고려하였으나, 이 경우 일종의 혼합모드 조사(Mixed-mode survey)가 되면서 높은 응답률의 장점 대신 조사 결과에 미치는 모드 효과(mode effects)를 피할 수 없게 된다(임경은, 박라나, 2013). 또 청소년들의 조사 내용 이해 및 응답 신뢰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최종적으로 인터넷 조사는 제외하게 되었다. 대신 면접원을 활용한 PAPI 조사와 기관의 담당자 협조를 통한 유치조사 및 우편조사 등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면접원과 청소년이 일대일로 대면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하는 면접원 조사와 기관담당자의 안내에 따른 유치조사나 우편조사 역시 조사 방식의 차이로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지만, 인터넷 조사와 비교할 때 그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가정 밖 청소년의 주요 지원체계인 청소년쉼터 소속/이용 청소년들을 조사 대상으로 함에 따라 먼저 시설별 가정 밖 청소년의 규모와 학교 밖 청소년의 비율을 파악하기 위해 사전 조사의 성격으로 기관담당자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의 수행과정에서 각 쉼터의 기관담당자의 역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매우 중요하다. 첫째,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현재 조사 시점에서의 각 시설의 조사 대상 기준에 맞는 청소년 현원에 대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가능한 전국의 다양한 상황에 처한 가정 밖 청소년들이 조사에 참여하는 기초를 마련할 수 있다. 둘째, 조사위탁기관에 대한 긴밀한 협조를 통해 면접원 방문조사 수행 시 조사 대상 청소년에게 사전 안내 및 설명을 제시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성실한 조사참여에 기여하게 된다. 만약 기관 정책이나 조사 대상 청소년 특성상 외부면접원 방문조사가 용이하지 않을 때는 조사 대상별로 설문지를 따로 전달해야 하며(가정 밖 학생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의 설문지가 따로 작성됨), 궁극적으로 유치조사 및 우편조사 등 대안적인 조사 방법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현장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모바일 웹링크 전달 등을 통한 간단한 웹조사 방식의 기관담당자 조사 참여를 통해 각 쉼터의 이용 청소년 발굴 경로, 학생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내용, 가정·학교 밖 이중 취약 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표 III-1 참조). 상술한 가정 밖 학생·학교 밖 청소년 설문조사를 위한 조사 대상, 조사 방법 등 조사설계 과정 전반과 그 결과를 축약, 정리하면 [그림 III-1]과 같다.

표 III-1. 청소년쉼터 등 기관담당자 조사 내용

영역	조사 항목
기관담당자	근무 기간, 성별
청소년쉼터 현황	청소년쉼터 이용 청소년의 주요 이용(발굴) 경로, 이용/소속 청소년 수, 연령대별 청소년 수, 학교 밖 청소년 수
지원 내용	학생 청소년 대상 지원 내용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지원 내용 가정·학교 밖 이중 취약 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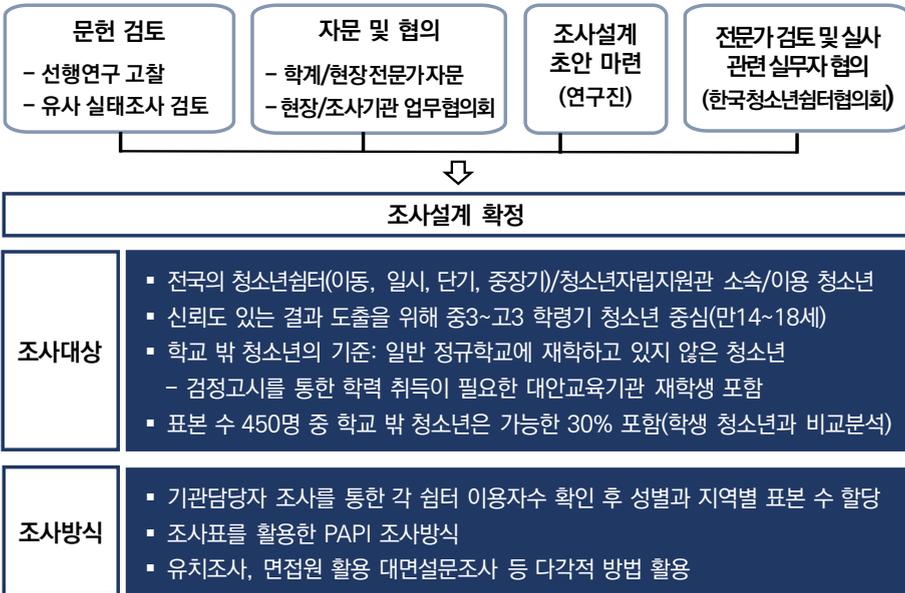


그림 III-1. 조사설계 과정 및 결과

(2) 실사과정 및 결과³⁰⁾

본 조사는 가정 밖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129개 청소년쉼터(이동, 단기, 중장기) 및 11개 청소년자립지원관의 만 14~18세의 가정 밖 청소년(사례관리 대상 포함)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해당 기관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본 조사에 대한 안내와 조사 대상 청소년 인원수 파악하기 위해 웹/모바일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현 지원 내용과 필요한 지원 등에 대해서도 간단히 조사함으로써, 연구과정과 내용, 정책제안 도출 등에 참고하였다.³¹⁾

조사기관에서는 본 조사의 목적, 조사 대상과 조사 내용 등에 대해 안내할 수 있는 기관접촉 가이드와 본 연구원의 조사협조 공문 등을 통해 현장의 실사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기관접촉은 8월 29일부터 조사가 종료된 10월 21일까지 지속적으로 수행되었으며, 결과적으로 기관담당자 조사와 가정 밖 학생·학교 밖 청소년 설문조사에 참여한 현황은 <표 III-2>와 같다. 일시·이동쉼터, 단기 및 중장기쉼터의 경우 쉼터 개소 수 대비 어느 정도 표본 수가 확보되었으나,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의 조사 참여 수는 매우 적었다. 전국에 걸쳐 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권역별로 비교적 골고루 분포하였으나 상대적으로 경상지역의 참여가 낮았다.

표 III-2. 조사참여 기관 및 표본 수

(단위: 개, 명)

기관유형	총 기관 수	담당자 조사 참여 기관	가정 밖 청소년 설문조사				
			조사 참여 기관 수	설문조사 완료 표본 수			
				전체	학생	학교 밖	
청소년쉼터	일시·이동	31	14	13	159	119	40
	단기	63	45	45	244	193	51
	중장기	35	22	19	69	63	6
	소계	129	81	73	472	375	97
자립지원관	11	3	1	3	2	1	
합계	140	84	78	475	377	98	

본 조사에 협조한 78개 기관으로부터 우편조사와 면접원 조사 등을 통해 최종 수집된 설문지는 475개였다. 그중 불성실 응답, 부적격 조사 대상 등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463개 설문지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463개 설문지 중 가정 밖 학생 청소년 사례는 367개,

30) 조사설계 및 실사와 관련된 상세 내용은 기초분석보고서에 제시되어 있다.

31) 기관담당자 조사 결과는 본 연구결과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그 결과는 <부록1>에 제시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 사례는 96개였다.³²⁾ 전체 표본 수는 목표인 450명을 상회하였으나, 학교 밖 청소년 사례 수는 조사설계 시 설정한 전체 표본 수 대비 30%에 미치지 못했다. 이는 학생 청소년과의 비교를 위해 가장 최근 조사(황여정 외, 2022)에서의 학교 밖 청소년 비율인 20.5%보다 높게 설정한 것이나, 결과적으로는 유사한 비율(20.7%)로 조사되었다.

2. 조사 내용

1) 조사지 개발

본 조사는 가정 밖과 학교 밖을 모두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함에 따라 관련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였고, 특히 이들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조사를 수행한 실태조사들의 조사 내용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였다.³³⁾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등에서 가정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비교적 대규모로 폭넓게 연구가 수행되었는데, 이에 해당하는 「가출청소년 실태 및 청소년쉼터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와 자립지원 방안 연구」, 「청소년쉼터 입소청소년 및 종사자 실태 조사 연구」 등을 중심으로 주요 조사 내용을 파악하였다. 이 조사들은 상당한 규모의 가정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접 실태를 조사하였는데, 비록 4~9년 전에 수행되었으나 본 설문조사와 유사한 맥락에서 실시됨에 따라 조사영역과 내용을 도출하는데 있어 기본 토대 역할을 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관련해서는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2015년부터 2018년, 2021년, 2023년에 4차례에 걸쳐 실시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외에 청소년쉼터 청소년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용 청소년이 조사 대상으로 포함된 2021년에 최초로 실시된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와 청소년건강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청소년건강행태조사」 등 주요 연구들의 조사 내용들도 함께 검토하였다. 이외에 진로 영역과 관련된 조사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청소년종합실태조사」도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이러한 주요 선행연구와 실태조사를 검토하면서 가정 밖 학생·학교 밖 청소년의 실태

32) 학교를 그만둔 경험이 있는 사례는 109개 사례였다(현재 학교 밖 청소년 96개 사례+복교 경험이 있는 13개 사례).

33) 가정 밖 청소년과 관련된 2차 자료 분석 연구나 기타 소규모 연구들도 선행연구 고찰의 일환으로 참고하였으나, 전체적인 큰 틀과 영역, 주요 조사 내용들에 대해서는 규모있는 비교적 체계적으로 수행된 주요 연구와 조사들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파악을 위한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고, 이에 더해 학교 경험과 진로관련 내용을 추가하였다. 이후 여러 차례의 연구진 검토와 학계 및 현장전문가의 자문 과정을 거친 후 본 조사를 위한 주요 조사영역과 조사항목들을 도출하였다. 최종 결정된 조사 영역, 주요 조사 내용, 그리고 이를 도출하기 위해 참고한 실태조사 및 연구·작성기관 정보는 <표 III-3>과 같다.

표 III-3. 설문조사의 주요 영역과 내용

영역	주요 내용	검토한 주요 선행연구·실태조사
		연구조사명(연구·작성기관/연구책임자 ^{주1)} /연도
신체적·심리적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체적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질병 유형, 흡연 및 음주 경험 심리정서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아존중감, 회복탄력성, 우울, 사회적 고립, 자살생각 및 이유, 시도 	2017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여성가족부/백해정/2017)
		청소년쉼터 입소청소년 및 종사자 실태조사연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손재환/2020)
		2023 청소년 건강행태조사(교육부·질병관리청/2023)
학교(복교) 및 학교 밖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재학 여부 학교 밖 경험 유무, 시기와 이유 학교 밖 경험(복교 포함) 학교 밖 어려움 지원체계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용 관련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 (여성가족부/황여정/2022)
		가출청소년 실태 및 청소년 쉼터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여성가족부/백해정/2015)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와 자립지원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김희진/2018)
		2015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여성가족부/최인재/2015)
		202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여성가족부/김희진/2021)
진로계획 및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로 준비-주로 하는 일, 검정고시 준비 등 진로계획 및 진로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희망교육수준, 향후 진로계획, 진로결정에 영향을 준 대상/방법, 진로성숙도 진로교육 및 활동, 경험, 도움 기관 희망 직업교육 	2017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여성가족부/백해정/2017)
		2020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여성가족부/김기현/2020)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 (여성가족부/황여정/2022)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와 자립지원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김희진/2018)
아르바이트/취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아르바이트)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종사하는 일 유형과 이유 구직 시 어려움 	202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여성가족부/김희진/2023)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와 자립지원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김희진/2018)
		청소년쉼터 입소청소년 및 종사자 실태조사연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손재환/2020)
경제적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무, 저축, 신용불량 등 유무 등 수입 및 지출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와 자립지원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김희진/2018)
		202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여성가족부/김희진/2023)
지지/지원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모(가족)관계 및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모의 방임/학대, 역기능적 가족생활 	생애주기별 학대 경험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류정희/2018)

영역	주요 내용	검토한 주요 선행연구·실태조사
		연구조사명(연구·작성기관/연구책임자 ^{주1)} /연도)
	사건, 부모의 태도	202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여성가족부/김희진/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체계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험했던 지원 정책과 프로그램 이용, 도움 정도, 지원 정책 수요 등 자립에 대한 생각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와 자립지원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김희진/2018)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 (여성가족부/황여정/2022)
가정 밖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 밖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 밖 생활 시작 연령, 가정 밖 기간과 집을 나온 이유, 쉼터 이용 계기 가정 밖 어려움/(폭력)피해 가정 복귀/ 이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원가정 복귀 의향, 미 복귀 선택 시 이유와 향후 계획 지원체계 - 도움요청 대상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와 자립지원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김희진/2018) 청소년쉼터 입소청소년 및 종사자 실태조사연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손재함/2020) 202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여성가족부/김희진/2023)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 (여성가족부/황여정/2022)

주: 1) 지면의 한계로 해당 연구·조사의 연구책임자명만 기재함(전체 연구진은 참고문헌에서 확인 가능).
 2) 해당 조사 내용을 위해 참고한 주요 연구·조사들로 함께 검토한 원출처 연구들도 포함하였음. 일부 조사항목은 선행연구 및 전문가 자문과정을 거쳐 연구진이 개발하였음.

구체적인 조사표 구성은 다음과 같은 검토 및 작업 과정을 거쳐 수행되었다. 우선, 주요 조사 영역과 조사 내용에 해당하는 관련 연구와 실태조사의 조사도구에 대해 그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활용 여부를 결정하였다. 특히 가정 밖 청소년 대상 연구의 경우 가장 최근 대규모 조사가 2020년에 수행됨에 따라 일부 수정·보완 과정을 거쳤으며, 새롭게 추가된 조사항목 등에 대해서는 연구진이 개발한 문항들로 조사표를 구성하였다.

둘째, 이 설문조사에서 가정 밖 학생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을 비교 분석하여 가정·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어려움과 애로사항 등을 더욱 조명하는 것이 일차적 목적이지만, 가정 밖 상황에서 학생 청소년으로서, 또는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의 경험과 실태 등을 두루 파악하고, 관련 어려움을 파악하여 지원 요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체적인 조사표를 구성하고자 하였다. 즉, 가정 밖 상황에서도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의 경우 자신의 진로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또는 청소년쉼터 등 이용/소속 기관의 독려와 지원 등에 따른 결과라고 볼 때,³⁴⁾ 이 경우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과 어떤 면에서 차이를 보이는 지도 함께 살펴봄으로써 더욱 광범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탐색하기 위함이다. 즉, 학교

34) 가정 밖의 학생 청소년 모두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청소년쉼터의 실무자들은 학교에 재학 중이어도 출석 이상의 의미가 없거나, 향후 학교를 그만둘 여지가 있는 사례도 많아 이에 대해 주목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재학 여부에 따른 심리정서적 차원과 진로 계획 및 준비 등에서의 차이 여부를 살펴볼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의 주요 요인과 필요로 하는 지원이 무엇인지에 대해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조사표를 구성하였다.

셋째, 조사표 초안을 구성한 이후 청소년쉼터 청소년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여성가족부의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와의 조사 내용 중복에 대해 검토 과정을 거쳤다. 본 조사의 목적이 가정 밖의 학생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의 조사 결과 비교 분석임에 따라 이 과정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필수 문항은 일부 중복이나 유사한 경우라도 본 조사에 활용하였다. 이 조사의 주요 내용인 학교 및 학교 밖 경험, 진로계획 및 진로준비 등은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간소한 형태로 포함됨에 따라 내용상 상당한 부분이 차별화된다.

넷째, 조사의 시의성을 고려하여 현재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는 사회적 고립, 회복탄력성과 같은 심리정서적 조사 항목을 최대한 포함하고자 하였으며, 내구제 대출(휴대폰 대출)과 금융사기 등 특히 가정 밖 청소년에게 큰 피해가 우려되는 내용을 추가하였다.³⁵⁾ 전반적으로 조사 문항 개발 및 구성과정에서 정책 및 실천 현장에서의 활용도 제고를 염두에 두고 문항의 중요성, 시의성에 주목하여 조사표를 개발, 정리하였다.

이러한 조사표 개발 과정을 거친 결과, 전체적인 문항 수가 60여 개가 넘게 됨에 따라, 조사 항목의 중요성, 타당성 검토를 하기 위해 학계 및 현장전문가 6인으로부터 서면 자문을 받았다. 주요 자문의견과 조사표 반영 결과는 <표 III-4>와 같다.

표 III-4. 전문가 주요 자문 의견 및 조사표 반영 결과

조사 내용		자문의견	조사표 반영 결과
신체적·심리적 건강	치료가 필요한 질병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료항목 추가 현재 치료가 필요하거나 치료받고 있는 질병 모두 선택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료항목을 상세화하고 모두 선택으로 질문 방식 변경
	자아존중감, 회복탄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부 조사항목을 줄여서 제시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뢰도 분석을 통해 alpha값이 높은 수준에서 세부 조사항목 수정
	우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우울 측정을 더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건강행태조사의 일반청소년과의 비교를 위해 원 문항 유지
	자살생각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업부담감, 외로움과 고립감 등 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보기 항목에 학업부담감과 외로

35) 이외에도, 도박이나 약물중독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타 조사와의 중복과 조사 범위 확대에 대한 우려, 그리고 좀 더 현실적인 피해 내용에 초점을 둘 필요성에 따라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조사 내용		자문의견	조사표 반영 결과
		리직 기제에 대한 내용을 보기항목 예시로 포함 필요	음, 고립감 예시 포함하여 수정
학교 (복교) 및 학교 밖 경험	학교를 그만둔 이유	• 우선순위로 보기를 고르게 하기 보 다 최대 3가지를 선택하게 할 것을 제안	• 학교를 그만둔 가장 큰 이유를 파악 하는 것에 의미를 두어 원안을 유지 하되, 응답에 용이하도록 1, 2순위까 지만 질문하도록 수정
	학교밖청소년지 원센터 미이용시 이유	• 응답보기 추가(어떻게 이용하는지를 몰라서, 또는 잘 몰라서)	• '센터를 잘 몰라서' 보기 제안을 반영 하여 수정
	학교밖청소년지 원센터 참여 의향	• 참여할 의사에 대한 이유 보기에 심 리상담 지원, 건강 지원 추가	• 해당 보기를 추가하여 조사표 수정에 반영
진로계획 및 준비	현재 주로 하는 일	• 현재 주로 하고 있는 일의 보기 6개 선택지 모두에 주당 참여 시간 추가	• 응답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어 미반 영하고 질문 로직 수정
	희망 직업교육· 훈련	• 희망하는 교육·훈련과정 우선순위 (1~3순위)보다는 최대 세 가지로 응 답할 수 있도록 수정	• 응답에 용이하도록 최대 2개 선택하 도록 수정
아르바이 트/취업	아르바이트(일) 경험	• 경험한 아르바이트(일)를 모두 선택 하도록 수정 제안	• 현재와 과거에 경험한 아르바이트 모 두 선택으로 질문 방식 변경
	아르바이트 이유	• 주된 이유뿐 아니라 해당되는 모든 이유 선택 필요	• 응답 피로도 경감을 위해 주된 이유 한기지만 선택하도록 하는 원안 유지
	구직 시 어려움	• 경력 부족과 원하는 일자리 부족 선 택 항목 추가	• 다른 보기 항목과 유사함에 따라 원 안 유지
경제적 상황	신용불량 경험	• 휴대전화, 이동통신 요금 연체 예시 필요	• 신용불량 경험은 가정 밖 경험에 따 른 어려움의 일부 보기와 유사함에 따라 문항 삭제
	월 평균 수입 출처	• 자립지원수당, 기초생활수급 등 추 가 필요	• 해당 보기 항목 반영하여 수정
지지/ 지원 체계	경험했던 지원 정책, 프로그램	• 조사 항목에 청소년자립지원관, 청 소년회복지원시설 등 추가	• 해당 문항이 매우 복잡하게 구성됨에 따라 기존의 내용을 삭제하는 과정에 서 추가 항목은 반영하지 않음.
가정 밖 경험	가정 밖 생활 이유, 쉼터 이용 계기	• 이유에 대해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선택하는 것이 아닌 해당사항 모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수정 제안	• 응답 피로도 경감을 위해 집을 나온 가장 큰 이유로 1순위와 2순위를 묻 는 것으로 변경
	가정 밖 어려움과 피해	• 비행 및 범죄피해 예시로 내구제 혹 은 금융사기, 전세사기 포함	• 휴대폰 개통 대출(내구제 대출)과 금 융 및 전세사기 항목 포함

이러한 과정을 거쳤음에도 여전히 전체 문항 수가 많고 무엇보다 척도 문항의 경우 상당히 길게 이어짐에 따라, 일부 전문가들은 조사 대상 청소년들의 응답 피로도, 나아가

응답 신뢰도에도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여 여러 문항에 대해 삭제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자아존중감과 회복탄력성 척도 문항의 경우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신뢰도 분석을 통해 alpha 값을 기준으로 문항 축소를 시도하였다. 전체 조사 항목의 신뢰도와 최대 유사한 수준을 보이는 세부 항목 조합을 찾아 문항 수정에 반영하였으며, 이러한 척도 문항의 신뢰도 분석을 통한 문항 정리 과정과 결과는 <표 III-5>와 같다.

표 III-5. 척도 문항 정리 예시

항목	자아존중감	전체										
	신뢰도 값	.90	.83	.86	.85	.84	.83	.89	.82	.80	.86	.85
1)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	—	—	—	—	—	—				
2)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	—	—	—				—	—	—	
3)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 같이 일을 잘할 수가 있다		—	—			—	—		—	—		—
4)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		—		—		—	—		—	—
5)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			—		—	—		—	—	—

주: 자아존중감은 5개에서 3개 조사 항목으로 수정하고, 회복탄력성은 동일한 방식으로 6개에서 4개 항목으로 수정

마지막으로, 조사 대상인 가정 밖 학생·학교 밖 청소년의 응답 피로도를 줄이고 신뢰성 있는 조사 결과 도출을 위해, 수정한 조사표에 대한 현장전문가의 자문 및 협의과정을 거친 후 최종안을 확정하였다. 조사표 개발의 마지막 검토 과정의 목적은 조사표 정리 및 축소였지만, 현장전문가들로부터 현재 청소년쉼터에서 재학 중이지만 향후 학교를 그만둘 것을 고려하는 청소년들에 대해 파악할 필요성을 제안받았다. 이에 따라 현재는 학교에 재학 중이지만 이후 학교를 그만둘 의사가 있는지 여부와 그 이유, 또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이용 의사 등의 조사 문항을 조사표에 새로 추가하였다.

지금까지 기술한 가정 밖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설문조사 조사표의 개발 및 확정 과정을 도식화하면 [그림 III-2]와 같다.



그림 III-2. 설문조사 조사표 개발·확정 과정

2) 설문조사 내용

최종적으로 확정된 가정 밖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설문조사 조사표는 현재 가정 밖 상황에서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용은 설문지A 유형으로,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은 설문지B 유형으로 구분하여 별도 작성하였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확정된 조사 내용과 출처, 그리고 설문지 유형에 따라 구분된 조사 항목 내용을 정리하면 <표 III-6>과 같다.

표 III-6. 설문조사 내용 및 문항, 출처

영역	내용	조사문항		문항번호		출처
				학생 (설문지 A)	학교 밖 (설문지 B)	
1. 학교(복고) 및 학교 밖 경험	학교 재학 여부	(학생 대상) 현재 학교 재학 여부	현재 학교 재학 여부	문1	문1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와 자립지원 방안 연구(김학진 외, 2018) (원출처: 백혜정 외, 2015)
		학교 재학 여부, 학교급/유형	현재 학교급 및 학년	문1-1	—	
	학교 밖 경험 유무, 시기와 이유	(학생 중 과거) 학교를 그만둔 경험 유무	학교를 그만둔 경험 유무	문1-2	—	연구진 작성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과 이유	그만둔 생각 유무	문1-3	—	현장 자문의견에 기초하여 연구진 작성
			그렇게 생각한 이유	문1-4	—	
	학교를 그만둔 경험	학교를 그만둔 경험	문2	문2	2015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수정	
	학교를 그만둔 경험과 이유	학교를 그만둔 이유	문3	문3	202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원출처: 윤철경 외, 2010: 2020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영역	내용	조사문항		문항번호		출처		
				학생 (설문지 A)	학교 밖 (설문지 B)			
	학교 밖 경험(복고 포함)	(학생 대상) 현재 재학 중인 학교로 복귀한 시기와 이유, 만족도	복고 이유	문4	—	연구진 작성, 202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원출처: 김경애 외, 2014) 응답 보기 활용		
			복고 만족도	문4-1	—			
	학교 밖 어려움	학교를 그만둔 후의 어려움	그만둔 후 어려움	문5	문4	202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원출처: 김경애 외, 2014)		
	지원체계 및 내용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용 여부, 미이용 사유	이용 여부	문6	문5	202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미이용 사유			문6-1	문5-1				
		(학교 밖 청소년 대상) 향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원 참여 의사	문7	문6	202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2. 진로계획 및 준비	진로 준비	(진로관련) 현재 주로 하는 일	주로 하는 일	문8	문7	202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문항 수정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 일	문8-1	문7-1			
			검정고시 준비 교급	—	문7-2			
			검정고시/대입 준비 장소/경로	문8-2	문7-3			
	진로계획 및 진로 결정	희망 교육수준	향후 진로 계획	희망 교육수준	문9	문8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와 자립지원 방안 연구(2018)(원출처: 2017 청소년종합실태조사)	
				향후 진로 계획	문10	문9		202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원출처: 이경상 외, 2007), 위기 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 조사(2022) 참고 수정
				진로결정에 영향을 준 대상이나 방법	문11	문10		
				진로성숙도	문12	문11		
	진로교육 및 활동, 경험	직업/진로 관련 활동 참여경험 유무, 참여 기관	참여 경험 유무	참여 경험 유무	문13	문12	2020 청소년종합실태조사 문항 수정	
				참여 도움 기관	문13-1	문12-1		
	희망 직업교육	희망하는 직업교육	훈련 유무	훈련 유무	문14	문13	202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받고 싶은 직업교육	문14-1	문13-1		
3. 신체적·심리적 건강	신체적 건강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문15	문14	2017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치료가 필요한 질병 유형	문16	문15		청소년쉼터 입소청소년 및 종사자	

영역	내용	조사문항		문항번호		출처
				학생 (설문지 A)	학교 밖 (설문지 B)	
4. 아르바이트/취업	심리정서사회	흡연 경험		문17	문16	실태조사 연구(2020) 2023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음주 경험		문18	문17	2023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자이존증감, 회복탄력성		문19	문18	1)-3) 자이존증감: 최인재 외 (2012) 문항 수정 활용 4)-7) 회복탄력성: Smith 외 (2008) 간이탄력성척도 번안 활용
	사회적 고립	우울		문20	문19	2023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자살 생각 유무		문21	문20	202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원출처: 유민상 외, 2022: Russell, 1996 UCLA Loneliness Scale)
		자살 생각 및 이유, 시도	자살 생각 이유	문22-1	문21-1	202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원출처: 황여정, 이정민 외, 2020 위기 청소년 현황 및 실태조사 기초연구)
			자살 시도 유무	문23	문22	2023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일(아르바이트) 경험	일(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종사하는 일 유형 및 이유	현재 일(아르바이트) 여부	문24	문23	202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원출처: 이경상 외, 2007)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와 자립지원 방안 연구(2018)(원출처: 한국 청소년패널조사 조사개요 보고서, 이경상 외, 2003) 수정
			일(아르바이트) 유형	문24-1	문23-1	
			일(아르바이트) 이유	문24-2	문23-2	
구직 시 어려움	구직(일/아르바이트) 시 어려움		문25	문24	청소년쉼터 입소청소년 및 종사자 실태조사 연구(2020),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와 자립지원 방안 연구(2018) 수정	
5. 경제적 상황	경제 상황	가정의 경제적 수준, 채무, 저축 유무, 신용불량 여부	가정 경제 수준	문26	문25	202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원출처: 최인재 외, 2009)
			응답자 경제 상황	문27	문26	202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청소년쉼터 입소청소년 및 종사자 실태조사 연구(2020) 수정
	수입 및 지출	월 평균 수입, 수입의 출처		문28, 문28-1	문27, 문27-1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와 자립지원 방안 연구(2018)
6. 지지/지원체계	부모(가족) 관계 및 태도	부모의 방임/학대, 역기능적 가족생활 사건		문29	문28	WHO의 부정적 생애경험 척도 (ACE-IQ)(류정희 외, 2018)
		현재 부모님/보호자 태도		문30	문29	202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원출처: 최인재 외, 2012) 수정

영역	내용	조사문항	문항번호		출처	
			학생 (설문지 A)	학교 밖 (설문지 B)		
	자원체계 및 내용	경험했던 지원 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 이용 여부, 도움 정도	문31	문30	202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수정(원출처: 김경애 외, 2014),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와 자립지 원 방안 연구(2018)(원출처: 조규 필, 2016) 수정	
		지원 정책(서비스) 수요	문32	문31	202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와 자립지 원 방안 연구(2018),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 (2022) 참고 수정	
	자립에 대한 생각	자립에 대한 의지(생각)	문33	문32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와 자립지 원 방안 연구(2018)	
7. 가정 밖 경험	가정 밖 생활	가정 밖 생활 시작 연령	문34	문33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와 자립지 원 방안 연구(2018)	
		가정 밖 생활 기간, 주요 이유	가정 밖 기간	문35	문34	청소년쉼터 입소청소년 및 종사자 실태조사 연구(2020), 가정 밖 청 소년의 실태와 자립지원 방안 연 구(2018) 수정
			집을 나오게 된 이유	문36	문35	
		쉼터 이용 계기	문37	문36	청소년쉼터 입소청소년 및 종사자 실태조사 연구(2020)	
	가정 밖 어려움/피해	집을 나오면서 가장 힘든 점과 폭력 피해 경험	문38	문37	202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원출처: 이경상 외, 2012) 청소 년쉼터 입소청소년 및 종사자 실 태조사 연구(2020)	
	가정 복귀/이후 계획	향후 원가정 복 귀 의향, 미복귀 이유 및 이후 계획	복귀 의향	문39	문38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와 자립지 원 방안 연구(2018), 청소년쉼터 입소청소년 및 종사자 실태조사 연구(2020) 수정
		미복귀 이유	문39-1	문38-1		
자원체계	도움 요청 대상(믿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		문40	문39	202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원출처: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 용자 생활실태조사, 2022),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와 자립지원 방 안 연구(2018) 수정	
배경 변인	개인 특성	성별, 나이	문0	문0	—	
		(원가정)가족 유형	배문1	배문1	한국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김 영지 외, 2017)	

3. 분석 방법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분석이 가능한 형태로 가공한 후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술통계 분석은 연구 대상의 전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인구통계학적 특성(예: 성별, 연령, 가족구조 등), 기관 유형(예: 일시·이동, 단기, 중장기쉼터 등), 가정·학교 밖 청소년 여부, 가정·학교 밖 생활 기간, 경제 상황 등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고, 청소년이 직면한 주요 문제들(예: 학교 밖 경험, 진로/취업 관련 경험, 지지체계 상황, 가정 밖 경험 등)에 대한 빈도,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초 통계치를 분석하여 보고하였다. 배경변인별 분석에서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결과는 본 보고서에 서술하였으며, 그 외 결과는 별도로 발간되는 기초분석보고서에 수록하였다.

또한, 특정 변수들 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명목형 변수는 교차분석(Chi-squared test)을 활용하고, 연속형 변수는 독립표본 t-검정(t-test)과 일원분산분석(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을 실시하여 보고하였다. 일원분산분석은 유의미한 통계 값이 나타난 경우,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사후 검정(Post-hoc test)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가정·학교 밖 청소년이 직면하는 다양한 어려움과 지원 요구를 예측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분석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실시하였다. 첫째,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기초모형에 성별과 연령, 경제적 수준, 기관유형(일시·이동, 단기, 중장기/자립지원관)을 투입하였다. 가정·학교 밖 모형에는 기초모형에 현재 상태(학교 재학, 학교 밖) 변인을 추가하고, 학교 밖 경험 모형에는 기초모형에 학교 밖 경험 유무(있음, 없음) 변인을 추가로 투입하여 모형의 적합도와 설명력이 증가하였는지 살펴보았다. 통계모형의 적합도 개선은 기초모형과 추가된 변인별 통계모형의 지표를 비교하였다. 종속변수가 연속변인이면 R^2 의 변화량, 이분변인이면 -2 로그우도(-2 Log Likelihood)의 변화량을 살펴보았다. 셋째, 변인의 계수 값 및 p 값을 검증하였다. 종속변수의 형태에 따라 다중회귀분석인 경우 비표준화계수를 보고하였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경우 승산비(Odds Ratio)를 보고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으로 살펴본 가정·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한 어려움과 지원 요구 관련 변인은 <표 III-7>에 제시하였다.

표 III-7. 위계적 회귀분석에 활용된 종속변수

측면	종속변수
가정 밖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식주 해결 문제 • 교육진로 및 취업
신체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흡연 경험 • 음주 경험
심리정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복탄력성 • 우울 • 치료가 필요한 질병(우울, 불안장애 등 정신과 질환)
지지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움 요청 대상(학교 선생님)
진로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성숙도 • 진로교육 및 활동 경험 • 현재 일(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지원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비 지원 • 자립정착금 지원 • 검정고시 준비 지원

마지막으로, 가정·학교 밖 청소년의 이중 취약 실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기존에 수집된 2차 자료 조사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2차 자료를 활용한 분석에 있어서 주의할 점은 2차 자료의 수집 시점, 표집 방법, 표집 대상이 본 조사와 상이하여 통계적 검정이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제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집단 간 차이 분석과 같은 통계적 검정을 실시하는 것 대신, 전반적인 경향성을 확인하기 위해 2차 자료에서의 응답률이나 특정 지표의 비율 등을 가지고 본 조사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가정·학교 밖 청소년의 실태와 비교한 대상 집단 및 비교 내용, 기존의 실태조사 유형은 <표 III-8>에 제시하였다.

표 III-8. 가정·학교 밖 청소년의 생활 실태 및 경험에 대한 기존 실태조사와의 비교

비교 대상 집단	조사 내용	기존 실태조사
가정 밖 학생 청소년	희망 교육수준, 흡연·음주 경험, 우울, 자살 생각 및 자살 시도 유무, 사회적 고립감 등	2023 청소년 건강행태조사(교육부, 질병관리청, 2024), 2023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김지경, 송현주, 김균희, 2023), 2023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유민상, 이경상, 2023)
가정·학교 밖 청소년	사회적 고립감, 학교를 그만둔 시기/이유, 진로 결정에 영향을 준 대상/방법, 아르바이트/취업 여부, 경제 상황,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서비스 참여 의사, 지원 정책 수요 등	202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김희진, 임희진, 김정숙, 2023b)

4. 분석 결과³⁶⁾

1) 기술분석 결과

(1) 학교 생활 및 학교 밖 경험

-
- 가정 밖 청소년 463명 중 재학 중인 청소년은 79.3%, 학교 밖 청소년은 20.7%였음. 과거 학교를 그만둔 경험은 23.5%였고,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43.0%였음.
 - 가정 밖 상황에서도 학교를 그만둔 주요 이유는 심리정서적 문제(31.2%)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공부하기 싫어서(25.8%), 부모님과과의 갈등·가정 불화(23.7%) 순이었음(1순위+2순위).
 - 학교를 그만둔 이후 경험한 어려움 중에는(약간+자주 경험했다는 응답률 기준) 부모와의 갈등 경험이 76.9%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학교 친구들과의 관계 단절(53.3%), 어디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아 나 혼자라는 불안감(52.2%), 할 일도 없고,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의욕도 없음(무기력함)(51.6%), 적성에 맞는 진로 찾기의 어려움(49.5%), 대학진학관련 정보를 찾기 어려움(48.4%) 등이 높은 응답률을 보여, 이들의 심리사회적 문제와 무기력, 진로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가정·학교 밖 청소년 중 47.7%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용 경험이 없었으며, 그 이유 중 다수는 '꿈드림센터를 잘 몰라서'와 '방문하기 귀찮아서'였음, 향후 지원 참여 의사는 75.3%였고, 정보를 얻기 위해서가 가장 응답률이 높은 이유였음.
-

① 학교 재학 여부 및 응답자 특성

가정 밖 학생·학교 밖 청소년 설문조사에 참여한 청소년은 총 463명으로 이중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은 79.3%(367명), 학교 밖 청소년은 20.7%(96명)로 조사되었다(<표 III-9>). 현재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학교를 그만둔 경험이 있는 청소년에 대한 조사에서 학교 밖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23.5%(109명)로 현재 학교 밖 청소년에 비해, 2.8%p 많았는데(13명), 이들은 학교로 복귀한 숫자이다(복교 청소년).

조사 참여자 성별에 따른 분포를 보면 남자 청소년이 49.7%, 여자 청소년이 50.3%로 균등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16세 미만은 44.9%, 16세 이상은 55.1%로 일반적인 고등학교 학령기 이전 연령대 청소년의 비중도 상당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컴퓨터 유형별로 보면 일시·이동컴퓨터는 33.3%, 단기컴퓨터는 51.6%, 증장기컴퓨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는 15.1%였다. 가족 유형 중 양친이 모두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48.1%, 한부모가정은 41.2%, 조손 등 기타 응답은 10.7%였다.

36) 통계표에서 모든 조사 결과는 가정 밖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설문지A 유형) 결과이며, 그중 '학교 밖' 또는 '가정·학교 밖'으로 표시된 결과값은 가정·학교 밖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이다(설문지B 유형). 설문지A 유형으로 조사한 과거 학교 밖 경험이 있는 청소년 응답은 학교 밖 경험 유무로 표시하고, 통계값은 참고치로 제시하였다.

표 III-9. 응답자 특성(전체)

(단위: 명, %)

구 분		전체	가정 밖 학생 청소년 ¹⁾	가정·학교 밖 청소년 ²⁾
전체		463 (100.0)	367 (100.0)	96 (100.0)
학교 밖 경험 ³⁾	있다	109 (23.5)	13 (3.5)	96 (100.0)
	없다	354 (76.5)	354 (96.5)	0 (0.0)
성별	남자	230 (49.7)	186 (50.7)	44 (45.8)
	여자	233 (50.3)	181 (49.3)	52 (54.2)
연령	16세 미만	208 (44.9)	188 (51.2)	20 (20.8)
	16세 이상	255 (55.1)	179 (48.8)	76 (79.2)
기관 유형	일시·이동	154 (33.3)	115 (31.3)	39 (40.6)
	단기	239 (51.6)	189 (51.5)	50 (52.1)
	중장기·자립지원관	70 (15.1)	63 (17.2)	7 (7.3)
가족 유형	양친	180 (48.1)	130 (45.5)	50 (56.8)
	한부모	154 (41.2)	123 (43.0)	31 (35.2)
	기타	40 (10.7)	33 (11.5)	7 (8.0)
가정 밖 생활 기간	한 달 미만	152 (47.2)	117 (49.2)	35 (41.7)
	1년 미만	110 (34.2)	82 (34.5)	28 (33.3)
	1년 이상	60 (18.6)	39 (16.4)	21 (25.0)
가정 밖 생활 시작 연령	16세 미만	245 (70.4)	196 (74.8)	49 (57.0)
	16세 이상	103 (29.6)	66 (25.2)	37 (43.0)
경제적 수준	상	46 (10.0)	38 (10.4)	8 (8.3)
	중	316 (68.4)	248 (67.8)	68 (70.8)
	하	100 (21.6)	80 (21.9)	20 (20.8)
지역 규모	광역시도	201 (43.4)	156 (42.5)	45 (46.9)
	기초시군구	262 (56.6)	211 (57.5)	51 (53.1)

주: 1) '가정 밖 학생 청소년'은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인 가정 밖 청소년(n=367)을 지칭함.
 2) '가정·학교 밖 청소년'은 현재 학교에 다니지 않는 가정 밖 청소년(n=96)을 지칭함.
 3) '학교 밖 경험' 청소년은 현재 학교에 다니지 않는 가정 밖 청소년(n=96)과 과거 학교를 그만둔 경험이 있는 복교한 가정 밖 청소년(n=13)을 통칭함.

가정 밖 생활 기간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한 달 미만은 47.2%, 1년 미만은 34.2%, 1년 이상은 18.6%였다. 가정 밖 생활을 시작한 연령대를 보면, 16세 미만이 70.4%, 16세 이상이 29.6%로 초·중학생 시기에 집을 나온 사례도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족 유형, 가정 밖 생활 시작 기간과 연령 등 가족 및 가정 밖 상황 관련 특성에 대해서는 모름이나 무응답이 많아 이후 관련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³⁷⁾ 가정의 경제적

37) 가족 유형, 가정 밖 생활 시작 기간과 연령 등의 가족 및 가정 밖 관련 문항에서 모름이나 무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일시·이동 청소년쉼터의 청소년에게서 이런 경향이 더 높았는데, 현장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아직 집을 나온 지 오래되지 않았거나, 또는 잦은 가출과 원가정 복귀 등의 반복으로 스스로를 가정 밖 청소년으로

수준을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10%에 불과하였으며, 중간 수준이라는 응답은 68.4%, 낮은 수준이라는 응답은 21.6%였다. 현재 거주하고 있거나 조사가 실시된 곳의 지역 규모를 보면, 광역시도는 43.4%였고, 이외 지역은 56.6%였다. 현재 학교 재학 여부와 학교 밖 경험 유무에 따른 응답자 특성 차이는 다음에서 통계적 차이와 함께 기술하였다.

② 학교 밖 경험 유무, 시기와 이유

가정·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 재학 여부에 따른 배경변인별 차이를 살펴보았다(〈표 III-10〉). 학교를 그만둔 경험에 따른 차이도 살펴보았지만 대동소이함에 따라, 현재 학교 재학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표 III-10. 현재 재학 여부(전체)

(단위 : 명, %)

구 분	현재 학교 재학 여부			학교 밖 경험 유무			
	학생	학교 밖	$\chi^2(df)$	경험 없음	경험 있음	$\chi^2(df)$	
전체	367(79.3)	96(20.7)		354(76.5)	109(23.5)		
성별	남자	186(80.9)	44(19.1)	0.72(1)	183(79.6)	47(20.4)	2.45(1)
	여자	181(77.7)	52(22.3)		171(73.4)	62(26.6)	
연령	16세 미만	188(90.4)	20(9.6)	28.41(1)***	186(89.4)	22(10.6)	35.3(1)***
	16세 이상	179(70.2)	76(29.8)		168(65.9)	87(34.1)	
기관 유형	일시·이동	115(74.7)	39(25.3)	6.89(2)*	114(74.0)	40(26.0)	5.3(2)
	단기	189(79.1)	50(20.9)		179(74.9)	60(25.1)	
	중장기·자립지원관	63(90.0)	7(10.0)		61(87.1)	9(12.9)	
경제적 수준	상	38(82.6)	8(17.4)	0.46(2)	38(82.6)	8(17.4)	1.1(2)
	중	248(78.5)	68(21.5)		240(75.9)	76(24.1)	
	하	80(80.0)	20(20.0)		75(75.0)	25(25.0)	
가정 밖 생활기간	한 달 미만	117(77.0)	35(23.0)	3.23(2)	113(74.3)	39(25.7)	4.5(2)
	1년 미만	82(74.5)	28(25.5)		80(72.7)	30(27.3)	
	1년 이상	39(65.0)	21(35.0)		36(60.0)	24(40.0)	
가정 밖 생활 시작 연령	16세 미만	196(80.0)	49(20.0)	9.88(1)**	186(75.9)	59(24.1)	5.9(1)*
	16세 이상	66(64.1)	37(35.9)		65(63.1)	38(36.9)	
일(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있다	123(68.0)	58(32.0)	24.35(1)***	115(63.5)	66(36.5)	30.0(1)***
	없다	241(87.0)	36(13.0)		237(85.6)	40(14.4)	

* $p < .05$, ** $p < .01$, *** $p < .001$

주: 1) 전체 n=463

2) 가족 유형, 가정 밖 생활 기간, 가정 밖 생활 시작연령 통계치는 모름/무응답 제외 값, 이하 통계표도 같음.

인식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하 통계표에서는 가족 유형, 가정 밖 생활 기간, 가정 밖 생활 시작연령 통계치에서 모름/무응답 값을 제외하였다.

가정·학교 밖 청소년의 성별 차이를 보면, 남자 청소년의 비율은 19.1%, 여자 청소년은 22.3%로 여자 청소년의 학교 밖 비율이 3.2%p 높았다. 16세 미만 청소년의 학교 밖 비율은 9.6%였는데, 16세 이상은 29.8%로 후기 청소년의 학교 밖 비율이 훨씬 높았다. 또한, 일시·이동섭터 청소년의 학교 밖 비율이 25.3%로 가장 높았고, 단기섭터 20.9%, 중장기·자립지원관이 10.0% 순이었다. 가정 밖 생활 기간이 길수록 학교 밖 비율이 높았는데, 선행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인 것을 감안할 때(김지혜, 안치민, 2006), 가정 밖 생활 기간은 학교 밖 여부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정 밖 생활을 시작한 연령대를 16세 미만과 그 이상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16세 미만에서는 학교에 다니지 않는 비율이 20.0%였으나, 16세 이상에서 학교에 다니지 않는 비율이 35.9%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학교에 다니지 않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현재/과거 아르바이트 경험률에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이 32.0%로 아르바이트 무경험 사례 13.0%보다 19%p 높았다.

현재 가정 밖 상황에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 중 79.3%는 고등학교 시기에 학교를 그만두었으며, 중학교 시기는 18.5%였다(표 III-11). 현재 연령대와 가정 밖 생활 시작 연령이 16세 이상인 경우 고등학교 시기에 학교를 그만두었다는 응답이 많았다.

표 III-11. 그만둔 학교급(가정·학교 밖 청소년)

(단위: 명, %)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밖 경험 있음		4(3.8)	21(20.0)	80(76.2)
학교 밖 청소년 전체		2(2.2)	17(18.5)	73(79.3)
성별	남자	0(0.0)	7(16.3)	36(83.7)
	여자	2(4.1)	10(20.4)	37(75.5)
연령	16세 미만	2(11.8)	11(64.7)	4(23.5)
	16세 이상	0(0.0)	6(8.0)	69(92.0)
기관유형	일시·이동	0(0.0)	8(21.6)	29(78.4)
	단기	2(4.2)	6(12.5)	40(83.3)
	중장기·자립지원관	0(0.0)	3(42.9)	4(57.1)
가정 밖 생활 시작 연령	16세 미만	2(4.2)	15(31.2)	31(64.6)
	16세 이상	0(0.0)	1(2.8)	35(97.2)
경제적 수준	상	0(0.0)	0(0.0)	7(100.0)
	중	2(3.1)	13(20.0)	50(76.9)
	하	0(0.0)	4(20.0)	16(80.0)

주: 1) 그만둔 학교급(가정·학교 밖 청소년) 전체 n=92

2) 성별 등 배경변인별 통계치는 음영 처리한 '학교 밖 청소년 전체' 값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으로 이하 동일함.

가정 밖 상황에서 현재 학생인 청소년 중 43%는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중 상대적으로 낮은 연령대에서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한 이유 1순위, 2순위 응답을 통합한 높은 비율순으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표 III-12>와 같다.

표 III-12.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지와 그 이유(1+2순위)(전체)

(단위: 명, %)

구 분	생각 여부			생각 이유						
	예	아니오	χ^2 (df)	사례 수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서	공부하기 싫어서	심리정서적인 문제로	학교 공부가 어려워서	학교 친구들과의 문제로	
학교 밖 청소년 전체	147(43.0)	195(57.0)		139	40.3	36.0	25.9	15.8	14.4	
성별	남자	63(35.6)	114(64.4)	8.174**	60	33.3	36.7	23.3	23.3	10.0
	여자	84(50.9)	81(49.1)		79	45.6	35.4	27.8	10.1	17.7
연령	16세 미만	78(43.8)	100(56.2)	.106	72	43.1	45.8	19.4	12.5	18.1
	16세 이상	69(42.1)	95(57.9)		67	37.3	25.4	32.8	19.4	10.4
기관 유형	일시·이동	42(38.2)	68(61.8)	3.219	36	38.9	50.0	8.3	19.4	11.1
	단기	83(47.7)	91(52.3)		81	40.7	28.4	30.9	13.6	18.5
	중장기·자립지원관	22(37.9)	36(62.1)		22	40.9	40.9	36.4	18.2	4.5
가정 밖 생활 시작 연령	16세 미만	89(49.7)	90(50.3)	1.119	85	42.4	40.0	22.4	10.6	17.6
	16세 이상	26(41.9)	36(58.1)		25	28.0	24.0	44.0	20.0	12.0
경제적 수준	상	14(37.8)	23(62.2)	5.778	10	20.0	70.0	10.0	20.0	0.0
	중	94(40.2)	140(59.8)		90	42.2	35.6	24.4	15.6	15.6
	하	39(55.7)	31(44.3)		39	41.0	28.2	33.3	15.4	15.4

* $p < .05$, ** $p < .01$, *** $p < .001$

주: 1) 생각 여부 전체 n=342, 생각 이유 전체 n=139

2) 전체값 기준 상대적으로 응답률이 높은 항목만 제시하였음.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이유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서’가 40.3%였으며, 다음으로 ‘공부하기 싫어서’ 36.0%, ‘심리정서적인 문제로’ 25.9%, ‘학교 공부가 어려워서’ 15.8%, ‘학교 친구들과의 문제로’ 14.4%였다.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에 대해 배경변인별 두드러진 차이를 살펴보면,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그리고 현재 연령과 가정 밖 생활 시작 연령이 16세 미만 청소년인 경우 16세 이상 청소년보다 더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으로 확인된다.

현재 가정 밖이면서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는 청소년들이 실제 학교를 그만둔 이유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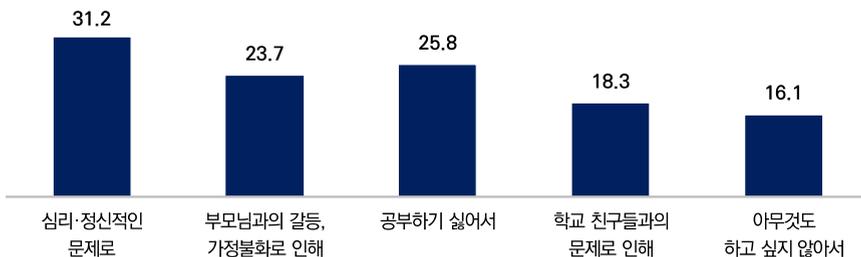
살펴보면(1순위 응답과 2순위 응답 통합), ‘심리정서적인 문제로’가 31.2%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공부하기 싫어서’ 25.8%, ‘부모님과과의 갈등/가정불화’ 23.7%, ‘학교 친구들과의 문제’ 18.3%,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서’ 16.1%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학교를 그만둔 이유로 가장 응답률이 높았던 심리정서적인 문제의 경우, 현 연령대와 가정 밖 생활 시작 연령이 16세 이상인 청소년이 16세 미만에 비해 높았다.

표 III-13. 학교를 그만둔 이유(1+2순위)(가정·학교 밖 청소년)

(단위: 명, %)

구분	심리정서적인 문제로	부모님과과의 갈등/가정 불화	공부하기 싫어서	학교 친구들과 의 문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서	
학교 밖 경험 있음	32(30.8)	25(24.0)	25(24.0)	19(18.3)	17(16.3)	
학교 밖 청소년 전체	29(31.2)	22(23.7)	24(25.8)	17(18.3)	15(16.1)	
성별	남자	13(30.2)	10(23.3)	13(30.2)	5(11.6)	9(20.9)
	여자	16(32.0)	12(24.0)	11(22.0)	12(24.0)	6(12.0)
연령	16세 미만	4(23.5)	6(35.3)	8(47.1)	3(17.6)	4(23.5)
	16세 이상	25(32.9)	16(21.1)	16(21.1)	14(18.4)	11(14.5)
기관 유형	일시·이동	10(27.0)	5(13.5)	13(35.1)	5(13.5)	9(24.3)
	단기	17(34.7)	13(26.5)	9(18.4)	11(22.4)	5(10.2)
	중장기·자립지원관	2(28.6)	4(57.1)	2(28.6)	1(14.3)	1(14.3)
가정 밖 생활 시작 연령	16세 미만	14(29.2)	16(33.3)	10(20.8)	12(25.0)	3(6.3)
	16세 이상	14(37.8)	6(16.2)	10(27.0)	3(8.1)	8(21.6)
경제적 수준	상	1(14.3)	2(28.6)	2(28.6)	0(0.0)	1(14.3)
	중	20(30.3)	17(25.8)	19(28.8)	6(9.1)	9(13.6)
	하	8(40.0)	3(15.0)	3(15.0)	11(55.0)	5(25.0)

주: 학교를 그만둔 이유(1+2순위)(가정·학교 밖 청소년) 전체 n=93



주: 학교를 그만둔 이유 1순위+2순위를 합친 응답률로 높은 비율을 보인 주요 항목 제시(단위: %)

그림 III-3. 학교를 그만둔 이유(1+2순위)(가정·학교 밖 청소년)

③ 학교 밖 경험

가정 밖 상황에서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의 가족관계, 건강, 심리정서, 사회적 관계 및 지지, 진로·진학, 사회적 인식 등에서의 어려움 경험 정도를 조사하였다. 다양한 항목을 통해 조사한 결과는 <표 III-14>와 같다. 여기에는 학교를 그만둔 경험은 있으나 학교에 복귀하지 않은 현재 학교 밖 청소년의 데이터만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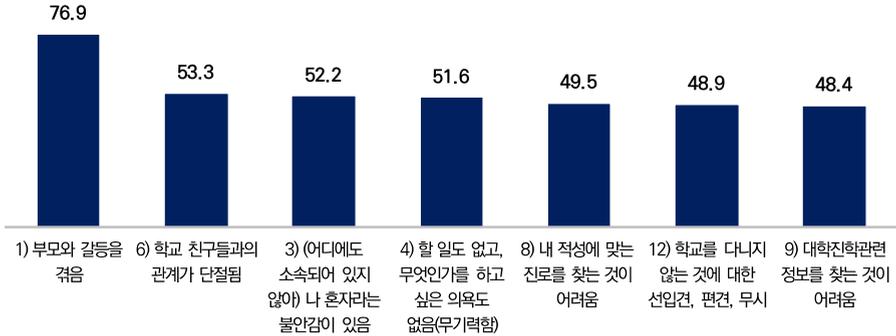
표 III-14. 학교를 그만둔 후 어려움(가정·학교 밖 청소년)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전체		성별		경제적 수준					
		경험 비율 (%) ^{가)}	4점 만점 평균	남자	여자	t	상	중	하	F	
가족	1) 부모와 갈등을 겪음	91	76.9 (0.95)	3.08 (0.95)	2.90 (0.98)	3.22 (0.90)	-1.62	2.71 (1.25)	3.18 (0.90)	2.84 (0.96)	1.54
건강	2) 건강이 좋지 않음	91	37.4 (0.98)	2.09 (0.98)	1.81 (0.89)	2.33 (1.01)	-2.57*	1.43 (0.79)	2.06 (0.98)	2.42 (0.96)	2.79
심리·정서	3) (어디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아) 나 혼자라는 불안감이 있음	90	52.2 (1.04)	2.49 (1.04)	2.32 (0.91)	2.63 (1.13)	-1.47	1.71 (1.25)	2.44 (0.94)	2.95 (1.13)	4.13* (c)a
	4) 할 일도 없고,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의욕도 없음(무기력함)	91	51.6 (1.05)	2.54 (1.05)	2.40 (1.04)	2.65 (1.05)	-1.13	1.43 (0.79)	2.46 (0.97)	3.21 (0.98)	9.55*** (b,c)a
사회적 관계	5) 나를 이해해 주고, 믿어주며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음	91	41.8 (1.03)	2.33 (1.03)	2.17 (0.93)	2.47 (1.10)	-1.40	1.43 (0.79)	2.40 (1.01)	2.42 (1.07)	3.02
	6) 학교 친구들과의 관계가 단절됨	92	53.3 (1.15)	2.54 (1.15)	2.31 (1.12)	2.74 (1.16)	-1.81	1.86 (1.21)	2.58 (1.09)	2.65 (1.31)	1.38
	7) 또래 친구를 만들기 어려움	91	44.0 (1.21)	2.38 (1.21)	2.14 (1.14)	2.59 (1.24)	-1.79	1.43 (0.79)	2.51 (1.23)	2.32 (1.16)	2.65
진로·진학·취업	8) 내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는 것이 어려움	91	49.5 (1.01)	2.34 (1.01)	2.38 (1.01)	2.31 (1.02)	0.35	1.86 (1.07)	2.34 (1.00)	2.53 (1.02)	1.12
	9) 대학진학관련 정보를 찾는 것이 어려움	91	48.4 (1.07)	2.38 (1.07)	2.14 (0.98)	2.59 (1.12)	-2.02*	1.86 (1.21)	2.45 (1.02)	2.37 (1.21)	0.96
	10) 아르바이트, 일을 구하기 어려움	91	47.3 (1.02)	2.33 (1.02)	2.43 (1.04)	2.24 (1.01)	0.85	1.57 (1.13)	2.40 (1.00)	2.37 (1.01)	2.15
지지 체계·사회적 인식	11)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음	91	38.5 (1.03)	2.10 (1.03)	2.14 (1.05)	2.06 (1.03)	0.37	1.14 (0.38)	2.25 (1.08)	1.95 (0.85)	4.13* (b)a
	12)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선입견, 편견, 무시	92	48.9 (1.10)	2.49 (1.10)	2.30 (1.10)	2.65 (1.09)	-1.53	1.43 (0.79)	2.58 (1.01)	2.58 (1.35)	3.70* (b,c)a

*p < .05, **p < .01, ***p < .001

주: 약간 경험했다+자주 경험했다 응답률을 합친 값



주: 약간 경험했다+자주 경험했다 응답률을 합친 값(단위: %), 높은 응답률 순

그림 III-4. 학교를 그만둔 후 어려움(가정·학교 밖 청소년)

가정 밖 상황에서 학교를 그만둠에 따른 어려움 경험률(‘약간 경험했다’+‘자주 경험했다’ 응답을 합친 값)을 높은 순대로 살펴보면, 부모와의 갈등 경험이 76.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학교 친구들과의 관계 단절이었다(53.3%). 이외에도,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높은 경험률을 보인 항목은 어디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거나 혼자라는 불안감 52.2%, 할 일도 없고,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의욕도 없음(무기력함)이 51.6%로 가정·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문제와 무기력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적성에 맞는 진로 찾기의 어려움에 대한 경험률도 절반에 가까운 49.5%, 대학 진학관련 정보를 찾기 어려움도 비슷하게 48.4%의 응답률을 보여 가정·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진학에 대한 문제 역시 주목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또한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에 대해 선입견, 편견, 무시를 경험한 비율도 48.9%로 여전히 높은 수준의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을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조사 대상자의 47.3%는 아르바이트/일을 구하기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청소년기 또래관계와 사회적 지지체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또래 친구를 만들기 어려움(44.0%)과 나를 이해해 주고 믿어주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응답(41.8%)도 간과하기 어려운 수준의 결과를 나타냈다.

사례 수가 많지 않음에도 일부 어려움의 경우 성별과 경제적 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건강이 좋지 않다고 대학진학관련 정보를 찾기 어렵다는 조사 항목은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경험률이 더 높았다. 나 혼자라는 불안감은 경제적 수준이 낮다고 응답한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더 경험하였고, 무기력함에 대한 조사 항목에

서는 경제적 수준이 중간이거나 낮은 집단이 역시 높다고 응답한 집단보다 더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다는 항목에서는 경제적 수준이 중간인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그리고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선입견과 편견, 무시를 경험한 비율은 경제적 수준이 중간이거나 낮은 집단이, 높다고 응답한 집단보다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에 참여한 가정 밖 청소년 중 소수 청소년이 과거 학교를 그만두었다가 학교로 복귀한 경험이 있는 조사되었다. 이들을 대상으로 먼저 학교에 복귀한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정규학교를 마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졸업장을 받기 위해서)'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청소년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소속/이용 기관(시설) 선생님의 권유'로 학교로 복귀하였다는 응답이 그중 많았다. 복교에 대한 만족도는 4점 만점에 3점 수준의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다(1점: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4점: 매우 만족한다)

표 III-15. 복교 이유(복수응답) 및 만족도(복교 청소년)

(단위: 명, %, 점)

복교 이유			복교 만족도 (4점 만점기준 평균)
정규학교는 마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졸업장을 받기 위해서)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청소년쉼터,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등 소속/이용 기관 (시설) 선생님의 권유로	
8(66.7)	4(33.3)	4(33.3)	3.08(1.00)

주: 복교 이유 및 만족도 전체(학교를 그만둔 이후 복교 경험 청소년) n=12

④ 지원체계 및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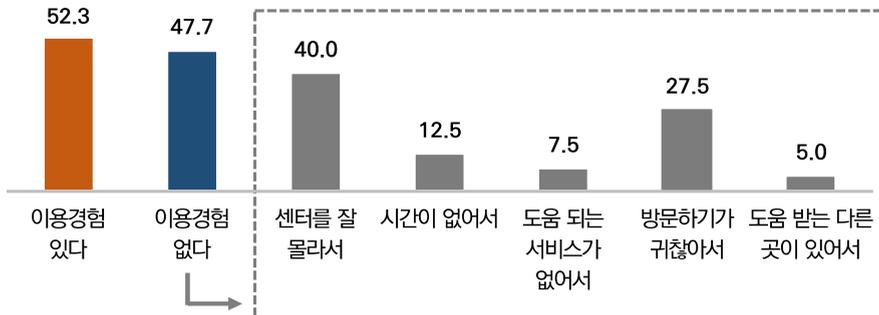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주요 지원체계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 이용과 관련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조사에 참여한 가정·학교 밖 청소년의 52.3%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여전히 절반에 가까운 47.7%는 이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중 현재 16세 이상인 청소년의 이용률이 16세 미만인 청소년보다 약 13.9% 높았고, 일시·이동쉼터에서 다른 쉼터 유형에 비해 이용하지 않은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중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항목은 '센터를 잘 몰라서'가 40.0%였고, '방문하기가 귀찮아서'는 27.5%로 그 뒤를 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 밖 상황에서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한 홍보 및 안내 필요성을 더욱 보여준다.

표 III-16.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용 여부 및 미이용 사유(가정·학교 밖 청소년)

(단위: 명, %)

구 분	(꿈드림) 이용 경험		(꿈드림) 미이용 사유							
	있음	없음	사례 수	(꿈드림) 센터를 잘 몰라서	방문하기 귀찮아서	시간이 없어서	도움 되는 서비스가 없어서(마음에 들지 않아서)	도움 받는 다른 곳(기관/센터)이 있어서	기타	
학교 밖 경험 있음	48(49.0)	50(51.0)	48	36.7	22.4	14.3	6.1	8.2	8.2	
학교 밖 청소년 전체	45(52.3)	41(47.7)	40	40.0	27.5	12.5	7.5	5.0	7.5	
성별	남자	21(52.5)	19(47.5)	19	42.1	36.8	10.5	5.3	5.3	0.0
	여자	24(52.2)	22(47.8)	21	38.1	19.0	14.3	9.5	4.8	14.3
연령	16세 미만	7(41.2)	10(58.8)	10	70.0	20.0	0.0	10.0	0.0	0.0
	16세 이상	38(55.1)	31(44.9)	30	30.0	30.0	16.7	6.7	6.7	10.0
기관 유형	일시·이동	12(37.5)	20(62.5)	20	35.0	35.0	15.0	15.0	0.0	0.0
	단기	28(59.6)	19(40.4)	18	44.4	22.2	11.1	0.0	5.6	16.7
가정 밖 생활 시작 연령	중장기·자립지원관	5(71.4)	2(28.6)	2	50.0	0.0	0.0	0.0	50.0	0.0
	16세 미만	23(51.1)	22(48.9)	21	38.1	33.3	4.8	9.5	4.8	9.5
16세 이상	17(50.0)	17(50.0)	17	41.2	23.5	23.5	0.0	5.9	5.9	
경제적 수준	상	4(66.7)	2(33.3)	2	0.0	0.0	50.0	0.0	0.0	50.0
	중	29(47.5)	32(52.5)	31	45.2	22.6	12.9	9.7	6.5	3.2
	하	12(63.2)	7(36.8)	7	28.6	57.1	0.0	0.0	0.0	14.3

주: (꿈드림) 이용 경험(가정·학교 밖 청소년) 전체 n=86, (꿈드림) 미이용 사유(가정·학교 밖 청소년) 전체 n=40



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미이용 사유는 응답률이 높은 5개 항목만 제시(단위: %)

그림 III-5.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용 여부 및 미이용 사유(가정·학교 밖 청소년)

향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지원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가정·학교 밖 청소년의 75.3%가 참여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의사가 없다는 응답은 24.7%로 나타났다.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또 연령대가 16세 이상이 16세 미만보다 더 많이 꿈드림센터 이용 의사를 밝혔다. 가정 밖 생활 시작 연령의 경우는 16세 미만인 청소년이 16세 이상인 청소년보다 꿈드림 지원 참여 의사가 더 많아, 일찍 가정 밖 생활을 시작한 청소년의 지원 요구가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기관 유형 중에서는 단기쉼터에서의 꿈드림센터 지원 참여 의사가 다른 기관들보다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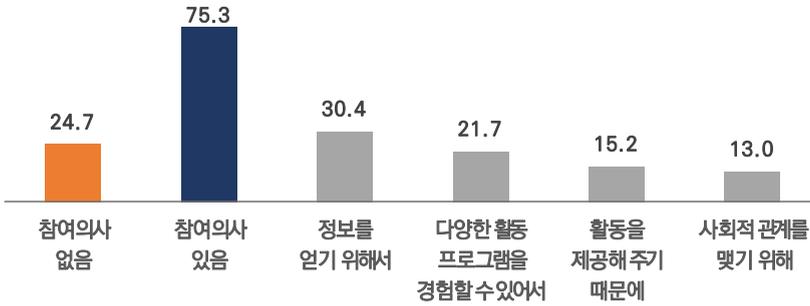
향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지원에 참여 의사를 밝힌 청소년들은 그 이유로 정보를 얻기 위해서가 가장 응답률이 높았고(30.4%), 다음으로는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 경험(21.7%), 활동 제공(15.2%) 등의 순이었다. 이는 가정·학교 밖 청소년의 정보 수집과 다양한 활동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큰 것을 시사한다.

표 III-17. 향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원 참여 의사 여부와 이유(가정·학교 밖 청소년)

(단위: 명, %)

구 분	(꿈드림) 지원 참여 의사		(꿈드림) 참여 의사 이유					
	참여 의사 없음	참여 의사 있음	사례 수	정보를 얻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 경험 할 수 있어서	활동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를 맺기 위해	
학교 밖 경험이 있음	27(28.4)	68(71.6)	49	30.6	20.4	16.3	14.3	
학교 밖 청소년 전체	21(24.7)	64(75.3)	46	30.4	21.7	15.2	13.0	
성별	남자	11(29.7)	26(70.3)	20	50.0	15.0	0.0	15.0
	여자	10(20.8)	38(79.2)	26	15.4	26.9	26.9	11.5
연령	16세 미만	7(36.8)	12(63.2)	8	50.0	12.5	25.0	0.0
	16세 이상	14(21.2)	52(78.8)	38	26.3	23.7	13.2	15.8
기관 유형	일시·이동	10(30.3)	23(69.7)	15	33.3	20.0	0.0	20.0
	단기	8(17.8)	37(82.2)	27	25.9	22.2	25.9	11.1
	중장기·자립지원관	3(42.9)	4(57.1)	4	50.0	25.0	0.0	0.0
가정 밖 생활 시작 연령	16세 미만	9(20.5)	35(79.5)	25	32.0	12.0	20.0	8.0
	16세 이상	10(31.3)	22(68.8)	19	31.6	36.8	10.5	15.8
경제적 수준	상	2(28.6)	5(71.4)	3	66.7	0.0	0.0	0.0
	중	15(25.9)	43(74.1)	32	31.3	15.6	21.9	15.6
	하	4(20.0)	16(80.0)	11	18.2	45.5	0.0	9.1

주: (꿈드림) 지원 참여 의사(가정·학교 밖 청소년) 전체 n=85
(꿈드림) 참여 의사 이유(가정·학교 밖 청소년) 전체 n=46



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원 참여 의사 이유는 응답률이 높은 4개 항목만 제시(단위: %)

그림 III-6. 향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원 참여 의사 여부와 이유(가정·학교 밖 청소년)

향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지원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소수의 청소년들은 그 이유로, '기관에 소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하고 싶어서'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잘 몰라서'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응답하였다.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한 안내가 더 필요해 보임을 간접적으로 나타내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III-18. 향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원 참여 의사가 없는 이유(가정·학교 밖 청소년)

(단위: 명, %)

구 분	기관에 소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하고 싶어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를 잘 몰라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에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다른 지자체나 교육청의 유사 지원기관을 이용하고 있어서	학원에 다니는 것으로 충분해서	
학교 밖 경험이 있음	9(37.5)	8(33.3)	4(16.7)	2(8.3)	1(4.2)	
학교 밖 청소년 전체	8(42.1)	6(31.6)	3(15.8)	1(5.3)	1(5.3)	
성별	남자	5(45.5)	3(27.3)	2(18.2)	0(0.0)	1(9.1)
	여자	3(37.5)	3(37.5)	1(12.5)	1(12.5)	0(0.0)
연령	16세 미만	4(57.1)	3(42.9)	0(0.0)	0(0.0)	0(0.0)
	16세 이상	4(33.3)	3(25.0)	3(25.0)	1(8.3)	1(8.3)

주: (꿈드림) 미참여 의사 이유(가정·학교 밖 청소년) 전체 n=19

(2) 진로계획 및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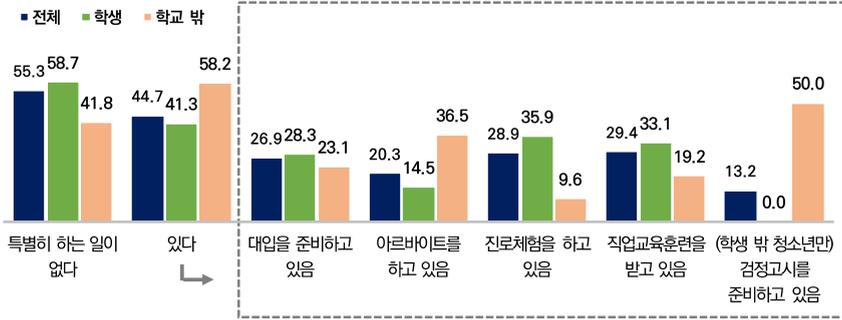
- 전체 조사참여 청소년 중 55.3%는 현재 진로와 관련하여 특별히 하는 일이 없다고 응답하였음.
- 가장 시간을 많이 쓰는 진로 관련 일은 직업교육훈련, 진로체험, 대입(수능)준비였음. 대입준비를 도움 없이 혼자서 하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청소년쉼터, 학교, 사설 학원 순이었음.
- 희망 교육수준으로 학생 청소년은 4년제 대학을, 학교 밖 청소년은 고등학교를 더 많이 응답하였음.
- 전체 응답자의 30.0%는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였고, 대학진학 준비(28.7%), 취업 예정(16.8%)이 그 뒤를 이었음.
- 진로에 대해 혼자 결정한다는 응답이 47.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친구와 지인, 부모님, 쉼터 선생님 순으로 진로에 대해 생각할 때 영향을 받는다고 조사되었음.
- 진로성숙도는 가정 밖 생활 시작 연령이 16세 이상인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가정 밖 학생 청소년(M=3.03)에 비해 학교 밖 청소년(M=2.77)이 낮게 조사됨.
-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교육과 활동 경험에서 가정 밖 학생 청소년에 비해 학교 밖 청소년의 경험률이 모두 낮게 나타났음(자격증 취득 준비 제외).
- 조사참여자의 67.8%가 희망하는 직업교육/훈련이 있다고 하였고, 제과제빵, 사회복지사·청소년지도사 및 상담사, 메이크업 아티스트·네일아트, 음료제조(바리스타 등) 등에 대한 선호가 상대적으로 많았음.

① 진로 준비

가정 밖의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로와 관련하여 현재 하는 일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특별히 하는 일이 없다는 응답이 55.3%로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학생 청소년은 58.7%, 학교 밖 청소년은 41.8%였는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학생 청소년은 학교에 재학 중임에 따라 그 외 별도의 진로관련 활동에 대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가 응답한 것으로 추정된다. 연령대와 가정 밖 생활 시작 연령에 따라라도 진로관련 활동 유무에 차이가 있었는데, 16세 미만 청소년에 비해 16세 이상 청소년이 진로관련 활동을 더 많이 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진로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진로와 관련하여 특별히 하는 일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 일 두 가지씩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전체 대상 기준으로 직업교육 훈련을 받고 있음, 진로체험을 하고 있음, 대입(수능) 준비 순으로 응답이 많았고, 그중 가정·학교 밖 청소년은 검정고시 준비, 아르바이트, 대입준비 순으로 많은 응답을 보였다.³⁸⁾ 진로와 관련해서 가장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는 일 중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대부분이 고등학교 졸업 학력 취득을 위한 검정고시를 준비 중이었다.

38) 기타 응답으로, 학업, 학원 수강, 예체능 활동, 자격증 취득 준비, 진로 모색 및 관련 활동, 인터넷 등이 제시되었고 상당수 무응답도 관찰되었다.



(단위: %)

그림 III-7. 진로 관련 활동 유무와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 일(복수응답)(전체)

표 III-19. 진로 관련 활동 유무와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 일(복수응답)(전체)

(단위: 명, %)

구 분	진로관련 활동 유무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 일(복수응답)							
	특별히 하는 일 없음	있음	χ^2 (df)	사례 수	대입 (수능) 준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음	진로체험을 하고 있음	직업교육 훈련을 받고 있음	(학교 밖) 검정고시 준비 중	기타	
전체	251(55.3)	203(44.7)		197	26.9	20.3	28.9	29.4	13.2	42.1	
현재 상태	학생	213(58.7)	150(41.3)	8.43 (1)**	145	28.3	14.5	35.9	33.1	0.0	46.9
	학교 밖	38(41.8)	53(58.2)		52	23.1	36.5	9.6	19.2	50.0	28.8
학교 밖 경험	있다	43(41.3)	61(58.7)	10.61 (1)**	60	23.3	35.0	15.0	18.3	43.3	31.7
	없다	208(59.4)	142(40.6)		137	28.5	13.9	35.0	34.3	0.0	46.7
성별	남자	131(57.5)	97(42.5)	0.87(1)	95	23.2	18.9	30.5	32.6	16.8	31.6
	여자	120(53.1)	106(46.9)		102	30.4	21.6	27.5	26.5	9.8	52.0
연령	16세 미만	146(70.9)	60(29.1)	37.07 (1)***	56	16.1	10.7	37.5	28.6	7.1	62.5
	16세 이상	105(42.3)	143(57.7)		141	31.2	24.1	25.5	29.8	15.6	34.0
기관 유형	일시·이동	84(56.0)	66(44.0)	1.50 (2)	62	29.0	27.4	21.0	19.4	19.4	33.9
	단기	134(56.8)	102(43.2)		100	25.0	18.0	29.0	36.0	12.0	43.0
	중장기·자립지원관	33(48.5)	35(51.5)		35	28.6	14.3	42.9	28.6	5.7	54.3
가정 밖 생활시작 연령	16세 미만	139(57.7)	102(42.3)	11.46 (1)**	102	21.6	16.7	33.3	32.4	12.7	46.1
	16세 이상	38(37.6)	63(62.4)		62	29.0	30.6	19.4	27.4	19.4	32.3
경제적 수준	상	25(56.8)	19(43.2)	3.39 (2)	18	33.3	22.2	16.7	22.2	16.7	44.4
	중	164(52.7)	147(47.3)		143	25.9	21.7	28.0	28.0	13.3	39.9
	하	62(63.3)	36(36.7)		35	25.7	14.3	40.0	40.0	11.4	48.6

* $p < .05$, ** $p < .01$, *** $p < .001$

주: 진로관련 활동 유무 전체 n=454,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 일 전체 n=197

표 III-20. 검정고시 준비 교급(가정·학교 밖 청소년)

(단위: 명, %)

구 분		중학교 졸업 검정고시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학교 밖 청소년 전체		2(8.7)	21(91.3)
성별	남자	0(0.0)	15(100.0)
	여자	2(25.0)	6(75.0)

주: 검정고시 준비 교급(가정·학교 밖 청소년) 전체 n=23

위의 진로관련 활동에서 대입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입준비 장소와 경로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도움 없이 혼자서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이 24.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청소년쉼터(19.7%), 학교(18.2%), 사설 학원(18.2%) 순으로 응답하였다. 그중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검정고시를 포함한 대입준비 장소와 경로를 질문하였는데, 도움 없이 혼자서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과 청소년쉼터의 도움, 학교 밖청소년지원센터의 도움이 각각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III-21. 대입준비 장소 및 경로(전체)

(단위: 명, %)

구 분		도움 없이 혼자서 준비하고 있음	(학생) 학교에서	청소년쉼터 도움으로 (인터넷강의, 학습멘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도움으로	사설 학원을 통해	기타
전체		16(24.2)	12(18.2)	13(19.7)	8(12.1)	12(18.2)	5(7.6)
현재 상태	학생	8(22.9)	12(34.3)	5(14.3)	0(0.0)	8(22.9)	2(5.7)
	학교 밖	8(25.8)	0(0.0)	8(25.8)	8(25.8)	4(12.9)	3(9.7)
성별	남자	8(26.7)	6(20.0)	5(16.7)	5(16.7)	4(13.3)	2(6.7)
	여자	8(22.2)	6(16.7)	8(22.2)	3(8.3)	8(22.2)	3(8.3)
연령	16세 미만	4(36.4)	1(9.1)	3(27.3)	0(0.0)	3(27.3)	0(0.0)
	16세 이상	12(21.8)	11(20.0)	10(18.2)	8(14.5)	9(16.4)	5(9.1)
기관 유형	일시·이동	6(27.3)	6(27.3)	1(4.5)	3(13.6)	5(22.7)	1(4.5)
	단기	9(25.7)	6(17.1)	7(20.0)	4(11.4)	5(14.3)	4(11.4)
	중장기·자립지원관	1(11.1)	0(0.0)	5(55.6)	1(11.1)	2(22.2)	0(0.0)
가정 밖 생활 시작 연령	16세 미만	6(20.0)	3(10.0)	7(23.3)	6(20.0)	7(23.3)	1(3.3)
	16세 이상	9(36.0)	3(12.0)	6(24.0)	2(8.0)	2(8.0)	3(12.0)
경제적 수준	상	1(14.3)	2(28.6)	0(0.0)	1(14.3)	2(28.6)	1(14.3)
	중	12(26.1)	8(17.4)	10(21.7)	6(13.0)	7(15.2)	3(6.5)
	하	3(25.0)	2(16.7)	3(25.0)	1(8.3)	2(16.7)	1(8.3)

주: 대입준비 장소 및 경로 전체 n=66

가정·학교 밖 청소년의 응답 결과를 배경변인별로 봤을 때, 사례 수가 적어 큰 의미를 두기 어려우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한 경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용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청소년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사설 학원 등을 골고루 응답한 것에 비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용 경험이 없는 청소년 중에는 도움 없이 혼자서 검정고시, 대학입시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례 수가 훨씬 많았다.

표 III-22. 검정고시/대입준비 장소 및 경로(가정·학교 밖 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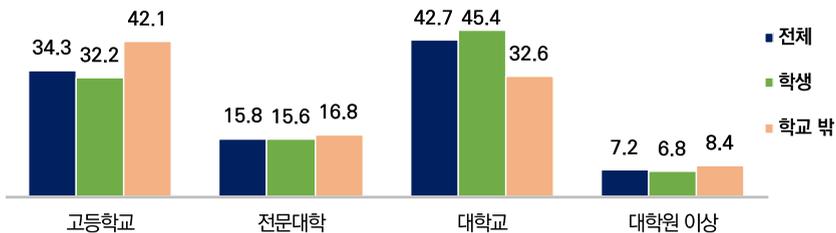
(단위: 명, %)

구 분		도움 없이 혼자서 준비하고 있음	청소년쉼터 도움으로 (인터넷 강의, 학습멘토 포함)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센터) 도움으로	사설 학원을 통해	기타
학교 밖 청소년 전체		8(25.8)	8(25.8)	8(25.8)	4(12.9)	3(9.7)
성별	남자	4(26.7)	3(20.0)	5(33.3)	2(13.3)	1(6.7)
	여자	4(25.0)	5(31.3)	3(18.8)	2(12.5)	2(12.5)
연령	16세 미만	1(25.0)	3(75.0)	0(0.0)	0(0.0)	0(0.0)
	16세 이상	7(25.9)	5(18.5)	8(29.6)	4(14.8)	3(11.1)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용 경험	있다	0(0.0)	6(37.5)	7(43.8)	3(18.8)	0(0.0)
	없다	8(61.5)	1(7.7)	0(0.0)	1(7.7)	3(23.1)

주: 검정고시/대입준비 장소 및 경로(가정·학교 밖 청소년) 전체 n=31

② 희망 교육수준과 진로계획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들에게 어느 수준까지 교육받기를 원하는지 조사한 결과, 대학교(4년제)에 대한 응답률이 42.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고등학교(34.3%), 전문대학(15.8%), 대학원 이상(7.2%) 순으로 나타났다.



(단위: %)

그림 III-8. 희망 교육수준(전체)

학교 밖 청소년은 희망 교육수준으로 고등학교(42.1%)를 가장 많이 응답하면서 다소 차이를 보였다. 희망 교육수준에 대한 조사 결과는 기관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일시·이동신택터와 중장기·자립지원관의 청소년들은 대학교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나, 단기신택터에서는 고등학교와 대학교가 같은 수준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이러한 차이에 대한 배경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지만 청소년들이 일시·이동신택터에서는 아직 가정 밖 생활이 길지 않고 일부 원가정 복귀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 또 중장기·자립지원관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기반으로 진로에 대한 장기적인 생각과 준비가 가능하지만, 단기신택터의 경우 그 중간적인 위치에서의 다소 불안정한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추측된다.

표 III-23. 희망 교육수준(전체)

(단위: 명, %)

구 분		고등학교	전문대학 (2~3년제)	대학교 (4년제)	대학원 이상 (석·박사)	χ^2 (df)
전체		158(34.3)	73(15.8)	197(42.7)	33(7.2)	
현재 상태	학생	118(32.2)	57(15.6)	166(45.4)	25(6.8)	5.34(3)
	학교 밖	40(42.1)	16(16.8)	31(32.6)	8(8.4)	
학교 밖 경험	있다	43(39.8)	19(17.6)	36(33.3)	10(9.3)	5.33(3)
	없다	115(32.6)	54(15.3)	161(45.6)	23(6.5)	
성별	남자	85(37.1)	37(16.2)	93(40.6)	14(6.1)	2.28(3)
	여자	73(31.5)	36(15.5)	104(44.8)	19(8.2)	
연령	16세 미만	79(38.3)	27(13.1)	87(42.2)	13(6.3)	3.95(3)
	16세 이상	79(31.0)	46(18.0)	110(43.1)	20(7.8)	
기관 유형	일시·이동	44(28.8)	20(13.1)	73(47.7)	16(10.5)	15.05(6)*
	단기	90(37.8)	47(19.7)	90(37.8)	11(4.6)	
	중장기·자립지원관	24(34.3)	6(8.6)	34(48.6)	6(8.6)	
가정 밖 생활 시작 연령	16세 미만	93(38.1)	39(16.0)	99(40.6)	13(5.3)	2.92(3)
	16세 이상	33(32.0)	16(15.5)	44(42.7)	10(9.7)	
경제적 수준	상	11(24.4)	7(15.6)	20(44.4)	7(15.6)	9.99(6)
	중	106(33.5)	51(16.1)	137(43.4)	22(7.0)	
	하	41(41.4)	15(15.2)	40(40.4)	3(3.0)	

* $p < .05$, ** $p < .01$, *** $p < .001$

주: 희망 교육수준 전체 n=461

향후 진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0.0%는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로 그 수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대학진학 준비(28.7%), 취업 예정(16.8%)이 뒤를 이었다.³⁹⁾ 이러한 진로계획에 대한 연령대별 차이를 보면, 16세 미만의

경우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의 응답이 40.9%로 가장 많았던 것에 비해, 16세 이상은 대학진학 준비가 33.9%로 가장 많았다. 또한 16세 이상은 취업 예정과 검정고시 준비 등에서 16세 미만에 비해 높은 응답률을 보이면서 차이를 나타냈다.

표 III-24. 향후 진로 계획(전체)

(단위: 명, %)

구 분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	대학 진학 준비	시간제 근로/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낼 예정	직업 교육 훈련 예정	취업 예정	(학교 밖) 정규 학교로 복학	(학교 밖) 검정 고시 준비	진학/취업 등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것	기타
전체	137 (30.0)	131 (28.7)	38 (8.3)	12 (2.6)	77 (16.8)	3 (0.7)	32 (7.0)	3 (0.7)	24 (5.3)
현재 상태	학생	115 (31.9)	111 (30.7)	29 (8.0)	11 (3.0)	69 (19.1)	0 (0.0)	3 (0.8)	23 (6.4)
	학교 밖	22 (22.9)	20 (20.8)	9 (9.4)	1 (1.0)	8 (8.3)	3 (3.1)	32 (33.3)	0 (0.0)
학교 밖 경험	있다	23 (21.1)	25 (22.9)	12 (11.0)	1 (0.9)	11 (10.1)	3 (2.8)	32 (29.4)	0 (0.0)
	없다	114 (32.8)	106 (30.5)	26 (7.5)	11 (3.2)	66 (19.0)	0 (0.0)	0 (0.0)	3 (0.9)
성별	남자	74 (32.7)	57 (25.2)	19 (8.4)	5 (2.2)	36 (15.9)	1 (0.4)	19 (8.4)	3 (1.3)
	여자	63 (27.3)	74 (32.0)	19 (8.2)	7 (3.0)	41 (17.7)	2 (0.9)	13 (5.6)	0 (0.0)
연령	16세 미만	83 (40.9)	45 (22.2)	19 (9.4)	6 (3.0)	30 (14.8)	0 (0.0)	5 (2.5)	2 (1.0)
	16세 이상	54 (21.3)	86 (33.9)	19 (7.5)	6 (2.4)	47 (18.5)	3 (1.2)	27 (10.6)	1 (0.4)
기관 유형	일시·이동	56 (36.6)	38 (24.8)	10 (6.5)	2 (1.3)	25 (16.3)	1 (0.7)	13 (8.5)	0 (0.0)
	단기	65 (27.7)	64 (27.2)	23 (9.8)	6 (2.6)	40 (17.0)	2 (0.9)	17 (7.2)	3 (1.3)
	중장기·자립지원관	16 (23.2)	29 (42.0)	5 (7.2)	4 (5.8)	12 (17.4)	0 (0.0)	2 (2.9)	0 (0.0)
가정 밖 생활 시작 연령	16세 미만	69 (28.6)	69 (28.6)	23 (9.5)	9 (3.7)	39 (16.2)	2 (0.8)	16 (6.6)	0 (0.0)
	16세 이상	21 (20.4)	26 (25.2)	12 (11.7)	2 (1.9)	22 (21.4)	0 (0.0)	14 (13.6)	1 (1.0)
경제적 수준	상	16 (34.8)	14 (30.4)	3 (6.5)	0 (0.0)	6 (13.0)	1 (2.2)	2 (4.3)	1 (2.2)
	중	92 (29.4)	90 (28.8)	26 (8.3)	10 (3.2)	54 (17.3)	2 (0.6)	23 (7.3)	2 (0.6)
	하	29 (29.9)	26 (26.8)	9 (9.3)	2 (2.1)	17 (17.5)	0 (0.0)	7 (7.2)	0 (0.0)

주: 향후 진로 계획 전체 n=457

39) 기타 응답으로, 아직 고민 중이거나 군입대, 특성화고등학교 복교 준비 등도 제시되었으나 기타리스트 등 향후 희망 직업을 답하거나 자아실현을 위한 공부 등의 내용도 관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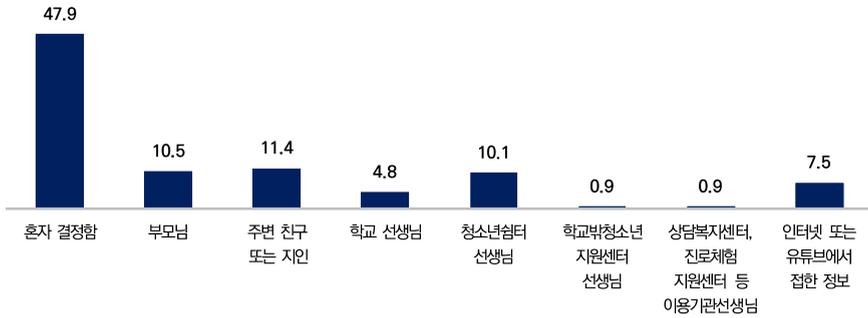
진로에 대해 생각할 때 가장 영향을 준 대상과 방법에 대한 조사에서 가정 밖 청소년들은 혼자 결정한다는 응답이 절반에 가까운 47.9%로 나타나 관심을 가질 필요성을 보였다. 다음으로 친구나 지인(11.4%), 부모님(10.5%), 청소년쉼터 선생님(10.1%) 순이었다. 기타 응답으로 학교·쉼터·교회 선생님, 해당 전공생, 형제, 학원 원장 등의 내용도 있었다.

표 III-25. 진로결정에 영향을 준 대상(전체)

(단위: 명, %)

구분	혼자 결정함	부모님	주변 친구 또는 지인	학교 선생님	청소년 쉼터 선생님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선생님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진로체험지원센터 등 선생님	인터넷 또는 유튜브에서 접한 정보	기타	
전체	218 (47.9)	48 (10.5)	52 (11.4)	22 (4.8)	46 (10.1)	4 (0.9)	4 (0.9)	34 (7.5)	27 (5.9)	
현재 상태	학생	175 (48.1)	38 (10.4)	46 (12.6)	22 (6.0)	25 (6.9)	1 (0.3)	2 (0.5)	30 (8.2)	25 (6.9)
	학교 밖	43 (47.3)	10 (11.0)	6 (6.6)	0 (0.0)	21 (23.1)	3 (3.3)	2 (2.2)	4 (4.4)	2 (2.2)
학교 밖 경험	있다	51 (49.0)	12 (11.5)	6 (5.8)	0 (0.0)	22 (21.2)	3 (2.9)	2 (1.9)	4 (3.8)	4 (3.8)
	없다	167 (47.6)	36 (10.3)	46 (13.1)	22 (6.3)	24 (6.8)	1 (0.3)	2 (0.6)	30 (8.5)	23 (6.6)
성별	남자	112 (50.0)	23 (10.3)	26 (11.6)	13 (5.8)	25 (11.2)	3 (1.3)	1 (0.4)	12 (5.4)	9 (4.0)
	여자	106 (45.9)	25 (10.8)	26 (11.3)	9 (3.9)	21 (9.1)	1 (0.4)	3 (1.3)	22 (9.5)	18 (7.8)
연령	16세 미만	109 (52.7)	22 (10.6)	19 (9.2)	14 (6.8)	12 (5.8)	0 (0.0)	1 (0.5)	19 (9.2)	11 (5.3)
	16세 이상	109 (44.0)	26 (10.5)	33 (13.3)	8 (3.2)	34 (13.7)	4 (1.6)	3 (1.2)	15 (6.0)	16 (6.5)
기관 유형	일시·이동	69 (46.6)	23 (15.5)	21 (14.2)	5 (3.4)	7 (4.7)	2 (1.4)	1 (0.7)	12 (8.1)	8 (5.4)
	단기	117 (49.4)	20 (8.4)	28 (11.8)	14 (5.9)	26 (11.0)	1 (0.4)	0 (0.0)	20 (8.4)	11 (4.6)
	중장기·자립지원관	32 (45.7)	5 (7.1)	3 (4.3)	3 (4.3)	13 (18.6)	1 (1.4)	3 (4.3)	2 (2.9)	8 (11.4)
가정 밖 생활 시작 연령	16세 미만	126 (51.9)	19 (7.8)	27 (11.1)	14 (5.8)	28 (11.5)	1 (0.4)	2 (0.8)	21 (8.6)	5 (2.1)
	16세 이상	41 (41.4)	12 (12.1)	15 (15.2)	3 (3.0)	12 (12.1)	2 (2.0)	2 (2.0)	4 (4.0)	8 (8.1)
경제적 수준	상	22 (47.8)	7 (15.2)	5 (10.9)	2 (4.3)	0 (0.0)	2 (4.3)	0 (0.0)	5 (10.9)	3 (6.5)
	중	148 (47.7)	31 (10.0)	41 (13.2)	11 (3.5)	36 (11.6)	2 (0.6)	2 (0.6)	21 (6.8)	18 (5.8)
	하	48 (49.0)	10 (10.2)	6 (6.1)	9 (9.2)	10 (10.2)	0 (0.0)	2 (2.0)	8 (8.2)	5 (5.1)

주: 진로결정에 영향을 준 대상 전체 n=455



(단위: %)

그림 III-9. 진로결정에 영향을 준 대상(전체)

혼자 결정하는 것 외에 학생 청소년이 주변 친구나 지인, 학교 선생님을 더 응답한 것에 비해 학교 밖 청소년은 청소년쉼터 선생님이 진로결정에 영향을 더 많이 주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현장에서 만나는 실무자의 경우 특히 가정·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일부 조사항목의 경우 사례 수가 극히 적었으나, 현재 연령대와 가정 밖 생활 시작 연령대가 16세 미만인 경우 혼자 진로를 결정한다는 응답이 16세 이상인 청소년보다 더 많았다. 대신 가정 밖 생활 시작 연령이 16세 이상인 경우 16세 미만인 청소년에 비해 부모님과 주변 친구나 지인이 진로결정에 더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진로성숙도와 진로교육 및 활동, 경험

가정 밖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알고 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와 같은 6개의 조사항목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4점)로 진로성숙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4점 만점을 기준으로 전체 평균값은 2.93점, 학생 청소년은 2.95점, 학교 밖 청소년은 2.85점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성숙 정도가 학생 청소년보다 낮았으나 그 차이가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먼저 학생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의 응답 차이는 기관유형 중 일시·이동쉼터와 가정 밖 생활 시작 연령이 16세 이상인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일시·이동쉼터의 청소년 중 학생 청소년의 진로성숙도 평균이 3.12점이었으나 학교 밖

청소년은 2.79점으로 차이가 컸다. 또한 16세 이상인 청소년들에서도 학생 청소년은 평균 3.03점이었으나 학교 밖 청소년은 2.77점으로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전체 값을 기준으로 보면 기관유형 중에서는 일시·이동신포터와 중장기·자립지원관의 진로성숙도 평균값이 단기신포터보다 높았으며,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역시 진로성숙도도 높은 평균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 청소년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배경변인별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표 III-26. 진로성숙도(전체)

(단위: 점)

구 분	전체	가정 밖 학생 청소년	가정 밖 학교 밖 청소년	t	
	M(SD)	M(SD)	M(SD)		
전체	2.93(0.65)	2.95(0.65)	2.85(0.66)	1.35	
성별	남자	2.93(0.65)	2.96(0.65)	2.78(0.60)	1.74
	여자	2.93(0.65)	2.93(0.64)	2.91(0.70)	0.23
	t	0.01	0.47	-0.98	
연령	16세 미만	2.87(0.65)	2.89(0.66)	2.74(0.56)	0.96
	16세 이상	2.97(0.64)	3.01(0.62)	2.88(0.68)	1.57
	t	-1.69	-1.92	-0.85	
기관 유형	일시·이동	3.04(0.67)	3.12(0.65)	2.79(0.66)	2.74**
	단기	2.84(0.63)	2.83(0.63)	2.87(0.66)	-0.36
	중장기·자립지원관	3.00(0.63)	2.99(0.63)	3.05(0.66)	-0.22
	t/F(Scheffe)	4.94** (a > b)	7.66** (a > b)	0.50	
가정 밖 생활 시작 연령	16세 미만	2.93(0.65)	2.92(0.64)	2.97(0.70)	-0.44
	16세 이상	2.94(0.62)	3.03(0.64)	2.77(0.56)	2.08*
	t	0.01	1.48	1.94	
경제적 수준	상	3.38(0.61)	3.38(0.62)	3.35(0.64)	0.11
	중	2.91(0.63)	2.94(0.62)	2.81(0.62)	1.51
	하	2.78(0.65)	2.77(0.64)	2.78(0.72)	-0.06
	t/F(Scheffe)	14.74*** (a > b, c)	12.22*** (a > b, c)	2.70	

* $p < .05$, ** $p < .01$, *** $p < .001$

주: 1) 기관 유형: a=일시·이동, b=단기, c=중장기, 경제적 수준: a=상, b=중, c=하

2) 진로성숙도 전체 n=462, 가정 밖 학생 청소년 전체 n=366, 가정·학교 밖 청소년 전체 n=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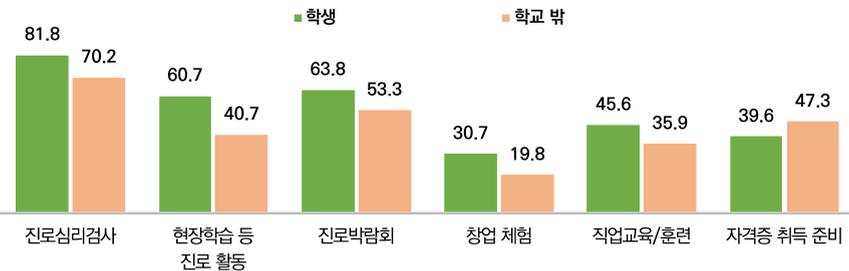
④ 진로관련 교육 및 활동, 참여기관

가정 밖의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교육과 활동을 제시하고 받아본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조사항목에 포함된 거의 모든 진로관련 교육과 항목에서 학생 청소년에 비해 학교 밖 청소년의 경험률이 낮았다.

표 III-27. 직업/진로 관련 활동 참여 경험 유무(전체)

(단위: 명, %)

구 분	사례 수	가정 밖 학생 청소년		가정·학교 밖 청소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경험해 본 적이 있다	경험해 본 적이 없다	경험해 본 적이 있다
1) 진로 탐색(나의 꿈, 미래 직업 관련 내용 배우는 것)	451	68(19.0)	290(81.0)	25(26.9)	68(73.1)
2) 진로심리검사(진로관련 흥미 적성 검사)	452	65(18.2)	293(81.8)	28(29.8)	66(70.2)
3) 진로상담(나의 꿈, 미래직업, 적성 등에 관한 상담)	447	90(25.4)	265(74.6)	28(30.4)	64(69.6)
4) 진로체험(직업인 특강, 인터뷰, 직업인 업무 체험 등 진로체험학습 참여)	448	98(27.5)	258(72.5)	31(33.7)	61(66.3)
5) 현장학습이나 산업체 견학을 통한 진로 관련 활동	447	140(39.3)	216(60.7)	54(59.3)	37(40.7)
6) 진로박람회(잡월드, 키자니아 포함)에 간 경험	448	129(36.2)	227(63.8)	43(46.7)	49(53.3)
7) 대학의 학과(전공)관련 견학 프로그램	444	247(70.0)	106(30.0)	65(71.4)	26(28.6)
8) 창업 체험하기(도전 기업가정신), 창의성 및 문제해결 능력 관련 활동 참여	443	244(69.3)	108(30.7)	73(80.2)	18(19.8)
9) 직업교육 및 훈련	445	192(54.4)	161(45.6)	59(64.1)	33(35.9)
10) 자격증 취득 준비	444	212(60.4)	139(39.6)	49(52.7)	44(47.3)



주: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응답률 중 10% 전후 차이를 보이는 항목 제시(단위: %)

그림 III-10. 직업/진로 관련 활동 참여경험 유무(전체)

특히 진로심리검사, 현장학습이나 산업체 견학, 진로박람회, 창업 체험 등의 경험률에서 10%p 이상 차이가 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특히 이러한 진로관련 교육과 활동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시사한다. 유일하게 자격증 취득 준비 경험률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 학생 청소년에 비해 7.7%p 높았는데, 이는 학교를 가는 것 대신 청소년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격증 취득 지원에 참여한 것이 주된 이유로 추측된다.

이러한 진로관련 교육과 활동 중 하나라도 경험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에게 주로 어디를 통해 이루어졌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학교라는 응답이 71.5%, 청소년쉼터 19.6%,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3.2%, 진로체험지원센터 1.0%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 학원, 사회복지관, 보육원 등 위탁시설, 청소년센터 등도 제시되었다.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는 학교(과거 경험으로 추정)와 청소년쉼터의 경험률이 각각 42.3%, 38.5%였으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14.1%였다.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뿐 아니라 전문성을 지닌 진로체험지원센터를 통한 진로관련 경험이 낮은 응답률을 보인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표 III-28. 진로관련 교육 및 활동 장소(전체)

(단위: 명, %)

구 분		학교	청소년쉼터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진로체험 지원센터	기타
전체		288(71.5)	79(19.6)	13(3.2)	4(1.0)	19(4.7)
현재 상태	학생	255(78.5)	49(15.1)	2(0.6)	4(1.2)	15(4.6)
	학교 밖	33(42.3)	30(38.5)	11(14.1)	0(0.0)	4(5.1)
학교 밖 경험	있다	40(44.4)	33(36.7)	11(12.2)	0(0.0)	6(6.7)
	없다	248(79.2)	46(14.7)	2(0.6)	4(1.3)	13(4.2)
성별	남자	138(70.8)	38(19.5)	6(3.1)	3(1.5)	10(5.1)
	여자	150(72.1)	41(19.7)	7(3.4)	1(0.5)	9(4.3)
연령	16세 미만	136(75.6)	27(15.0)	3(1.7)	3(1.7)	11(6.1)
	16세 이상	152(68.2)	52(23.3)	10(4.5)	1(0.4)	8(3.6)
기관 유형	일시·이동	103(81.7)	10(7.9)	5(4.0)	2(1.6)	6(4.8)
	단기	147(69.3)	44(20.8)	7(3.3)	2(0.9)	12(5.7)
	중장기·지립지원관	38(58.5)	25(38.5)	1(1.5)	0(0.0)	1(1.5)
가정 밖 생활 시작 연령	16세 미만	154(71.6)	39(18.1)	5(2.3)	2(0.9)	15(7.0)
	16세 이상	61(67.8)	23(25.6)	5(5.6)	0(0.0)	1(1.1)
경제적 수준	상	31(79.5)	5(12.8)	1(2.6)	1(2.6)	1(2.6)
	중	201(72.3)	56(20.1)	9(3.2)	3(1.1)	9(3.2)
	하	55(64.7)	18(21.2)	3(3.5)	0(0.0)	9(10.6)

주: 진로관련 교육 및 활동 장소 전체 n=403

⑤ 희망 직업교육

가정 밖 학생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희망하는 직업교육·훈련 유무를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67.8%는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특히 여자 청소년들의 응답률이 남자 청소년들보다 더 높았다. 희망하는 직업교육·훈련 중에서는 제과제빵, 사회복지사·청소년 지도사 및 상담사, 메이크업 아티스트·네일아트, 음료제조(바리스타 등) 등이 상대적으로 응답률이 높았다.⁴⁰⁾

표 III-29. 희망하는 직업교육·훈련 유무 및 받고싶은 과정(복수응답)(전체)

(단위: 명, %)

구 분	희망 직업교육·훈련 유무			희망 직업교육·훈련 과정							
	있다	없다	χ^2 (df)	사례 수	사회복지사·청소년 지도사 및 상담사	간호조무사·수의사 보조원, 응급구조사	보육교사 (어린이집 교사)	웹디자인, 게임/영상 그래픽 디자이너	유튜브 크리에이터 (영상콘텐츠 초 창작 등)	헤어 디자이너	
전체	308(67.8)	146(32.2)		305	18.7	9.5	6.6	10.2	11.1	8.5	
현재 상태	학생	240(66.5)	121(33.5)	1.49 (1)	238	16.0	9.7	5.5	8.8	12.6	7.1
	학교 밖	68(73.1)	25(26.9)		67	28.4	9.0	10.4	14.9	6.0	13.4
학교 밖 경험	있다	78(73.6)	28(26.4)	2.09 (1)	77	28.6	10.4	10.4	13.0	7.8	13.0
	없다	230(66.1)	118(33.9)		228	15.4	9.2	5.3	9.2	12.3	7.0
성별	남자	117(51.8)	109(48.2)	53.28 (1)***	116	19.8	4.3	3.4	7.8	21.6	3.4
	여자	191(83.8)	37(16.2)		189	18.0	12.7	8.5	11.6	4.8	11.6
연령	16세 미만	139(67.5)	67(32.5)	0.02 (1)	138	13.0	10.1	8.0	7.2	13.0	8.7
	16세 이상	169(68.1)	79(31.9)		167	23.4	9.0	5.4	12.6	9.6	8.4
기관 유형	일시·이동	92(61.7)	57(38.3)	4.34 (2)	91	15.4	8.8	6.6	14.3	15.4	6.6
	단기	169(71.9)	66(28.1)		167	18.6	7.8	7.8	7.8	9.0	9.0
	중장기·지립지원관	47(67.1)	23(32.9)		47	25.5	17.0	2.1	10.6	10.6	10.6
가정밖생활 시작연령	16세 미만	168(70.0)	72(30.0)	0.31 (1)	166	19.9	10.8	7.8	9.6	9.6	11.4
	16세 이상	73(73.0)	27(27.0)		73	23.3	8.2	6.8	12.3	9.6	4.1
경제적 수준	상	27(60.0)	18(40.0)	2.39 (2)	27	18.5	7.4	18.5	3.7	14.8	11.1
	중	208(67.3)	101(32.7)		206	18.9	7.8	5.3	12.1	10.7	6.3
	하	72(72.7)	27(27.3)		71	18.3	14.1	5.6	7.0	11.3	14.1

* $p < .05$, ** $p < .01$, *** $p < .001$

주: 희망 직업교육·훈련 유무 전체 n=454, 희망 직업교육·훈련 과정 전체 n=305

40) 여기에 제시된 직업교육·훈련 과정 외의 기타 응답으로 경찰, 공무원, 군인, 운동선수, 교사, 기타리스트 등 직업교육이 나 훈련 과정과 다소 거리가 있는 직업을 작성한 사례들도 상당수 있었다.

(단위: 명, %)

구 분	메이크업 아티스트, 네일아트	음료제조 (바리스타, 소믈리에)	제과제빵 (파티시에)	조리사(한 식·중식·양 식·일식 조리사 등)	자동차 (택시, 버스, 화물차 등) 운전	코딩·게임 프로그래밍	반려동물 전문가 (애견미용사, 행동교정사 등)	기타	
전체	17.4	16.4	21.3	10.2	5.6	12.1	8.5	28.9	
현재 상태	학생	17.2	17.2	21.8	11.3	5.9	10.5	8.0	31.9
	학교 밖	17.9	13.4	19.4	6.0	4.5	17.9	10.4	17.9
학교 밖 경험	있다	19.5	13.0	18.2	6.5	3.9	15.6	10.4	20.8
	없다	16.7	17.5	22.4	11.4	6.1	11.0	7.9	31.6
성별	남자	3.4	19.0	17.2	14.7	10.3	23.3	5.2	30.2
	여자	25.9	14.8	23.8	7.4	2.6	5.3	10.6	28.0
연령	16세 미만	15.9	15.9	24.6	12.3	4.3	11.6	9.4	31.2
	16세 이상	18.6	16.8	18.6	8.4	6.6	12.6	7.8	26.9
기관 유형	일시·이동	16.5	13.2	18.7	12.1	5.5	17.6	5.5	25.3
	단기	16.8	19.2	22.8	7.8	4.8	10.8	9.6	33.5
	중장기· 자립지원관	21.3	12.8	21.3	14.9	8.5	6.4	10.6	19.1
가정 밖 생활 시작 연령	16세 미만	20.5	15.1	22.3	10.8	4.8	10.8	6.0	27.7
	16세 이상	12.3	20.5	21.9	6.8	6.8	12.3	8.2	30.1
경제적 수준	상	22.2	11.1	11.1	14.8	3.7	7.4	0.0	33.3
	중	16.0	16.0	24.8	8.7	5.8	11.7	9.7	29.6
	하	19.7	18.3	15.5	12.7	5.6	15.5	8.5	25.4

재학 여부에 따른 차이를 보면, 학생 청소년의 응답은 전체 응답과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사회복지사·청소년지도사 및 상담사를 희망하는 응답이 매우 많았다. 이들은 다음으로 제과제빵, 메이크업 아티스트·네일아트와 코딩·게임프로그래밍 순으로 응답해 학생 청소년의 응답률 순서와는 차이를 보였다(높은 응답률 기준).

공통적으로 선호가 높은 사회복지사·청소년지도 및 상담사 외에 남자 청소년은 유튜브 크리에이터와 코딩·게임프로그래밍을, 여자 청소년은 간호조무사 및 의사 등, 메이크업 아티스트·네일아트, 제과제빵, 음료제조를 선호하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기관 유형별로 보면 일시·이동침터의 청소년들은 코딩·게임프로그래밍에 대해, 경제적 수준이 낮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은 헤어디자이너와 코딩·게임프로그래밍에 대한 선호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현재 연령대와 가정 밖 생활 시작 연령에 따른 희망 직업교육·훈련에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3) 건강 및 심리정서 특성

- 가정 밖 청소년 중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은 신체적 건강과 정신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재학 중인 청소년보다 낮게 나타났고, 우울이나 불안 등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8.5%로 높게 나타남.
- 가정·학교 밖 청소년의 매일 흡연율은 34.4%로 학생 청소년의 20.4%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최근 30일 이내 1일 이상의 음주 경험은 가정 밖 학생 청소년 14.8%, 가정·학교 밖 청소년 34.4%로 나타남.
- 가정·학교 밖 청소년은 가정 밖 학생 청소년에 비해 회복탄력성이 낮고, 우울감은 높았음.

①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신체적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물어본 결과, 전체 가정 밖 학생·학교 밖 청소년 중 84.4%가 건강한 편(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이라고 응답하였다. 가정 밖 상황의 학교 밖 청소년은 신체적 건강에 대해 건강한 편(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이라고 인식한 비율이 77.1%로 나타났고, 학생 청소년은 86.4%의 비율을 보였다.

표 III-30.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나는 신체적으로 건강하다(전체)

(단위: 명,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편차)	t/F (Scheffe)	
전체	9(1.9)	63(13.6)	212(45.9)	178(38.5)	3.21(0.75)	-	
현재 상태	학생	5(1.4)	45(12.3)	165(45.1)	151(41.3)	3.26(0.72)	2.97**
	학교 밖	4(4.2)	18(18.8)	47(49.0)	27(28.1)	3.01(0.80)	
학교 밖 경험	있다	4(3.7)	20(18.3)	51(46.8)	34(31.2)	3.06(0.80)	-2.49*
	없다	5(1.4)	43(12.2)	161(45.6)	144(40.8)	3.26(0.72)	
성별	남자	3(1.3)	24(10.5)	103(45.0)	99(43.2)	3.30(0.71)	2.63**
	여자	6(2.6)	39(16.7)	109(46.8)	79(33.9)	3.12(0.77)	
연령	16세 미만	4(1.9)	24(11.5)	83(39.9)	97(46.6)	3.31(0.75)	2.69**
	16세 이상	5(2.0)	39(15.4)	129(50.8)	81(31.9)	3.13(0.73)	
기관 유형	일시·이동	3(1.9)	18(11.7)	59(38.3)	74(48.1)	3.32(0.76)	3.66* (a=b=c)
	단기	6(2.5)	33(13.9)	125(52.5)	74(31.1)	3.12(0.73)	
	중장기·자립지원관	0(0.0)	12(17.1)	28(40.0)	30(42.9)	3.26(0.74)	
경제적 수준	상	0(0.0)	2(4.3)	12(26.1)	32(69.6)	3.65(0.57)	11.52*** (a > b,c)
	중	6(1.9)	41(13.0)	152(48.3)	116(36.8)	3.20(0.73)	
	하	3(3.0)	20(20.0)	48(48.0)	29(29.0)	3.03(0.78)	

* $p < .05$, ** $p < .01$, *** $p < .001$

주: 1) 기관 유형: a=일시·이동, b=단기, c=중장기, 경제적 수준: a=상, b=중, c=하

2)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나는 신체적으로 건강하다 전체 n=4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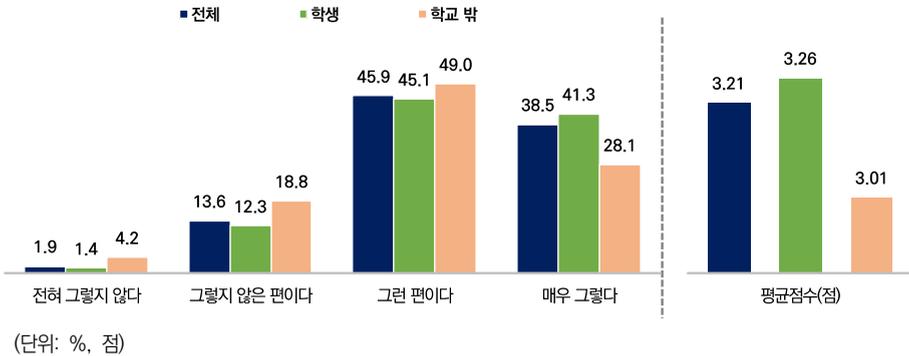


그림 Ⅲ-11.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나는 신체적으로 건강하다(전체)

신체적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4점 만점(1점: 전혀 그렇지 않다~4점: 매우 그렇다) 기준으로 보면, 가정·학교 밖 청소년은 평균 3.01점, 가정 밖 학생 청소년은 평균 3.26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학교 밖 경험의 유무를 살펴보면, 학교 밖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신체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3.06점, 학교 밖 경험이 없는 청소년은 3.26점으로 차이가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배경변인 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16세 미만 연령의 청소년이 16세 이상의 청소년보다, 경제적 수준이 높은 집단이 경제적 수준이 다른 집단보다 신체적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밖 학생·학교 밖 청소년 전체를 기준으로 정신적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의 긍정적인 비율(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은 71.7%에 해당하였고, 학생 청소년은 74.1%, 학교 밖 청소년은 63.1%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의 정신적 건강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건강과 마찬가지로 정신적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4점 만점 기준으로 볼 때(1점: 전혀 그렇지 않다~4점: 매우 그렇다), 가정 밖 학생 청소년은 평균 3.03점, 학교 밖 청소년은 2.75점으로, 재학 중인 가정 밖 청소년이 학교 밖 청소년보다 정신적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학교 밖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평균 2.77점, 학교 밖 경험이 없는 청소년이 3.03점으로 학교 밖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이 정신적 건강을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배경변인별 결과를 살펴보면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경제적 수준이 높은 집단이 보통이거나 낮은 집단보다 정신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1.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나는 정신적으로 건강하다(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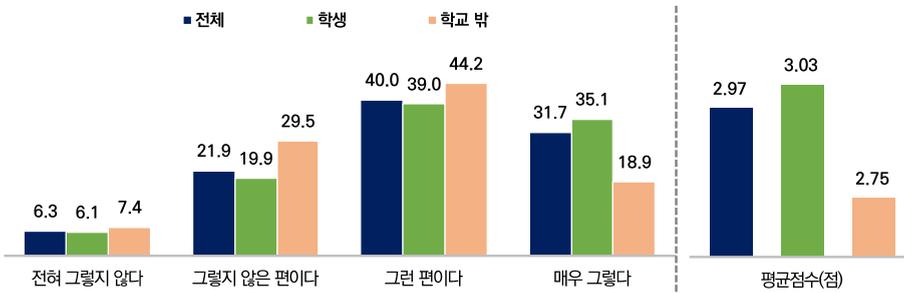
(단위: 명, %, 점)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편차)	t/F (Scheffe)	
전체	29(6.3)	100(21.9)	183(40.0)	145(31.7)	2.97(0.89)	-	
현재 상태	학생	22(6.1)	72(19.9)	141(39.0)	127(35.1)	3.03(0.89)	2.78**
	학교 밖	7(7.4)	28(29.5)	42(44.2)	18(18.9)	2.75(0.85)	
학교 밖 경험	있다	8(7.4)	33(30.6)	43(39.8)	24(22.2)	2.77(0.88)	-2.73**
	없다	21(6.0)	67(19.2)	140(40.1)	121(34.7)	3.03(0.88)	
성별	남자	9(3.9)	40(17.5)	92(40.4)	87(38.2)	3.13(0.84)	3.79***
	여자	20(8.7)	60(26.2)	91(39.7)	58(25.3)	2.82(0.91)	
연령	16세 미만	14(6.8)	38(18.5)	78(38.0)	75(36.6)	3.04(0.91)	1.57
	16세 이상	15(6.0)	62(24.6)	105(41.7)	70(27.8)	2.91(0.87)	
기관 유형	일시·이동	6(4.0)	25(16.6)	64(42.4)	56(37.1)	3.13(0.83)	4.72** (a=b=c)
	단기	21(8.9)	61(25.8)	86(36.4)	68(28.8)	2.85(0.94)	
	중장기·자립지원관	2(2.9)	14(20.0)	33(47.1)	21(30.0)	3.04(0.79)	
경제적 수준	상	1(2.2)	3(6.5)	13(28.3)	29(63.0)	3.52(0.72)	14.06*** (a > b,c)
	중	18(5.8)	69(22.0)	130(41.5)	96(30.7)	2.97(0.87)	
	하	10(10.3)	28(28.9)	40(41.2)	19(19.6)	2.70(0.90)	

* $p < .05$, ** $p < .01$, *** $p < .001$

주: 1) 기관 유형: a=일시·이동, b=단기, c=중장기, 경제적 수준: a=상, b=중, c=하

2)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나는 정신적으로 건강하다 전체 n=457



(단위: %, 점)

그림 III-12.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나는 정신적으로 건강하다(전체)

치료가 필요한 질병 유형에 대해 전체 가정 밖 학생·학교 밖 청소년 중 50.1%는 ‘없다’고 응답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그다음 ‘우울증, 불안장애 등 정신과 질환’은 29.9%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충치 및 잇몸 치료 등 치과 질환’에 대한 치료도 14.5%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가정 밖 학생 청소년 중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2.9%로 학교 밖 청소년의 ‘없음’ 비율인 39.6%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교 밖 청소년은 ‘우울증, 불안장애 등 정신과 질환’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38.5%로 높게 나타났다.

표 III-32. 치료가 필요한 질병 유형(복수응답)(전체)

(단위: 명, %)

구 분	우울증, 불안장애 등 정신과 질환	성 관련 문제(임신, 질병(성병 등) 등 산부인과 질환	충치 및 잇몸 치료 등 치과 질환	소화불량, 위염 등 소화기 내과 계통 질환	근육통, 골절 등 정형외과, 통증의학과 질환	기타 질환 (호흡기 질환, 피부 질환 등)	없음	
전체	136(29.9)	13(2.9)	66(14.5)	42(9.2)	56(12.3)	35(7.7)	228(50.1)	
현재 상태	학생	99(27.6)	8(2.2)	48(13.4)	28(7.8)	42(11.7)	26(7.2)	190(52.9)
	학교 밖	37(38.5)	5(5.2)	18(18.8)	14(14.6)	14(14.6)	9(9.4)	38(39.6)
학교 밖 경험	있다	44(40.4)	6(5.5)	19(17.4)	16(14.7)	17(15.6)	10(9.2)	41(37.6)
	없다	92(26.6)	7(2.0)	47(13.6)	26(7.5)	39(11.3)	25(7.2)	187(54.0)
성별	남자	45(20.2)	0(0.0)	23(10.3)	13(5.8)	24(10.8)	15(6.7)	129(57.8)
	여자	91(39.2)	13(5.6)	43(18.5)	29(12.5)	32(13.8)	20(8.6)	99(42.7)
연령	16세 미만	47(23.2)	3(1.5)	26(12.8)	10(4.9)	21(10.3)	13(6.4)	115(56.7)
	16세 이상	89(35.3)	10(4.0)	40(15.9)	32(12.7)	35(13.9)	22(8.7)	113(44.8)
기관 유형	일시·이동	28(18.7)	2(1.3)	15(10.0)	14(9.3)	23(15.3)	8(5.3)	90(60.0)
	단기	87(37.0)	11(4.7)	45(19.1)	22(9.4)	24(10.2)	22(9.4)	104(44.3)
	중장기·자립지원관	21(30.0)	0(0.0)	6(8.6)	6(8.6)	9(12.9)	5(7.1)	34(48.6)

주: 치료가 필요한 질병 유형 전체 n=455

학교 밖 경험 유무에 따라 살펴보면, 현재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여 학교를 그만둔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 ‘우울증, 불안장애 등 정신과 질환’에 대해 치료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0.4%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학교를 그만둔 경험이 없는 청소년은 동일 질병에 대해 26.6%만이 치료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배경변인 중 기관유형에 따라 일시·이동쉼터의 청소년은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 없다는 응답이 60.0%로 높게 나타났고, 중장기·자립지원관 청소년은 48.6%, 단기쉼터 청소년은 44.3%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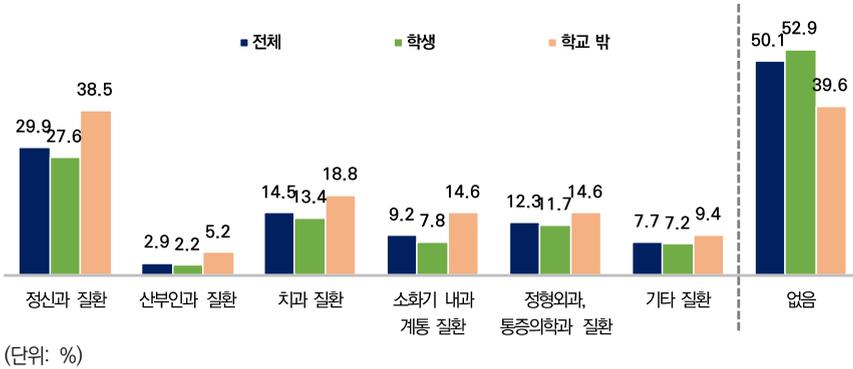


그림 III-13. 치료가 필요한 질병 유형(복수응답)(전체)

② 흡연과 음주 경험

가정 밖 학생·학교 밖 청소년의 신체건강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 최근 30일 동안 담배를 한 개비(한 대)라도 피운 날을 조사한 결과, 전체 청소년 중 절반 이상인 64.8%의 청소년이 흡연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지만, 23.3%의 청소년은 매일 흡연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표 III-33. 흡연 경험(전체)

(단위: 명, %)

구분	최근 30일 동안 없다	월 1~2일	월 3~5일	월 6~9일	월 10~19일	월 20~29일	매일	
전체	294(64.8)	11(2.4)	10(2.2)	5(1.1)	15(3.3)	13(2.9)	106(23.3)	
현재 상태	학생	245(68.4)	8(2.2)	7(2.0)	4(1.1)	12(3.4)	9(2.5)	73(20.4)
	학교 밖	49(51.0)	3(3.1)	3(3.1)	1(1.0)	3(3.1)	4(4.2)	33(34.4)
학교 밖 경험	있다	53(49.1)	5(4.6)	4(3.7)	1(0.9)	4(3.7)	4(3.7)	37(34.3)
	없다	241(69.7)	6(1.7)	6(1.7)	4(1.2)	11(3.2)	9(2.6)	69(19.9)
성별	남자	138(61.6)	4(1.8)	6(2.7)	2(0.9)	7(3.1)	6(2.7)	61(27.2)
	여자	156(67.8)	7(3.0)	4(1.7)	3(1.3)	8(3.5)	7(3.0)	45(19.6)
연령	16세 미만	151(74.0)	7(3.4)	2(1.0)	3(1.5)	6(2.9)	4(2.0)	31(15.2)
	16세 이상	143(57.2)	4(1.6)	8(3.2)	2(0.8)	9(3.6)	9(3.6)	75(30.0)

* $p < .05$, ** $p < .01$, *** $p < .001$

주: 흡연 전체 n=454

학교 밖 청소년 중에서는 51.0%가 최근 30일 동안 흡연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고, 학생 청소년은 68.4%가 흡연 경험이 없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매일 흡연하였다고 응답한

학교 밖 청소년은 34.4%에 해당하였고, 학생인 가정 밖 청소년 중에서는 20.4%만 매일 흡연을 한다고 응답하였다. 배경변인 중에서는 연령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였는데, 16세 이상인 청소년은 매일 흡연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30.0%로 나타났고, 16세 미만은 15.2%에 해당하였다. 16세 미만 청소년 중에서는 최근 30일 동안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74.0%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림 III-14. 흡연 경험(전체)

○ 추가분석: 2차 자료 분석 결과 비교

-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담배를 핀 청소년의 비율과 매일 흡연을 모두 가정·학교 밖 청소년이 가장 높았고, 가정 밖 학생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학생 청소년 순으로 나타남.

(단위: %)

조사항목		본 조사			비교 조사	
항목	세부항목	전체	가정 밖 학생	가정·학교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¹⁾	학생 청소년 ²⁾
흡연	현재 흡연율 ³⁾	35.2	31.6	49.0	19.3	4.2
	매일 흡연율 ⁴⁾	23.3	20.4	34.4	14.1	2.0

주: 1) 202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내일이룸학교, 청소년단체센터, 소년원, 보호관찰소, 대안교육기관을 이용하는 만9~24세 학교 밖 청소년 2,400명의 응답 값(검정고시 접수장 청소년 490명 조사 결과 제외)

2) 2023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대상: 2023년 4월 기준 전국의 중고등학교 재학생 52,880명

3) 현재 흡연율은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담배를 흡연한 사람의 비율임

4) 매일 흡연율은 최근 30일 동안 매일 담배를 흡연한 사람의 비율임

가정 밖 학생·학교 밖 청소년의 음주 경험에 대해 살펴보고자 최근 30일 간 1잔 이상의 술을 마신 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청소년 중 81.1%의 청소년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음주 경험이 있는 경우의 최근 30일 간 음주 빈도를 살펴보면, 월 1~2일에 1잔 이상 마셨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8.8%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그다음은 월 3~5일 2.9%, 월 6~9일 2.4%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재학 상태에 따라 음주 경험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가정 밖 청소년은 최근 30일 동안 1~2일 정도 1잔 이상 술을 마셨다고 응답한 비율이 18.8%로, 가정 밖 학생 청소년의 응답률인 6.1%보다 3배 이상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음주 경험의 차이를 살펴보면, 연령이 16세 이상인 가정 밖 청소년 중 13.1%가 한 달에 1~2일 정도 술을 마셨다고 응답하였지만 16세 미만인 청소년 중에서는 3.4%에 불과하였다. 기관유형에 따라서는 음주 경험에 큰 차이가 존재하였는데, 일시 및 이동쉼터 청소년은 최근 30일간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4.5%, 단기쉼터는 80.8%, 중장기 및 자립지원관에 있는 청소년은 97.1%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표 III-34. 음주 경험(전체)

(단위: 명, %)

구 분	최근 30일 동안 없다	월 1~2일	월 3~5일	월 6~9일	월 10~19일	월 20~29일	매일	
전체	369(81.1)	40(8.8)	13(2.9)	11(2.4)	9(2.0)	10(2.2)	3(0.7)	
현재 상태	학생	306(85.2)	22(6.1)	8(2.2)	7(1.9)	6(1.7)	8(2.2)	2(0.6)
	학교 밖	63(65.6)	18(18.8)	5(5.2)	4(4.2)	3(3.1)	2(2.1)	1(1.0)
학교 밖 경험	있다	75(69.4)	18(16.7)	5(4.6)	4(3.7)	3(2.8)	2(1.9)	1(0.9)
	없다	294(84.7)	22(6.3)	8(2.3)	7(2.0)	6(1.7)	8(2.3)	2(0.6)
성별	남자	180(80.0)	25(11.1)	5(2.2)	5(2.2)	4(1.8)	3(1.3)	3(1.3)
	여자	189(82.2)	15(6.5)	8(3.5)	6(2.6)	5(2.2)	7(3.0)	0(0.0)
연령	16세 미만	181(88.7)	7(3.4)	5(2.5)	5(2.5)	2(1.0)	4(2.0)	0(0.0)
	16세 이상	188(74.9)	33(13.1)	8(3.2)	6(2.4)	7(2.8)	6(2.4)	3(1.2)
기관 유형	일시·이동	114(74.5)	14(9.2)	9(5.9)	6(3.9)	4(2.6)	4(2.6)	2(1.3)
	단기	189(80.8)	25(10.7)	4(1.7)	5(2.1)	4(1.7)	6(2.6)	1(0.4)
	중장기·자립지원관	66(97.1)	1(1.5)	0(0.0)	0(0.0)	1(1.5)	0(0.0)	0(0.0)
가정 밖 생활 시작 연령	16세 미만	201(82.4)	16(6.6)	7(2.9)	6(2.5)	5(2.0)	7(2.9)	2(0.8)
	16세 이상	69(68.3)	19(18.8)	4(4.0)	4(4.0)	3(3.0)	2(2.0)	0(0.0)

* $p < .05$, ** $p < .01$, *** $p < .001$

주: 음주 전체 n=4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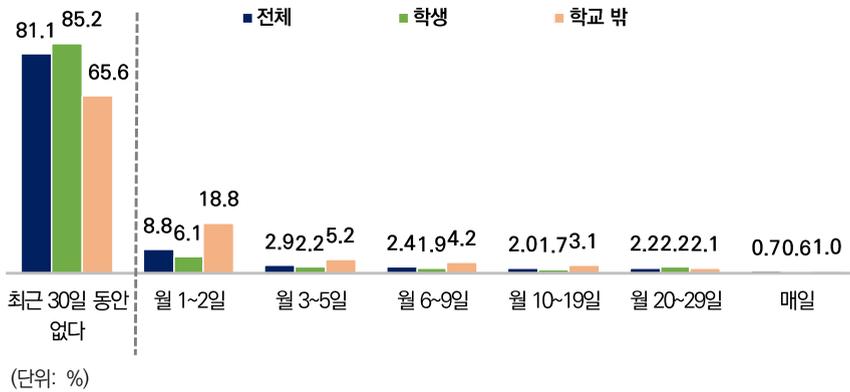


그림 III-15. 음주 경험(전체)

○ 추가분석: 2차 자료 분석 결과 비교

-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술은 마신 청소년의 비율은 가정·학교 밖 청소년이 가장 높았고, 2차 자료 조사 대상인 학교 밖 청소년이 그다음으로 나타남. 가정 밖 학생 청소년의 음주율도 가정 밖이 아닌 청소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단위: %)

조사항목		본 조사			비교 조사	
항목	세부항목	전체	가정 밖 학생	가정·학교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¹⁾	학생 청소년 ²⁾
음주	현재 음주율 ³⁾	18.9	14.8	34.4	21.2	11.1

주: 1) 202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내일이룸학교, 청소년단기쉼터, 소년원, 보호관찰소, 대안교육기관을 이용하는 만9~24세 학교 밖 청소년 2,400명의 응답 값(검정고시 접수장 청소년 490명 조사 결과 제외)

2) 2023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대상: 2023년 4월 기준 전국의 중고등학교 재학생 52,880명

3) 현재 음주율은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술을 마신 사람의 비율임

③ 심리정서적 요인

가정 밖 학생·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에 대해 평소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자아존중감 척도를 활용하여 조사하였다. 자아존중감은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의 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만점(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4점: 매우 그렇다)으로 조사하였다. 3개 항목의 평균 점수를 산출한 결과, 전체 조사 대상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점수는 2.94점으로 나타났고, 가정 밖 청소년 중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2.95점, 학교 밖 청소년은 2.89점으로 차이가 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자아존중감은 성별, 기관유형, 경제적 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남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3.09점으로 여자 청소년 2.78점보다 높았고, 일시·이동실퍼와 중장기·자립지원관에 있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각각 3.10점, 3.09점으로 단기실퍼 청소년의 2.78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 유형에 따라 자아존중감의 차이가 유의하였고, 경제적으로 잘 산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5. 자아존중감(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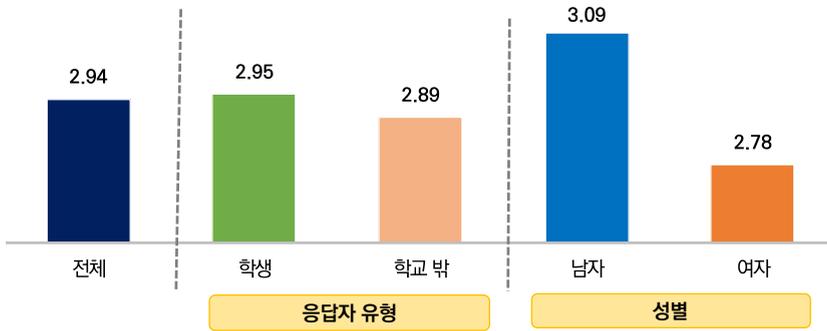
(단위: 점)

구 분	전체	가정 밖 학생 청소년	가정 밖 학교 밖 청소년	t	
	M(SD)	M(SD)	M(SD)		
전체	2.94(0.79)	2.95(0.81)	2.89(0.72)	0.59	
학교 밖 경험	있다	2.90(0.73)	2.97(0.82)	2.89(0.72)	0.37
	없다	2.95(0.81)	2.95(0.81)	0.00(0.00)	-
	t	-0.50	0.12	-	
성별	남자	3.09(0.76)	3.12(0.78)	2.97(0.65)	1.21
	여자	2.78(0.80)	2.77(0.81)	2.83(0.77)	-0.47
	t	4.27***	4.25***	0.94	
연령	16세 미만	2.97(0.79)	2.97(0.80)	2.90(0.77)	0.39
	16세 이상	2.91(0.79)	2.92(0.82)	2.89(0.71)	0.27
	t	0.69	0.58	0.04	
기관 유형	일시·이동	3.10(0.76)	3.14(0.77)	2.99(0.71)	1.06
	단기	2.78(0.79)	2.79(0.81)	2.76(0.74)	0.23
	중장기·자립지원관	3.09(0.77)	3.07(0.80)	3.29(0.40)	-0.70
	t/F(Scheffe)	9.40*** (a, c > b)	7.77*** (a, c > b)	2.29	
경제적 수준	상	3.46(0.68)	3.43(0.71)	3.63(0.52)	-0.75
	중	2.97(0.75)	2.99(0.77)	2.89(0.68)	0.95
	하	2.60(0.83)	2.60(0.85)	2.60(0.75)	0.00
	t/F(Scheffe)	21.14*** (a > b > c)	15.59*** (a > b > c)	6.44** (a > b, c)	

* $p < .05$, ** $p < .01$, *** $p < .001$

주: 1) 기관 유형: a=일시·이동, b=단기, c=중장기, 경제적 수준: a=상, b=중, c=하

2) 자아존중감 전체 n=461, 가정 밖 학생 청소년 전체 n=366, 가정·학교 밖 청소년 전체 n=95



(단위: 점)

그림 III-16. 자아존중감(전체)

회복탄력성 척도는 '나는 힘든 시기를 보낸 후에 빠르게 회복하는 편이다', '나는 스트레스가 많은 일에서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나는 안 좋은 일이 발생했을 때 회복하는 것이 힘들다(역문항)', '나는 보통 어려운 시기를 별 다른 문제없이 잘 이겨낸다'의 4개 항목으로 구성하고 4점 만점(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4점: 매우 그렇다)으로 조사하였으며, 결과에는 평균값을 활용하였다.

전체 조사 대상 청소년의 회복탄력성 점수는 2.64점으로 나타났고, 현재 재학 여부에 따라 회복탄력성 점수에 차이가 발생하였다.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의 회복탄력성은 2.68점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2.48점보다 높았으며, 점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학교를 그만둔 경험의 유무에 따라 회복탄력성의 점수가 달라졌는데, 학교를 그만둔 경험이 있는 가정 밖 청소년의 회복탄력성은 2.50점으로 학교를 그만둔 경험이 없는 청소년의 2.68점보다 낮게 나타났고, 점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회복탄력성은 여자 청소년이 2.50점으로 남자 청소년의 2.78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여자 청소년 중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인 경우 재학 중인 여자 청소년보다 회복탄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기관 유형과 학교 재학 여부를 고려하여 회복탄력성을 비교한 결과, 단기숙터 학교 밖 청소년의 회복탄력성이 다른 기관의 청소년보다 가장 낮은 회복탄력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적 수준에 따라 회복탄력성 점수에 차이가 나타났고, 경제적 수준을 높게 응답한 청소년의 회복탄력성이 경제적 수준을 낮게 응답한 청소년보다 높았다.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청소년 중에서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은 청소년은 회복탄력성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6. 회복탄력성(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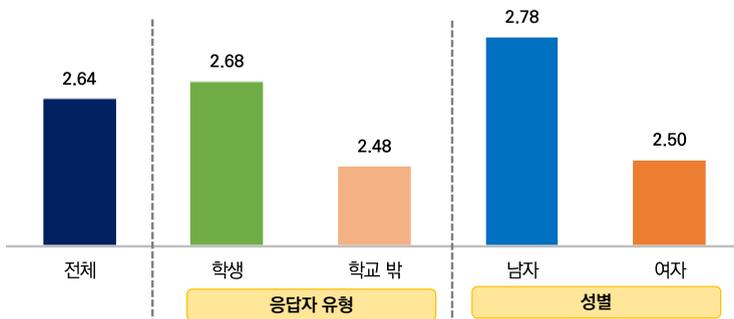
(단위: 점)

구 분		전체	가정 밖 학생 청소년	가정·학교 밖 청소년	t
		M(SD)	M(SD)	M(SD)	
전체		2.64(0.72)	2.68(0.72)	2.48(0.71)	2.35*
학교 밖 경험	있다	2.50(0.71)	2.65(0.73)	2.48(0.71)	0.82
	없다	2.68(0.72)	2.68(0.72)	0.00(0.00)	-
	t	-2.20*	-0.11	-	
성별	남자	2.78(0.66)	2.79(0.68)	2.70(0.55)	0.87
	여자	2.50(0.76)	2.55(0.74)	2.30(0.78)	2.16*
	t	4.23***	3.23**	2.95**	
연령	16세 미만	2.66(0.68)	2.66(0.69)	2.65(0.65)	0.09
	16세 이상	2.61(0.75)	2.69(0.76)	2.44(0.72)	2.43*
	t	0.76	-0.29	1.20	
기관 유형	일시·이동	2.67(0.76)	2.70(0.78)	2.60(0.68)	0.74
	단기	2.58(0.71)	2.65(0.70)	2.33(0.72)	2.85**
	중장기·자립지원관	2.74(0.68)	2.71(0.70)	2.93(0.53)	-0.79
	t/F(Scheffe)	1.57	0.30	3.19*(a=b=c)	
경제적 수준	상	3.04(0.75)	3.05(0.77)	3.00(0.65)	0.16
	중	2.62(0.72)	2.66(0.73)	2.49(0.67)	1.70
	하	2.48(0.65)	2.54(0.61)	2.24(0.76)	1.90
	t/F(Scheffe)	9.74***(a > b,c)	6.56***(a > b,c)	3.52*(a > c)	

* $p < .05$, ** $p < .01$, *** $p < .001$

주: 1) 기관유형: a=일시·이동, b=단기, c=중장기, 경제적 수준: a=상, b=중, c=하

2) 회복탄력성 전체 n=462, 가정 밖 학생 청소년 전체 n=366, 가정·학교 밖 청소년 전체 n=96



(단위: 점)

그림 III-17. 회복탄력성(전체)

가정 밖 청소년에게 최근 12개월 동안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2주 내내 느낀 적이 있는지를 질문하였을 때, 45.8%가 우울감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기초분석보고서 p.82 참고). 현재 학업 상태에 따라 응답한 결과를 살펴보면, 가정 밖 학생 청소년 중에는 43.1%가, 가정·학교 밖 청소년 중에는 55.8%가 우울감을 느꼈다고 응답하여 12.7%p 차이로 가정·학교 밖 청소년의 우울감 경험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가정 밖 학생 청소년 중에서 2주 내내 우울감을 느낀 여자 청소년은 52.2%로 남자 청소년의 34.1%보다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인 수준을 낮게 응답한 가정 밖 학생 청소년 중에서는 55.1%가 우울감을 경험하여, 경제적 수준을 높게 응답한 청소년의 33.3%보다 경험률이 높았다. 가정·학교 밖 청소년 중에서는 가정 밖 생활 시작 연령이 16세 미만이었던 청소년 중 66.7%가 우울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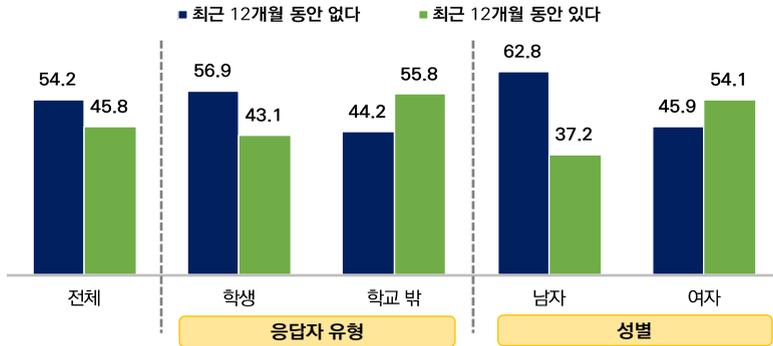
표 III-37. 최근 12개월 동안의 우울감 경험(전체)

(단위: 명, %)

구 분	가정 밖 학생 청소년			가정·학교 밖 청소년			
	있다	없다	χ^2 (df)	있다	없다	χ^2 (df)	
전체	154(43.1)	203(56.9)	-	53(55.8)	42(44.2)	-	
성별	남자	61(34.1)	118(65.9)	12.01(1)**	22(50.0)	22(50.0)	1.11(1)
	여자	93(52.2)	85(47.8)		31(60.8)	20(39.2)	
연령	16세 미만	83(45.6)	99(54.4)	0.92(1)	10(50.0)	10(50.0)	0.34(1)
	16세 이상	71(40.6)	104(59.4)		43(57.3)	32(42.7)	
기관 유형	일시·이동	44(39.6)	67(60.4)	0.81(2)	18(46.2)	21(53.8)	2.58(2)
	단기	83(44.6)	103(55.4)		31(63.3)	18(36.7)	
	중장기·자립지원관	27(45.0)	33(55.0)		4(57.1)	3(42.9)	
가정 밖 생활 시작 연령	16세 미만	89(46.1)	104(53.9)	0.10(1)	32(66.7)	16(33.3)	4.66(1)*
	16세 이상	31(48.4)	33(51.6)		16(43.2)	21(56.8)	
경제적 수준	상	12(33.3)	24(66.7)	6.67(2)*	5(62.5)	3(37.5)	3.54(2)
	중	98(40.5)	144(59.5)		34(50.0)	34(50.0)	
	하	43(55.1)	35(44.9)		14(73.7)	5(26.3)	

* $p < .05$, ** $p < .01$, *** $p < .001$

주: 가정 밖 학생 청소년 전체 n=357, 가정·학교 밖 청소년 전체 n=95



(단위: %)

그림 III-18. 최근 12개월 동안의 우울감 경험(전체)

○ 추가분석: 2차 자료 분석 결과 비교

- 최근 12개월 동안 2주 내내 우울감을 경험한 비율을 산출한 결과, 본 조사의 가정·학교 밖 청소년의 경험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단위: %)

조사항목		본 조사			비교 조사	
항목	세부항목	전체	가정 밖 학생	가정·학교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¹⁾	학생 청소년 ²⁾
우울	우울감 경험률 ³⁾	45.8	43.1	55.8	32.5 ⁴⁾	26.0

주: 1) 202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내일이룸학교, 청소년단체센터, 소년원, 보호관찰소, 대안교육기관을 이용하는 만9~24세 학교 밖 청소년 2,400명의 응답 값(검정도시 접수장 청소년 490명 조사 결과 제외)

2) 2023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대상: 2023년 4월 기준 전국의 중고등학교 재학생 52,880명

3) 우울감 경험률은 '최근 12개월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임.

4) 비교 조사의 학교 밖 청소년은 '최근 12개월'이라는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채 2주 내내 우울감을 경험했는지에 대한 여부만 묻고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가정 밖 청소년이 얼마나 자주 사회적으로 고립된 감정을 느끼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회적 고립감 척도를 활용하였다. 사회적 고립감 척도는 4개 항목으로 이뤄져있으며, '나는 이야기할 사람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나는 혼자라고 느낀다', '나는 외로움을 느낀다', '나는 다른 사람들로 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낀다'에 대해 4점 만점(1점: 전혀 그렇지 않다~ 4점: 항상 그렇다)으로 조사하였다. 4개 문항의 평균값을 산출한 결과, 가정 밖 청소년의 사회적 고립감 점수는 2.13점으로 나타났다. 현재 재학 중인 가정 밖 청소년의

사회적 고립감은 2.10점으로, 가정·학교 밖 청소년의 2.23점보다 낮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학교 밖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사회적 고립감은 평균 2.26점으로 학교 밖 경험이 없는 청소년(M=2.09)의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남자 청소년(M=1.92)보다는 여자 청소년(M=2.33)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다는 느낌을 자주 받았으며, 기관유형 중에서는 일시·이동쉼터 청소년의 사회적 고립감이 평균 1.92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다만, 일시·이동쉼터의 청소년 중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은 청소년의 사회적 고립감 점수는 평균 2.29점으로 재학 중인 청소년의 1.80점보다 높았다.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 사회적 고립감 점수에 차이가 나타났는데, 경제적 수준이 낮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경제적 수준을 높게 응답한 청소년보다 사회적 고립감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8. 사회적 고립감(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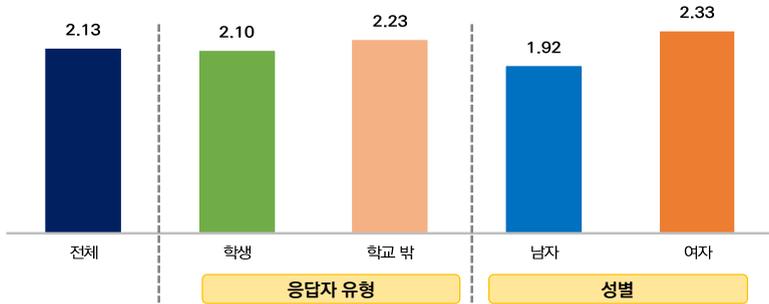
(단위: 점)

구 분	전체	가정 밖 학생 청소년	가정·학교 밖 청소년	t	
	M(SD)	M(SD)	M(SD)		
전체	2.13(0.89)	2.10(0.89)	2.23(0.88)	-1.22	
학교 밖 경험	있다	2.26(0.90)	2.52(1.05)	2.23(0.88)	1.10
	없다	2.09(0.88)	2.09(0.88)	0.00(0.00)	-
	t	1.80	1.72	-	
성별	남자	1.92(0.82)	1.91(0.83)	1.99(0.80)	-0.62
	여자	2.33(0.91)	2.30(0.91)	2.42(0.91)	-0.86
	t	-4.99***	-4.30***	-2.44*	
기관 유형	일시·이동	1.92(0.82)	1.80(0.80)	2.29(0.79)	-3.38***
	단기	2.26(0.90)	2.27(0.89)	2.23(0.97)	0.34
	중장기·자립지원관	2.12(0.91)	2.15(0.93)	1.86(0.73)	0.80
	t/F(Scheffe)	7.07**(b > a)	10.93***(b, c > a)	0.73	
경제적 수준	상	1.67(0.84)	1.68(0.80)	1.63(1.09)	0.18
	중	2.09(0.85)	2.06(0.86)	2.20(0.82)	-1.19
	하	2.45(0.92)	2.42(0.93)	2.56(0.89)	-0.61
	t/F(Scheffe)	13.51***(c > b > a)	10.06***(c > b > a)	3.53*(c > a)	

* $p < .05$, ** $p < .01$, *** $p < .001$

주: 1) 기관 유형: a=일시·이동, b=단기, c=중장기, 경제적 수준: a=상, b=중, c=하

2) 사회적 고립감 전체 n=462, 가정 밖 학생 청소년 전체 n=366, 가정·학교 밖 청소년 전체 n=96



(단위: 점)

그림 III-19. 사회적 고립감(전체)

○ 추가분석: 2차 자료 분석 결과 비교

- 본 조사에서 실시한 사회적 고립감에 대한 응답 결과를 2차 자료의 결과와 비교하면, 가정 밖 학생 청소년과 가정·학교 밖 청소년 모두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부족하다, 혼자라고 느낀다, 외로움을 느낀다, 다른 사람들로 고립되어 있다고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단위: %)

항목	조사항목 세부항목 ³⁾	본 조사		비교 조사			
		전체	가정 밖 학생	가정·학교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¹⁾	학생청소년 ²⁾ 중 고	
사회적 고립감	나는 이야기할 사람이 부족하다	43.1	42.9	43.8	39.0	18.5	17.7
	나는 혼자라고 느낀다	38.2	37.3	41.7	33.4	17.6	18.9
	나는 외로움을 느낀다	42.9	41.5	47.9	39.7	22.2	25.8
	나는 다른 사람들로 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낀다	28.4	27.6	31.3	23.9	5.3	6.8

주: 1) 202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내일이룸학교, 청소년단체, 소년원, 보호관찰소, 대안교육기관을 이용하는 만9~24세 학교 밖 청소년 2,400명의 응답 값(검정고시 접수장 청소년 490명 조사 결과 제외)

2) 2023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동일 조사 항목으로 총 8,796명 조사 대상에서 중학생 2,969, 고등학생 2,779명 응답만 제시(이 조사에서는 외로움 조사 척도로 활용되었음)

3) 모든 항목은 4점 만점으로 측정되었으며, '(가끔)그렇다'와 '항상 그렇다' 응답 비율을 합산한 값임.

최근 12개월 동안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 대상 청소년 중 29.6%가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라고 응답하였다. 죽고 싶다고 생각한 이유와 관련해서 47.9%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가족 간의 갈등'으로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자살을 생각한 이유로 16.2%의 청소년이 '기타'라고 응답하였고, 서술형 답변 중에는 '그냥', '별다른 이유 없이' 자살을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학교 밖 청소년 중 35.8%가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가정 밖 학생 청소년 중에서는 28.0%가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7.7%p 차이가 났다 (학교 밖 경험과 비경험 청소년 간에는 11%p의 차이를 보였고,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음, $p < .05$). 자살을 생각한 가장 큰 이유는 두 집단 모두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응답하였지만,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이 19.4%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여자 청소년의 41.0%가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남자 청소년은 17.9%가 자살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여자 청소년이 23.1%p 더 높게 나타났다. 16세 이상 가정 밖 청소년은 32.5%가 자살 생각을 한 적이 있고, 16세 미만은 26.1%가 자살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연령이 높은 집단이 자살 생각을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세 이상 청소년 중 자살 생각의 이유로 '가족 간의 갈등(47.1%)'이 가장 주된 이유였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15.7%)'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이유로 나타났다. 쉼터의 유형 중에서는 단기쉼터에 있는 청소년의 자살생각률이 3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은 증장기·자립지원관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29.4%, 일시·이동쉼터에서 응답한 청소년 중에서는 18.1%로 나타났다. 경제적으로 낮은 수준을 응답한 청소년 중에서는 45.5%로 경제적 수준을 높게 응답한 청소년이나(26.7%) 보통이라고 응답한 청소년보다(24.8%)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이 낮은 청소년의 자살 생각 이유 중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이유가 '친구 없고, 인간관계 폭이 좁아져서'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각각 10%의 청소년이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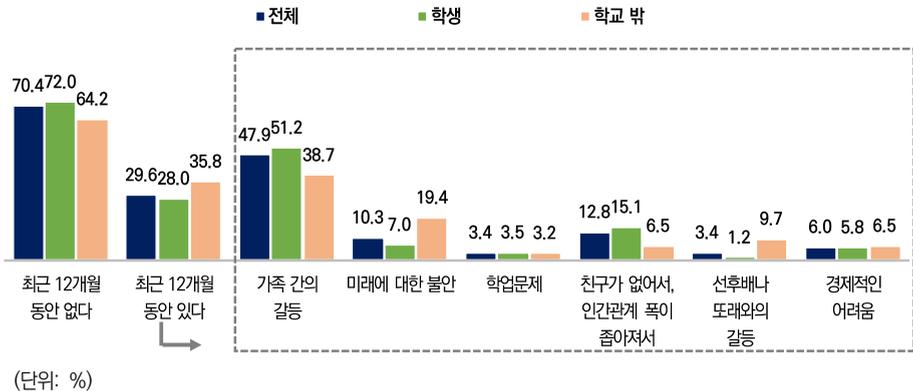


그림 III-20. 최근 12개월 동안의 자살 생각 유무 및 이유(전체)

표 III-39. 최근 12개월 동안의 자살 생각 유무 및 이유(전체)

(단위: 명, %)

구 분	자살생각 유무			이유								
	최근 12개월 동안 없다	최근 12개월 동안 있다	$\chi^2(df)$	사례 수	가족 갈등 (불화, 폭력/학대 등)	미래 (진로에 대한 불안)	학업문제 (학업 부담감, 성적 스트레스 등)	친구 없고 인간관계 폭이 좁아져서 (외로움, 고립감)	선후배/ 또래와의 갈등 (학교폭력 등)	경제적 어려움	기타	
전체	318 (70.4)	134 (29.6)	-	117	47.9	10.3	3.4	12.8	3.4	6.0	16.2	
현재 상태	학생	257 (72.0)	100 (28.0)	2.18 (1)	86	51.2	7.0	3.5	15.1	1.2	5.8	16.3
	학교 밖	61 (64.2)	34 (35.8)		31	38.7	19.4	3.2	6.5	9.7	6.5	16.1
학교 밖 경험	있다	67 (62.0)	41 (38.0)	4.71 (1)*	37	45.9	16.2	2.7	5.4	8.1	8.1	13.5
	없다	251 (73.0)	93 (27.0)		80	48.8	7.5	3.8	16.3	1.3	5.0	17.5
성별	남자	183 (82.1)	40 (17.9)	28.93 (1)***	34	58.8	11.8	5.9	8.8	2.9	0.0	11.8
	여자	135 (59.0)	94 (41.0)		83	43.4	9.6	2.4	14.5	3.6	8.4	18.1
연령	16세 미만	150 (73.9)	53 (26.1)	2.21 (1)	47	48.9	2.1	2.1	14.9	4.3	4.3	23.4
	16세 이상	168 (67.5)	81 (32.5)		70	47.1	15.7	4.3	11.4	2.9	7.1	11.4
기관 유형	일시·이동	122 (81.9)	27 (18.1)	15.62 (2)***	22	54.5	18.2	4.5	13.6	0.0	0.0	9.1
	단기	148 (63.0)	87 (37.0)		77	48.1	7.8	2.6	14.3	3.9	3.9	19.5
	중장기·지립지원관	48 (70.6)	20 (29.4)		18	38.9	11.1	5.6	5.6	5.6	22.2	11.1
경제적 수준	상	33 (73.3)	12 (26.7)	15.62 (2)***	11	45.5	9.1	0.0	18.2	0.0	9.1	18.2
	중	231 (75.2)	76 (24.8)		65	47.7	15.4	4.6	13.8	3.1	1.5	13.8
	하	54 (54.5)	45 (45.5)		40	50.0	2.5	2.5	10.0	5.0	10.0	20.0

* $p < .05$, ** $p < .01$, *** $p < .001$

주: 자살생각 유무 전체 n=452, 이유 전체 n=117

조사 대상 청소년에게 최근 12개월 동안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는지 물었을 때는 11.5%가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기초분석보고서 p.89 참고). 자살 시도에 대해 가정·학교 밖 청소년의 12.6%, 재학 중인 가정 밖 청소년의 11.2%가 시도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1.4%p 차이로 가정·학교 밖 청소년이 자살 시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정 밖 학생 청소년 중 최근 12개월 동안 남자 청소년의 6.6%, 여자 청소년의 15.9%가 자살 시도를 한 것으로 응답하여 9.3%p의 차이로 여자 청소년의 자살시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여자 청소년의 자살시도율은 21.2%로 재학 중인 여자 청소년보다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0. 최근 12개월 동안 자살 시도 유무(전체)

(단위: 명, %)

구 분	가정 밖 학생 청소년			가정·학교 밖 청소년			
	있다	없다	χ^2 (df)	있다	없다	χ^2 (df)	
전체	40(11.2)	317(88.8)	—	12(12.6)	83(87.4)	—	
성별	남자	12(6.6)	169(93.4)	1(2.3)	42(97.7)	—	
	여자	28(15.9)	148(84.1)	7.72(1)**	11(21.2)		41(78.8)
연령	16세 미만	20(10.7)	167(89.3)	2(10.0)	18(90.0)	—	
	16세 이상	20(11.8)	150(88.2)	0.10(1)	10(13.3)		65(86.7)
기관 유형	일시·이동	10(9.0)	101(91.0)	3(7.9)	35(92.1)	—	
	단기	22(11.8)	165(88.2)	9(18.0)	41(82.0)		
	중장기·자립지원관	8(13.6)	51(86.4)	0.93(2)	0(0.0)		7(100.0)
경제적 수준	상	3(8.1)	34(91.9)	0(0.0)	8(100.0)	—	
	중	24(9.9)	219(90.1)	—	6(9.0)		61(91.0)
	하	13(17.1)	63(82.9)	—	6(30.0)		14(70.0)

* $p < .05$, ** $p < .01$, *** $p < .001$

주: 가정 밖 학생 청소년 전체 n=357, 가정·학교 밖 청소년 전체 n=95

○ 추가분석: 2차 자료 분석 결과 비교

- 본 조사의 가정 밖 학생·학교 밖 청소년은 비교 조사 대상인 학교 밖 청소년이나 학생 청소년보다 자살 생각과 자살 시도 경험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가정과 학교에서 모두 벗어난 가정·학교 밖 청소년의 경험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

(단위: %)

조사항목		본 조사			비교 조사	
항목	세부항목	전체	가정 밖 학생	가정·학교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¹⁾	학생 청소년 ²⁾
자살 관련	자살 생각 ³⁾	29.6	28.0	35.8	23.6	13.5
	자살 시도 ⁴⁾	11.5	11.2	12.6	9.9	3.2

- 주: 1) 202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내일이룸학교, 청소년단기쉼터, 소년원, 보호관찰소, 대안교육기관을 이용하는 만9-24세 학교 밖 청소년 2,400명의 응답 값(검정고시 접수장 청소년 490명 조사 결과 제외)
- 2) 2023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대상: 2023년 4월 기준 전국의 중고등학교 재학생 52,880명
- 3) 자살 생각은 최근 12개월 동안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적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최근 12개월 동안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보고함.
- 4) 자살 시도는 최근 12개월 동안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는지 묻는 문항에 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보고함.

(4) 일/아르바이트 경험

- 가정 밖 청소년의 재학 여부에 따라 학생 청소년의 33.8%, 학교 밖 청소년의 61.7%가 일(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여 두 집단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남.
- 현재 하고 있거나 과거에 했던 일(아르바이트)의 유형으로는 식당주방/서빙/카운터, 카페 서빙 등, 기타(웨딩홀/이삿짐/주차안내 아르바이트, 모델 등) 유형을 가장 많이 경험하였음.
- 일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생활비(용돈)를 벌기 위해 하는 경우가 87%로 대부분을 차지함.
- 일을 구할 때 미성년자인데 보호자의 동의서를 제출할 수 없었을 때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경우가 25.1%로 가장 높게 나타남.

① 일(아르바이트) 경험 특성

가정 밖 학생·학교 밖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을 조사하기 위해 현재 일(아르바이트)을 하고 있거나 한 경험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15.1%가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응답하였고, 24.5%가 이전에 일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약 40%에 달하는 청소년이 일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기초분석보고서 p.90 참고).

가정 밖 청소년의 현재 재학 상태에 따라 일(아르바이트) 경험에 차이가 존재하였다. 재학 중인 가정 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일(아르바이트)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66.2%로 나타났지만,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가정·학교 밖 청소년은 61.7%가 일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였다.

배경변인 중에서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일 경험이 많았고, 연령이 16세 이상인 경우 16세 미만의 청소년보다 일 경험이 많게 나타났다. 또한, 단기쉼터에 거주하는 경우 일시·이동쉼터나 중장기·자립지원관에 있는 경우보다 일 경험이 많았고, 가정 밖 생활 시작 연령이 16세 이상인 경우가 16세 미만인 청소년보다 현재 일을 더 많이 하고 있거나 이전에 일을 해봤던 경험이 많았다. 경제적 수준이 낮은 경우에도 경제적으로

보통이거나 높다고 응답한 청소년보다 일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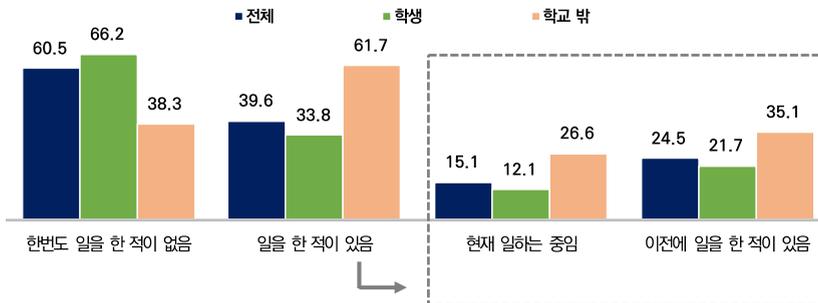
표 III-41. 현재 일(아르바이트) 여부(전체)

(단위: 명, %)

구 분	한번도 일한 적 없음	일한 적 있음	χ^2 (df)
전체	277(60.5)	181(39.5)	—
현재 상태	학생	241(66.2)	25.55(2)***
	학교 밖	36(38.3)	
학교 밖 경험	있다	40(37.7)	31.79(2)***
	없다	237(67.3)	
성별	남자	149(65.1)	5.17(2)
	여자	128(55.9)	
연령	16세 미만	161(77.8)	49.23(2)***
	16세 이상	116(46.2)	
기관 유형	일시·이동	100(66.2)	4.89(4)
	단기	135(56.7)	
	중장기·자립지원관	42(60.9)	
가정 밖 생활 시작 연령	16세 미만	136(56.0)	2.50(2)
	16세 이상	49(47.6)	
경제적 수준	상	29(63.0)	0.99(4)
	중	189(60.8)	
	하	59(59.0)	

* $p < .05$, ** $p < .01$, *** $p < .001$

주: 현재 일(아르바이트) 여부 전체 n=458



(단위: %)

그림 III-21. 현재 일(아르바이트) 여부(전체)

○ 추가분석: 2차 자료 분석 결과 비교

-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서 청소년의 42.6%가 일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본 조사에서는 전체 조사 대상자의 39.5%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낮았음. 그러나 본 조사에서 가정과 학교에서 모두 벗어난 청소년의 응답률은 61.7%로 매우 높게 나타남.

(단위: %)

조사항목		본 조사			비교 조사
항목	세부항목	전체	가정 밖 학생	가정·학교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¹⁾
일 경험	아르바이트 경험 ²⁾	39.5	33.8	61.7	42.6

주: 1) 202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내일이룸학교, 청소년단기쉼터, 소년원, 보호관찰소, 대안교육기관을 이용하는 만9~24세 학교 밖 청소년 2,400명의 응답 값(검정고시 접수장 청소년 490명 조사 결과 제외)

2) 비교 조사에서는 '학교를 그만둔 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한 경험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묻고 있으며, 본 조사는 '현재 일(아르바이트)을 하고 있거나 한 경험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조사함에 따라 질문방식의 차이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일을 하고 있거나 해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에게 어떤 유형의 일(아르바이트)을 했는지 물어본 결과, 식당에서 주방/서빙/카운터를 보는 일을 했다고 한 청소년이 64.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카페 서빙 등(20.3%), 기타(19.8%) 순으로 응답하였다. 기타 유형의 응답으로는 웨딩홀 아르바이트, 이삿짐 아르바이트, 모델, 주차장 수신호/주차 안내 아르바이트, 태권도 교범 등이었다. 가정·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한 일(아르바이트) 유형은 응답 순위에 따라 식당 주방/서빙/카운터(61.4%)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카페 서빙 등(28.1%), 기타(19.3%)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웨딩홀 아르바이트, 주차 안내, 창고 정리, 컴퓨터 서비스직, 피팅 모델 등이었다.

표 III-42. 현재 일(아르바이트) 유형

구분	전체(177명)	가정 밖 학생 청소년(120명)	가정·학교 밖 청소년(57명)
1순위	식당주방/서빙/카운터(64.4%)	식당주방/서빙/카운터(65.8%)	식당주방/서빙/카운터(61.4%)
2순위	카페 서빙 등(20.3%)	기타(20.0%)	카페 서빙 등(28.1%)
3순위	기타(19.8%)	카페 서빙 등(16.7%)	기타(19.3%)

주: 현재 일을 하고 있거나 이전에 일을 해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무응답 인원을 제외한 인원 수 기준으로 비율 산출

현재 일을 하고 있거나 이전에 일을 해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87%는 생활비(용돈)를 벌기 위해 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다음 이유로는 사회 경험을 쌓기 위해서(37.3%), 미래 거주지 마련을 위해서(19.2%), 현재 또는 미래에 직업을 구하는데 도움이 되어서

(13.0%), 직업(취업) 준비를 위해서(9.6%) 순으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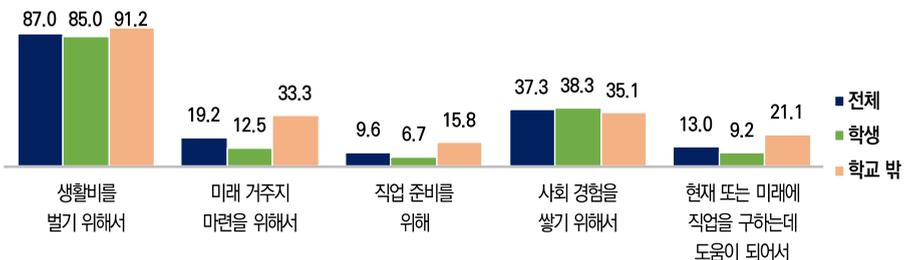
일을 하는 이유에 대한 응답 순서는 가정 밖 청소년의 현재 재학 여부나 학교 밖 경험 유무에 관계 없이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가정 밖 청소년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 부분은 가정 밖 청소년의 연령이 16세 이상인 경우에 미래 거주지 마련을 위해 일을 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22.6%였으나, 16세 미만에서는 동일 응답에 대해 9.1%의 청소년만이 선택한 것이다.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었는데, 생활비나 용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는 경우는 경제적 수준이 낮은 청소년의 90.2%에 해당했고, 경제적 수준이 높은 청소년의 70.6%에 해당하였다.

표 III-43. 일(아르바이트) 이유(복수응답)(전체)

(단위: 명, %)

구 분	생활비(용돈)를 벌기 위해서	사회 경험을 쌓기 위해서	미래 거주지 (월세 등) 마련을 위해서	현재/미래에 직업을 구하는데 도움이 되어서	직업(취업) 준비를 위해(학원비, 자격증, 취득비용)	
전체	154(87.0)	66(37.3)	34(19.2)	23(13.0)	17(9.6)	
현재 상태	학생	102(85.0)	46(38.3)	15(12.5)	11(9.2)	8(6.7)
	학교 밖	52(91.2)	20(35.1)	19(33.3)	12(21.1)	9(15.8)
학교 밖 경험	있다	58(89.2)	22(33.8)	21(32.3)	12(18.5)	9(13.8)
	없다	96(85.7)	44(39.3)	13(11.6)	11(9.8)	8(7.1)
성별	남자	73(92.4)	33(41.8)	10(12.7)	10(12.7)	4(5.1)
	여자	81(82.7)	33(33.7)	24(24.5)	13(13.3)	13(13.3)
연령	16세 미만	34(77.3)	12(27.3)	4(9.1)	4(9.1)	5(11.4)
	16세 이상	120(90.2)	54(40.6)	30(22.6)	19(14.3)	12(9.0)
경제적 수준	상	12(70.6)	4(23.5)	2(11.8)	1(5.9)	2(11.8)
	중	105(89.0)	46(39.0)	24(20.3)	17(14.4)	11(9.3)
	하	37(90.2)	16(39.0)	8(19.5)	5(12.2)	4(9.8)

주: 일(아르바이트) 이유 전체 n=177



(단위: %)

그림 III-22. 일(아르바이트) 이유(복수응답)(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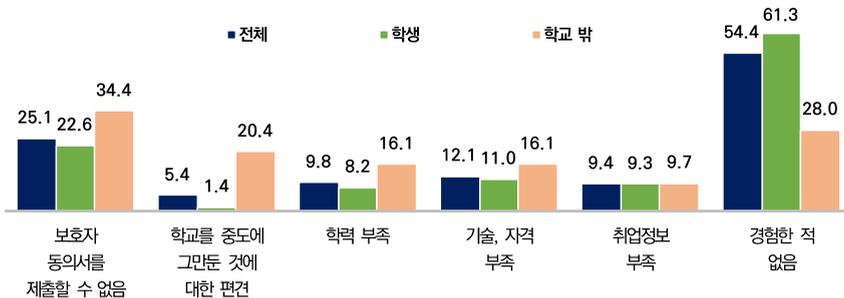
조사 대상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나 일자리를 구할 때 겪은 어려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보호자 동의서를 제출할 수 없어서 구직에 어려움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25.1%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은 기술이나 자격의 부족(12.1%), 학력 부족(9.8%), 취업정보 부족(9.4%) 순으로 응답하였다.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가정·학교 밖 청소년과 학교를 그만둔 경험이 있는 가정 밖 청소년 중에서는 구직 시 학교를 중도에 그만둔 것에 대한 편견을 경험한 사례가 각각 20.4%, 17.9%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III-44. 구직 시 어려움(복수응답)(전체)

(단위: 명, %)

구 분	(미성년자) 보호자(부모) 동의서를 제출할 수 없음	기술, 자격 부족	학력 부족	취업정보 부족	학교를 중도에 그만둔 것에 대한 편견	경험한 적 없음	
전체	112(25.1)	54(12.1)	44(9.8)	42(9.4)	24(5.4)	243(54.4)	
현재 상태	학생	80(22.6)	39(11.0)	29(8.2)	33(9.3)	5(1.4)	217(61.3)
	학교 밖	32(34.4)	15(16.1)	15(16.1)	9(9.7)	19(20.4)	26(28.0)
학교 밖 경험	있다	36(34.0)	16(15.1)	17(16.0)	11(10.4)	19(17.9)	32(30.2)
	없다	76(22.3)	38(11.1)	27(7.9)	31(9.1)	5(1.5)	211(61.9)
성별	남자	54(24.1)	22(9.8)	22(9.8)	19(8.5)	14(6.3)	124(55.4)
	여자	58(26.0)	32(14.3)	22(9.9)	23(10.3)	10(4.5)	119(53.4)
연령	16세 미만	44(22.2)	18(9.1)	16(8.1)	10(5.1)	6(3.0)	133(67.2)
	16세 이상	68(27.3)	36(14.5)	28(11.2)	32(12.9)	18(7.2)	110(44.2)

주: 구직 시 어려움 전체 n=447



(단위: %)

그림 III-23. 구직 시 어려움(복수응답)(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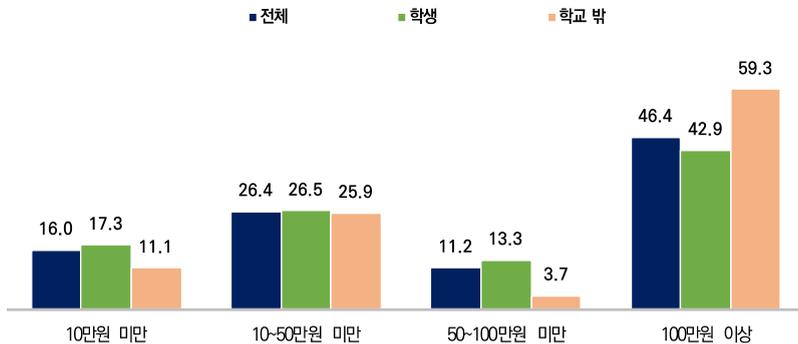
(5) 경제적 상황

- 가정 밖 학생·학교 밖 청소년의 32.4%는 저축을 하고 있고 평균 저축액은 253만 원 정도로 나타남.
- 조사 대상 청소년의 10.5%가 채무(빚)가 있었고, 이중 학생 청소년의 채무액은 10만 원 미만인 경우가 45.7%로 소액의 빚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남.
- 조사 대상 청소년의 월 평균 수입은 약 25만 원이며, 수입의 대부분은 가족으로부터의 용돈(66.3%)임.

① 저축 상황

가정 밖 학생·학교 밖 청소년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저축 여부와 저축한 금액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들 청소년 중 32.4%는 저축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저축액은 평균 253만 원 정도로 파악되었다. 저축한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가 46.4%에 해당하였고, 10~50만 원 미만은 26.4%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현재 학업 상태에 따라 저축을 한다는 응답에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평균 저축액은 재학 중인 청소년이 217만 원, 가정·학교 밖 청소년은 384만 원으로 차이가 났다. 학교를 그만둔 경험 유무에 따라서도 현재 재학 여부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면, 중장기·자립지원관 청소년이 저축을 하는 비율이 55.2%로 다른 유형의 쉼터보다 높게 나타났고, 평균 저축액도 394만 원으로 높았다.



(단위: %)

그림 III-24. 경제 상황(저축)(전체)

표 III-45. 경제 상황(저축)(전체)

(단위: 명, %, 만 원)

구 분	저축 여부			저축한 금액					
	저축을 하지 않는다	저축을 한다	χ^2 (df)	10만 원 미만	10~50만 원 미만	50~100만 원 미만	100만 원 이상	평균 (표준편차)	
전체	307 (67.6)	147 (32.4)	-	20 (16.0)	33 (26.4)	14 (11.2)	58 (46.4)	253.26 (514.59)	
현재 상태	학생	241 (67.3)	117 (32.7)	0.07(1)	17 (17.3)	26 (26.5)	13 (13.3)	42 (42.9)	217.20 (388.49)
	학교 밖	66 (68.8)	30 (31.3)		3 (11.1)	7 (25.9)	1 (3.7)	16 (59.3)	384.11 (822.89)
학교 밖 경험	있다	74 (68.5)	34 (31.5)	0.05(1)	4 (13.3)	8 (26.7)	1 (3.3)	17 (56.7)	357.23 (784.61)
	없다	233 (67.3)	113 (32.7)		16 (16.8)	25 (26.3)	13 (13.7)	41 (43.2)	220.42 (393.51)
성별	남자	152 (67.9)	72 (32.1)	0.01(1)	10 (16.1)	16 (25.8)	5 (8.1)	31 (50.0)	237.03 (379.33)
	여자	155 (67.4)	75 (32.6)		10 (15.9)	17 (27.0)	9 (14.3)	27 (42.9)	269.22 (622.50)
기관 유형	일시·이동	104 (68.4)	48 (31.6)	19.87 (2)***	5 (12.2)	14 (34.1)	3 (7.3)	19 (46.3)	260.43 (469.41)
	단기	173 (73.6)	62 (26.4)		9 (17.6)	11 (21.6)	7 (13.7)	24 (47.1)	156.05 (242.66)
	중장기 자립지원관	30 (44.8)	37 (55.2)		6 (18.2)	8 (24.2)	4 (12.1)	15 (45.5)	394.58 (789.26)

* $p < .05$, ** $p < .01$, *** $p < .001$

주: 저축 여부 전체 n=454, 저축한 금액 전체 n=125

③ 채무(빚)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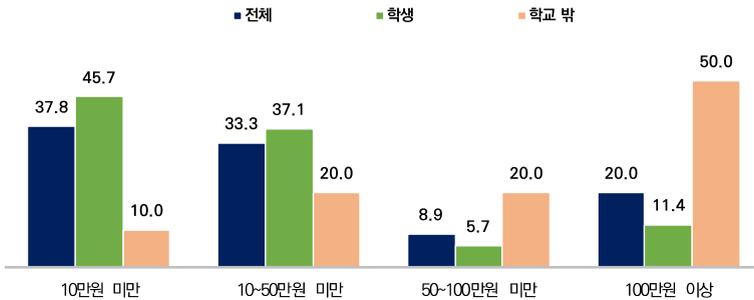
가정 밖 학생·학교 밖 청소년에게 갚아야 할 빚(돈)이 있는지의 여부와 빚이 있는 경우, 구체적인 빚의 액수에 대해 조사하였다. 빚이 있는 청소년은 10.5%에 해당하였고, 빚이 있는 청소년 중 채무금액이 10만 원 미만은 37.8%, 10만 원~50만 원 미만은 33.3%, 100만 원 이상의 빚이 있는 사례는 20%로 나타났다. 전체 조사 대상 청소년의 평균 빚 액수는 267만 원으로 나타났다. 현재 학업 상태에 따라 구분해 보면, 가정 밖 학생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의 채무 비율은 각각 10.6%, 10.4%로 큰 차이가 없었다. 채무액에는 차이가 나타났는데, 가정 밖 학생 청소년의 평균 채무액은 272만 원이고, 학교 밖 청소년은 247만 원으로 학생 청소년의 빚이 약 25만 원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빚 액수의 분포를 살펴보면 빚이 있는 학생 청소년 중에 채무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가 45.7%로 학교 밖 청소년의 10.0%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교에 다니는 가정 밖 청소년은 소액의 빚이 다수인 것으로 파악된다.

표 III-46. 경제 상황(빛)(전체)

(단위: 명, %, 만 원)

구 분	빛 유무		빛 액수				평균 (표준편차)	
	빛이 없다	빛이 있다	10만 원 미만	10-50만 원 미만	50-100만 원 미만	100만 원 이상		
전체	408(89.5)	48(10.5)	17(37.8)	15(33.3)	4(8.9)	9(20.0)	267.16(1197.06)	
현재 상태	학생	322(89.4)	38(10.6)	16(45.7)	13(37.1)	2(5.7)	4(11.4)	272.77(1350.13)
	학교 밖	86(89.6)	10(10.4)	1(10.0)	2(20.0)	2(20.0)	5(50.0)	247.50(344.58)
학교 밖 경험	있다	98(89.9)	11(10.1)	2(18.2)	2(18.2)	2(18.2)	5(45.5)	225.45(334.97)
	없다	310(89.3)	37(10.7)	15(44.1)	13(38.2)	2(5.9)	4(11.8)	280.65(1369.62)

주: 빛 유무 전체 n=456, 빛 액수 전체 n=45



(단위: %)

그림 III-25. 경제 상황(빛)(전체)

○ 추가분석: 2차 자료 분석 결과 비교

- 본 조사 대상 청소년 모두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의 청소년에 비해 갱아야 할 빛/채무 비율이 더 높았음.

(단위: %)

조사항목		본 조사			비교 조사
항목	세부항목	전체	가정 밖 학생	가정·학교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¹⁾
빛/채무	현재 갱아야 할 빛이나 채무 있음 ²⁾	10.5	10.6	10.4	5.1

주: 1) 202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내일이룸학교, 청소년단기쉼터, 소년원, 보호관찰소, 대안교육기관을 이용하는 만9-24세 학교 밖 청소년 2,400명의 응답 값(검정고시 접수장 청소년 490명 조사 결과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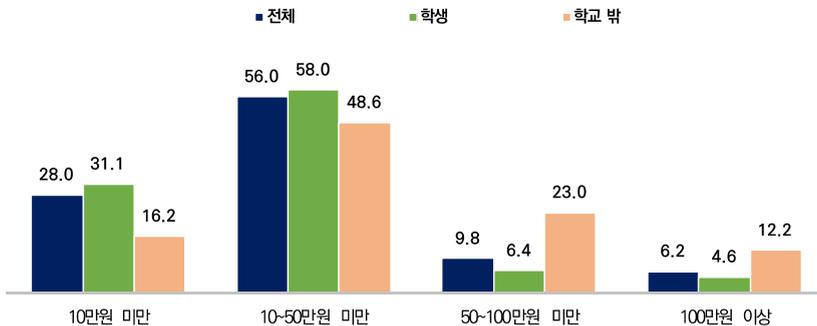
2) 현재 갱아야 할 빛이나 채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산출하였음.

② 월 평균 수입 및 출처

가정 밖 학생·학교 밖 청소년의 경제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월 평균 수입 유무와 수입액, 수입의 출처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 대상 청소년의 91.1%는 수입이 있었고, 수입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가 28%, 10~50만 원 미만은 56%로 나타났다. 100만 원 이상은 6.2%로 소수에 해당하였고, 평균 25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의 출처는 가족 등으로부터의 용돈이 66.3%로 가장 높았고, 쉼터 등 시설의 지원 34.6%, 근로소득 18.7%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학교 밖 청소년 중에서는 88.1%가 수입이 있었고, 평균 수입액은 약 42만 원이었다. 가정 밖 학생 청소년은 91.9%가 수입이 있었고, 평균 약 21.5만 원으로 가정·학교 밖 청소년이 20만 원 정도 수입이 높았다. 수입의 출처로 가정·학교 밖 청소년의 40%가 근로소득이라고 응답하였고, 학생 청소년은 근로소득이 13.4%에 해당하여 수입액의 차이는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면 연령이 16세 미만인 집단의 수입 출처는 대부분이 용돈(79.7%)이었고, 16세 이상인 청소년은 용돈(55.7%)의 비중도 높지만 근로소득이 27.8%로 높게 나타났다는 차이가 있다. 기관 유형에 따른 수입의 출처 중에 쉼터 등 시설에서 지원을 받은 사례가 일시·이동쉼터 청소년은 2.7%, 단기쉼터 청소년은 45.3%였지만, 증장기·자립지원관의 청소년은 60%로, 그중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단위: %)

그림 III-26. 월 평균 수입(전체)

표 III-47. 월 평균 수입(전체)

(단위: 명, %, 만 원)

구 분	수입 유무			수입 액						
	수입 없음	수입 있음	χ^2 (df)	사례 수	10만 원 미만	10~50만 원 미만	50~100만 원 미만	100만 원 이상	평균 (표준편차)	
전체	35 (8.9)	357 (91.1)	-	357	28.0	56.0	9.8	6.2	25.70 (35.09)	
현재 상태	학생	25 (8.1)	283 (91.9)	1.17(1)	283	31.1	58.0	6.4	4.6	21.46 (30.85)
	학교 밖	10 (11.9)	74 (88.1)		74	16.2	48.6	23.0	12.2	41.91 (44.63)
학교 밖 경험	있다	10 (10.5)	85 (89.5)	0.39(1)	85	18.8	48.2	21.2	11.8	39.62 (43.22)
	없다	25 (8.4)	272 (91.6)		272	30.9	58.5	6.3	4.4	21.35 (30.97)
성별	남자	22 (11.7)	166 (88.3)	3.42(1)	166	30.7	53.6	10.2	5.4	25.37 (38.70)
	여자	13 (6.4)	191 (93.6)		191	25.7	58.1	9.4	6.8	25.98 (31.73)
연령	16세 미만	18 (10.3)	157 (89.7)	0.72(1)	157	32.5	60.5	5.7	1.3	16.20 (17.19)
	16세 이상	17 (7.8)	200 (92.2)		200	24.5	52.5	13.0	10.0	33.16 (42.95)
기관 유형	일시-이동	12 (9.4)	116 (90.6)	-	116	21.6	61.2	10.3	6.9	29.56 (42.28)
	단기	21 (10.7)	176 (89.3)		176	31.8	51.7	11.9	4.5	23.51 (29.44)
	중장기·자립지원관	2 (3.0)	65 (97.0)		65	29.2	58.5	3.1	9.2	24.72 (35.04)

* $p < .05$, ** $p < .01$, *** $p < .001$

주: 수입 유무 전체 n=392, 수입 액 전체 n=357

○ 추가분석: 2차 자료 분석 결과 비교

- 본 조사의 대상인 가정 밖 학생·학교 밖 청소년의 한 달 총 수입의 평균액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2차 자료의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남.

(단위: %)

조사항목		본 조사			비교 조사
항목	세부항목	전체	가정 밖 학생	가정·학교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¹⁾
한 달 총 수입	한 달 총 수입 평균 ²⁾	23만 4천 원	19만 7천 원	36만 9천 원	40만 4천 원

주: 1) 202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내일이룸학교, 청소년단기쉼터, 소년원, 보호관찰소, 대안교육기관을 이용하는 만9~24세 학교 밖 청소년 2,400명의 응답 값(검정고시 접수장 청소년 490명 조사 결과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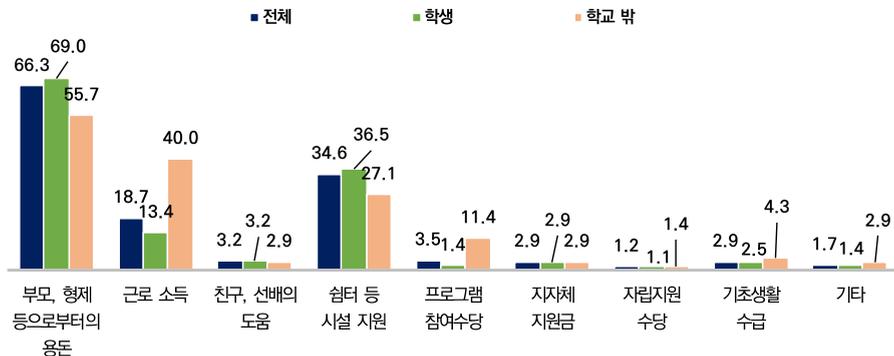
2) 평균 한 달 총 수입(용돈 포함)에 대해 응답한 금액의 평균 값을 산출하였음.

표 III-48. 수입의 출처(복수응답)(전체)

(단위: 명, %)

구분	부모, 형제 등으로부터의 용돈	근로 소득 (취업, 아르바이트 수입)	친구, 선배의 도움	쉼터 등 시설 지원	프로그램(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참여수당	지자체 지원금(교통비, 학원비, 치료비)	자립지원수당	기초생활수급	기타	
전체	230(66.3)	65(18.7)	11(3.2)	120(34.6)	12(3.5)	10(2.9)	4(1.2)	10(2.9)	6(1.7)	
현재 상태	학생	191(69.0)	37(13.4)	9(3.2)	101(36.5)	4(1.4)	8(2.9)	3(1.1)	7(2.5)	4(1.4)
	학교 밖	39(55.7)	28(40.0)	2(2.9)	19(27.1)	8(11.4)	2(2.9)	1(1.4)	3(4.3)	2(2.9)
학교 밖 경험	있다	44(54.3)	31(38.3)	2(2.5)	26(32.1)	8(9.9)	3(3.7)	1(1.2)	3(3.7)	2(2.5)
	없다	186(69.9)	34(12.8)	9(3.4)	94(35.3)	4(1.5)	7(2.6)	3(1.1)	7(2.6)	4(1.5)
성별	남자	95(59.4)	30(18.8)	6(3.8)	57(35.6)	5(3.1)	2(1.3)	2(1.3)	7(4.4)	3(1.9)
	여자	135(72.2)	35(18.7)	5(2.7)	63(33.7)	7(3.7)	8(4.3)	2(1.1)	3(1.6)	3(1.6)
연령	16세 미만	122(79.7)	11(7.2)	4(2.6)	42(27.5)	3(2.0)	2(1.3)	0(0.0)	3(2.0)	2(1.3)
	16세 이상	108(55.7)	54(27.8)	7(3.6)	78(40.2)	9(4.6)	8(4.1)	4(2.1)	7(3.6)	4(2.1)
기관 유형	일시·이동	95(86.4)	20(18.2)	5(4.5)	3(2.7)	2(1.8)	1(0.9)	1(0.9)	2(1.8)	0(0.0)
	단기	102(59.3)	37(21.5)	5(2.9)	78(45.3)	8(4.7)	5(2.9)	2(1.2)	4(2.3)	5(2.9)
	중장기·자립지원관	33(50.8)	8(12.3)	1(1.5)	39(60.0)	2(3.1)	4(6.2)	1(1.5)	4(6.2)	1(1.5)

주: 수입의 출처 전체 n=347



(단위: %)

그림 III-27. 수입의 출처(복수응답)(전체)

(6) 지지체계

- 가정 밖 학생·학교 밖 청소년은 가출하기 전에 부모님의 이혼이나 별거(32.2%)를 가장 많이 경험하였고, 일부 부모님과 떨어져서 살았거나(17%),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이 있는 가족구성원이 있었음(15.9%). 또한, 술을 많이 마시는 가족구성원도 있었음(15.4%).
- 가정·학교 밖 청소년은 재학 중인 청소년보다 부모님(보호자)과 주기적으로 연락을 하지 않고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지 않는 편으로 나타남.
- 현재 학교에 다니지 않거나 학교를 그만둔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재학 중이거나 학교를 그만둔 적이 없는 청소년에 비해 학교 선생님에 대한 신뢰가 낮은 편임.
- 가정·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이용률은 53.6%로 나타남.
- 가정 밖 학생·학교 밖 청소년은 경제적 지원이나 필요한 생활용품 제공 등 일반생활 지원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았고, 그중 학교 밖 청소년은 특히 주거 지원과 학업 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게 조사되었음.

① 가정의 지지체계

가정 밖 학생·학교 밖 청소년이 가출하기 전에 가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파악하고자 가족구성원 중 정신질환 유무, 교도소 등 수감 여부, 부모님 중 한 명의 사망 또는 이혼·별거 여부 등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역기능적 생활사건에 대해 조사하였다.

가출하기 전 가정에서 어떠한 어려움도 겪지 않았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50.7%로 나타났고, 나머지 청소년들은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기초 분석보고서 p.104 참고). 조사 대상 청소년이 가정에서 가장 많이 경험했던 어려움은 부모님의 이혼이나 별거(32.2%)로 나타났다. 그다음은 부모님과 떨어져서 살았던 경험(17%), 우울증이나 자살시도 등 정신질환이 있는 가족구성원(15.9%), 술을 많이 마시는 가족구성원(15.4%)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님의 실직으로 가정형편이 급격히 어려워진 경우도 청소년의 9.1%가 경험하였다.

현재 재학 여부에 따른 가정의 역기능적 생활사건 경험률은 큰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가정·학교 밖 청소년은 재학 중인 청소년보다 부모님과 떨어져 살았던 경험, 부모님의 실직으로 가정형편이 급격히 어려워진 경험, 장애를 갖고 있거나 큰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은 가족이 있는 것에서는 더 높은 경험률을 보여주었다.

표 III-49. 부모의 방임/학대, 역기능적 생활사건 경험 유무(전체)

(단위: 명, %)

구 분	전체		가정 밖 학생 청소년		가정·학교 밖 청소년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1) 부모님과 떨어져서 다른 사람 집에서 살았던 적이 있다.	382 (83.0)	78 (17.0)	306 (84.1)	58 (15.9)	76 (79.2)	20 (20.8)
2) 부모님께서 일자리를 잃으셔서 가정형편이 급격히 어려워진 경우가 있다.	418 (90.9)	42 (9.1)	333 (91.5)	31 (8.5)	85 (88.5)	11 (11.5)
3) 술을 많이 마시는 등의 어려움이 있는 가족이 있다.	389 (84.6)	71 (15.4)	307 (84.3)	57 (15.7)	82 (85.4)	14 (14.6)
4) 우울증, 정신질환, 자살시도 등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힘든 가족이 있다.	387 (84.1)	73 (15.9)	303 (83.2)	61 (16.8)	84 (87.5)	12 (12.5)
5) 구치소나 교도소에 갔던 가족이 있다.	438 (95.2)	22 (4.8)	345 (94.8)	19 (5.2)	93 (96.9)	3 (3.1)
6) 부모님께서 이혼하셨거나 따로 사신 적이 있다.	312 (67.8)	148 (32.2)	244 (67.0)	120 (33.0)	68 (70.8)	28 (29.2)
7) 어머니 혹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	436 (94.8)	24 (5.2)	344 (94.5)	20 (5.5)	92 (95.8)	4 (4.2)
8) 장애를 갖고 있거나 큰 질병(암, 만성질환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가족이 있다.	437 (95.0)	23 (5.0)	347 (95.3)	17 (4.7)	90 (93.8)	6 (6.3)

주: 부모의 방임/학대, 역기능적 생활사건 경험 유무 전체 n=460, 가정 밖 학생 청소년 전체 n=364, 가정 밖 학교 밖 청소년 전체 n=96

가정 밖으로 나온 현재의 상황에서 부모님(보호자)이 어떻게 청소년을 대하는지 알아보고자 청소년과 주기적으로 연락을 하는지, 청소년의 생활에 필요한 용돈이나 공부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조사 대상 청소년은 4점 만점(1점: 전혀 그렇지 않다~4점 매우 그렇다)으로 응답하였으며, 부모님(보호자)과 주기적으로 연락을 한다(그렇다,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66.6%에 해당하였다.

현재 재학 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은 현재 재학 중인 청소년보다 보호자와 주기적으로 연락을 하지 않는 편으로 나타났고, 평균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학교를 그만둔 경험의 유무에 따라서도 학교를 그만뒀던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보호자와 연락을 하지 않는 편으로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연령이 16세 이상인 집단이 그보다 낮은 연령의 청소년보다 보호자와 연락을 비교적 하지 않는 편이고, 일시·이동실택의 청소년들은 단기실택나 중장기·자립지원관의 청소년보다 더 자주 보호자와 연락을 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는 경제적으로 보통이거나 높은 편에 속하는 청소년은 경제적 수준이 낮은 청소년보다 보호자와 더 자주 연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0. 현재 부모님(보호자) 태도: 나와 주기적으로 연락을 한다(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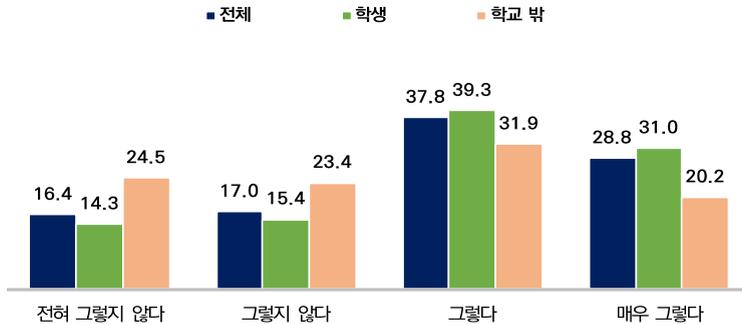
(단위: 명, %, 점)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편차)	t/F (Scheffe)
전체		75(16.4)	78(17.0)	173(37.8)	132(28.8)	2.79(1.04)	-
현재 상태	학생	52(14.3)	56(15.4)	143(39.3)	113(31.0)	2.87(1.01)	3.19**
	학교 밖	23(24.5)	22(23.4)	30(31.9)	19(20.2)	2.48(1.07)	
학교 밖 경험	있다	26(24.3)	23(21.5)	36(33.6)	22(20.6)	2.50(1.08)	-3.18**
	없다	49(14.0)	55(15.7)	137(39.0)	110(31.3)	2.88(1.01)	
연령	16세 미만	21(10.2)	33(16.0)	74(35.9)	78(37.9)	3.01(0.98)	4.30***
	16세 이상	54(21.4)	45(17.9)	99(39.3)	54(21.4)	2.61(1.05)	
기관 유형	일시·이동	9(6.0)	16(10.6)	49(32.5)	77(51.0)	3.28(0.88)	28.81*** (a > b,c)
	단기	52(21.9)	44(18.6)	100(42.2)	41(17.3)	2.55(1.02)	
	중장기·자립지원관	14(20.0)	18(25.7)	24(34.3)	14(20.0)	2.54(1.03)	
경제적 수준	상	9(19.6)	3(6.5)	7(15.2)	27(58.7)	3.13(1.20)	13.49*** (a,b > c)
	중	43(13.8)	40(12.9)	138(44.4)	90(28.9)	2.88(0.98)	
	하	23(23.0)	34(34.0)	28(28.0)	15(15.0)	2.35(1.00)	

* $p < .05$, ** $p < .01$, *** $p < .001$

주: 1) 기관 유형: a=일시·이동, b=단기, c=중장기, 경제적 수준: a=상, b=중, c=하

2) 현재 부모님 보호자 태도: 나와 주기적으로 연락을 한다 전체 n=458



(단위: %)

그림 III-28. 현재 부모님(보호자) 태도: 나와 주기적으로 연락을 한다(전체)

부모님(보호자)이 가정 밖 학생·학교 밖 청소년의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지를 질문했을 때는 67.3%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그렇다(그렇다,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현재 재학 여부와 학교 밖 경험의 유무에 따라 결과가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현재

학교를 그만두었거나, 그만둔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를 그만둔 적이 없고 재학 중인 청소년보다 보호자의 지원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경변인 중에서는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연령이 16세 이상인 청소년이 16세 미만인 청소년보다, 단기숙터와 중장기숙터 및 자립지원관의 청소년이 일시·이동숙터의 청소년에 비해 보호자에게서 생활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지원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적 수준이 보통이거나 높은 편인 청소년이 경제적 수준이 낮은 청소년보다 보호자의 지원을 더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1. 현재 부모님(보호자) 태도: 나의 생활에 필요한 비용(용돈, 공부 등)을 대고 있다(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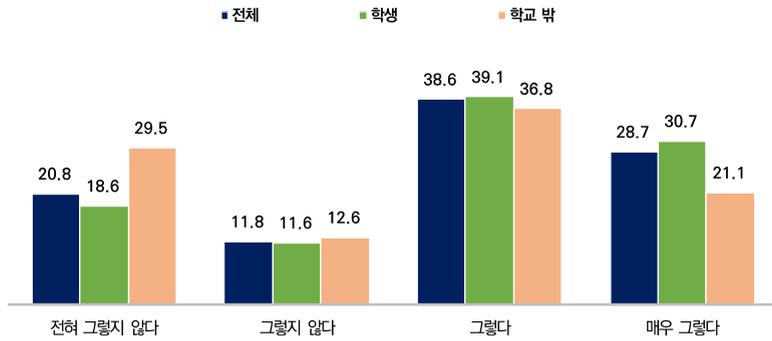
(단위: 명, %, 점)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편차)	t/F (Scheffe)	
전체	95(20.8)	54(11.8)	176(38.6)	131(28.7)	2.75(1.09)		
현재 상태	학생	67(18.6)	42(11.6)	141(39.1)	111(30.7)	2.82(1.07)	2.53*
	학교 밖	28(29.5)	12(12.6)	35(36.8)	20(21.1)	2.49(1.13)	
학교 밖 경험	있다	30(27.8)	17(15.7)	37(34.3)	24(22.2)	2.51(1.12)	-2.60*
	없다	65(18.7)	37(10.6)	139(39.9)	107(30.7)	2.83(1.07)	
성별	남자	58(25.4)	29(12.7)	83(36.4)	58(25.4)	2.62(1.12)	-2.65**
	여자	37(16.2)	25(11.0)	93(40.8)	73(32.0)	2.89(1.03)	
연령	16세 미만	26(12.8)	25(12.3)	74(36.5)	78(38.4)	3.00(1.01)	4.59***
	16세 이상	69(27.3)	29(11.5)	102(40.3)	53(20.9)	2.55(1.10)	
기관 유형	일시·이동	15(9.9)	12(7.9)	51(33.8)	73(48.3)	3.21(0.96)	21.44*** (a > b, c)
	단기	62(26.2)	36(15.2)	93(39.2)	46(19.4)	2.52(1.08)	
	중장기·자립지원관	18(26.5)	6(8.8)	32(47.1)	12(17.6)	2.56(1.07)	
경제적 수준	상	9(19.6)	1(2.2)	11(23.9)	25(54.3)	3.13(1.17)	17.13*** (a, b > c)
	중	50(16.1)	36(11.6)	130(41.9)	94(30.3)	2.86(1.02)	
	하	36(36.0)	17(17.0)	35(35.0)	12(12.0)	2.23(1.07)	

* $p < .05$, ** $p < .01$, *** $p < .001$

주: 1) 기관 유형: a=일시·이동, b=단기, c=중장기, 경제적 수준: a=상, b=중, c=하

2) 현재 부모님 보호자 태도: 나의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대고 있다 전체 n=456



(단위: %)

그림 III-29. 현재 부모님(보호자) 태도: 나의 생활에 필요한 비용(용돈, 공부 등)을 대고 있다(전체)

가정 밖 학생·학교 밖 청소년이 어렵고 힘들 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 알아보려 청소년의 주변 사람들에 대한 믿음 정도를 4점 만점으로 조사하였다(1점: 전혀 믿고 의지하지 않는다~4점: 매우 믿고 의지한다). 조사 대상 청소년이 가장 많이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청소년쉼터 선생님이로 청소년의 87%가 믿고 의지하는 편이다 또는 매우 믿고 의지한다고 응답하였다(기초분석보고서 p.167 참고). 그다음으로 신뢰하는 대상(믿고 의지하는 편이다, 매우 믿고 의지한다)은 친구/선후배 76.1%, 청소년 기관이나 시설 선생님 60.7%, 학교 선생님 60.1%로 나타났다. 부모님은 51.9%, 부모님 외 다른 가족이 51.7%로 나타났으며,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을 믿고 의지한다고 응답한 청소년도 15.3%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기초분석보고서 pp.163~169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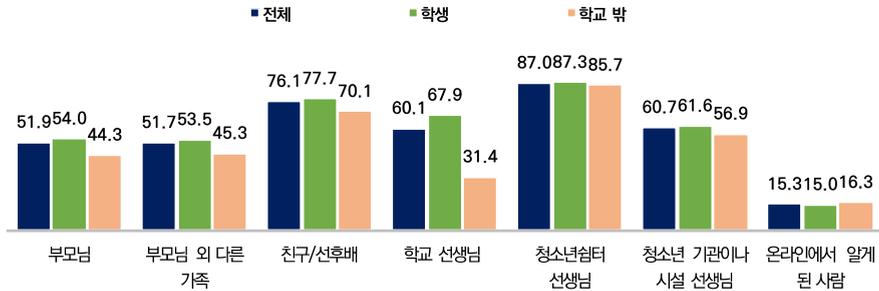
현재 학교를 그만둔 가정·학교 밖 청소년과 학생 청소년의 응답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인 대상은 학교 선생님이였다. 가정 밖 학생 청소년은 학교 선생님을 믿고 의지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67.9%이었지만, 가정·학교 밖 청소년은 31.4%에 불과하였다. 학교 밖 경험의 유무에 따라서도 학교 선생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학교 밖 경험이 있으면 34.7%, 학교를 그만둔 경험이 없으면 68.3%로(기초분석보고서 p.166 참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보고되었다⁴¹⁾.

41) 학교 선생님에 대한 믿음 정도를 4점 만점(1점: 전혀 믿고 의지하지 않는다- 4점: 매우 믿고 의지한다)으로 조사한 결과, 가정·학교 밖 청소년은 평균 2.12점(표준편차 1.12점), 가정 밖 학생 청소년은 평균 2.93점(0.96점)으로 나타났고, 평균 점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5.71, p<.001$).

표 III-52. 도움 요청 대상(믿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전체)

(단위: 명, %)

구 분	사례 수	가정 밖 학생 청소년					가정·학교 밖 청소년				
		전혀 믿고 의지하지 않는다	믿고 의지하지 않는 편이다	믿고 의지하는 편이다	매우 믿고 의지한다	해당 사항 없음	전혀 믿고 의지하지 않는다	믿고 의지하지 않는 편이다	믿고 의지하는 편이다	매우 믿고 의지한다	해당 사항 없음
1) 부모님	407	78 (24.5)	61 (19.1)	94 (29.5)	78 (24.5)	8 (2.5)	24 (27.3)	22 (25.0)	19 (21.6)	20 (22.7)	3 (3.4)
2) 부모님 외 다른 가족 (형제자매, 조부모 등)	402	67 (21.2)	63 (19.9)	98 (31.0)	71 (22.5)	17 (5.4)	24 (27.9)	15 (17.4)	23 (26.7)	16 (18.6)	8 (9.3)
3) 친구/선후배	406	19 (6.0)	43 (13.5)	137 (42.9)	111 (34.8)	9 (2.8)	8 (9.2)	14 (16.1)	38 (43.7)	23 (26.4)	4 (4.6)
4) 학교 선생님	404	30 (9.4)	62 (19.5)	116 (36.5)	100 (31.4)	10 (3.1)	34 (34.9)	17 (19.8)	15 (17.4)	12 (14.0)	12 (14.0)
5) 청소년쉼터 선생님	400	12 (3.8)	28 (8.9)	135 (42.7)	141 (44.6)	0 (0.0)	5 (6.0)	7 (8.3)	41 (48.8)	31 (36.9)	0 (0.0)
6) 청소년 기관/시설 선생님 (꿈드림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센터 담당자)	399	35 (11.2)	50 (16.0)	110 (35.1)	83 (26.5)	35 (11.2)	9 (10.5)	16 (18.6)	26 (30.2)	23 (26.7)	12 (14.0)
7)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	400	170 (54.1)	64 (20.4)	28 (8.9)	19 (6.1)	33 (10.5)	34 (39.5)	22 (25.6)	8 (9.3)	6 (7.0)	16 (18.6)



주: 믿고 의지하는 편이다+매우 믿고 의지한다의 응답값을 합친 응답률 기준(단위: %)

그림 III-30. 도움 요청 대상(믿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전체)

② 지원시설 이용 경험 및 도움 정도

조사 대상 청소년들의 지원시설 이용 경험을 살펴보면, 그중 학생 청소년의 91.6%와 학교 밖 청소년의 85.1%가 청소년쉼터를 이용한 경험이 있었고, 도움 정도에 대해서는 대부분 도움이 되었다(약간+매우 도움이 되었다)라고 응답하였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이용률은 가정·학교 밖 청소년 중 53.6%로 절반을 약간 넘는 수준이었고, 88.9%가 (약간+매우)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률은 가정 밖 학생 청소년의 경우 38.8%로 가정·학교 밖 청소년의 28.9%보다 높게 나타났고,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경우도 재학 중인 청소년이 84.6%로 가정·학교 밖 청소년의 78.2%보다 높았다.

표 III-53. 지원시설 이용 여부 및 도움 정도(전체)

(단위: 명, %)

구 분	가정 밖 학생 청소년						가정·학교 밖 청소년					
	이용 여부		도움 정도				이용 여부		도움 정도			
	없다	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약간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없다	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약간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1) 청소년쉼터	30 (8.4)	329 (91.6)	0 (0.0)	11 (3.4)	71 (21.6)	246 (75.0)	14 (14.9)	80 (85.1)	0 (0.0)	3 (3.8)	23 (28.8)	54 (67.5)
2)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251 (76.5)	77 (23.5)	1 (1.3)	8 (10.5)	27 (35.5)	40 (52.6)	39 (46.4)	45 (53.6)	2 (4.4)	3 (6.7)	15 (33.3)	25 (55.6)
3)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99 (61.2)	126 (38.8)	6 (4.8)	13 (10.5)	51 (41.1)	54 (43.5)	59 (71.1)	24 (28.9)	1 (4.3)	4 (17.4)	7 (30.4)	11 (47.8)

* $p < .05$, ** $p < .01$, *** $p < .001$

주: 지원시설별 이용 여부에 대한 전체 n: 청소년쉼터=453,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412, 청소년상담복지센터=408
지원시설별 도움 정도에 대한 전체 n: 청소년쉼터=408,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121, 청소년상담복지센터=1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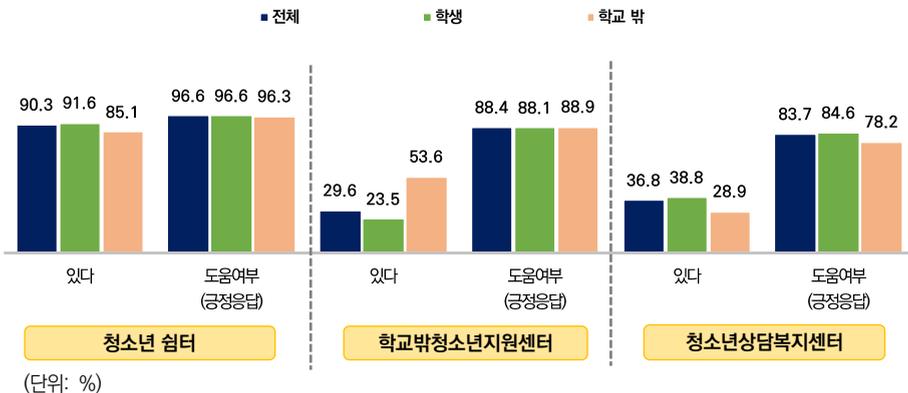


그림 III-31. 지원시설 이용 여부 및 도움 정도(전체)

다음으로, 가정 밖 학생·학교 밖 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을 심리사회 지원, 건강 지원, 주거지원, 진로준비 지원, 학업 지원, 취업 지원, 일반생활 지원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하고, 청소년은 각 항목에 대해 1점 '전혀 필요하지 않다'부터 4점 '매우 필요하다'로 응답하게 하였다. 그 결과, 생활비, 용돈 등의 경제적 지원(3.16점)과 필요한 생활용품 제공(2.95점) 등 일반생활 지원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정 밖 학생 청소년의 정책 수요와 가정·학교 밖 청소년의 정책 수요를 비교한 결과, 학교를 그만둔 가정 밖 청소년은 주거지 및 주거비 지원과 같은 주거지원, 검정고시 준비와 같은 학업 지원에 대한 수요도가 재학 중인 가정 밖 청소년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전체 조사 대상 청소년 중 성별에 따라 지원 정책에 대한 수요도의 차이가 컸는데, 여자 청소년은 상담 및 심리치료 제공, 진로상담 등 진로준비 지원 전반에 대한 요구, 진학정보 제공, 대학 진학 준비 등 학업 지원, 직업교육 훈련 지원, 다양한 청소년 활동에 대한 참여 기회 제공에 대한 요구도가 남자 청소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4. 지원 정책(서비스) 수요(전체)

(단위: 점)

구 분	사례 수	유형			t	성별		t	
		전체	가정 밖 학생 청소년	가정·학교 밖 청소년		남자	여자		
		M(SD)	M(SD)	M(SD)		M(SD)	M(SD)		
심리 사회	1) 각종 고민에 대한 상담, 심리치료 제공	456	2.45 (0.97)	2.42 (0.95)	2.57 (1.02)	-1.35	2.20 (0.97)	2.70 (0.90)	-5.70 ***
	2) 인간관계 기술 프로그램 제공	456	2.34 (1.01)	2.31 (1.00)	2.46 (1.03)	-1.25	2.26 (1.04)	2.43 (0.97)	-1.80
건강 지원	3) 신체활동 시간, 프로그램 제공	456	2.51 (1.01)	2.52 (1.00)	2.50 (1.02)	0.14	2.47 (1.06)	2.55 (0.95)	-0.83
	4) 건강지원(건강검진, 질병치료 등)	457	2.57 (1.02)	2.54 (1.01)	2.69 (1.03)	-1.26	2.52 (1.03)	2.63 (1.00)	-1.21
주거 지원	5) 주거지(임대주택 등) 및 주거비(전월세) 지원	457	2.77 (1.11)	2.72 (1.11)	2.98 (1.11)	-2.02*	2.71 (1.13)	2.84 (1.09)	-1.27
	6) 자립정착금 지원	458	2.87 (1.11)	2.82 (1.10)	3.05 (1.11)	-1.81	2.84 (1.12)	2.90 (1.09)	-0.62
진로 준비 지원	7) 진로상담(진로적성 검사 포함)	458	2.62 (1.05)	2.62 (1.06)	2.64 (1.00)	-0.18	2.45 (1.08)	2.79 (0.98)	-3.54 ***
	8) 진로지도 및 진로설계, 진로정보 제공	456	2.64 (1.04)	2.63 (1.04)	2.69 (1.04)	-0.53	2.48 (1.07)	2.80 (0.98)	-3.28**
	9) 진로탐색을 위한 체험	455	2.63 (1.06)	2.62 (1.06)	2.68 (1.04)	-0.55	2.46 (1.08)	2.79 (1.01)	-3.36**
학업 지원	10) 복고 절차 및 방법 안내	449	1.72 (0.95)	1.70 (0.93)	1.81 (1.00)	-1.03	1.73 (0.98)	1.72 (0.92)	0.08
	11) 검정고시 준비	452	1.98 (1.08)	1.80 (0.99)	2.65 (1.17)	-6.49 ***	1.91 (1.06)	2.04 (1.11)	-1.26

구 분	사례 수	유형			t	성별		t
		전체	가정 밖 학생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남자	여자	
			M(SD)	M(SD)				
12) 진학정보 제공	454	2.55 (1.08)	2.57 (1.06)	2.46 (1.15)	0.89	2.41 (1.08)	2.69 (1.07)	-2.70**
13) 대학 진학 준비(수능, 입시 상담 등)	456	2.59 (1.13)	2.59 (1.12)	2.59 (1.16)	-0.02	2.48 (1.14)	2.70 (1.12)	-2.10*
14) 직업교육·훈련 지원(자격증 취득 등)	458	2.79 (1.07)	2.78 (1.06)	2.86 (1.13)	-0.70	2.67 (1.11)	2.92 (1.02)	-2.49*
취업 지원	458	2.59 (1.10)	2.57 (1.10)	2.65 (1.10)	-0.63	2.55 (1.11)	2.63 (1.09)	-0.75
16) 취업정보 제공	455	2.68 (1.08)	2.66 (1.08)	2.78 (1.07)	-0.97	2.63 (1.10)	2.74 (1.06)	-1.11
17) 필요한 생활용품 제공	460	2.95 (1.07)	2.90 (1.08)	3.14 (1.02)	-1.91	2.88 (1.12)	3.02 (1.03)	-1.44
18) 생활비, 용돈 등 경제적 지원	460	3.16 (1.03)	3.12 (1.04)	3.32 (0.97)	-1.67	3.14 (1.02)	3.18 (1.04)	-0.38
일반 생활 지원	458	2.59 (1.09)	2.57 (1.09)	2.68 (1.12)	-0.93	2.55 (1.12)	2.64 (1.07)	-0.88
20) 생활 교육(살림 및 음식하기, 청소, 세탁 등)	458	2.52 (1.10)	2.53 (1.08)	2.48 (1.17)	0.40	2.49 (1.14)	2.56 (1.05)	-0.68
21) 다양한 청소년활동(문화예술, 체육, 진로체험, 동아리 활동) 참여기회 제공	457	2.69 (1.10)	2.67 (1.12)	2.78 (1.05)	-0.85	2.58 (1.13)	2.81 (1.06)	-2.25*

* $p < .05$, ** $p < .01$, *** $p < .001$

○ 추가분석: 2차 자료 분석 결과 비교

- 가정 밖 학생·학교 밖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정책 지원에 대한 결과를 2차 자료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학교 밖 청소년은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였고, 본 조사의 가정 밖 청소년은 일반 생활 지원 및 주거지원에 대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남.

(단위: %)

조사항목	본 조사		비교 조사
	가정 밖 학생 청소년	가정·학교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¹⁾
지원 정책 수요도 순위 ²⁾	경제적 지원	경제적 지원	교통비 지원
	필요한 생활용품 제공	필요한 생활용품 제공	청소년활동 배우처 지원
	자립정착금 지원	자립정착금 지원	진학정보 제공
	직업교육·훈련 지원	주거지/주거비 지원	검정고시 준비 지원
	주거지/주거비 지원	직업교육·훈련 지원	진로탐색 체험

주: 1) 202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내일이룸학교, 청소년단기쉼터, 소년원, 보호관찰소, 대안교육기관을 이용하는 만9~24세 학교 밖 청소년 2,400명의 응답 값(검정고시 접수장 청소년 490명 조사 결과 제외)

2) 항목별 응답은 각 항목에 대해 4점 만점(1점: 전혀 필요하지 않다~4점 매우 필요하다)으로 조사된 응답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1순위부터 5순위를 나열하였음. 단, 지원 정책 항목이 조사 간 다르게 측정되었으므로 해석에 주의하여야 함. (예: 본 조사에서는 청소년의 활동에 대한 지원을 '다양한 청소년 활동 참여기회 제공' 1문항으로 묻고 있으며, 비교 조사에서는 '동아리 활동 지원', '체육 활동 지원' 등을 포함하여 7문항으로 묻고 있음)

(7) 가정 밖 경험

- 가정 밖 생활을 시작한 조사 대상 청소년의 평균 연령은 14.46세이고,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은 평균 15.05세에 가정 밖 생활을 시작하였음.
- 가정 밖 생활 기간은 한 달 미만인 경우가 47.2%로 가장 많았고, 평균은 약 199일로 나타남.
- 청소년의 67.7%는 부모와의 갈등 때문에 집을 나오게 되었다고 응답함.
- 쉼터 이용 계기로는 경찰, 주민센터와 그 외 보호시설의 안내로 이용하였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33.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청소년이 집을 나온 후에는 생활비가 부족하여 힘들었다고 응답한 사례가 가장 많음. 가정·학교 밖 청소년은 특히 학생 청소년보다 의식주 해결, 아르바이트 구하기, 집 나온 것에 대한 사람들의 선입견에 대해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남.
- 향후 원가정으로 돌아갈 의향이 있는 청소년은 42%에 해당하였고, 학교를 그만둔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33.3%로 돌아갈 의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① 가정 밖 생활 특성

청소년이 집을 나와 생활하기 시작한 연령을 살펴보면 만 14~15세의 비율이 39.9%로 가장 높았고 14세 미만이 30.5%를 차지하였다(기초분석보고서 p.138 참고). 가정 밖 생활을 시작하였을 때의 평균 연령은 14.46세이고, 그중 학생 청소년의 시작 연령은 14.27세로, 가정·학교 밖 청소년의 시작 연령인 15.05세보다 낮았고 평균 연령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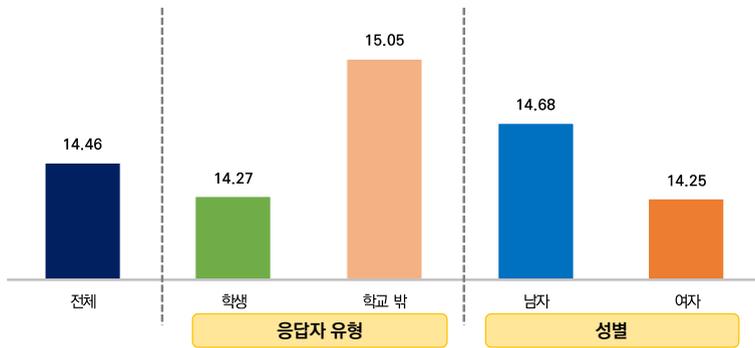
표 III-55. 가정 밖 생활 시작 연령 평균(전체)

(단위: 세)

구 분	전체	가정 밖 학생 청소년	가정·학교 밖 청소년	t	
	M(SD)	M(SD)	M(SD)		
전체	14.46(1.84)	14.27(1.80)	15.05(1.85)	-3.47***	
성별	남자	14.68(1.88)	14.48(1.85)	15.33(1.87)	-2.51*
	여자	14.25(1.77)	14.07(1.73)	14.80(1.81)	-2.47*
기관 유형	일시·이동	14.55(1.97)	14.18(2.02)	15.17(1.76)	-2.22*
	단기	14.45(1.80)	14.29(1.75)	15.00(1.88)	-2.45*
	중장기·자립지원관	14.36(1.79)	14.29(1.74)	14.86(2.19)	-0.79
경제적 수준	상	14.54(1.91)	14.33(1.96)	15.14(1.77)	-0.97
	중	14.58(1.82)	14.38(1.77)	15.16(1.83)	-2.96**
	하	14.09(1.84)	13.94(1.79)	14.61(1.97)	-1.38

* $p < .05$, ** $p < .01$, *** $p < .001$

주: 가정 밖 생활 시작 연령 전체 n=348, 가정 밖 학생 청소년 n=262, 가정·학교 밖 청소년 n=86



(단위: 세)

그림 Ⅲ-32. 가정 밖 생활 시작 연령 평균(전체)

가정 밖 학생·학교 밖 청소년이 집을 나와 밖에서 생활한 기간을 살펴보면, 한 달 미만인 경우가 47.2%로 가장 많았고, 1년 미만은 34.2%, 1년 이상은 18.6%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초분석보고서 p.139 참고), 평균 가정 밖 생활 기간은 199.3일이었다.

조사 대상 청소년 중 연령이 16세 이상인 청소년의 평균 생활 기간은 262.04일로 16세 미만인 청소년의 평균 93.77일보다 높게 나타나 연령이 높을수록 가정 밖 생활을 길게 한 것을 알 수 있다. 기관 유형별로 청소년의 가정 밖 생활 기간을 살펴보면, 일시·이동쉼터의 청소년은 평균 147.30일, 단기쉼터의 청소년은 평균 176.07일, 중장기쉼터 및 자립지원관의 청소년은 평균 349.89일로 쉼터 유형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였다.

현재 학업 상태에 따라 가정 밖 생활 기간을 살펴보면, 재학 중인 청소년은 평균 192.73일, 학교 밖 청소년은 평균 218.04일로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는 청소년의 가정 밖 생활 기간이 더 길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진 않았다. 다만, 경제적 수준과 함께 고려하면 경제적 수준이 낮은 청소년 중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의 가정 밖 생활 기간의 평균이 465.84일로 경제적 수준이 낮은 가정 밖 학생 청소년의 평균 193.71일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즉,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 중 경제적 수준이 낮은 청소년은 집을 나온 기간이 1년 이상 오래 지속된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56. 가정 밖 생활 기간(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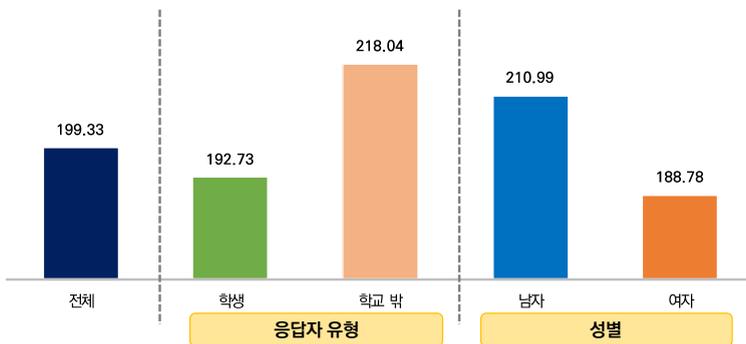
(단위: 일)

구 분	전체	가정 밖 학생 청소년	가정 밖 학교 밖 청소년	t	
	M(SD)	M(SD)	M(SD)		
전체	199.33(397.43)	192.73(418.90)	218.04(330.67)	-0.50	
성별	남자	210.99(409.57)	203.79(437.17)	232.05(319.46)	-0.37
	여자	188.78(387.03)	182.57(402.88)	205.89(343.21)	-0.35
	t	0.50	0.39	0.36	
연령	16세 미만	93.77(315.14)	98.02(333.87)	64.00(122.56)	0.39
	16세 이상	262.04(427.61)	267.50(463.10)	251.52(352.13)	0.25
	t	-4.04***	-3.28**	-3.54**	
기관 유형	일시-이동	147.30(466.20)	120.27(530.46)	188.29(351.42)	-0.63
	단기	176.07(291.50)	160.66(284.71)	223.65(309.94)	-1.28
	중장기·지립지원관	349.89(547.64)	355.18(568.77)	312.86(399.16)	0.19
	t/F(Scheffe)	5.14**(c > a,b)	4.97**(c > a,b)	0.41	
경제적 수준	상	187.78(277.37)	172.97(308.29)	225.86(190.01)	-0.42
	중	179.11(404.50)	194.58(454.92)	135.91(203.76)	0.95
	하	260.86(407.80)	193.71(341.43)	465.84(523.56)	-2.12*
	t/F(Scheffe)	1.22	0.02	8.40***(c > b)	

*p < .05, **p < .01, ***p < .001

주: 1) 기관유형: a=일시-이동, b=단기, c=중장기, 경제적 수준: a=상, b=중, c=하

2) 가정 밖 생활 기간 전체 n=322, 가정 밖 학생 청소년 n=238, 가정·학교 밖 청소년 n=84



(단위: 일)

그림 III-33. 가정 밖 생활 기간(전체)

조사 대상 청소년이 집을 나오게 된 이유의 1순위와 2순위 응답을 모두 합한 결과, 학대나 무관심 등 청소년과 부모의 갈등으로 인해 가출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67.7%). 다음으로, 가정불화 등 부모님 간의 갈등이 있어서(37.6%), 자유롭게 살거나 놀고 싶어서(27.0%), 기타(11.0%)의 이유 순으로 집을 나오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기타 응답으로는 부모님 이외의 가족구성원(형제나 자매)과의 갈등, 친구가 좋아서, 비행으로 인해, 부모님이 아프셔서 등으로 대답하였다.

가정·학교 밖 청소년은 앞선 결과와 유사하게 부모와의 갈등(62.1%)이 가출의 가장 주된 이유로 나타났지만, 자유롭게 살거나 놀고 싶어서(40.2%)라고 응답한 경우가 두 번째로 높았고, 그다음에 부모 간의 갈등 때문에(28.7%), 우울/불안과 스트레스가 많아서(24.1%) 순으로 집을 나오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표 Ⅲ-57. 집을 나오게 된 이유(1+2순위)(전체)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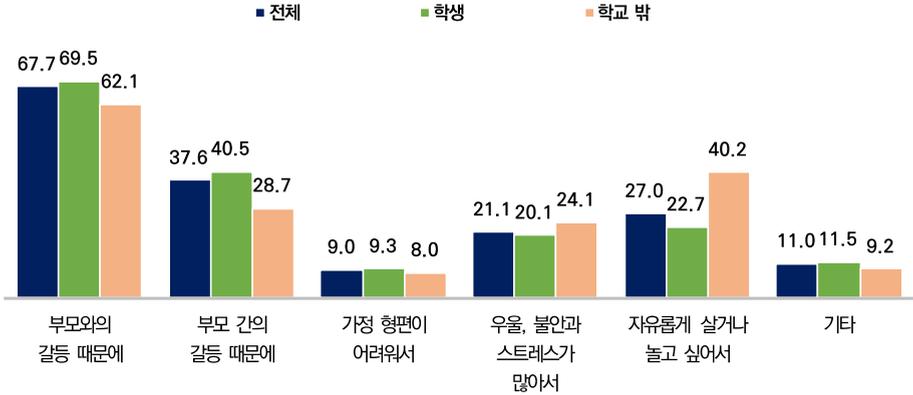
구 분	부모와의 갈등 때문에	부모 간의 갈등 때문에	자유롭게 살거나 놀고 싶어서	우울, 불안 과 스트레스 가 많아서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기타	
전체	241(67.7)	134(37.6)	96(27.0)	75(21.1)	32(9.0)	39(11.0)	
현재 상태	학생	187(69.5)	109(40.5)	61(22.7)	54(20.1)	25(9.3)	31(11.5)
	학교 밖	54(62.1)	25(28.7)	35(40.2)	21(24.1)	7(8.0)	8(9.2)
학교 밖 경험	있다	63(63.0)	30(30.0)	39(39.0)	24(24.0)	9(9.0)	8(8.0)
	없다	178(69.5)	104(40.6)	57(22.3)	51(19.9)	23(9.0)	31(12.1)
성별	남자	112(67.5)	63(38.0)	48(28.9)	24(14.5)	14(8.4)	18(10.8)
	여자	129(67.9)	71(37.4)	48(25.3)	51(26.8)	18(9.5)	21(11.1)
연령	16세 미만	89(65.9)	57(42.2)	33(24.4)	23(17.0)	12(8.9)	17(12.6)
	16세 이상	152(68.8)	77(34.8)	63(28.5)	52(23.5)	20(9.0)	22(10.0)

주: 집을 나오게 된 이유 전체 n=356

가정 밖으로 나오면서 청소년이 쉼터를 이용하게 된 계기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 대상 청소년의 쉼터 이용 계기로는 경찰, 주민센터, 보호시설 안내가 33.9%로 가장 많았고, 가출 경험이 있는 친구나 선후배의 소개로 쉼터를 이용한 경우가 11.6%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 홍보나 보도 등을 보고 이용한 청소년이 11.1%, 학교 선생님의 권유는 9.8%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가정 밖 학생 청소년은 경찰, 주민센터, 보호시설 안내와 학교 선생님의 권유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고, 가정·학교 밖 청소년은 경찰, 주민센터, 보호시설 안내 외에 가출 경험 친구/지인 소개, 쉽터 거리상담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단위: %)

그림 III-34. 집을 나오게 된 이유(1+2순위)(전체)

표 III-58. 청소년쉽터 이용 계기(전체)

(단위: 명, %)

구분	부모, 형제, 친척 등 가족의 권유로	가출경험 친구/선후배, 지인의 소개로	학교 선생님의 권유로	1388 등 청소년 상담복지 센터의 안내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안내로	경찰, 주민센터와 그 외 보호시설 안내로	쉽터 거리상담을 통해	홍보, 보도 (홍보물, 홈페이지, SNS, 방송 등)	기타	
전체	32 (8.2)	45 (11.6)	38 (9.8)	22 (5.7)	6 (1.5)	132 (33.9)	27 (6.9)	43 (11.1)	44 (11.3)	
현재 상태	학생	24 (7.8)	30 (9.8)	37 (12.1)	18 (5.9)	3 (1.0)	109 (35.6)	14 (4.6)	32 (10.5)	39 (12.7)
	학교 밖	8 (9.6)	15 (18.1)	1 (1.2)	4 (4.8)	3 (3.6)	23 (27.7)	13 (15.7)	11 (13.3)	5 (6.0)
학교 밖 경험	있다	11 (11.5)	16 (16.7)	2 (2.1)	4 (4.2)	4 (4.2)	25 (26.0)	14 (14.6)	12 (12.5)	8 (8.3)
	없다	21 (7.2)	29 (9.9)	36 (12.3)	18 (6.1)	2 (0.7)	107 (36.5)	13 (4.4)	31 (10.6)	36 (12.3)
기관 유형	일시·이동	6 (5.9)	15 (14.7)	3 (2.9)	2 (2.0)	1 (1.0)	14 (13.7)	24 (23.5)	24 (23.5)	13 (12.7)
	단기	17 (7.6)	24 (10.7)	33 (14.7)	14 (6.3)	4 (1.8)	88 (39.3)	2 (0.9)	17 (7.6)	25 (11.2)
	중장기·자립지원관	9 (14.3)	6 (9.5)	2 (3.2)	6 (9.5)	1 (1.6)	30 (47.6)	1 (1.6)	2 (3.2)	6 (9.5)

* $p < .05$, ** $p < .01$, *** $p < .001$
 주: 청소년쉽터 이용 계기 전체 n=389

가정 밖 학생·학교 밖 청소년이 집을 나오면서 힘들었던 경험을 항목별로 4점 만점(1점: 전혀 그렇지 않다~ 4점: 매우 그렇다)으로 살펴보았을 때, 힘들다고 응답한 결과(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를 중심으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조사 대상 청소년이 가장 힘들었던 경험은 생활비 부족으로 68%의 응답률을 나타냈다(기초분석보고서 p.144 참고). 그다음으로는 우울과 불안감(55.0%; 기초분석보고서 p.147), 앞으로 뭘 해야 할지 진로가 막막함(51.1%; 기초분석보고서 p.152), 할 일도 없고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의욕도 없음(49.2%; 기초분석보고서 p.148) 순으로 나타났다.

4점 만점 기준으로 집단 유형별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현재 학업 상태에 따라 가장 큰 차이를 보인 항목은 생활비가 부족하여 어려웠던 경험이다. 학생 청소년은 평균 2.75 점, 학교 밖 청소년의 평균은 3.20점으로 나타나 학교 밖 청소년이 생활비가 부족하여 힘들었던 경험이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학교 밖 청소년은 학생 청소년의 점수와 비교하였을 때,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힘들어했으며, 아르바이트나 일을 구하는 것, 집을 나온 것에 대한 사람들의 선입견과 편견 및 무시에 대해서도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표 III-59. 집을 나오면서 가장 힘든 점(전체)

(단위: 점)

구 분	사례 수	전체	유형		t	성별		t
			가정 밖 학생 청소년	가정 밖 학교 밖 청소년		남자	여자	
			M(SD)	M(SD)		M(SD)	M(SD)	
1) 의식주(먹을거리나 잘 곳이 없음)를 해결하지 못함	377	2.38 (1.14)	2.28 (1.14)	2.71 (1.10)	-3.10**	2.53 (1.14)	2.24 (1.13)	2.45*
2) 생활비가 부족함	381	2.85 (1.12)	2.75 (1.17)	3.20 (0.88)	-3.94***	2.86 (1.12)	2.85 (1.13)	0.12
3) 가족과의 불화	378	2.69 (1.09)	2.68 (1.12)	2.74 (1.02)	-0.41	2.54 (1.11)	2.83 (1.06)	-2.63**
4) 건강이 나빠짐	379	2.06 (1.00)	2.00 (1.02)	2.24 (0.94)	-1.95	1.98 (0.97)	2.13 (1.03)	-1.47
5) 우울, 불안감	380	2.56 (1.10)	2.51 (1.12)	2.72 (1.00)	-1.72	2.28 (1.05)	2.80 (1.08)	-4.75***
6) 할 일도 없고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의욕도 없음(무기력함)	380	2.42 (1.08)	2.37 (1.09)	2.61 (1.03)	-1.88	2.31 (1.04)	2.53 (1.11)	-1.98*
7) 나를 이해해 주고, 믿어주며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음	379	2.19 (1.07)	2.15 (1.07)	2.31 (1.05)	-1.23	2.04 (1.02)	2.32 (1.09)	-2.56*
8) 또래 친구를 만들기 힘들	378	2.09 (1.08)	2.07 (1.09)	2.15 (1.02)	-0.61	2.05 (1.11)	2.12 (1.05)	-0.62

구 분	사례 수	전체	유형			성별		
			가정 밖 학생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t	남자	여자	t
			M(SD)	M(SD)		M(SD)	M(SD)	
9) 집을 나오면서 학교를 다닐 수 없음	379	1.97 (1.05)	1.93 (1.05)	2.13 (1.03)	-1.55	2.00 (1.10)	1.95 (1.00)	0.46
10) 앞으로 뭘 해야 할지 진로가 막막함	379	2.40 (1.09)	2.35 (1.12)	2.59 (0.96)	-1.94	2.26 (1.05)	2.53 (1.10)	-2.47*
11) 아르바이트, 일을 구하는 것이 힘들	379	2.33 (1.15)	2.25 (1.17)	2.60 (1.04)	-2.69**	2.31 (1.17)	2.34 (1.13)	-0.20
12) 돈(사이버머니, 게임머니 포함)이나 물건을 강제로 뺏김	379	1.55 (0.84)	1.57 (0.88)	1.47 (0.68)	1.09	1.56 (0.86)	1.53 (0.81)	0.34
13) 폭행 등의 신체적 상해를 당함	379	1.56 (0.84)	1.52 (0.83)	1.68 (0.88)	-1.50	1.57 (0.88)	1.55 (0.81)	0.18
14)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당함	378	1.44 (0.79)	1.43 (0.79)	1.48 (0.78)	-0.52	1.34 (0.69)	1.54 (0.86)	-2.42*
15) 절도, 성매매 등 범죄를 주범처럼로부터 강요받거나 협박받음	379	1.43 (0.74)	1.41 (0.76)	1.48 (0.68)	-0.79	1.44 (0.79)	1.41 (0.70)	0.40
16) 휴대폰 개통 대출(내구제 대출), 금융사기, 전세사기를 당함	379	1.35 (0.69)	1.35 (0.70)	1.38 (0.67)	-0.39	1.36 (0.73)	1.35 (0.65)	0.16
17)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음	379	1.92 (1.01)	1.89 (1.01)	2.02 (1.01)	-1.07	1.81 (0.97)	2.02 (1.04)	-2.03*
18) 집을 나온 것에 대한 사람들의 선입견, 편견, 무시	379	2.00 (1.06)	1.91 (1.02)	2.30 (1.13)	-2.87**	1.93 (1.04)	2.06 (1.07)	-1.27

* $p < .05$, ** $p < .01$, *** $p < .001$

② 원가정 복귀 의향

가정 밖 학생·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집을 나온 후 앞으로의 생활을 어떻게 할 생각인지, 다시 집으로 돌아갈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았을 때, 58%는 가정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미복귀 이유에 대해서는 가족들이 반기지 않고 문제가 반복될까봐, 현재 시설 생활이 만족스러워서, 가출한 상태가 자유롭기 때문에 순으로 응답하였다. 기타 응답으로 독립하고 싶고, 자립하고 싶어서라는 의견이 있었고, 집이 불편하거나 일부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가 불편해서라는 의견, 가족구성원의 정신질환 때문에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조사 대상 청소년 중 학교 밖 청소년은 원가정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비율이 64.3%로 나타났고, 학생 청소년 중에서는 56.2%가 돌아가지 않겠다고 응답하였다. 원가정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유는 앞서 조사 대상 청소년의 전체 응답과 비슷하였고, 이중 응답률의 차이가 가장 큰 항목은 돈을 벌고 싶어서 돌아가지 않겠다는 응답이었다(학생 청소년: 10.4%, 학교 밖 청소년: 25.9%).

표 III-60. 원가정 복귀 의향 및 미복귀 이유(복수응답)(전체)

(단위: 명, %)

구 분	복귀 의향			원가정 미복귀 이유								
	다시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χ^2 (df)	사례 수	돌아갈 집이 없어서	가족들이 받기지 않고 문제가 반복 될까봐	학교 적응이 안 될 것 같아서	돈을 벌고 싶어서	가출한 상태가 자유롭기 때문에	현재시설 (쉼터 등) 생활이 만족스러 워서	기타	
전체	157(42.0)	217(58.0)	-	217	14.3	62.2	2.3	14.3	28.1	49.8	14.7	
현재 상태	학생	127(43.8)	163(56.2)	1.75 (1)	163	14.1	64.4	2.5	10.4	27.6	52.8	13.5
	학교 밖	30(35.7)	54(64.3)		54	14.8	55.6	1.9	25.9	29.6	40.7	18.5
학교 밖 경험	있다	32(33.3)	64(66.7)	3.96 (1)*	64	15.6	57.8	4.7	26.6	26.6	40.6	15.6
	없다	125(45.0)	153(55.0)		153	13.7	64.1	1.3	9.2	28.8	53.6	14.4
성별	남자	81(45.5)	97(54.5)	1.74 (1)	97	16.5	58.8	1.0	15.5	29.9	51.5	10.3
	여자	76(38.8)	120(61.2)		120	12.5	65.0	3.3	13.3	26.7	48.3	18.3
연령	16세 미만	82(53.9)	70(46.1)	15.06 (1)***	70	12.9	61.4	1.4	11.4	32.9	48.6	11.4
	16세 이상	75(33.8)	147(66.2)		147	15.0	62.6	2.7	15.6	25.9	50.3	16.3
기관 유형	일시·이동	55(64.7)	30(35.3)	24.39 (2)***	30	16.7	63.3	0.0	23.3	46.7	10.0	16.7
	단기	82(36.9)	140(63.1)		140	10.0	65.0	2.9	11.4	26.4	56.4	15.0
	중장기· 자립지원관	20(29.9)	47(70.1)		47	25.5	53.2	2.1	17.0	21.3	55.3	12.8

* $p < .05$, ** $p < .01$, *** $p < .001$

주: 복귀 의향 전체 n=374, 원가정 미복귀 이유 전체 n=217

가정 밖 학생·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대한 의지를 ‘나는 자립하는데 있어 어떤 어려움이라도 극복할 자신이 있다’, ‘나는 어떻게든 나에게 닥치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혼자서 힘으로 어떤 일든지 해낼 자신이 있다’, ‘나는 앞으로 내가 갖고 있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등의 4개 항목으로 조사하였고 청소년은 4점 만점(1점: 전혀 그렇지 않다~4점: 매우 그렇다)으로 응답하였다. 자립에 대한 의지를 묻는 4문항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표 III-61>에 제시하였다.

전체 조사 대상 청소년의 평균 점수는 2.96점으로 ‘그런 편이다’에 가까운 응답을 하여 자립에 대한 의지가 있는 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정 밖 청소년의 현재 학업 상태에 따라 가정 밖 학생 청소년은 2.96점, 가정·학교 밖 청소년은 3.00점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의지가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이외 배경변인 별 결과를 살펴보면,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경제적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자립에 대한 의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61. 자립에 대한 의지(전체)

(단위: 점)

구 분		전체	가정 밖 학생 청소년	가정·학교 밖 청소년	t
		M(SD)	M(SD)	M(SD)	
전체		2.96(0.68)	2.96(0.70)	3.00(0.62)	-0.52
성별	남자	3.06(0.66)	3.07(0.68)	3.01(0.58)	0.52
	여자	2.87(0.69)	2.84(0.69)	2.99(0.67)	-1.34
	t	2.95**	3.18**	0.20	
연령	16세 미만	2.98(0.68)	2.97(0.69)	3.16(0.49)	-1.24
	16세 이상	2.95(0.69)	2.95(0.70)	2.95(0.65)	-0.07
	t	0.56	0.25	1.34	
기관 유형	일시·이동	3.03(0.66)	3.08(0.69)	2.90(0.56)	1.43
	단기	2.92(0.69)	2.89(0.69)	3.06(0.66)	-1.58
	중장기·자립지원관	2.95(0.70)	2.94(0.71)	3.07(0.72)	-0.48
	t/F(Scheffe)	1.23	2.71	0.74	
가정 밖 생활 시작 연령	16세 미만	2.98(0.67)	2.93(0.69)	3.17(0.51)	-2.73**
	16세 이상	2.99(0.68)	3.05(0.67)	2.88(0.67)	1.24
	t	0.01	1.47	5.32*	
경제적 수준	상	3.42(0.58)	3.42(0.52)	3.41(0.84)	0.05
	중	2.96(0.65)	2.96(0.66)	2.96(0.60)	-0.04
	하	2.78(0.74)	2.73(0.77)	2.95(0.58)	-1.18
	t/F(Scheffe)	14.88***(a > b,c)	13.45***(a > b,c)	1.92	

* $p < .05$, ** $p < .01$, *** $p < .001$

주: 1) 기관 유형: a=일시·이동, b=단기, c=중장기, 경제적 수준: a=상, b=중, c=하

2) 전체 n=463, 가정 밖 학생 청소년 n=367, 가정·학교 밖 청소년 n=96



(단위: 점)

그림 III-35. 자립에 대한 의지(전체)

2) 심화분석 결과

(1) 가정 밖 어려움

- 가정 밖 청소년 중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학교 밖 청소년일수록 의식주 해결에 대한 어려움과 교육·진로 및 취업에 대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
- 가정 밖 청소년 중 학교를 그만두었거나 그만둔 적이 있을수록 의식주 해결 문제에 대한 어려움과 교육·진로 및 취업에 대한 어려움을 경험함.
- 의식주 해결 문제에 대한 어려움과 교육·진로 및 취업에 대한 어려움은 연령이 높은 집단일수록,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더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① 의식주 해결의 어려움

청소년이 가정 밖의 상황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어려움 중 의식주 해결 문제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의식주 해결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성별, 연령, 경제적 수준, 기관유형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연령이 16세 이상일수록,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일시·이동쉼터에 속한 청소년에 비해 중장기쉼터·자립지원관에 거주하는 청소년일수록 의식주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62. 가정 밖 어려움(의식주 해결 문제)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가정 밖 어려움 - 의식주해결문제					
	기초모형		가정·학교 밖 모형		학교 밖 경험 모형	
	<i>b</i>	<i>SE</i>	<i>b</i>	<i>SE</i>	<i>b</i>	<i>SE</i>
성별(=남자)	0.15	0.10	0.16	0.10	0.17	0.10
연령(=16세 이상)	0.44***	0.11	0.37**	0.11	0.36**	0.11
경제적 수준	-0.14***	0.04	-0.14***	0.04	-0.13***	0.04
기관 유형						
단기	-0.19	0.13	-0.13	0.13	-0.14	0.13
중장기·자립지원관	-0.38*	0.17	-0.28	0.17	-0.29†	0.17
현재 상태(=학교 밖)			0.33*	0.13		
학교 밖 경험(=있음)					0.32*	0.12
상수	2.94***	0.20	2.85***	0.20	2.84***	0.20
N	380		380		380	
F	7.0***		7.04***		7.02***	
R ²	0.09		0.10		0.10	
ΔR ²	-		0.02*		0.02*	

†*p* < .10; **p* < .05; ***p* < .01; ****p* < .001

주: 기관유형 변인의 참조 집단은 일시·이동쉼터임.

기초모형에 현재 학교 재학 여부 변인이 추가된 가정·학교 밖 모형은 변인의 추가로 인해 종속변인에 대한 설명력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가정·학교 밖 청소년인 경우, 재학 중인 가정 밖 청소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의식주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초모형에 학교 밖 경험 유무 변인이 추가된 학교 밖 경험 모형도 종속변인에 대한 설명력 변화(ΔR^2)가 0.02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학교 밖 경험 유무 변인을 해석하면, 가정 밖 청소년 중 학교 밖 경험을 했거나 현재 학교 밖인 청소년의 경우, 학교 밖 경험이 전혀 없는 청소년보다 의식주를 해결하는데 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교육진로 및 취업의 어려움

가정 밖 청소년이 집을 나오면서 경험했던 힘든 점 중에 교육·진로 및 취업의 어려움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러한 어려움은 집을 나오면서 학교를 다닐 수 없는 것, 앞으로 뭘 해야 할지 진로가 막막한 것, 아르바이트나 일을 구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 등을 포함한다. 기초모형 분석 결과는 연령이 16세 이상인 경우, 가정의 경제력 수준이 낮을수록 교육·진로 및 취업에 대해 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63. 가정 밖 어려움(교육·진로 및 취업)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가정 밖 어려움 - 교육·진로 및 취업					
	기초모형		가정·학교 밖 모형		학교 밖 경험 모형	
	<i>b</i>	<i>SE</i>	<i>b</i>	<i>SE</i>	<i>b</i>	<i>SE</i>
성별(=남자)	-0.07	0.09	-0.06	0.09	-0.05	0.09
연령(=16세 이상)	0.31**	0.09	0.26**	0.10	0.25**	0.10
경제적 수준	-0.13***	0.03	-0.13***	0.03	-0.13***	0.03
기관 단기	0.05	0.11	0.09	0.11	0.09	0.11
유형 중장기·차립지원관	-0.05	0.15	0.01	0.15	0.02	0.15
현재 상태(=학교 밖)			0.22 [†]	0.11		
학교 밖 경험(=있음)					0.24*	0.11
상수	2.51***	0.17	2.45***	0.17	2.44***	0.17
N	378		378		378	
<i>F</i>	5.99***		5.66***		5.83***	
<i>R</i> ²	0.07		0.08		0.09	
ΔR^2	-		0.01 [†]		0.01*	

[†]*p* < .10; **p* < .05; ***p* < .01; ****p* < .001

주: 기관유형 변인의 참조 집단은 일시·이동쉼터임.

기초모형에 현재 재학 상태 변인이 추가된 가정·학교 밖 모형은 종속변인에 대한 모형의 설명력 변화가 p 값이 .10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현재 재학 상태 변인의 해석 결과, 가정·학교 밖 청소년이 재학 중인 가정 밖 청소년보다 교육·진로 및 취업에 대한 어려움을 더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밖 경험 유무가 추가된 학교 밖 경험 모형은 종속변인에 대한 설명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고, 학교 밖 경험이 있는 경우 교육·진로 및 취업에 대한 어려움을 더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신체 건강

-
- 가정 밖 청소년의 흡연과 음주 경험률에 미치는 요인으로는 현재 학업 상태와 학교 밖 경험 유무 모두 유의하게 나타남.
 - 가정·학교 밖 청소년이 학생 청소년보다, 그리고 학교를 그만둔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둔 경험이 없는 청소년보다 음주와 흡연을 할 가능성이 높음.
-

① 흡연 경험

가정 밖 청소년의 흡연 경험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최근 30일 동안 하루라도 담배를 피운 적이 있는지의 여부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기초모형과 가정·학교 밖 모형, 학교 밖 경험 모형을 분석하였다. 기초모형 분석 결과, 연령이 16세 이상인 경우 그 이하 연령의 청소년보다 흡연을 더 경험하였고, 기관유형은 일시·이동쉼터에 속한 청소년에 비해 단기쉼터에 있는 청소년일수록 흡연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유의수준 .10에서 유의하였다.

현재 재학 여부 변인이 추가된 가정·학교 밖 모형은 기초모형에 비해 모형의 적합도가 개선되었다. 이는 현재 학교 밖 상태가 흡연 경험의 주요 예측 요인임을 시사하며, 현재 가정·학교 밖 청소년은 학생 청소년에 비해 흡연할 가능성이 1.91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모형에 학교 밖 경험 변인이 추가되었을 때, 모형의 적합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가정 밖 청소년 중 학교 밖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학교 밖 경험이 없는 청소년보다 흡연할 가능성이 2.17배 높게 나타났다.

표 III-64. 흡연 경험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흡연					
	기초모형		가정·학교 밖 모형		학교 밖 경험 모형	
	OR	SE	OR	SE	OR	SE
성별(=남자)	1.40	0.29	1.46 [†]	0.30	1.50 [†]	0.31
연령(=16세 이상)	1.95**	0.41	1.69*	0.37	1.61*	0.35
경제적 수준	0.89	0.07	0.89	0.07	0.89	0.07
기관 단기	1.53 [†]	0.37	1.66*	0.40	1.65*	0.40
유형 중장기·자립지원관	1.12	0.38	1.30	0.44	1.35	0.46
현재 상태(=학교 밖)			1.91*	0.48		
학교 밖 경험(=있음)					2.17**	0.53
상수	0.38*	0.15	0.33**	0.13	0.31**	0.12
N	453		453		453	
LR χ^2	23.24***		29.89***		33.52***	
Pseudo R^2	0.04		0.05		0.06	
$\Delta-2$ Log Likelihood	-		6.65**		10.28**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주: 기관유형 변인의 참조 집단은 일시·이동쉼터임.

② 음주 경험

가정 밖 청소년의 음주 경험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날이 1일 이상이면 '음주 경험 있음'으로, 최근 30일 동안 없다고 응답한 경우 '음주 경험 없음'으로 종속변인을 이분변인으로 만들어 분석하였다. 기초모형 분석 결과, 연령이 높은 집단일수록 음주를 경험하고, 기관 유형 중 일시·이동쉼터에 비해 단기쉼터 및 중장기·자립지원관에 거주하는 청소년일수록 술을 마시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재학 상태가 추가되면서 기초모형에 비해 가정·학교 밖 모형의 적합도가 개선되고 변인의 설명력이 증가하였다. 변인을 해석하면, 가정·학교 밖 청소년이 재학 중인 가정 밖 청소년보다 음주를 경험할 승산비가 2.1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모형에 학교 밖 경험 유무가 추가된 학교 밖 경험 모형은 p 값이 유의수준 .10에서 모형의 적합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된 변인의 결과를 해석하면, 가정 밖 청소년 중 학교 밖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학교 밖 경험이 없는 청소년보다 음주를 할 승산비가 1.6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65. 음주 경험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음주					
	기초모형		가정·학교 밖 모형		학교 밖 경험 모형	
	OR	SE	OR	SE	OR	SE
성별(=남자)	1.00	0.25	1.05	0.27	1.05	0.27
연령(=16세 이상)	3.19***	0.89	2.65**	0.77	2.78***	0.80
경제적 수준	1.03	0.10	1.04	0.10	1.04	0.10
기관 단기	0.56*	0.15	0.60 [†]	0.17	0.58*	0.16
유형 중장기·자립지원관	0.07**	0.05	0.09**	0.07	0.08**	0.06
현재 상태(=학교 밖)			2.10**	0.59		
학교 밖 경험(=있음)					1.68 [†]	0.46
상수	0.17***	0.08	0.14***	0.07	0.15***	0.07
N	454		454		454	
LR χ^2	39.17***		46.07***		42.58***	
Pseudo R^2	0.09		0.10		0.10	
$\Delta-2$ Log Likelihood	-		6.9**		3.41 [†]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주: 기관유형 변인의 참조 집단은 일시·이동쉼터임.

(3) 심리정서적 측면

- 가정 밖 청소년의 회복탄력성에는 현재 학업 상태가 영향을 미쳤으며 학교 밖 청소년일수록 회복탄력성이 낮게 나타남.
- 최근 12개월 동안 우울감 경험 여부에는 현재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일수록, 학교를 그만둔 경험이 있는 청소년일수록 더 높은 경험률을 보고하였음.
- 가정 밖 청소년 중 학교를 그만둔 경험이 있는 청소년일수록 학교를 그만둔 경험이 없는 청소년보다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정신과 질환을 응답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남.

① 회복탄력성

가정 밖 청소년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보기 위해 회복탄력성 척도 4개 항목을 평균화하여 종속변수로 활용하였다. 회복탄력성 점수가 높을수록 힘들거나 부정적인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빠르게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초모형을 분석한 결과는 남자 청소년일수록,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모형에서 현재 학업 상태 변인이 추가된 가정·학교 밖 모형은 모형의 적합도가

.10의 수준에서 유의하게 개선되었다. 가정·학교 밖 모형 결과를 해석하면 앞서 기초모형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성별과 경제적 수준은 동일한 결과를 보였으며, 여자 청소년보다 남자 청소년일수록,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아졌다.

현재 학업 상태 변인도 가정 밖 청소년의 회복탄력성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10$). 즉, 학교를 그만둔 가정 밖 청소년일수록 회복탄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66. 회복탄력성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회복탄력성					
	기초모형		가정·학교 밖 모형		학교 밖 경험 모형	
	<i>b</i>	<i>SE</i>	<i>b</i>	<i>SE</i>	<i>b</i>	<i>SE</i>
성별(=남자)	0.26***	0.07	0.25***	0.07	0.25***	0.07
연령(=16세 이상)	-0.04	0.07	0.00	0.07	-0.01	0.07
경제적 수준	0.08**	0.02	0.08**	0.02	0.08**	0.02
기관 단기	0.02	0.08	0.00	0.08	0.01	0.08
유형 중장기·자립지원관	0.20 [†]	0.11	0.17	0.11	0.18 [†]	0.11
현재 상태(=학교 밖)			-0.16 [†]	0.08		
학교 밖 경험(=있음)					-0.12	0.08
상수	2.18***	0.13	2.22***	0.13	2.22***	0.13
N	461		461		461	
<i>F</i>	6.67***		6.23***		5.97***	
<i>R</i> ²	0.07		0.08		0.07	
ΔR^2	-		0.01 [†]		0.01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주: 기관유형 변인의 참조 집단은 일시·이동쉼터임.

② 우울

최근 12개월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응답한 변인을 활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초모형 결과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우울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모형에 현재 재학 상태 변인과 학교 밖 경험 변인이 각각 추가된 가정·학교 밖 모형과 학교 밖 경험 모형은 모두 모형의 적합도가 유의하게 개선되었다. 각각의 모형에 추가된 변인의 결과를 살펴보면, 재학 중인 가정 밖 청소년에 비해 학교를 그만둔 가정 밖 청소년은 우울감을 경험할 승산비가 1.78배 높았다. 또한, 가정 밖 청소년 중 학교를 그만둔 경험이 없는 집단에 비해 학교를 그만두었거나, 이전에 그만둔 경험이 있는 집단의 청소년들은 우울감을 경험할 승산비가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67. 우울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우울					
	기초모형		가정·학교 밖 모형		학교 밖 경험 모형	
	OR	SE	OR	SE	OR	SE
성별(=남자)	0.53**	0.10	0.54**	0.11	0.55**	0.11
연령(=16세 이상)	0.96	0.19	0.84	0.17	0.81	0.17
경제적 수준	0.87 [†]	0.06	0.87 [†]	0.06	0.88 [†]	0.06
기관 단기	1.13	0.25	1.20	0.27	1.19	0.27
유형 중장기·자립지원관	0.93	0.30	1.05	0.34	1.08	0.35
현재 상태(=학교 밖)			1.78*	0.44		
학교 밖 경험(=있음)					2.00**	0.48
상수	1.82	0.67	1.64	0.61	1.57	0.59
N	451		451		451	
LR χ^2	17.44**		22.83***		25.79***	
Pseudo R^2	0.03		0.04		0.04	
$\Delta-2$ Log Likelihood	-		5.4*		8.35**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주: 기관유형 변인의 참조 집단은 일시·이동쉼터임.

③ 치료가 필요한 질병

가정 밖 청소년이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정신과 질환을 선택했는지의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별, 연령, 경제적 수준, 기관유형 변인이 투입된 기초모형 분석 결과에서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일수록, 연령이 16세 이상일수록,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일시·이동쉼터보다 단기쉼터에 있을수록 정신과 질환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기초모형에 현재 학업 상태 변인을 추가하였을 때는 모형이 유의하게 개선되지 않았지만, 학교 밖 경험 변인이 추가된 학교 밖 경험 모형의 적합도는 p 값이 .10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학교 밖 경험 변인을 해석하면, 가정 밖 청소년 중 학교를 그만둔 경험이 있는 청소년일수록 학교를 그만둔 경험이 없는 청소년보다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정신과 질환이 있다고 응답할 가능성이 1.6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68. 치료가 필요한 질병: 정신과 질환 선택 여부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치료가 필요한 질병(정신과 질환) 여부						
	기초모형		가정·학교 밖 모형		학교 밖 경험 모형		
	OR	SE	OR	SE	OR	SE	
성별(=남자)	0.41***	0.09	0.42***	0.09	0.42***	0.09	
연령(=16세 이상)	1.70*	0.38	1.55 [†]	0.36	1.50 [†]	0.35	
경제적 수준	0.83*	0.07	0.83*	0.07	0.83*	0.07	
기관 유형	단기	1.91*	0.50	2.01**	0.54	2.01**	0.53
	중장기·자립지원관	1.28	0.46	1.42	0.52	1.43	0.53
현재 상태(=학교 밖)			1.54	0.41			
학교 밖 경험(=있음)					1.61 [†]	0.41	
상수	0.60	0.25	0.55	0.23	0.53	0.22	
N	454		454		454		
LR χ^2	43.69***		46.29***		47.2***		
Pseudo R^2	0.08		0.08		0.09		
$\Delta-2$ Log Likelihood	-		2.59		3.51 [†]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주: 기관유형 변인의 참조 집단은 일시·이동쉼터임.

(4) 지지체계

-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은 청소년과 학교를 그만둔 경험이 있는 청소년일수록 학교 선생님을 믿고 의지할 만한 대상이라고 인식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음.

① 도움 요청 대상

가정 밖 청소년이 어렵고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대상 중 학교 선생님에 대한 심리적 지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기초모형 결과는 여자 청소년일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학교선생님을 믿고 의지할 만한 대상이라고 인식하였다.

기초모형에 현재 학업 상태 변인과 학교 밖 경험 변인을 각각 추가한 결과, 모형의 적합도가 모두 유의한 수준에서 개선되었다. 가정·학교 밖 모형의 결과를 살펴보면 학교에 다니지 않는 가정·학교 밖 청소년일수록 학교 선생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밖 경험 모형도 마찬가지로 학교를 그만둔 경험이 있는 청소년일수록 학교 선생님을 믿거나 신뢰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표 III-69. 지지체계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도움 요청 대상(학교선생님)					
	기초모형		가정·학교 밖 모형		학교 밖 경험 모형	
	<i>b</i>	<i>SE</i>	<i>b</i>	<i>SE</i>	<i>b</i>	<i>SE</i>
성별(=남자)	0.36**	0.10	0.35**	0.10	0.33**	0.10
연령(=16세 이상)	-0.35**	0.11	-0.21 [†]	0.10	-0.21 [†]	0.11
경제적 수준	0.03	0.04	0.03	0.04	0.03	0.04
기관 유형						
단기	0.12	0.13	0.03	0.12	0.05	0.12
중장기·자립지원관	0.20	0.17	0.03	0.16	0.05	0.17
현재 상태(=학교 밖)			-0.74***	0.13		
학교 밖 경험(=있음)					-0.63***	0.13
상수	2.56***	0.20	2.71***	0.19	2.72 ***	0.20
N	381		381		381	
<i>F</i>	4.7***		9.56***		8.31***	
<i>R</i> ²	0.06		0.13		0.12	
ΔR^2	-		0.07***		0.06***	

[†]*p* < .10; **p* < .05; ***p* < .01; ****p* < .001
 주: 기관유형 변인의 참조 집단은 일시·이동쉼터임.

(5) 진로 관련 어려움

- 가정·학교 밖 청소년일수록 진로성숙도가 유의하게 낮게 나타남.
- 진로교육 및 활동 경험은 현재 학교 밖 청소년일수록, 학교를 그만둔 경험이 있을수록 유의하게 낮은 경험률을 보임.
- 가정·학교 밖 청소년일수록, 학교 밖 경험이 있는 청소년일수록 일이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해 봤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남.

① 진로성숙도

가정 밖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진로성숙도 척도를 활용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진로성숙도는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알고 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등을 포함하는 6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균화한 값을 종속변수로 활용하였다. 진로성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이 본인의 장점을 파악하고 주도적으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표 III-70. 진로성숙도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진로성숙도					
	기초모형		가정·학교 밖 모형		학교 밖 경험 모형	
	<i>b</i>	<i>SE</i>	<i>b</i>	<i>SE</i>	<i>b</i>	<i>SE</i>
성별(=남자)	-0.04	0.06	-0.05	0.06	-0.05	0.06
연령(=16세 이상)	0.15*	0.06	0.19**	0.06	0.18**	0.06
경제적 수준	0.09***	0.02	0.09***	0.02	0.09***	0.02
기관 단기	-0.15*	0.07	-0.17*	0.07	-0.16*	0.07
유형 중장기·자립지원관	0.04	0.10	0.01	0.10	0.02	0.10
현재 상태(=학교 밖)			-0.16*	0.08		
학교 밖 경험(=있음)					-0.11	0.07
상수	2.59***	0.11	2.63***	0.11	2.62***	0.11
N	461		461		461	
<i>F</i>	6.89***		6.51***		6.1***	
<i>R</i> ²	0.07		0.08		0.07	
ΔR^2	-		0.01*		0.004	

[†]*p* < .10; **p* < .05; ***p* < .01; ****p* < .001
 주: 기관유형 변인의 참조 집단은 일시·이동쉼터임.

기초모형을 분석한 결과, 청소년의 연령이 높을수록,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단기쉼터에 비해 일시·이동쉼터에 있는 청소년일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학업 상태 변인을 추가한 결과, 모형의 적합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여 현재 학업 상태가 진로성숙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가정·학교 밖 모형의 결과를

해석하면, 성별, 연령, 경제적 수준 등 다른 변인들의 영향을 고려하였을 때에도 현재 학업 상태 변인이 진로성숙도를 예측하는 주요 변인이며, 가정·학교 밖 청소년일수록 가정 밖 학생 청소년보다 진로성숙도가 유의하게 낮은 것을 의미한다.

② 진로교육 및 활동 경험

진로 탐색,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체험 등 10개의 진로교육 및 활동에 대해 경험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합산하여 종속변수로 활용하였다. 진로교육 및 활동 경험은 최소 0점(10개 중 하나도 경험하지 않음)부터 10점까지(모든 유형의 교육 및 활동에 참여함) 분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교육 및 활동 경험을 많이 한 것을 의미한다. 기초모형의 결과는 여자 청소년일수록,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일시·이동실택터에 비해 중장기·자립지원관에 있는 청소년일수록 진로교육이나 활동 경험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밖 상황과 연관된 학업 상태 변인과 학교 밖 경험 변인이 추가된 모형은 각각 적합도가 유의하게 개선되었다. 개별 모형을 해석하면, 가정·학교 밖 청소년일수록, 그리고 학교 밖 경험이 있을수록 청소년의 성별, 연령, 경제적 수준, 기관유형의 영향력을 통제된 상황에서도 진로와 관련된 교육 및 활동 경험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71. 진로교육 및 활동 경험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진로교육 및 활동 경험					
	기초모형		가정·학교 밖 모형		학교 밖 경험 모형	
	<i>b</i>	<i>SE</i>	<i>b</i>	<i>SE</i>	<i>b</i>	<i>SE</i>
성별(=남자)	-0.80**	0.26	-0.84**	0.26	-0.86**	0.26
연령(=16세 이상)	0.46 [†]	0.27	0.66*	0.28	0.66*	0.28
경제적 수준	0.20*	0.10	0.20*	0.10	0.19 [†]	0.10
기관 단기	0.47	0.31	0.38	0.31	0.40	0.30
유형 중장기·자립지원관	1.13**	0.43	0.94*	0.43	0.96*	0.43
현재 상태(=학교 밖)			-0.92**	0.33		
학교 밖 경험(=있음)					-0.82*	0.32
상수	4.47***	0.50	4.66***	0.50	4.67***	0.50
N	462		462		462	
<i>F</i>	4.41***		5.0***		4.78***	
<i>R</i> ²	0.05		0.06		0.06	
ΔR^2	-		0.02**		0.01*	

[†]*p* < .10; **p* < .05; ***p* < .01; ****p* < .001

주: 기관유형 변인의 참조 집단은 일시·이동실택터임.

③ 일(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현재 일(아르바이트)을 하고 있거나 일을 해본 경험이 있는지의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초모형 결과는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이, 연령이 16세 이상인 청소년이 16세 미만 청소년보다 현재 일을 하고 있거나 일을 해본 적이 있을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현재 학업 상태 변인을 추가한 모형과 학교 밖 경험 변인을 추가한 모형은 각각 기초모형보다 적합도가 유의하게 개선되었다. 가정 밖으로 나온 청소년 중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은 청소년들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보다 일을 하고 있을 승산비가 2.36배로 나타났고, 학교를 그만둔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도 학교를 그만둔 경험이 없는 청소년보다 일을 하고 있을 승산비가 2.42배 높게 나타났다.

표 III-72. 일(아르바이트 경험) 여부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일(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기초모형		가정·학교 밖 모형		학교 밖 경험 모형	
	OR	SE	OR	SE	OR	SE
성별(=남자)	0.65*	0.14	0.67 [†]	0.14	0.69 [†]	0.14
연령(=16세 이상)	4.21***	0.91	3.58***	0.80	3.45***	0.77
경제적 수준	0.96	0.07	0.96	0.07	0.97	0.07
기관 유형						
단기	1.05	0.25	1.15	0.28	1.14	0.28
중장기·자립지원관	0.82	0.28	0.99	0.34	1.00	0.35
현재 상태(=학교 밖)			2.36**	0.61		
학교 밖 경험(=있음)					2.42***	0.60
상수	0.40*	0.16	0.34**	0.13	0.32**	0.13
N	457		457		457	
LR χ^2	55.52***		66.88***		68.49***	
Pseudo R^2	0.09		0.11		0.11	
$\Delta-2$ Log Likelihood	-		11.36***		12.96***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주: 기관유형 변인의 참조 집단은 일시·이동쉼터임.

(6) 지원 요구

- 가정 밖 청소년 중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을수록, 학교를 그만둔 경험이 있을수록 주거비에 대한 지원 요구가 높게 나타남.
- 가정·학교 밖 청소년의 현재 재학 여부가 자립정착금 지원 수요에 영향을 미쳤으며, 학교를 그만둔 가정 밖 청소년일수록 자립정착금 지원 수요가 높게 나타남.
- 검정고시 준비를 위한 지원은 연령보다는 현재 학교 밖 여부와 학교를 그만둔 경험 여부에 따라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① 주거비 지원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 지원에 대한 수요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성별, 연령, 경제적 수준, 기관유형 변인을 투입하여 기초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일시·이동쉼터보다 단기쉼터와 중장기 및 자립지원관에 있는 청소년일수록 주거비 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73. 주거비 지원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주거비 지원					
	기초모형		가정·학교 밖 모형		학교 밖 경험 모형	
	<i>b</i>	<i>SE</i>	<i>b</i>	<i>SE</i>	<i>b</i>	<i>SE</i>
성별(=남자)	0.00	0.09	0.01	0.09	0.02	0.09
연령(=16세 이상)	0.28**	0.10	0.22*	0.10	0.22*	0.10
경제적 수준	-0.20***	0.03	-0.20***	0.03	-0.20***	0.03
기관 유형						
단기	0.53***	0.11	0.56***	0.11	0.55***	0.11
중장기·자립지원관	0.77***	0.15	0.82***	0.15	0.82***	0.15
현재 상태(=학교 밖)			0.28*	0.12		
학교 밖 경험(=있음)					0.27*	0.12
상수	2.95***	0.18	2.90***	0.18	2.89***	0.18
N	456		456		456	
F	23.76***		20.88***		20.89***	
R ²	0.21		0.22		0.22	
ΔR ²	-		0.01*		0.01*	

[†]*p* < .10; **p* < .05; ***p* < .01; ****p* < .001
 주: 기관유형 변인의 참조 집단은 일시·이동쉼터임.

기초모형에 현재 학업 상태 변인과 학교 밖 경험 유무 변인을 추가한 가정·학교 밖 모형과 학교 밖 경험 모형은 적합도가 각각 개선되어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비 지원에 대한 설명력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현재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일수

록, 그리고 학교 밖 경험을 가진 청소년일수록 주거비에 대한 지원 요구가 높았다.

② 자립정착금 지원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정착금 지원 수요를 심층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별, 연령, 경제적 수준, 기관유형이 투입된 기초모형 분석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일시·이동쉼터보다 단기쉼터 및 중장기·자립지원관에 있는 청소년일수록 자립정착금 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기초모형에 현재 학업 상태 여부가 추가된 가정·학교 밖 모형은 모형의 적합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여 변인의 설명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학교 밖 모형 분석 결과,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은 가정 밖 청소년일수록 자립정착금에 대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밖 경험 유무 변인이 추가된 학교 밖 경험 모형은 적합도가 유의하게 개선되지 않아 자립정착금 지원 수요에는 학교를 그만두었던 경험 여부가 관계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앞서 가정·학교 밖 모형의 결과와 함께 고려하면 학교를 그만둔 경험보다는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인지의 여부에 따라 청소년의 자립정착금 지원요구가 달라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III-74. 자립정착금 지원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자립정착금 지원					
	기초모형		가정·학교 밖 모형		학교 밖 경험 모형	
	<i>b</i>	<i>SE</i>	<i>b</i>	<i>SE</i>	<i>b</i>	<i>SE</i>
성별(=남자)	0.07	0.09	0.09	0.09	0.08	0.09
연령(=16세 이상)	0.34***	0.09	0.28**	0.09	0.30**	0.09
경제적 수준	-0.16***	0.03	-0.15***	0.03	-0.15***	0.03
기관 유형						
단기	0.81***	0.10	0.83***	0.10	0.82***	0.10
중장기·자립지원관	1.04***	0.14	1.09***	0.15	1.07***	0.15
현재 상태(=학교 밖)			0.26*	0.11		
학교 밖 경험(=있음)					0.15	0.11
상수	2.64***	0.17	2.59***	0.17	2.60***	0.17
N	457		457		457	
<i>F</i>	33.99***		29.48***		28.71***	
<i>R</i> ²	0.27		0.28		0.28	
ΔR^2	-		0.01*		0.003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주: 기관유형 변인의 참조 집단은 일시·이동쉼터임.

③ 검정고시 준비 지원

가정 밖 청소년의 검정고시 준비 지원에 대한 수요를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성별, 연령, 경제적 수준, 기관유형이 투입된 기초모형 분석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검정고시 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모형에 현재 학업 상태 변인과 학교 밖 경험 유무 변인을 각각 추가한 모형은 모형의 적합도가 모두 개선되었고, 검정고시 준비 지원에 대한 변인의 설명력이 증가하였다. 각각의 모형을 해석하면, 학교에 다니지 않는 가정 밖 청소년일수록, 학교를 그만둔 경험이 있는 청소년일수록 검정고시를 준비하는데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기초모형에서 유의한 예측력을 보였던 연령의 효과가 사라져서 검정고시 준비 지원에 대해서는 연령보다는 학교 밖 여부가 더 중요한 것임을 보여주었다.

표 III-75. 검정고시 준비 지원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검정고시 준비 지원					
	기초모형		가정·학교 밖 모형		학교 밖 경험 모형	
	<i>b</i>	<i>SE</i>	<i>b</i>	<i>SE</i>	<i>b</i>	<i>SE</i>
성별(=남자)	-0.13	0.10	-0.10	0.10	-0.08	0.10
연령(=16세 이상)	0.27*	0.10	0.09	0.10	0.08	0.10
경제적 수준	-0.07 [†]	0.04	-0.07 [†]	0.04	-0.06 [†]	0.04
기관 유형						
단기	-0.15	0.12	-0.08	0.11	-0.10	0.11
중장기·자립지원관	-0.15	0.16	0.02	0.16	0.00	0.16
현재 상태(=학교 밖)			0.83***	0.12		
학교 밖 경험(=있음)					0.77***	0.12
상수	2.26***	0.19	2.10***	0.19	2.07***	0.19
N	451		451		451	
<i>F</i>	2.47*		9.64***		9.18***	
<i>R</i> ²	0.03		0.12		0.11	
ΔR^2	-		0.09***		0.08***	

[†]*p* < .10; **p* < .05; ***p* < .01; ****p* < .001
 주: 기관유형 변인의 참조 집단은 일시·이동쉼터임.

5. 소결

가정·학교 밖 청소년의 상황을 더욱 조명하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의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접촉하여 만 14~18세의 청소년 총 463명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 결과, 가정 밖 청소년 463명 중 재학 중인 청소년은 79.3%, 학교 밖 청소년은 20.7%였다. 과거 학교를 그만둔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23.5%였고, 이 중 일부는 학교로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세 이상의 연령대가 높은 청소년일수록 학교에 다니지 않는 비율이 더 높았는데, 성인기 이행을 앞두고 있는 이들을 위한 진로관련 지원 필요성을 더욱 시사했다.

가정 밖 청소년 중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은 주요 이유로(1순위+2순위) 심리정서적 문제(31.2%)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그다음은 공부하기 싫어서(25.8%), 부모님과의 갈등·가정 불화(23.7%)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를 그만둔 이후 경험한 어려움 중에는(약간+자주 경험했다는 응답률 기준) 여전히 부모와의 갈등 경험이 76.9%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학교 친구들과의 관계 단절(53.3%), 어디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거나 혼자라는 불안감(52.2%), 할 일도 없고,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의욕도 없음(무기력함)(51.6%), 적성에 맞는 진로 찾기의 어려움(49.5%),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선입견, 편견, 무시(48.9%), 대학진학관련 정보를 찾기 어려움(48.4%) 등이 높은 응답률을 보여, 이들의 심리사회적 문제와 무기력, 진로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학교 밖 청소년 중 47.7%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용 경험이 없었으며, 그 이유 중 다수는 '꿈드림센터를 잘 몰라서'와 '방문하기 귀찮아서'로 조사됨에 따라 청소년쉼터에서의 보다 적극적인 안내와 연계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향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지원 참여 의사는 75.3%였고, 정보를 얻기 위해서가 가장 응답률이 높은 이유였는데 가정·학교 밖 청소년들은 정보 수집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큰 것을 알 수 있다.

진로계획 및 준비영역에 대한 조사 결과, 먼저 전체 조사 참여 청소년 중 55.3%는 현재 진로와 관련하여 특별히 하는 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진로와 관련하여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가장 시간을 많이 쓰는 진로 관련 일은 직업교육훈련, 진로체험, 대입(수능)준비였다. 그중, 대입준비를 도움 없이 혼자서 하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청소년쉼터, 학교, 사설 학원 순이었다. 희망 교육수준에 대해 가정 밖 학생 청소년은 4년제 대학을, 학교 밖 청소년은 고등학교를 더 많이 응답해 차이를

보였다.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연령대가 비교적 높고 또 성인기 이행을 앞두고 있어 자립을 위한 경제적 활동(아르바이트)을 하는 비율도 높아 대학진학에 대한 생각을 상대적으로 덜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그 배경에 대해 좀 더 탐색이 필요해 보인다. 향후 진로 계획에 대한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30.0%는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였고, 다음으로 대학진학 준비(28.7%), 취업 예정(16.8%)이 뒤를 이었다. 무엇보다 진로에 대해 혼자 결정한다는 응답이 47.9%로 절반에 가까운 수치였고, 친구와 지인, 부모님, 쉼터 선생님 순으로 진로에 대해 생각할 때 영향을 받는다고 조사됨에 따라 진로에 대한 고민과 준비에 있어 전문적인 지원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성숙도는 가정 밖 생활 시작 연령이 16세 이상인 집단에서 가정 밖 학생 청소년에 비해 학교 밖 청소년이 낮게 조사되었고, 또 진로와 관련된 대부분의 다양한 교육과 활동 경험 역시 적어 가정·학교 밖 이중 취약 청소년의 진로 지원에 대해 더욱 관심을 필요로 하였다. 조사 참여자의 2/3가 희망하는 직업교육/훈련이 있었으며, 특히 제과제빵, 사회복지사·청소년지도사 및 상담사, 메이크업 아티스트·네일아트, 음료제조(바리스타 등) 등이 상대적으로 선호가 많았다. 수요에 따른 지원도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직접 지원을 받고 있는 현장실무자의 직종, 또 일부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훈련 과정에 대한 선호를 볼 때, 다양한 직업세계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자신의 적성을 고려한 장기적인 진로설계가 필요해 보이며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심리사회적 차원에 대한 조사 결과, 가정과 학교에서 모두 벗어난 청소년은 우울, 자살 생각 등 정신건강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가정 밖 학생 청소년보다 스스로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편으로 인식하였고, 우울증, 불안장애 등 정신과 질환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다고 더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학교 밖 청소년의 정신건강이 취약한 것과 더불어 주목해야 할 것은 이들은 힘든 상황에서 회복하는 힘이 부족하며, 사회로부터 부정적인 시선과 선입견 등에 대해 어려움을 더 호소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정·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한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적 개입에 더욱 관심을 기울임과 동시에, 마음건강 예방 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정·학교 밖 청소년은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신체건강에 대해서도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학교 밖 청소년은 흡연과 음주 경험률이 가정 밖 청소년보다 더 높았는데, 학교 밖 경험이 있을수록 더 높은 흡연 및 음주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차 자료 조사의 결과와 비교했을 때에도 양상이 비슷하였고, 가정·학교 밖 청소년이 가장 높은 흡연율과 음주율을 보이고 있어, 이들을 담배나 주류와 같은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하고 신체적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조사 대상 청소년들의 일(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한 자료 분석결과, 가정 밖 청소년 중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의 경우 10명 중 6명은 일(아르바이트)을 현재 하고 있거나 과거에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은 10명 중 3명 정도). 심화분석 결과에서도 가정 밖 청소년 중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청소년일수록, 또 학교에 다니지 않은 경험이 있을수록 일(아르바이트)을 할 가능성이 높았고, 진로교육이나 활동에 대한 경험은 더 적게 나타났다. 가정·학교 밖 청소년일수록 진로성숙도도 낮은 결과를 보였다. 가정·학교 밖 청소년들이 현재 하고 있거나 과거에 했던 일(아르바이트)의 유형으로는 대부분 가게에서 주방 일을 하거나 서빙을 하고 카운터를 보는 일, 카페에서 서빙하는 일로 직업군이 다양하게 분포하지 않았고, 진입장벽이 낮은 일이 대부분이었다. 기타 응답에서도 웨딩홀이나 이삿짐센터, 주차장 정도였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학교 밖 청소년이 양질의 직업을 경험해 보고 본인의 진로에 대해 고심하고 살펴볼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교육과 직업훈련을 받을 기회가 더욱 필요함을 시사한다.

경제적 상황에 대한 조사 결과, 가정 밖 청소년 중 저축을 하는 경우는 30%대로 낮게 나타났고, 평균 저축한 금액은 253만 원 정도로 학교 밖 청소년이 170만 원 정도 저축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수입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는데, 가정·학교 밖 청소년이 재학 중인 청소년보다 평균 20만 원 정도 수입이 더 많았고, 가정 밖 학생 청소년의 수입 중 대부분은 가족으로부터의 용돈이었으나, 가정·학교 밖 청소년은 근로소득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가정·학교 밖 청소년이 일(아르바이트 경험)을 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가정 밖 청소년 10명 중 1명은 채무(빚)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평균 채무액은 약 267만 원이었다. 그중 학생 청소년의 채무액은 10만 원 미만인 경우가 45.7%로 소액의 빚이 다수였지만, 학교 밖 청소년은 100만 원 이상인 경우가 절반에 이르러 차이가 존재하였다. 청소년들의 평균 저축 금액과 월 수입 등에 비하여 높은 채무액이 나타난 결과를 기반으로 가정 밖 청소년의 채무(빚)가 생긴 과정에 대해 심층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경제 및 금융 교육을 통해 건전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지지체계를 살펴보면, 조사 대상 청소년들은 가출하기 전에 부모님의 이혼이나 별거를

가장 많이 경험하였고, 부모님과 별거,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이나 술을 많이 마시는 가족구성원 등 가정 내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마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정·학교 밖 청소년은 재학 중인 청소년보다 부모님(보호자)과 주기적으로 연락을 하지 않고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지 않는 편으로 나타나 가정의 지지체계가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학교를 그만둔 경험이 있는 청소년과 현재 학교 밖 청소년 모두 학교 선생님을 어렵고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지지체계 중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는 가정과 학교에서 믿고 의지할 만한 대상이나 심리 정서적으로 지지받을 수 있는 대상이 부족함을 시사한다. 아울러, 가정·학교 밖 청소년은 집을 나온 이후에 본인을 이해해 주고, 믿어주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가정과 학교에서 모두 벗어난 청소년에게 이들의 지지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조명하고 있다. 또한, 학교 밖으로 나온 가정 밖 청소년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센터 이용률은 2명 중 1명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학교 밖 청소년은 검정고시 지원과 같은 학업 지원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용률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가정·학교 밖 청소년의 정책 수요에 맞춰 학업 지원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 간 더욱 원활한 연계·협력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가정 밖 생활 경험에 대한 조사에서, 가정 밖 생활을 시작한 평균 연령이 14.46세로 나타나, 과거 유사 실태조사 결과의 평균 연령인 15.6세보다 낮아져(김희진 외, 2018) 저연령화의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집을 나오게 된 이유는 청소년과 부모 간의 갈등, 부모 간의 갈등이 원인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외 자유롭게 살거나 놀고 싶은 것과 우울, 불안과 스트레스가 많아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쉼터를 이용하게 된 계기로는 경찰이나 주민센터, 보호시설 등의 안내가 가장 많았고, 가출 경험이 있는 친구나 선배의 소개로 또는 쉼터에 대한 홍보 등을 통해 청소년쉼터를 이용하기도 하였다. 집을 나오면서 힘들었던 경험 중에는 생활비 부족, 가족과의 불화, 우울이나 불안감 경험, 앞으로 뭘 해야 할지 진로의 막막함, 무기력한 감정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정·학교 밖 청소년은 가정 밖 학생 청소년보다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이 어렵고 생활비가 부족해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원래의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학교 밖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더 부정적으로 응답하였고, 이는 가정을 나온 후에 겪는 다양한 어려움들 속에서도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향을 가늠할 수 있다.

따라서, 가정에서 나온 후 청소년들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생활을 하며 주변 환경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쉽터로 바로 연계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가정에서의 부정적인 경험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가정 밖 상황에서도 재학 중인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현재 가정 밖 청소년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많은 내용이 도출되었다. 그러나 본 설문조사는 현재 청소년쉼터에서의 학교 밖 청소년의 인원이 적어 본 조사에 많이 참여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는데, 이 역시 현황을 보여주는 주요한 결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교육부의 통계에서도 학업중단 학생 수의 비중이 커지고 있고, 감소하는 학령기 인구와 달리 학교 밖 청소년 추정치가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청소년쉼터와 자립지원관 등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보호·지원시설에서의 학교 밖 청소년 수의 감소는 그 배경에 대해 더욱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는 청소년쉼터에서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또 학교를 그만둔 경우 복교를 지원하기 때문일 수 있으나, 가정 밖 상황에서의 학교 재학 및 적응의 난이도를 고려할 때, 청소년의 여건과 희망에 따라 학교 외의 다양한 선택지에 대한 정보 제공과 충분한 지원이 더욱 강조될 필요성도 상존한다. 마지막으로, 가정과 학교 모두에서 벗어나 있는 청소년, 특히 그 규모를 확인하기 어려운 다중적인 취약성을 가진 청소년들이 지원체계에서조차도 벗어나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므로,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발굴, 지원 필요성이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

○———— 제4장 가정·학교 밖 이중 취약 청소년 대상 심층면접조사 결과

- 1. 조사개요
- 2. 면접조사 내용
- 3. 면접조사 방법
- 4. 분석 방법
- 5. 분석 결과
- 6. 소결

4

가정·학교 밖 이중 취약 청소년 대상 심층면접조사 결과⁴²⁾

1. 조사개요

본 연구는 양적연구방법과 질적연구방법을 함께 활용하는 혼합연구방법론(mixed methodology) 접근을 통해 수행하고자 하였다. 이에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기 어려운 가정·학교 밖 이중 취약 청소년의 심층적인 측면을 탐색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통한 양적 연구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질적연구방법론을 동시에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 가정·학교 밖 청소년이 가정과 학교에서 모두 떠나있음에 따른 이중 취약 상태의 생활 전반과 심리정서적 측면, 진로, 지지체계 등에서의 어려움과 애로사항 등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개별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앞서 설문조사에서 가정 밖 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학교 재학 여부에 따른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가정·학교 밖 이중 취약 청소년의 경험 실태와 어려움에서의 차이를 조명했다면, 본 면접조사에서는 가정과 학교 모두에서 벗어나 생활하고 있는 가정·학교 밖 이중 취약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면접조사는 [그림 IV-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정 밖인 상태에서 현재 정규 제도권 학교에 재학하고 있지 않은 청소년(대략 만 14~18세)을 중심으로 실시하되, 성인이 이행과정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을 회고적으로 더욱 깊이 있게 탐색하기 위해 만 19세 이상의 청소년도 조사 대상에 포함하였다. 구체적인 면접 대상자는 현재 집을 나온 상태에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으로 가정 밖인 동시에 학교 밖인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또 진로에 대한 고민을 시작할 수 있는 중3~고3 연령대인 만 14~18세 청소년을 주요 면접 대상자로 구성하였다. 또한 가정과 학교 밖 생활을 통해 이중적으로 취약했던 과거 경험에 대해 회고하면서 현재 직면하고 있는 성인

42) 이 장의 1절, 2절, 3절은 김희진 선임연구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4절, 5절, 6절은 조혜영 교수(공주교육대학교)가 집필하였다.

기 이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는 만 19세 이상의 후기 청소년도 면접 대상에 포함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와 과거를 아우르는 가정 밖과 학교 밖의 이중 취약 경험에 대해 깊이 있게 통찰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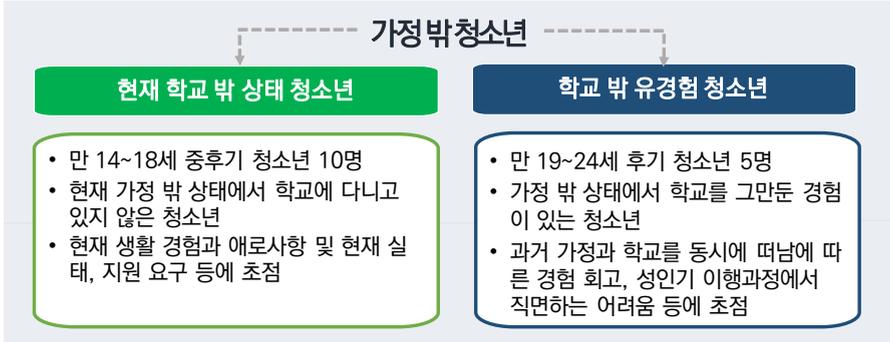


그림 IV-1. 가정·학교 밖 이중 취약 청소년 연구 참여(면접조사) 대상자 개요

더욱 유의미한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 지역적으로 조사 대상자의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성별에 따른 대상자 비율도 고르게 구성하였다. 이러한 면접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구성을 살펴보면 <표 IV-1>과 같다. 가능한 전국적으로 또 지역규모별로 조사 대상자를 포함시키기 위해 현재 학교 밖 청소년과 학교 밖 유경험 청소년 집단별로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으로 구분하여 청소년 수를 할당하였으며, 또 최대한 성비를 맞추어 진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가정 밖 생활 경험 및 학교 밖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면접참여자의 집을 나온 기간은 최소 2~3개월 이상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표 IV-1. 면접조사 참여 가정·학교 밖 이중 취약 청소년 특성별 구성

	현재 학교 밖 청소년 (만 14~18세)	학교 밖 유경험 청소년 (만 19~24세)
대도시	5	3
중소도시	3	1
읍면지역	2	1
합계	10	5

주1) 성비는(남자:여자) 5:5 ~ 4:6에 준하도록 면접대상자 섭외

주2) 가정 밖 기간은 최소 2~3개월 이상 기준

이러한 기준에 따라 현장의 청소년쉼터에 접촉하여 이에 해당하는 면접조사 대상자 섭외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면접조사 참여 기준을 각 기관담당자에게 전달하여 적절한 대상자를 찾았으며, 면접 참여 의향이 있는지 확인하고 인터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청소년의 편의를 우선하여 면접 장소와 일정을 잡아 면접조사를 진행하였다.

2. 면접조사 내용

가정과 학교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주요 면접조사 내용을 구성하였으며, 특히 가정과 학교를 모두 나오게 된 과정과 이후 생활,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 지원 요구에 초점을 두어 면접지를 개발하였다. 순차적으로 전문가 검토와 자문과정, 기관 IRB심의를 거쳐 면접 내용과 면접지를 확정하였으며, 면접원 교육 워크숍을 통해 심층면접 가이드라인을 정리하였다. 면접조사지 개발 과정은 [그림 IV-2]와 같다.



그림 IV-2. 가정·학교 밖 이주 취약 청소년 면접조사지 개발 및 면접 착수 과정

면접조사 내용은 크게 ① 현재 상태, ② 가정 밖 생활, ③ 학교를 그만둔 과정과 경험, ④ 진로 관련, ⑤ 근로(아르바이트) 경험, ⑥ 현재 경제 상태, ⑦ 자립 관련, ⑧ 지원체계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현재 상태’는 근황과 주로 하는 일, 신체적·심리적 건강 상태와 사회적 관계 등에 대해 질문하는 내용으로, 그리고 ‘가정 밖 생활’ 영역에서는 집을 나온 이유와 시기, 집을 나온 기간과 가출팸 등 가정 밖 생활 경험과 청소년쉼터와 같은 지원기관 이용 경험, 집을 나옴에 따른 어려움과 피해 경험, 지원 요구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학교를 그만둔 과정과 경험’ 영역에서는 학교를 그만둔 시기와 집을 나오게 되면서 학교까지 그만두게 된 이유와 과정, 관련 경험, 학교를 그만둔 이후 주로 한 일과 경험한

어려움, 지원 경험과 요구, 학력의 의미 등과 함께 특히 가정 밖의 상황에서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이 경험하는 어려움이 무엇인지와 극복 요인을 탐색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이와 더불어 가정·학교 밖 청소년에게 가장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진로’와 관련해서는 향후 진로계획과 진로 결정 내용, 진로와 관련하여 주로 하는 일과 진로 준비 경험, 관련 애로사항, 장래 희망 및 직업에 대해 질문하고 대학 및 취업 희망 여부에 따른 어려움과 지원 요구 등도 함께 탐색하고자 하였다.

“근로(아르바이트) 경험”과 관련해서는 일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이유와 함께 구직시 어려웠던 점에 대해, 그리고 특히 가정·학교 밖 청소년임에 따른 차별 경험 등에 대한 내용과 한편으로는 불법적 일자리 제안이나 강요받은 경험을 묻는 내용도 포함하였다. “현재 경제 상태”에서는 원가정의 지원 유무, 저축과 빚, 신용불량 상태 여부 및 이유와 더불어 점차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는 휴대폰 개통을 통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는 내구제 대출(휴대폰 대출)에 대한 내용도 파악하고자 하였다. “자립”에 대해서는 원가정 복귀나 향후 자립과 관련된 계획, 자립에 필요한 조건, 또 어려운 점과 향후 지원받고 싶은 내용에 대한 질문을, “지원체계”와 관련해서는 가정 밖과 학교 밖 생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이 있는지, 또 경험했던 지원 정책 및 서비스의 만족도와 개선점 등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질문들을 포함하였다.

이러한 질문들은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하되, 과거 경험에 대해서도 회고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각 영역별로 구체적인 내용은 <표 IV-2>와 같으며, IRB심의에서 승인 완료되었다(IRB승인 번호: 202408-HR-연개금-001).

표 IV-2. 가정·학교 밖 이종 취약 청소년 대상 면접조사 내용

영역	면접내용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사 및 소개 인터뷰 소개 및 당부의 말(녹음 동의 및 개인정보보호 등 확인) 거주 지역, 이용 시설
I. 현재 상태 (건강)	1-1. 현재 근황, 주로 하는 일 1-2. 신체적 건강 상태, 질병 및 치료 1-3. 심리적 상태, 우울, 불안, 도움 요청 및 경험 유무 1-4. 사회적 관계(또래관계), 고립감(가정 밖, 학교 밖과의 관련성 탐색, 친구관계 등 포함) 1-5. 고민거리, 의논할 대상
II. 가정 밖 생활	2-1. 가정 밖 생활 이유 2-2. 가장 처음 집을 나온 시기, 현재 집을 나온 지 얼마나 되었는지 기간 2-3. 가정 밖 생활 경험(가출패 경험 포함) 및 쉼터 포함 관련 시설 경험

영역	면접내용
	2-4. 집을 나눔에 따른 어려움, 피해 경험(헬퍼 경험 포함) 2-5. 향후 지원받고 싶은 부분
Ⅲ. 학교를 그만둔 과정과 경험	3-1. 학교를 그만둔 시기(교급, 학년) 3-2. 학교를 그만두게 된 결정, 과정(집을 나오게 된 과정과 학교를 그만둔 경험)과 이유 3-3. 학교를 그만둔 이후의 생활: 주로 하는(했던) 일 3-4. 학교를 그만둔 이후 관련 어려움(또래 관계, 학업, 진로 등) - 후회 여부(만족도 0점~10점 질문), 학교를 계속 다녔다면 어떠했을 것으로 생각하는지 - 청소년에 비해 어렵거나 부족한 점이 있는지(개인 심리사회적 차원, 진로준비, 환경체계, 시간 관리 등) 3-5. 학교를 그만둔 것과 관련하여 지원받은 경험(청소년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3-6. 학력이 나에게 주는 의미 3-7. 가정 밖의 상황에서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이 경험하는 큰 어려움이 무엇인지, 이를 극복하기 위해(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지원
Ⅳ. 진로 관련	4-1. 진로 계획, 진로결정 상황 등(검정고시, 또는 무계획 등), 4-2. 현재 진로와 관련하여 주로 하는 일 4-3. 진로 관련 준비 경험과 내용, 애로사항과 지원 요구 - 진로 결정 및 계획이 있는 경우: 진로관련 준비 및 활동, 장기적인 진로 설계 및 준비, 영향을 미친 내용, 구체적인 관련 경험과 활동, 지역사회 지원 경험과 만족도, 어려움과 아쉬움, 필요 지원, 희망 직업교육 및 훈련, 지역사회 내 지원 요구 - 진로 관련 무계획 등: 이유, 진로 준비에 도움이 될 지원 내용 4-4. 장래 희망 및 직업 - 대학 진학 희망 시: 이유와 준비 시 어려움, 지원 요구 - 취업 희망 시: 이유, 취업 준비 미흡 내용, 극복할 수 있는 지원 내용
Ⅴ. 근로(아르바이트) 경험	5-1. 아르바이트/일 경험, 일하는 이유와 어려웠던 점, 관련 지원 경험 5-2. 구직 시 어려웠던 점과 관련 지원 경험, 지원 요구 - 구직 경로, 구직 시 어려웠던 점(가정·학교 밖, 학교 밖 관련 차별 등 포함), 그와 관련된 지원받은 경험, 지원 요구 - 불법적 일자리 제언 및 강요 경험
Ⅵ. 현재 경제 상태	6-1. 현재 경제 상황, 원가정 지원 유무 6-2. 저축, 빚, 신용불량 상태 및 이유 - 저축 내용 및 방법, 이유 - 빚이나 신용불량 상태 이유, 휴대폰 대출 경험과 이유, 해결 방안 6-3. 관련 지원 경험 및 요구
Ⅶ. 자립 관련	7-1. 원가정 복귀 또는 향후 계획 7-2. 자립 계획, 자립에 필요한 조건(심리정서적 독립·안정, 주거, 학력, 근로 여부 및 수입, 정서 안정) 7-3. 자립 결정 및 자립생활 시 어려운 점(가정·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자립 관련 지원 경험 7-4. 향후 지원받고 싶은 부분
Ⅷ. 지원체계	8-1.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기관 유무 - 가정 밖, 학교 밖 생활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지역사회 기관, 시설 등 인프라 유무 8-2. 경험했던 지원 정책 및 서비스, 만족도

영역	면접내용
	8-3. 개선점, 지원받고 싶은 내용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야기하지 못한 내용 추가 진술 • 감사 인사 및 면담 참여 경험 보고 등

* 출처: 김희진 외(2018), 김희진 외(2023)의 가정 밖 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면접조사 내용을 일부 활용하여 개발함.

3. 면접조사 방법

1) 면접 진행 방법

본 면접조사에 참여하는 가정·학교 밖 청소년들은 청소년쉼터에서 생활하거나 청소년 쉼터를 이용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해당 쉼터 공간에서의 대면 면접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청소년이 인근 카페 등 다른 공간을 희망할 경우 원하는 장소에서 면접을 진행하고, 코로나19 감염 우려, 또는 대면 면접을 불편하게 여길 경우 줌(ZOOM)을 활용한 온라인 화상 면접방식도 고려하였다.

면접 진행은 제한된 연구기간동안 충분한 질적 데이터 수집을 위해 연구책임자와 질적 연구전문가인 외부 공동연구원, 그리고 수년 동안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면접원으로 활동한 청소년복지 전공자(석사) 등 총 3인이 동시에 수행하도록 계획하였다. 질적연구에서의 면접원 역할의 중요성과 또 여러 명이 면접에 참여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본 면접조사에 대한 공통된 이해와 심층적인 면접 진행을 위해 면접원 교육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연구진 2인, 외부 공동연구원(질적연구전문가), 외부 면접원, 조사위탁기관의 관계자 2인이 참석한 이 워크숍에서는 연구책임자를 통해 본 연구의 배경과 개요에 대한 설명, 면접조사 대상자와 조사 내용에 대한 이해, 면접조사 방법 및 유의 사항 등에 대해 공유하였고, 이후 질적연구전문가의 전체적인 면접지 리뷰와 가이드라인을 청취하며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IRB 심의 승인 요건인 면접 참여 청소년 대상의 연구참여설명문 사용과 연구참여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수령 방법 등에 대해서도 공유하였다.

면접조사 내용이 상당히 많음에 따라 면접 참여 청소년의 피로도 감소와 연구의 주요 내용에 대한 자료수집을 위해 최대 1시간 30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질문별로 시간을 안배하고 유연하게 면접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특히, 가정 밖 경험 및 학교 밖 경험과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은 꼭 질문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면접 참여 시 청소년의 행동과

태도, 어투 등 비언어적인 자료수집을 위해 면접진행자 모두 현장노트(Field Note)를 작성하도록 당부하였다. 현장노트에는 청소년의 전반적인 인상과 태도, 면접 분위기, 분석 시 유의할 점 등에 대한 내용을 담되, 면접을 완료한 이후 전반적인 소회 등도 포함하도록 하였다. 면접 시작 시, 인터뷰 녹음에 대해 고지하고 면접이 완료되면 저장된 음성파일과 작성된 현장노트를 조사위탁기관과 연구진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조사위탁기관은 인터뷰 내용을 녹취하여 전사한 자료와 현장노트를 연구자에게 전달하였고 연구자는 이 자료들을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2) 연구 윤리 및 개인정보 보호

인터뷰 현장에서의 질적자료 수집과 분석 과정, 보고서 배포 등과 관련한 윤리적 이슈를 고려할 때(Creswell, 2015), 특히 본 면접조사 대상자인 가정·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여러 차원에서 민감한 상황임에 따라 민감정보 및 개인정보 등을 보호하는 데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연구 참여 청소년들의 익명화를 위해 명단과 전사자료 등에 개인 ID와 가명을 부여하고, 개인 연락처 등은 블라인드 처리하였다. 또한 인터뷰 시작 전에 본 연구의 목적과 면접 과정(희망 시 면접 중단 및 철회 가능 고지)을 설명하고, 연구자료 수집과 결과 도출에 이르기까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하였다.

이를 위해 일차적으로 면접조사 계획과 면접조사 내용 및 질문지, 면접조사 참여 설명문과 연구 참여 동의서·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에 대해 기관 IRB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이후 질적자료 수집과정과 자료처리 과정 및 분석에 있어 최대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들을 블라인드하고 관계자 간 해당 자료 공유 시 모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암호화된 자료들을 전달할 수 있도록 사전 논의하였다.

인터뷰 시작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익명화 작업 및 암호 설정 등에 대해 안내하고, 면접 과정에서 가정 밖 및 학교 밖 상황과 관련한 민감 질문에서는 최대한 부정적인 어감을 피하고, 적절한 어휘를 사용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집을 나오게 된 이유와 관련해서 불행한 가족관계와 폭력 피해 경험, 그리고 헬퍼 등을 통한 적절치 못한 일자리 강요, 대출 경험 등에 대한 면접 진행 시에는 해당 청소년의 언어적, 비언어적 태도를 민감하게 살피 현재 상황에 대한 진술과 과거 경험에 대한 회고 시 불편함을 최소화하였다. 면접 참여 청소년이 힘들어하거나 불편한 기색이 포착되는 대로 계속적인 질문을 통한 탐색보

다는 분위기를 전환하여 청소년에게 힘든 면접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였다.

인터뷰가 완료되면 해당 음성파일을 녹취하여 전자자료를 제작하고 이를 연구진에게 공유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역시 개인정보보호에 위배되지 않도록 모든 자료를 암호화하고 핵심 관계자만이 자료를 공유하였다. 분석 결과에 대한 연구진 및 전문가 검토 등을 위한 회람 시 개인정보가 나타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였다.

4. 분석 방법

본 연구의 가정·학교 밖 청소년 대상 면접조사 자료는 현상학적(phenomenological) 연구 방법에 의해 분석되었다. 현상학적 연구는 이론이나 모델 개발보다는 연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담아내고자 하는 방법으로,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가정이나 믿음, 이론적 지향이나 가치관, 선입견을 내려놓고, 연구 참가자의 체험의 본질을 밝히는데 목적을 둔다(Creswell, 2015). 특히, 청소년들이 가정과 학교를 모두 떠나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의 경험이 어떠한지 이들의 입장에서 더욱 생생하게 기술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이들의 삶에서 가정 밖과 학교 밖이라는 이중적 취약성의 본질적 의미는 무엇인지를 도출해 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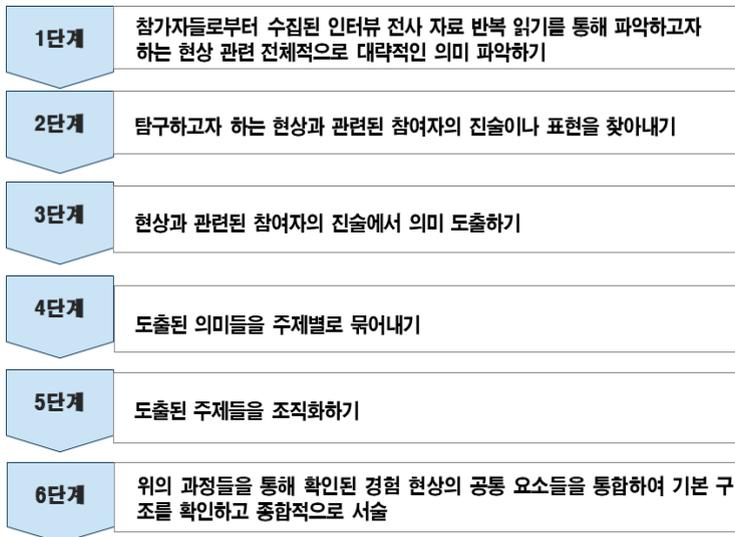
이를 위해 연구자는 선행적 전제나 일반적 가치관을 유보해야 하는데, 이는 현상학적 환원을 의미하며, ‘에포케(epoché)’, ‘괄호치기(Bracketing)’, ‘판단중지(suspension)’ 등으로 지칭된다(서경혜, 2023; 신경림, 2003). 연구자의 이론적 지향이나 가치 판단 유보를 위해서 기존에 수행된 연구물을 고찰하더라도, 이를 기반으로 한 자료 분석의 방향을 수렴해 가는 것을 지양하며, 가급적 수집된 자료 내에서의 의미를 도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연구 참가자들은 적절성과 충분성의 원칙(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김한별, 2018)에 의해 섭외되었으며, 그에 따라 자료수집 시점에서 가정 밖 생활을 하고 있으며 학교에 다니지 않거나, 학교를 그만둔 경험이 있는 청소년 15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이중 취약성에 대한 경험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가정과 학교 밖 생활경험에 대하여 심층 인터뷰를 실시한 후 인터뷰 자료는 연구 참가자의 동의를 구한 뒤 녹음되었고, 녹음된 자료는 전사하여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현상학 연구방법 중 Colaizzi(1978)의 절차에 따라 분석을 시도하고자 하였다(신경림, 2003; Morrow, Rodriguez, & King, 2015).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Giorgi(1975), Colaizzi(1978), Van Manen(1997), Moustakas(1994) 등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정립되어 왔다(이남인, 2005). 대표적으로 Giorgi(1975)의 방법은 연구 참가자의 개별 경험에 대한 심층적 기술을 통해 개인적 경험의 의미를 밝히는데 좀 더 초점을 두고 있으나, Colaizzi(1978)는 연구 참가자 개별 경험의 특성보다는 전체 연구 참가자의 공통적 속성과 경험의 본질 등에 좀 더 초점을 맞춘다(이성호, 곽재성, 2024). 그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가정과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의 경험을 아우르는 본질은 무엇인지 그 속성을 살펴보고자 다음과 같이 대체로 기존 연구에서 수행해 온 6단계의 절차에 따라 Colaizzi(1978)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 1단계는 참가자들로부터 수집된 인터뷰 전사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며, 파악하고자 하는 현상의 본질과 관련하여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함.
- 2단계는 전체적 의미를 전제로 하고 탐구하고자 하는 현상과 관련된 연구 참가자들의 진술이나 표현 등을 찾아내는 작업을 함.
- 3단계는 현상과 관련하여 선택된 참여자의 진술에서 의미들을 도출해 냄.
- 4단계는 도출된 의미들을 주제별로 묶어내는 작업을 수행함.
- 5단계는 4단계에서 도출된 주제들을 통합하면서 조직화하는 설명을 작성함.
- 6단계는 위의 과정들을 통해 확인된 경험 현상의 공통 요소를 통합하여 본질적 구조를 확인하고 종합적으로 서술함.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가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의미를 도출하고 주제들을 묶어내는 과정을 의미 구성, 주제, 주제군으로 조직화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를 주제군(대주제)별로 표로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질적 경험 자료의 범주화 과정에서 현상학적 분석을 조직화하는 과정은 연구자별로 다소 상이하게 표현하고 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주제-주제결집-범주목록’(이성호, 곽재성, 2024), ‘구성된 의미, 주제, 주제군, 범주’(이지영, 2023), ‘구성 의미, 주제, 주제군’(정민숙, 한재희, 2023)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자료 분석 과정은 수집된 전사자료로부터 주제군을 도출해 내는 귀납적 과정을 따르지만, 범주화 결과를 제시하는 표에서는 주제군을 먼저 제시하고, 주제, 구성 의미 순서로 나타내었다.



* 출처: Colaizzi(1978), 김분한 외(1999:1211), 이지영(2023:650-651)의 연구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그림 IV-3. 가정·학교 밖 이중 취약 청소년 면접조사 자료분석 단계 개요

과거 선행연구들이 가정 밖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을 따로 연구하거나, 또는 한 연구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집단별로 따로 분석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던 만큼, 본 연구에서는 전사자료 반복 읽기를 통해 중요한 의미들을 포착하는 과정에서 가정과 학교 밖 동시 이탈 과정과 그에 따른 결과, 문제점, 가정 밖 및 학교 밖 상황에 따른 지원 서비스 경험(서비스 연계에 대한 인식 등) 등에 초점을 두어 관련된 진술들에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진술문을 통한 의미 도출과 주제 부여, 주제군 도출 등 분석 자료의 범주화를 시도하였다. 분석 이후에는 인터뷰 자료 분석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현장전문가 자문, 연구진과의 상호 검토, 설문조사 결과 등 기존 연구자료와의 비교 검토 등 다각적 차원에서 관련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분석 결과의 엄격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면접 참가자들의 주요 배경을 살펴보면 <표 IV-3>과 같다.

표 IV-3. 연구 참가자 주요 배경

ID	이름 (가명)	성별	출생 연도	지역	가정 밖 생활	학교를 그만둔 시기	학력 취득	희망 최종 학력	거주 현황	아르바이트 경험	가정 복귀 계획
1	이○호	남자	07년	중소 도시	14개월	초중퇴	초·중졸 검정 고시, 고졸 검 정고시 예정	대학	단기쉼터	빵공장, 물류센터 (현재)	없음
2	박○민	여자	04년	중소 도시	17개월	고1	고졸(검정고시)	대학	단기쉼터 (반복 경험)	수능 준비	없음
3	정○영	여자	07년	중소 도시	1개월	고1	고졸(검정고시)	대학	단기쉼터	치킨, 고깃집, 편의점	고민 중
4	백○우	남자	06년	대도시	14개월	고2	고졸 검정고시 준비 중	미정	단기쉼터	고깃집, 홀서빙	없음
5	이○주	여자	06년	대도시	6개월	고2	고졸 검정고시 준비 중	미정	단기쉼터	고깃집	없음
6	강○은	여자	08년	대도시	1개월	고1	고졸 검정고시 응시 예정	대학	단기쉼터	고깃집, 카페	미정
7	윤○호	남자	99년	대도시	10년	중3	중졸(검정고시) 고졸 검정고시 예정	고졸	단기쉼터(10년 동안 여러 쉼터 경험)	주방보조, 서빙, 보일러공장, 목공작업소	없음
8	장○호	남자	07년	대도시	4년(첫 3년 은 가출과 복귀 반복)	고1	고졸 검정고시 재응시 예정	고졸	단기쉼터	목공	없음
9	임○아	여자	08년	대도시	6개월	고1	고등학교 재입학 예정	대학	단기쉼터	공방	없음
10	정○재	남자	08년	대도시	12개월	중2	중졸, 고졸 (검정고시)	대학	중장기쉼터	아르바이트, 컴퓨 터회사 인턴십 (꿈드림센터)	없음
11	김○희	남자	07년	중소 도시	15개월	고1	고졸 검정고시 준비 중	고졸	단기쉼터	고깃집, 횡집 등 서빙 아르바이트 중 부상	미정
12	정○진	남자	08년	중소 도시	16개월	고1	고등학교 복학 예정	대학	단기쉼터	없음	없음
13	김○선	여자	04년	대도시	2개월	고2	수시 입시	의학 전문 대학원	단기쉼터	서빙 등	없음
14	이○현	여자	01년	대도시	1년4개월	고2	고등학교 자퇴 후, 대학재학 중 (휴학)	—	단기쉼터	횡집 등 서빙, 물류센터, 판촉, 학원 학습지도	없음
15	권○솔	남자	06년	대도시	8개월	고2	고졸 검정고시 응시 예정	대학	단기쉼터	아르바이트 면접 응시 후 탈락 경 험 많음	불확실

5. 분석 결과

1) 가정을 나오게 된 배경: 가족 구성원과의 갈등

(1) 부모의 강압적 양육, 폭력 등을 피하기 위해 가출

가출 청소년들이 집을 나오게 된 배경에는 부모와의 갈등이 자리 잡고 있다. 부모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고 폭력을 피하기 위하여 혹은 부모의 학대나 강압 등을 수용하기 어려워 집을 나오게 되는 것이다.

① 친아버지의 부당한 요구와 폭력

연구 참가자 이○호의 경우 부모가 이혼하였고, 친아버지는 친어머니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 증언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아버지로부터 폭력을 당하고 집을 나오게 된다. 이○호의 어머니는 □□출신이며(다문화가정), 한국에서 이○호와 여동생을 낳았으나, 이○호는 유아기 시절을 주로 □□에서 보냈다. 한국으로 돌아와 초등학교 4학년까지 다니다 다시 □□으로 돌아가 외가에서 생활하였다. 그 이후 지난해 7월에 아버지 집에서 생활을 시작하였으나, 아버지와 갈등이 불거지게 된 이후 집을 나오게 된 것이다.

이○호: 아빠가 집에서 쫓아내 가지고 제가 파출소에 가서 경찰분들과 연계해서 쉼터로 갔어요. 저도 쉼터를 물렸어요. (중략) 엄마, 아빠 이혼을 한지 10년 넘었거든요. 제가 □□에서 어머니가 혼혈이라서 엄마 따라가서 □□에 몇 년 살다가 다시 한국에 최초로 와서 아빠 집으로 갔는데 지낸지 얼마 안 되어서 2주 만에 쫓겨나서 그렇게 됐어요. (중략) 엄마가 다른 남자랑 바람 피웠다고 거짓말하고... 아빠랑 산다고 그런 식으로 거짓말해달라고 해서 저는 싫다고 했어요. (아빠의 폭력으로 집을 나와 경찰서로 감)

② 부모의 학대

연구 참가자 정○영은 부모의 ‘강압적 요구’와 ‘압박’을 견디기 힘들어 집을 나오게 된다. 정○영은 체형 관리 때문에 다이어트 캠프에 8개월 정도 참여한 경험이 있으며, 캠프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뒤에도 부모의 요구로 식단 관리를 강요받거나 하루에 6시간씩 운동을 해야 하는 생활을 해야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의 요구는 지나친 압박으로 받아들여졌고, 견디기 힘들어 집을 나온 뒤 머물 수 있는 쉼터를 찾게 되었다.

정○영: 집에 있었을 때는 부모님 압박이나 가정 상황을 보면 되게 불안했고 힘들었어서 너무 싫었는데 여기 와서는 그런 걸 이제 학대도 하실 때도 있고 먹는 거에 대한 제가 다이어트 때문에

어머니도 그런 거에 되게 압박을 하셔서 간식도 못 먹었는데 밥도 잘 못 먹고 그랬는데(중략)
부모님 학대 때문에 (집을 나오고 바로 쉼터로 오게 됨)

③ 학교 및 진로 관련 부모의 강압적 요구 등으로 갈등

연구 참가자 중 일부는 등교 및 진로에 대한 부모의 강압적 요구를 견디지 못하여 집을 나오기도 하였다. 임○아는 학업 문제와 일상생활 관련 이슈로 초등학교 6학년 시기부터 부모와 갈등이 잦아졌고, 고등학교 진학 관련 의견 차이로 갈등이 극대화되어 집을 나오게 된다. 연구 참가자 정○진의 경우도 학업과 관련하여 부모의 요구와 충돌이 잦아지면서 집을 나오게 되었다. 권○솔도 학업 및 친구관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부모나 주변 어른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듣고 해결방안을 조언해 주기보다는 등교를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오게 되었다고 한다.

임○아: 초등학교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초등학교 6학년 올라가면서 중학교 입학할 시기쯤 부모님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사이가 안 좋아진 계기는) 처음에는 핸드폰이었고 그 다음에 친구들이었고 그 다음은 남자친구, 그 다음에는 화장품 이런 걸로 계속 그 다음 마지막은 고등학교였어요. (중략) 제가 특성화고 진학하려고 했는데 부모님이 계속 말리셔서 (중략) 결국에는 제가 이겼어요. 그때 싸운 동시에 엄마, 아빠한테 맞고 집을 나와서 제가 집 밖에서 원서를 특성화고로 넣고 집에 들어갔어요.

정○진: 공부? 초등학교, 중1 때까지는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하기 싫어서 (가족들과 마찰이 있었음)

권○솔: 부모님이 만약에 저한테 학교를 가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드는 생각은 학교 가기 싫다. 예요. 왜냐하면 괴롭힘도 당하고 있고 제 목소리를 들어주는 분들이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학교를 가기 싫어서 가출을 했거든요. 했다가 다시 들어가면 또 학교를 가야 되고 학교 가기 싫어서 또 하면 다시 돌아오면 학교를 가야 되니까 그게 반복돼서 상당히 불편했죠.

④ 부모와 일상생활 갈등 심화

가정생활에서 부모와 청소년기 자녀들은 의견 충돌이 잦아지게 된다. 하지만, 갈등이 조정되지 못해 연구 참여 청소년들은 가정을 나오게 되었다. 강○은은 아버지는 계시지 않고 어머니와 생활하고 있는데, 사소한 문제들로 충돌이 많아져서 집을 나오게 되었다. 연구 참가자 김○선도 부모가 이혼한 뒤 어머니와 생활하고 있지만, 어머니의 학대가 지속되자 가출을 하게 된다. 권○솔의 사례도 등교와 관련된 의견 충돌뿐 아니라, 생활 수칙과 관련해서도 부모와의 마찰이 빚어지면서 집을 나오게 되었다.

강○은: 그냥 붙어 있으면 싸워서 나왔어요.

면접자: 주로 누구랑 싸우게 되었을까요?

강○은: 엄마

면접자: 엄마랑 어떤 점이 잘 안 맞았을까요?

강○은: 그건 모르겠어요. (중략) 사소한 걸로 싸워서

김○선: 엄마랑 싸운 게 가장 큰데 어릴 때부터 엄마가 많이 때려서 그게 쌓이다 보니까 나온 것 같아요.

권○솔: 부모님이 제 말을 잘 안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저하고 위에 누나가 있는데 누나랑 똑같이 대해 주시면 상관없는데 누나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는 누나 말을 따라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런 거 때문에 버티고 버티다가 못 버틸 것 같아서 나왔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집만큼 제한되는 곳이 별로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다른 곳에 있으면 어디든 들어가서 잘 수 있잖아요. 쉬터면 허락 받고 9시까지인가, 외출했다가 돌아와서 잘 수 있는데 집은 통금 시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요즘 청소년들은. 그렇게 들어서 알고 있고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 때문에 집을 나오게 된 거죠.

(2) 계부모로부터 차별과 폭력 경험

친부모와의 갈등이 심화되어 청소년들이 가출을 행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재혼 가족을 형성하는 경우 계부모와의 원만한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충돌을 빚게 되면서 가출을 하게 된 청소년들도 있었다. 특히, 재혼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는 각자의 원가족 자녀들을 동반하여 새롭게 가족을 이루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새로 맞게 되는 어머니나 아버지와의 관계 형성은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다.

① 새어머니로부터의 차별 경험

연구 참가자 장○호는 자신이 새어머니의 친아들에 비해 차별당하고 있다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집을 나오게 되었다. 특히, 자신이 부당함을 인식하는 상황에서 아버지의 공감이나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강압적인 큰소리를 내어서 견디기 힘들었음을 토로하였다.

장○호: 부모님이랑 사이가 멀어져서 (중략) 재혼 가정이다 보니까 새엄마가 차별부터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중략) 일단 (새엄마의) 친아들이 있는데 청소년든지 친자식이 아닌 아빠 쪽 애들한테만 하라고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중략) (친)누나나 (친)동생은 여자다 보니까 차별이 거의 없었는데 저는 혼자 남자다 보니까 (새엄마) 형 하나에 누나 한 명 있는데 형하고 저하고 차별을 많이 했죠. (아빠도 강압적이었고) 조금만 어긋나면 큰소리치고...

② 새어머니의 폭력, 아버지의 강압적 양육

연구 참가자 윤○호는 새어머니와 갈등이 있었으며, 알코올 중독이 있는 새어머니의 폭력과 위협을 감당하지 못하여 집을 나오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친아버지의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강압적 요구가 부가되어 몇 차례 가출을 감행하였고, 집을 나온 지 10여 년 동안 가정 밖 청소년으로 생활하고 있다.

윤○호: 의견도 의견이지만 (새엄마가) 되게 고집이 세셨어요. 그리고 알코올 중독이 있으셨고 (중략) 요구도 요구대로 하고 요구가 이뤄지지 않으면 폭력을.. 때리기도 하고 칼로 위협도 하고 그래서 못 버티겠더라고요. (중략) 아빠가 일주일에 한두 번 집으로 오니까 하루 이틀 쉬고 또 출근하시고 대부분 일주일 거의 2주일쯤 안 들어오시고 (중략) 이게 엄마도 고집이 엄청 세고 아빠도 엄청 세요. 제가 뭐 하고 싶다고 그래도 너는 이 길로 가야 돼, 왜냐하면 아빠가 지금 그거 하고 있거든요. ○□△(중장비 분야). 근데 아빠나 엄마는 계속 그 길로 가라고 (중략) 저는 요리하고 싶거든요. 계속 언제까지 그런 걸 내가 알아서 하다 보니까

③ 새아버지의 폭력

연구 참가자 백○우는 새아버지의 폭력으로 집을 나오게 되었으며, 쉼터에서 생활하는 지는 1년이 좀 넘는 상태이다. 지난해 4월부터 짧은 기간 가출을 한 경험이 있었고, 일시 쉼터 체류 경험이 있다. 그 후 지난해 7월에 집을 나온 뒤 아는 쉼터 선생님에게 연락을 하여 단기 쉼터로 연계되었고 쉼터 생활을 하고 있다.

백○우: 제 아버지가 새아버지예요. 같이 살다가 좀 많이 맞기도 하고 술 먹고 들어와서 많이 때리기도 해서 그냥 집을 나오게 됐어요.

(3) 부부 간 갈등과 자녀에 대한 부정적 양육

① 부부 간 갈등 심화 및 자녀에 대한 인격 모독

연구 참가자 이○주의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잦은 갈등과 충돌을 목격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고통을 겪게 된다. 그리고 부부간의 불화가 심화되면서 자녀에게도 부정적인 언사나 폭력을 행사하게 되었는데, 결정적으로 남자친구에 대한 부모의 인식에 심한 거부감을 갖게 되었고 가출을 행하게 되었다.

이○주: 그냥 원래부터 엄마, 아빠 사이가 많이 안 좋았고 둘이 계속 싸우고 어려울 때 집 다 부서지고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보는 게 질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전 남친을 사귀었는데 부모님이 전 남친을 마음에 안 들어 해서 나한테 심하게 말하셨어요. 너 개한테 XXX 끝까지 다 했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못 참겠다 싶어서 바로 나왔어요. 그 일이 터져서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다. 그래서 바로 짐 싸고 원래는 아는 언니랑 자취했었는데 3달 정도 살다가 그 언니랑 싸워서 여기로 오게 됐어요.

② 부부 간 갈등, 자녀에 대한 폭력성 노출

연구 참가자 김○희도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 자신에게도 폭력성이 표출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쉼터를 선택하게 된다.

김○희: 그때 당시에는 저희 아버지도 한 번씩은 기분이 안 좋으시면 화가 나시는데 그때도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어머니랑 아버지랑 이제, 아버지가 좀 화가 나서서 어머니는 어머니 방에 있었고 아버지는 아버지 방에 있었는데 저한테 갑자기 화를 내시기에 저는 좀 억울해서 그때 당시 유튜브에 있는 초능력이라는 TV가 있어요. 유튜브. 거기 쉼터 생활이라고 나와 있길래 저도 처음에는 이런 데 들어가 볼까 볼똥 튀는 것보다는 낫겠다고 철없는 생각으로 여기에 전화해서 들어오게 됐어요.

(4)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 및 폭행

한편, 부모와의 직접적인 갈등이나 충돌보다는 가족 구성원이나 친척과의 갈등으로 가출을 한 사례들도 있었다.

① 주 양육자인 고모와의 갈등

연구 참가자 정○재는 유아기 때 부모의 이혼으로 보육원에서 성장하다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고모집에서 양육을 받게 된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고모에게 순응하는 삶을 이어갔지만, 청소년기에 이르면서, 고모의 양육방식에 대하여 부당함을 느끼며 가출을 실행하게 된다.

정○재: 처음에는 초등학교 때부터 보면은, 고모가 하라는 대로만 하고 안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욕먹으니까 (중략)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돼서 (중략) 제가 교회를 다녔거든요. 근데 끝나고 성경 같이 읽는 거 거기서도 공부하라고 하고 운동이나 그런 것도 하라고 하고 발레도 하라고 하고 기타도. (중략) 학원도 힘들면, 몸이 안 좋으면 쉬고 싶는데 버럭버럭 소리 지르고 화내면서. 그리고 밥 먹는 것도 순밥이나, 제대로 안 챙겨주시고 (중략) 용돈도 제가 못 받아서. 거의 왕복, 거의 걸어서 SM중학교에서부터 YJ체육관 쪽에, ***경기장. (중략) 걸어서 다녔거든요. 뛰어서 1시간 정도 걸려..(중략) 원래 부모님이 저를 키웠는데 엄마는 외국 나가셨고 그냥. 아빠도 저희 그냥 키우지 않아서. 그래서 보육원에 보냈는데 보육원에서 한 1, 2년 있다가 고모 집에서 9, 10살 때쯤 와서 지냈는데, 저는 이 안에서라도 그래도 꼭 참고 살았는데 (중략) 컴퓨터가 애초에 사양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오래 쓰면 어쩔 수 없는 건데. 제가 고장 났다고 계속 욕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화나가지고. 안 부셨다고 해도 안 믿어 주니까. 핸드폰을 바닥에 던졌어요. 핸드폰을 바닥에 던지고 나갔어요. 그냥 짐 같은 거 챙기고. 그 전에도 어떻게 할 생각이었냐면, 계획이 만 15세가 되면 알바를 할 수 있으니까 그냥 그때까지 좀만 버티다가 알바를 하자라는 생각이. 한 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때까지만 페인처럼 살다가 빨리 나가서 살자고 생각을 했거든요. 짐 싸서 나가려고 하는데 칼 들고 막 이래서. (중략) 제가 빨리 내려와서 경찰에 쉼터로 가고 싶다고 말씀 드리고

② 오빠의 폭행

연구 참가자 박○민의 경우에는 학교를 그만두고 집에 머무는 동안 오빠와의 갈등이 커졌고 폭행까지 당하게 되어 가출을 하게 된다. 이 청소년은 계속 학교에 다녔다면 가출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하였다.

박○민: 공무원 시험을 잠깐 준비하려 ○○원에 있는 대형 학원에 갔었고요. 근데 또 어떤 이유로 공무원 시험이라는 게 자퇴를 하기 위한 계기, 이유, 핑계 이런 식으로 작용했던 걸 나중에 알려드렸고 그래서 한두 달 하다가 그만둔 상태로 쪽 살았어요. 알바 기간이 하면서. 그러다가 오빠한테 폭행을 당하고 입소하게 됐어요.

박○민: 학교를 그만두지 않고 졸업을 했다면 집을 나오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살에 자퇴를 했으니까 고등학교를 다녔다면 대학교를 갔을 테고 그러면 집안에서 불화가 그렇게까지 없었을 것 같아요. (중략) 오빠도 집안에 계속 있었고 저도 당장 알바는 하고 있었지만 돌아와서 집에 계속 있었으니까 오빠와 저의 갈등에서 엄마가 중재를 못해 주시기도 했고

표 IV-4. 가정을 나오게 된 배경

주제군	주제	구성 의미
가정을 나오게 된 배경: 가족 구성원과의 갈등	부모의 강압적 양육, 폭력 등을 피하기 위해 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아버지의 부당한 요구와 폭력 • 부모의 학대 • 학교 및 진로 관련 부모의 강압적 요구 등으로 갈등 • 부모와 일상생활 갈등 심화
	계부모로부터 차별과 폭력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어머니로부터의 차별 경험 • 새어머니의 폭력, 아버지의 강압적 양육 • 새아버지의 폭력
	부부 간 갈등과 자녀에 대한 부정적 양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부 간 갈등 심화 및 자녀에 대한 인격 모독 • 부부 간 갈등, 자녀에 대한 폭력성 노출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 및 폭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양육자인 고모와의 갈등 • 오빠의 폭행

2) 집을 나온 뒤 청소년쉼터 연계까지의 여정

(1) 청소년쉼터 입소 전의 생활: 노숙과 방황

① 노숙 생활로 기본적 생활 여건인 의식주 어려움 경험

일부 연구 참가자들은 쉼터에 입소하기 전에 노숙하거나 방황하며 지내기도 하였다. 건물의 비상계단이나 야외에서 지내기도 하고, 놀이터나 공공 화장실, 거리의 정자 등에서 지내기도 하였다. 이들의 노숙 생활은 2주 내외 정도이며, 장기화되지 않아서 범죄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면접자: 혹시 이렇게 가정 밖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백○우: 아무래도 쉼터에 안 들어왔을 때는 밥 먹는 거나 씻는 게 가장 문제였던 것 같아요.

면접자: 혹시 쉼터에 오지 않고 밖에서 생활하셨던 적도 있었나요?

백○우: 일주일 정도

면접자: 어디서 지내셨어요?

백○우: 밖에서 자거나 비상계단에서 자거나 그게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면접자: 여기 오기 전에는 여기저기 막 일정한 거주지 없이 지낸 적이 있어요?

정○재: 네. 놀이터에서도

면접자: 놀이터에서도 자고? 며칠이나 보냈던 것 같아요?

정○재: 총 기간으로 따지면 거의 2주 (중략) 겨울 때는 화장실에

면접자: 화장실에도 있었고. 화장실에 꾸그리고 앉아서?

정○재: 네.

② 친구 집에 기거

일부 청소년들은 단기간 친구 집에 머물기도 하였다. 친구 중 혼자 자취를 하는 경우 집을 나온 또래들이 일정 기간 함께 지내게 된다. 한편, 기출한 청소년들이 어울리는 과정에서 담배나 음주를 하게 되는 사례도 있으며, 일탈행동이 범죄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장○호: 노숙도 하고

면접자: 애들하고 개네들 집 나온 애들?

장○호: 나온 애들은 아니고 그냥 혼자 사는.

면접자: 개네는 집을 딱히 나온 건 아닌데 ○호랑 같이 친구 해 주려고 밖에서 자기도 하고, 그때 생활에서 제일 힘들었던 건 뭐였던 것 같아요?

장○호: 어린 나이에 생활비가 없는 게 가장 힘들었죠.

면접자: 그때가 오토바이 훔칠 때인가?

장○호: 그 전이죠.

면접자: 집에 있을 때 훔친 거예요?

장○호: 중학교 3학년 때 (중략)

면접자: 친구들과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혼자서 그렇게?

장○호: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임○야: 친구가 자취생이다 보니까 약간 집에 먹을 게 없어서. 물도 거의 없었고 집이 너무 더러웠어요. 매일 치워도 더러웠고 맨날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중략) 저도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웠는데 매일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면접자: 그렇죠. 요즘은 담배는 끊었어요?

임○야: 술은 안 마시는데 담배는 피우고 있어요.

③ 오갈 데 없이 방황하는 생활 경험

연구 참가자 윤○호도 본격적으로 집을 빠져 가출을 하였지만, 마땅한 거처를 찾지 못하였고, 짐가방을 끌고 대형마트나 주변 공공장소를 오가는 생활을 했었다. 배를 채우기 위해 마트의 시식코너를 돌며 허기를 달랬고, 마트의 공용공간에서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었다. 그 과정에서 마트에서 연구 참가자를 눈여겨본 어른의 도움으로 배불리 식사를 한 경험도 있었다.

윤○호: 이게 처음에 무작정 쉼터에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나오자마자 쉼터에 들어간 게 아니고 방황을 했어요. (중략) 거기 *마트(대형마트)가 있거든요. 엄청 큰 *마트가 하나 있어요. 거기 시식코너로 식사는 때우고 잘 데가 없으니까 정자 같은 데서 누워 자고 (중략) 좀 다양한 분들을 만났던 것 같아요. (중략) 한 할아버지도 만났고 거기 직원 아줌마도 만났고 (중략) 그냥 집에서 갈데 있어 나왔다고 그러니까. 거기 옆에 먹을 거 있는 데가 있거든요. 짜장면이랑 짬뽕 사줬어요. 그리고 씻고 다니라고 찜질방도 데려다 주고...(중략) 그 할아버지집에서 잠깐 살았어요. (중략) 저는 진짜 감사하게 여겨요.

윤○호: 떠돌이 생활했었다 했잖아요. 그때 *마트가 문 닫으면 저기 터미널까지 걸어가요. (중략) 거기까지 걸어가는데 거의 30분에서 한 시간 정도 걸려요. 근데 모든 *마트들은 쉬는 날이 똑같잖아요. 거기 가면 또 거기도 그래요. 그럼 다시 C시로 가요. 제가 C시에서 걸어서 A시까지 가봤어요. (중략) 거기도 C시 가는 길에 *마트가 하나 있거든요. 가서 하고. 그리고 BD동에도 새로 지었다는 곳에 가봤는데 거기는 D대형마트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중략) 저는 그때 그리고 *마트가 중간에 TV 있는 데가 있어요. (중략) 쉬면서 보라고 TV를 설치했더라고요. 그 *마트는, 그걸로 맨날 MBC 쇼챔피언 보고 11시 정도에 문 닫잖아요. 그러면 캐리어 끌고..

(2) 계획적·장기적 가출로 전환

처음 시도한 가출은 대체로 충동적이거나 계획 없이 집을 나오는 경우가 주를 이루었으며, 가정에 복귀하게 된다. 하지만 가정으로 복귀 후에도 근본적인 문제가 경감되거나 해소되지 않으면, 청소년들은 다시 집을 나오게 된다.

① 부모로부터 가중되는 스트레스를 벗어나기 위한 가출 계획

임○아도 초기 가출은 별다른 계획 없이 부모와의 갈등으로 유발되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었다. 이후에는 부모의 학대 사진 자료를 챙겼으며, 다시 가정으로 복귀하지 않기 위한 준비를 하고 집을 나왔다고 하였다.

임○아: (처음에 집을 나올 때는) 무계획이었어요. 진짜 정신적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싶은 (중략) 이 생각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중략) (부모님이) 자기 생각을 주입하는 느낌이에요. 니였으면 무엇을 했고 옆에서 계속 그런 식으로 하거나 네가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고 그게 올바른 생각이라고 생각하나? 제 의견을 말하면 말대꾸 하지 마라 (중략) 손찌검이 어릴 때 심했고

면접자: 아버지가? 엄마도?

임○아: 처음에는 엄마였고 중학교 올라오고 아빠였어요. (중략) 처음 탈출하게 됐던 게 증거가 하나 남아서 사진 찍은 게 하나 있었어요. (중략) 제가 도망을 가서 ***도까지 내려갔다가 유심 칩이 위치 추적이 되니까 뺏는데도 거기로 떠서 엄마가 직접 오신 거예요. (중략) 여기 오기 전에 살았던 곳이라서 친구들도 볼 겸 내려갔는데 엄마가 와서 학교에서 두드려 맞다가 경찰들이 와서 경찰차를 타잖아요. 엄마랑 분리가 되면서 사진을 슬쩍 보냈거든요. 여기 눈 시퍼렇게 멍들고

면접자: 그게 몇 학년 때였어요?

임○아: 그때가 중학교 3학년 때였어요. 그것도 실수라고 하지만 어쨌든 때리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때 경찰분이 인계해 주신 거예요.

② 충동적·일시적 가출에서 계획적 가출로 전환

일부 참가자들의 경우 처음 가출은 충동적으로 이루어져, 방황하며 시간을 보내다 집으로 다시 돌아갔다. 하지만, 부모와의 갈등과 충돌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소년들은 다시 가출하였으며, 이 경우는 초기 가출에 비해 좀 더 계획을 세우고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윤○호는 초기 가출 후 집으로 돌아갔지만, 새어머니가 짐을 싸서 나가라고 하였고, 초기 가출 시에는 준비 없이 집을 나갔지만 이후에는 필요한 물품을 챙겨 들고 집을 나가게 되었다.

윤○호: 뭐랄까 1, 2학년 때 가출을 해도 쉼터에 들어가면 아빠가 집에 데려왔을 거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이랬는데 새엄마가 짐 싸서 나가라는 거예요. 이제는 찾지 않겠네 하고 짐을 다 싸 들고 캐리어에 짐을 다 싸 들고 나왔죠. (중략) 경찰이 연계해 준 거였거든요. (중략) 왜냐하면 그때는 정자 아니면 화장실에서 잤거든요. 화장실 변기에서. 왜냐하면 변기에 누가 들어갔는데 안 나오니까 (중략) 인계를 해서 처음에 쉼터에 들어갔어요. 근데 부모님, 아빠가 와서 왜 이런 데를 왔어 이러면서. (집으로 데리고 가고) 계속 반복이었거든요. 또 집에 들어가면 (중략) 한 1, 2주일 동안은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학교에 가서 안녕 애들아, 하면서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 때 완전히 나왔죠.

(3) 청소년쉼터 연계 과정

청소년들이 집을 나온 뒤 안전한 장소에서 체류하며 지낼 수 있다면 바람직하겠지만, 가출한 뒤에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고 방황하는 사례도 있었다. 가출 이후 자신이 연락할 수 있는 곳으로 쉼터가 있다는 것을 알았던 사례는 소수에 불과하였다.

① 사회복지 공무원에 의한 연계

연구 참가자 정○재는 고모와의 갈등으로 집을 나왔고, 집 밖에서 방황하다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할 뻔한 경험도 하였다. 고모와의 충돌뿐 아니라 아버지의 폭력도 더해진 상황에서 경찰이 개입하게 되었으며, 사회복지 공무원의 안내로 쉼터로 연계되었다.

정○재: 저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어요.

면접자: 고모가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어요?

정○재: 네, 저 억지로 잡아서. 밖에 있는 트럭으로 끌고 가서. 아빠랑(중략)

면접자: 그때는 병원 나와서 또 집으로 갔어요? 아예 밖으로 도망갔어요?

정○재: 집으로 갔다가. 그때 기억이 안 나서 다시 아침에 밖으로 나간 것 같아요.

면접자: 그리고 밖을 떠돌다가 여기로 왔어요? 결국은?

정○재: 고모 집 다시 갔다가 저녁에 밖으로 나왔다가. 아예 먹을 것도 없었으니까 지낼 곳이 마땅히 없었으니까 그때는 쉼터 존재를 몰랐어서

면접자: 여기 존재는 누구의 도움으로 알게 된 거죠?

정○재: 주무관님 계셔서 (중략) 경찰이 연락을 먼저 해서

② 가출 친구들과 어울리다 경찰에 의해 쉼터로 연계

가출 뒤 자취하는 친구 집에 기거하며, 가출한 청소년들과 함께 생활하다 경찰에 의해 쉼터에 연계된 사례도 있었다. 가출 청소년 중 몇몇은 핸드폰 절도나 도박, 오토바이 절도와 뺑소니를 저질렀고, 일부 여자 청소년들의 경우 성매매에 노출되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개입하여 범 죄 청소년들을 구인하였고, 직접 비행에 가담하지 않은 연구 참가자는 쉼터로 연계되었다고 한다.

임○아: 애들 사이에서 자취하는데 애 집에 가서 자자고 (중략) (친구) 집에 갔다가 그때부터 계획을 세웠어요. 집을 나오고 나서

면접자: 그 집을 나와서 잠깐 집에 들어갔을 때 계획을?

임○아: 그냥 그 집에 들어갔다가 친구 집에서 나오자마자 계획을 세웠어요. 지금 다니는 거기 공방 상담을 잡고 거기 다니자 일단 이거부터 해서. 또 다른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 집에서 잠깐 지냈는데 그 친구 두 명이 구인을 당해서, 그때 알게 된 경찰분이 계신데 그 경찰분이 안 되겠다고 (중략) 휴대폰 훔치고 팔고, 그런 게 있었어요. 한 명은 보호관찰을 안 해서... (중략) 애들 불법으로 토토회는 거 보거나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청소년밖에 안 했어요.

③ 가출 후 직접 연락

한편, 가출을 하면서 쉼터의 존재를 알고 직접 연락하여 연계된 사례들도 있었다. 연구 참가자 백○우는 본격적으로 집을 나오기 전에 잠깐씩 일시쉼터에 체류한 경험이 있었고, 이때 알게 된 쉼터 선생님에게 연락하여 단기쉼터에 체류하게 된다. 그리고 정○영의 경우도 집을 나온 뒤 PC방에서 직접 쉼터로 이메일을 보내어 체류할 곳을 모색하였다.

백○우: 집을 나오고 원래 알던 쉼터 선생님이 계셔서 집을 나오게 됐어요. 일단 쉼터로 오라고 해서 거기서 몇 개월 있다가 퇴소를 하고 다른 쉼터로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정○영: 원래 서울 쉼터에 연락을 했었는데 너무 멀기도 하고 인원이 다 차서 H시 쉼터로 가는 건 어쩌냐고 링크를 띄워주셔서 (중략) 쉼터에 있을 생각으로 PC방에 가서 e-mail을 보내서
면접자: 그러면 바로 올 수 있었어요?

정○영: 네. 선생님께서 도와주셔서 PC방 사장님께서 전화를 하고 이체를 해 주신 다음에 버스비 받아서 왔어요.

면접자: 그러면 원래부터 쉼터라는 곳은 알고 계셨어요?

김○선: 누가 알려주진 않았는데 은연중에 알고 있었어요.

면접자: 그래서 나올 때 일시쉼터를 검색하고 나온 건가요?

김○선: 네.

면접자: 그러면 이전부터 집을 나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였던 건지 아니면 어떤 사건을 계기로 바로 집을 나오게 되셨나요?

김○선: 바로 나왔어요.

면접자: 그러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나왔을 것 같은데 맞나요?

김○선: 새벽에 캐리어에 짐 다 싸서 나왔어요.

④ 가출 직후 복지 기관에 연락 후 쉼터 연계

가출하면서 청소년쉼터의 존재는 알지 못했지만, 유사한 기능을 하는 여성 관련 기관을 알고 있었고, 그 기관을 통해 청소년쉼터에 연계된 참가자도 있었다.

박○민: 막막했던 것 같아요. 쉼터에서 일단 저는 가출을 해서 노숙을 한 건 아닌데 바로 쉼터로 옮겨서 계속 살았는데 그래도 일단 짐도 다 가정에 있고 몸만 나온 상태라서 시간은 지나가지만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렇죠.

면접자: 집을 나오기 전에 혹시 비슷한 상황에 있는 어떤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한테 조언을 구했다거나 이런 적은 있으세요?

박○민: 주변에서는 딱히 비슷한 상황이었던 사람이 없어서

면접자: 그러면 쉼터에 대해서 원래부터 알고 계셨어요?

박○민: 아니요, 몰랐어요. 처음에는 여성의 집만 알고 있어서 거기에 연락을 드렸는데 청소년 친구들은 따로 연계를 해 준다고 하셔서 쉼터로 들어왔어요.

⑤ 지인 집에 단기간 거주 후 청소년쉼터 연계

가출 후 지인 집에 거주하다 지인과 갈등이 생기거나 지인이 쉼터를 소개해 주어 쉼터에 연계된 사례들도 있었다.

이○주: 그 상황에서 그냥 바로 집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략) 2시간 정도 울고 집 나갈 거라고 말리지 말라고 그리고 바로 짐 싸고 바로 그 언니 집으로 갔어요.

면접자: 그러면 그렇게 결심한 뒤에는 어떤 마음이셨어요? 후련했는지 막막했는지?

이○주: 둘 다 들었죠. 후련하고 막막했죠. 더 이상 그 사람들 집에 안 살아도 되는 거랑 당장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막막하잖아요. 둘 다 들었죠. (중략) 그 언니랑 안 맞았어요. 생활 습관 자체도 안 맞고 근데 그 언니가 진짜 너무 깔끔하긴 했어요. 하나라도 뒤집어져 있으면 이거 제대로 놓으라고 이런 느낌이었고 뭔가 성격 자체가 안 맞았어요.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많이 해서 같이 못 살겠다고 바로 나왔어요.

강○은: (쉼터 입소 전에는) 그냥 아는 사람 집에 있었어요.

면접자: 그러면 혹시 집에서 거기 있기 전에 아는 사람 집에는 얼마나 있었을까요? 얼마나 오랫동안?

강○은: 5일에서 4일 정도 (중략) 원래 알던 동네 사람(같은 동네 살던 언니)이었는데 이사 갔어요.

면접자: 중학교 1학년 때 나와서 친구 집에 있다가 PC방도 갔다가 쉼터는 어떻게 알게 됐어요?

장○호: 친구 처음에 알려줬어요.

면접자: 그러면 그때 쉼터 알고 바로 직접 연락해서 찾아가게 됐어요?

장○호: 네.

⑥ 여러 쉼터를 거쳐 다님

일부 청소년들은 가출 후 여러 쉼터를 이동하며 생활하기도 했다. 쉼터의 체류 기간 유형별로 장기간 거주할 수 없는 일시나 단기쉼터의 경우 거주지와 멀지만 체류가 가능한 쉼터로 연계가 된다. 대체로 2, 3개 시설을 이동하는 편이지만 한 참가자의 경우 5차례나 쉼터를 이동하며 체류하기도 하였다. 일부 참가자는 부모와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집과 가급적 멀리 떨어져 있는 쉼터에 머물기를 원하기도 하였다. 쉼터에 거주하는 동안 비행에 연루되어 강제 퇴소를 당하고 쉼터를 옮겨야 했던 사례도 있었다.

윤○호: C시 쉼터에 갔다가 실랑이가 좀 있었거든요. (중략) 아버지는 왜 쉼터로 오냐 (그래서)

계속 집에 들어갔다 나왔다 애라이 모르겠다 멀리 있는 곳으로 가면 다시 집으로 안 가겠지 하고(중략)

면접자: 집으로 다시 들어갔다 좀 더 먼 데로 간 게? C시?

윤○호: D시요. 여기

면접자: 그게 중학교 1학년 때라는 거죠?

윤○호: 중1, 2학년, 그때쯤

면접자: 그때는 여기에 얼마나 있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는? 오래 있었어요?

윤○호: 오래 있지도 않았어요. 한 달?

면접자: 어차피 단기쉼터니까 한 달 뒤에 CH시로 갔어요?

윤○호: CH시도 가고 C시 다시 갔다가. 좀 왔다 갔다 많이 했어요.

면접자: CH시 단기쉼터에서 얼마나 있었나요?

장○호: 2년 정도 (중략)

면접자: 그러면 CH시 쉼터에 있다가 어떻게 여기로 오게 됐어요?

장○호: CH시 쉼터에서 사고를 쳐서 (중략) 오토바이 훔쳐서

면접자: 오토바이 절도를 해서 경찰한테 들켰어요?

장○호: 네. (중략) 많은 사고들을 치긴 했는데 (중략) 사회봉사 및 교육에 보호관찰까지

정○진: (Y시 단기쉼터 체류하고) 기간이 다 돼서 여기로 온 걸로 알고 있어요. 9개월 다 돼서

면접자: 9개월 정도 다 채워서 이쪽으로? (중략)

면접자: 그렇게 Y시에서 M시까지 거리가 좀 있는데 옮겼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정○진: 어릴 때부터 Y시에 계속 있었는데 갑자기 다른 지역으로 오니까 길도 잘 모르고

면접자: 그러면 원래 처음에 갔던 쉼터는 어디였나요?

박○민: 일시쉼터였고 MR이라는 A시에 있던 쉼터였어요. (중략) 단기도 거치고 중장기도 거쳤다가 여기로 왔어요.

면접자: 그러면 다른 거친 쉼터명도 알 수 있을까요? 거기도 어딘지?

박○민: A시 일시 갔다가 S시 단기 갔다가 W시 단기에 하루 있었다가 M동 청소년 단기쉼터라고 서울에서 9개월을 지내고 G시 중장기에서 3개월 정도 있다가 여기로 왔어요.

표 IV-5. 집을 나온 뒤 청소년쉼터 연계까지의 여정

주제군	주제	구성 의미
집을 나온 뒤 청소년쉼터 연계까지의 여정	청소년쉼터 입소 전의 생활: 노숙과 방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숙 생활로 기본적 생활 여건인 의식주 어려움 경험 • 친구 집에 기거 • 오갈 데 없이 방황하는 생활 경험
	계획적·장기적 가출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로부터 가중되는 스트레스를 벗어나기 위한 가출 계획 • 총동적·일시적 가출에서 계획적 가출로 전환
	청소년쉼터 연계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 공무원에 의한 연계 • 가출친구들과 어울리다 경찰에 의해 쉼터로 연계 • 가출 후 직접 연락 • 가출 직후 복지 기관에 연락 후 쉼터 연계 • 지인 집에 단기간 거주 후 쉼터 연계 • 여러 쉼터를 거쳐 다님

3) 학교를 그만둔 배경과 가정 밖 생활

가정 밖 생활을 하며 학교를 그만둔 참가자들은 청소년기 성장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두 가지 맥락을 벗어난 상황이다. 이들은 개인적 사유 등으로 학교를 그만둔 후 가정에서 갈등이 심해져 집을 나오게 된 사례도 있으며, 가정에서 갈등이 심화되어 가정을 먼저 나온 뒤 학교를 지속적으로 다닐 수 없어 그만둔 사례도 있었다.

(1) 다양한 이유로 학교 자퇴 후, 가정에서 갈등 심화, 가정 밖 생활 시작

① 코로나19 이후 등교 수업에 어려움을 겪다가 자퇴 결심

먼저 개별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둔 배경에는 다양한 사유들이 존재하고 있다. 박○민은 코로나로 등교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던 시기에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비대면 수업을 하며 학업을 수행하였다. 하지만, 입학한 학교는 본인이 염두에 두었던 학교가 아니었고 희망하는 학교 진학에 실패한 뒤 어쩔 수 없이 입학하게 된 학교였다. 비대면 수업을 지속하다가 마스크를 쓰고 등교 수업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닥쳤으나, 박○민은 호흡 곤란 증상이 나타나면서 학교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학교를 그만두기 위한 명분으로 공무원 시험 준비라는 명목을 만들고 자퇴를 결행하였으나, 학교 자퇴 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며 오빠와의 갈등이 잦아졌고, 오빠의 폭력 행사로 집을 나오게 된다.

박○민: 학교 측 생기부나 이런 거에는 다 그런 얘기로 나와 있는데 진로 변경에 따른 자퇴로 나와 있는데 제가 자퇴를 결심했던 건 갑작스럽게 대면 수업을 하는 게 적응이 안 되기도 했고 원래 희망하던 고등학교에 떨어지고 나서 2순위로 간 고등학교인 것도 있었고, 이제 학교를 떨어짐에 따라 오래 준비했던 학교여서 부모님께서 떨어질 줄 몰라서 좀 겨울방학 동안 많은 얘기를 했어요. 네가 이런 식으로 준비하지 않아서 떨어진 거다 식의 얘기를 듣다가 고등학교를 어쨌거나 진학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겨울방학이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많은 학생들이 특강도 들으러 가고 저는 그 대비를 못했고 3월에 개학을 원래 했어야 했는데 코로나로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됐고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그냥 고입 실패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상 대면 수업을 하고 이제 딜레이된 일정을 소화해야 되니까 시험이 좀 급박함이 있었는데 그 시험에 대한 대비를 아예 안 했으니까 약간 회피하는 길로 자퇴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② 다이어트 캠프 입소로 인한 자퇴 결심

정○영은 자신의 체형으로 인하여 학교 재학 중 다이어트 캠프 참가를 결행하였고, 8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캠프에 참가해야 해서 학교를 자퇴한 경우이다. 캠프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뒤에 혼자 검정고시를 준비하여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다시 학교로 돌아갈 생각은 없다. 학교를 그만둔 선택에 대해 크게 후회는 없다고 하였다. 학교 중단과 가출의 직접적 관련성은 없으나,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부모의 강압적인 간섭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오게 되었다.

정○영: 그것도 7월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덩치가 크다 보니까 다이어트를 하려면 학교가 문제가 있어서 다이어트 캠프를 갈 생각으로 이제 한 거거든요. (중략) 총 합해서 작년 8월 3일에 들어가서 이번 연도 4월 30일에 나왔어요.

면접자: 그러면 3주가 아니라 거의 몇 개월이네요?

정○영: 맞아요. 8개월

면접자: 그러면 그거 때문에 그거를 가기 위해서 학교를 그만뒀어요?

정○영: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원래는 휴학을 하려고 했었는데 자퇴를 하고 나서 복학을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이 학교로 다시 돌아올 수 있으면 자퇴를 하고 복학을 다시 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말씀을 하셔서 그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 다음에 자퇴를 하고 학교에 다시 복학을 할 생각을 했었는데 검정고시를 봤어요.

③ 학교 공부 및 친구관계 부적응

또 다른 연구 참가자들은 학교 공부하는 것이 힘들고 학교생활 자체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여 학교를 그만두었다. 학업 수행에 관심이 없었으며, 학교에서 친구들을 사귀는 것도 흥미가 없고 불편함을 느끼게 되었다. 이들은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힘들고 의미 없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음을 토로하고 있다.

이○주: 애초에 학교랑 안 맞았어요. 공부도 안 하고 공부에 관심도 없고 대학도 관심 없고 친구들도 관심이 없다 보니까 1학년 내내 계속 자퇴하고 싶었는데 밴드부이고 근데 2학년이 되고 원래 1학년 때 친구가 없었거든요. (중략) 예체능이든 다른 쪽이든 공부 쪽은 아닌 것 같다 실제로 부모님한테 말을 했었어요. 그냥 맞은 것뿐이에요. (중략) 그냥 학교 입학했을 때부터 별로 학교에 좋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밴드부는 제가 자퇴를 하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밴드부는 계속 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안 돼서 결국 그만뒀어요. (중략) 계속 있다 보면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후회만 하고 갈 것 같아서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여기서 앉아서 자고 있는 이 상태로 수업도 귀에 안 들어오고 재미없고 시간이 너무 아까웠어요.

장○호: (고등학교가) 적성에 안 맞았던 것 같아요.

면접자: 어떤 학교였어요? 인문계였어요?

장○호: 특성화요

면접자: 거기서 무슨 뭘 주로 배우는 학교였어요?

장○호: 한 달밖에 안 다녀서 그렇게 잘...(중략)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거의 안 했어요.

강○은: 3월 4일에 입학했을 때 바로 그냥 (중략) 학교가 불편해서 (중략) 애들 만나는 걸 싫어했어요. (중략) 학교에 있으면 답답해서 싫었어요. (일주일 다니고 그만둬)

권○솔: 따돌림이라고 하죠. 따돌림도 흔히 말하는 폭행, 폭언이면 차라리 나아요. 그런 것도 아니고 안 보이게 숨겨서 관계적 따돌림이라고 하죠. 그런 걸 당해서 선생님한테도 말했는데 해결책이 거의 없대시피 했어요. 안 그만뒀을 당시에,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자퇴하게 된 거죠.

④ 교사 및 양육자와의 갈등 심화로 등교 거부

학교생활 자체에 대한 어려움이 누적되어 학교를 그만둔 것이 아니라, 학교생활 중 경험하게 된 부정적인 사건에 대해 학교와 가정이 개입하여 원만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서 학교를 그만둔 사례도 있었다. 고모가 양육을 담당하고 있었던 정○재의 경우 학교에서 교사로부터 오해를 사게 된 사건이 있었고 이 사건에 대하여 교사와 학부모인 고모와의 소통 과정에서 고모의 부정적 대응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 사건 이후 정○재는 등교를 거부하게 되었으며, 가정에서 고모와의 갈등은 더 심해졌다.

정○재: 고모 때문인 게 크긴 하죠. 스트레스, 선생님과 트러블도 있었고, 이게 선생님하고 먼저 트러블이 생겼는데, 어떻게 된 거냐면 평소에도 좀 남녀 차별을 심하게 하시고 여자들은 쉬게 하고 남자들만 뛰게 하는 것도 있고. (중략) 저랑 청소하던 친구가 핸드폰을 맡겼었거든요. 딱 돌려주다가 이런 형식의 핸드폰 케이스였는데, 핸드폰 케이스가 벗겨졌나 봐요. 전원은 켜졌었나 봐요. 전원은 안 켜졌는데 딱 췌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그때 들어오셔서 왜 핸드폰을 했냐는 거예요. (중략) 그래서 저는 그냥 안 했으니까 안 했다고 말을 했는데. 그러다가 왜 반항을 하나, 왜 싸가지 없게 말대꾸를 하나 그런 식으로 불러가서 2시간 동안 서 있게 했거든요.

정○재: (중략) 선생님이 고모한테 전화를 했어요. ○재가 이랬다. 원래 있던 얘기 빼고. 그래서 선생님이 고모가 방문해 주셔야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고모가 핸드폰 아직 안 끊었는데, 고모가 막 제 욕을 하면서. 기분이 안 좋았어요. (중략) 그리고 고모가 교회에서 기타를 배우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배우다고 했고 근데 또 배우다가 기타 줄이 좀 녹슬어서 기타 줄 좀 사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2, 3주가 넘도록 안 사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짜증도 나 있었고 고모한테 이렇게 할 거면 내가 왜 기타를 배우야 되냐고, 이럴 거면 안 배우겠다고 라고 말했는데 갑자기 고모가 기타 던지면서 하지 말라고 소리 지르면서 하길래, 그리고 저한테 쌍욕 하길래 저도 그냥 기타 케이스 던지고 방으로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방에서 그때부터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밥도 대충. 전 그때 학교는 가고 싶었는데 고모가 보기 싫어서 안 갔어요.

연구 참가자 김○선도 학교생활 중 교사와의 갈등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어머니가 교사와의 갈등 관계를 적절히 완화시키지 못하고 강압적 태도를 취하는 것에 대해 반감을 갖게 되었다. 이후, 학교를 그만두었고 어머니와의 갈등과 학대로 집에서도 나오게 되었다.

김○선: 약간 담임 선생님이랑 트러블이 있어서 (중략)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부반장을 해서 친구가 많았는데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아무도 같은 반인 애가 없어서, 게다가 다 다른 구에 있던 애들이니까 아예 처음 보는 애들이라서 자기들끼리 친구가 된 상태라서 (중략) 아예 그 반에 아는 애가 없었어요. (중략) 자퇴하기 전에도 엄마랑 담임 선생님이랑 얘기가 잘못돼서 담임 선생님이랑 싸운 거라서 엄마가 이상하게 말해서 싸우고 집도 엄마 때문에 나온 거라서 (중략) 말하면 길어지는데 온라인 클래스에 늦잠을 자서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엄마가 엄청 소리를 지르면서 깨우는 거예요. 저는 무서워서 전화 안 받겠다고 하니깐 담임 선생님이 저를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엄마한테 담임 선생님이 나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엄마가 그걸 담임 선생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선이 편애하냐고 얘기를 엄마가 해버리니까 짜증이 나서 싸우다가 정신이 안 좋아져서, 집 나온 것도 엄마가 자꾸 때려서 나온 거고 (중략) 그때 상황이 가정 상황도 별로 안 좋아서 더 학교에 있기 싫었어요.

⑤ 친구들과 일탈행동 등으로 결석일 수 누적

친구들과 일탈행동을 하며 어울리는 과정에서 범죄에 연루되어 학교에 다닐 수 없게 된 참가자도 있었다. 김○희는 술과 담배를 하며 수업을 빠지는 날이 이어지고, 기숙사 규칙을 어겨 퇴소 조치를 당하는 등 일탈을 저지르게 된다. 기숙사 퇴소 후에 가출했던 적이 있고 그 당시에 현채 체류 중인 청소년쉼터에서 생활했다. 쉼터 생활 중에는 쉼터 지도자들의 관심으로 학교에 가는 생활을 하였다. 하지만, 쉼터 생활 중 입소 청소년과 싸움을 벌이게 되었고, 퇴소 조치를 당하게 된다. 그리고 범죄에도 연루되어 보호 처분을 받아 결국 학교를 자퇴해야 하는 상황에 이른 사례이다.

김○희: 학교에서는 제가 솔직히 친구들을 잘못 만나서 그런가, 맨날 양아치 짓거리를 했는데 친구들이랑 다 친해도 학교에서 하는 행동이 다른 친구들이랑 좀 달랐어요. 수업 시간 중간에 나와서 담배 피우러 가고 밥 먹으러 가고 그러다 보면 수업 시간에 미인정 그거라고 찍혀 있고 수업 시간에 자고 있고 뒤에 사물함에서 자고 있고 핸드폰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생활은 잘 못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중략) 그때 기숙사를 나가기 전에 술을 먹고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걸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숙사에서는 영구 퇴학을 받았고 기숙사를 못 쓰니까 집은 M시인데 학교가 S지역이었어요. 왕복 가는 데만 1시간이었고 아침에 못 일어나면 학교를 못 가고 여기(쉼터)는 아침에 깨워주는 선생님이 계셔서 그때는 학교를 잘 갔어요. (중략) 친구들이나 나쁜 친구들이랑 같이 다니면 학교를 절대로 안 가게 되어 있어요. 기숙사가 박탈되니까 학교가 귀찮아서 안 가게 되고 학교 재적 일수가 엄청 밀리고 유급이 내려오는데 거기까지 간 거예요.

(2) 가정 밖 생활 중 학교에 다니다 그만둠

① 가정 밖 생활 중 등교의 어려움

연구 참가자 백○우는 집에서 지내는 것이 힘들었던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집을 나왔고, 쉼터에 입소하게 된다. 쉼터에 거주하면서 등교를 이어가고자 하였으나, 학교생활에 흥미가 없었고, 학업도 버거웠다. 그리고 쉼터를 통해 학교에서 필요한 준비물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학교의 행사나 파티 등에서 필요한 세부적인 준비물까지는 챙기기 어려웠다. 결국 쉼터에 거주하며 한두 달 학교에 다니다 그만두는 선택을 하였다.

백○우: 그냥 1학년 때부터 학교를 다니면서 지랑 안 맞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괜찮아지겠지. 1년 정도 다니다가 2학년 올라와서 한 달 정도 더 다녔는데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자퇴를 생각하고 (중략) 학교를 다니면서 애들은 학원도 같이 가는데 저는 학원도 안 다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외감도 있고 공부도 못 따라 가겠고 그래서 자퇴를 했던 것 같아요.(중략) 학교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못 지내다 보니까 학교를 갔다 집에 오면 학교에서 느꼈던 재미가 일절 없어서 집에 있을 바에 학교도 가기 싫고 다 그만두고 밖에서 지내자고 생각해서 나오게 됐어요. (중략) 먼저 집을 나오고 학교를 다니다가 정리할 거 다 정리하고 그만뒀던 것 같아요.

면접자: 그러면 그렇게 쉼터에서 학교를 다녔을 때 어려움은 없었을까요?

백○우: 학교에서 파티가 있거나 사가야 될 게 있을 때 준비를 못해 가는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중략) 숙제가 그건 쉼터에서 지원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준비물을 못 챙겨갔고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필요한 준비물은 지원해 주시는데 부분적인 건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중략) 자퇴를 한다고 친구들한테 얘기했더니 그래도 학교는 다녀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 학교를 다니는 것도 무의미하고 그냥 그만뒀어요.

② 집을 나온 상태에서 학교에 다닐 경우 소재 노출에 대한 우려로 자퇴

참가자 윤○호는 학교에 다니게 되면 결국 자신의 소재를 노출시키는 단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으로 학교를 그만두었다. 과거에 단순 가출로 친구 집에 머물다 학교에 갔는데, 그때 학교로 양육자가 찾아온 경험을 한 적이 있었다. 그에 따라 거주지 인근의 학교에 출석하는 것은 부모나 양육자에게 자신의 소재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부모와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거주지와 멀리 떨어진 쉼터 입소를 원하게 됐고 그로 인해 기존에 다니던 학교에 가기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면접자: 만약에 집을 나왔어도 학교와 가까운 데 거처가 있었으면 학교는 계속 갔을 것 같아요?

윤○호: 아니요, 왜냐하면 학교를 오래 가면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부모님이 이혼하셨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작은 엄마 집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친구 집에서 자고 한 번은 말 안 하고 친구 집에서 자고 학교에 갔었는데, 어머니, 작은 엄마가 학교에 찾아온 거예요. 그 기억이 있어서 뭔가 가출하고 학교를 가면 뭔가 찾아올

것 같아서.(중략)

면접자: 만약에 다른 학교를 갔으면 괜찮았을까요?

윤○호: 그렇죠.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으면 괜찮았겠죠.

③ 안정적인 거주지가 없는 상황에서 학교 통학이 어려워짐

가출 이후 쉼터나 지인 집에 머물게 되면서 학교와 통학 거리가 멀어져 등교에 어려움을 겪다가 학교를 그만둔 사례도 있었다. 집을 나와 쉼터에 거주하면서 중학교 3학년 시기를 보냈던 임○아는 학교 통학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자, 출석만이라도 해달라는 선생님들의 요청에 따라 출석만 하고 돌아오는 생활도 하였다. 고등학교에 입학한 뒤에는 친구 집에 머물렀으나 역시 통학 거리가 너무 멀어 학교에 가기 힘들었다.

임○아: (결석을) 너무 많이 했죠. 선생님도 여기서(쉼터) 지내는 거 아니니까 왔다 갔다 하기가 너무 멀거든요 버스를 타고 다녀야 되는데 아침이 출근길이라 차도 막혀서, 선생님들이 점심시간까지 만이라도 오고 짝고 가라고...(학교에 가서)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나가고

면접자: 중3 몇 개월을 그렇게 살았어요?

임○아: 네, 중순부터 말까지 그렇게 지냈어요.

면접자: 그래서 중학교 졸업은 일단 하고?

임○아: 네.

임○아: 집을 나오게 되면서 왔다 갔다 하기 힘들고 딱히 정기적으로 머물 데가 없다 보니 학교에 소홀해져 버렸어요.(중략) 입학할 때는 한 번 해보라고 했는데 엄마, 아빠가 다른 이유 때문에 싸우고 제가 집을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는 가야겠고 집은 나왔고 일단 학업을 포기하자고 (중략) 친구 집에서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했었어요.

④ 쉼터와 학교 간의 거리가 지나치게 멀어 통학이 불가능

한 참가자는 중학교 3학년 시기에 가출하여 쉼터에 거주하며 중학교를 졸업하였다. 그러나, 거주하던 쉼터의 체류 기간 제한으로 타 도시 쉼터로 연계가 되었고, 입학을 위해 배정된 고등학교와의 거리가 멀어져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정○진: (배정된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2월에 여기로 와서 입학 날이 돼서 학교 가는 줄 알았는데 여기서 학교 못 가고 그렇게 몇 달 있다가 자퇴했어요.

면접자: M시에 와서 학교 다니려고 하셨는데?

정○진: Y시하고 M시가 멀리 있는 것도 있고...

표 IV-6. 학교를 그만둔 배경과 가정 밖 생활

주제군	주제	구성 의미
학교를 그만둔 배경과 가정 밖 생활	다양한 이유로 학교 자퇴 후, 가정에서 갈등 심화, 가정 밖 생활 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이후 등교 수업에 어려움을 겪다가 자퇴 결심 • 다이어트 캠프 입소로 인한 자퇴 결심 • 학교 공부 및 친구관계 부적응 • 교사 및 양육자와의 갈등 심화로 등교 거부 • 친구들과 일탈행동 등으로 결석일 수 누적
	가정 밖 생활 중 학교에 다니다 그만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 밖 생활 중 등교 어려움 • 집을 나온 상태에서 학교에 다닐 경우 소재 노출에 대한 우려로 학교 자퇴 • 안정적인 거주지가 없는 상황에서 학교 통학이 어려워짐 • 쉼터와 학교 간의 거리가 지나치게 멀어 통학이 불가능

4) 학교와 학력 관련 인식

(1) 학교생활과 또래관계의 중요성

① 학교에 다니고 싶지만, 또래와의 나이 차로 어렵다고 느낌

현재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은 학교에 대한 미련이 있지만, 선뜻 학교로 돌아갈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 그 배경에는 학교에 입학하거나 복학하게 되면 같은 학년 재학생들에 비해 나이가 많아진다는 점에 대한 불편함이 있었다.

이○호: 저는 학교 다니고 싶은데 제 나이로는 힘들 것 같아요. (중략) 학교 들어가고 싶어요. (학교 다니는 친구들 보면) 부러워요. (중략) 다니고 싶은 마음은 저도 친구들과 사귀고 또래가 있으면 좋겠고 좋은 추억으로 학창시절 보내고 싶었어요. 안 가고 싶은 건 제가 18살인데 다시 학교를 가면 고등학교 1학년부터 다니고 3년을 다녀야 제가 졸업하면 21살이어서 많이 늦어져서...

정○진: 자퇴해서 다시 복학하려고 하는 게 복학하면 다 거기 저보다 나이 1살 적은 애들하고 같이 적응할 수 있을지가...

② 학교에 다니지 않기에 또래관계 등 사회관계 형성 기회 취약

청소년들은 학교를 그만둔 이후에 친구 관계 등 사회관계의 형성이 어려우며, 학교를 벗어남에 따른 소속감의 부재를 토로하고 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소통하기에 힘든 점이 있는데, 이러한 배경에는 학교에 다니지 않아 친구관계 형성 경험이 부족한데 기인한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였다. 또 또래관계도 그림자

만, 소속이 없다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백○우: 아무래도 친구 관계나 사람을 대하는 법을 학교에서 많이 배우잖아요. 학교를 안 다니는 친구들은 그런 걸 배우다가 도중에 나와 버렸고 사람 대하는 게 가장 힘들지 않을까라는 게 가장 많이 들어요. (중략) 학교를 가거나 그러면 전학을 가게 되면 서먹서먹해도 다가오는 친구들도 있는데 학교를 나오고 일바를 하거나 새로운 곳에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처음 만나기도 했고 서먹서먹하다 보니까 잘 대화도 없는 것 같고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권○솔: 친한 친구가 없다 보니까 만날 수 없잖아요. 그래도 가까운 친구가 있으면 좋겠는데 반말을 하면서 서로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게 없어서 그게 어려웠죠.

이○주: 친구들 그림기도 하고 힘든 건 소속감이 없다는 거, 학교 학생이라는 소속감이 없다는 거, 외부인이 된 느낌, 그런 것도 있었고

③ 학창시절을 보내는 또래 친구들에 대한 부러움

참가자 중 일부는 학교를 그만둔 뒤에 스스로 삶을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김○희는 SNS 등을 통해 학교에 재학 중인 또래들의 일상을 보면서 청소년기 학교생활의 즐거움을 간접적으로 느끼며, 학생 신분에 대한 부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또 자신은 학교를 떠난 상태의 사회 초년생으로서 자립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었다. 그리고,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학교를 그만두게 된 이○현도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이지만, 평범하게 학교를 다녔더라면 내신을 통해 ‘더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도 있었지 않을까 하며 아쉬워했고, 자신이 누리지 못한 학창 시절에 대한 부러운 마음도 가지고 있었다.

김○희: 저는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제 인스타를 보면 SNS를 보면 친구들이 다 놀러 가 있어요. 같은 학교 친구들이. 매일 사진도 찍고 애네들은 청춘을 느끼고 있는 건데 저는 그 학생 때가 딱 한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순간을 놓치면 저는 사회 일반인. 사회 초년생이 되는 건데 저는 학교를 못 다니다 보니까 사회에 빠르게 온 애, 사회 초년생이라는 생각이 있고 저는 그런 애들이 부러워요. 솔직히 학교를 다니며 노는 것도 있고 놀고 싶을 때 놀고 먹고 싶을 때 먹으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벌고 먹고 직업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학생이라는 직업이 부럽죠.

이○현: 남들이 말하는 학창시절도 보내고 싶었고. 그런 후회가 있었고, 내신으로 좀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도 했었어요. (중략) 친구들이 학교 다니는 얘기 할 때 부럽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나도 평범하게 자랐으면 어땠을까 생각해서.

(2) 상급학교 졸업장과 학력 취득에 의미 부여

① 대학 학력 취득 희망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지만, 최종 학력은 대학교 졸업까지 희망하는 참가자들도 있었다. 이들은 고등학교에 다니다 그만두었기 때문에 최종 학력은 대학까지 졸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박○민: 최종적으로 가진 학력이 뭐 자기가 원하는 만큼이라면 그 전까지는 그렇게까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 고등학교를 나와서 졸업이 나온 건지 아니면 검정고시가 나온 건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한 시점에는 그렇게까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자퇴할 때 그렇게 망설이진 않았어요.

면접자: 그러면 ○호씨는 좀 있으면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보려고 하고 그러면 나중에 대학교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이○호: 네.

면접자: 그러면 대학교까지 졸업하고 싶은 이유는 뭡까요?

이○호: 제가 학교를 못 다녀서 대학교 다니고 싶어요.

면접자: 대학은 가야 될 것 같아요?

정○재: 네.

면접자: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정○재: 원래부터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내가 했던 노력이나 성과들을 그걸로 나타내는 건데 아무것도 없으면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제가 진짜로 쓸데없는 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그래도 가보려고

② 학교를 통해 얻어지는 졸업장에 대한 아쉬움

현재 학교를 그만둔 뒤 졸업장 취득을 위해 검정고시를 준비해야 하는 청소년들은 조금만 더 참고 학교에 다녔으면 졸업장이 비교적 쉽게 주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 후회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등교하여 출석일 수를 채우면 검정고시 시험을 치지 않아도 졸업장을 받는다는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지만, 다시 학교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하였다.

면접자: 혹시 학교를 나오면서 지금은 어때요? 후회되는 마음이에요? 후련한 마음이에요?

강○은: 후회해요.

면접자: 어떤 점이 후회될까요?

강○은: 그냥 꼭 참고 다닐 걸 생각이 들어요. (중략)

면접자: 그러면 아까 학교를 그만두는 후회된다고 했는데 어떤 점이 제일 후회되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강○은: 아무것도 안 해도 거의 졸업인데 엄청 고생하고 따야 되니까

③ 장거리 통학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졸업장 취득에 대해서는 만족함

고등학교 입학 후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의 경우도 원거리 학교를 힘들게 등교하면서 중학교 졸업장을 취득한 점에 대해서는 만족감을 표하고 있다.

면접자: 아까 중학교 1학년 때 학교를 왔다 갔다 해서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도 학교는 계속 갔어요?

장○호: 그렇죠.

면접자: 훌륭하네요, 그때는 왜 학교는 졸업해야겠다는 마음은 있었어요?

장○호: 그것보다는 중학교는 의무 교육이라 다녔던 것 같아요.

면접자: 그래서 졸업까지 하고... 그러면 한 학교에서 계속 다녔어요?

장○호: 네.

면접자: 집을 나와서 CH시 쉼터에서 학교 갔어요?

장○호: 네.

면접자: 그러면 학교는 어떻게 다닐만 했어요?

장○호: 버스 타고 1시간 거리라서 힘들긴 했는데

면접자: 집에서 다녔으면 가까웠을 텐데, 그래도 멀리 잘 다녔네요. 지금 생각하면 기특해요?

장○호: 네.

면접자: 그렇구나. 그래서 졸업한 거에 대해서 만족해요?

장○호: 네.

④ 고등학교 학력 취득의 필요성 인식

검정고시를 통해 중학교 졸업 자격을 취득한 윤○호는 고등학교 학력 취득을 위해 검정고시를 치를 예정이다. 고등학교 졸업 자격 검정고시에 응시해 탈락한 경험이 있지만, 다시 응시하여 고졸 학력을 취득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취업을 위해서 고졸은 필수라는 주변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었다.

면접자: ○호는 어쨌든 고등학교 졸업 자격은 받고 싶고 나중에 대학교 학력도 받고 싶어요?

윤○호: 아니요.

면접자: 일단 고등학교까지는 받고 싶고, 왜 고등학교까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윤○호: 주변에서 들리는 말이 뭐랄까 주변 시선이 안 좋게 느껴지니까

면접자: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으면 시선이 안 좋다? 그런 말씀은 주로 누가 해 주세요?

윤○호: 엄마요.

면접자: 아무튼 그건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죠?

윤○호: 네, 아무리 면접을 일을 찾아볼 때 학력 무관이라고 하지만 안 좋게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표 IV-7. 학교와 학력 관련 인식

주제군	주제	구성 의미
학교와 학력 관련 인식	학교생활과 또래관계의 중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에 다니고 싶지만, 또래와의 나이 차로 어렵다고 느낌 • 학교에 다니지 않기에 또래관계 등 사회관계 형성 기회 취약 • 학창 시절을 보내는 또래 친구들에 대한 부러움
	상급학교 졸업장과 학력 취득에 의미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학력 취득 희망 • 학교를 통해 얻어지는 졸업장에 대한 아쉬움 • 장거리 통학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졸업장 취득에 대해서는 만족함 • 고등학교 학력 취득의 필요성 인식

5) 진로 관련 인식과 대응

(1) 진로 설계 관련 어려움

① 개인 진로 설계 관련 안내의 부재로 인한 어려움

학교를 그만두고 개인적으로 진로를 설계해야 하는 청소년은 이러한 준비에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가족을 떠나 거주하며 지원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스스로 진로 우선순위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혼란을 느낀다는 것이다. 즉, 현재 자신의 처지에서 대입을 준비하는 데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지, 먼저 취업 준비를 하는 것이 맞는지 대해서도 확신이 없음을 보고하였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진로 선택과 인생 설계에 대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더 구체적인 안내와 지원을 해주었으면 한다는 아쉬움을 표하기도 하였다.

박○민: 저는 학업에 욕심을 가지고 있는 편인데 이 학업을 진행할 때마다 너무 저는 제가 원하는 건 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지 제일 최선의 선택일지 봐주시는 분이 필요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능해서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중략) 제 상황이 됐을 때 저는 이런 것도 하고 싶고 요런 것도 하고 싶고 관심이 있는데 취업을 먼저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직업 체험을? 말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학위를 따려고 대학교에 들어가는 게 나올까요? 아니면 일바를 하는 게 나올까요? 이런 제일 먼저 있는 골레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면 좋겠어요.

박○민: 만약에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너무 세분화되는 것 같아서 학과별로 지망하는 학생들도 많을 테고, 그래서 저는 어느 한 분이 많은 학생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 친구는 지금 마음의 준비가 안 됐으니까 당장 급한 일바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몇 년 뒤에 이런 정책이 있을 테니까 이런 걸 먼저 했으면 좋겠다고 큰 갈피를 잡아주시는 분이 담당에 계시면 좋겠어요.

② 수능 준비에 대한 지원 부족 체감

대입 준비를 하는 박○민은 수학능력시험 준비 과정에 스스로 대처하는 수밖에 없음을 토로하였다. 쉼터에서 생활하는 주변 청소년 중 수능을 준비하는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어서 고군분투하며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있었다.

박○민: 여기 쉼터에서 준비를 하게 된 건, 저는 이 쉼터 경우밖에 모르는데 지금 당장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가 저밖에 없거든요. (중략) 이 쉼터에서 수능을 본 친구들이 많지 않다는 걸 알고 계셔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서는 도와주고 계시지만 귀소를 좀 늦게 해도 된다거나 하지만 저는 사실 그걸 제외한 모든 걸 혼자 해야 되거든요. 교재까지는 지원받을 수 있지만 공부 습관을 들이거나 아니면 이때는 이렇게 시간 전략을 짜야 된다거나 수능을 봤던 사람에게 들 수 있는 조언도 없고 좀 더 직접적으로 와 달았던 건 가채점표? 이런 것도 저는 무지한 상태에서 그냥 제가 스스로 찾아보지 않는 이상 수능을 온전히 제가 아는 만큼만 봐야 되는 게 슬픈 것 같아요. 만약에 고등학교를 다녔다면 주변 친구들을 통해서든 학원을 통해서든 그것도 아니면 학교를 통해서든 이런 수능 날에는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고 언제부터는 하루 패턴을 고정시켜야 해 이런 식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쉼터에 오고 나서는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가 적은 이유로 여기 친구들은 미움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힘든, 고독한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아요.

(2) 구체적인 진로 계획 수립

가정 밖에서 고군분투하며 진로를 설계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진로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청소년들도 있었다.

① 은행원으로 진로 설정

정○영은 자신이 입학하고자 하는 특수목적대학의 전형 방법의 세부 요건에 대해 파악하고 있으며, 향후에 관련 분야 은행원으로 취업하고자 하였다. 엄마의 격려도 있었지만, 자신의 적성을 파악한 후 스스로 관련 대학 진학과 특정 직업 결정에 이르기까지 진로 전반에 대해 설계, 준비하고 있었다.

정○영: 은행원이요. 금융 회계 쪽으로 (중략) 아까 말했듯이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학점은행제로 이수한다고 했잖아요. 학교가 N대학이고 학교로 가서 취업할 예정이고 (중략) N금융기관을 갈 때는 NCS라는 시험을 봐요. 그 시험을 보면 은행에 취업할 수 있거든요. N대학도 NCS 그걸 보고 들어가는데 원래 작년까지는 논술시험이었는데 이번 연도부터 바뀌었어요. (중략) 어렸을 때부터 돈 관련된 걸 좋아했어요. 가계부 쓰는 것도 좋아해서 얼마 썼지, 얼마를 벌었지. 그런 걸 해서 그런 거 때문에 장래 희망에 영향을 끼친 것 같고 회계사에서 은행원으로 바뀐 이유는 부모님 때문인데 어머니가 처녀였을 때 은행원이었는데 그때 얘기를 해주시면서 너는 회계랑 재무 쪽으로 관심이 있으니까 (중략) 제 강점을 더 돋보일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서 꿈을 꾸게 됐어요.

② 다양한 분야의 진로 모색 후 간호사로서의 진로 설정

박○민은 다양한 직업훈련 경험을 해보았지만, 자신의 꿈은 간호사로 정하고 그에 맞는 대입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앞에서 살펴본 참가자 정○영과 박○민의 경우 진로 설정의 배경에는 어머니의 취업 분야와 유사한 직종이라는 특징이 있었다.

박○민: 다른 쪽으로는 제과제빵에 흥미를 가지고 있어서 집을 나오기 전에는 혼자 만들기도 했고 제과제빵도 많이 생각했고 처음에는 쉼터에서 다른 쉼터에서 연계를 해 주셨던 직업훈련으로 코딩도 배워서 그런 포토샵이나 웹디자인이나 포토샵, 웹퍼블리셔까지도 생각했었어요. (중략) 많은 흥미를 가졌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건 간호사인 것 같아요.(중략) 간호를 가서 면허를 따고 간호사로 취직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략)

박○민: 어머니가 보건 교사시고 간호사 생활을 하셨고 완전히 영향이 없었던 것 같진 않아요. 아무래도 쉼터에 들어오기 전에 보고 있었던 삶이 있고 저는 이민까지도 생각하고 있어서 이민을 생각했을 때 제가 가고 싶은 나라는 간호 인력을 많이 뽑고 있어서 생각했을 때 간호로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③ 간호학과 졸업 후 의학전문대학원 진학 희망

김○선 참가자도 간호학과 진학을 염두에 두고 있었으며, 인터뷰 당시 수시 지원을 하여 합격 여부를 기다리는 상황이었다. 의대 진학을 꿈꾸며 3수 도전을 하였지만 이루지 못한 경험이 있다. 이에 좌절하지 않고 우선 간호학과에 입학하여 졸업한 뒤 의학전문대학원 진학을 통해 의사의 길을 가고 싶은 꿈을 갖고 있다.

김○선: 간호학과는 가지만 간호사는 생각 없어요.

면접자: 그러면 혹시 지금 따로 진로 계획을 하고 계신 게 있나요?

김○선: 의전원이 아직 폐지되고 있긴 한데 만약에 제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폐지 안 된다면 의학전문대학원 가서 의사하고 싶어요.

면접자: 그러면 학교 다닐 때도 혹시 장래 희망이 그쪽과 관련된 거였나요?

김○선: 네, 의대 가려고 3수 했는데 잘 안돼서 포기했어요. (중략)

면접자: 그러면 지금 어쨌든 의사 쪽으로 진로 계획을 갖고 계신 데 이렇게 진로 결정을 하게 된 계기나 영향을 준 사람이 있을까요?

김○선: 집에 돈이 별로 없어서 돈 많이 벌고 싶어서

면접자: 근데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다른 쪽도 있잖아요.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의료 관련된 분야를 생각하게 된 계기가...?

김○선: 그냥 그게 제일 멋진 것 같아서 (중략) 만약에 환자들을 만나면 잘 대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④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의 진로 준비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분야에서 직업을 구하려는 청소년들도 있다. 이○주는 카페나 재즈바 창업, 바텐더 일에 관심을 갖고 관련 분야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으며, 관련 분야 아르바이트 구직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씬터 지원으로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한 바 있으며, 향후 성년이 되면 주조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할 계획도 세웠다. 권○솔 참가자도 소설가라는 진로를 향해 씬터에 거주하면서 글쓰기 관련 학원을 다니고 있다.

이○주: 저는 카페가 아니라도 바텐더가 될 것 같아요. (중략) 씬터에서 그런 것도 지원해 주거든요. 학원도, 원래 주조기능사를 다니고 싶었는데 제가 미성년자이기도 하고 인식이 그렇다 보니까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바리스타부터 땀어요. (중략) 학교 다닐 때는 틀만 있는 느낌, 그냥 봐서 바텐더를 하고 싶다, 재즈바가 하고 싶어서 베이스를 전공해서 세션들 불러서 공연하고 술 팔면 재밌을 것 같아서 재즈바 열고 싶었다가 자퇴하고 바리스타 자격증 따고 카페 경력 좀 쌓다가 바텐더로 넘어가고 이런 계획 같은 게 있죠.

권○솔: 이전 상당히 길어질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소설가가 되고 싶은데 사람들이 소설가가 안 좋다는 인식을 가진 분들이 꽤 많은데, 그게 아마 물질적인 걸 많이 못 벌어서 그런 것 같아요 (중략) 면접자: 그러면 그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과 관련된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권○솔: 구체적인 건 아니고요. 학원을 다니면서 따로 글도 써보고 있어요. 그거라면 계획은 다 성립되지 않을까 싶어요.

⑤ 특성화고등학교 진학 및 미용 분야 진로 설정

진로 설정 과정에서 부모와 의견 충돌이 극대화되었던 임○아는 자신의 적성과 관심은 미용 분야라는 인식이 있으며, 이와 관련된 특성화고등학교 재입학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검정고시를 통해 고졸 학력을 취득하는 방법도 고려하였지만, 학교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더 많다고 판단하였고, 다음 해에 미용 관련 특성화고등학교에 재입학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임○아: 자퇴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진 않아요. 복학 준비 중이에요. (중략) 전에 다녔던 고등학교는 멀어서 주변에서 제일 가까운 특성화고로 갈 계획이에요. (중략) 계획한지 한 달 좀 넘은 것 같고 내년 3월 말에 학교로 다시 복학, 그때까지 복학 준비도 해서 아니면 자격증이라도 하나 따서 다닐까.. (중략) 일단 헤어부터 따려고요 (중략) 검정고시를 따도 학교에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이나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학교를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중략) 학교를 간다고 생각한 게 이렇게 살다가는 진짜 이렇게밖에 못 살겠구나. 나이 만 24세까지 여기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돈이라도 먼저 모으자 그래서 돈 좀 모아서 학교를 가자, 자격증을 따자 이렇게 땀었어요.

⑥ 대학 입학 준비를 위해 검정고시 재응시 계획: 야간대학 진학 계획

중학교 2학년 재학 중 학교를 그만둔 정○재는 컴퓨터에 거주하면서 꿈드림센터의 도움을 받아 중학교 졸업 검정고시를 취득하였다.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의 경우 장학재단의 지원으로 인터넷 강의 수강과 교재 지원을 받고 응시하여 고졸 학력을 취득하였다. 하지만 검정고시 점수를 활용한 대학 입학 전형에 유리한 고지를 접하기 위해 고졸 검정고시를 다시 치를 준비를 하고 있다. 스스로 영어 과목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영어학원을 다니며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정○재: (고졸 검정고시) 한번 (보았고) 이번에 고등학교를 다시 보려고
면접자: 점수 올리려고? 나중에 대학교 갈 때?
정○재: 야간으로 가려고 (중략) 그때는 솔직히 아예 공부를 안 했었거든요.
면접자: 아예 안 해도 붙은 거네, 공부 좀 하면 점수가 높게 나오겠네요.
정○재: 그래서 영어 공부를 그때 못했어서
면접자: 그러면 검정고시 준비할 때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조금 도움받았어요? 아니면
정○재: 중학교 때는 도움 받았는데
면접자: 고졸은 혼자서 했어요?
정○재: 네, 장학금 받은 게 있어서 그걸로
면접자: 무슨 장학금 받았어요?
정○재: 제가 거기, 장학재단에서 신청서를 보내니까 180만 원 상당을 지원해 주셔서.
면접자: 학원 등록?
정○재: 네, 인강이나 그런 거. 교재비랑

⑦ 창업 계획

한편, 빨리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에 창업을 꿈꾸는 연구 참가자도 있었다. 김○희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부모님을 위하여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창업 비용 마련을 위해서 군에 입대하여 사병 월급을 모아 사업 자금을 마련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김○희: 제가 좀 어려운 가정에서 살다 보니까 부모님 마음을 좀 더 빨리 알았어요. 돈이라는 것도 빨리 알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저희 엄마랑 아버지를 부자로 만들고 싶어요. (중략) 아직 제가 18살이고 학교를 안 다니지만, 이 학교를 안 다니는 게 단점이긴 하지만, 자퇴를 한 게 단점이잖아요. 검정고시를 따지 않은 것도 단점이지만 이걸 장점으로 바꾸면 남들보다 돈을 더 빨리 벌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더 빨리 벌어서 (중략) 천 얼마하고 10월 24일부터 저는 바로 군대에 가서 (중략) 군대에서 4,000만 원 정도 모아져요. 그러면 제 수중에 있는 1,000만 원이랑 5,000만 원 썩 다 모아서 사업을 시작하는 거죠. (중략) 짧은 기간 안에 제가 가게를 사서 그 가게에 있는 동안 탕후루가 갑자기 유행하면 만들어서 팔고 그러면 탕후루가

엄청 인기가 많아질 거고 탕후루를 많이 팔면 수익이 남을 거고. 그걸로 가겠세 내고 탕후루에 드는 재료비 내고 그렇게 하다가 탕후루가 인기가 없어지면 가게를 바꿔야죠. 그 순간에는. 그렇게 세대를 못 따라 가면 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세대를 따라 가야지. 그 세대에 맞는 걸 해야지만 돈이 많아져요. 세대를 못 따라 가면 더 아래가 되는 거고

(3) 여전히 모호한 진로

① 무엇을 할지 모호한 상태로 지냄

참가자 중 일부는 여전히 무엇을 할지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검정고시와 자격증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도 있었다. 진로 방향에 대해 모호한 상태이므로 어떤 분야의 자격증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막연했다. 그리고 진로 방향 설정 과정에서 안정된 거주 환경과 돌봄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도 진로 관심을 탐색하는 데에 집중하지 못하는 배경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백○우: 아니요, 아직은 결정을 못했어요. (중략) 그냥 자격증 따서 일을 할까 정도 생각했는데 아직 세부적으로

면접자: 어떤 자격증을 따야될지 생각해 보진 않았고요?

백○우: 네.

면접자: 그러면 따로 그런 진로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도?

백○우: 이제 슬슬 자격증 준비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면접자: 지금 검정고시 준비도 하고 계시나요?

백○우: 검정고시같이 슬슬 준비하려고

면접자: 그러면 아직 뚜렷하게 장래의 진로에 대해서 계획하신 건 없고요? 구체적으로?

백○우: 네.

면접자: 아직 계획을 구체적으로 하지 못한 이유는 어떤거라고 생각하세요?

백○우: 어떻게 준비하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안 잡아서 그거 때문에 아직 시작 못하는 것 같아요. (중략) 아무래도 한 곳에만 정착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뭘 꾸준히 본다고 해도 계속 이동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하나를 깊게 파고들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② 진로가 모호한 상태로 일단 학원 수강 중

일부 청소년들은 진로와 관련하여 뚜렷하게 목표를 정하지는 못했지만, 우선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변의 조언에 따라 자격증 준비 학원을 다니기도 하였다. 청소년쉼터 선생의 조언으로 통신 관련 학원을 수강하며 자격증을 준비하거나, 포토샵 수업을 수강하는 청소년도 있었다.

장○호: 전문 통신 쪽 시험 도와주는 학원 다니고 있어요.(중략) 컴퓨터하고 ITQ랑
 면접자: 언제부터 다니기 시작했어요?
 장○호: 지금 한 달 정도 됐을 거예요.
 면접자: 학원비는 쉼터에서 지원해주요?
 장○호: 나라에서
 면접자: 국비 지원으로. 그건 어때요? 할 만해요?
 장○호: 네. 할 만 한 것 같아요.
 면접자: 내 적성에 맞는 것 같아요?
 장○호: 적성에 맞기 보다는 그냥 뭐랄까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중략) 관심이 있던 않은데
 뭐라도 해야 되니까
 면접자: 그러면 미래에 하고 싶은 일이 있을까요?
 정○진: 아직 생각은 안 했어요.
 면접자: 그러면 포토샵 수업은 어떻게 듣게 되셨어요?
 정○진: 나중에 있으면 쓸 만하지 않을까
 면접자: 그게 쉼터에서 공통하는 프로그램인가요?
 정○진: 아니요, 제가 개인으로
 면접자: 본인이 하고 싶다고 말씀하셔서?
 정○진: 네. (중략)
 면접자: 혹시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에?
 정○진: 네.

(4) 꿈드림(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지원 수혜 경험

① 검정고시 준비 지원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은 검정고시 준비 과정에서 꿈드림센터의 지원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을 하였다. 교재 지원 및 선생님의 지도가 검정고시 준비에 유익했다고 평가하였다.

면접자: 그래서 중학교 검정고시 준비하고 있는 거죠?
 이○호: 아니요, 이미 올해 땀어요.
 면접자: 잘했네요. 어떻게 준비해서 땀어요?
 이○호: 꿈드림 거기서 연계해서 검정고시 대비반 이런 식으로 나눠서 신청해서 교재 사서 공부했어요
 면접자: 꿈드림에서 이렇게 뭔가 교재도 주고 어떤 도움을 줬을까요? 검정고시 준비할 때?
 이○호: 다른 선생님들이 와서 가르쳐 주는 것도 있고 거기에서 다 제공해 줘요.
 면접자: 그게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이○호: 네.
 면접자: 중졸 그건 언제 봤어요? 검정고시는?
 윤○호: 17살 때인가? 그것도 C시에 있는.. 원래 C시에 있을 때 꿈드림 거기 다니면서 ITQ?
 면접자: 컴퓨터 활용 능력 그런 거? 그런 것도 땀어요?
 윤○호: 그런 것도 따고 검정고시도 가르쳐 주더라고요. 왜냐하면 같이 형들 쉼터에 있을 때

가서 저는 중졸, 그 형은 고졸, 같이 가서 배우고

면접자: 그건 꿈드림에서 배운 건 도움이 됐어요?

윤○호: 네. 너무 됐어요. 왜냐하면 그 전날에 사실 선생님들이 딱 요점 해줬거든요. 근데 요점해준 게 시험에 나왔어요. 오마이갓. 다행이다. 한 번에 통과했죠.

면접자: 그러면 검정고시 준비할 때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조금 도움받았어요?

정○재: 중학교 때는 도움 받았는데

② 활동 및 자격증 취득, 대입 컨설팅 등 지원

검정고시 지원 외에도 다양한 자격증 취득 지원과 인턴십 지원, 동아리활동 지원, 급식 및 생활필수품 구입 지원에 대해서도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대학 입학에 위한 컨설팅 지원도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면접자: 그러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주로 인턴십 소개해 주고 다른 활동하는 거 있었어요?

정○재: 네네. 많아요. 타로 심리상담 자격증도 거기서 해주고 반려 뭉, 동물. 바리스타, 검정고시도 거기서 교육을.

면접자: 바리스타, 타로 심리상담 자격증, 자격증을 받았어요?

정○재: 저는 안 했어요.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중략) 거기 급식 키트나 제로페이라고 거기서 의복이나 필요한 거 살 수 있게 지원해 주고

면접자: 그러면 꿈드림에서 또 검정고시 준비 말고 다른 것도 한 거 있어요?

이○호: 이제 거기서 댄서 쪽이나 동아리 쪽도 있어서 참여한 것 같아요.

김○선: 꿈드림에서도 식사 지원을 해줘서 좋았고 (중략) 직업 프로그램, 자격증 학원 보내주는 것도 있고

면접자: 그래서 자격증도 따셨나요?

김○선: 오늘 시험 쳤는데 떨어졌어요.

면접자: 어떤 자격증?

김○선: 제과기능사요.

면접자: 어쨌든 제과기능사 자격증은 지금 진학하신 대학과는 다른 분야네요.

김○선: 원래 취미라서 (중략) 어느 대학을 갈지 고민이었는데 학교 밖 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도 컨설팅해 주는 거 있어서 그게 (도움이 됐어요)

표 IV-8. 진로 관련 인식과 대응

주제군	주제	구성 의미
진로 관련 인식과 대응	진로 설계 관련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진로 설계 관련 안내의 부재로 인한 어려움 • 수능 준비에 대한 지원 부족 체감

주제군	주제	구성 의미
	구체적인 진로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은행원으로 진로 설정 다양한 분야의 진로 모색 후 간호사로서의 진로 설정 간호학과 졸업 후 의학전문대학원 진학 희망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 진로 준비 특성화고등학교 진학 및 미용 분야 진로 설정 대학 입학 준비를 위해 검정고시 재응시 계획: 아간대학 진학 계획 창업 계획
	여전히 모호한 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엇을 할지 모호한 상태로 지냄 진로가 모호한 상태로 일단 학원 수강 중
	꿈드림(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지원 수혜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검정고시 준비 지원 활동 및 자격증 취득, 대입 컨설팅 등 지원

6) 거주지로서의 청소년쉼터 생활

(1) 청소년쉼터 생활의 장점

① 맛있는 식사

청소년들이 집을 나오면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의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노숙이나 방황을 하며 제대로 끼니를 챙기지 못했던 청소년들은 청소년쉼터에서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만족감을 드러내었다. 기본적인 삶을 위한 환경이 제공되는 것으로도 청소년들은 우선 만족을 드러내었는데, 윤○호의 경우 노숙하면서 배고픈 경험이 이어졌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먹을 수 있을 때 먹어두자는 태도가 이어져 왔다고 진술하였다.

임○아: 밥이 맛있어요.

면접자: 그래요. 성격이 되게 긍정적인 성격 같아요.

임○아: 긍정적이라기보다는 진짜 사실만 얘기하는 거데

이○호: 좋은 점은 밥이 너무 맛있고 검정고시도 준비하는데 여기서 선생님들도 다 도와주셔서 너무 좋아요.

장○호: 일단 여기는 밥이 맛있어요. D시 쉼터는 아까도 말했듯이 이동 수단이 편리해서 좋고

정○재: 일단 음식이랑.. 쉼터 여기 말고 밖에 있을 때요? 일단 거주지도 없고

김○선: 그냥 밥 먹을 수 있는 것도 좋고 집에서 밥이 없어서 밥 먹는 것도 좋고

면접자: 그러면 집에서 식사를 못 하셨으면 어떻게 하셨어요?

김○선: 알바비 다 밥 나가는 걸로 썼어요.

면접자: 어머니께서 그런 건 아예 안 해 주셨군요?

김○선: 자기 밥에 손대지 말라고 그래서 사 먹거나 배달시켜 먹었어요.

면접자: 아주 나쁘진 않네요. 그러면 밖에서 지낼 때 보다 쉼터 안에서 생활하는 건 만족도를 0점에서 10점으로 준다면?

윤○호: 10점이에요.

면접자: 쉼터가 좋구나, 어떤 점이 제일 좋아요?

윤○호: 아무리 단기여도 의식주는 해결되니까 그래서 그때는 되게 말랐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단기니까 언제 퇴소당할지 모르니까

면접자: 약간 불안함이 있어요?

윤○호: 네, 그래서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먹어두자, 그래서 억지로 먹었던 것 같아요.

② 마음에 드는 프로그램

식사와 함께 청소년쉼터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연구 참여 청소년들은 만족감을 드러냈다. 청소년들은 캠프나 여행, 문화활동 등 쉼터 밖에서 체험하는 활동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면접자: 쉼터 프로그램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프로그램은 뭐가 있어요?

이○호: 캠프요.

면접자: 쉼터 친구들이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이○호: 네.

면접자: 얼마나 자주 다녀요?

이○호: 1년에 2번 가요.

면접자: 어디 가봤어요?

이○호: 강원도 가봤어요.

면접자: 쉼터 프로그램 중에 좋았던 프로그램 있을까요?

장○호: 캠프

면접자: 그건 1년에 몇 번 가요?

장○호: 때마다 다른 것 같아요.

면접자: 어떤 캠프를 갔어요?

장○호: 서핑, 사륜 오토바이도 탔었고

면접자: 타는 걸 즐기나 봐요?

장○호: 재밌어요.

김○희: 여기서서 일단 모든 게 좋은 게 선생님들이 저희한테 몇 달에 한 번씩 여행 일정을 잡아요. 애들이 여기 쉼터에만 갇혀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일반 애들이랑 다르게. 그러다 보니까 쉼터 애들한테 사회 공기도 마시고 한 번씩 다른 데 호텔도 잡고 그런 걸 느껴주게 하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좋아요.

면접자: 그 만족도를 10점 만점으로 하면

김○희: 저는 그게 쉼터 애들 다 물어봐도 10점이지. 왜냐하면 힘들게 여기서 계속 버티고 있는

애들이 안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한 번씩은 나가 줘야 하는데. 몇 달에 한 번씩 여행 가는 것도 쉼터 아이들한테 모든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민: 문화체험활동 같아요. 한 달에 한 번 이 쉼터를 제외해도 대부분 쉼터에서 지켜지고 있는 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문화체험 아니면 다양한 체험을... 그래서 진짜 쉼터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자기가 돈을 내고 가야 할 법한 뮤지컬이나 연극을 보러 가거나 심지어 거금을 들여서 해야 하는 퍼스널 컬러 진단 같은 것도 쉼터 학생들을 대상으로 데리고 나가 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집에서 살 때 보다 더 삶이 윤택해지는 느낌이 아닌가...

③ 부모의 압박에서 벗어난 생활이 가능해 짐

가출 청소년들은 우선 부모와의 갈등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거처로서 청소년쉼터 생활에 대하여 만족감을 드러내었다. 특히 개인적으로 체형 문제 때문에 부모의 간섭을 받았던 연구 참가자는 쉼터에 거주하면서 식사를 잘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가정에서 통금 시간 등 생활의 제약을 받던 참가자도 쉼터에서 오히려 자유를 보장받고 있으며, 의견이 수용된다는 점을 장점으로 들고 있었다.

정○영: 집에 있었을 때는 부모님 압박이나 가정 상황을 보면 되게 불안했고 힘들었어서 너무 싫었는데 여기 와서는 그런 걸 이제 학대도 하실 때도 있고 먹는 거에 대한 제가 다이어트 때문에 어머니도 그런 거에 되게 압박을 하셔서 간식도 못 먹었는데 밥도 잘 못 먹고 그랬는데 여기 와서 밥도 괜찮게 잘 먹으니까, 그것도 그렇고. 여기 와서 심하게 욕설을 듣거나 학대를 받지 않으니까 그게 만족스러워서

권○솔: 그래도 쉼터에서 생활은 장점. 단점을 꼽아볼 수 있는데 장점은 그래도 집보다는 자유라는 게 좀 더 보장이 되는 것 같아요. 뭐가 하고 싶다고 하면 받아들여 주시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 들어주는 데가 쉼터밖에 없다. 다른 데는 의견을 낸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여지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④ 일상생활 지원 및 편안한 환경에 대한 만족감

개인적으로 부모와의 갈등이 심화된 상태에서 별 준비 없이 집을 나온 연구 참가자들은 청소년쉼터에 거주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일상생활 지원, 의복 등 생활필수품 지원에 대해서도 만족감을 표하였다. 부모와의 갈등, 소년원 생활 등으로 심신이 피폐해진 상황에서 쉼터 생활을 선택한 참가자도 안전한 환경에서 지도자들의 보호를 받으며 생활하는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표하기도 하였다.

임○아: 쉼터에 있는 게 그리고 경찰분들 만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도움 많이 받았어요. 그분들 덕분에 쉼터 올 생각도 다시 했고, 꿈드림에 그분들 때문에 방문했고

면접자: 가정 밖 청소년으로서 경험한 지원 정책이나 서비스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어떤 거예요?

정○영: 지금은 일단 피복 지원

권○솔: 집을 나오게 되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게 잘 못하고 먹을 거하고 돈이에요. 이 세 개가 받쳐줘야 생활할 수 있는데 밖에 나온 지 일주일만 지났다고 가정을 하면 그만큼 옷하고 돈은 떨어져 있을 거고, 근데 그게 보장이 된다? 너무 좋다. 그만큼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었던 거고 그만큼 할 일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거니까 아까보다는 장점이 컸던 거죠.

김○희: 여기서는 솔직히 말해서 저번 연도에도 왔었는데 제가 소년원이라 교도소를 갔다 오니까 여기가 천국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쉼터라는 게 솔직히 말해서 가정사가 안 좋거나 보호자 위탁이 안 되는 애들을 보내는데 솔직히 여기는 소년원보다 더 아니라 저는 여기가 더 편하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소년원에 가서 나쁜 애들이랑 지내는 것보다 차라리 여기에서 핸드폰 되고 모든 거 선생님한테 허락받아서 외출 나갈 수도 있고 외박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런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는 좀 더 그리고 열심히 생활해서 제가 재판에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중략) 뭔가 혼자 있으면 집에 계속 누워 있으면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고 제가 사회에 적응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여기에서 검정고시 공부라도 하자는 그런 생각으로 여기 왔습니다.

(2) 청소년쉼터 생활의 제약

① 청소년쉼터 규칙 및 생활시간 준수

가출 뒤에 길거리에서 방황하거나 지인 집에 기거하던 청소년들은 청소년쉼터에 연계되어 생활하고 있었다. 이들은 쉼터 생활에 대해 큰 어려움은 없지만, 쉼터 입소 이전에 자유로운 개인 생활이 가능했던 여건에 비하여 규칙이나 생활 수칙 준수, 용돈 사용 등에 대한 제약을 언급하였다.

이○호: 쉼터에 살면 규칙을 따라야 되니까 힘든 규칙도 있고 쉬운 규칙도 있는데 따르기가 힘들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게 힘들어요.

면접자: 따르기 힘든 규칙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호: 딱 취침 시간은 11시 이런 식으로 아침 12시 점심 먹고 저녁에는 6시에 밥 먹는다. 이런 식으로 (중략) 외출도 확인해야 되고 어디 나가도 외출 신청서를 써야 되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이○주: 여기 너무 저한테 답답하긴 해요. (중략) 나갈 때 마음대로 못 나가고 택배도 마음대로 못 시키고 그 언니한테 연락을 계속하는 것도 그렇고 마음에 안 들고 그냥 이거 해도 돼요? 안돼, 이라고 (중략) 통금도 8시예요. 여기는, 어제 20분 정도 늦었는데 엄청 혼났거든요. 그런 게 딱딱하긴 해요.

면접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정을 나와서 지내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어떤 거였어요?

이○주: 돈이요.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한 달 월급으로 살아야 되고 용돈도

못 받으니까 돈에 너무 쪼들려 살아요.

면접자: 그전에는 부모님께서 용돈 주시는 걸로 다 생활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한 달 월급으로 모든 생활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주: 네.

권○솔: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택배를 시키고 싶다. 그래도 저 혼자 시킬 수 없고 뭐든지 다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 쌤들한테 방해가 되고 싶지도 않고, 안 해야 한다는 규칙도 있기 때문에 그걸 지키면서 여기서 지내야 하거든요. 그게 가장 불편했던 것 같아요. 개인적인 일을 못 하니까.

한편, 쉼터 생활을 위해 부과되는 생활 규칙 준수에 대해서는 오히려 자신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라 인식하는 참가자도 있었다. 가정에서 불규칙한 생활을 했고, 또래 청소년들과 어울리며 비행을 저질렀던 참가자는 초기에 쉼터 입소했을 때는 규칙 준수가 어려웠지만, 소년원 생활을 하고 난 뒤 다시 입소한 쉼터 생활에 대해서는 규칙을 지키며 생활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김○희: 네, 엄청 지금 만족합니다. 예전에 집에 있을 때보다는 지금 생활이 더더욱 만족합니다. 예전에 집에 있을 때 항상 새벽 세고 그랬었는데 예전에는 자라는 시간이 규칙적으로 있었고 씻는 시간, 밥 먹는 시간 규칙적으로 있으니까 이 시간에 맞춰서 운동을 하면 제 자신이 엄청 기분이 좋아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권을 못 뺏겨봐서 모르는 건데 뺏기고 나고 여기서 보면 여기가 거의 천국입니다.

② 청소년쉼터 거주 청소년들 간 갈등

여러 명의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한다. 청소 등 일상 역할을 분담하는 과정이나 간식을 나눠 먹는 등 일상생활에서 의견 차이로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며, 서로 다른 환경에서 생활하던 청소년들이 거주하는 상황에서 도난이나 싸움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호: 살다 보면 가끔 다툼요.

면접자: 주로 뭐 때문에 다툼까요?

이○호: 청소하거나 마음이 서로서로 들지 않으면 다툼요.

면접자: 청소는 누가 주로 하는 거예요? 청소하는 규칙이 있어요?

이○호: 네, 저녁 9시에 다 모여서 청소 구역을 13명이 다 정해서 청소하러 가는데 10시까지 해요. 청소하다가 다툼 애들이 많아요.

면접자: 최근에 어떤 걸로 다툼어요?

이○호: 먹을 걸로 다툼어요. 양보를 안 했어요. (중략) 간식 초코파이 이런 거

박○민: 아무래도 모르는 친구들이랑 생활을 같이 하다 보니까 그 친구가 어디서 온 친구인지 모르겠지만 같이 어느 날 갑자기 같은 방을 쓸 수도 있다 보니까 도난이 되거나 너무 살아왔던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좁혀지지 않는 의견 차이 아니면 생활 습관. 이런 것들 대부분 선생님께서 맞춤을 해 주시고...(중략) 기준 하나를 잡고 다들 그쪽으로 맞춰가고

③ 공동생활로 인한 불편감이 있지만 불안이 줄어들

한편, 공동생활로 인한 생활의 불편은 있지만, 다수가 함께 거주하면서 감수해야 하는 문제라 여기며 불편함을 받아들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공간을 두세 명의 룸메이트들과 함께 공유하며 생활하는 점은 오히려 불안감 등을 덜어줄 수 있는 장점으로 인식하기도 하였다.

정○영: 집에 있었을 때는 개인 공간이 딱 주어지고 제 방이 있었는데 여기는 공동생활이니까 씻는 사람이, 씻는 것도 그렇고 드라이기를 쓰거나 공동생활 문제에서 네. 그것도...(중략)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좀 답하게 말하면 여기는 작은 사회 같은 느낌이잖아요. 언니들도 계시고 동생들도 있으니까 어쨌든 사회에서는 눈치를 봐야 되고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방에서도 솔직히 2, 3명이 쓰니까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혼자 있을 때보다 룸메가 생기니까 저는 불안해하거나 그런 게 없어지는 것 같아요. 또 나쁜 쪽도 있지만 좋은 쪽도 많아서 지원 같은 거는 지금도 회복 지원이나 생활용품 지원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표 IV-9. 거주지로서 청소년쉼터 생활

주제군	주제	구성 의미
거주지로서의 청소년쉼터 생활	청소년쉼터 생활의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맛있는 식사 • 마음에 드는 프로그램 • 부모의 압박에서 벗어난 생활이 가능해 짐 • 일상생활 지원 및 편안한 환경에 대한 만족감
	청소년쉼터 생활의 제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쉼터 규칙 및 생활시간 준수 • 청소년쉼터 거주 청소년들 간 갈등 • 공동생활로 인한 불편감이 있지만 불안이 줄어들

7) 용돈 마련과 소비, 저축

(1) 생활 소비를 위한 비용

① 소소한 소비에 사용되는 지원금

청소년쉼터 생활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소소한 소비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쉼터 지원금으로 충당하고 있었다. 쉼터 지원금 내역은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다르지만, 한 주 단위로 5천 원부터 26,000원 수준으로 소소한 소비를 하는 데 사용되지만 핸드폰 요금 등을 충당하는 데는 부족함이 있다.

면접자: 쉼터에서 생활하면서 용돈은 아르바이트한 돈으로 해요? 어떻게 해결해요?

이○호: 쉼터에서도 지원해 주세요. 한 달에 2만 원 정도 주세요.

면접자: 그건 주로 뭐 하는데 쓸까요?

이○호: 필요할 때 쓰는데 올리브영에 가서

면접자: 화장품 사고, ○호씨가 제일 좋아하는 화장품은 뭐예요?

이○호: 쿠션이요.

면접자: 그러면 지금 용돈은 어떻게 충당해요?

장○호: 쉼터에서 일한 한 달에 4만 원씩 주거든요. 그거하고 수당 나오는 게 있어요. 생활비 받아서 쓰고

면접자: 그러면 지금 경제적인 상황은 어떤 편이세요? 용돈이 주요 수입원인가요?

백○우: 네.

면접자: 어느 정도 받으세요?

백○우: 26,000원 정도

면접자: 주 단위인가요?

백○우: 네.

② 아르바이트를 통한 용돈 마련

청소년들은 가정에서 별도로 용돈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쉼터 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아르바이트를 통해 수입을 얻는 사례들도 있었다. 고깃집, 식당 등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물류센터 아르바이트, 공방에서 목공 작업을 하며 용돈을 벌고 있었다. 한 참가자의 경우는 SNS에서 애니메이션 대본을 읽어주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면접자: 그러면 집에서 지원받는 건 아예 없을까요?

백○우: 네.

면접자: 그러면 핸드폰 요금이나 어떤 생활적인 부분에서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쉼터에서 다?

백○우: 아니요, 핸드폰 요금은 다 제가,

면접자: 그러면 씬터에서 받는 용돈으로 커버가 가능한가요?

백○우: 용돈으로 커버가 안 돼서 알바를 하거나 그러는 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면접자: 혹시 아르바이트도 했어요?

장○호: 여기 와서 목공 쪽으로

면접자: 얼마나 했을까요?

장○호: 작년부터

면접자: 몇 개월 정도?

장○호: 했다가 안 했다가 그래서

면접자: 월급도 받았어요?

장○호: 네.

면접자: 월급은 어떻게 나름대로 저금을 하나요?

장○호: 필요한 걸 사거나...

정○영: 목소리로 나레이션, 인스타그램에서 하는 나레이션

면접자: 그리고 보니 목소리가 예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 돈을?

정○영: 한 달에 적게 벌 때는 7, 8만 원에서 많이 벌면 12만 원

면접자: 그건 어떤 계기로 알게 됐어요?

정○영: 제가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데 그런 정보 채널을 팔로우하고 있다가 스토리에 올렸는데 나레이션을 구한다고 적혀 있어서 목소리를 대본을 읽고 면접을 봤는데 6, 7명 중에 뽑혔어요.

면접자: 그러면 지금 경제적인 상황은 어떤 편이세요?

이○주: 많이 돈이 없어요.

면접자: 가정에서 지원받는 부분은 아예 없는 거예요?

이○주: 휴대폰비, 아직까지는 내주고 계시는데 그것도 어떻게 바꾸는지 몰라서 내주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조만간 유심 갈아 끼울 것 같아요.

면접자: 그러면 저축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이○주: 월 수익이 적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생활비 다 쓰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평균 50이라 이번 달에 38만 원 벌었거든요. 생활비로 다 쓰면 없어져요.

면접자: 고깃집 알바는 주말에는 안 하시고 평일에만 하시는 거예요?

이○주: 아니요, 스케줄로 하고 주 3, 4일 정도 가고

면접자: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빚이 있다 아니면 대출 받은 것도 있으세요?

이○주: 아니요.

면접자: 그러면 휴대폰비는 누가 결제해요?

이○호: 제가 해요.

면접자: 보통 한 달에 얼마나 내요?

이○호: 38,300원

면접자: 직접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으로?

이○호: 네.

(2) 저축과 부채

① 아르바이트하며 빚을 갚아나감

대부분의 연구 참가자 중에 채무를 진 경우는 없었다. 그러나, 한 참가자는 한식조리사 자격증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학원비 마련 등 돈이 필요해 대출을 받게 되었으며, 휴대폰 소액 결제를 이용하며 채무가 늘어났다고 하였다.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며 빚을 갚고 있으며, 월급에 대해서는 쉼터 지도자가 관리를 해주는 실정이었다.

면접자: (중략) 빚 갚으면서 한 달에 얼마씩 갚고 있어요?

윤○호: 75만 원

면접자: 그러면 따로 저축하는 건 있어요?

윤○호: 25만 원, 저희 공방이 100만 원 받거든요.

면접자: 그러면 빚 갚고 저축하고 내 용돈은 없어요?

윤○호: 가끔 담당 선생님한테 가끔 뭐 할 때나 뭐 있으면 돈 달라고 하죠.

면접자: 그러면 그건 무슨 돈 지원비가 나와요?

윤○호: 아니요, 제가 모은 돈 25만 원씩 모은다고 그랬잖아요.

② 아르바이트하며 저축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 중에는 아르바이트하며 꾸준히 저축하는 사례들도 있었다. 정○재는 식당에서의 서빙을 통해 저축하는 등 전세 자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또 다른 참가자들도 불안정한 미래 대비 및 학비 마련을 위해 틈틈이 아르바이트하며 저축하고 있었다.

정○재: 장학금 받는 데서 장학금 주는 사장님께서 운영을 하시는 곳에. 지원하시는 분 중에. 제가 알바하고 싶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면접자: 초대를 해 주셨구나, 알바 해보니까 어떤 소감이 들었어요? 힘들게 돈을 벌어보고 하니까

정○재: 돈을 아껴 써야겠다.

면접자: 그래서 저축도 하고? 적금도 들고? 그래서 얼마 모았어요?

정○재: 1500만 원

면접자: 많이 모았네, 모아서 전세 얻으려고?

정○재: 네.

면접자: 그러면 혹시 저축은 하고 있나요?

정○영: 네, 하고 있어요.

면접자: 저축하는 이유는 어떤 거예요?

정○영: 나중을 위해서 나중에 갑자기 돈이 필요할 수도 있고 갑자기 옷이 없거나 뭐가 먹고 싶을 수 있으니까

면접자: 아르바이트로 돈 버는 건 저금하고 있어요?

이○호: 네.
 면접자: 어떤 식으로 저금하고 있어요?
 이○호: 같은 통장에 그냥 저금해서 안 쓰고 있어요. (중략) (하루에) 10만 원 조금 넘게
 면접자: 그거 다 저금해요?
 이○호: 다 저금하진 않고 쓸 일도 있어서 계속 가면 쌓이니까 (한 달에) 30만 원씩 저금해요.
 면접자: 쉼터에서 어떤 지원은 없고요?
 김○선: 일주일에 2만 원씩 줘요.
 면접자: 그러면 집에서 지원은 아예 없죠?
 김○선: 네.
 면접자: 그러면 저축은 하고 계세요?
 김○선: 네.
 면접자: 저축하는 이유는 어떤 거 때문에?
 김○선: 학비 때문에
 면접자: 그러면 주로 저축하는 돈은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저축하세요?
 김○선: 네, 그거밖에 없어요.
 면접자: 빚은 없고요? 대출을 했다가?
 김○선: 없어요.

표 IV-10. 용돈 마련과 소비, 저축

주제군	주제	구성 의미
용돈 마련과 소비, 저축	생활 소비를 위한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소한 소비에 사용되는 지원금 • 아르바이트를 통한 용돈 마련
	저축과 부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르바이트하며 빚을 갚아나감 • 아르바이트하며 저축

8) 심리 정서 상태

(1) 부정적 심리정서에 대한 일시적 대응

① 불안한 심리상태에 대한 상담 지원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불안정한 현재의 삶과 미래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심리적으로 불안함을 느끼고 있었다. 이○호의 경우에는 쉼터에서 일시적으로 상담 지원을 받고 부정적 정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얻고 있었다.

면접자: 요즘음 지내면서 내 마음 상태는 어떤 것 같아요?
 이○호: 너무 힘들고 불안해요. (중략) 그냥 너무 살기가 너무 지루하고 이렇게 친구들도 다두고 그래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고 (중략)

면접자: ○호씨가 기분이 우울할 때 따로 상담 선생님을 만난 적은 없어요?

이○호: 있어요.

면접자: 어디서 만났어요?

이○호: 쉽터요.

② 부정적인 기분이 들지만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음

한편, 일부 청소년들은 불안이나 우울 등 부정적 심리 정서가 나타나는 것을 느끼지만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는 않고 있다. 적극적 대응을 하지 않는 배경으로는 얘기하더라도 상황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면접자: 언제 그런 감정이 많이 느껴지세요?

백○우: 이제 새벽쯤이나 아니면 지치고 힘들 때 그런 감정이 많이 느껴지는 편이에요.(중략)

면접자: 그러면 그런 기분이 심해져서 치료를 받았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아보신 적은 없을까요?

백○우: 아니요, 아직은

면접자: 혹시 그런 필요성은 못 느꼈고요?

백○우: 필요한 것 같기는 해요.(중략) 그냥 그런 감정이 느껴질 때 바로바로 조절이 안 되고 좀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생활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면접자: 그러면 본인이 그런 감정이 느껴질 때 어떻게 이겨내고 계세요? 어떤 식으로 조절을 하거나 이겨내시는지?

백○우: 그냥 뭐 핸드폰 하는 게 다인 것 같아요. 누구한테 말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면접자: 혹시 그런 감정이 느껴질 때 응원하는 사람은 없을까요? 보통 혼자 이겨내는 편인가요?

백○우: 네. (중략) 도움을 요청한 적은 없고. 그냥 이제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적은 있는데. 이런 상태를 얘기해도 바뀌는 게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어서 얘기 안 했던 것 같아요.

정○영이 불안감을 느끼는 배경에는 부모가 찾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전제 되어 있으며, 자신이 의지하고 공감받을 수 있는 어른이 부재가 외로움을 느끼는 배경임을 토로하였다. 정○진도 우울이나 불안 등 부정적 감정을 느끼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않고 있으며, 단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면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방식으로 해소하였다.

정○영: 일단 불안함은 여기 와서 많이 느끼는 것 같고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다 보니까 부모님이 찾아보면 어떡하지 불안함을 느끼기도 했고 외로운 건 보듬어줄 사람도 없고 부모 입장에서 공감을 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외로움은 늦게 오는 것 같아요. (중략) 보통 친구들한테 말을 하거나 노래 듣기도 하고 친구들하고 노래방 가기도 해요.

면접자: 선생님이나 다른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신 그런 이유로 도움을 요청하신 적은 없었고요?

정○영: 네, 딱히 그렇게 심각할 정도로 생각을 해본 게 아니라서

면접자: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이런 감정을 느낄 때는 없으세요?

정○진: 느낄 때 있는데... 모르겠어요.

면접자: 이유는 모르겠고 그런 기분이 느껴지는 거예요?

정○진: 네.

면접자: 그런 기분이 들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거나 선생님한테 요청했다거나 다른 사람한테 요청한 적이 있을까요?

정○진: 별로...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 같아요.

(2) 부정적 심리정서에 대한 적극적 개입 지원

① 심한 불안으로 상담 및 치료를 받는 중

일부 청소년은 심한 불안이나 우울 등으로 약물 치료와 상담을 병행하고 있었다. 스스로 자립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극심한 스트레스는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개입으로 심터 지원을 통해 치료 지원을 받고 있었다. 이○주는 가족이 정신과 치료에 대해 동의해 주지 않아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었으나 심터의 적극적 지원으로 상담과 치료를 받게 되어 만족감을 드러내었다.

이○주: 불안이 좀 높게 나와서 불안약 먹고 있어요. (중략) 요즘은 제가 신경 쓸 게 많아서 면접도 계속 보러 다니고 정직원으로 일해서 돈 벌면 살 집도 알아봐야 되니까...

면접자: 그렇게 병원을 다니신 건 오래된 일이에요? 최근에 있었던 일인가요?

이○주: 여기 와서 한 달 됐을 거예요. (중략) 스트레스 많이 받거나 신경 쓸 상황이 많아지면 저 혼자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혼자 불안해져서 내가 버틸 수 있을까? 나 같은 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면접자: 요즘 많이 고민이 되거나 스트레스받는 건 뭐예요? 어떤 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건지

이○주: 일자리가 제일 고민이죠. 지금 하는 고깃집을 그만두는 이유가 월 수익이 너무 적어서거든요. 하루에 12시간 정도 일하는 정직원을 구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나이가 미성년자에 어리다 보니까 정직원을 많이 안 뽑아주세요. 다 돌리고 있는데 하나도 없어서 (중략) 상담 쪽이나 약간 치료 같은 부분에 만족하고 있긴 해요. 상담관님이란 얘기도 많이 나눠봤고 정신과에 가서 치료를 받는 건 처음이거든요. 원래 전부터 내가 정신병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은 많이 했는데 부모님 동의가 없어서 정신과에 못 갔었는데 그때 심터에 와서 정신과를 보내주고 약을 먹으니까 안정된 느낌도 받는 것도 만족하고 있어요.

면접자: 건강에 대한 불안함이 있으세요?

김○선: 네.

면접자: 그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김○선: 근데 제가 원래 이게 너무 심해서 그 치료를 받았다가 지금은 좀 괜찮아진 거거든요.

면접자: 어디서 상담을 주기적으로 받으셨어요? 병원에서?

김○선: 병원에서
 면접자: 쉼터에 들어오기 전에 받으셨던 건가요?
 김○선: 네.
 면접자: 그러면 치료는 오래 받으셨어요?
 김○선: 1년 넘게 받았어요.
 면접자: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들 때 도움을 다른 분들한테 요청하거나 쉼터 선생님께 요청하진 않으시고요?
 김○선: 지금도 병원 다니고 있는데 그건 딱히 혼자서 생각하고 끝내는 편이라서

② 우울감을 느끼며 치료와 상담 지원을 받는 중

일부 참가자들은 불안과 함께 우울이 심각하여 병원 치료와 상담을 병행하고 있었다. 박○민은 현재의 상황에 대해 자각을 하면서 우울감이 심해지는 상태였다. 쉼터 거주라는 맥락과 자립에 대한 부담감 심화는 우울 증가로 이어졌고,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었다. 이○현 참가자도 정기적 상담과 약물치료를 병행하고 있었다.

박○민: 다들 비슷한 환경에서 있다가 쉼터로 온 거라 그 친구들끼리 어쨌든 서로 공감하려고 자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얘기를 듣다 보면 나 같은 상황이라 공감 가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다시 그 상황이 떠오르고 확실히 이 상황을 피해서 이 쉼터에 들어온 게 다시 자각이 되면서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여기서 평생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나가서 지내야 하고 (중략) 저는 생각이 많은 편이어서 이런 빈도수가 다른 친구들보다 많아서 쉼터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연계해 주신 정기적인 상담을 받고 있어요. (중략) 찾아오는 상담이라고 해서 저는 여기서 상담받고 있어요.

이○현: 완전히 좋진 못하는데 병원을 다니면서 상담받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어요. (중략) 병원 말고 쉼터에서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셔서 일주일에 한 번씩 상담 받고 있어요. (중략) 그냥 자기 전에 많이 생각하고 수시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수시로 불안하고 우울하고. 그런 치료 활동, 상담이랑 그런 쪽도 다니면서 강도가 떨어진 것 같아요. (중략) 약물 치료 계속 받고 있고
 면접자: 우울증 약물 치료? (중략)

이○현: 7월부터 계속 복용 중이에요. (중략) 제가 얘기도 했고 선생님께서도 보실 때 필요하겠다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맞물린 것 같아요.

표 IV-11. 심리 정서 상태

주제군	주제	구성 의미
심리 정서 상태	부정적 심리정서에 대한 일시적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안한 심리상태에 대한 상담 지원 • 부정적인 기분이 들지만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음
	부정적 심리정서에 대한 적극적 개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한 불안으로 상담 및 치료를 받는 중 • 우울감을 느끼며 치료 및 상담 지원을 받는 중

9) 원가족과의 관계

(1) 원가족 구성원들과 왕래

① 주기적으로 친아버지와 연락하고 지냄

부모와의 갈등으로 집을 나오고 쉼터에 체류하고 있지만, 원가족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되어 부모와 연락과 만남을 이어가는 청소년들도 있었다. 장○호는 새어머니의 차별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친아버지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 살피지 않아 힘든 생활을 하다가 출하게 되었다. 하지만, 쉼터에 거주하면서 아버지와 연락하고 있으며,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아버지에게서 용돈 지원을 받기도 하고, 함께 가족 캠프를 간 적도 있었다. 김○선은 부모가 이혼하여 어머니와 생활하다 집을 나왔다. 쉼터에 거주하는 동안 아버지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었으며, 대학에 진학하면 아버지가 학비 등을 지원해 준다고 하였다.

면접자: 그러면 또 만나서 놀려면 용돈도 필요할 텐데 그건 어떻게 충당해요?

장○호: 아빠가 조금씩 주시긴 해요.

면접자: 아빠랑은 조금 연락하는 사이예요?

장○호: 네.

면접자: 얼마나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장○호: 적어도 2주에 한 번씩은 (중략) 어제 아빠랑 캠핑을 다녀왔거든요. (중략)

면접자: 캠핑은, 그런 캠핑은 처음 갔어요?

장○호: 어렸을 때 많이 갔는데 이번에 오랜만에 갔어요.

면접자: 좋았어요?

장○호: 좋았어요.

면접자: 아버님은 혹시 어머니랑 같이?

김○선: 아니요, 이혼했어요. (중략)

면접자: 나중에 대학을 들어가면 그런 부분들 기숙사 비용이나 지원을 주기로 하셨어요?

김○선: 네.

면접자: 그러면 대학교 등록금도 말씀해 주신 건가요?

김○선: 그런 것 같아요.

면접자: 생활비 이외에 필요한 돈은 지원을 해 주신다고 하신 거예요?

김○선: 네.

면접자: 아버님이랑은 자주 연락하는 편이에요?

김○선: 맨날 연락해요.

면접자: 그러면 아버님과 함께 살기보다는 쉼터에서 보내는 게 편하세요?

김○선: 아빠가 다른 지역에 있어서 못 가요.

② 부모의 어려운 형편에 대해 걱정하고 있음

고등학교 재학 중 술과 담배를 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비행에 관여하게 되어 학교를 그만둔 참가자도 그동안 자신이 저지른 과오에 대해 반성하면서, 부모님의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경제활동을 하고 싶어 한다. 현재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김○희 참가자는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용돈을 주신 점에 대해 언급하면서, 치료 회복을 잘 받고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하였다.

김○희: 지금 가정은 경제가 안 좋아요. 기초생활수급자라서 저희 어머니가 많이 아프시고 아버지는 배달 일을 하시는데 아버지는 3명 가족인데 다 책임을 지고 계시다 보니까 위험한 오토바이를 타고 일을 하시는데 걱정도 많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빨리 검정고시를 따고 재판이 잘 끝났으면 제가 알바하면서 살 수 있을까 생각도 많이 들어요.

면접자: 그러면 집에서 조금 지원을 받고 계시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김○희: 저번 수요일에 아버지가 오셔서 병원에서 재활 활동을 안 하면 손이 그대로 굳고 안 움직인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20만 원 정도 해서 여기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거 쓰고 하루에 한번 재활센터에 가서 운동하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있는 상태입니다.

(2) 가족과 소통 단절

① 부모와 연락 두절

한편, 부모와 연락하지 않고 지내는 참가자는 오히려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었다. 자신의 진로 설정 과정에서 부모와 갈등이 극대화되어 가출한 임○아는 동생과 자신의 태도를 비교하면서 동생은 부모의 진로 설정에 대하여 강하게 동일시하여 따르는 반면에, 자신의 진로 계획은 부모님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설정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부모의 지원은 일체 바라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임○아: 연락도 잘 안 해요.

면접자: 여기서 생활하는 건 아세요?

임○아: 네.

면접자: 그거에 대해서 ○아의 마음은 어때요?

임○아: 감사하죠. 신경 안 써줘서

면접자: 오히려 신경 써주는 게 피곤하다?

임○아: 그렇죠. 여기 찾아오면 그러니까 오히려 정신 사납고 방해만 되니까 이래라 저래라 집 나갔으면 잘 살아야지 이런 얘기할 바에는 연락 안 하죠.

② 양육자와 연락하지 않고 지냄

부모가 이혼하고 어린 시절부터 보육원을 거쳐 고모의 손에 양육되었던 정○재도 현재 가족과 연락하고 있지 않으며, 자신은 독립적으로 자신만의 인생을 살고 싶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정○재: 제가 연락을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원망 같은 건 안하는데, 약한 감정은 안 가지는데 굳이 다시 연락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중략) 그냥 저만의 인생을 살고 싶어요.
 면접자: ○재만의 인생을 나름 소신을 갖고.
 정○재: 고모랑 다른 가족들이랑 연락을 안 하는데
 면접자: 아빠도 연락 안 와요?
 정○재: 네. 아빠는 연락 안 와요.
 면접자: 그러면 아빠는 지금 어디 계신지 알아요?
 정○재: 모르겠어요. 그때 고모랑 살았을 때, 일 안 하고 집에만 있고 나가셨어요.
 면접자: 그러다가 고모 집에서 살다가 어디로 가신 거네요?
 정○재: 그 제가, 사회 주무관님께서 와 가지고, 고모가 아버지한테 나가라고 하셔서
 면접자: 그 분리를 하라고, 폭력 이런 거 때문에?
 정○재: 네, 계속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니까.
 면접자: 힘든 시간을 보냈네요. 그런저런 일을 겪다 보니까 나름대로 내 생각이 정리되는 것 같은 게 있을까요? 어려운 일을 겪다 보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하는 생각이 든다든지?
 정○재: 그냥 그 사람들에게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사는 게 그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거라고

표 IV-12. 원가족과의 관계

주제군	주제	구성 의미
원가족과의 관계	원가족 구성원들과 왕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기적으로 친아버지와 연락하고 지냄 • 부모의 어려운 형편에 대해 걱정하고 있음
	가족과 소통 단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와 연락 두절 • 양육자와 연락하지 않고 지냄

10) 청소년쉼터 퇴소 후 계획

(1) 당분간 청소년쉼터 생활 지속

① 증장기쉼터로 이동

현재 단기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퇴소 기한이 지나면 가정으로 돌아가기보다 증장기쉼터로 이동하여 생활하고 싶다는 의견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증장기쉼터를 퇴소한 뒤에도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반응하였다.

면접자: (단기) 쉼터 퇴소 이후에는 뭔가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요?

강○은: 있어요.

면접자: 어디로 가려고요?

강○은: 중장기쉼터

면접자: (중략) 중장기쉼터 끝나면 다시 어떻게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예요? 아니면 나름대로 독립하고 싶어요?

강○은: 나름대로 독립하고 싶어요. (중략) 돈도 필요할 거고 솔직히 뭐가 있어야 되는지 모르니까 잘 모르겠어요.

임○아: 여기 지내면서 내년 복학이니까 그때까지 돈을 모으면서 학교 왔다 갔다 하고 편안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돈으로 지원하는 거죠.

면접자: 일단 여기서 잠은 자고 생활하면서 그러면 근데 여기는 또 1, 2년 정도 지나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임○아: 여기서 계속 지낸다고 하시면 중장기로 가거나 아니면 여기 있을 수 있게 생활을 잘해야 할 것 같아요. 여기가 더 편해서

② 청소년쉼터에 거주하다 군에 입대 계획

장○호는 청소년쉼터에 체류 가능한 연령인 24세까지 쉼터에서 생활하고 싶어 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기보다는 우선 군대를 다녀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며, 그 이유로 사병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면접자: ○호는 여기 쉼터에 언제까지 있을 생각은 있어요?

장○호: 성인까지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면접자: 24살까지 있을 생각이예요?

장○호: 네.

면접자: 만약에 24살까지 여기 쉼터에서 있다가 그다음에는 어떻게 살고 싶은지 생각해본 적은 있어요?

장○호: 평범하게

면접자: 그러면 어떻게 내가 어디에 거쳐할 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지

장○호: 바로 군대 가려고요.

면접자: 군대는 몇 살쯤에 가려고 그래요?

장○호: 20살까지 검정고시 이런 거 준비하다가 바로 20살 되면 가야죠. (중략) (군대 가는 이유는) 일단 돈을 모을 수 있잖아요.

(2) 독립된 주거 희망

① 자립지원관이나 LH공공임대주택 지원 희망

쉼터 퇴소 연령이 지난 후 청소년들이 체류하고 싶은 공간은 자립지원관이나 LH임대주택을 바라고 있었다.

백○우: 아무래도 자립지원관 같은 곳에서 자립 수당이나 LH 같은 걸 지원 받으면 좋겠어요.

면접자: 어떻게 신청하는지 자격 기준이나 요건은 검색해 본 적은 있으세요?

백○우: 그런 부분은 검색도 해보고 많이 찾아보는 편이에요.

면접자: 쉼터 선생님이 알려주셨나요?

백○우: 쉼터 선생님이 알려주신 적도 있고 제가 직접 찾아보기도 했고

임○아: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대학교를 갈지 인턴 생활을 할지 모르겠어요. 이걸 보류 중이에요. 만약에 대학교를 가게 되면 열심히 대학 생활을 하다가 취업할 것 같고요. 아니면 해외로 어학연수 보내주는 대학교를 가고 싶어요. 만약 취업하게 되면 돈을 좀 더 많이 모아서 여기서 지원되는 LH 지원금 받아서 자취하면서 돈 벌 거예요. 아니면 대학교를 가게 되면 어차피 여기 지내면서 있어야 되니까 6개월은 더 지내야 되거든요. 왔다 갔다 지내면서 대학교 졸업할 때 LH 지원 받아서

② 원가족 복귀를 피해 성인복지시설 거주 모색

부모가 가정으로 돌아오라고 요청하는 경우에도 가정 복귀를 꺼리며, 성인복지시설을 알아보는 참가자도 있다. 조만간 쉼터 거주 연령을 넘어서는 윤○호는 당장 거주할 수 있는 LH임대주택을 구하지 못하여 당분간은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며 일을 하여 돈을 모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윤○호: 근데 (부모님이) 이번에 여기 끝나면 다시 들어오래요. (부모님이?) 아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집에 들어가면) 또 다시 멀어질 것 같아요. (중략) 부모님 몰래 ***의 집(성인복지시설) 거기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중략) 원래는 목표가 이번 연도에 가서 LH 해서 나가는 거였는데 계획에 차질이 생겼어요. (중략) 우선 일단 여기 12월 22일에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알아보고 왜냐하면 또 이사하면 좀 그러니까...

③ 월세나 전세 거주 계획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주 지원시설로 자립지원관이나 LH임대주택도 있지만, 쉼터 거주 기간 충족 요건을 채우지 못하거나 자신의 일터, 학교와 거리가 멀면 스스로 거주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정○재는 만 15세가 되면서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모아왔고, 현재 1,500만 원 정도 저축을 해 둔 상태로 향후에는 개별적으로 전세를 구하고자 하였다. 이○주도 스스로 집을 얻어 자취를 계획하고 있다.

정○재: 전세로 그냥. 전세로 모아놓은 돈으로

면접자: 모아놓은 돈이 있어요? 어떻게 모았어요?

정○재: 알바해서 모았던 거랑 (중략) 과거에 했었어요. 12월달 6개월 했었어요.

면접자: 어떤 알바 했었어요?

정○재: 서빙하는 거.

이○주: 자취를 할 생각이죠. (중략) 자립지원관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중략) 거기 제가 안 좋아서 안 가려고요. 대학도 되게 애매하게 있고 위치가 안 좋은 데 있고 그렇다 보니까 거기서 2년 정도 있다 보면 자립 지원 수당도 나온다고 들었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돈 모아서 (자취를 하려고)

표 IV-13. 청소년쉼터 퇴소 후 계획

주제군	주제	구성 의미
청소년쉼터 퇴소 후 계획	당분간 청소년쉼터 생활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쉼터로 이동 • 청소년쉼터에 거주하다 군에 입대 계획
	독립된 주거 희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립지원관이나 LH공공임대주택 지원 희망 • 원가족 복귀를 피해 성인복지시설 거주 모색 • 월세나 전세 거주 계획

11) 지원 정책에 대한 제안

(1) 청소년쉼터 퇴소 후 자립 지원

① 쉼터 퇴소 후 거주지 마련을 위한 지원 방식 재고

쉼터에서 퇴소하는 청소년의 거주지 마련을 돕는 제도로 현재 자립지원관과 LH임대주택 지원 등이 있지만, 연구 참가자들은 지원 방식의 한계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쉼터에서 대입을 준비 중인 연구 참가자 박○민은 임대주택지원을 받아야 하는 전제 조건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쉼터 퇴소 청소년이 임대주택 지원을 받으려면 최소한 쉼터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쉼터가 위치한 지역이 아닌 타 지역 대학에 들어가게 되거나, 쉼터 생활 중 불가피하게 퇴소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쉼터 퇴소 후 자립지원관으로의 연계가 바람직하지만, 청소년이 입소 자격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점, 청소년이 다니는 학교나 직장의 위치가 원거리여서 오고 가기 어려운 경우 등 현실적으로 입소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결국 쉼터 퇴소 청소년들이 대체로 원가정으로 복귀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대비한 임대주택 지원 조건 등 거주지 마련에 대한 융통성있는 대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박○민: 쉼터에 들어오고 받을 수 있는 지원에 대해서 많이 여쭙봐서 알고 있긴 한데. 대부분이 자립 준비 청년의 자격이 되려면 쉼터에 총기간이 2년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 2년을 지켜야만 나중에 자립을 했을 때 자립 준비 수당도 나오고 LH 연계도 되는 건데 사실상 2년을 지키는

게 공부를 하면서든 대학교를 다니면서든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이○주: 그냥 뭐 자립지원관이 가장 기억에 남긴 했죠. 원룸 하나를 그냥 준대요. 거기서 2년 버티면 자립지원수당 나오고 매년 다달이 꽃히는 돈이 있는데 위치가 너무 안 좋아서...

김○선: 돈보다는 살 수 있는 집 같은 거, 처음에 몇 번만 월세 내주다가 그 이후에는 자기가 낼 수 있게 하는 것도 좋고 (중략) 근데 여기서 2년 이상 있어야 자립지원수당이 나온다고 하는데 저도 2년 이상 있어서 받고 싶은데 간호학과 가면 공부 엄청 열심히 해야 되니까 기숙사에 사는 게 더 맞긴 하죠. 아무리 받고 싶어도

이○현: 청소년쉼터에서 딱 채우고 나갈 때 경제적으로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달에 50만 원이 아니라 나갈 때 100만 원 그렇게 지원해 주면 거주지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② 근로여건 개선

연구 참가자들은 경제적 자립에 대한 욕구가 무엇보다 높았다. 학교를 그만두고 일찍 사회에 나오게 되면서 일을 하며 돈을 벌고 자립을 모색해야 하지만 나이와 근로 역량 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적이다. 연구 참가자들은 미성년자가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는 한정되어 있고, 최저 시급을 받는 일을 해도 경제적으로 자립하기에는 요원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들의 일자리 마련과 근로 역량 확충, 보다 안정적인 근로 여건 마련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김○희: 저는 솔직히 어리다고, 18살 어리잖아요. 그 나이로 알바를 하다 보니까 뽑아주는 데는 뽑아주는데 미성년자 채용 불기가 많죠. 포차나 편의점 알바 그런 데는 안 뽑아줘요. 그러다 보니까 남아 있는 건 홀서빙, 고깃집 서빙 아니면 자장면집 아니면 무조건 음식점 서빙밖에 안 돼요. 한정되어 있어요. (중략) 솔직히 임금이 올라야 된다고, 중3 때가 9,620원이었는데 지금 9,860원이잖아요. 근데 지금 물가를 생각하면 돈은 엄청 올라가고 있는데 임금은 아직도 안 올라가요. 5시간 해도 5만 원 아래예요. 그 5만 원 갖고 살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자취방을 구해도 알바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알바 한 돈으로만 안 되고 핸드폰비 내고 먹을 게 그러다 보면 못 살고 그러다 보면 임금을 조금만 더 올려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2) 생활비 및 기타 소요 비용 지원 확대

① 생활비와 용돈 등 경제적 지원 확대

청소년들은 현재 쉼터에서 제공받고 있는 생활비나 용돈이 부족한 실정하기에 현실을 반영하여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지원 액수가 다르기는 하지만, 일주일 단위로 5천 원에서 2~3만 원 정도인데, 이러한 비용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비를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이다.

이○주: 지원이 필요한 건 경제적 지원? 돈이 너무 빠듯해서 경제적 지원 말고 생각나는 게 없어요. (중략) 뭔가 가정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그런 거 사람들 대상으로 그냥 지원금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좋겠어요.

면접자: 정부에서 이런 걸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거 있을까요?

장○호: 생활비 지원

면접자: 용돈 같은 거? 지금은 부족한 느낌이 있는 거죠?

장○호: 많이

면접자: 한 달에 4만 원만 써야 되니까 그러면 교통비라든지 용돈 지원이 필요한 것 같다?

장○호: 그렇죠.

임○아: 지원금 있으면 좋겠어요. (중략) (지금 받는 것은) 쉼터에서 일주일에 5,000원 주는 거 (중략) 친구들이랑 놀 수도 있는 거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는 거고

면접자: 용돈이나 생활비 지원이 되면 좋겠다는 거

임○아: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대상이 필요하니까 기준을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연구 참가자 박○민은 대입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아르바이트할 여유도 없었다. 따라서, 공부에 매진하는 동안에도 향후 대학 진학을 위한 학비와 주거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 마련 등 경제적 여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걱정을 하고 있었다. 그에 따라 가정·학교 밖 청소년들이 대학 진학 및 자립 준비 지원 과정에서 당사자의 자립 의지와 진로 설정 경로에 맞는 자금 지원방식을 세분화하는 것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박○민: 쉼터에서 일주일에 2만 원 주는 용돈이 다인 것 같아요. 그게 성인으로 살기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중략) 사실 쉼터로 들어오고 공부를 하겠다는 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진 않거든요. 오히려 좋은 길로 가는 게 아닌가 생각은 드는데 막상 공부를 하기에는 공부에만 매진을 하기에는 부모님 지원을 받지 않는 친구입장에서는 당장 이런 부분을 채워야 하는데 쉼터에서는 친구들에게 똑같이 해줘야 되니까 어느 부분에서는 지원이 부족하고 그러면 저는 공부에만 전념하기 힘들고 공부에 전념해서 원하는 대학교에 입학할 해도 돈이 부족해서 대출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슬픈 것 같아요.

② 의복비 지원 확대

청소년들은 생활 과정에서 소요되는 필수 비용이 추가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부족한 용돈 지원 외에 의복 구매비용이 좀 더 지원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계절마다 필요한 의복이 달라지고, 아르바이트 등 사회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단정한 복장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건이기에 청소년들은 피복비 지원이 증액되

있으면 좋겠다고 제안하고 있다.

정○재: 이거는 저는, 이게 필요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게 필요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얼마 지원해 줄 수 있다. 근데 안 되는 건 제외하고 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그 의복이면 의복이라든지 공부든지 배우고 싶은 활동이라든지 그런 걸 딱 예산을 찾으면

면접자: 그렇죠. 다달이 얼마 지원해 주면 좋겠다 이런 거? 그래요. 그러면 지금은 그런 지원은 전혀 없나요?

정○재: 전혀 없는 건 아니고 50만 원 상당의? 공부를 할 수 있는. 자격증 지원되고 근데 그게 한 달? 두 달 정도 되는 것 같아서. (중략) 저는 살짝 의복 지원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쉼터에서도 용돈 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중략) 그게 왜냐하면 용돈을 못 받으니까요. 학교 그만두고 왔으니까 따로 일바 하더라도. 의복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정○영: (피복 지원이) 9만 원이면 한 달에 9만 원도 아니고 계절마다 9만 원이거든요. 1년에 2번인가 3번 받는 것 같은데 저도 잘 모르겠는데 너무 웃이 9만 원이면 몇 벌 못 사는데 좀 적지 않나 생각해서 (중략) 피복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나갈 때도 있을 때도

③ 학업 수행 및 입시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확대

집을 나온 뒤 청소년쉼터에서 학교에 다니다 그만둔 백○우는 학교를 지속적으로 다니기 위해서는 필요한 준비물 구입 등 학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이 추가적으로 지원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쉼터에서 학교 준비물도 지원되고 또 소액의 용돈이 지급되지만, 필요 물품을 모두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학교 밖에서 학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교재비, 학원비, 진학을 위한 서류 접수 등 입시 준비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 등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실질적인 비용 지원이 좀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고 있다.

백○우: 아무래도 혼자 책을 사고 공부를 하기에는 시간도 없고 책이나 교재 살 돈도 없고 공부할 마땅한 장소도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재 지원이나 공부방 같은 그런 쪽으로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희: 학교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을 가거나 학교에서 책을 공짜로 주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처럼 학교를 안 다니는 애들은 일단 책도 사야되고 돈이 들어가는 게 엄청 많아요. 저희가 나오는 순간 선생님이 없다 보니까 과외 선생님, 책도 필요하고 그러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고 그러다 보면 공부 안 하고 실업으로 가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보니까 학교를 다니는 애들만 지원, 학교를 다니는 건 잘하는 거고 저희가 잘못해서 그러는 건데 어쩔 수 없지만 학교를 안 다녀도 지원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김○선: 근데 학교 밖에, 가정 밖인 애들은 원서비가 부담될 것 같아서, 알바해서 메꾸긴 했는데 6군데 넣으면 거의 몇십만 원 나가니까 원서비 같은 거 지원해 주는 것도 있으면 좋겠어요.

④ 쉼터 청소년 여건을 고려하는 위기청소년특별지원제도 개선

청소년쉼터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불가피한 사정으로 가족과 단절되어 지내야 하는 사례들도 있다. 한 참가자는 종교적인 문제로 가족과 연락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제도를 알아보았으나, 가구 소득을 제출해야 하는 등 필수 서류 제출 요건이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이 청소년은 부모와 연락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부모의 동의나 허락을 통해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한계를 지적하였다. 이 사례에서 보듯이 부모나 친권자를 통한 행정 서류 제출은 쉼터 청소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의 혜택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쉼터 지도자들과 현장 사례 관리자들을 통한 융통성있는 지원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현: 청소년특별지원이라고 지원하려고 했었는데 가구 소득이 필요하대요. 근데 그러면 보험 뭐 서류를 떼야 되는데, 부모님하고 연락을 할 수 없으니까 진행할 수 없었어요. 그런 부분은 조금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었어요. 보통 지원금을 주는 걸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가구 중위 소득이 필요하더라고요.

면접자: 중위 소득 미만이어야 되니까.

이○현: 네, 근데 부모님이랑 연락도 안 되고 알 방법도 없으면 못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개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3)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진로 및 자립 지원

① 실질적인 진로 지원 및 취업처 연계

청소년들은 진로 지원과 관련하여 청소년쉼터를 통한 학원 수강 지원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에 더하여 학원 수강 후 직업 연계가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희망하였고 관련 직종 종사자들을 통한 실질적인 교육 및 멘토링 등을 받은 후 취업이나 창업으로 이어지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박○민: 타 쉼터에서 진행했던 직업훈련은 제가 쉼터에 있는 걸 알고 계시는 학원의 선생님이랑 연계가 된 거라서 사실상 직업훈련을 하는 그 쉼터에 있는 직업훈련을 하겠다는 친구들은 다 그 학원에 연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고 이걸 통해서도 진짜 취업까지 하게 된다면 이런 수당까지 받을 수 있고 너의 흥미를 살려서 하면 좋겠다는 걸 알게 된다면 저는 제과제빵을 선택했을 것 같고 그러면 그게 진짜 취업까지 그 프로그램의 본분으로 갔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물론 코딩을 배우게 돼서 컴퓨터를 잘 가르치게 되고 할 수 있게 되는 건 맞지만 굳이 그 학원이 아니어도 좀 더 많은 생각을 하고 다른 분야를 찾을 수 있었을 테니까 그러면 좀 더 취업에 가까워지지 않았을까

김○희: 저는 아직 18살인데 사업을 하시던 분들이 교육을 하시면 이런 걸 들으면 웃으세요.

왜냐하면 사업이 네 말대로 될 것 같냐고 사업은 절대로 제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해서 자영업으로 크게 되신 분들한테 어떻게 사업을 하면 성공할지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면 고마울 것 같고

면접자: 멘토처럼?

김○희: 네, 멘토처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렇게 시작하고 이걸 20대에도 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취업체제를, 그런 걸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정○영: 그런 거 학교에서도 그렇고 뭔가 은행원을 만나서 그런 멘토링 같은 걸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 받아보고 싶기도 해요.

② 다양한 진로 가능성에 대한 안내 및 교육

청소녀들은 지금 당장 자신의 흥미나 어떠한 진로에 관심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해 탐색하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다양한 직업 체험이나 아르바이트를 경험할 것인지, 대학 입학울 염두에 둘 것인지 등 자신의 선택지에 대해 고민하고 안내받을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박○민: 진로라는 게 저처럼 지금 당장 대입을 하거나 곧 대학교를 가야 되는 게 다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친구들은 굳이 학위가 필요하지 않은 흥미를 가지고 업으로 삼으려는 친구도 있을 거라 생각해서 그냥 일단 입소를 하고 당장 학교를 가지 않아도 되는 친구라면 한 번쯤은 자기가 뒤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지 진지하게 도와줄 수 있는 선생님이 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알바를 할지 직업훈련을 할지 지금 당장은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데 집중할 건지 아닌지 대입을 준비할 건지 흥미를 좀 찾고 진로를 찾는 수업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주: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진로 체험 기회가 많아지면 좋겠다. 메이크업이나 바리스타나 할 수 있는 진로가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많아지면 좋겠다거나 아니면 국비 지원 미용학원도 되잖아요. 그런 게 범위가 넓어지면 좋겠다. (중략) 뭔가 대학에 대한 정보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쉼터에서도, 쉼터에서도 저는 아니지만 쉼터에 있으면서 공부를 놓지 않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근데 자퇴를 했을 수도 있잖아요. 쉼터에만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뭔가 쉼터에서 대학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을 때 나는 좀 더 열심히 해서 이 대학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더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대학에 대한 정보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김○선: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중략) 현금이라기보다는 뭔가 스스로 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기르게 했으면 좋겠어요. (중략) 진로 교육을 하면 컴퓨터를 검사해서 하는 거잖아요. 너무 형식적으로 나오니까 별로 와닿지 않는 느낌 (중략) 그냥 너무 형식적이고 도움을 못 받았어요. 그냥 나는 이런 유형이구나 싶어서. 그냥 그렇구나. (중략) 직업 체험 같은 거 할 때 너무 제한적인 체험, 그리고 애들이 별로 관심 없는 직업 체험을 많이 해서 그런 것도 다양하게 있으면 좋겠어요.

③ 청소년쉼터 생활 과정에서 적절한 역할 모델 제시 필요

가출 청소년들이 쉼터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대면하는,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또래나 선배의 모습은 이들이 향후 진로 설정에도 구체적인 참고 자료가 되고 있다. 선배가 거주지를 선정하거나 진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는 구체적인 안내처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에 따라 비슷한 여건에 놓여있는 선배들의 진로 개척 사례에 대한 상세한 안내, 진로 멘토 등 역할 모델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진로 개척 과정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면접자: 그러면 쉼터에서 다른 선배나 언니들이 자격증 같은 거 받고 이런 거 본 적은 있어요?
임○아: 미용은 못 봤는데, 컴퓨터 이런 쪽은 봤어요.
면접자: 그러면 그 언니들도 그런 거 준비해서 받고, 그런 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임○아: 역시 쉼터에 있으면서 놀고먹는 건 아니구나. 역시 준비를 해야 나중에 미래가 튼튼한 거구나

④ 자립을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 안내 및 지원

청소년들은 가족과 학교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스스로 자립 준비를 해야 함에 따라 이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크다. 성인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기본 요건, 생활 유지를 위해 소요되는 기본적인 비용과 운용 방법에 대한 정보 등 일반적으로 부모나 주변 어른들의 지원으로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다 보니 답답함과 고민이 가중되는 상황임을 호소한다. 그에 따라 성인기 진입 과정에서 필요한 필수 생활 정보에 대한 안내와 상담 창구를 마련하여 상시로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이○현: 약간 고민 같은 건 부모님께서 보험이나 그런 것도 다 잘 알려주는데 저는 건강보험이나 월 해야 되는지 성인으로서 세금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아는 바가 없고 사소한 것부터 부족해서, 자동차를 산다고 해도 보험 같은 게 따로 있고 그런 건 어떻게 하고, 성인으로서 시작하는 데 출발점인 부분들을 많이 정보를 모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고민이 되고, 첫 번째로는 나가면 어디서 살지. 그런 부분도 고민되는 것 같아요.
면접자: 쉼터 선생님이 그거 관련해서 혹시 알려주시거나 이런 정보는 혹시 없어요?
이○현: 나가면 쉼터에서 2년 채우면 청소년쉼터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NH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한다고 하는데 들어가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걱정되는 것 같아요.

(4) 가정·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체계 정비

① 청소년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관련 서비스에 대한 홍보 강화

연구 참여 청소년 중에는 집을 나오면서 쉼터의 존재에 대해 모르고 나온 사례들도 다수 있었다. 이들은 청소년쉼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정보 없이 집을 나온 뒤, 관계기관이나 담당 공무원, 경찰 등의 연계로 쉼터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들은 쉼터에 거주하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에 대해 안내를 받기도 하고, 스스로 파악한 후 수혜 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알게 되었다. 또한,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은 검정고시 준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었다. 청소년 복지시설로서의 청소년 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이는 시점이다.

박○만: 쉼터에 들어오기 전에는 꿈드림이나 쉼터에 대해서도 지식이 전무했거든요. 쉼터에 들어오고 나서 오히려 우리나라에 이런 복지가 있었구나 이런 걸 이용할 수 있구나 생각이 들만큼 정말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좀 아쉽다고 생각하는 건 제가 직접 복지 사이트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제 상황에 어떤 복지를 받을 수 있는지 쉼터에 들어오고 나서도 알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고 싶은데 제가 직접 인터넷으로 찾거나 계속해서 끈질기게 여쭙보지 않는 이상 너무 많은 복지 혜택을 잘 조합하기 힘들어서 어떤 선생님은 그걸 전담으로 하셔서 이 아이가 어떤 선택을 해야 최선인지 집중적으로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면 좋겠어요.

이○현: 저는 경제적인 지원, 그리고 쉼터를 좀 더 많이 알리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이번에 쉼터 자체를 처음 들어봐서 모르면 정말로 애들이 나왔는 데 갈 데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좋은 길로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돼서 홍보나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면접자: 그러면 학교를 다니지 않으면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서 지원을 받은 적은 없으세요?

정○영: 없어요.

면접자: 그거는 일부러 받지 않은? 아니면

정○영: 받지 않은 게 아니라 몰랐어요.

면접자: 그런 게 있다는 거를 모르셨군요. 그러면 검정고시 준비도 혼자?

정○영: 네.

② 가정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청소년쉼터 확충 및 운영 방안 개선

가정을 나온 청소년들은 쉼터에 거주하는 동안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지만, 체류 기간 제한 등으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 쉼터의 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연고지가 없는 원거리 쉼터로 이동하며 생활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쉼터가 좀 더 확충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가정 밖 청소년들이

성인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피해를 입거나 불의의 사고에 연루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법률적 지원 등이 필요함에 대해서도 제안하고 있다.

백○우: 지금 당장 쉼터 밖에 있는 애들이 생활하기에는 쉼터도 몇 개 없고 생계 지원이나 월세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밖에서 지내다가 피해를 받거나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법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우: 기간이 짧다 보니까 다른 곳을 계속 돌아다니기에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니까 그 부분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중략) 아무래도 서울에 쉼터가 몇 개 없다 보니까 쉼터에 못하고 방황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서 쉼터가 좀 더 많이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가정을 나올 수밖에 없는 여건에서 갈 곳이 없는 청소년들은 그나마 일시쉼터에서 잠시 체류하며 향후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일시쉼터의 기능상 가정 밖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이나 개인적 문제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전문적인 연계를 하기에 한계가 있어 보인다. 가정 밖 청소년 중 의료적 개입이 필요하거나 중장기적 치료를 요하는 경우 등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사례들도 있지만, 일시쉼터에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개입과 중장기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일시쉼터의 기능이 단지 일시적 보호를 넘어서 사례를 깊이 있게 파악하여 전문적인 연계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전문성뿐 아니라 타 쉼터 및 지역 내 전문 기관들과의 연계 역량이 강화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현: 일시쉼터에서는 잠깐 이따 갈 친구들이니까 그런 지원을 많이 해줄 수 없는 환경이라서, 그때는 조금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상담도 선생님이랑 많이 해본 적도 없고. 근데 들어가면 정신분석 할 수 있는, MMPI 같은 그런 것을 해서 거기에 맞게 해줄 수 있는 환경도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중략) 단기쉼터는 여자, 남자 따로 있고 그래도 좀 같이 공동체 생활이 어려운 친구들은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중략)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일시쉼터는 다 수용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상한 친구들도 많이 오고 정신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친구들도 많이 와서 그 친구들이랑 함께 한 공간에서 또 남녀 구별 없이 그래서 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5) 가정·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개입 프로그램 확대

① 원가족 양육자 교육 및 적극적 개입 지원

가정을 나온 청소년들의 배경은 주로 부모와의 갈등이나 부모의 학대를 피하기 위해서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중장기쉼터에 머무는 청소년들은 부모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자녀의 태도나 행동 변화도 필요하지만, 부모 대상 개입이 시급한 사례도 많다. 지역사회

내 관계기관 등을 통해 사회 전반에서 자녀들을 향한 폭언이나 폭력, 협박 등의 행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입해야 하며, 부모 대상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됨으로써 부모 자녀 관계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김○희: 중장기쉽터라고 있는 데 거기에서는 아버지들이 항상 때리고 욕하는 아버지한테 상처받은 애들, 여기 있는 애들은 가정이 이혼했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없거나 그 둘 중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호자 위탁이 안 되잖아요. 집에 가봤자 어차피 또 사고 칠 거 쉽터 보내자 그러다 보니까 초기부터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어요. 애는 어른을 보고 배우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른이 맨날 술 먹고 엄마랑 싸워서 어머니 폭력하고 그러다 보면 애기가 뭘 배우겠어요. 저게 멋진 거구나 생각하고 커서도 폭력을 시작하겠죠. 그러다 보면 그 애기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② 대인관계 향상 프로그램 지원

가출 상태에서 학교도 그만둔 청소년들의 경우 학교생활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대인관계 형성 기회가 부족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한 연구 참가자는 실제 사회생활 과정에서 대인관계 형성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제공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다.

백○우: 학교를 가거나 그러면 전학을 가게 되면 서먹서먹해도 다가오는 친구들도 있는데 학교를 나오고 일바를 하거나 새로운 곳에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처음 만나기도 했고 서먹서먹하다 보니까 잘 대화도 없는 것 같고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중략) 대인관계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좋게 좋게 하는 법이나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시에서 해 주는 거나 그런 데서 그런 행동을 좀 더 많이 하다 보면 아니면 그런 법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표 IV-14. 지원 정책에 대한 제안

주제군	주제	구성 의미
지원 정책에 대한 제안	청소년쉽터 퇴소 후 자립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쉽터 퇴소 후 거주지 마련을 위한 지원 방식 재고 • 근로여건 개선
	생활비 및 기타 소요 비용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비와 용돈 등 경제적 지원 • 의복비 지원 확대 • 학업 수행 및 입시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확대 • 쉽터 청소년 여건을 고려하는 위기청소년특별지원제도 개선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진로 및 자립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질적인 진로 지원 및 취업처 연계 • 다양한 진로 가능성에 대한 안내 및 교육

주제군	주제	구성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쉼터 생활 과정에서 적절한 역할 모델 제시 필요 • 자립을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 안내 및 지원
	가정·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체계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관련서비스에 대한 홍보 강화 • 가정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쉼터 확충 및 운영 방안 개선
	가정·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개입 프로그램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가족 양육자 교육 및 적극적 개입 지원 • 대인관계 향상 프로그램 지원

6. 소결

이상으로 가정·학교 밖 이중 취약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삶은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가정 밖에서 살아가며, 학교에 다니지 않거나 그만둔 경험이 있는 15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별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고, 전사된 인터뷰 자료는 현상학적 접근을 통해 분석되었다. 인터뷰 전사 자료의 반복적 검토를 통해 연구 참가자들이 경험한 가정·학교 밖 삶의 맥락과 의미 단위들을 도출하고 조직화하여 종합적 서술을 시도하였다.

먼저, 청소년들이 가정을 나오게 된 배경은 주로 가족 간의 문제임을 알 수 있었다. 부모나 양육자들의 강압이나 폭력에 대한 도피, 부부 간 갈등과 충돌 지속,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 심화 등으로 가정 밖으로 나오는 선택을 하게 된 것이다.

집을 나온 뒤 이들의 생활을 살펴보면 바로 청소년쉼터로 연계되기보다 노숙 생활을 하거나 임시로 친구나 지인 집에 머물기도 했으며, 오갈 데 없이 방황하는 생활을 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시간은 2주 이내로 길게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들이 집을 나오는 과정은 충동적, 일시적 가출이 몇 차례 이어지다가 본격적인 계획을 세우고 가출하는 경우가 다수였다. 가출 이후 청소년쉼터로 연계되는 과정에서 직접 쉼터에 연락을 취해 머물게 된 사례는 3명 정도였으며, 지인이나 경찰, 관련 분야 업무 담당자에 의해 청소년쉼터로 연계되었다.

연구 참가자들의 가정 밖 생활 맥락과 관련하여 학교를 그만둔 배경을 살펴보면, 먼저 학교를 그만둔 후 집에서 시간을 보내다 가출을 한 경우와 학교에 다니는 동안 집을 나와 일정 기간 등교를 이어가다 그만둔 경우로 구분되었다. 학교를 그만둔 이유는 학교 부적응,

친구관계 어려움, 교사와의 갈등, 학업 흥미 취약, 출석일 수 부족 등 개인적 사안에 따라 다양했다. 학교를 그만둔다는 생애 사건은 가족 구성원 간 갈등 심화로 이어지게 되어 집까지 나오게 된 사례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는 학교를 그만둔 이후 가정에서 이들을 위한 심리정서적 지지, 진로 안내 등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굳이 집을 떠나는 선택을 할 필요가 없음을 시사한다. 한편, 가족 문제로 집을 나온 상태에서 등교를 계속하다 학교를 그만둔 사례들도 있었다. 이들은 일정 기간 학교에 다녔지만,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거나, 거처하는 곳과 학교 간 거리가 멀어진 점, 학교에 등교하면 자신의 소재 파악의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 등으로 학교를 그만두는 선택을 하였다.

연구 참가자들이 학교를 그만둔 뒤 학교와 학력에 대해 부여하는 의미는 어떠한지 살펴 보았다. 먼저, 학교생활에서 또래관계 형성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일부 참가자는 학교에 가고 싶지만, 또래보다 나이가 많다는 점을 장애 요소로 인식하고 있으며, 또 다른 참가자는 학교에 다니지 않기에 소속감이나 또래관계 형성 기회가 취약할 수 있음을 우려했고, 학창 생활을 하는 또래 친구들에 대한 부러움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상급학교 졸업장과 학력 취득은 나름대로 중요하다는 인식을 보이는 사례도 있었다. 자신들이 중·고등학교 단계에서 학교를 그만두었기 때문에 학력 보완을 위해 대학학력 취득까지 희망했으며, 학교생활을 통해 얻어진 졸업장은 중요하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학 진학은 미정이지만, 취업을 위해서는 고등학교 학력 취득까지는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진로관련 인식과 대응관련해서 연구 참가자들은 먼저 진로 설계 관련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개인 상황에 부합하는 더욱 구체적인 진로 설계 안내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수능 준비에 대해서는 거의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사례도 있었다. 반면에 자신의 진로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사례들도 있었는데, 해당 참가자들은 은행원이나 간호사 등의 진로 결정, 자신이 흥미를 갖게 된 분야를 정한 후 관련 자격증 준비, 관련 분야 특성화고나 대학 진학 준비, 창업을 위한 계획 수립 등을 상세하게 보고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관심 분야가 무엇인지 모호한 상태로 지내는 참가자들도 있었으며, 진로 계획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주변 조언으로 IT나 통신 분야 학원을 수강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들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지원을 통해 검정고시 응시와 동아리활동 및 자격증 취득에 일부 도움을 받기도 하였다.

연구 참가자들은 청소년쉼터 생활에 대하여 나름대로 만족하고 있었다. 우선, 맛있는

식사가 제공된다는 점, 여행이나 문화활동 등 마음에 드는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점, 부모로부터 압박을 피할 수 있는 점, 일상생활이 가능한 편안한 환경 등을 장점으로 언급하였다. 반면에 청소년쉼터 생활의 어려움으로는 규칙 및 생활시간 등의 준수와 공동생활 과정에서 의 갈등이나 충돌을 언급하였다. 그러면서도 공동생활에서 서로 간에 불편은 감수해야 하지만, 불안이 줄어드는 환경은 장점이 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

연구 참가자들은 현재 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용돈 마련, 소비, 저축 등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다수였다. 청소년쉼터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지원되는 비용은 매우 적기 때문에 핸드폰 요금이나 기타 필요한 소비 지출을 위해서는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다. 대부분 부채를 지고 있지는 않지만, 개인적으로 핸드폰 소액 결제 등으로 빚을 진 사례도 있어서 아르바이트를 통해 채무를 갚고 있었다.

이들은 가정을 나와 생활하는 과정에서 안정된 거주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청소년쉼터를 옮겨 다녀야 했다. 그래서 모호한 진로, 쉼터 퇴소 후 거주지 불확실 등 다양한 요소들로 불안감이 높으며 우울감 또한 높았는데, 쉼터의 지원으로 상담과 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참가자들도 있었다. 하지만, 일부 참가자들은 부정적 정서에 대해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하지 않고, 단순히 시간이 지나기를 바라거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해소하고 있었다.

연구 참가자들은 청소년쉼터 퇴소 후에도 원가족으로 복귀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분간 쉼터 생활을 계속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이거나, 쉼터 거주 연령을 넘어선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통한 독립된 거주지 확보를 원하고 있었다. 한편, 개인적으로 꾸준히 아르바이트를 통해 저축하며 독립적으로 전세나 월세 거주지를 얻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참가자도 있었다.

연구 참가자들은 자신들과 같은 상황의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제안하였는데, 먼저 쉼터 퇴소 후 자립 지원에 대한 제도가 좀 더 내실화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특히, 쉼터 퇴소 후 거주지 마련을 위한 지원제도의 경우 쉼터 거주 기간 등의 요건 충족 등 제한 요소들이 있어, 이를 지키기 쉽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인 조정을 시도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스스로 생활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너무 열악하고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은 생활비 등 기타 소요 비용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현재, 쉼터에서 제공되는 지원금 액수가 적기 때문에 이를 좀 더 현실화해야 하며, 의복비, 학업 수행 경비 등 실질적인 비용 지원이 보다 확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청소년복지지원을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예,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제도)도 지원 과정과 절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진로 및 자립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이루어지는 학원 수강 지원 등도 도움이 되지만, 이러한 학원 수강이 실질적인 취업처 연계로 이어져야 하며 다양한 진로 가능성과 선택지에 대한 안내와 교육이 선행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자립을 위해 필요한 생활 정보, 보험 등에 대한 실질적인 안내와 교육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언급하였다. 즉, 부모 등 가족의 지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생활정보나 사회생활기술 등에 대한 비공식적 교육이 취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자립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안내 및 역할 모델이 제시되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가정·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이들은 가정을 나온 뒤에 머물 수 있는 시설인 청소년쉼터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가 다수였으며,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의 존재나 기능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에 따라 가정을 나왔거나,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 지원을 위한 공적 서비스의 존재와 기능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와 함께 현재 쉼터 운영에 대한 개선이 재고될 필요가 있다. 현재 청소년쉼터의 기능은 주로 거주 기간에 따라 구분되고 있는데, 이보다는 연령이나 거주 청소년의 위기 정도, 심신의 건강 상태, 개입 지원 수준 등에 따른 세분화된 기능과 역할에 따른 쉼터 형태의 개선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가정·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개입 프로그램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면접조사를 통해 가정을 나온 청소년들은 비행이나 일탈로 가족을 떠났다가보다는 양육자가 갖고 있는 양육방식과 태도의 문제, 자녀와의 소통과 관계 형성 문제 등이 그 배경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에 따라 양육자에 대한 부모교육과 행동 및 태도 개선을 위한 개입이 요구된다. 아울러, 가정 밖 상황에서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 및 자립 지원 프로그램뿐 아니라 사회관계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도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다.

그림 IV-4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가정과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은 성인기 이행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시적 맥락으로부터 배제된 삶을 살아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가정과 학교라는 두 요인은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가출을 촉발하는 배경으로 학교와 관련된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 연구 참가자들이 등교와 학업성취에 대한 부담, 학교 진학에 대한 선택, 학교 부적응에 따른 어려움, 학교를 그만둔 후의 어려움 호소 등의 상황에서 가족들이 학교와 관련된 이러한 어려움을 완충해 주거나 해소해 주지 못하면, 이들이 가진 학교와 관련된 어려움은 가족 관련 어려움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악화 일로를 걷게 된다. 부모가 학교나 학업, 진학 관련 이슈에 대해 일방적으로 비난하거나 강압적 태도로 부모(양육자)의 의견을 관철시키고자 할 때 청소년들은 집을 떠나는 선택을 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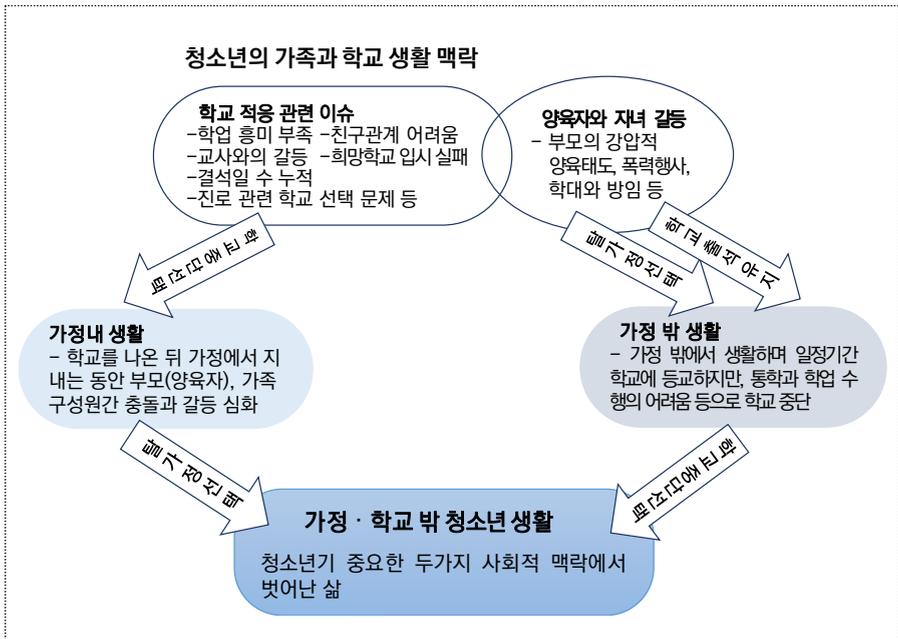


그림 IV-4. 가정과 학교를 떠나는 과정 도식

그리고, 학교를 그만두는 결정을 촉발하는 요인으로 가정(가족) 배경이 작용하게 된다. 가족 구성원과 갈등, 충돌이 벌어지면서 이들은 등교에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거나 혹은 반항의 표출로 학교 그만두기를 선택하기도 한다. 가정 문제로 인해 집을 나오면서 거주지가 원래 다니던 학교와 멀어졌고 자연스럽게 등교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학교를 나가지

않게 되기도 한다. 가정과의 접촉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자신의 다니던 학교에 가족이 찾아올 것을 두려워해서 학교를 그만둘 것을 결정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학교에 그다지 흥미가 없이 가까스로 등교하던 와중에 주변에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학교를 그만두는 사례도 관찰되었다.

가정과 학교 두 맥락을 모두 떠난 청소년들은 일탈이나 비행 청소년이라는 사회적 편견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이들의 탈학교·탈가정이라는 선택은 가족 및 학교와 관련된 다중 요인들이 얽힌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기에, 단순히 가정이나 학교로 복귀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결국, 이들이 건강한 성인기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가정을 대신할 수 있는 안정된 환경에서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하며, 심리 정서적 안정과 신체 건강을 위한 지원, 자립을 위한 교육과 진로 지원, 독립된 거주지 마련을 위한 지원 등 더욱 정교하고 다차원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모색되어야 한다.



제5장 전문가 의견조사· 현장실무자 FGI 결과

- 1. 전문가 의견조사
- 2. 현장실무자 면접조사: 초점집단
인터뷰(FGI)
- 3. 소결

1. 전문가 의견조사

1) 조사 개요

전문가 의견조사는 가정·학교 밖 청소년의 실태와 정책·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파악을 통하여 향후 가정·학교 밖 청소년에게 필요한 정책·서비스를 제안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 의견조사는 2024년 10월에 가정·학교 밖 청소년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학계 및 현장전문가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서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으로 가정·학교 밖 청소년 관련 학계 전문가와 현장전문가 총 15명을 선정하였다. 학계 전문가는 가정·학교 밖 청소년 관련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학, 심리상담, 사회복지학 등의 대학 교수와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구성하였으며, 현장전문가는 가정·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설의 소장이나 팀장으로 구성하였다. 학계 전문가는 전문가 자문을 통한 추천과 관련 연구를 수행하면서 DB로 정리한 전문가 명단을 활용하여 선정하였고, 현장전문가는 청소년쉼터협의회 등 관련 협의회의 추천을 받았다.

조사를 위해 일차적으로 연구진이 대상 전문가들에게 메일 및 문자로 연락하여 조사 참여 여부를 확인하고 참여 동의를 받은 후에 참여가 확정된 명단과 연락처를 조사위탁 기관에 전달하였다. 조사위탁기관에서는 웹 조사 시스템을 개발하여 조사 대상자들에게 연락하였고 조사 링크를 통하여 1차 조사와 2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전문가 의견조사에 참여한 학계 및 현장전문가 명단은 다음과 같다.

43) 이 장은 김경준 명예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다.

표 V-1. 조사 참여 전문가 현황

번호	이름	소속기관 및 직위	비고
1	방○○	○○대학교 교수	학계 전문가
2	유○○	○○대학교 교수	
3	전○○	○○대학교 교수	
4	정○○	○○대학교 교수	
5	조○○	○○대학교 교수	
6	임○○	○○연구원 부연구위원	
7	김○○	○○개발원 부장	
8	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센터장	현장전문가
9	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팀장	
10	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팀장	
11	변○○	○○여자단기청소년쉼터 소장	
12	고○○	○○여자단기청소년쉼터 소장	
13	이○○	○○남자단기청소년쉼터 소장	
14	전○○	○○남자단기청소년쉼터 소장	
15	김○○	○○청소년이동쉼터 소장	

본 조사는 2024년 9월 4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관생명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면제 승인(202408-HR-연개금-001)을 받아 수행하였다.

2) 조사 내용

1차 조사에서는 가정·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어려움/불리함, 정부 및 현장의 정책·서비스, 청소년쉼터의 지원, 지역사회 연계·협력 체계 등을 조사하였다.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다만, 가정·학교 밖 청소년의 어려움/불리함, 정부 정책의 중요도와 효과성, 복지서비스의 중요도와 지원 정도의 문항에 대해서는 질문에 대한 이해도와 응답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5점 척도의 폐쇄형과 추가적인 응답을 요구하는 개방형 질문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조사 문항을 구성하였다. 상세 조사 내용은 <부록3>에 수록하였다.

표 V-2. 전문가 의견조사 내용: 1차 조사

구분		조사 내용
가정·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	가정·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장 주목해야 할 가정·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
	가정·학교 밖 청소년의 어려움/불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학교 밖 청소년의 어려움/불리함 정도(신체적 건강 문제, 정서적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또래관계 문제, 비행 문제, 진로 문제, 지지체계 문제) 구체적 어려움/불리함
	가정·학교 밖 청소년의 어려움 경험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학교 밖 청소년이 또래 청소년에 비해 가장 어려움을 경험하는 분야(영역)와 이유
가정·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서비스	정책의 중요도 및 효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정 밖 또는 학교 밖 청소년 대상으로 실행되고 있는 정책의 중요도 및 효과성
	복지서비스의 중요도와 지원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학교 밖 청소년 대상의 복지서비스의 중요도와 지원정도
	청소년쉼터의 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과 다니고 있지 않은 청소년 대상으로 청소년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내용 청소년쉼터 지원의 아쉬운 점이나 한계 및 이유
	지역사회 연계·협력 지원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연계협력하고 있는 지원체계

2차 조사는 1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방형 질문을 5점 척도의 폐쇄형으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1차 조사에서 폐쇄성 질문으로 조사했던 가정·학교 밖 청소년의 어려움/불리함, 정부 정책의 중요도와 효과성, 복지서비스의 중요도와 지원 정도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요구했던 개방형 질문에 대한 응답 내용과 기타 응답 내용을 추가하여 문항을 구성하여 조사하였다(조사지는 부록3 참조).

3) 조사 및 분석 방법

조사는 조사위탁기관에서 조사 대상자들에게 웹 조사 링크를 전달하여 응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1차 조사는 연구진이 메일, 문자 및 유선 등으로 조사 대상자를 섭외한 후 조사위탁기관에 전달하여 조사위탁기관에서 웹 조사를 통하여 2024년 10월 2일부터 2024년 10월 8일 사이에 실시하였다. 2차 조사는 1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구진이

2차 의견 조사지를 개발한 후 조사위탁기관에 전달하였고 2차 웹 조사 시스템을 통해 2024년 10월 14일부터 2024년 10월 18일 사이에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V-3. 전문가 의견조사 및 분석 방법

구분	조사 기간	조사 방법	분석 방법
1차 조사	2024.10.2.~10.8.	메일 및 문자 설문, 웹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방형 정성조사 결과 내용의 범주화
2차 조사	2024.10.14.~10.18.	웹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균 분석 및 t 검정 • AHP 분석 • Borich 요구도 분석 • Locus for Focus 분석

1차 조사에서 제시된 정성 조사 결과를 유사한 내용별로 범주화하여 각 항목에 대한 동의 여부를 조사하는 문항으로 2차 전문가 의견 조사지를 개발하였다. 1, 2차 조사 결과는 평균 분석, AHP 분석, Borich 요구도 분석, The Locus for Focus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구 분석의 가장 기본적인 모델은 요구 수준과 현재 수준의 차이 또는 불일치를 분석하는 격차 모델인데, 차이 크기의 비교를 통해서 순위 결정을 쉽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그 값이 같을 때는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조대연, 2009). Borich(1980) 분석은 차이 비교의 한계를 보완한 방법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요구 수준에 가중치를 두는 방법으로(유진선, 손영은, 주연선, 2023: 141~142에서 재인용), 필요 수준(중요도)과 현재 수준(실행도)의 차이에 필요 수준(중요도)의 평균을 곱하여 전체 사례 수로 나누어서 산출한다(유영의, 장은영, 2024).

Borich(1980) 분석은 항목 간 변별과 순위 결정이 용이하지만, 분석 대상이 많을 경우는 어느 정도까지 순위를 우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제한점이 있는데, The Locus for Focus 모형은 사분면으로 되어 있는 좌표평면을 통하여 항목들을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어서 Borich 분석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유영의, 장은영, 2024). The Locus for Focus 모델은 가로축을 필요 수준(중요도), 세로축을 필요 수준(중요도)과 현재 수준(실행도)의 차이로 점도 형식으로 표시하여 시각적으로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1사분면이 우선순위가 가장 높고, 3사분면이 우선순위가 가장 낮은 영역이다(유영의, 장은영, 2024: 49).



* 출처: 유영의, 장은영(2024). 교수역량 강화를 위한 S대학 교원의 교육요구도 분석: Borich 요구도와 LF모델을 중심으로. p.49에서 인용 및 수정

그림 V-1. The Locus for Focus 모델

가정·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에 대한 동의 정도와 청소년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원의 중요 정도 등을 묻는 문항은 평균 분석을 실시하여 항목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파악하였다. 청소년쉼터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과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지원 영역에 대해서는 지원 영역 간에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AHP 분석(Rabinowitz, 1992)을 실시하였다.

또한 가정·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t 검정을 통해서 중요도와 효과성, 중요도와 지원 정도의 평균 차이를 통계적으로 확인하고 그 차이의 크기를 파악한 이후, 순차적으로 Borich 요구도 분석을 통하여 순위를 결정하였다(유진선, 손영은, 주연선, 2023). The Locus for Focus 모형에서 세로축은 현재 수준과 요구 수준의 불일치 정도 값으로, 가로축은 요구 수준으로 설정한 좌표평면에 각 항목들의 위치를 제시하였으며, Borich 요구도의 상위 항목과 The Locus for Focus 모형의 사분면에 속하는 항목들의 공통성을 확인하여 요구도의 우선순위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유진선 외 2023: 142).

4) 분석 결과

1차, 2차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하여 가정·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어려움 및 지원(개입) 방안, 가정 밖 또는 학교 밖 청소년의 복지정책의 중요도 및 효과성, 가정·학교 밖 청소년 대상의 복지서비스의 중요도와 지원정도,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청소년쉼터의 지원 영역 및 내용 등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1) 가정·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

1차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2차 의견조사에서 5점 척도로 동의 여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가정·학교 밖 청소년에게 주목해야 할 특성에 대해서 ‘불안정한 심리·정서적 특성’(M=4.80),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M=4.33), ‘범죄 등 고위기 노출 위험성’(M=4.33), ‘미래 진로에 대한 희망 부재’(M=4.27), ‘취약한 신체적 건강 문제’(M=3.93), ‘낮은 학습 능력’(M=3.87), ‘강한 자기중심성 및 자기표현’(M=3.27) 순으로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관련 전문가들이 가정·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심리·정서적으로 불안하고, 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범죄 등 고위기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고, 미래 진로에 대한 희망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V-4. 가정·학교 밖 청소년: 가장 주목해야 할 특성

(단위: 점)

특성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불안정한 심리·정서적 특성	4.80	0.41	4	5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	4.33	0.62	3	5
범죄 등 고위기 노출 위험성	4.33	0.68	3	5
취약한 신체적 건강 문제	3.93	0.59	3	5
낮은 학습 능력	3.87	0.74	3	5
강한 자기중심성 및 자기표현	3.27	0.88	2	5
미래 진로에 대한 희망 부재	4.27	0.70	3	5

(2) 가정·학교 밖 청소년의 어려움

현재 가정·학교 밖 청소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폐쇄형 질문과 개방형 질문을 병행하여 조사하였다. 즉, 1차 전문가

의견조사에서는 가정·학교 밖 청소년의 어려움을 신체적 건강 문제, 정서적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또래 관계 문제, 비행 문제, 진로 문제, 지지체계 문제, 기타 문제로 나누어 5점 척도로 동의 여부를 조사하였고, 각각의 문제의 구체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개방형으로 질문하였다. 또한, 2차 전문가 의견조사에서는 1차 전문가 의견조사에서 도출된 각각의 구체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5점 척도로 동의 여부를 조사하였다.

① 가정·학교 밖 청소년의 어려움

전문가 의견조사에서 가정·학교 밖 청소년은 ‘정서적 어려움’(M=4.93), ‘지지체계 문제’(M=4.73), ‘경제적 어려움’(M=4.40)과 ‘진로 문제’(M=4.40), ‘비행 문제’(M=4.33), ‘또래관계 문제’(M=4.27), ‘신체적 건강 문제’(M=3.93) 등의 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정·학교 밖 청소년들은 정서적 어려움을 가장 크게 겪고 있었으며, 이러한 청소년들을 지지할 수 있는 지지체계나 경제적인 문제 등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5. 가정·학교 밖 청소년: 어려움(불리함)

(단위: 점)

어려움(불리함)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신체적 건강 문제	3.93	0.59	3	5
정서적 어려움	4.93	0.26	4	5
경제적 어려움	4.40	0.51	4	5
또래관계 문제	4.27	0.59	3	5
비행 문제	4.33	0.62	3	5
진로 문제	4.40	0.63	3	5
지지체계 문제	4.73	0.46	4	5

② 가정·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구체적인 신체적인 건강 문제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가정·학교 밖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신체적 건강 문제로 ‘스마트폰 사용 조절 어려움 등으로 인한 불안정한 수면’(M=4.73)을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였다. 그다음으로 ‘불규칙한 식생활과 영양불균형’(M=4.40)과 ‘중독문제(알코올, 담배, 도박, 마약 등)’(M=4.40), ‘사전 예방 또는 사후 조치적 건강관리 미흡’(M=4.20), ‘위생으로

인한 문제(피부, 치아 등)(M=4.07)·'신체적 건강 문제의 인지·심리·사회적 측면에 대한 영향'(M=4.07)·'적절한 질병 치료의 어려움'(M=4.07), '임신, 낙태, 성병 등'(M=3.87), '건강보험증 부재로 의료기관 이용의 어려움'(M=3.47) 등의 순으로 평가하였다. 가정·학교 밖 청소년들은 불안정한 수면, 불규칙한 식생활, 중독(약물, 도박 등) 등 적절한 자기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등으로 신체적 건강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V-6. 가정·학교 밖 청소년: 신체적인 건강 문제

(단위: 점)

구체적인 건강 문제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불규칙한 식생활과 영양불균형	4.40	0.51	4	5
불안정한 수면 (스마트폰 사용 조절 어려움 등)	4.73	0.46	4	5
위생으로 인한 문제(피부, 치아 등)	4.07	0.80	2	5
사전 예방 또는 사후 조치적 건강관리 미흡	4.20	0.78	3	5
건강보험증 부재로 의료기관 이용의 어려움	3.47	0.74	2	5
신체적 건강문제의 인지·심리·사회적 측면에 대한 영향	4.07	0.70	3	5
적절한 질병치료의 어려움	4.07	0.46	3	5
임신, 낙태, 성병 등	3.87	0.83	3	5
중독문제(알코올, 담배, 도박, 마약 등)	4.40	0.73	3	5

③ 가정·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구체적인 정서적 어려움

가정·학교 밖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정서적 어려움은 '정서적 지지체계 취약으로 인한 우울, 불안, 무기력 등'(M=4.80)이 가장 심각하고, 그다음으로 '심리적 고립에 따른 불안 및 우울 등의 심화'(M=4.67), '미래 진로에 대한 불안, 걱정'(M=4.53)과 '무기력 상태'(M=4.53), '인지·정서·행동적인 문제(경계선지능, 공감능력 부족 등)'(M=4.47), '기본적인 의·식·주 불안정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M=4.40)·'낮은 자존감'(M=4.40), '타인에 대한 신뢰 부족'(M=4.27), '충동성 및 공격성'(M=4.20)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전문가들은 가정·학교 밖 청소년들이 가정이나 학교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남으로 인해서 특별히 정서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지지체계가 부재하고, 심리적 고립과 미래에 대한 불안, 무기력 등으로 인한 정서적인 문제를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표 V-7. 가정·학교 밖 청소년: 정서적 어려움

(단위: 점)

구체적인 정서적 어려움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기본적인 의·식·주 불안정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	4.40	0.51	4	5
미래 진로에 대한 불안, 걱정	4.53	0.52	4	5
인지·정서·행동적인 문제 (경계선지능, 공감능력 부족 등)	4.47	0.74	3	5
낮은 자존감	4.40	0.51	4	5
타인에 대한 신뢰 부족	4.27	0.70	3	5
심리적 고립에 따른 불안 및 우울 등의 심화	4.67	0.49	4	5
정서적 지지체계 취약으로 인한 우울, 불안, 무기력 등	4.80	0.41	4	5
충동성 및 공격성	4.20	0.68	3	5
무기력 상태	4.53	0.52	4	5

④ 가정·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구체적인 경제적 어려움

경제적 측면에서 가정·학교 밖 청소년들은 ‘취업을 위한 학력 및 직업능력 부족’(M=4.53), ‘의·식·주 등 기본 생계유지의 문제’(M=4.47), ‘원가정에서의 경제적 지원의 어려움’(M=4.40),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고위기 노출 위험성 증가’(M=4.33), ‘유형업소 등 불법적인 업종 취업’(M=4.07)·‘경제교육 미비로 인한 충동 소비’(M=4.07), ‘경제적 파산’(M=3.67) 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통해, 가정·학교 밖 청소년들이 경제적인 문제는 학력이나 직업능력 등 취업을 위한 기초적인 조건이 결여되어 있는 것과, 원가정 등 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곳이 부재하며, 의·식·주 등 기본적인 생계유지의 어려움과 고위기에의 노출 가능성이 높다는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8. 가정·학교 밖 청소년: 경제적 어려움

(단위: 점)

구체적인 경제적 어려움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의·식·주 등 기본 생계유지의 문제	4.47	0.52	4	5
경제적 파산	3.67	0.62	2	4
취업을 위한 학력 및 직업능력 부족	4.53	0.64	3	5
유형업소 등 불법적인 업종 취업	4.07	0.70	3	5
경제교육 미비로 인한 충동 소비	4.07	0.59	3	5
원가정에서의 경제적 지원의 어려움	4.40	0.51	4	5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고위기 노출 위험성 증가	4.33	0.72	3	5

⑤ 가정·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구체적인 사회관계 문제

전문가들은 이들 청소년이 경험하는 사회관계 문제로 ‘대인관계 형성의 어려움’(M=4.53)이 가장 크게 평가하였다. 다음으로 ‘건강하지 않은 또래 관계 형성으로 비행 문제 발생(도박, 절도, 약물 문제 등)’(M=4.47), ‘또래 관계에 대한 자신감 부족’(M=4.40), ‘온라인 중심의 제한된 친구 관계 형성’(M=4.20), ‘정서적, 인지적 기능 등의 저하로 또래에 의한 피해 발생’(M=4.13), ‘또래 친구의 부재’(M=4.07), ‘왕따, 따돌림 등으로 인한 고립’(M=4.07) 등의 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V-9. 가정·학교 밖 청소년: 사회적 관계 문제

(단위: 점)

구체적인 사회적 관계 문제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대인관계 형성의 어려움	4.53	0.64	3	5
또래 관계에 대한 자신감 부족	4.40	0.63	3	5
또래 친구의 부재	4.07	0.80	2	5
온라인 중심의 제한된 친구 관계 형성	4.20	0.94	2	5
왕따, 따돌림 등으로 인한 고립	4.07	0.70	3	5
정서적, 인지적 기능 등의 저하로 또래에 의한 피해 발생	4.13	0.74	3	5
건강하지 않은 또래관계 형성으로 비행문제 발생 (도박, 절도, 약물 문제 등)	4.47	0.52	4	5

이를 통해 가정·학교 밖 청소년들은 대인관계 형성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친구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에도 건강하지 않은 관계가 많고, 온라인 중심의 제한적인 관계이며, 친구 관계로 인한 피해 등도 자주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⑥ 가정·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구체적인 비행 문제

전문가들은 이들 청소년이 경험하는 가장 큰 비행 관련 문제를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M=4.60)인 것으로 보았다. 그다음으로 ‘생존 문제 해결을 위한 비행(폭력, 절도, 성매매 등)’(M=4.47), ‘비행의 반복 및 강화’(M=4.33),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한 비행 노출(도박, 약물 등)’(M=4.27)과 ‘타인의 강요, 협박으로 인한 비행’(M=4.27), ‘온라인 또래 관계를 통한 비행’(M=4.20), ‘호기심으로 인한 비행’(M=3.60) 등의 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학교 밖 청소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이며, 생계 문제, 또래 친구 형성에 대한 욕구, 강요나 협박, 호기심 등의 다양한 이유로 비행에 연루되며, 또 자주 반복되고 강화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V-10. 가정·학교 밖 청소년: 비행 문제

(단위: 점)

구체적인 비행 문제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한 비행 노출 (도박, 약물 등)	4.27	0.80	3	5
타인의 강요, 협박으로 인한 비행	4.27	0.70	3	5
생존 문제 해결을 위한 비행 (폭력, 절도, 성매매 등)	4.47	0.74	3	5
호기심으로 인한 비행	3.60	0.63	3	5
온라인 또래 관계를 통한 비행	4.20	0.68	3	5
비행의 반복 및 강화	4.33	0.62	3	5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	4.60	0.63	3	5

⑦ 가정·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구체적인 진로 문제

전문가 의견조사에서 가정·학교 밖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진로 문제의 가장 큰 어려움은 ‘무기력, 두려움 등으로 인한 진로 준비의 어려움’(M=4.53)으로 조사되었다. 그다음으로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관련 정보 부족’(M=4.27), ‘진로 설정, 탐색 등의 지원체계 결

여'(M=4.27), '학력 및 진로 역량 부족'(M=4.27), '진로·진학 정보 부족'(M=4.20), '생계 문제로 진로에 대해 고민할 여유가 없음'(M=4.00), '다양한 진로 체험 기회 부족'(M=3.93) 등의 순으로 어려움에 대한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학교 밖 청소년들의 진로 문제는 취업이나 진로 등의 정보나 진로 지원체계의 부족 등의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진로에 대한 무기력, 두려움 등이 가장 큰 문제임을 보여준다. 가정·학교 밖 청소년들이 진로 문제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스스로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가장 절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V-11. 가정·학교 밖 청소년: 진로 문제

(단위: 점)

구체적인 진로 문제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진로·진학 정보 부족	4.20	0.68	3	5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관련 정보 부족	4.27	0.70	3	5
진로 설정, 탐색 등의 지원체계 결여	4.27	0.80	3	5
생계 문제로 진로에 대해 고민할 여유가 없음	4.00	1.07	2	5
무기력, 두려움 등으로 인한 진로 준비의 어려움	4.53	0.52	4	5
다양한 진로 체험 기회 부족	3.93	0.96	2	5
학력 및 진로 역량 부족	4.27	0.70	3	5

⑧ 가정·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구체적인 지지체계 문제

가정·학교 밖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지지체계 문제로 전문가들은 '원가정으로부터의 지지체계 붕괴나 부재'(M=4.60)를 가장 높게 평가하였다. 다음으로 '어른에 대한 신뢰 약화 및 건강한 성인상 부재'(M=4.53),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의 부재'(M=4.47), '또래 집단으로부터의 고립'(M=4.13), '공적 지지체계 부족(법적, 제도적 장치 등)'(M=4.00), '청소년쉼터 등 공적 지지체계에 대한 정보 부재로 부적절한 지지망(가출뺨 등) 위험에 노출'(M=3.67) 등의 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정·학교 밖 청소년들은 가정으로부터 이탈한 후 원가정과의 연계가 상실됨과 동시에 성인을 비롯한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있으며, 또래 집단이나 공적인 지지체계와의 연계 등도 어렵고, 가출뺨 등 부적절한 지지망에 노출된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원가정을 포함한 지지체계의 복구·형성이나 사람들에 대한 신뢰 회복 등이 선결되어야 할 주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된다.

표 V-12. 가정·학교 밖 청소년: 지지체계 문제

(단위: 점)

구체적인 지지체계 문제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의 부재	4.47	0.52	4	5
어른에 대한 신뢰 약화 및 건강한 성인상 부재	4.53	0.52	4	5
원가정으로부터의 지지체계 붕괴나 부재	4.60	0.51	4	5
또래 집단으로부터의 고립	4.13	0.52	3	5
공적 지지체계 부족(법적, 제도적 장치 등)	4.00	0.76	3	5
청소년쉼터 등 공적 지지체계에 대한 정보 부재로 부적절한 지지망(가출범 등) 위험에 노출	3.67	0.90	2	5

(3) 가정·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가정·학교 밖 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1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장 의견이 많았던 정서적 문제와 경제적 문제, 그리고 기타 문제(사회적 관계, 발굴 체계, 교육 및 프로그램 등)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분류하고, 각각에 대한 동의 정도를 조사·분석하였다.

전문가 조사 결과, 가정·학교 밖 청소년의 정서적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으로 ‘사례관리를 통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상담 개입’(M=4.80)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대상자 발굴 시 정신건강 문제 우선시’(M=4.60), ‘병리적 문제의 경우에 지속적인 임상전문가의 치료 지원’(M=4.47), ‘거부감을 줄이고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개입 방안 개발’(M=4.33), ‘잘 훈련된 멘토의 지속적인 지원’(M=4.27), ‘청소년센터 등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 활동을 통한 심신 건강 회복’(M=4.20), ‘성취감 증진을 위한 활동을 제공하여 자신감 향상’(M=4.13),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 지원’(M=4.13),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역센터 등과의 협력을 통한 부모, 양육자 가정 사례 관리 및 기능 강화 프로그램 진행’(M=3.93), ‘미학(예술)을 통한 성찰적 접근’(M=3.20) 등의 순으로 필요성이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학교 밖 청소년들의 정서적 문제는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개입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대상자 발굴 시기에서부터 정신건강 문제에 관심을 가질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정서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청소년 당사자의 관심과 참여도가 낮은 것을 고려하여 대상 청소년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개입 방안 등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표 V-13. 가정·학교 밖 청소년: 정서적 문제를 위한 개입(지원)

(단위: 점)

정서적 문제를 위한 개입(지원)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대상자 발굴 시 정신건강 문제 우선시	4.60	0.51	4	5
사례관리를 통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상담 개입	4.80	0.41	4	5
청소년센터 등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 활동을 통한 심신 건강 회복	4.20	0.68	3	5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역센터 등과의 협력을 통한 부모, 양육자 가정 사례 관리 및 기능 강화 프로그램 진행	3.93	0.59	3	5
성취감 증진을 위한 활동을 제공하여 자신감 향상	4.13	0.74	3	5
잘 훈련된 멘토의 지속적인 지원	4.27	0.70	3	5
병리적 문제의 경우에 지속적인 임상전문가의 치료 지원	4.47	0.74	3	5
미학(예술)을 통한 성찰적 접근	3.20	0.78	2	5
거부감을 줄이고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개입 방안 개발	4.33	0.82	3	5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 지원	4.13	0.64	3	5

전문가 조사 결과, 가정·학교 밖 청소년의 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으로 ‘의·식·주 지원’(M=4.60)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그다음으로 ‘기술자격증 취득·직업교육훈련 비용 지원’(M=4.47), ‘자립할 수 있는 일자리 제공’(M=4.27), ‘진학을 위한 학원비 제공’(M=4.00), ‘1인실 생활공간 지원’(M=3.73)과 ‘경제적 지원을 위한 특별수당 신설’(M=3.73)의 순으로 필요성이 조사되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들 청소년의 생계 문제가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가장 필요하며, 다음으로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비용이나 일자리 제공 등이 제공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 V-14. 가정·학교 밖 청소년: 경제적 문제를 위한 개입(지원)

(단위: 점)

경제적 문제를 위한 개입(지원)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의·식·주 지원	4.60	0.63	3	5
1인실 생활공간 지원	3.73	1.03	1	5
진학을 위한 학원비 제공	4.00	0.66	3	5
기술자격증 취득·직업교육훈련 비용 지원	4.47	0.64	3	5
자립할 수 있는 일자리 제공	4.27	0.70	3	5
경제적 지원을 위한 특별수당 신설	3.73	1.10	1	5

가정·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기타 지원으로 ‘가정 밖, 학교 밖 청소년 발굴 체계 강화’(M=4.73)가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였고, 다음으로 ‘사회적 관계 기회 확대’(M=4.33), ‘부모 및 양육자 교육’(M=4.13), ‘가족 연계 프로그램 지원’(M=4.07), ‘학교 지지체계(돌봄시스템) 구축’(M=3.87), ‘WEE센터 중심의 총괄 지원’(M=3.60)과 ‘가족 캠프 및 여행 프로그램 지원’(M=3.60) 등의 순으로 필요성이 조사되었다. 즉, 정서적, 경제적 지원 이외에서는 청소년 발굴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지원이 가장 필요하고, 가정·학교로부터 이탈한 이후 가장 취약해진 사회적 관계 확대와 가정, 학교 등의 지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표 V-15. 가정·학교 밖 청소년: 기타 문제에 대한 개입(지원)

(단위: 점)

기타 문제에 대한 개입(지원)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사회적 관계 기회 확대	4.33	0.62	3	5
학교 지지체계(돌봄시스템) 구축	3.87	0.92	3	5
WEE센터 중심의 총괄 지원	3.60	0.91	2	5
가정 밖, 학교 밖 청소년 발굴 체계 강화	4.73	0.56	4	5
가족 연계 프로그램 지원	4.07	0.80	3	5
부모 및 양육자 교육	4.13	0.74	3	5
가족 캠프 및 여행 프로그램 지원	3.60	0.99	2	5

(4) 가정 밖 청소년 또는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복지정책의 중요도 및 효과성

정부에서 가정 밖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복지정책에 대해서 중요도와 효과성을 5점 척도로 조사하고, 평균 분석 및 t 검정, Borich 요구도 분석, The Locus for Focus 모형 분석을 실시하여 정책의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전문가 조사 결과, 가정 밖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의 복지정책의 중요도의 평균은 5점 만점에 4.07점으로 나타났고, 중요도가 높은 복지정책은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M=4.53), ‘청소년자립통장 지원’(M=4.33), ‘청소년쉼터 이용 청소년 주거정착금 지원’(M=4.27)·‘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지원’(M=4.27) 등의 순이었다.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제와 함께 자립 등을 위한 경제적 지원의 요구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8개 복지정책의 불일치 정도의 평균은 0.38점이었고, 중요도와 효과성 차이에 대한 t 검정 실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정책과 그렇지 않은 정책이 각각 4개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책 중에서 불일치 정도가 가장 높은 정책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였고, 그다음은 ‘청소년쉼터 이용 청소년 주거정착금 지원’, ‘학교밖 청소년 건강검진 지원’,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의 순이었다.

표 V-16. 가정 밖, 학교 밖 청소년 관련 복지정책 중요도와 효과성 불일치 정도, The Locus for Focus 모형 분석 결과

(단위: 점)

복지정책	중요도(A)		효과성(B)		불일치 정도 (A-B)		t값	Borich		LF 모형 사분면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요구도	순위	
1.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4.00	0.65	3.67	0.61	0.33	0.48	2.646*	1.33	5	HL
2.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4.53	0.51	3.67	0.81	0.87	0.74	4.516***	3.93	1	HH
3. 청소년쉼터 이용 청소년 주거 정착금 지원	4.27	0.88	3.60	0.73	0.67	0.61	4.183***	2.84	2	HH
4. 청소년자립통장 지원	4.33	0.61	4.00	0.92	0.33	0.89	1.435	1.44	4	HL
5.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	3.93	0.79	3.80	0.94	0.13	0.35	1.468	0.52	6	HL
6. 진로체험 카드 지원	3.93	0.59	3.87	0.74	0.07	0.45	0.564	0.26	7	HL
7.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지원	4.27	0.79	3.67	0.90	0.60	0.63	3.674***	2.56	3	HH
8. 대안교육기관 이용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3.33	0.90	3.27	1.03	0.07	0.45	0.564	0.22	8	LL
전체 평균	4.07		3.69		0.38					

중요도 수준에 가중치를 주는 Borich 요구도 분석 결과는 1순위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2순위 '청소년쉼터 이용 청소년 주거정착금 지원', 3순위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지원', 4순위 '청소년자립통장 지원', 5순위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불일치 정도와 중요도를 2개의 축으로 하는 좌표평면을 활용하여 정책들의 우선순위를 시각화하여 제시하는 The Locus for Focus 모형 분석 결과에서 중요도와 불일치 정도가 평균값을 상회하는 HH분면의 정책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청소년쉼터 이용 청소년 주거정착금 지원',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지원'으로 나타났다.

평균 분석 및 중요도와 효과성 차이에 대한 t 검정, Borich 요구도 분석과 The Locus for Focus 모형 분석을 종합할 때,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청소년쉼터 이용 청소년 주거정착금 지원',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지원'이 향후 더욱 필요한, 중요한 정책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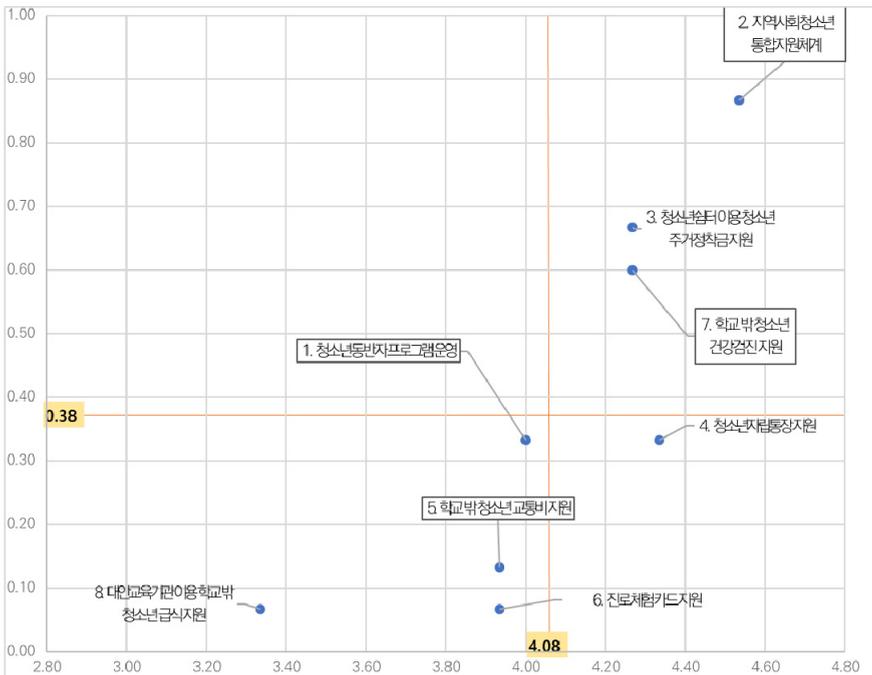


그림 V-2. 가정 밖,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복지정책 요구도의 The Locus for Focus 모형

(5) 가정·학교 밖 청소년 대상 복지서비스의 중요도와 지원 정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가정·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된 복지서비스에 대해서 중요도와 지원 정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하고, 평균 분석 및 t 검정, Borich 요구도 분석, The Locus for Focus 모형 분석을 실시하여 정책의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이들 청소년 대상의 복지서비스의 중요도의 평균은 5점 만점에 4.43점으로 높았고, 중요도가 높은 복지서비스는 일반 심리상담 지원(M=4.73), 학업 및 학력 취득 지원(M=4.60)과 직업훈련 지원(M=4.60), 경제교육 및 관련 정보 제공(M=4.53)과 취업 후 사후관리(M=4.53), 주거지 및 주거비 지원(M=4.47)·학비 지원(M=4.47)·취업 준비 지원(M=4.47) 등의 순으로 나타나, 심리상담 및 학업 지원 등의 요구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16개 복지서비스의 불일치 정도의 평균은 1.39점이었고, 중요도와 지원정도 차이를 t 검정을 통해 검증한 결과, 모든 복지서비스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일치 정도가 가장 높은 복지서비스는 ‘취업 후 사후관리’였고, 다음으로 ‘주거지 및 주거비 지원’, ‘자립에 대한 응원이나 도움 또는 멘토링’, ‘대인관계 훈련’, ‘자립정착금 지원’, ‘경제교육 및 관련 정보 제공’, ‘생활 교육’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요도 수준에 가중치를 주는 Borich 요구도 분석 결과는 1순위가 ‘취업 후 사후관리’, 2순위 ‘일반 심리상담 지원’, 3순위 ‘주거지 및 주거비 지원’, 4순위 ‘자립에 대한 응원이나 도움 또는 멘토링’과 ‘대인관계 훈련’, 6순위 ‘자립정착금 지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V-17. 가정·학교 밖 청소년 관련 복지서비스의 중요도와 지원정도 불일치 정도, The Locus for Focus 모형 분석 결과

(단위: 점)

복지서비스	중요도(A)		지원정도(B)		불일치 정도(A-B)		t값	Borich		LF 모형 사분면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요구도	순위	
1. 일반 심리상담 지원	4.73	0.45	2.93	0.70	1.80	0.94	7.407***	8.52	2	HH
2. 자립에 대한 응원이나 도움 또는 멘토링	4.40	0.50	2.80	0.77	1.60	0.82	7.483***	7.04	4	HH
3. 대인관계 훈련	4.40	.073	2.80	0.67	1.60	0.82	7.483***	7.04	4	HH
4. 경제교육 및 관련 정보 제공	4.53	0.64	3.13	0.99	1.40	0.82	6.548***	6.35	7	HH
5. 생활 교육	4.27	0.59	2.87	0.99	1.40	0.82	6.548***	5.97	8	LH
6. 지역사회 자원 이용 교육	3.87	0.64	2.73	1.03	1.13	1.12	3.900***	4.38	15	LL

복지서비스	중요도(A)		지원정도(B)		불일치 정도 (A-B)		t값	Borich		LF 모형 사분면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요구도	순위	
7. 건강지원	4.40	0.50	3.20	0.94	1.20	1.14	4.054**	5.28	10	LL
8. 주거지 및 주거비 지원	4.47	0.83	2.60	0.73	1.87	1.30	5.553***	8.34	3	HH
9. 자립정착금 지원	4.33	0.72	2.73	0.70	1.60	1.12	5.527***	6.93	6	LH
10. 학업 및 학력 취득 지원	4.60	0.50	4.00	0.92	0.60	0.73	3.154***	2.76	16	HL
11. 학비 지원	4.47	0.64	3.13	0.74	1.33	0.81	6.325***	5.96	9	HL
12. 진로지도	4.53	0.51	3.53	1.12	1.00	1.00	3.873***	4.53	14	HL
13. 직업훈련 지원	4.60	0.50	3.47	0.99	1.13	1.06	4.141***	5.21	11	HL
14. 취업 준비 지원	4.47	0.64	3.33	0.97	1.13	1.18	3.697***	5.06	13	HL
15. 취업정보 제공	4.33	0.48	3.13	0.99	1.20	1.08	4.294***	5.20	12	LL
16. 취업 후 사후관리	4.53	0.64	2.33	0.61	2.20	0.77	11.000***	9.97	1	HH
전체 평균	4.43		3.04		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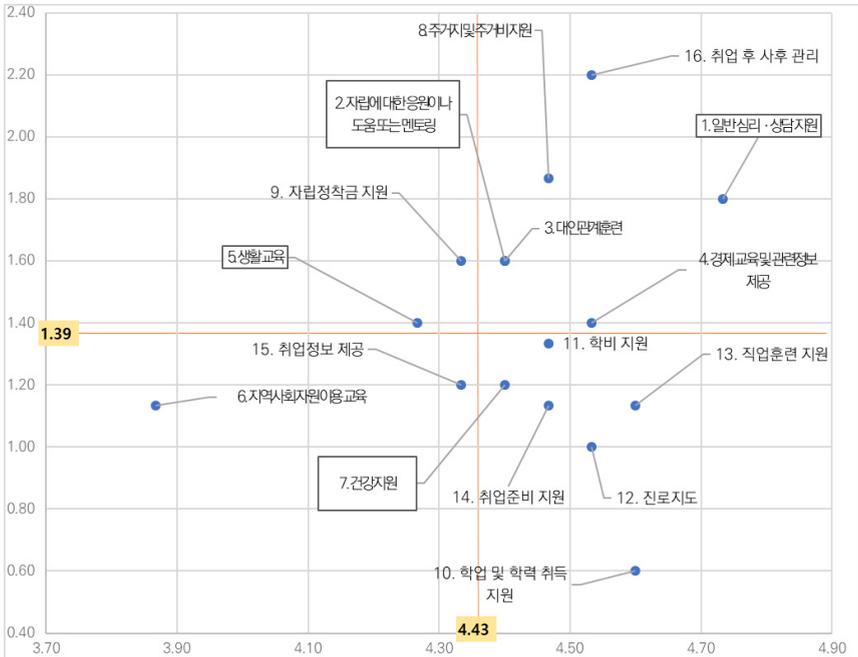


그림 V-3. 가정·학교 밖 청소년 대상 복지서비스 요구도의 The Locus for Focus 모형

불일치 정도와 중요도를 2개의 축으로 하는 좌표평면을 활용하여 정책들의 우선순위를 시각화하여 제시하는 The Locus for Focus 모형 분석 결과, 중요도와 불일치 정도가 평균값을 상회하는 HH분면의 복지서비스는 '취업 후 사후관리', '일반 심리상담 지원', '주거지 및 주거비 지원', '자립에 대한 응원이나 도움 또는 멘토링', '대인관계 훈련', '경제교육 및 관련 정보 제공'으로 나타났다. 평균 분석 및 중요도와 효과성 차이에 대한 t 검정, Borich 요구도 분석, The Locus for Focus 모형 분석을 종합할 때, '취업 후 사후관리', '일반 심리상담 지원', '주거지 및 주거비 지원', '자립에 대한 응원이나 도움 또는 멘토링', '대인관계 훈련', '경제교육 및 관련 정보 제공'이 향후 지원되어야 할 중요한 복지서비스로 분석되었다.

(6) 가정 밖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청소년쉼터의 지원 영역 및 내용

① 청소년쉼터의 중요한 지원 영역의 우선순위

1차 전문가 의견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쉼터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청소년과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은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의 지원 내용을 정리하여 각각 5개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AHP(계층적 의사결정 방법, 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을 통해서 지원 영역 간에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표 V-18. 가정 밖 학생 청소년 대상의 지원 영역 중요도

영역	상세 내용	중요도	순위
심리사회적 지원	심리상담 지원, 사회적 관계(또래관계) 지원	0.225	1
학업·학교생활 지원	학업지원, 학습멘토링, 학교생활지도	0.178	5
진로 지원	진로상담, 다양한 진로체험 기회 제공, 진로설계 및 진로·진학 지원	0.183	4
자립 지원	직업교육·훈련 지원, 아르바이트 지원, 취업 정보 제공 등	0.200	3
경제적 지원	교통비, 식비, 학원비 등 지원	0.213	2

주: C.R.(Consistency Ratio)=0.0011393<0.1

그 결과, 가정 밖 학생 청소년 대상의 지원 영역으로 심리사회적 지원이 1순위이고, 경제적 지원이 2순위, 자립 지원이 3순위, 진로 지원이 4순위, 학업·학교생활 지원이 5순위로 나타나, 심리사회적 지원이 가장 중요한 영역임을 알 수 있었다. 쌍대 비교의 일관성을 판단하는 일관성 비율인 C.R.(Consistency Ratio)이 0.0011393로 0.1 미만임

에 따라서 신뢰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⁴⁴⁾

한편, 가정·학교 밖 청소년 대상의 지원 영역에 대한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심리사회적 지원이 1순위이고, 자립 지원이 2순위, 진로 지원이 3순위, 경제적 지원이 4순위, 복교·검정고시 지원이 5순위로 나타나, 심리사회적 지원이 가장 중요한 영역임을 알 수 있었다. 일관성 비율인 C.R.(Consistency Ratio)이 0.0016287로 0.1 미만임에 따라서 응답 결과는 신뢰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청소년쉼터에서 학생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의 지원 영역에서 있어서 공통적으로 심리사회적 지원이 1순위로 나타나 가장 중요한 영역임을 알 수 있다. 차순위로는 학생 청소년의 경우에는 경제적 지원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았으나,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자립 지원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아 지원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차이를 보였다.

표 V-19. 가정·학교 밖 청소년 대상의 지원 영역 중요도

영역	상세 내용	중요도	순위
심리사회적 지원	심리상담 지원, 또래관계(사회적 관계) 지원	0.224	1
복교·검정고시 지원	학교복귀 지원, 검정고시 지원	0.176	5
진로 지원	진로상담, 다양한 진로체험 기회 제공, 진로설계 및 진로·진학 지원	0.194	3
자립 지원	직업교육·훈련 지원, 아르바이트 지원, 취업 정보 제공 등	0.214	2
경제적 지원	교통비, 식비, 학원비 등 지원	0.192	4

주: C.R.(Consistency Ratio)=0.0016287<0.1

② 청소년쉼터에서 초점을 두고 제공하고 있는 지원

1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차 전문가 의견조사에서는 청소년쉼터에서 학생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초점을 두고 제공하고 있는 지원 내용을 학업 지원, 심리·사회적 지원, 자립 지원, 경제적 지원, 안전·복귀 지원의 5개 영역으로 분류하여 각 지원 내용에 대한 동의 여부를 조사·분석하였다.

그 결과, 학생 청소년에게 초점을 두고 제공되고 있는 지원은 ‘안전한 보호’(M=4.67)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또래 관계(사회적 관계) 지원’(M=4.60), ‘의료 지원’(M=4.53), ‘심리·상담 지원’(M=4.47), ‘학업 지원’(M=4.40), ‘진로상담’(M=4.33)·‘교통비, 식비 지

44) 쌍대비교의 일관성 있는 수행의 판단 기준은 일관성 비율(Consistency Ratio, C.R.)이 대략 0.1(10%)을 넘지 않는 것이다(Saaty, 2008: 265).

원 등'(M=4.33)·'사회적응 지원'(M=4.33), '진로·진학 지도'(M=4.20)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지원 영역별로 볼 때, 학생 청소년 대상의 지원은 안전과 심리·사회적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V-20. 청소년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원 중 가장 초점을 두고 있는 내용

(단위: 점)

지원 내용	학생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평균	표준 편차	순위	평균	표준 편차	순위	
학업지원	진로·진학 지도	4.20	0.68	9	4.47	0.83	13
	학업 지원	4.40	0.63	5	4.00	0.93	17
	학습멘토링	4.07	0.88	11	4.07	0.88	16
	사교육 지원	3.40	0.99	18	3.53	0.99	20
	학교생활 지도	4.13	0.92	10	-	-	
	검정고시 지원	-	-		4.60	0.51	8
	복학(복교) 지원	-	-		3.60	0.91	18
심리사회적 지원	진로상담	4.33	0.82	6	4.67	0.49	5
	심리상담 지원	4.47	0.64	4	4.73	0.46	3
	사회적응 지원	4.33	0.82	6	4.80	0.41	2
	또래 관계(사회적 관계) 지원	4.60	0.63	2	4.67	0.62	5
	일상생활 지원	4.00	0.93	13	4.53	0.64	11
자립지원	체험활동 지원	3.87	0.92	15	4.40	0.74	14
	자격증 취득 지원	3.87	0.83	15	4.73	0.46	3
	직업체험·훈련 지원	4.07	0.88	11	5.00	0.00	1
경제지원	아르바이트 지원	3.73	0.88	17	4.67	0.49	5
	용돈지원	4.00	1.20	13	4.40	0.91	14
안전 복귀지원	교통비, 식비 지원 등	4.33	0.90	6	4.60	0.83	8
	안전한 보호	4.67	0.49	1	4.60	0.63	8
	의료 지원	4.53	0.64	3	4.53	0.64	11
	가정복귀 지원	3.73	1.16	17	3.60	1.06	18

한편, 학교 밖 청소년에게 초점을 두고 제공되고 있는 지원은 '직업체험·훈련 지원'(M=5.00)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사회적응 지원'(M=4.80), '자격증 취득 지원'(M=4.73)과 '심리상담 지원'(M=4.73), '진로상담'(M=4.67)과 '또래 관계(사회적 관계) 지원'(M=4.67)과 '아르바이트 지원'(M=4.67), '검정고시 지원'(M=4.60)·'교통비, 식비

지원 등'(M=4.60)·'안전한 보호'(M=4.60)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지원 영역별로 볼 때,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의 지원은 자립 지원과 심리·사회적 지원에 가장 초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가정 밖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심리사회적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었으며, 학생 청소년에게는 학업지원과 안전복귀 지원에,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자립지원에 보다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청소년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원의 한계

청소년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원의 한계에 대해서도 1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차 전문가 의견조사에서 학업 관련 지원, 진로 지원, 사회관계 지원, 경제적 지원, 기타 지원의 5개 영역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지원의 한계에 대한 동의 여부를 조사·분석하였다.

조사 결과, 학생 청소년 대상 지원의 한계에 대해서는 '학교생활에 흥미 없는 경우에 학교 적응 지원의 어려움'(M=4.33), '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깊이 있는 지원 어려움'(M=4.33), '개인 발달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부족'(M=4.27), '무기력, 대인관계 어려움 등으로 지원 거부'(M=4.07), '다양한 직업군 탐색 및 체험의 한계'(M=4.00), '사례관리 시 시간 부족으로 학업(학교 재학) 유지에만 초점'(M=4.00), '학업 관련 지원 부족(학원, 과외 등)'(M=3.93), '청소년쉼터 단기 이용으로 개입과 지원의 지속성 어려움'(M=3.93), '진로상담 지원 미비'(M=3.80), '또래 관계 증진을 위한 훈련 부족'(M=3.80), '용돈 부족(교통비 지원만 가능)'(M=3.80)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지원 영역별로 볼 때, 학생 청소년 대상의 지원은 학업 적응 등 학업 관련 지원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지원의 한계에 대해서는 '다양한 직업군 탐색 및 체험의 한계'(M=4.67), '개인 발달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부족'(M=4.60)·'무기력, 대인관계 어려움 등으로 지원 거부'(M=4.60)·'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깊이 있는 지원 어려움'(M=4.60), '진로상담 지원 미비'(M=4.40)·'경제적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지원 부족'(M=4.40), '청소년 쉼터의 단기 이용으로 개입과 지원의 지속성 어려움'(M=4.27), '또래 관계 증진을 위한 훈련 부족'(M=4.20)·'경제적 자립에만 초점을 둠'(M=4.20)·'청소년의 정확한 욕구 파악 어려움'(M=4.20)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지역 영역별로 볼 때,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의

지원은 진로 관련 지원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이밖에 사회관계 지원, 학업 지원, 경제적 지원, 기타 지원 등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가정 밖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나타난 공통적인 어려움은 개인 발달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부족, 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깊이 있는 지원, 무기력, 대인관계 어려움에 따른 지원 거부, 다양한 직업군 탐색 및 체험에서의 제약 등이었다. 요약하면, 학생 청소년의 경우에는 학교 적응 지원에서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으나,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진로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21. 청소년쉼터 제공 지원의 한계

지원의 한계		학생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평균	표준 편차	순위	평균	표준 편차	순위
학업 관련 지원	학업 관련 지원 부족(학원, 과외 등)	3.93	0.80	7	3.93	0.96	13
	개인 발달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부족	4.27	0.80	3	4.60	0.63	2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부족	3.67	0.98	13	-	-	
	학교생활에 흥미가 없는 경우에 학교 적응 지원의 어려움	4.33	0.62	1	-	-	
진로 지원	다양한 직업군 탐색 및 체험의 한계	4.00	0.76	5	4.67	0.62	1
	진로상담 지원 미비	3.80	1.01	9	4.40	0.91	5
사회 관계 지원	도래 관계 증진을 위한 훈련 부족	3.80	0.68	9	4.20	0.78	8
	무기력, 대인관계 어려움 등으로 지원 거부	4.07	0.88	4	4.60	0.63	2
경제 지원	경제적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지원 부족	3.73	0.88	12	4.40	0.74	5
	경제적 자립에만 초점을 둠	3.53	0.92	14	4.20	0.86	8
	용돈 부족(교통비 지원만 가능)	3.80	0.86	9	4.13	0.83	11
	검정고시 등을 위한 지원 예산 부족	-	-		3.53	1.20	14
기타	사례관리 시 시간 부족으로 학업(학교 재학) 유지에만 초점	4.00	0.38	5	-	-	
	청소년쉼터 단기 이용으로 개입과 지원의 지속성 어려움	3.93	1.03	7	4.27	1.10	7
	청소년의 정확한 욕구 파악 어려움	3.53	0.92	14	4.20	0.56	8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 부족	3.53	0.92	14	4.00	1.07	12
	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깊이 있는 지원 어려움	4.33	0.82	1	4.60	0.63	2

2. 현장실무자 면접조사: 초점집단인터뷰(FGI)

1) 조사 개요

(1) 조사 대상자

가정·학교 밖 청소년의 생활 실태와 지원 현황, 그리고 정책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청소년쉼터, 자립지원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가정·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기관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조사(FGI, 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기관 특성을 고려하여 2차에 걸쳐서 진행하였는데, 1차 조사는 일시, 단기, 중장기 청소년쉼터의 실무자 5명을 대상으로, 2차 조사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실무자 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참여자들은 해당 기관이 소속되어 있는 협의회 및 전문가 추천을 통해 선정되었으며, 조사 내용의 충실도를 높이기 위하여 주로 해당 시설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의 팀장급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일부 센터장을 포함하였다.

표 V-22. 현장실무자 FGI 참여자 정보

일시	그룹	번호	구분	성별	직위	시설유형	경력
11월 4일	집단 1	1	참여자 A	여	팀장	여자단기청소년쉼터	2년 8개월
		2	참여자 B	남	팀장	일시청소년쉼터	8년
		3	참여자 C	남	팀장	남자중장기쉼터	9년
		4	참여자 D	남	팀장	남자단기청소년쉼터	2년
		5	참여자 E	여	팀장	여자단기청소년쉼터	5년
11월 5일	집단 2	1	참여자 F	여	팀장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10년
		2	참여자 G	여	팀장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3년
		3	참여자 H	여	센터장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1년
		4	참여자 I	남	팀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0년
		5	참여자 J	남	팀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	7년
		6	참여자 K	여	팀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	5년

FGI는 5~6명의 집단을 대상으로 1시간~1시간 30분 정도씩 실시하고, 인터뷰자료는 녹취한 후 전사하였다. 본 FGI는 2024년 9월 4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관생명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면제 승인(202408-HR-연개금-001)을 받아 수행하였다.

(2) 면접 내용

FGI 내용은 시설 이용자의 일반 현황, 가정·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가정·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 실태, 가정·학교 밖 청소년의 지지체계, 지원시설의 요구, 지역 연계 및 정책 지원 방안의 6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표 V-23. 현장실무자 FGI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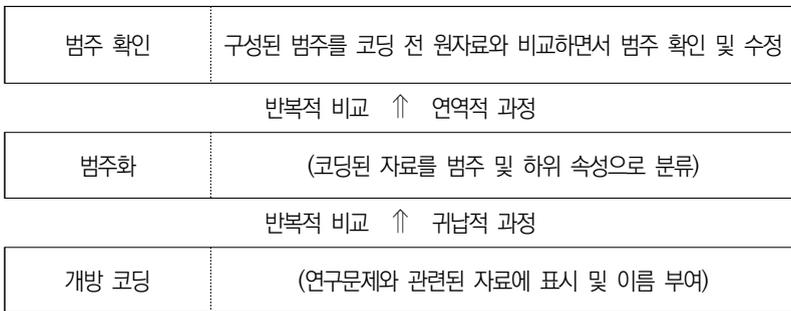
조사 영역	세부내용
시설 이용자 일반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학 및 학교 밖 청소년 비율 및 변화 추이 시설 이용 청소년 연령 및 변화 추이 시설 청소년 입소 경로
가정·학교 밖 청소년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주요 경험 가정·학교 밖 청소년의 어려움/문제점 가정·학교 밖 청소년의 주요 욕구
가정·학교 밖 청소년 지원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업 관련 지원 서비스 현황 및 문제점 진로 관련 지원 서비스 현황 및 문제점 자립 관련 지원 서비스 현황 및 문제점 기타 지원 서비스 현황 및 문제점
가정·학교 밖 청소년 지지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과의 연계 및 지원 여부 입소 시설에서의 지원 정도 기타 지지체계 유무
시설 요구, 지역 연계 및 정책 지원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의 요구사항 지역사회 연계 정책 개선 및 추가 서비스

구체적으로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시설 이용자의 일반 현황은 재학 및 학교 밖 청소년의 비율과 변화 추이, 시설 이용 청소년의 연형과 변화 추이, 시설 청소년 입소 경로 등으로 내용을 구성하였으며, 가정·학교 밖 청소년의 실태로 이들 청소년의 특성과 주요 경험, 어려움 및 문제점, 주요 욕구 등을 포함하였다. 가정·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 실태는 학업, 진로, 자립, 기타 관련 지원 서비스 현황 및 문제점으로 내용을 구성하였고, 가정·학교 밖 청소년의 지지체계는 가정과의 연계 및 지원 여부, 입소 시설에서의 지원정도, 기타 지지체계 유무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시설의 요구사항, 지역사회 연계, 정책 개선 및 추가 서비스 등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반구조화 설문지를 토대로 초점집단면접(FGI)을 진행하였으며, 현장실무자들을 청소년 센터와 자립지원관, 그리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2개 집단으로 구분하여 온라인방식으로 실시하였다. FGI에서는 집단별로 5~6명이 참여하였고, 면접 시간으로는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FGI 시작 전에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조사 내용, 인터뷰 내용의 녹취, 비밀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고, 본 연구 참여에 동의한 참가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하였으며, 녹취된 내용은 전사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전사된 자료는 개방 코딩, 범주화, 범주 확인의 반복적 비교분석법의 과정을 거쳐 분석되었다. 즉, 전사된 자료를 읽으면서 개방 코딩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비슷한 코딩으로 구분해 놓은 자료들을 상위 범주화하고 이름을 붙이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범주화가 타당하게 수행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전사자료와 비교하면서 검토하는 절차를 거쳤다. 범주화 작업은 미리 범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료들의 분석을 통해서 자료들을 가장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상위 범주를 구성하는 귀납적 과정이고, 범주 확인은 범주화 과정을 통해서 구성된 범주가 연구의 질문과 관련하여 수집된 자료의 특성을 잘 설명하고 있는지 원자료를 재확인하는 연역적 과정이다(유기웅 외, 2018: 328~336).



* 출처: 유기웅 외(2018).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p.328. 인용

그림 V-4. 현장실무자 FGI 결과 분석 방법

2) 분석 결과

(1) 가정·학교 밖 청소년의 일반 현황

청소년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FGI 참여자들이 소속해 있는 시설에서의 가정·학교 밖 청소년의 수와 연령대, 변화 추이, 입소 경로 등의 일반 현황에 대해서 면접을 수행하였다. FGI 결과, 가정·학교 밖 청소년들의 인원은 시설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는데, 청소년쉼터의 경우에는 현재 인원으로 약 7%에서 44%까지 입소하였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경우에는 시설별로 5명에서 27명 정도로 파악되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경우에는 정확한 인원 파악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는 과거에 비해서 시설별로 증감 사례를 보여 일정한 추세를 판단하기 어려웠다, 그리고, 저연령 청소년과 다문화 청소년의 사례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FGI에 참여한 시설을 기준으로 가정·학교 밖 청소년의 시설 입소 경로를 살펴보면, 일시 청소년쉼터의 경우에는 친구 소개나 아웃리치가 가장 많았다. 여자단기청소년쉼터와 남자중장기쉼터의 경우에는 경찰 등에서의 외부 연계가 가장 많았으며, 남자 청소년쉼터에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찾아오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V-24. 응답자 소속 시설의 가정·학교 밖 청소년의 일반 현황

시설 유형	주요내용
여자단기청소년쉼터 (참여자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18명 중 학생이 10명, 학교 밖 청소년 8명으로 6:4 정도 비율임. • 15~22세의 다양한 연령대로 학교 밖 청소년은 17~19세가 많음. 예전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 관내 청소년뿐만 아니라 타 시에서도 많이 연계됨. 최근 3개년 평균으로 경찰 연계가 가장 많음. • 가정 학대 또는 방임, 학교 부적응 등의 문제로 가족 갈등에 의한 연계가 대부분임.
일시청소년쉼터 (참여자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밖 청소년의 비율은 약 7% 정도로 파악됨. • 친구의 소개로 오는 경우가 가장 많고, 직접 진행하는 온·오프라인 아웃리치를 통해서 입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 20세가 넘는 가정 밖 청소년들의 학업 지원을 많이 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
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참여자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고등학교 때 입소해서 20대 초반에 퇴소하는 사례가 많음. • 입소 청소년 중 약 14.3%가 학교 밖 청소년임. • 학대 문제로 경찰이나 지자체에서 연계되는 경우가 많음. • 최근에는 정신적인 문제가 너무 심해서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워 의뢰되는 사례도 많아지는 추세임.

시설 유형	주요내용
남자단기청소년쉼터 (참여자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소 청소년 중 학교 밖 청소년은 약 22%로, 점차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 가장 많으나, 최근 초등학생들이 들어와서 비율이 낮아지는 추세임. 즉, 저연령 청소년의 비중이 높아짐. 다른 시설에서 청소년 스스로 알아보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 임. 아동학대 신고 절차에 의해서, 혹은 지인의 소개로 오는 사례가 많고, 경찰을 통해서 오는 경우는 드문 편임.
여자단기청소년쉼터 (참여자 E)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밖 청소년 비율은 25% 정도로 줄어들고 있음. 절반 이상이 경찰, 학교 선생님, 상담 교사 등 외부 연계로 입소하였고, 본인 스스로 혹은 친구 소개로 오는 경우도 있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참여자 F)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기적으로 하루 평균 25명에서 30명 정도가 이용함.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공간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어서 청소년들만의 공간으로서 활동하고 지낼 수 있는 좋은 환경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참여자 G)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밖 청소년의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조금 많은 편임. 청소년 사례가 다양함.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참여자 H)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올해도 예년과 같은 추이로 800여 명이 등록해서 서비스를 받고 있음. 홈스쿨링이나 대안학교, 검정고시만을 위해서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점차적으로 연령이 낮아지고 있어 저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참여자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담자 중에 약 22%가 학교 밖 청소년이고, 가정 밖 청소년은 약 1.2%임. 부모들이 이분법적인 양육 태도를 가지고 있어, 자녀에 대한 과한 압박 아니면 장기적인 학대 정황이 많이 드러나고 있음. 자녀가 자살 이슈나 자해 이슈가 심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포기하고 방관하는 부모들도 있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참여자 J)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학교 밖 이중 취약 청소년은 1년에 12명임. 외국인, 사각지대인 외국인 청소년은 2명,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3명이 현재 이용하고 있음. 가정폭력의 피해 청소년이 대부분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참여자 K)	<ul style="list-style-type: none"> 5명 내외 정도가 가정·학교 밖 이중 취약 청소년임. 중학생에서 대학생 정도의 청소년이고, 여자 청소년들이 대부분임. 청소년쉼터에서 많이 연계되어 음.

(2) 가정·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

현장실무자들이 파악하는 가정·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은 사회성이 취약하여 사회적응의 어려움, 분노 조절, 공격성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가정 학대와 부모 방임, 가정폭력의 피해 경험이 있고, 무기력하고 소속감과 끈기가 부족하며,

그리고 기타 불법적 충동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성인 역할모델이 부재하다는 점과 가정·학교 밖 청소년 중에서도 사각지대 다문화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 사회성 취약 및 사회적응의 어려움

현장실무자들은 가정·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로 사회성 부족과 사회적응의 어려움을 보고하였다. 이들 청소년은 어린 나이에 또래 관계가 단절되면서 사회성이 부족하게 되고, 친구 관계에서 작은 갈등이나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에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해서 관계 유지를 힘들어했다고 하였다. 이러한 특징은 또래 관계에서만 아니라 성인이나 다른 특정 대상과의 관계 형성도 어렵게 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이외에도, 학교 규율이나 규칙적인 생활에서 취약성을 보이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학교생활을 아이들이 또 단절되다 보면 경험상으로는 그 나이에 좀, 단절된 나이에 사회성이나 인내심이 멈추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경험상 만나본 10대 때부터 20대까지 본 친구들을 포함하여서 그 친구들을 보면, 그때의 사회성에서 머무르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인내심이나 사회성이 약하기도 하고 또 정신증도 있고, 이런 게 복합적인 게 긍정적인 것들을 해결하는데 결국에는 어려움이 발생하더라고요(참여자 D).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하면 가정과 학교에서 모두 적응하지 못하고 저희 쉼터로 오게 된 친구들은 관계 갈등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관계라고 하면 저희가 쉼터에서만 잘 지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정이나 사회나 또래나 어른이나 어떤 대상하고도 사실 관계를 맺지 못하는 현상을 보입니다(참여자 A).

일단은 적응 문제에 항상 걸려 있는 것 같고요. 가정에서도 다른 가족들과하고 뭔가 불화라든지 이런 갈등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항상 놓이는 청소년인 것 같고, 또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응과 관련된 규칙적인 생활이라든지 규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취약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고, 또 대인관계 문제에서 그런 취약성이 있는 것 같고요(참여자 E).

나. 분노 조절, 공격성 등 정서적 어려움

현장실무자들은 가정·학교 밖 청소년들이 정서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전에 비해서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실무자들은 가정에서의 학대 경험이나 학교에서의 따돌림 경험 등으로 인해서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가정·학교 밖 청소년들은 우울하거나 공격성이 높고 분노 조절이 어려운 성향을 보이며, 심각한 경우에는 병리적인 현상까지 나타나서 단순히 약 처방만으로 쉽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정신병원으로 연계되는 수준에까지 이르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다.

연령대는 크게 예전과 달라진 건 없고 특성이 조금 정신적인 문제라든가 지능적인 문제로 문제가 좀 있는 그런 친구들의 입소 비율이 예전에 비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참여자 C).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면서 괴롭힘을 당하는 대상으로 지목되다 보니까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탈하게 된 경험을 가진 상처가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주요 경험이 이렇다 보니까 아이들이 보여지는 어려움에는 정신적인 어려움이 가장 크고요. 정신적인, 단순히 진료를 받고 약을 먹으면 나아지는 수준보다도 병리적인 현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정신병원에까지 연계를 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데...(참여자 A).

학대받다 보니까는 소극적인 케이스도 있고, 다 비슷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우울한 케이스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정서적으로 공격적인 그런 케이스도 있어서 케이스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참여자 C).

다. 가정 학대, 부모 방임 및 가정폭력 피해

FGI를 통해, 청소년쉼터의 청소년들은 가정 학대와 부모 방임, 가정폭력 피해 등을 경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어릴 때부터 시작되었는데, 경제적으로 빈곤한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부모 갈등도 심했다. 또 한부모 가정이거나 다문화가정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장기적인 학대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으며, 청소년들의 성폭력 피해와 자살 및 자해 이슈에도 부모가 방관하는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한 채 쓰레기 더미 집이나 컨테이너에서 살다가 시설에 입소한 사례도 보고되었다.

가정에서 자녀에 대한 과한 압박 아니면 장기적인 어떤 학대 정황이 많이 드러났고요. 그리고 아예 그냥 자녀가 자살 이슈나 자해 이슈가 심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모두 포기하고 방관하는 이런 부모들의 모습을 봤던 것 같습니다(참여자 I).

대부분은 어릴 적에 가정폭력을 포함해서 트라우마적인 상황들이고, 특이한 부분들은 성폭력 이런 부분들도 겪은 청소년들이 있고. 아예 가정 기반 자체가 부모님 서로의 갈등도 많지만, 또 부모가 한부모 가정이거나 아니면 외국인이거나 어머니, 그래서 이런 취약적인 면들이 많고요(참여자 K).

쓰레기발 더미 집에 살고 있어서 돌봄을 아예 받지 못한다거나, 그래서 보통 구출이 돼서 저희 쉼터로 오는 경우도 있고, 아직도 컨테이너 박스에 살고 있는 친구도 있었고요. 그래서 대부분이 가난과 방임과 학대를 다 경험한 친구들이 조금 많이 있고요(참여자 A).

라. 무기력, 소속감과 끈기 부족

현장실무자 FGI 결과, 이들 청소년의 특징은 무기력하고 인내심이 부족하며 어디에 소속해 있는 것에 대해서 큰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이다. 청소년시설에서 이들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끝까지 마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다. 사례에서 보듯이 8회기 프로그램의 경우에 1~2회기만 참여하고 그만두는 경우도 있었고, 전혀 참여할 의사가 없는 경우도 있었다. 심각한 경우에는 무기력으로 인해서 약물을 복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가정·학교 밖 이중 취약 청소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의 하나가 어디에 소속해 있는 것인데, 가정이나 학교에서 이탈하여 어느 곳에 소속해서 성취한 만족할 만한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느 집단에 소속하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 등에서 더욱 큰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보여진다.

청소년들이 무기력해서 끈기가 없어요. 8회기 프로그램을 하면 1~2회기 하고 그만하겠다, 중간에 한 번 하고 그만하겠다, 이런 청소년들이 대부분이고요. 무기력이 강해서 약물을 복용하는 친구들도 많고요. 점차적으로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참여자 H).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아이들이 끈기가 없다는 거. 이 학교 밖으로 온 아이들이 사교 친 아이들이 많다면 지금 심리적으로 힘든 아이들이 되게 많거든요(참여자 F).

이중 취약 청소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소속감이거든요. 이 아이들이 처음부터 뿌리가 튼튼했으면 내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하면서 어떠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아이들이 작은 성공 경험을 할 텐데, 애초에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막상 나는 학교를 벗어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공부 잘하던 친구도 학교를 벗어나니 루틴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가 맞춰야 되니까 그게 또 흔들어버리게 되면 나는 못 하는 거, 다른 친구들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나는 계속 퇴보하는 것 같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고...(참여자 K).

마. 기타(불법적 충동 행동, 성인 역할모델 부재, 사각지대 다문화 청소년 증가)

이외의 특성으로 불법적 충동 행동과 성인 역할모델의 부재, 그리고 가정·학교 밖 청소년 중 사각지대 다문화 청소년들의 증가 등이 보고되었다. 또한, 이 청소년들에게서 부족한 돈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불법 대출, 도박, 절도 등이 불법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충동적으로 하는 행동 특성이 나타나고 있으며, 사람들과의 신뢰 관계가 무너져서 성장·발달 상에서 필요한 성인 역할모델이 부재하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다문화 청소년들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현상과 관련하여, 부모가 F4 비자를 가지고 있는 자녀를 한국에 버리고 가서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불가능한 상태로 청소년 시설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도 보고되었다.

요즘에 충동적인 것들을 이기기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전이 필요하면 불법 대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불법에 가담하려고 하는 정황이 잡힌다든지, 아니면 몰래 숨어서 어떻게 다른 루트를 통해서 돈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앞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기기

힘들어하고, 특히 요즘에는 일반 학교에서도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도박 관련해서 아이들이 너무 손쉽게 접근하다 보니까 도박에 이미 손대서 온 친구들이 있고, 그러면 그런 충동들을 여기서 치료받으면서 해보자라고 권해도 자제는 하지만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참여자 D).

가정하고 학교에서 아무래도 방치되고 돌봐주거나 누군가 돌보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이 청소년들이 지원체계라고 해야되나요? 모델링할 수 있는 어른들이 주변에서 굉장히 없는 것 같아요(참여자 E).

제가 만난 두 친구는 ○○국에서 넘어온 친구들이었는데 (중략) 그래서 F4 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부모님들이 아이를 버린 거죠. 한국에다 버리고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저희 입장으로는 솔직히 F4 비자 만료될 때까지 답이 없어요. 아이가 시험 보고 응시해서 20살 되어 3년마다 갱신을 할 수가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는 강제 출국이나 이런 절차도 절대 불가능한 상태고, 아이가 주거나 생계, 식사 이런 것도 전혀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근데 정부 지원도, 시 지원도,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능합니다(참여자 J).

(3) 가정·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

현장실무자 FGI를 통해 가정·학교 밖 청소년들은 기본적으로 안전에 대한 욕구, 좋은 옷과 맛있는 음식에 대한 욕구, 돈에 대한 욕구가 크며, 학업 및 자립에 대한 욕구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가. 안전에 대한 욕구

가정·학교 밖 청소년들은 가정과 학교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각종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줄 안전한 공간 등에 대한 욕구가 큰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가정·학교 밖 청소년들은 단순히 가정이나 학교가 싫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견디다 못해서 나온 사례들이 많아서 가장 기본적인 안전에 대한 욕구가 더욱 클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기본적으로 이 친구들의 가장 중요한 욕구는 가정과 분리돼서 위험한 요인으로부터 보호되는 안전한 공간인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저희가 참, 2024년에 이런 사연을 가진 친구들을 마주한다는 일이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지원을 해줘야 할까 하는 정도로, 단순히 그냥 학교가 싫어, 가정이 싫어하고 나온 친구들이라기보다는, 그것도 견디다가 어떻게 발견이 돼서 온 케이스가 조금 많이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안전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크고 (참여자 A).

나. 좋은 옷, 맛있는 음식에 대한 욕구

가정·학교 밖 청소년들은 자신이 현재 머물고 있는 청소년쉼터와 같은 시설에서 자립하

여 자유롭게 살고 싶은 욕구도 있지만, 자립을 위해서는 기술을 배운다든가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노력 등이 뒤따라야 하므로 생각보다 자립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가정·학교 밖 청소년들은 자립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노력하기보다는 당장에 필요한 것을 추구하는 일차적인 욕구를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현장실무자 FGI에서 좋은 옷이나 맛있는 거를 먹고 싶어 하는 욕구로 표출되고 있었다.

자립하고 여기 빨리 쉼터를 떠나고 싶어 하는 욕구는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기술 같은 것도 배워야 하는데, 그런 거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고, 좋은 옷 입고 싶고 맛있는 거 먹고 싶어 하는 그런 일차원적인 욕구를 저한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참여자 C).

다. 돈에 대한 욕구

가정·학교 밖 청소년들은 가정이나 학교로부터의 지원이 단절되기 때문에 의·식·주 등 기본적인 생활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청소년쉼터 등의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경우에도 자신에 대한 지원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원하는 생활을 하기에는 돈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따라서 의·식·주 해결이나 기타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돈에 대한 욕구도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정 밖 청소년 아이들의 주요 욕구는 사실상 자립에 포함되지만, 돈이 더 먼저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참여자 D).

아이들이 저희 쪽에 원하는 지원 서비스는 어떤 생활비 부분을 가장 많이 욕구를 필요로 하고요... (참여자 G).

라. 학업 및 자립에 대한 욕구

현장실무자 FGI에서 이 청소년들은 가정으로 돌아가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정 정도 시설에서 생활한 이후에는 자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자립을 위해서는 일정한 학력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에 쉽게 말을 꺼내지는 못하지만, 학업이나 자립에 대한 욕구를 항상 가지고 있었다. 청소년시설에 입소하게 되는 초기에는 이러한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다가 어느 정도 적응한 이후에는 학업이나 자립에 대한 욕구를 표현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학업이나 자립에 대한 욕구를 실천으로 옮기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 돼서 일을 해야 하는데 학업을 어떻게든 끝내야 본인들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본인들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학업의 욕구, 진로의 욕구들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참여자 B).

이제 조금 쉼터에서 적응하다 보면 저희가 또 보호기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3개월, 6개월, 9개월 있는 동안에 자기 욕구를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 혼자 살 수 있는 자립 능력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커다란 편입니다. 그래서 자기 진로를 찾기보다도 우선 본인이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기술을 조금 가지고 싶어서 뭐라도 배워보고 싶다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참여자 A).

(4) 가정·학교 밖 청소년 지원 실태

가. 가정·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서비스

청소년시설에서 가정·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지원되는 서비스는 학업 지원, 자립 지원, 심리상담 지원, 식사 지원, 건강검진 지원, 체험활동 지원, 생활 관리 지원 등이 있는데, 주요한 서비스는 학업 관련 지원 서비스, 진로 및 자립 지원 서비스, 심리상담 서비스로 나타났다.

이중 취약 친구들한테 주로 하는 서비스가 학업이랑 자립인 것 같아요(참여자 G).

대다수의 경우는 꿈드림센터와 연계해서 검정고시 수업을 나간다는지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을 나간다는지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또 꿈드림에서 무료로 점심 급식도 해주고 건강검진도 해주고 또 최근에는 ○○도, □○도 같은 경우에는 꿈드림이 연합해서 수학여행을 ○○도로 다녀오기도 하면서 학업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체험 활동도 많이 지원하고 있더라고요(참여자 C).

꿈드림센터에서는 학업 지원이나 식사 지원, 진로 지원, 그리고 아르바이트, 그러니까 근속 여부와 상관없이 이 네 가지 지원을 했고, 그리고 생활 관리 진행을 했는데, 예를 들어, 2주에 한 번씩은 우리가 전화하든 네가 전화하든 한 번씩 전화해야 돼요(참여자 I).

가) 학업 관련 지원 서비스

청소년시설에서 가정·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지원되는 학업 관련 지원 서비스는 기초학습 지원, 학습 상담, 장학금 관련 경제적 지원 등이 있었다. 현장실무자 FGI 결과, 상당수의 청소년이 기초학습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초학습이나 학습 상담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학업에 대한 흥미를 갖게 하는 정도의 성과는 있었으나, 한편으로 학습지원 서비스의 다양성이 부족하고 성과에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적 지원의 일환으로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서 취약계층 청소년의 자산 형성을 위해 마련된 디딤씨앗통장을 개설하게 하여 경제관념과 시설에서 독립한 후에 자립심을 키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부분 기초학습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기초학습 지원 위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참여자 E).

자원으로 연계해서 저희가 3명, 3명 정도씩의 그룹으로 학습 전략 집단 상담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한 두 달 정도 진행을 했었고, 그런 다음에 하기 전과 후에 학습 향상도를 조금 확인했을 때 기하급수적으로 늘진 않았지만 어쨌든 학업에 흥미를 붙이는 요인은 되었다 정도로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학업 관련 지원 서비스라고 한다면 일단 다양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기초학습 또는 흥미에 따라서 조금 이게 많이 한계가 있는 점이라고 생각하고요(참여자 A).

장학금 지원을 할 때는 디딤씨앗 적립예금 통장을 개설하게끔 지원했습니다, 네 명에게. 그래서 장학금이 그쪽으로 지원이 돼서 아이들이 조금 관리하면서 경제관념도 키우면서 이거를 스스로가, 집 밖으로 나가고 학교 밖에 나와서 저희의 지원을 받지 않을 때도 조금 자립심을 키울 수 있게끔 네 기관이 계속 회의를 통해서 연계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참여자 G).

나) 진로 및 자립 지원 서비스

현장실무자 FGI를 통해 청소년시설에서 가정·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지원되는 진로 및 자립 지원 서비스로 학원 수강, 인터넷 교육, 금융 교육, 자립생활 교육, 임대주택 지원, 자립 수당 지원, 직업훈련 지원, 특기생을 위한 개별 맞춤형 기획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소년쉼터의 경우에는 자립 지원 예산이 500만 원으로 의무적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장기청소년쉼터의 경우에는 LH 임대주택 지원과 자립 수당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에서 가정·학교 밖 청소년들이 중도에 탈락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독려하기 위한 활동도 하고 있으며, 일부 특기생들을 대상으로는 집단 프로그램보다는 개별 맞춤형 진로 프로그램에 초점을 두고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다.

자립 지원 서비스 관례해서 예산 편성이 한 2-3년 전부터 청소년쉼터에 500만 원이 의무적으로 설정되어 있어요. (중략) 학원 수강도 (지원)하고 인터넷 강의도 듣고, 고충센터와 연계해서 일자리 정보도 얻고 자립 훈련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 교육, 세탁, 요리 등 자립 후 실생활에 필요한 교육도 하고, 대상자에 한해서 LH 임대주택도 지원하고, 자립 지원 수당 또한 받을 수 있는 청소년들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참여자 C).

저희가 주력으로 지원하는 건 아르바이트 현장 점검이에요. 그래서 A센터 팀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아이들이 끈기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현장 방문을 해서 아이들 직업훈련 같은 거 시킬

수 있게 계속 독려하면서 체험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고요(참여자 G).

예체능 특기생이 조금 있어서 한 친구는 지금 가수 준비를 해서 오디션도 보러 다니고 관련학과도 입시로 다니기도 하는 특수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각자의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1대 1로 사례 지원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단체 프로그램보다는 아이들이 직접 선택하고 직접 기획해서 같이 논의하는 방향으로 사례 지원을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참여자 A).

다) 심리상담 서비스

가정·학교 밖 청소년들은 정서적으로 취약한 특성이 있어서 정서적 문제의 해결 없이는 어떠한 프로그램도 효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프로그램 진행에 앞서서 무엇보다도 먼저 가정·학교 밖 청소년들의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에 따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심리상담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었다. 특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심리상담을 기본적으로 하면서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병원과 연계해서 자살이나 자해 치료 지원과 같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심리적인 안정이 돼야 이 친구들이 끈기도 생기고 센터에도 더 열심히 오고, 앞으로의 진로나 꿈을 키우는 데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먼저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참여자 H).

거의 케어식으로 상담이 진행되고 있어서 장기 상담 보통 한 1년씩은 하는 것 같아요. 장기 상담 지원을 한 다음에 인근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치료 지원 연계해서 사례관리 그쪽에서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자살 자해 위기가 있는 사례는 병원 연계해서 그쪽에서 동시에 사례관리 공동으로 같이 네트워크 해서 진행을 했었고요(참여자 I).

심리상담을 기본적으로 하면서 청소년들한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상담을 신청한 이유나 외부 기관에서 신청해 주신 이유도 대부분은 우울이나 자살, 자해 등으로 거기에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참여자 K).

나. 가정·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어려움

가) 부족한 예산과 지속적 지원의 어려움

현장실무자 FGI 결과, 가정·학교 밖 청소년 대상의 서비스 지원에서 어려운 점 중의 하나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하며 지속적인 지원이 쉽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업을 위한 학원비 지원의 경우에 부모의 무관심이나 후원금 마련이 쉽지 않아서 자체 예산만으로 충분한 지원을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또한 지역 상권과 연계한 일자리 지원 서비스에서 해당 청소년들이 적응하지 못하고 끝까지 수행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인 지원에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

아무래도 학업 관련해서 학원 같은 데서 수강하려면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금전적인 부분이 저희 센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다고 후원금 따오기도 쉽지 않고, 보호자분들이 그렇다고 학업에 크게 관심 있지도 않고 해서 금전적인 부분,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고...(참여자 C)

저희는 이 지역 상권이나 연계를 해서 아이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다든가, 아니면 일거리를 마련해서 일거리를 지원받아서 아이들이 최저시급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지원하고는 있는데, 사실상 계속 지원이 어려운 게 한계이고요(참여자 D).

나) 프로그램에 대한 청소년들의 무관심과 꾸준함 부족

가정·학교 밖 청소년 대상의 서비스 지원 시 어려운 점은 대상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에 대해 무관심이나 의지 부족, 혹은 거부감, 취약한 배경/환경 등으로 프로그램을 지속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들 청소년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 참여율도 떨어지고 지속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고되었다. 일례로, 평소에는 시설 이용을 잘하던 청소년이 특정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날에는 일부러 오지 않아서 프로그램에 대한 거부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관심이 없는 프로그램을 통해 힘들게 지원하려고 할 때, 중도 탈락의 위험성도 크고 에너지도 많이 소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 관련돼서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막상 청소년이 학업에 대한 의지나 관심이 없으면 그거를 또 옆에 계신 사례 관리자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그걸 또 막 끌어올려서, 어찌어찌해서 막상 지원하게 되면 중도 탈락 위험성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꾸준히 그거를 지원을 해서 유지하는 게 생각보다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참여자 E).

꾸준함이 없다는 게 어렵다는 가장 큰 점이고요. 어쨌든 애네들 먹고 살 거를 찾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적 변인들이 너무 취약하다 보니까, 뭔가를 해도 거기에 따른 어떤 결과물이 안 나오고 자기가 주도하지 못하는 이런 성향들, 특징들이 있다 보니까 누군가가 관리해 줄 수 있는 지속성에 대한 어떤 유지가 안 된다는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참여자 I).

아이들이 성실성 있게 일관성 있게 꾸준히 오는 것들이 매우 힘들어 하거든요,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던 아침에 직원보다 일찍 오는 그 친구도 뭔가 프로그램 하자 그러면 그날은 또 안 와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프로그램 학업이나 진로 이런 지원을 하게 되면 그거를 되게 꺼려하더라고요(참여자 J).

다) 실무자의 업무 과중과 전문적인 지원의 한계

현장실무자 FGI에서 가정·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서비스의 문제점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인력의 부족이 나타났다. 시설의 실무자 1인이 담당해야 하는 청소년들의 수가 많고, 역할도 다양하기 때문에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해당 청소년들에게 전문적인 지원을 할 수 없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일시적인 처방에 그치는 경우도 많았다. 정신증을 앓고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에 특별한 전문적인 치료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신과에 내방해서 약 처방을 받는 수준에서 치료가 이루어지면서 이 청소년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는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 사람당 거의 사례 수가 몇 십 명, 몇 백 명까지 되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돌봄이 필요하고 실제적으로 부모가 되어줘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 그 상황에서 저희 실무자가 해줄 수 있는 역량은 한계가 있고, 그런데 조금 돌봄이나 보육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는 상황에서는 실무자의 인원 보충이나 조금 체계적인 것도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참여자 G).

정신증 친구들은 약을 복용을 하는데, 사실상 약을 꾸준히 아무리 복용해봤자 해결이 된다는 느낌은 없더라고요. 조금 진정되거나 약의 기운을 받아서 조금 안정적인 잠깐의 모습은 있는데,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중략) 무언가 특별한 뭔가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이 친구들한테 지원해 주는 건 사실 정신과 내방해서 전문의와 상담하고 약 처방받고 이런 수준밖에 할 수는 없다 보니까 더 전문적인 치료는 사실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참여자 D).

라) 청소년 특성에 맞는 서비스 및 실효성 부족

현장실무자 FGI에서 가정·학교 밖 청소년 대상으로 현재 지원되고 있는 서비스는 청소년들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서비스가 교육적인 측면에 치중되어 있고 삶의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경험을 제공하는 데는 다소 부족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는 해당 청소년들의 경우에 지원 서비스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고 참여 동기도 낮아지는 원인이 된다고 한다.

아이들 특성에 맞게 서비스가 지원되어야 하는데, 너무 가정 밖 청소년들한테 교육적인 측면으로 다가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 아이들한테 자립을 얘기한다고 하면 실제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에 이런 경험들을 만들어줘야 나올 것 같은데 그런 한계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참여자 D).

이런저런 자격증에 대해서 다양하게 아이들한테도 소개하고 있고, 또 이런 거를 했었을 때 본인들한테 이점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해 주고는 있지만, 그게 또 취업까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아이들도 그걸 현장에서 알기 때문에 본인이 그거를 맘으로 인해서 내가 이걸 취업할 수 있을까? 오히려 저희들한테 역으로 물어봐서, 뭔가 동기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문제점은 되게 많은 것 같아요(참여자 E).

마) 아르바이트 등 일자리 지원의 어려움

가정·학교 밖 청소년들은 자립을 위해서 아르바이트 등 일자리 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청소년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렵고, 아르바이트 등의 일자리를 찾아서 제공하더라도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그만두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정·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상 집단생활에 대한 경험이 적고, 진로에 대한 목표나 의지도 강하지 못한 편이어서 아르바이트 중에 발생하는 어려움을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가정·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설에서는 아르바이트 등 일자리 지원에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는 그 욕구가 상당히 있는 것 같고, 욕구랑 다르게 현실에서는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찾는 것도 어려울뿐더러 찾아가서 일을 한다 하더라도 며칠 나가고 다시 돌아오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제일 큰 거 같아요(참여자 E).

바) 청소년 지지체계의 부족

가정·학교 밖 청소년들의 대부분은 가정이나 학교에서 소외를 경험한 대상자들로서 가정과 학교와의 관계가 단절된 이후에는 이러한 청소년들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기반은 더욱 부족한 실정이다. 이들 청소년이 건강한 관계 형성을 통해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들을 긍정적이고 바라보고 지속적으로 지지해 줄 수 있는 지지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는 지지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해서 지원 서비스의 효과도 없게 되는 등의 악순환에 빠져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특히, 청소년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서 지지할 수 있는 환경에 차이가 큰데, 20대 청소년들의 경우에 제도적으로 지지체계의 형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누군가로부터 소외를 경험한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소외의 경험은 또 다른 건강한 관계를 통해서 해소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청소년에 대한 지지체계를 말한다고 하면 이런 건강한 관계를 유지시키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중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참여자 I)

아무리 정서적인 지원을 하더라도 이 친구를 온전히 바라봐줄 수 있는 지지체계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중략) 청소년이 성인인 경우에는 부모나 보호자를 지지체제로 접할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 대한 굉장한 어려움이 있고 선생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상담을

하거나 필요할 때는 선생님이 같이 식사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지원 서비스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친구가 그 선생님을 만나지 않는 나머지 시간에는 홀로 되기 때문에 소속감이, 소속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고...(참여자 K)

(5) 가정·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안

가. 가정·학교 밖 이중 취약 청소년의 실태 파악과 동기부여 확대

이 FGI에서 한 현장실무자는 가정·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책 대상이 되는 청소년들에 대한 실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이들과 관련한 상당수의 지원 서비스에 대한 청소년들의 참여율과 효과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가정·학교 밖 청소년 관련 정책에서는 이 청소년들에 대한 실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하며, 정책 지원 서비스에서의 대상 청소년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동기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할하고 있는 지역에 있는 이중 취약 청소년들에 대한 실태들을 일단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실태가 아예 파악이 안 돼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이런 조사들이 먼저 이루어져야 또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참여자 B).

학업에 대한, 자립에 대한 그런 동기부여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청소년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은 점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친구들한테 자립과 학업에 대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참여자 C).

나. 시설 자체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확대

현장실무자 FGI에서 가정·학교 밖 청소년 대상의 지원 서비스의 문제점 중의 하나는 서비스가 교육적인 측면에 치중되어 있고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경험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가정·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서비스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들을 잘 파악하고 있는 시설별로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사례에서는 중간 경험이라고 해서 청소년들에게 일의 경험을 스스로 해보게 하는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서비스의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저희가 쉽다고 해서 지원 서비스의 한계가 활동에만 국한되지 않고 조금 자체적으로 개발이 되고 제안할 수 있는 형태의 것으로 늘어났으면 조금 좋겠습니다(참여자 A).

커리큘럼화 하기보다는 중간 단계를 만드는 것보다는 중간 경험을 만들어주면 어떨까 싶거든요. 예를 들면 자립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자립을 먼저 얘기를 안 할 수 있는 단계를 경험으로 만들어주면 어떨까? (중략) 자립을 얘기하기 전에 단계에 아이들한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주면 어떨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아이들한테 직접적인 사업을 열 수 있게, 직접 지원의 길을 열어서 아이들한테 그런 일의 경험을 스스로 해보는, 그렇게 돈을 벌어보는 경험을 쉼터에서 해보면서 그 이후에 자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참여자 D).

다. 청소년쉼터 입소 청소년에 대한 복지 혜택 확대

가정·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방안의 하나로 청소년쉼터 입소 청소년에 대한 복지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중장기청소년쉼터의 보호 기준의 변경, 급식카드의 발급, 특별지원의 확대, 고용 시 세금 감면 등의 혜택 제공 등이 이에 해당된다. 중장기청소년쉼터에서의 보호기간은 현재 최대 4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보호기간을 24세까지의 연령 기준으로 변경하고, 청소년쉼터 입소 청소년에게 제한되어 있는 급식카드의 발급과 특별지원을 확대, 허용해 주고, 가정·학교 밖 청소년의 고용 시 관련 사업체에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이들 청소년의 안전한 보호와 자립을 위한 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중장기 청소년쉼터의 경우 보호기간이 최대 4년이지 않습니까? 그럼 10살 때 들어왔다 치면 14살 때는 무조건 퇴소해야 되는데, 이 보호기간을 연령으로 청소년 나이가 24세면 24세까지 보호가 가능할 수 있도록 법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청소년쉼터 입소 청소년들은 수급자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급식카드가 발급이 안 되더라고요, 주민센터에 가봤더니. 그래서 이런 급식카드도 입소 청소년들이 쉼터 안에서만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밥 사 먹을 때도 있는데...(중략) 청소년쉼터에 입주해 있다 보니까 특별 지원도 이게 중복지원이라고 대다수 다 탈락을 하더라고요(참여자 C).

편의점이라든지 어디 업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아이들을 고용을 할 경우에는 그분들한테는, 세금 감면이라든지 이런 거라도 해서 지역사회에서 관심을 가져서 아이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협조해 주면 아이들이 그래도 지원하는 곳들이 많아지고, 이력서를 내볼 만한 곳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참여자 D).

라. 주거비 무상 제공 등 퇴소 후 사후관리 지원 확대

청소년쉼터 등 시설에 입소해 있는 가정·학교 밖 청소년들의 경우에 퇴소 후에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사후관리 지원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가정·학교 밖 청소년들이 시설 퇴소 후에 겪게 되는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는 주거지 마련인데, 현실적으로 이 청소년들은 취업이 어렵고 일자리를 갖더라도 임금이 낮은 편이어서 혼자만의 힘으로 주거비용을 충당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면접 참여자들은 LH 임대주택 등 공공주택의 입주 조건을 완화해서 가정·학교 밖 청소년들이 거주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게 함으로써 자립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정책 방안으로 제안하고 있다.

쉼터뿐만 아니라 지자체나 다른 기관에서 사후관리에 관련된 다른 지원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아무래도 자립 지원 수당이나 LH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자격 조건이 까다롭잖아요. 자격이 안 되는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퇴소 후에 혼자 원룸 잡아서 살아야 되는데, 퇴소 후가 입소 중일 때보다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퇴소 후에 다양한 서비스 지원, 이런 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참여자 C).

공유 재산들이 각 공공기관에 많거나, 아니면 나라든지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보증금을 내고 시작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보증금이 없어도 시작해 볼 수 있는 기회들을 한 번쯤은 취보는 게 어떨까는 생각이 들거든요(참여자 D).

꿈드림을 1개월 이용했던 6개월 이용했던 그 기간에 상관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추천서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이런 지원을 받아서 내가 살고 있는 거주 비용이라도 세이브가 되어서, 이 친구들이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는 돈으로 바꿀 수 있든지 아니면 다른 영역으로 이 돈을 건강하게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조금 선행이 된다고 하면 아이들이 그래도 그나마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구나 라는 이 무망감에서 조금 떨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참여자 I).

마. 지역별 청소년쉼터 확대 및 공공성 강화

FGI 참여자들은 가정·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 방안으로 청소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청소년쉼터가 지역별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현재는 지역별로 청소년쉼터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더욱이 청소년들이 원하는 형태의 청소년쉼터가 없어서 한곳에 마음을 두고 안정적으로 머물지 못하고 여러 곳을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운영 주체 변경을 통한 청소년쉼터의 공공성 강화 필요성도 제시되었다.

솔직히 말해서 가정에서 가정폭력을 당했을 때 지역마다 지금 쉼터가 많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공간들이 확보되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참여자 F).

쉼터가 턱없이 부족하고요. (중략) 그러다 보니까 가정 밖을 나왔을 때 아이들이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쉼터 이렇게 여행 투어처럼 이곳저곳 다니게 되다 보니까 안정감도 없어지고 소속감도 없어지고 여러 가지 통제를 받잖아요. 기간, 시간,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사실은 온전하게 마음을 놓고 지낼 곳이 없다 보니까 하루 살기 바빠지는 것 같아요(참여자 H).

인근 시군에 있는 모든 센터가 다 ○○○ 종교 법인에서 위탁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중략)
센터를 정부에서, 재단 운영이나 직영 이런 형태로 전환하는 것도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참여자 J).

바. 시설 공간 기준 마련 및 매뉴얼화된 서비스 제공

FGI 참여자들은 꿈드림센터 등 청소년시설 내에서 가정·학교 밖 청소년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현재 가정·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 내 활동 공간이 부족하여 원활히 활동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도시의 경우에는 사무실과 활동 공간 각각 1개씩만을 갖추고 있는 시설들이 많았는데, 다른 유형의 청소년시설과 같이 일정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시설 공간 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에 따라서 청소년에게 지원되는 서비스의 질에 대한 차이가 커서 지역별 편차를 줄이고 어느 정도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매뉴얼화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안하고 있다.

꿈드림 친구들이 학교만큼은 아니지만 활동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정 기준을 크게 해서 지자체나 다른 관련된 기관들이 운영하는 위탁 기관들이 이런 공간들을 잘 넓혀 나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지방보다는 서울이 되게 시급하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시급해요. 사무실 하나, 활동 공간 하나 해가지고 꿈드림이라고 운영하는 게 되게 많아요. 이렇게 되면 애들이 있을 수 없어서 막 밖에 서 있어야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구조여가지고...(참여자 I)

지자체의 관심 여부에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주어지는 서비스의 질이 굉장히 다를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느끼게 돼서 딱 어떻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라라고 매뉴얼화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편차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참여자 E).

사. 시설 실무자 수 및 전문성 확대

FGI에서 현장실무자들은 가정·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시설의 경우에 실무자별로 담당하는 청소년들의 수가 많아 현재 시설에 배치되어 있는 실무자만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있다고 하였다. 특히, 트라우마를 가진 청소년 등 취약한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전문적인 치료를 요구로 하고 있으나 전문적인 상담을 할 수 있는 인력 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시설 내 실무자의 절대적인

수의 확대와 함께 전문적인 상담 치료 지원의 확대가 요청되고 있다.

한 사람당 거의 사례 수가 몇 십 명, 몇 백 명까지 되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돌봄이 필요하고 실제로 부모가 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 그 상황에서 저희 실무자가 해줄 수 있는 역량은 한계가 있고, 그런데 조금 돌봄이나 보육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는 상황에서는 실무자의 인원 보충이나 이런, 조금 체계적인 것도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참여자 G).

물론 실무자도 있어야 되지만 전담할 수 있는, 상담복지센터에 동반자 프로그램에서도 동반자 선생님이 있듯이 취약한 청소년들은 조금 더 개별 사례를 할 수 있는 실무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 이런 게 정책적으로 서비스, 사업 인력이라도 늘릴 수 있는 방향이 있어야지 이 청소년들을 조금이라도 돌봐주고 조금 더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참여자 H).

사실 이 청소년들이 트라우마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소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비용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조금 더 지원이 많이 확대되면 좋을 것 같아요(참여자 E).

아. 지역사회 연계 강화 및 고위기 청소년 연계를 위한 법 개정

FGI 참여자들은 가정·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사회의 다양한 자원 연계 및 긴밀한 협력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지역사회 내에 많은 자원이 있으나 협력이 잘 되지 않아 연계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고위기 청소년의 연계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로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개인정보보호 및 관리에 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안하였다.

지역에 고용노동센터가 없는 것도 아니고, 각 분야에 맞는 센터들이 요즘은 지역사회에 많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게 서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협력이 잘 안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협력은 되지만 뭔가 끝까지 유지되거나 연계되는 부분이 어려운 것 같아서 그런 거를 계속할 수 있는 보완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참여자 E).

일시나 중장기 퇴소할 때, 상담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한테 연락이 오는데, 연락이 오는 이유는 이 친구가 동의했을 때만 연락이 와요. 그러면 저희가 개입을 하거든요. 근데 개입이 안 되는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가 안 되니까. 아이가 원치 않으니까 못 하는 거여서...(중략) 단기센터에서 6개월 동안 있고 1회 연장해서 1년까지 있었지만, 이 친구는 장기적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고위기로 분리됐고 실제로 심리검사하고 위기 스크리닝을 해봤더니 당장이라도 정말 위험에 처할 대상자라고 한다면 그 법을 근거로 센터에 연결해서 상담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해요...(참여자 I).

3. 소결

1) 전문가 의견조사

가정·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어려움, 가정·학교 밖 청소년 대상의 지원 실태 및 정책 방안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이들 청소년에게 가장 주목해야 할 특성은 심리·정서적 불안이었으며, 다음으로 경제적 어려움, 범죄 등 고위기 노출 위험성, 미래 진로에 대한 희망 부재, 취약한 신체적 건강 문제, 낮은 학습 능력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들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먼저 심리·정서적 안정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고, 그다음으로 경제적인 문제해결과 안전한 보호, 그리고 미래 진로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가정·학교 밖 청소년들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살펴보면, 정서적 어려움이 가장 크고, 지지체계 문제, 경제적 어려움과 진로 문제, 비행 문제, 또래 관계 문제, 신체적 건강 문제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가정·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정서적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본 조사에서는 각각의 여섯 가지의 어려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살펴봄으로써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먼저 정서적 어려움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이들 청소년은 정서적 지지체계 취약으로 인한 우울, 불안, 무기력 등이 가장 심각하였다. 또, 심리적 고립에 따른 불안 및 우울 등의 심화, 미래 진로에 대한 불안, 걱정과 무기력 상태 등으로 나타나, 정서적 지지체계 구축과 심리적 고립으로부터의 탈피 등이 정서적 문제 해결의 가장 선결적인 과제가 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지지체계와 관련해서는 원가정으로부터의 지지체계 붕괴나 부재가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 어른에 대한 신뢰 약화 및 건강한 성인상 부재,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의 부재, 또래 집단으로부터의 고립, 공적 지지체계 부족(법적, 제도적 장치 등) 등의 순으로 조사되어, 원가정을 포함한 지지체계의 형성, 사람들에게 대한 신뢰 회복 등이 주요한 과제가 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가정·학교 밖 청소년들의 경제적인 문제는 무엇보다도 학력이나 직업능력 등 취업을 위한 기초적인 조건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컸으며, 원가정 등 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곳이 부재하고, 의·식·주 등 기본적인 생계유지의 어려움도 컸다. 따라서 경제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청소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경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진로와 관련해서는 취업

이나 진로 등의 정보나 진로 지원체계의 부족 등의 문제도 있지만, 진로에 대한 무기력, 두려움 등이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진로 문제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스스로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제공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비행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들 청소년이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는 점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생계 문제, 또래 친구 형성에 대한 욕구, 강요나 협박, 호기심 등의 다양한 이유로 비행에 빠지고, 비행이 자주 반복되고 강화되는 특징을 보이는 것에도 주목하여야 한다. (가칭)피해·가해 중복 경험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지원과 관계 형성 지원 등을 통해 사전에 비행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가정·학교 밖 청소년들의 사회관계의 문제는 또래 관계 형성의 어려움이 가장 컸으며, 그다음으로 건강하지 않은 또래 관계 형성으로 인한 비행 문제 발생(도박, 절도, 약물 문제 등), 또래 관계에 대한 자신감 부족, 온라인 중심의 제한된 친구 관계 형성, 정서적, 인지적 기능 등의 저하로 또래에 의한 피해 발생, 또래 친구의 부재, 왕따, 따돌림 등으로 인한 고립 등의 어려움 순으로 나타났다. 건전한 또래 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건전한 또래 관계 형성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또래 관계에 있어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지원이 가장 우선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들 청소년의 신체적인 건강 문제의 어려움은 불안정한 수면, 불규칙한 식생활, 중독(약물, 도박 등) 등 적절한 자기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자기 관리 프로그램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가정·학교 밖 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 방안으로 정서적 지원, 경제적 지원이 우선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외, 기타 지원으로 사회적 관계, 발굴 체계, 교육 및 프로그램 등도 중요성이 제시되었다. 먼저, 이 청소년들의 정서적 지원은 사례관리를 통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상담 개입, 대상자 발굴 시 정신건강 문제 우선시, 병리적 문제의 경우에 지속적인 임상전문의의 치료 지원, 거부감을 줄이고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개입 방안 개발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정·학교 밖 청소년들의 정서적 지원을 위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개입 방안 마련과 대상자의 발굴 시기에서부터 정신건강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고,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대상 청소년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개입 방안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지원으로는 의·식·주 지원, 기술자격증 취득·직업교육훈련 비용 지원, 자립할 수 있는 일자리 제공, 진학을 위한 학원비 제공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제적 지원은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을 가장 우선하고,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비용이나 일자리 제공 등이 제공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기타 지원으로, 가정 밖, 학교 밖 청소년 발굴 체계 강화, 사회적 관계 기회 확대, 부모 및 양육자 교육, 가족 연계 프로그램 지원, 학교 지지체계(돌봄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밖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복지정책에 대한 중요도와 효과성과의 차이를 분석한 요구도 분석 결과에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청소년쉼터 이용 청소년 주거정착금 지원,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지원 등이 중요도가 높고 불일치 정도가 높은 정책으로, 그리고 급식 지원, 청소년교통비 지원, 진로체험카드 지원 등은 중요도와 불일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정책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가정 밖,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의 복지정책에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청소년쉼터 이용 청소년 주거정착금 지원,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가정·학교 밖 청소년 대상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분석 결과는 취업 후 사후관리, 일반 심리상담 지원, 주거지 및 주거비 지원, 자립에 대한 응원이나 도움 또는 멘토링, 대인관계 훈련, 경제교육과 관련 정보 제공 등이 중요도가 높고, 중요도와 지원 정도 간의 불일치 정도가 큰 복지서비스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역사회자원 이용 교육, 취업정보 제공, 건강 지원 등은 중요도가 낮고 불일치 정도도 낮은 복지서비스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향후 이들 청소년 대상 복지서비스는 취업 후 사후관리, 일반 심리상담 지원, 주거지 및 주거비 지원, 자립에 대한 응원이나 도움 또는 멘토링, 대인관계 훈련, 경제교육과 관련 정보 제공 등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청소년쉼터에서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의 지원은 공통적으로 심리사회적 지원이 1순위였으며, 차순위로 학생 청소년의 경우에는 경제적 지원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았으나,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자립 지원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아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보면, 학생 대상의 지원은 안전과 심리·사회적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의 지원은 자립지원과 심리·사회적 지원에 가장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학생 청소년 대상의 지원 한계로 학교생활에 흥미 없는 경우의 학교 적응 지원(M=4.33), 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깊이 있는 지원(M=4.33), 개인 발달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M=4.27) 등에서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의 지원에서는 다양한 직업군 탐색 및 체험의 한계(M=4.67), 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깊이 있는 지원(M=4.60), 개인 맞춤형 지원(M=4.60), 무기력, 대인관계 등으로 인한 지원 거부(M=4.60) 등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공통적으로 개인 발달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과 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교생활에 흥미 없는 청소년들의 학교 적응에 대해서,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다양한 직업군 탐색과 체험, 서비스 지원 거부를 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 마련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V-25. 전문가 의견조사 주요 결과와 시사점

조사 영역	주요 결과	시사점
가정·학교 밖 청소년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정서적 불안 •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 • 범죄 등 고위기 노출 위험성 • 미래 진로에 대한 희망 부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 등의 지원에 초점 • 경제적인 문제 해결, 안전한 보호, 진로에 대한 희망 찾기 등 프로그램 지원
가정·학교 밖 청소년의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서적 어려움: 지지체계 취약으로 우울, 불안, 무기력 등 심각, 심리적 고립에 따른 불안과 우울 등 심화, 미래 진로에 대한 불안, 걱정, 무기력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서적 지지체계의 구축 • 심리적 고립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환경 조성과 프로그램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지체계의 문제: 원가정으로부터의 지지체계 붕괴나 부재, 어른에 대한 신뢰 약화 및 건강한 성인상 부재,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부재, 또래 집단으로부터의 고립, 공적 지지체계의 부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가정과 같은 지지체계의 구축과 지원 • 사람들에게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인 문제: 학력이나 직업능력 등 취업 조건 결여, 원가정 등에서 경제적 지원 부재, 의식주 등 기본적인 생계유지의 어려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훈련 지원 • 기본 생계 등 경제적 지원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 문제: 진로에 대한 무기력과 두려움, 취업/진로 등의 정보나 진로 지원체계의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 문제에 대한 자신감 회복 프로그램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행 문제: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가 되는 문제, 생계 문제, 또래 형성에 대한 욕구, 강요나 협박, 호기심 등의 이유로 인한 비행, 비행의 잦은 반복 및 강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칭) 피해·가해 중복 경험 예방 프로그램 개발·지원 • 경제적 지원과 관계 형성 지원을 통한 비행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관계(또래 관계)의 문제: 관계 형성의 어려움, 건강하지 않은 또래 관계 형성으로 인한 비행 문제 발생, 또래 관계에 대한 자신감 부족, 온라인 중심의 제한된 친구 관계 형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전한 또래 관계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 또래 관계에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 	

조사 영역	주요 결과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체적 건강 문제: 불안정한 수면, 불규칙한 식생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기 관리 프로그램 개발·지원
가정·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서적 지원: 사례관리를 통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상담 개입, 대상자 발굴 시 정신건강 문제 우선 시, 병리적 문제의 경우에 지속적인 임상전문가의 치료 지원, 거부감을 줄이고 참여도를 높일 수 개입 방안 개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상담 개입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대상자 발굴 시기에서부터 정신건강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매뉴얼화 대상 청소년의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는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적 지원: 의·식·주 지원, 기술자격증 취득·직업교육 훈련 비용 지원, 자립할 수 있는 일자리 제공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식·주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우선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비용이나 일자리 제공 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타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발굴 체계 강화, 사회적 관계 기회 확대, 부모 및 양육자 교육, 가족 연계 프로그램 지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밖 청소년 발굴 체계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취약해진 사회적 관계의 확대, 가정, 학교 등의 지지체계의 구축·지원
가정·학교 밖 청소년의 정책 요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 요구도 분석 결과에서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청소년쉼터 이용 청소년 주거 정착금 지원,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지원 등이 중요도가 높고 효과성과의 불일치 정도가 높은 정책으로 분석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청소년쉼터 이용 청소년 주거정착금 지원,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지원 강화
가정·학교 밖 청소년의 복지서비스 요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지서비스 요구도 분석 결과는 취업 후 사후 관리, 일반 심리상담 지원, 주거지 및 주거비 지원, 경제교육 및 관련 정보 제공 등이 중요도가 높고, 중요도와 지원정도 간의 불일치 정도가 큰 복지서비스로 분석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 후 사후관리, 일반 심리상담 지원, 주거지 및 주거비 지원, 경제교육 및 관련 정보 제공 등의 복지서비스 지원 확대
청소년 쉼터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 초점을 둔 지원 및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쉼터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지원은 심리 사회적 지원이 공통적으로 1순위였음. 차순위는 학생 청소년은 경제적 지원, 학교 밖 청소년은 자립 지원이었음. 학생 대상의 지원은 학교생활에 흥미가 없는 경우의 학교 적응 지원, 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깊이 있는 지원, 개인 발달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등에서 어려움이 있었음.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지원은 다양한 직업군 탐색 및 체험의 한계, 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깊이 있는 지원, 개인 발달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지원 거부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통적으로 개인 발달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과 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확대 학교생활에 흥미가 없는 학생 청소년 대상의 학교 적응프로그램 개발 필요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경우 다양한 직업군 탐색과 체험, 서비스 지원 거부를 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 마련 필요

2) 현장실무자 초점집단인터뷰(FGI)

가정·학교 밖 청소년의 생활 실태와 지원 현황, 정책 요구 등에 대해서 일시, 단기, 중장기 청소년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실무자 11명을 대상으로 초점집단인터뷰(FGI)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가정·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으로 사회성 취약, 사회적응의 어려움, 분노 조절, 공격성 등 정서적인 어려움, 가정에서의 학대, 부모 방임 및 가정폭력 피해 경험, 무기력, 소속감과 끈기 부족 등이 조사되었다. 기타 특성으로, 불법적인 충동 행동, 본받고 싶은 성인 역할모델 부재, 최근 사각지대의 다문화 청소년 중 가정·학교 밖 청소년의 증가 등이 보고되었다. FGI에서 나타난 가정·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들은 사회·정서·행동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고, 삶에 대한 목표나 의지도 결여되어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중 취약에 따른 사회·정서·행동적 위기 등의 극복을 위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가정·학교 밖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로 FGI 참여자들은 안전에 대한 욕구, 좋은 옷과 맛있는 음식에 대한 욕구, 돈에 대한 욕구, 학업 및 자립에 대한 욕구 등을 보고하였다. 이들은 가정과 학교로부터 유리되어 살아감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스스로 자립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지만, 당장은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 처해 있으며 의·식·주 등 기본적인 생활의 시급성으로 일차적이고 즉각적인 욕구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안전과 의·식·주 등의 위기에 놓인 청소년에 대한 긴급 지원과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자립 지원을 병행해야 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시설에서 가정·학교 밖 청소년에게 지원되는 서비스는 학업 관련 지원 서비스, 진로 및 자립 지원 서비스, 심리상담 서비스 등이 있었는데, 예산 부족과 지속적 지원의 어려움, 프로그램에 대한 청소년들의 무관심과 꾸준함의 부족, 실무자의 업무 과중과 전문적인 지원의 한계, 청소년 특성에 맞는 서비스 및 실효성 부족, 아르바이트 등 일자리 지원의 어려움, 지지체계의 부족 등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책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가정·학교 밖 이중 취약 청소년의 실태 파악과 동기부여 서비스 확대, 시설 자체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 확대, 청소년쉼터 입소 청소년에 대한 복지 혜택 확대, 주거비 무상 제공 등 퇴소 후 사후관리 지원 확대, 지역별 청소년쉼터 확대 및 공공 청소년쉼터로의 전환, 시설 공간 기준 마련 및 매뉴얼화된 서비스의 제공, 시설 실무자 수 및 전문성 확대, 지역사회 네트워킹 강화 및 고위기 청소년 연계를 위한 제도 개정 등이 제안되었다.

표 V-26. 현장실무자 FGI 주요 결과

조사 영역	주요 결과	시사점
가정·학교 밖 청소년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성 취약 및 사회적응의 어려움 • 분노 조절, 공격성 등 정서적 어려움 • 가정 학대, 부모 방임 및 가정폭력 피해 • 무기력, 소속감과 끈기 부족 • 기타: 불법적 중동 행동, 성인 역할모델 부재, 사각지대 다문화 청소년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정서·행동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고, 삶에 대한 목표나 의지가 결여된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이중 취약에 따른 사회·정서·행동적 위기 등의 극복을 위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
가정·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에 대한 욕구 • 좋은 옷, 맛있는 음식에 대한 욕구 • 돈에 대한 욕구 • 학업 및 자립에 대한 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과 의·식·주 등의 위기에 놓인 청소년을 긴급 지원함과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자립 지원 병행 시사
가정·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업 관련 지원 서비스 • 진로 및 자립 지원 서비스 • 심리상담 서비스 	
가정·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족한 예산과 지속적 지원의 어려움 • 프로그램에 대한 청소년들의 무관심과 꾸준함 부족 • 실무자의 업무 과중과 전문적인 지원의 한계 • 청소년 특성에 맞는 서비스 및 실효성 부족 • 아르바이트 등 일자리 지원의 어려움 • 지지체계의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 파악 • 가정 밖 학생, 학교 밖 청소년의 상황과 요구를 고려한 지원 마련 • 지원 인력, 시설, 프로그램 등의 확대와 전문성 강화
가정·학교 밖 청소년 정책 지원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학교 밖 이중 취약 청소년의 실태 파악 및 동기부여 서비스 확대 • 시설 자체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확대 • 청소년쉼터 입소 청소년에 대한 복지혜택 확대 • 주거비 무상 제공 등 퇴소 후 사후관리 지원 확대 • 지역별 청소년쉼터 확대 및 공공 청소년쉼터로의 전환 • 시설 공간 기준 마련 및 매뉴얼화된 서비스 제공 • 시설 실무자 수 및 전문성 확대 • 지역사회 네트워킹 강화 및 고위기 청소년 연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지체계, 자원 연계 등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과 사후관리를 포함한 욕구 맞춤형 지원 확대 등 •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및 고위기 청소년 연계를 위한 제도 개선

○ — 제6장 정책제언

- 1. 연구결과 요약
- 2. 정책제언

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가정과 학교로부터 동시에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학교 밖 이주 취약 청소년의 생활 실태와 경험 등을 조망하고, 이들이 이러한 이주 취약성을 극복하고 우리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그림 VI-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헌 연구, 청소년 대상의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전문가 의견조사와 지원현장의 실무자 FGI, 전문가 자문 및 간담회, 관계기관 협의회 등을 실시하였다.



그림 VI-1. 연구내용 및 방법, 절차

제1장의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 선행연구 고찰 및 행정자료 검토에서는 가정·학교 밖 청소년의 이주 취약성에 대한 논의와 가정·학교 밖 청소년과 학교·학교 밖 청소년 관련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였고, 이들과 관련한 지원 현황과 정책들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청소년심

45) 이 장은 김희진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다.

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의 가정 밖 학생·학교 밖 청소년 463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학교 재학 여부에 따른 경험에서의 차이를 조명하였다. 심화분석 차원에서 가정·학교 밖 청소년이 직면하는 다양한 어려움과 지원 요구를 예측하기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가정·학교 밖 이중 취약 청소년 15명을 대상으로 개별심층면접을 실시하여 가정과 학교로부터의 이탈 과정과 경험에 대해 탐색하였다. 제5장에서는 가정 밖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분야의 학계 및 현장전문가 15명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친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가정·학교 밖 청소년관련 이슈와 필요 지원 내용 등에 대해 확인하였다. 또한, 청소년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현장 실무자 11명에 대해 두 차례에 걸친 FGI를 실시하여 현장에서 관찰되는 가정·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어려움,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러한 연구 과정 전반을 통해 도출된 연구결과와 정책적 함의는 <표 VI-1>과 같다.

표 VI-1. 주요 조사 결과 및 정책적 함의

연구내용	주요 결과	정책적 함의
선행연구 고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학교 밖 이중 취약 청소년의 성장·발달에 가장 핵심적인 보호·지원 체계인 가정과 학교 모두에서 벗어나 있고, 특히, 성인기 이행을 앞둔 시점에서 심리·정서, 진로·진학, 취업 등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할 것으로 예측 - 가정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여러 선행 연구에서 심리·정서적인 문제의 심각성이 보고됨. - 이들 청소년은 가정과 학교에서 모두 벗어나 있어, 자신의 진로 적성을 고려한 장기적인 진로 준비가 어려움. 당장의 경제적 필요 충족을 위한 진입장벽이 낮은 일자리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임. - 가정 밖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받고 있음. 그러나 이중, 다중 취약 청소년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에 대한 부분은 강조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학교 밖 이중 취약 청소년들이 정책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관심과 적극적인 발굴, 지원 필요 • 가정 밖 상황에서 의식주 지원뿐 아니라 심리·정서적 회복을 위한 개입 필요 • 청소년의 적성을 고려한 장기적인 맞춤형 진로 설계 중요성 제고 • 이중, 다중 취약 청소년 대상의 집중적인 지원 정책 확대, 전문 인력 등 제반 여건 마련 필요 • 집중적인 지원에 앞서 심층적인 실태 파악이 더욱 요구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쉼터(일시·이동, 단기, 중장기)와 청소년자립지원관을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청소년 463명 중 재학 중인 청소년은 79.3%, 학교 밖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쉼터 내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개별 맞춤형 지원 필요 • 가정 밖이면서 학교 밖 상황의 청

가정 밖 학생, 학교 밖 청소년 설문조사

<p>청소년은 20.7%였음(학교를 그만둔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23.5%). 학교를 그만두고 싶어하는 비율은 43%로 학교 적응과 지원 필요성 시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를 그만둔 주요 이유는 심리정서적 문제, 공부하기 싫어서, 부모님과과의 갈등/가정 불화였음. - 부모님과과의 갈등, 학교친구와의 관계 단절, 소속감 부재/흔치라는 불안감, 무기력, 적성에 맞는 진로 탐색/대학진학 정보 찾기 등에서의 어려움 경험률이 높음. - 가정·학교 밖 청소년 중 절반 가까이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용 경험이 없었고, 주요 이유는 잘 몰라서, 방문하기 귀찮아서였음. 미이용자 중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참여 의사는 75.3%였는데, 정보를 얻기 위한 이유가 컸음. 	<p>소년 발굴·지원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 밖 학생 청소년의 학교 적응을 위한 학교-쉼터 간 연계 강화 • 가정·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문제에 대한 개입과 학교를 그만두기 전 학업에의 개입 필요 • 원가정 지원 필요성과 또래관계, 소속감 형성, 적성에 맞는 진로탐색과 대학진학 적극 지원 시사 • 사회적 및 대인관계 기술 발달 지원 필요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홍보/적극 안내, 정보 제공 노력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반 이상이 진로 관련하여 특별히 하는 일이 없었고, 희망 교육수준이 학생은 4년제 대학을, 학교 밖 청소년은 고등학교를 더 많이 응답함. - 학교 밖 청소년이 학생 청소년에 비해 일(아르바이트) 경험이 많았으나, 진로성숙도는 낮았고 다양한 진로교육/활동 경험도 적었음. - 희망 직업교육/훈련으로 제과제빵, 사회복지사(청소년지도사, 상담사), 메이크업 아티스트 등에 대한 응답이 많았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 여건과 적성, 희망을 고려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진로 설계 및 지원 강화 •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학교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진로 관련 경험에서 배제됨에 따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기회 제공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학교 밖 청소년은 우울, 자살 생각 등 정신 건강에 더 취약했으며, 사회적 고립감도 높았음 - 우울증, 불안장애 등 정신과 질환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였음. 회복탄력성 수준도 낮았고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과 선입견 등을 더 어려워함. - 학교 밖 경험이 있을수록 더 높은 흡연 및 음주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합적인 심리적 고위기 가정·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강화 • 정신건강 관련 치료적 개입과 사회적 지지체계 강화 • 가정 밖,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인식 개선 노력 필요 • 신체적 건강(흡연/음주)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하는 아르바이트는 주방 일, 서빙이나 카운터, 카페 서빙 등으로 양질의 일로 보기 어려움. - 가정 밖 학생 청소년의 수입은 대부분 가족의 용돈이었으나, 학교 밖 청소년은 근로소득 비중이 높음. 빚(채무)도 학교 밖 청소년에게서 더 많았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입장벽이 낮은 일(아르바이트)이 진로준비 및 자립준비 지원에 저해되지 않도록 관심/지원 필요 • 청소년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경제적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의 이혼/별거 경험이 많았고, 가족 구성원의 정신질환이나 음주 등의 어려움을 경험하였음. - 학교 밖(학교 밖 경험 포함) 청소년은 학교 교사를 의지하는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았고 자신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청소년들의 심리적 회복 지원 • 가정과 학교의 지지체계 부재에 따라 가정·학교 밖 청소년들이



가정·학교 밖 청소년 심층 면접조사

이해해 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대상의 부재 등 심리사회적 지지체계가 더욱 부족하였음.

- 가정 밖 생활 시작 연령이 14.5세로 만 15세 미만 청소년의 비중이 컸음.
- 가정 밖 사유는 부모와의 갈등, 부모 간 갈등 등 가정 내 문제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자유로운 생활 희망과 우울, 불안, 스트레스 순이었음.
- 생활비 부족, 가족과의 불화, 우울/불안감, 막막한 진로, 무기력 등의 어려움 경험 응답이 많았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 체계 강화

- 가정 밖 청소년의 자연영화 등 최근 경향성을 고려한 대응 필요
- 가족과 관련된 개입 필요성과 다양한 심리정서적 문제에 대한 집중 지원 필요
- 진로 설계 지원과 경제적 지원(생활비, 용돈 등) 확대

- 가정·학교 밖 상황의 15명의 청소년에 대한 심층 면접조사 결과, 이들은 부모(계부모)의 강압적 양육, 학대, 폭력, 부모 간 갈등 심화, 부정적 양육/폭력 노출 등으로 집을 나온 것으로 파악되었음.
- 불안한 심리상태로 상담 지원을 받기도 하지만,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사례도 있음.
- 학교를 그만둔 후 가정 내 갈등 심화로 집을 나가거나 가정에서 갈등이 심해져 집을 나온 뒤 학교를 그만두기도 함.
- 등교/학업성취 부담, 진학 문제, 학교 부적응, 학교를 그만둔 후 어려움 등 학교 관련 문제에서 가정의 완충 역할/해소 기능이 없어 학교생활 유지가 어려움. 반항의 표출로 학교를 그만두고 가정 밖 선택을 하기도 함.
- 가정 밖 생활 중에도 쉼터-학교 원거리 문제, 학교생활 부적응, 학업 부진, 학교 재학 시 소재 노출 등의 이유로 학교를 그만둠.
- 학교생활과 또래 관계의 중요성 인식, 상급 학교 졸업장과 학력 취득에 의미 부여
- 구체적인 진로 설계에 관한 어려움 토로, 진로에 대한 불확실, 향후 안정적인 거주지 부재 우려 등으로 불안감, 우울감 등 부정적 정서 경험
- 관심 진로/진로계획의 불확실 상태에서 학원 지원을 받음. 다양한 진로 가능성과 선택지에 대한 안내와 교육 희망, 자립생활 정보 필요
- 청소년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존재와 기능에 대한 인식 부재 사례도 관찰됨.

- 가정 내 불화와 학대, 폭력 피해로 가정 밖 상황인 청소년들이 많아지면서 청소년과 가정에 대한 장기적 개입 필요(원가족 복귀 후 반복적인 문제에 따른 재가출 방지)
- 가정 밖 상황 자체로 인한 심리정서적 문제에 대한 적극 개입 필요
- 학업과 학교생활의 어려움 등 학교 관련 문제로 학교를 그만둔 이후 가정 내 갈등으로 집을 나오는 상황에 대한 통합적인 관점의 이해와 개입 필요.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학교 관련 문제와 가정 문제 동시 개입 필요
- 가정 밖 상황에서의 원거리 통학 문제, 학교생활 부적응, 학업 부진 등에 대한 지원 강화
- 사회적 관계 구축 기회 및 청소년이 희망할 경우 적극적인 복고, 진학 지원
- 안정적인 거주지 제공, 부정적 정서 극복과 함께 개별적인 맞춤형 진로설계 및 진로준비 지원
- 다양한 진로 가능성 탐색 지원과 진로 및 자립관련 정보 제공
- 청소년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주요 지원체계에 적극 홍보 및 안내 필요

전문가
의견조사
&
현장
종사자
FGI

- 관련 분야의 15명의 학계 및 현장전문가 조사 결과, 가정·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주목해야 할 특성은 심리정서적 불안, 경제적 어려움, 범죄 등 고위기 노출 위험, 미래 진로에 대한 희망 부재 순이었음.
- 정서적 지지체계 취약에 따른 우울, 불안, 무기력 문제, 원가정 지지체계 붕괴·부재, 학력·직업능력 등 취업 조건 부족, 진로 관련 무기력/두려움, 자기관리능력 미흡 등이 큰 어려움으로 조사됨.
- 사례관리를 통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상담 개입, 의식주 지원과 자립을 위한 직업교육훈련과 일자리 제공, 진학을 위한 학원비 제공 필요
- 가정·학교 밖 청소년 발굴 체계 강화, 사회적 관계 기회 확대, 부모/양육자 교육, 가족연계 프로그램 지원, 학교 지지체계 구축 등 필요성 제기
- The Locus for Focus 모형 분석결과, 복지정책에서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주거정책금 지원 등이 중요도-효과성 불일치 정도가 가장 높았고, 복지서비스에서는 취업 후 사후관리, 심리상담 지원, 주거지 마련(주거비 지원) 등이 중요도-지원 정도 불일치 정도가 가장 높았음.
- 취업 후 사후관리, 심리상담 지원, 주거지 마련(주거비 지원), 경제교육 중요성이 높게 나타남.
- 청소년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현장실무자 11명을 대상으로 한 FGI 결과, 취약한 사회성과 사회적응의 어려움, 분노 조절, 공격성 등 정서적인 어려움, 인지·정서·행동적인 문제, 가정에서의 학대, 방임 및 가정폭력 피해 경험, 무기력, 소속감과 끈기 부족, 성인 역할모델의 부재, 사각지대 다문화청소년의 증가 등의 특성이 지적됨.
- 지원 예산 부족, 지속 지원의 어려움, 청소년들의 무관심/무준함 부족, 전문적인 지원 한계, 청소년 특성에 맞는 서비스 및 실효성 부족, 일자리 지원 어려움, 지지체계 부족 등이 조사됨.
- 가정·학교 밖 청소년 실태 파악, 동기부여 서비스, 복지 혜택 확대, 시설 인력의 전문성 확대, 지역사회 연계 강화 등이 제안됨.

- 가정·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심리적 개입과 경제적 지원, 안전한 보호, 진로 지원 확대 및 강화
- 우울, 불안, 무기력 해소에 기반한 지원 필요성 시사
- 심리상담과 진로 지원, 진학 및 취업, 그 이후까지 지속적인 사례관리 필요
- 가정·학교 밖 청소년 발굴·지원
- 사회적 지지체계 강화
- 가족에 대한 개입 및 연계 프로그램 필요
- 청소년 유관기관 간 연계 강화 및 효과성 제고를 통한 청소년인건망 역할 제고
- 향후 진로와 불안정한 생활 우려(거주지 포함) 해소를 위해 해당 정책 안내를 포함한 진로설계와 개인 로드맵/포트폴리오 마련
- 심리적 안정뿐 아니라 사회성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필요
- 가정폭력과 학대 경험에서의 회복 기능 강화 필요
- 무기력과 끈기 부족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 시급
-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지지체계로서의 건강한 성인 역할 모델 필요
- 사각지대의 이중, 다중 복합 고위기 청소년 발굴, 지원을 위한 실태 파악과 제도적 개선 필요
- 지원 인력 역량 및 전문성 강화
- 지역사회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 마련(행정절차 간소화 등)

2. 정책제언

본 연구는 그동안 큰 관심을 받지 못했던, 가정과 학교로부터 동시에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의 실태와 경험을 조명하는 데 주요 연구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정책제언은 이들이 필요한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성인기 이행 및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견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과제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재 가정 밖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각각 많은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어 일부 관련 개선 방안과 효과성 제고 등도 다루었으나, 일차적으로 가정·학교 밖 청소년에 집중하였다. 이에 연구 결과를 토대로, 그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가정·학교 밖 이중 취약 청소년의 발굴 및 지원체계 개선, 심리·사회적 지지체계 강화, 가정 밖 학생·학교 밖 청소년 개별 맞춤형 진로 지원, 다중 취약 고위기 가정 밖 청소년 지원 등 변화하는 환경 대응의 영역 순으로 구분하여 다음의 정책과제들을 제안하였다.

가정·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사회인으로서의 성장 견인

지원 목표

정책 영역	추진과제
I. 가정·학교 밖 이중 취약 청소년 발굴 및 지원체계 개선	I-1. 가정·학교 밖 청소년 발굴을 위한 관련 지침 강화 I-2. 가정·학교 밖 청소년 실태 파악을 위한 다양한 조사·연구 추진 I-3. 가정·학교 밖 청소년 중심 지원체계 강화 I-4. 가정·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 범위 확대, 연계 절차 간소화
II. 가정·학교 밖 이중 취약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지지체계 강화	II-1. 심리적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한 거점 기관 지정 및 설립 II-2. 사회적 지지체계 구축: 성인 역할모델, 멘토링 프로그램 확대 II-3. 무기력 청소년에 대한 동기부여 강화 프로그램(가상 사회생활 등) II-4. 건강한 사회관계 형성을 위한 기회 제공(문화·체육활동)
III. 가정 밖 학생·학교 밖 청소년 개별 맞춤형 진로 지원	III-1. (공통) 단계별 진로설계 및 진로준비 지원 III-2. 가정 밖 학생 청소년 대상 지원 개선 : 학교와의 연계 등 III-3. 가정·학교 밖 이중 취약 청소년을 위한 지원 : 꿈드림센터 지원 강화
IV. 다중 취약 고위기 가정 밖 청소년 지원 등 변화하는 환경 대응	IV-1. 다중 취약 고위기 가정 밖 청소년 발굴·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 IV-2. 자립을 위한 경제적 지원(자립정착금)·주거 지원 확대 IV-3. 가정 밖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그림 VI-2. 정책영역 및 추진과제

추진 과제

1-1. 가정·학교 밖 청소년 발굴을 위한 관련 지침 강화	(단기과제)
1-2. 가정·학교 밖 청소년 실태 파악을 위한 다양한 조사·연구 추진	(중기과제)
1-3. 가정·학교 밖 청소년 중심 지원체계 강화	(단기과제)
1-4. 가정·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 범위 확대, 연계 절차 간소화	(중기과제)

○ 필요성/배경

우리 사회의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조건인 가정과 학교의 두 보호·지원체계에서 벗어나 있는 청소년은 다양한 차원에서 어려움을 경험한다. 가정 밖이라는 상황만으로도 이들이 직면하는 어려움은 또래 청소년에 비해 바 없이 크지만, 여기에 학교 밖 상황까지 더해진다면 청소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며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의 일환으로 추진된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같은 가정 밖 상황이지만 학교 밖 청소년은 학생 청소년에 비해 의식주와 경제적인 어려움을 더 느끼고 있었고, 심리정서, 정신건강 차원에서, 진로준비 측면에서, 또 심리사회적 지지체계 등에서 더 부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진로에 대한 준비에도 한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문가 의견조사에서도 가정·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심리적, 경제적 문제뿐 아니라 범죄 등 고위기 노출 우려, 미래 진로에 대한 희망 부재 등이 주요 특성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이러한 상황의 가정·학교 밖 이종 취약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더욱 촘촘히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가정 밖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각각의 지원체계 간의 긴밀한 연계를 통한 지원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 추진 과제 ① : 1-1. 가정·학교 밖 청소년 발굴을 위한 관련 지침 강화

현재 가정 밖 청소년 중 학교 밖 청소년인 경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에 따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연계하도록 되어 있다. 실제로 지원 현장의 많은 실무자들은 기관담당자 조사에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연계를 통해 검정고시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 학교 밖 청소년 중 절반은 학교밖청소년지

원센터를 이용한 경험이 없었으며, 그중 36.7%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잘 몰라서 이용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법률의 의무 연계 조항과 현실의 이러한 차이에는 여러 배경이 있을 수 있으나, 일차적으로 청소년사업안내 지침을 통해 법률의 의무 조항이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 예시로, 아래와 같이 청소년쉼터에서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연계와 관련하여 정보연계 활성화 협조 요청 공문 이전에 연계 의무화 법률을 먼저 지침에 제시하고 이에 근거하여 청소년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발견할 경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의 연계가 신속히 의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청소년쉼터 현장에서의 연계에 대한 인식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기관의 주요 지원 내용 등의 정보가 함께 포함될 필요가 있다.

현행+추가 내용

- 학교 밖 청소년 발견 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연계
 - 시설이용자(또는 시설 입소자)와 초기 상담과정 등에서 해당 청소년이 학교 밖 청소년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정보 연계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 ②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 포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단체장”이라 한다)은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로 연계하여야 한다.
 - ** 「청소년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정보연계 활성화 협조요청」 문서 참조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2328('20.7.22)호)
-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연계절차

 - ① (해당 청소년에게)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안내
 - ②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이용 기간 및 파기 방법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음
 - ③ 주소지 또는 시설소재지 시·군·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학교 밖 청소년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를 통보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주요 지원 내역: 학습 멘토링,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 학생 학습지원, 검정고시 지원, 대학입시 지원,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자립·취업 지원 서비스」 운영 등
-

* 출처: 여성가족부(2024a). 2024년 청소년사업 안내 |의 p.289에서 해당 내용 인용 후 일부 추가(볼드 처리한 부분)

☞ 관련 부처/기관 : 여성가족부

○ 추진 과제 ②: 1-2. 가정·학교 밖 청소년 실태 파악을 위한 다양한 조사·연구 추진

가정·학교 밖 청소년 발굴을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심층적인 실태 파악이 먼저 요구된다.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는 다양한 기관과 시설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년쉼터의 청소년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이 실태조사의 경우 학교 밖 청소년의 전체 모집단 추정 규모를 고려할 때 가정 밖 청소년의 비중이 크지 않아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수만 조사에 참여함에 따라 이들만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분석을 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 가정 밖 학생·학교 밖 청소년 설문조사를 시도하였으나,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에 한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한편으로 여기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같이 조사할 경우 조사 대상이 중복될 수 있다. 따라서 면밀한 조사설계를 통해 충분한 규모의 표본 수를 확보한 가정·학교 밖 이중 취약 청소년 대상의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

또 다른 유사한 조사인 「위기청소년 지원 기관 이용자 실태조사」의 경우 2022년 조사 결과에서 가정·학교 밖 청소년은 약 110명 수준으로(2022년 조사 결과가 탑재된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에 공개된 541명 데이터 중 학교 비재학 청소년)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인 96명(학교 밖 경험은 109명)과 유사한 수준이다. 청소년쉼터 실무자 간담회에서 현장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고 하였으나, 실제 조사를 위한 확인 과정에서는 쉼터에서 지내는 가정·학교 밖 청소년은 많지 않았다. 이는 제한된 환경에서 가정·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양적, 질적 연구방법을 통한 본격적인 실태 파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가정·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불가능하다면, 기존의 실태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가정·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심화 분석을 위해 표본 수가 추가될 필요가 있으며, 지속적으로 소규모의 질적연구를 통해서라도 이들의 이중 취약성을 세밀하게 살피고, 그 결과를 더욱 조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심화분석과 질적연구 모두 시도했으나 부득이 설문조사의 표본 수와 질적연구 참여자의 사례 수 등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었다. 더욱 다양한 상황의 이중 취약 청소년에 대한 실태 파악을 통해 복합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 관련 부처/기관 : 여성가족부

○ 추진 과제 ③ : 1-3. 가정·학교 밖 청소년 중심 지원체계 강화

본 연구에서 가장 관심을 기울인 내용 중 하나는 집을 나오면서 학교를 그만두게 된 과정, 그리고 학교를 그만두면서 결국 집까지 나오게 된 일련의 내용들을 살펴보는 것이었다. 심층면접 조사 결과에서 이에 대한 내용들이 비교적 상세히 도출되었는데, 먼저 집을 나온 청소년 중에는 원거리 통학 문제, 학교 부적응, 학교 재학 중 부모(보호자) 소재 파악 등을 우려해서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 사례들이 있었다. 다음으로 학교를 그만두는 문제로 가정 내 갈등이 심해져서 집을 먼저 나온 뒤 결국 학교를 그만둔 사례도 있었다. 특히 이렇게 등교, 학업성취에 대한 부담, 진학 결정, 학교 부적응에 대한 호소 등 학교와 관련된 어려움을 가정 내에서 완충해 주거나 해소해 주지 못할 경우 결국 가족 간 불화와 갈등, 특히 부모의 비난과 강압적 태도 등으로 집을 나오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학교생활의 어려움은 가정 내 불화와 갈등, 그리고 집을 나오는 결과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 학교 문제로 인한 가정 밖 청소년, 가정·학교 밖 청소년 발생 과정은 관심이 더욱 필요한 지점이다.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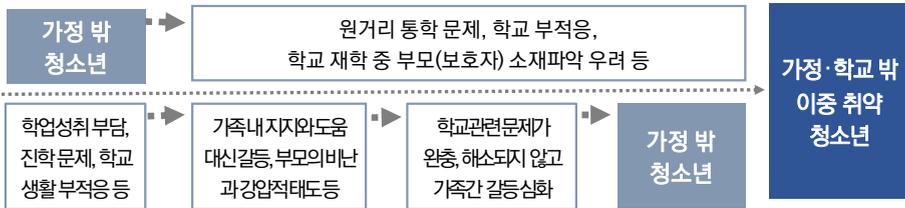


그림 VI-3. 학교생활의 어려움, 가족 갈등, 가정 밖 결정까지의 과정

이러한 과정에서 개입이 필요한 지원체계에 대해 간략히 명시하면 [그림 VI-4]와 같다. 전체적으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에서 필요한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운영주체는 지자체이며 운영지원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나, 다소 분절적으로 보인다. 특히 가정·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가정 밖에서 생활한다는 점에서 청소년쉼터 및 보호체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만, 학교 밖인 상황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를 중심으로 관련된 모든 체계를 통합하는 관점에서의 사례관리가 필요하다.⁴⁶⁾

46) 이러한 과정 전반에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지만 한편으로 전문가 의견조사에서 높은

즉, 가정 밖 청소년 중에서도 학생 청소년을 위해서는 청소년쉼터-학교 간 긴밀한 협조 및 연계가 필요하며, 청소년쉼터를 중심 체계로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가정·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내에 있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중심으로 사례관리를 통해 이들 청소년의 가정과 학교 밖의 경험과 어려움, 향후 진로 모색 및 진로 지원에서 있어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일차적인 의식주 제공과 보호 역할은 청소년쉼터에서 담당하되, 이외 검정고시 지원을 포함한 학업과 진학, 진로탐색과 준비 등의 과정에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진로지원과 관련된 사례관리를 실시하는 등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담당하며 가정·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본 설문조사에서 진로성숙도를 포함한 진로체험과 관련 준비 등에 있어 가정·학교 밖 청소년이 가정 밖 학생 청소년에 비해 모두 부정적인 결과를 보임에 따라 가정·학교 밖 청소년에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진로 및 취업 관련 활동 중 자격증 취득에서만 가정·학교 밖 청소년의 경험률이 더 높았는데, 이는 당장에 지원되는 학원 수강 등을 통해 취득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자격증 취득이 향후 진로 및 자립에 기여할 수도 있지만, 이에 앞서 더 체계적인 진로 설계 및 탐색과 준비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자립이 목표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로를 설계하고 이를 준비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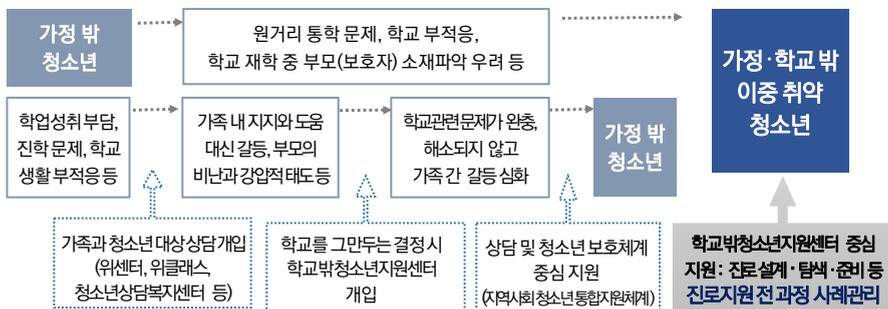


그림 VI-4. 가정·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예시

☞ **관련 부처/기관** : 여성가족부, 교육부, 시도교육청

중요도에 비해 낮은 효과성을 보인 것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통합지원체계 안에서 청소년 상황에 따른 주요 지원체계에서 주도적으로 사례를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추진 과제 ④ : 1-4. 가정·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 범위 확대, 지원 연계 절차 간소화

가정 밖 상황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범위가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의 정부 지원 대상은 ① 초·중학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②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③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으로 되어 있으며, 여기에 학업중단숙려대상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다(여성가족부, 2024a: 588). 그러나 이러한 공식적인 학교 자퇴나 제적 등 부모의 동의나 협조를 원활히 받기 어려운 가정 밖 청소년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의 연계 및 본격적인 지원을 받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집을 나온 상태에서 부모의 소재 파악 우려 등의 이유로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거나, 부모의 반대와 비협조로 학교로부터의 자퇴나 제적 처리가 지연될 경우 등 행정처리 문제 장기화로 계속 학교에도 다니지 못하면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지원도 받지 못하는 상태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재의 정부 지침상에서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지원 대상에 가정 밖 청소년 관련 내용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상에는 공식적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개별적인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 지침상에서의 반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 지침상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상	가정 밖 청소년 내용 추가 예시
① 초·중학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②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③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 학업중단숙려대상 청소년 포함 ※ 단,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사업에 한해 7세 이상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가능	① 초·중학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②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③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 학업중단숙려대상, 학교에 재학 중이 아닌 가정 밖 청소년 포함 ※ 단,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사업에 한해 7세 이상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가능

* 출처: 여성가족부(2024a). 2024년 청소년사업 안내 1의 p.588에서 해당 내용 발췌 후 일부 내용 추가(볼드 처리 추가 부분)

청소년의 여건과 희망 여부에 따라 청소년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학교로의 복귀를 지원하거나 학교를 그만두는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학업과 진로를 고려한다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의 원활한 연계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더욱 넓게 할 필요가 있다.

☞ 관련 부처/기관 : 여성가족부

추진 과제

II-1. 심리적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한 거점 기관 지정 및 설립	(중기과제)
II-2. 사회적 지지체계 구축: 성인 역할모델, 멘토링 프로그램 확대	(단기과제)
II-3. 무기력 청소년에 대한 동기부여 강화 프로그램(가상 사회생활 등)	(단기과제)
II-4. 건강한 사회관계 형성을 위한 기회 제공(문화·체육활동 포함)	(단기과제)

○ 필요성/배경

가정·학교 밖 청소년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 이들은 우울을 더 경험했고 자살 생각이나 시도, 사회적 고립 등 심리사회적으로 더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도 회복탄력성은 낮았고, 부모를 포함한 가족, 친구/선후배, 교사, 지원기관 담당자 등의 대부분의 도움 요청 대상에 대해서도 믿고 의지한다는 응답률이 더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심층면접조사와 전문가 의견조사 등 다른 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되었다. 물론 의식주를 포함한 경제적 지원은 이들의 생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에 더해 심리사회적 측면에서의 위기는 이들이 현재와 장래에까지 심각하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즉, 심리정서적 측면, 나아가 정신건강의 문제, 그리고 사회적 지지체계의 부족은 이들의 성인기와 생애 전반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다양한 차원에서의 개입이 요구된다.

○ 추진 과제 ①: II-1. 심리적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한 거점 기관 지정 및 설립

가정 밖 경험을 하기 전부터 대부분의 가정 밖 청소년들은 심리정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이는 본 조사에서 가정 밖 청소년의 최근 12개월 동안의 우울감 경험률이 학생 청소년(2023 청소년건강행태조사) 대비 거의 20%p 높은 45.8%였고 가정·학교 밖 청소년은 55.8%로 조사된 것에서도 확인된다. 또한, 자살 생각은 본 조사의 가정 밖 청소년의 경험률이 학생 청소년(2023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비해 두 배가 넘는 29.6%였고, 그중 가정·학교 밖 청소년은 35.8%로 조사되면서, 가정 밖 청소년, 특히 가정·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차원과 정신건강에서의 위기 수준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심화분석 결과에서도 학교를 그만둔 경험이 있는 청소년일수록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정신과 질환을 응답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과 현장실무자들은 이들의 심리적차원에서의 어려움과 정신건강 문제를 지적하면서 전문적인 치료 개입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특히, 이러한 심리적 고위기 청소년을 위한 거점 기관의 필요도 지적되었는데, 이는 청소년쉼터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같은 지원기관에서, 매우 민감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심리적 고위기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관련한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하게 개입하지 못할 경우 점차 문제가 심화될 뿐 아니라 다른 시설 이용 청소년에게도 파장이 크기 때문이다. 청소년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의 일차적인 의식주를 해결하며 안전한 보호를 제공하고, 또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학업이나 진로 지원을 제공하지만, 개별적인 심각한 심리정신적인 문제를 모두 파악하여 대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시도별, 권역별로 정신건강 고위기 가정 밖 청소년들에 대한 전문적인 개입을 통해, 이들의 심리적 복원력을 향상시키고 일상에 복귀하며 향후 진로를 준비할 수 있는 건강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일정 기간 머무르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 새로운 시설의 설립 이전에 기존의 쉼터 중 가능한 곳을 지정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전담 관리하게 하는 방식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관련 부처/기관** : 여성가족부, 지자체

○ 추진 과제 ② : II-2. 사회적 지지체계 구축_성인 역할모델, 멘토링 프로그램 확대

전술한 바와 같이, 설문조사 결과 심리적인 문제 이외에도 가정 밖의 학생·학교 밖 청소년들은 사회적 고립감과 믿고 의지할 대상 등에 있어서의 응답 내용이 상당히 부정적이었다. 사회적 고립감을 측정하는 각각의 개별 조사 항목에서 이야기할 사람의 부족, 혼자라는 느낌, 외로움, 고립감 모든 항목에서 가정 밖 청소년은 일반 학생 청소년에 비해 훨씬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와의 비교해서도 더 높은 수준을 보였다. 또한, 그 가운데서도 가정·학교 밖 청소년의 응답률은 가정 밖 학생 청소년 보다도 높았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즉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조사에서도 가정 밖 청소년은 기본적으로 부모에 대한 긍정적 응답이 50% 전후로 비교적 낮았고, 부모 외 다른 가족도 비슷한 수준이었다. 청소년쉼터 선생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응답은 전체적으로 87%가 응답하면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고 가정·학교 밖 청소년은 가정 밖 학생 청소년에 비해 모든 조사 항목에서 더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학교 밖의 상황을 고려하여도 교사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학생 청소년 응답의 절반 수준으로 매우 낮았다. 유일하게,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을 믿고 의지한다는 내용에서 가정·학교 밖 청소년은 학생 청소년보다 더 높은 긍정적 응답을 보였다. 한편, 가정·학교 밖 청소년의 절반 이상은 학교를 그만둔 이후 어디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아 혼자라는 불안감을 경험하였으며, 심층면접조사에서도 가정·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외로움과 막막함, 고립감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전문가 의견조사와 현장실무자 FGI 등에서도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체계의 부족이 지적되었으며, 건강한 성인 역할 모델의 부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집을 나오면서 의미있는 역할모델로서 부모의 역할이 축소되고, 또 학교를 그만두면서 교사에게 기대하기 어렵게 된, 즉 가정과 학교의 지지체계에서 소외된 상황에서 가정·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거의 유일한 지지체계는 보호·지원체계의 실무자들뿐이므로 이들의 사회적 지지체계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물론 동반자 프로그램이나 일부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통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이보다 더욱 확대되고 강화된 방식의 지지체계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유사한 가정 밖 경험이나 학교 밖 경험을 통해 특별한 유대감을 공유한다는 것을 전제로 건강하게 성장한 성인과의 일대일 매칭 멘토링 프로그램을 추진하거나 은퇴 교사 및 전문 직업인 등과 같이 긍정적인 역할모델을 할 수 있는 건강한 성인을 만나 지지체계를 확대하는 방안을 재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속감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는 가정 밖 청소년, 가정·학교 밖 청소년에게 지역사회 내 다양한 클럽/동아리 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속감을 갖고, 또 해당 활동을 통해 건강한 성인, 또래와의 만남의 기회 역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전문적인 멘토링 프로그램이 추진될 때, 참여하는 멘토는 단순한 자원봉사 성격이 아닌 책임감 있고 의미있는 성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관리, 사례/보상 등도 고려해야 한다. 일부 면접사례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믿고 의지할 사람이 없어 청소년쉼터에서 알게 된 선배의 의견만을 추종함으로써, 가정 밖 생활과 진로 등과 같은 중요한 사안에서 자칫 적절치 못한 결론을 내리지 않도록 강화된 사회적 지지체계를 통해 더욱 견고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

☞ **관련 부처/기관** : 여성가족부, 지자체, 교육부

○ 추진 과제 ③ : II-3. 무기력 청소년에 대한 동기부여 강화 프로그램(가상 사회생활 등)

앞서 언급한 심리정서적 문제, 정신건강 측면과 사회적 지지체계 미흡과 같은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에게 의지를 가지고 목표 성취를 위해 노력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가정·학교 밖 청소년 중 절반 이상은 학교를 그만둔 이후 할 일도 없고,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의욕도 없는 일종의 무기력함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면접조사에서도 이들은 진로와 관련해서도 두려움과 불안감을 갖고 있었다. 또 현장실무자들은 무기력과 함께 끈기 부족과 같은 문제를 지적하였다.

가정·학교 밖 청소년들의 이러한 무기력과 소속감 부재, 두려움 등을 고려할 때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느슨한 컴퍼니”의 “출근 프로젝트”와 청년 니트(NEET) 대상의 민간단체인 니트생활자의 “니트컴퍼니” 가상회사 등과 같은 모델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어떠한 일도 하기 어렵고 또,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 두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미래 사회생활을 염두에 둔 작은 출발과 성취는 이들 청소년 대상의 동기부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기한 프로그램들은 청년지원센터와 같은 곳에서 19세 이상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가정·학교 밖이라는 상황과 청소년의 눈높이를 고려한 프로그램이 필요해 보인다. 가상의 모임, 활동, 학업, 사회생활 등을 통해 가장 기초적인 작은 성취라도 달성하기 위해 참여할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림 VI-5. 느슨한 컴퍼니 홍보 및 니트컴퍼니 홈페이지

☞ 관련 부처/기관 :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지자체

○ 추진 과제 ④ : II-4. 건강한 사회관계 형성을 위한 기회 제공(문화·체육활동 포함)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정 밖 청소년, 특히 가정·학교 밖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드러난 사회적 고립감과 사회적 지지체계의 부재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회성과 대인관계 기술이 부족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회성 발달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이러한 프로그램은 청소년이 처한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주의 깊게 설계, 마련될 필요가 있다.

가정 밖 청소년의 경우 또래 청소년에 비해 다양한 문화활동과 스포츠 활동 등에 참여 기회가 부족하다. 특히 학교 밖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제공하는 여러 문화예술, 체육활동에서도 소외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가정 밖과 학교 밖이라는 환경적 지지, 체험 기회 부재는 현재 이들의 생활에서의 심리적 문제와 무기력 등을 장기화시킬 수 있고 정신적 건강뿐 아니라 신체적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청소년쉼터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러한 기회를 제공하려 애쓰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쉼터의 경우 의식주 관련 지원과 자립에 초점을 두고 있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역시 학업과 자립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어 이러한 문화체험과 체육활동에 대해서는 지역 사회 내 다양한 관계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더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나아가, 단순히 관람과 참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공연하고 경기에 참여하는 등 더욱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될 때 소속감과 사회성 발달, 성취 경험 등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육부와 관계기관을 통해 뮤지컬 체험 기회를 제공한 청소년쉼터 사례에서도⁴⁷⁾ 확인되듯이,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 효과는 차치하고라도 이들 청소년이 직접적으로 문화체험을 하며, 성취 경험을 갖도록 하는 다양한 문화/체육활동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러한 기회는 지역별 편차가 큰 만큼,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중앙과 지자체의 관심이 더욱 필요해 보인다.

☞ **관련 부처/기관** : 여성가족부, 문화체육부, 지자체

47) 전주시 보도자료(2024.11.11.). '가정 밖 청소년, 무대 위 주인공이 되다'. <https://www.jeonju.go.kr/planweb/board/view.9is?dataUId=9be517a8914526ec01931a62ee544510&contentUId=ff8080818990c349018b041a87fe3960&boardUId=ff8080818b5bc5cf018ba8ca7216641f>에서 2024년 12월 19일 인출

정책영역 III**가정 밖 학생·학교 밖 청소년 개별 맞춤형 진로 지원****추진 과제**

III-1. (공통) 단계별 진로설계 및 진로준비 지원	(단기과제)
III-2. 가정 밖 학생 청소년 대상 지원 개선_학교와의 연계 등	(중기과제)
III-3. 가정·학교 밖 이중 취약 청소년을 위한 지원_꿈드림센터 지원 강화	(단기과제)

○ 필요성/배경

조사에 참여한 가정 밖 청소년 중 절반 이상이 현재 진로와 관련해서 특별히 하는 일이 없었고(55.3%), 또 전체 응답자 중 30%는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였다. 또 진로에 대해 혼자 결정하는 청소년도 절반 가까이에 달했다(47.9%). 이러한 결과는 가정 밖 청소년들이 진로와 관련된 계획이나 준비에 있어 상당히 제한적인 상태이며, 당연히 집을 나온 상태에서 자신의 진로에 대한 계획과 준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힘들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한편으로 같은 가정 밖 상황에서도 학생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은 진로와 관련하여 다른 경험을 하고 있었고, 그중 학교 밖 청소년은 학생 청소년에 비해 진로성숙도와 진로 관련 활동·교육 등의 경험에서 더 낮은 수준이었는데,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진로와 관련된 활동과 체험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납득할 만한 결과이다. 가정 밖 학생 청소년은 학교를 통해 진로 관련 활동에 더 참여할 수는 있지만, 학교 적응과 학업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내용은 가정 밖 상황에서의 진로 지원이 공통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부분과 청소년들의 개인 상황이나 여건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전개될 부분이 있음을 시사한다.

○ 추진 과제 ① : III-1. (공통) 단계별 진로설계 및 진로준비 지원

대부분의 또래 청소년이 가정과 학교를 통해 진로 관련 지원을 받는 가운데, 가정 밖 청소년들은 일차적인 보호·지원체계인 가정으로부터 기대되는 지원을 받기 어려우며,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은 이에 더해 학교에서 제공하는 진로 교과를 포함한 관련 지원에서 더 소외될 수밖에 없다. 가정과 학교로부터의 진로 지원의 수준과 범위에 편차가 클 수 있으나 두 체계에서 벗어나 있는 가정·학교 밖 청소년은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진로교육, 진로지도는 법적으로 보장된 것으로, 진로교육법 제4조에 따르면, “① 진로교육은 변화하는 직업세계와 평생학습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스스로 진로를 개척하고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는 진로개발역량의 함양을 목표로 한다. ② 모든 학생은 발달 단계 및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진로교육은 학생의 참여와 직업에 대한 체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진로교육은 국가 및 지역사회의 협력과 참여 속에 다양한 사회적 기반을 활용하여 이루어져야 한다”⁴⁸⁾는 기본 방향을 전제로 수행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학교에서는 진로전담 교사를 통해 다양한 진로교육과 활동을 제공하지만, 가정 밖 상황에서 그리고 학교까지 그만둔 상황에서 청소년들은 또래들과 같은 수준의 진로교육과 진로 지원을 받기 어렵다.

현재 청소년쉼터와 자립지원관에서는 그 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가정 밖 청소년의 의식주를 포함한 안전한 보호와 기본적인 생활지원에 더해 학업지원과 취업을 포함한 자립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일시쉼터의 주요 기능 중 하나로 ‘진로지도와 적성검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단기쉼터의 활동 중에 ‘진로상담’ 내용이, 그리고 중장기쉼터의 역할로 ‘생활지원, 상담·진로·적응지도’에 진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여성가족부, 2024a: p.301, p.309, p.314). 그러나, 일례로, 일시쉼터에서 진로지도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가능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을 차치하더라도, 진로설계와 준비 단계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생애 많은 부정적 경험뿐 아니라 불가피한 사정으로 가정과 학교 밖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에게 그 시간은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체계적인 진로 준비 없이 또는 경제적 필요 때문에 아르바이트나 진입장벽이 낮은 일자리(+양질의 일자리가 아닌)를 통한 자립에만 우선순위를 두지 않도록, 필요한 제반 여건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본 설문조사에서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경제적인 이유가 대부분으로 아르바이트에 많은 시간을 쏟을 경우 결국 장기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잘 준비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진로를 준비하는 단계에서의 일정 수준의 경제적 지원(진로관련 교육 및 활동 참여비, 용돈 확대 등)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이들이 가장 희망하는 직업(교육/훈련)은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나 상담사였으며(현재 자신들을 지원하는 거의 유일한, 의미 있는 직업인이기 때문으로 추정), 다음은 메이크업 아티스트·네일아트, 음료제조(바리스타 등) 등으로 이들의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도 매우 좁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가정 밖 청소년들이 자신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48) 출처: 진로교육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main.html>에서 2024년 12월 13일 인출.

다양한 직업세계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시작으로 본인의 진로까지 구체화하며 본격적으로 준비하기까지 상당 기간의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즉, 체계적인 단계별 진로설계와 준비과정을 통해 또래 청소년과의 출발선에서부터의 격차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본인의 적성에 더해 사회환경적인 변화와 미래 사회에 적합한 진로에 대해 장기적으로 살펴볼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 진로 전문가의 배치, 지원이 필요하며, 일부에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사업을 추진하는 진로체험지원센터와 같은 외부 전문 기관과의 연계도 필요해 보인다. 또한 구체적으로, 가정 밖 경험과 학교 밖 경험이 있는 직장인과 대학생 멘토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적극 고려해 볼 수 있다. 앞서 사회적 지지체계 구축을 위해 제안한 것과 유사한 맥락에서, 같은 경험을 공유한 연대감에서 출발한 진로 멘토링은 실질적인 진로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특수한 상황의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 더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가정 밖 청소년의 경우 안전한 보호와 생활이 우선됨에 따라, 이들의 긴급한 생존과 안전한 생활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는 진로에 관한 지원은 지자체별로, 또는 시설과 개인 실무자에 따라 자원 연계나 동원 등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개별 실무자가 최대한 지원 가능한 자원에 대한 연계는 중앙, 지자체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내용은 해당 매뉴얼과 지침, 프로그램화하여 지역과 시설에 따른 차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그림 VI-6. 가정 밖 청소년의 단계별 진로설계 및 진로준비 과정 예시

☞ 관련 부처/기관 : 여성가족부, 교육부

○ 추진 과제 ② : Ⅲ-2. 가정 밖 학생 청소년 대상 지원 개선(학교와의 연계 등)

설문조사 결과 같은 가정 밖 상황임에도 학교 재학 여부에 따라 청소년들은 다른 결과를 보였다. 가정 밖의 학생 청소년은 심리정서, 정신건강 차원과 진로 등에서 가정·학교 밖 청소년보다 조금 나은 상황이었지만, 특별히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들도 대두되었다. 설문조사에서, 13명의 청소년은 학교를 그만두었다가 복교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중 다수는 정규학교는 마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학교에 복귀함에 따라 가정 밖 상황에서도 학교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심층면접조사에서는 원거리 통학 문제, 학교생활 부적응, 학업 부진 등으로 결국 학교를 그만둔 사례들도 있어, 학교생활을 유지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전문가 의견조사, 현장실무자 FGI와 간담회 등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재학 시 학교생활에 흥미가 없는 경우 학교 적응을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등교하였다가 점심 식사 후 다시 학교를 일탈하거나 학교에서 학업을 거의 하지 않는 사례들도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첫째, 가정 밖 학생 청소년에 대한 기초학습능력 배양을 위한 학업지원 필요성을 시사한다. 학업에 흥미를 잃게 되면 학교에 적응하기 더욱 어렵기 때문에, 학교 진도를 맞출 수 있도록 온라인 학습지원, 학원, 학습 멘토링 지원 등 다각적인 방식으로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가정 밖 학생 청소년의 학교 적응을 위한 학교-청소년쉼터 간 협력 시스템 구축(쉼터 종사자-담임교사/학교 복지사/위클래스)이 필요하다. 일부 청소년 쉼터에서는 필요시 학교와 접촉하여 가정 밖 청소년의 현재 상황을 공유하며 학교생활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청소년쉼터와 학교 체계의 적극적인 연계가 더욱 필요해 보인다. 셋째, 심층면접조사에서 드러난 원거리 통학 문제로 인해, 또는 부모의 소재 파악 우려로 인해 학교를 그만두는 청소년 사례와 같은 경우 청소년이 학업을 지속하길 희망한다면 여러 형태의 선택 기회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희망에 따라, 학교 인근 보호시설에서 생활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거나, 현재의 시설에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검정고시 등 다른 방식으로 학업을 진행하는 것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일선 청소년쉼터에서 개인 실무자의 역량에 따라 지원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제시간에 학교에 가는 것을 힘들어하는 청소년에 대한 등교 지원부터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청소년의 입시 지원까지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매우 넓고 크다. 따라서 가정 밖의 학생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학교생활 관련 지원, 학업 지원에 대한 내용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 **관련 부처/기관** : 여성가족부, 교육부, 지자체, 시도교육청

○ 추진 과제 ③ : Ⅲ-3. 가정·학교 밖 이중 취약 청소년을 위한 지원(꿈드림센터 지원 연계 강화)

가정 밖 상황만으로도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많지만, 학교 밖 상황까지 더해진 상태에서 진로를 준비해야 하는 가정·학교 밖 청소년의 어려움은 더욱 크다. 본 연구에서도 가정 밖의 학생 청소년에 비해, 가정·학교 밖 청소년의 조사 결과가 더욱 부정적이었는데, 가정 밖의 학생 청소년보다 진로성숙도도 낮은 수준이었고,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교육과 활동 경험(진로탐색,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체험, 현장학습, 진로박람회 등)도 더 적었다. 이들은 자격증 취득 준비에서만 학생 청소년에 비해 경험이 많았고, 또 아르바이트(일) 경험도 더 많았다. 심리정서적 차원에서도 더 부정적이었는데, 자살을 생각한 가장 큰 이유는 가족 간의 갈등이었지만, 그다음으로 학생 청소년은 친구관계/인간 관계에 대한 것이었다면, 학교 밖 청소년은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이었다.

또래 청소년과는 달리, 가정과 학교의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있는 가정·학교 밖 청소년에게 향후 미래 진로에 대한 생각은 더욱 불확실할 뿐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청소년쉼터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들의 자립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지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의 더 강화된 연계를 통해 진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실질적으로 진로에 대한 도움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집을 나오면서 부득이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거나, 또는 학교를 그만두면서 결국 집을 나오게 된 청소년 모두 결국 학교 밖 청소년임에 따라 이들에게 제공되는 모든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진로설계를 포함한 종합적인 진로 지원에 대한 내용이 명시될 필요가 있다.⁴⁹⁾ 이는 가정 밖 상황 여부를 차치하고 학교 밖 청소년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으로, 학교에서 제공되는 수준에 견줄만한 진로 지원에 대한 내용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현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8조 상담지원, 제9조 교육지원, 제10조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제11조 자립지원만 제시되어 있어, 진로적성과 진로상담, 진로탐색과 체험 등 직업 및 취업 이전의 본격적인 진로지원 단계가 적극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 직업체험 및 취업 지원도 진로 지원의 일부가 될 수 있으나, 가정·학교 밖 청소년이 급히 취업과 자립을 선택하기 이전에 체계적인 진로 지원을 먼저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49) 이에 대한 내용은 그 필요성을 고려하여 2023년에 수행된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 분석 및 자립지원 방안 연구」(김희진 외, 2023a)에서 일부 인용하였다.

표 VI-2. 가정·학교 밖 청소년 진로 지원을 위한 관련 법률 조항 신설 예시

관련 조항 신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진로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 계획 수립 2.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3. 진로정보 제공 및 진로 체험 프로그램 4. 진로지원 전담 인력 배치 및 진로체험지원센터와의 연계 운영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출처: 김희진 외(2023a).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 분석 및 자립지원 방안 연구. p.277의 해당 표 발췌, 일부 수정 인용

다음으로, 가정·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청소년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연계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현장실무자들을 통한 기관담당자 조사에서 많은 쉼터에서 검정고시 지원 등을 위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연계하고 있었으나, 그 이상의 본격적인 진로준비, 진로활동 참여에 대한 내용은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한 실제로 가정·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관련 교육 및 활동 참여 경험이 가정 밖 학생 청소년보다 적다는 점에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한 더욱 본격적인 지원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서 가정·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설계는 청소년쉼터 실무자로부터 시작되지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진행하고, 점차적으로 진로와 관련된 지원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추진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현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직업역량프로그램, 자립취업지원서비스에도 참여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일부 진로체험지원센터 등과의 연계를 통해 보다 다양한 진로 지원을 제공받을 수도 있다.

정리하면, 당장의 취업과 자립을 염두에 두기 이전에 앞서 제시한 단계별 진로설계 및 진로준비를 포함하여 개인별 진로 로드맵/포트폴리오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청소년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간 연계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가정·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더욱 관심을 갖고 학교 밖 상황에서 필요한 진로설계와 준비, 진학 및 취업 등 일련의 과정에 더욱 집중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 **관련 부처/기관** : 여성가족부, 교육부

정책영역Ⅳ**다중 취약 고위기 가정 밖 청소년 지원 등 변화하는 환경 대응****추진 과제**

Ⅳ-1. 다중 취약 고위기 가정 밖 청소년 발굴·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	(중기과제)
Ⅳ-2. 자립을 위한 경제적 지원(자립정착금)·주거 지원 확대	(중기과제)
Ⅳ-3. 가정 밖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중장기과제)

○ 필요성/배경

본 연구의 초점은 가정과 학교로부터 동시에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학교 밖 청소년으로 청소년쉼터와 자립지원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또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청소년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현장실무자들을 대상으로 FGI와 간담회 등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가정·학교 밖 이중 취약 청소년이 경험하는 어려움과 현장 지원에서의 애로사항 등 많은 조사 결과와 의견들이 수집되었으나, 그 가운데서 반복적으로 눈에 띄는 부분은 매우 다양한 복합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것들이었다. 이는 점차 다중 취약의 복합적인 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발굴과 지원을 위한 대비가 더욱 필요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관련한 제도적인 준비가 시급해 보인다. 더불어, 가정 밖 청소년의 저연령화 문제와 경제적 지원 확대 등 향후 우리 사회의 변화에 대응한 준비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추진 과제 ①: Ⅳ-1. 다중 취약 고위기 가정 밖 청소년 발굴·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

본 연구를 통해 가정 밖 청소년 중에는 심리정서적 어려움이 심화되어 정신과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있거나, 또는 인지행동문제(지적 문제, 경계선 장애 등), ADHD, 가정폭력 및 학대에 따른 트라우마 등의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가정·학교 밖 이중 취약의 문제를 넘어서, 정신과적 문제 및 인지행동 문제까지 복합적인 위기 요소를 가지고 있는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본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위해서 첫째, 다중 취약한 상태의 고위기 청소년 발굴과 지원을 위한 실태가 파악 될 필요가 있다. 일차적으로 현장의 청소년쉼터를 통해 대략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광범위한 발굴 방안과 지원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둘째, 이러한 계획과 실제 지원을 위해 가칭 고위기 청소년지원팀, 또는 고위기 청소년사례관리팀 등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구성, 배치가 필요하다. 현재 청소년쉼터 내 실무자들이 모든 지원을 제공하기 어려우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포함한 전문가 집단을 통해 지원이 시작되어야 하며, 이들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관리도 필요하다. 현재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도 위기청소년 지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복합적인 취약성을 가진 고위기 청소년과 관련해서는 명시된 부분이 없다. 또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지원은 주로 심리적 고위기에 한정되어 있어, 청소년의 개인 심리적 상태와 인지·정서·사회적 측면, 나아가 가정 환경의 취약한 상황까지 반영한 다중 취약 고위기 청소년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원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향후 이러한 정책 대상자들의 증가를 고려한 적극적인 지원 계획 수립과 이를 실행할 전문 인력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

○ 추진 과제 ② : IV-2. 자립을 위한 경제적 지원(자립정착금)·주거 지원 확대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는 가정 밖에서의 생존을 위해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담보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해서 청소년쉼터에서도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심리사회적 측면과 정신건강의 문제는 안정적인 의식주가 보장된 상태에서 개선을 기대할 수 있으며, 진로에 대한 생각 역시 현재와 미래의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적일 때 가능한 부분이기도 하다. 또한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당연히 경제적 지원에 대한 요구가 많았는데, 점차 가정, 부모의 지원과 지지의 영향이 커지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에서⁵⁰⁾ 기본적으로 가정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 확대가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경제적 지원은 바로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는바, 자립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에 따라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고 금액도 증액된 바 있다(30만 원→40만 원)(여성가족부, 2024a). 그러나 이 금액이 가정 밖 청소년들의 시설 퇴소 후 자립하는 데 있어 충분하다고 볼 수 없으며, 결국 당장의 경제적 필요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아르바이트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게 된다. 즉, 장기적인 차원에서 또는 본인의 적성을 고려할 때 꼭 필요한 진로준비 시간을 갖는데 제약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도 자립정착금 지원에 대한 수요가 많았는데, 아직은 일부 지역의 시설 퇴소 청소년에게 한정되어 있어(여성가족부, 2024a),⁵¹⁾ 그 범위와 대상이 더욱 확대

50) 2023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모의 정서적 지지와 경제적 지원 등이 시간경과에 따라 점차적으로 그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희진 외, 2023b).

51) 2023년 기준 부산, 울산, 제주에서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한 것으로 보이나, 자격기준과 금액 등 상세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여성가족부, 2024a:494).

될 필요가 있다. 가정 밖 청소년의 시설 퇴소 후 자립정착금은 아동복지시설 퇴소 보호종료 아동에 준하는 수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가정 밖 청소년 중 원가정 복귀 없이 성장해야 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증장기 쉼터와 자립지원관의 확대가 필요하다. 원가정 복귀 없이 성인이 되어 자립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 주거 지원은 매우 필수적이다. 현재 이들을 위한 주거 지원과 관련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주거 지원 조건들이 좀 더 완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한 주거 지원 범위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현재 시설 이용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만 해당이 되는 LH 공공임대주택의 신청 자격 기준이 좀 더 완화될 수 있도록(시설 이용 기간 축소) 더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⁵²⁾

○ 추진 과제 ③ : IV-3. 가정 밖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본 연구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변화도 감지되었다. 첫째로,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가정 밖 청소년 특성, 양상이 매우 다양해졌으며, 집을 나오는 청소년들의 연령도 다양해지고 있었다. 이는 청소년 시기 성장·발달 범위가 매우 넓은 것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저연령화는 지원 프로그램과 지원접근 방식도 다양해져야 함을 시사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다양한 경로로 저연령 청소년들이 청소년쉼터에 일정 기간 머무르고 있어 이러한 경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청소년들의 눈높이를 고려한 지원 필요성이다.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청소년들은 피복 지원 확대와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를 준비하는 활동 등에 있어 미래 전망을 고려한 다양한 진로체험, 직업체험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일부 현장실무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주배경인 청소년들이 집을 나오는 경우 더욱 취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응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다문화청소년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에서 출생, 성장함에 따라 이주배경 부모와의 문화적 갈등이 심화되어 집을 나오거나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상황에서 청소년 자녀를 두고 본국에 돌아가 버리는 극단적인 상황도 관찰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상황의 이주배경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관련 부처/기관** : 여성가족부, 지자체,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52) 청소년단기쉼터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최장 24개월까지 생활할 수 있으나(여성가족부, 2024a : 216), '특별한 사정'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일반적으로 2년을 채워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견을 반영하였다.

○ ————— **참고문헌**

참고문헌

- 국가인권위원회 (2017). **인권위, 가정 밖 청소년 인권보호정책 개선 권고-상임위원회 결정문**.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4002001&searchselect=boardtitle&searchword=%EC%B2%AD%EC%86%8C%EB%85%84&pagesize=10&boardtypeid=24&boardid=616529>에서 2024년 7월 2일 인출.
- 고용노동부 (2024). **2024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40800703에서 2024년 9월 30일 인출.
- 교육부, 질병관리청 (2024). **제19차(2023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세종: 교육부, 충북: 질병관리청.
- 김경애, 류방란, 정바울, 정연순, 송혜정, 조은주 (2014).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복지 방안 연구: 생애진로개발을 중심으로**(연구보고 RR 2014-05).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기현, 문호영, 황세영, 유민상, 김균희, 이용해 (2021).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김범구, 김수영, 진영선, 김민정, 조은실 (2023a). **가정 밖 청소년의 효율적 지원과 청소년 복지시설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기아대책.
- 김범구, 김수영, 진영선, 김민정, 조은실 (2023b). **고위험군 가정 밖 청소년 지원 방안 모색 연구**. 기아대책.
- 김분한, 김금자, 박인숙, 이금재, 김진경, 홍정주, 이미향, 김영희, 유인영 (1999). 현상학적 연구방법의 비교고찰: Giorgi, Colaizzi, Van Kaam방법을 중심으로. **대한간호학회지**, 29(6), 1208-1220.
- 김영지, 김희진, 이민희, 김진호 (2017).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7**(연구보고 17-R15).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은녕 (2019). 여자 가출청소년의 쉼터 퇴소 후 자립경험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26(1), 55-77.
- 김은정, 백혜정, 김희진 (2019). 청소년복지시설 거주 가정 밖 여자 청소년들의 가출 실태와 자립지원 연구. **사회사상과 문화**, 22(4), 195-240.
- 김재엽, 김준범, 장용언, 한기주 (2016). 가출청소년의 부모로부터의 학대와 학교폭력의 중복피해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공격성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7(2), 159-186.
- 김정남, 박미랑 (2020). 가정 밖 청소년의 학대피해와 범죄 가해·피해의 중첩현상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학**, 14(3), 27-45.
- 김지경, 송현주, 김균희 (2023). **2023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김지경, 송현주, 김균희, 정윤미 (2022). **2022년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김지연, 정소연 (2014).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연구보고 14-R10).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지혜, 김기남, 박지영, 정경은 (2006a). **단기청소년쉼터 세부운영모형 개발 연구**. 서울: 국가청소년위원회.
- 김지혜, 김기남, 박지영, 정경은, 조규필 (2006b). **일시청소년쉼터 세부운영모형 개발 연구**. 서울: 국가청소년위원회.
- 김지혜, 안치민 (2006). 가출청소년의 학업중단 영향 요인과 대책. **한국청소년연구** 17(2), 133-257.
- 김진선, 정윤경, 이민정, 신주연 (2023). 위(Wee)센터를 중심으로 한 자살위기 학생 개입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교육연구**, 41(4), 1-28.
- 김향초 (2009). **가출청소년의 이해와 상담**. 서울: 학지사.
- 김형수, 최한나 (2009). 청소년의 위기 중복 유형 탐색: 서울, 인천지역 청소년(상담)지원 센터 위기지원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2), 521-536.
- 김효선, 배희분, 장덕호 (2019). 병원형 위(Wee)센터 운영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3), 499-520.
- 김희진, 백혜정, 김은정 (2018).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와 자립지원 방안 연구**(연구보고 18-R02).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희진, 조혜영, 한지형 (2023a).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 분석 및 자립지원 방안 연구**(연구보고23-기본10).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희진, 임희진, 김정숙 (2023b). **202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김희진, 임희진, 김정숙, 서고운 (2021a). **202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김희진, 서고운, 김은정 (2021b).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IV: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연구보고 21-R15).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희진, 서고운, 조혜영 (2022).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V: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연구보고 22-일반04).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희진, 장근영, 이동훈, 윤철경 (2020).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 III :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연구보고 20-R14).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남미애 (2008). 청소년쉼터 및 가출유형에 따른 가출청소년의 이용만족과 삶의 질 차이. **청소년학연구**, 15(6), 89-120.
- 류정희, 전진아, 이상정, 이주연, 정익중, 유민상 (2018). **생애주기별 학대 경험 연구- 아동기 학대·폭력의 중복적 경험과 정책적 대응**. 세종: 보건사회연구원.
- 백혜정 (2009). 성별에 따른 청소년들의 가정환경과 비행경험 관계에서의 부모의 지지와 자기통제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2(4), 37-56.
- 백혜정, 임희진, 김현철 (2017). **2017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jsessionid=GErW90k+eKbIQZ+StaEFR5Tk.mogef11?mid=plc502&bbtSn=704744에서 2018년 2월 8일 인출.
- 백혜정, 좌동훈, 남기곤, 정경석 (2015). **가출 청소년 실태 및 청소년쉼터 증장기 발전방안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 보건복지부 (2024). **2024년 아동분야사업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 서경혜 (2023). **질적연구방법론**. 서울: 학지사.
- 서보람, 유현주, 김미선 (2017). **의정부시 일시청소년쉼터의 215~2017년 거리청소년 건강지원 정책연구**. 의정부시: 의정부시·아름다운재단·(사)청소년문화공동체심대지기.
- 손재환, 김범구, 한유화, 김세진 (2020). **청소년쉼터 입소청소년 및 종사자 실태조사 연구**. 부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신경림 (2003). 현상학적 연구의 이론과 실제. **간호학탐구**, 12(1), 217-241.

- 여성가족부 (2024a). **2024년 청소년사업안내**. https://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2&bbtSn=704833에서 2024년 5월 12일 인출.
- 여성가족부 (2024b). **2023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 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김한별 (2018).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서울: 박영스토리.
- 유민상, 신동훈, 신영규, 박미희 (2022).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II: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연구보고 22-일반07).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유민상, 이경상 (2023). **2023 아동청소년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기초분석보고서**(연구보고 23-일반01-01).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유서구 (2017). 가출팸 경험과 비행행동의 차이: 실천대안의 탐색. **사회비판정책**, 54, 52-80.
- 유영의, 장은영 (2024). 교수역량 강화를 위한 S대학 교원의 교육요구도 분석: Borich 요구도와 LF모델을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30(1), 43-61.
- 유성경, 송수민, 이소래 (2000). **청소년의 가출 「청소년상담문제연구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유진선, 손영은, 주연선 (2023). 사회복지 분야 사회복지무원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우선순위 분석. **보건사회연구** 43(3), 138-155.
- 윤철경, 유성렬, 김신영, 임지연, 임아랑, 최은희 (2013).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연구보고 13-R18).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윤철경, 성운숙, 최홍일, 유성렬, 김강호 (2017).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 연구 II**(연구보고 17-R14).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윤철경, 최인재, 김승경, 김성은 (2018). **2018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이경상, 김기현, 임희진 (2007).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V**(연구보고 07-R0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경상, 김진호, 오해섭, 김희진 (2003).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조사개요 보고서**(연구보고 03-R15).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경상, 서정아, 배상률, 성은모, 김지영, 강현철 (2012).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III**(연구보고 12-R14).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남인 (2005). 현상학과 질적연구방법. **현상학과 현대철학**, 24, 91-121.

- 이성호, 박재성 (2024). 캄보디아 NGO의 현지화(localization) 이행의 도전과제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Colaizzi 연구방법 접근. **NGO연구** 19(1), 115-160.
- 이지영 (2023). 대학생의 학사경고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지방 사립 A 대학을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45(2), 647-660.
- 이지현, 오제는 (2013). 가출청소년의 가족이미지 특성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20(6), 49-71.
- 임경은, 박라나 (2013). **혼합조사 추정방법 실무적용방안 검토: 사교육비조사를 중심으로**. 대전: 통계개발원. https://sri.kostat.go.kr/board.es?mid=a90101010100&bid=11887&act=view&list_no=369844&tag=&nPage=1&ref_bid=12054,12059,12056,12058,12060,12062,11887,12053,12055,12057&keyField=D01&keyWord=%EC%9E%84%EA%B2%BD%EC%9D%80에서 2024년 8월 27일 인출.
- 정민숙 한재희 (2023). 여성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재활심리연구**, 30(1), 43-65.
- 조규필 (2016). 취약청소년 자립준비도 척도개발 및 타당화. **청소년복지연구**, 16(2), 273-310.
- 조대연 (2006). 국내 성인교육훈련의 요구분석 연구동향: 1990년-2005년 관련 문헌을 중심으로. **Andragogy Today**, 30, 85-106.
- 조운정, 주경필 (2018). 청소년자립생활관 청소년들의 자립과정에서의 저항과 자유갈망. **청소년문화포럼**, 54, 223-259.
- 최상근, 금명자, 정진 (2011). **Wee프로젝트 운영 모델 개발 연구**(수탁연구 CR 2011-32).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최숙희, 이수정 (2022). 청소년의 학업중단과 학업중단숙려제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청소년학연구**, 29(1), 147-176.
- 최은진 (2010). 가출청소년을 위한 아웃리치동반자 사업의 실태 및 활성화방안. **청소년복지연구**, 12(4), 325-351.
- 최인재, 모상현, 이선영 (2012).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II: 총괄보고서**(연구보고 12-R15).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최인재, 이경상, 김정숙, 장근영 (2015). **2015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최재광, 한지현, 이유경, 송원영 (2023). 도농복합지역 가정 및 학교 밖 청소년의 위기

-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발달지원연구**, 12(1), 21-50.
- 하형석 (2024). 2022년 학교 밖 청소년 규모 추정. **ISSUE 통계**, 2024년도 제1호.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 한국교육개발원 (2017). **가정형 위(Wee)센터 매뉴얼**. 진천: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교육개발원 (2018). **위(Wee)상담시스템 자료분석 및 활용방안 연구**. 진천: 한국교육개발원.
- 허민숙 (2021). 학업중단속려제의 입법영향과 개선과제. **교육문화연구**, 27(1), 5-21.
- 허민숙 (2024). 가정 밖 청소년이 컴퓨터에 입소하지 못하는 이유: 청소년컴퓨터 입소 절차 입법개선 시급. **현안분석, 제329호**. 국회입법조사처.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155&brdSeq=45603>에서 2024년 9월 27일 인출.
- 홍봉선, 남미애 (2007). **청소년복지론**. 서울: 공동체.
- 황여정, 이정민 (2020). **위기청소년 현황 및 실태조사 기초연구(연구보고 20-R24)**.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황여정, 임희진, 정은주, 유설희, 정윤미 (2022).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Ackerman, B. P., Kogos, J., Youngstrom, E., Schoff, K., & Izard, C. (1999). Family instability and the problem behaviors of children from economically disadvantaged families. *Developmental Psychology*, 35(1), 258-268.
- Borich, G. (1980). A needs assessment model for conducting follow-up studies.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31(1), 39-42.
- Bronfenbrenner, U. (1981).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 Bronfenbrenner, U., & Morris, P. A. (1998). The ecology of developmental processes. In W. Damon, & R. M. Lerner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pp. 993-1023). Wiley.
- Colaizzi, P. F. (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cal views. In R. Valle & M. King (Eds.), *Existential phenomenological alternative for psychology* (pp.48-71).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Creswell, J. W. (2015).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가지 접근[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3rd] (조홍식, 정선욱, 김진숙, 권지성 역). 서울: 학지사(원전은 2013년 출판).
- Evans, G. W., & De France, K. (2022). Childhood poverty and psychological well being: The mediating role of cumulative risk exposur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34(3), 911-921.
- Giorgi, A. (1975). An application of phenomenological method in psychology. *Duquesne studies in phenomenological psychology*, 2, 82-103.
- Morrow, R., Rodriguez, A. & King, N. (2015). Colaizzi's descriptive phenomenological method. *The Psychologist*, 28(8), 643-644.
- Moustakas, C. (1994).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s*. Sage publications.
- Rabinowitz, J., (1992). Collective Decision-Making: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Social Policy & Administration*, 26(1), 87-97.
- Rafferty, Y., Shinn, M., & Weitzman, B. C., (2004). Academic achievement among formerly homeless adolescents and their continuously housed peers,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42(3). 179-199.
- Robinson, C. (2023). In defense of vulnerability. *Subjectivity*, 30, 3-22.
- Russell, D. W. (1996). UCLA Loneliness scale (Version 3): Reliability, validity, and factor structur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6(1), 20-40.
- Saaty, T. L. (2008). Relative measurement and its generalization in decision making why pairwise comparisons are central in mathematics for the measurement of intangible factors the analytic hierarchy/network process. *RACSAM-Revista de la Real Academia de Ciencias Exactas, Fisicas y Naturales. Serie A. Matematicas*, 102(2), 251-318.
- Şengül-İnal, G., Borgen, N. T., Dearing, E., & Zachrisson, H. D. (2024). The double jeopardy of low family income and negative emotionality: The family stress model revisited.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024), 1-18.
- Shaw, D. S., Keenan, K., Vondra, J. I., Delliquardi, E., & Giovannelli, J. (1997). Antecedents of preschool children's internalizing problems: A longitudinal

study of low-income familie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6(12), 1760-1767.

Smith, B. W., Dalen, J., Wiggins, K., Tooley, E., Christopher, P., & Bernard, J. (2008). The brief resilience scale: assessing the ability to bounce back.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15, 194-200.

Van Manen, M. (1997). *Researching lived experience: Human science for an action sensitive pedagogy*. New York: Routledge.

[인터넷 출처]

교육부 (2024.08.29.). (별첨) 2024년 교육기본통계 주요 내용.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100896&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에서 2024년 8월 30일 인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work.go.kr>에서 2024년 7월 20일 인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s://www.work.go.kr/youngChallenge/index.do>에서 2024년 7월 22일 인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청년일경험 지원사업. 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40800703)에서 2024년 9월 30일 인출.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http://www.kua.go.kr>에서 2024년 7월 20일 인출.

느슨한 컴퍼니_출근프로젝트. <https://youth.gg.go.kr/gg/archive-policy-search.do?mode=view&arcNo=5793>에서 2024년 12월 19일 인출.

니트컴퍼니. <https://neetpeople.kr/neetcompany>에서 2024년 12월 19일 인출.

마이홈포털 홈페이지. <http://myhome.go.kr>에서 2024년 7월 28일 인출.

정부24 홈페이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5016>에서 2024년 7월 20일 인출.

진로정보망 커리어넷. <https://www.career.go.kr>에서 2024년 7월 20일 인출.

청소년안전망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ov.youthsafety.go.kr>에서 2024년 7월 29일 인출.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홈페이지. 위기청소년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2024년 9월 9일 인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홈페이지. <http://www.kdream.or.kr>에서 2024년 7월 3일, 2024년 7월 20일, 2024년 8월 3일 인출.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학업중단현황(2023년 2월말 기준). <https://kess.kedi.re.kr/index>에서 2024년 8월 29일 인출.

한국사학재단행복기숙사 홈페이지. <http://www.happydorm.or.kr>에서 2024년 7월 22일 인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www.kosaf.go.kr>에서 2024년 7월 22일 인출.

Wee프로젝트 홈페이지. <http://www.wee.go.kr>에서 2024년 7월 6일 인출.

[언론보도 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2.7.27.).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40075>에서 2024년 7월 20일 인출.

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24.1.18.). “학교 밖 청소년에 맞춤형 직업훈련...자립·취업지원 서비스 도입”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4938>에서 2024년 7월 20일 인출.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3.12.27.).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함께 하다’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9732에서 2024년 11월 15일 인출.

전주시 보도자료 (2024.11.11.). ‘가정 밖 청소년, 무대 위 주인공이 되다!’. <https://www.jeonju.go.kr/planweb/board/view.9is?dataUId=9be517a8914526ec01931a62ee544510&contentUId=ff8080818990c349018b041a87fe3960&boardUId=ff8080818b5bc5cf018ba8ca7216641f>에서 2024년 12월 19일 인출.

[법률 정보]

진로교육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main.html>에서 2024년 12월 13일 인출.

청소년복지지원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main.html>에서 2024년 5월 22일 인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main.html>에서 2024년 5월 20일 인출.

○ — 부 록

부 록

1. 기관담당자 조사 결과

■ 지원대상 청소년 이용·발굴 경로

- 가정 밖 학생·학교 밖 청소년 설문조사를 위한 기관담당자 조사에 참여한 인원은 총 84개 시설·기관의 담당자들임(기관당 1인).
- 서울, 경기·강원, 충청, 전라·제주, 경상 지역 권역별로 골고루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이는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도 전국에 걸쳐 조사된 것으로 볼 수 있음.

		구분	빈도	비율
		전체	84	100.0
성별	남자		29	34.5
	여자		55	65.5
응답자 직위 등	센터장		4	4.8
	(보호)상담원		24	28.6
	생활지도자 자립지원요원		2	2.4
	그 외(팀장, 과장 등으로 응답)		38	45.2
	없음(별도 직함/직위 없음으로 응답)		16	19.0
근무기간	1년 미만		16	19.0
	1년~3년 미만		22	26.2
	3년~5년 미만		19	22.6
	5년~10년 미만		17	20.3
	10년 이상		10	12.0
이용시설 및 기관	일시·이동 청소년쉼터		14	16.7
	청소년단기쉼터		45	53.6
	청소년중장기쉼터		22	26.2
	청소년자립지원관		3	3.6
지역	서울		11	13.1
	경기·강원		21	25.0
	충청		21	25.0
	전라·제주		17	20.2
	경상		14	16.7

■ 지원대상 청소년 이용·발굴 경로

○ 기관담당자들이 응답한 지원대상 청소년의 이용 및 발굴 경로

구분	내용
청소년 및 부모 지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스스로 자발적 문의 통해 입소 • 학부모 및 친구, 선후배 문의, 소개 등을 통해 발굴 • 포털 검색
청소년쉼터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웃리치, 홍보물 배포 등 홍보 활동 • 사이버 아웃리치, 홈페이지, SNS(카카오톡 채널), 사이버상담
청소년 관계기관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청소년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88 연계
교육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클래스, 위센터, 학교사회복지사, 학교 상담, 교육청
지역사회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지구대), 시군구청(공무원) 연계(아동보호팀), 가정법원, •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정신건강증진시설

■ 가정 밖 학생,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내용

○ 기관담당자들을 통해 파악된 지원 내용을 보면, 청소년에게 생활지원과 정서 지원, 자립 지원, 문화활동 등의 지원이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제공되고 있었음.

○ 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등교 지도와 기초학습 지원 등의 학업 지원, 학교생활 지원(교사와의 연계)이 두드러지며,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서는 검정고시 지원, 진로·취업 및 자립 지원 내용이 많았음.

구분	학생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생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비, 생활용품, 의약품 지원 • 의식주, 이미용 등 지원 • 교통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비, 생활용품 지원 • 의식주 • 교통비 지원
정서/건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상담, 미술치료, 심리검사, 집단상담 프로그램, 동물매개 치료 • 의료 지원(정신건강, 안과 등 병원 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 종합심리검사 연계, 놀이치료 • 심리안정 프로그램 지원, 동물매개 치료 • 의료지원(지역 병원 연계, 진로/약처방)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프로그램 연계
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업지원: 책/교재 구입, 교육비(학원비), 학습지, 학업 멘토링(대학생 1:1 기초학습 지원 멘토링 등), 학습전략 집단상담, 기초학습지원 • 학교생활 지원: 교복 지원, 등교지도, 교내생활 지원위해 담임교사와 긴밀한 관계 유지(학교관계자 상담 등), 수학여행비, 방과후 활동 등 • 개인별 교과학습지도, 과외(자원봉사자) • 대학진학 정보 제공 등 진학 지원(진학정보 제공, 진학박람회 참석, 대학캠퍼스 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업상담, 기초/보충학습(자원봉사자 연계), 학습 멘토링 • 수능준비 학원비 지원 • 검정고시 학원 및 일대일 수업 등 지원 • 검정고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연계) • 학습비 지원 사업 연계 • 대학 진학 정보 제공, 캠퍼스 탐방 • 방송통신고등학교 연계, 대안학교 상담 • 복교, 학업복귀 지원, 학교상담 • 특기적성교육 지원

구분	학생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방, 국가 장학금 연계 등 • 특기적성교육 지원	
진로취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학원 및 상담 지원, 진로적성검사 • 자격증(컴퓨터, 바리스타, 제과제빵, 플로리스트 등) 취득 비용 지원 • 진로탐색프로그램 운영, 진로심리검사 • 직업체험활동, 진로캠프 운영, 진로멘토링 및 전문가 만남(직업인 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증 과정(컴퓨터, 바리스타, 제과제빵, 운전면허, 자격차, CAD, 일러스트 등) 지원, 응시료 • 실용음악학원, 제과제빵, 네일아트 등 • 취업지원(국민취업지원제도) •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연계 • 아르바이트 연계 등 구직활동 지원(관련 정보 제공, 보건증/차량 지원) • 취업을 위한 고용복지센터 연계
자립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 교육, 원가정 방문 • 자립 지원 교육 • 요리, 세탁 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립실비 지원 • 자립교육, 경제교육프로그램 • 요리, 정리 정돈 등 • 자립 지원 정책 정보 제공 • 청년도전지원사업(고용노동부) 등 청소년 자립프로그램 연계 지원
문화예술체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미여가활동: 영화/연극 관람, 요리프로그램, 문화체험 캠프 • 체험활동, 수련활동 • 건강증진 프로그램(탁구, 클라이밍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미여가활동: 영화/연극 관람, 문화체험 캠프 • 운동프로그램 지원 : 호신술, 필라테스 등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출예방캠페인, 거리청소년 인권보호 프로젝트 • 사례관리, 가정복귀 지원, 가족집단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관리, 가족상담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정보 제공
무교육(필수)	• 안전교육, 성교육, 흡연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 비행예방교육, 소방안전교육 등	

■ 가정·학교 밖 이종 취약 청소년 대상 필요 지원

- 조사에 참여한 기관담당자들이 제안한 가정·학교 밖 이종 취약 청소년 대상 필요지원 내역: 가정 밖 청소년으로서의 기본적인 의식주 지원 외에 심리사회적 지원, 진로취업 지원, 자립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이 주요 내용으로 도출됨.
- 특히, 가정 밖, 가정·학교 밖 이종 취약 청소년과 관련된 지원 정책 홍보 및 안내 제공의 필요성이 두드러짐.

구분	내용
생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식주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립지원관, 공공임대주택 등 안전한, 안정적인 거주지 마련, 장기보호시설 연계 - 식생활 해결을 위한 쿠폰, 바우처 등 지원 • 생활용품 지원 • 경제적 지원(월세, 공과금, 용돈, 난방비 등)

구분	내용
심리정서/건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 멘토링, 심리치료/정신과 치료 지원, 무기력에서의 회복 지원 • 우울증, ADHD 등을 포함한 의료 지원
사회적 관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인관계 기술, 사회성 훈련,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지원 • 청소년 유대관계 및 소속감 증대를 위한 집단활동 • 고민을 상담할 수 있는 멘토 등 사회적 지지체계 마련
학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 학업 지원 • 검정고시 지원, 대안학교 지원 • 안정적인 학업 유지를 위한 지원(기숙사 등 포함) • 학위취득 지원, 대학등록금 지원
진로취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멘토링, 컨설팅 • 진로설계 지원(전문 진로상담, 관련 실습 지원) • 가정, 학교의 도움 없이 미래를 고민/결정해야 하는 청소년 대상 진로설계 프로그램 • 적성에 맞춘 자격증 취득 지원 • 취업 지원(자기소개서, 면접, 직장 예절 및 적응 등) • 일자리/아르바이트 지원 • 실질적인 자립을 위한 장기적인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 진로진학 정보 제공
자립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생활기술 교육 및 훈련(개인 정비, 위생, 자기관리 훈련) • 자립역량강화 프로그램(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역량 개발) • 자립생활 훈련, 정리정돈교육 • 경제교육(금전관리, 저축, 지출관리) • 청소년기 기초 소양교육: 범죄예방교육, 성교육, 경제금융교육, 인권·민주시민 교육, 인성교육 등
문화예술체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욕구를 고려한 취미·여가 지원 • 가정·학교 밖으로 인한 문화 소외, 결핍 탈피를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활동지원 • 체육활동 지원
정보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진학 정보 제공 • 지역사회 지원 정보 제공, 공공시설 이용 및 주변 자원 활용 교육 • 1:1 매칭 등을 통해 청소년 지원 정책(가정 밖, 가정·학교 밖 청소년 대상) 교육 및 지원 안내 등 프로그램 필요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 복귀를 위한 가족상담, 부모상담 • 청소년쉼터 유형에 따른 지원 제약 문제 해소 필요: 단기쉼터에서는 용돈 지급이 불가능, 단기쉼터에서는 2년 이상 머물기 어려워, LH/토소 수당 지원 혜택 불가능 • 규제가 심하지 않은,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지낼 수 있는 의식주 보장이 되는 장소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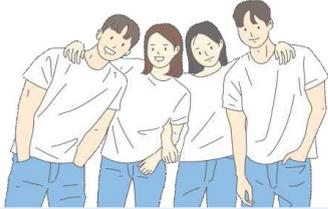
2. 가정 밖 학생·학교 밖 청소년 설문조사 조사지

1) 가정 밖 학생 청소년 설문지(A유형)

기관 ID	<input type="text"/>	응답자 ID	<input type="text"/>
-------	----------------------	--------	----------------------

청소년 실태조사

A유형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각종 조사 연구와 정책 개발 업무를 맡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주)한국여론리서치와 함께 청소년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등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실태와 지원 요구를 파악하고,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본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청소년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자료로만 활용되며, **개인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정확하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문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비쁘신데 큰 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 8월

※ 성별과 출생연월을 꼭 표시한 후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 주세요.

성별	<input type="radio"/> ① 남자	<input type="radio"/> ② 여자
출생연월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예 : 2008년 3월 출생 시 → <input type="text"/> 0 <input type="text"/> 8년 <input type="text"/> 0 <input type="text"/> 3 월생)



I. 학교 관련 경험

1 귀하는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까? 아래에서 선택해 주세요.

※ 졸업 후 검정고시를 치러야 하는 비인가 대안학교를 다닌 경우는 아래에서 ②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를 선택하십시오.
학력인정이 되지 않고 검정고시를 봐야 하는 학교는 ②번을 선택해주세요.

① 학교를 다니는 중이다

②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자퇴, 유예 등) **→ 유형확인**

※ 본 설문은 A유형 설문지입니다.

②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자퇴, 유예 등)를 선택한 경우, B유형 설문을 받아서 B유형 설문지에 응답해 주세요.

1-1 현재 어느 학교 몇 학년입니까? 해당하는 학교급에 표시한 후, 학년을 적어 주세요.

※ 검정고시를 볼 필요가 없는 학력인정이 되는 대안학교 중 따로 학년이 없다면 일반 학교를 다니는
동급 친구들의 학년을 써주세요.

- ① 중학교 학년 ② 고등학교 학년
 ③ 대학교 학년 ④ 기타(_____)

1-2 현재는 학교를 다니는 중이지만, 과거에 학교를 그만둔 적이 있습니까?

- ① 학교를 그만둔 적이 있다 **→ 2** 로 ② 학교를 그만둔 적이 없다

1-3 현재는 학교를 다니는 중이지만,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요 **→ 8** 로

1-4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큰 이유부터 순서대로 두 가지를 선택해서 아래 빈칸에 번호를 써주세요

1순위

2순위

- | | |
|--------------------------|--------------------------------------|
| ① 신체 건강상의 이유로 | ② 심리 정서적인 문제(우울, 불안 등)로 |
| ③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서 | ④ 부모님과과의 갈등, 가정불화로 인해 |
| ⑤ 집을 나오면서(학교 다닐 여건이 안돼서) | ⑥ 학교 공부가 어려워서 |
| ⑦ 공부하기 싫어서 | ⑧ 학교 친구(선호배 포함)들과의 문제(폭력, 따돌림 등)로 인해 |
| ⑨ 선생님과의 갈등 때문에 | ⑩ 내 특기를 살리려고 |
| ⑪ 취업/아르바이트로 돈을 벌고 싶어서 | ⑫ 비행으로 보호처분 혹은 형사처분을 받게 되어서 |
| ⑬ 기타(내용을 적어주세요: _____) | → 응답 후 8 로 |

2

가장 최근 학교를 그만두었을 때는 언제였습니까? 학교급을 선택한 후 학년을 적어주세요.
해당 학교급을 입학하지 않았다면 '입학하지 않음'에 등그라미(○) 표시해 주세요.

그만둔 학교급	그만둔 학년	입학하지 않음
① 초등학교	_____ 학년	
② 중학교	_____ 학년	
③ 고등학교	_____ 학년	

3

학교를 그만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큰 이유부터 순서대로 두 가지를 선택해서 아래 빈칸에 번호를 써주세요

1순위

2순위

- ① 신체 건강상의 이유로
- ② 심리·정신적인 문제(우울, 불안 등)로
- ③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서
- ④ 부모님과 갈등, 가정불화로 인해
- ⑤ 집을 나오면서(학교 다닐 여건이 안돼서)
- ⑥ 학교 공부가 어려워져서
- ⑦ 공부하기 싫어서
- ⑧ 학교 친구(선호배 포함)들과의 문제(폭력, 따돌림 등)로 인해
- ⑨ 선생님과의 갈등 때문에
- ⑩ 내 특기를 살리려고
- ⑪ 취업/아르바이트로 돈을 벌고 싶어서
- ⑫ 비행으로 보호처분 혹은 형사처분을 받게 되어서
- ⑬ 기타(내용을 적어주세요: _____)

4

학교로 복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선택해서 오른쪽 빈칸에 번호를 써주세요

 ,

- ①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 ②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 ③ 다양한 경험(수학여행, 여러 활동 등)을 하기 위해서
- ④ 정규학교는 마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졸업장을 받기 위해서)
- ⑤ 소속감(안정감)을 경험하기 위해서
- ⑥ 학생 신분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나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 ⑦ 교복을 입고 싶어서
- ⑧ 학교 밖 청소년/정규학교 졸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 ⑨ 청소년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 등 소속/이용 기관(시설) 선생님의 권유로

4-1

정규학교로 복귀한 것에 만족하십니까?

-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②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 ③ 만족하는 편이다
- ④ 매우 만족한다

5

학교를 그만둔 후 여러분이 경험했던(경험한) 어려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해 주세요.

문항	전혀 경험하지 않았다	별로 경험하지 않았다	약간 경험했다	자주 경험했다
1) 부모와 갈등을 겪음	①	②	③	④
2) 건강이 좋지 않음	①	②	③	④
3) (어디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아) 나 혼자라는 불안감이 있음	①	②	③	④
4) 할 일도 없고,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의욕도 없음(무기력함)	①	②	③	④
5) 나를 이해해 주고, 믿어주며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음	①	②	③	④
6) 학교 친구들과의 관계가 단절됨	①	②	③	④
7) 또래 친구를 만들기 어려움	①	②	③	④
8) 내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는 것이 어려움	①	②	③	④
9) 대학진학관련 정보를 찾는 것이 어려움	①	②	③	④
10) 아르바이트, 일을 구하기 어려움	①	②	③	④
11)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음	①	②	③	④
12)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선입견, 편견, 무시	①	②	③	④
13) 기타(내용을 적어주세요: _____)	①	②	③	④

6

학교를 그만둔 이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를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 → 7 로

② 아니오

6-1

학교를 그만둔 이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를 이용하고 있지 않거나 이용한 경험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센터를 잘 몰라서
- ② 시간이 없어서
- ③ 도움 되는 서비스가 없어서(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 ④ 방문하기가 귀찮아서
- ⑤ 센터가 너무 멀어서
- ⑥ 내 생활을 간섭해서
- ⑦ 도움 받는 다른 곳(기관/센터)이 있어서
- ⑧ 다른 기관이나 부모님/지인 등을 통해 받고 싶은 서비스를 다 받아서
- ⑨ 기타(내용을 적어주세요: _____)

7

향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현재 이용 중인 청소년들도 응답해 주세요)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는 일반 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청소년에게 상담 및 학업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직업훈련, 급식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스스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입니다.

향후 참여의사

① 참여할 의향이 있다

② 참여할 의향이 없다



이유

이유

- ① 정보를 얻기 위해서
- ② 심리상담지원을 받기 위해
- ③ 사회적 관계(또래와의 교류 등)를 맺기 위해
- ④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어서
- ⑤ 혼자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힘들어서
- ⑥ 활동을 제공(또는 무료 지원)해 주기 때문에
- ⑦ 건강검진 등 지원을 받기 위해
- ⑧ 기타(내용을 적어주세요: _____)

- 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를 잘 몰라서
- ②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에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 ③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가 지리적으로 너무 멀어서
- ④ 기관에 소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하고 싶어서
- ⑤ 다른 지자체나 교육청의 유사 지원기관(예: 친구랑, 배움터 등)을 이용하고 있어서
- ⑥ 대안교육기관을 이용하고 있어서
- ⑦ 학원에 다니는 것으로 충분해서
- ⑧ 기타(내용을 적어주세요: _____)

청소년 실태조사 A유형 | 7

II. 진로

8 진로와 관련하여 현재 주로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특별히 하는 일이 없다 → 9 로

8-1 아래 보기 중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 두 가지를 선택해서 오른쪽 빈칸에 번호를 써주세요

- ① 대입(수능)을 준비하고 있음
- ②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음 → 9 로
- ③ 진로체험을 하고 있음 → 9 로
- ④ 직업교육훈련을 받고 있음 → 9 로
- ⑤ 기타(내용을 적어주세요: _____) → 9 로

8-2 대입 준비를 주로 어떻게(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해당하는 보기를 한 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 ① 도움 없이 혼자서 준비하고 있음
- ② 학교에서
- ③ 청소년심터 도움으로(인터넷 강의, 학습멘토 포함)
- ④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 도움으로(인터넷 강의, 학습멘토 포함)
- ⑤ 사설 학원을 통해
- ⑥ 기타(내용을 적어주세요: _____)

9 귀하는 어느 수준까지 교육받기를 원합니까?

- ① 고등학교
- ② 전문대학(2~3년제)
- ③ 대학교(4년제)
- ④ 대학원 이상(석·박사)

10 향후 진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 ①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
- ② 대학 진학 준비
- ③ 시간제 근로나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낼 예정
- ④ 직업교육훈련 예정
- ⑤ 취업 예정
- ⑥ 진학, 취업 등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
- ⑦ 기타(내용을 적어주세요: _____)

11

귀하가 진로에 대해 생각할 때 가장 영향을 준 대상이나 방법은 무엇입니까?

- ① 혼자 결정함
- ② 부모님
- ③ 주변 친구 또는 지인
- ④ 학교 선생님
- ⑤ 청소년심터 선생님
- ⑥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 선생님
- ⑦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진로체험지원센터 등 이용 기관의 선생님
- ⑧ 인터넷 또는 유튜브에서 접한 정보
- ⑨ 기타(내용을 적어주세요: _____)

12

다음 각 항목에 대해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해 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2)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3) 장래희망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①	②	③	④
5)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아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6) 나는 관심 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직업에 대하여 알아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13

다음의 진로와 관련된 교육과 활동을 받아 본 경험이 있습니까?

문항	경험해 본 적이 없다	경험해 본 적이 있다
1) 진로 탐색(나의 꿈, 미래 직업 관련 내용을 배우는 것)	①	②
2) 진로심리검사(진로관련 흥미 적성 검사)	①	②
3) 진로상담(나의 꿈, 미래직업, 적성 등에 관한 상담)	①	②
4) 진로체험(직업인 특강, 인터뷰, 직업인 업무 체험 등 진로체험학습 참여)	①	②
5) 현장학습이나 산업체 견학을 통한 진로 관련 활동	①	②
6) 진로박람회(잡월드, 카자니아 포함)에 간 경험	①	②
7) 대학의 학과(전공)관련 견학 프로그램	①	②
8) 창업 체험하기(도전(기업가)정신, 창의성 및 문제해결 능력 관련 활동 참여)	①	②
9) 직업교육 및 훈련	①	②
10) 자격증 취득 준비	①	②



13-1

(문 13 '② 경험해 본 적이 있다'에 하나라도 응답한 경우)
위의 진로에 대한 교육과 활동은 주로 어디를 통해서 경험했습니까?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 ① 학교
- ② 청소년 센터
- ③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
- ④ 진로지원센터
- ⑤ 기타(내용을 적어주세요: _____)

14

희망하는 직업교육 훈련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15 로

14-1

아래의 보기 중 받고 싶은 과정 두 가지를 선택해서 오른쪽 빈칸에 번호를 써주세요

- ①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및 상담사
- ② 간호조무사, 수의사 보조원, 응급구조사
- ③ 보육교사(어린이집 교사)
- ④ (웹)디자이너, 게임/영상 그래픽디자이너
- ⑤ 유튜브 크리에이터(영상 콘텐츠 창작 포함)
- ⑥ 헤어디자이너
- ⑦ 메이크업 아티스트, 네일아트
- ⑧ 음료제조(바리스타, 소믈리에)
- ⑨ 제과제빵(파티시에)
- ⑩ 조리사(한식·중식·양식·일식 조리사 등)
- ⑪ 자동차(택시, 버스, 화물차 등) 운전
- ⑫ 코딩·게임 프로그래밍
- ⑬ 반려동물전문가(애견미용사, 반려동물행동교정사 등)
- ⑭ 기타(내용을 적어주세요: _____)



III. 건강

15 자기 자신의 현재 상태를 묻는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해 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신체적으로 건강하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정신적으로 건강하다	①	②	③	④

16 현재 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우울증, 불안장애 등 정신과 질환
 - ② 성 관련 문제(임신), 질병(성병 등) 등 산부인과 질환
 - ③ 충치 및 잇몸 치료 등 치과 질환
 - ④ 소화불량, 위염 등 소화기 내과 계통 질환
 - ⑤ 근육통, 골절 등 정형외과, 통증의학과 질환
 - ⑥ 기타 질환(호흡기질환, 피부질환 등)
-
- ⑦ 없음

17 최근 30일 동안, 담배를 한 대(한 개비)라도 피운 날은 며칠입니까?

- ① 최근 30일 동안 없다
- ② 월 1~2일
- ③ 월 3~5일
- ④ 월 6~9일
- ⑤ 월 10~19일
- ⑥ 월 20~29일
- ⑦ 매일

18 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날은 며칠입니까?

- ① 최근 30일 동안 없다
- ② 월 1~2일
- ③ 월 3~5일
- ④ 월 6~9일
- ⑤ 월 10~19일
- ⑥ 월 20~29일
- ⑦ 매일

19

다음은 평소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해 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2)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4) 나는 힘든 시기를 보낸 후에 빠르게 회복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스트레스가 많은 일에서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안 좋은 일이 발생했을 때 빨리 회복하는 것이 힘들다	①	②	③	④
7) 나는 보통 어려운 시기를 별 다른 문제없이 잘 이겨낸다	①	②	③	④

20

최근 12개월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까?

① 최근 12개월 동안 없다

② 최근 12개월 동안 있다

21

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얼마나 자주 이러한 감정을 느끼는지,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해 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드물게 그렇다	가끔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나는 이야기할 사람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2) 나는 혼자라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외로움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괴롭혀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IV. 아르바이트/취업 경험

24

현재 일(아르바이트)을 하고 있거나 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현재 일(아르바이트)하는 중임
- ② 이전에 일(아르바이트)을 한 적이 있음
- ③ 한 번도 일(아르바이트)을 한 적이 없음 → 25 로

24-1

지금 하고 있거나 했던 일(아르바이트)은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전단지 돌리기(스티커 부착 포함)
- ② 카페(커피숍) 서빙 등
- ③ 노래방·게임방 카운터/서빙
- ④ 배달서비스(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퀵서비스 등)
- ⑤ 물류센터, 택배상하차(쿠팡, 마켓컬리, CJ택배 등)
- ⑥ 식당(패스트푸드) 주방/서빙/카운터
- ⑦ 공장/건설현장 노동
- ⑧ 주점 등 유흥업소 고객, 서빙 및 접대
- ⑨ 24시간 편의점 점원
- ⑩ 일반상점(마트) 판매원
- ⑪ 오토바이, 자동차 등 정비 엔지니어
- ⑫ 이·미용이나 네일아트 등
- ⑬ 주유소 주유원
- ⑭ 기타(내용을 적어주세요: _____)

24-2

일(아르바이트)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생활비(운돈)를 벌기 위해서
- ② 미래 거주지(월세 등) 마련을 위해서
- ③ 학비를 벌기 위해서
- ④ 직업(취업) 준비를 위해(학원비, 자격증 취득 비용 등)
- ⑤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 ⑥ 호기심에
- ⑦ 주위의 권유로
- ⑧ 사회 경험을 쌓기 위해서
- ⑨ 현재 또는 미래에 직업을 구하는데 도움이 되어서
- ⑩ 기타(내용을 적어주세요: _____)

25

아르바이트 또는 일자리를 구하고자 할 때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두 가지를 선택해서 오른쪽 빈칸에 번호를 써주세요

 ,

- ① 주소지 불분명, 잦은 변경
- ② (미성년자인데) 보호자(부모) 동의서를 제출할 수 없음
- ③ 휴대전화(연락처)가 없음
- ④ 집을 나왔다는 편견
- ⑤ 학교를 중도에 그만둔 것에 대한 편견
- ⑥ 적성을 잘 모름
- ⑦ 학력 부족
- ⑧ 기술, 자격 부족
- ⑨ 취업정보 부족
- ⑩ 건강이 나빠서
- ⑪ 기타(내용을 적어주세요: _____)
- ⑫ 경험한 적 없음

V. 경제

26 귀하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못 산다		← 보통 수준 →			매우 잘 산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7 다음은 귀하의 현재 경제적 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보기에 선택해 주세요(저축과 빛이 있는 경우 금액도 적어주세요).

27-1 귀하는 현재 저축을 하고 있습니까?

① 저축을 한다 → 저축한 금액 만원

② 저축하지 않는다

27-2 귀하는 갚아야 할 빚(돈)이 있나요?

① 있다 → 현재 액수 만원

② 빚이 없다

28 현재 귀하의 평균 한 달 총 수입(용돈 포함)은 얼마입니까? '만원 단위'로 금액을 적어주세요.

만원 (예시 : 50만원일 경우 → 0 5 0 만원, 113만원일 경우 → 1 1 3 만원)

→ 0원이 경우는 29 로

28-1 수입의 출처는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해 주세요.

① 부모, 형제 등으로부터의 용돈 ② 근로 소득(취업, 아르바이트 수입)

③ 친구, 선배의 도움 ④ 쉼터 등 시설 지원

⑤ 프로그램(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참여수당 ⑥ 지자체 지원금(교통비, 학원비, 치료비 등)

⑦ 자립지원수당 ⑧ 기초생활수급

⑨ 기타(내용을 적어주세요: _____)

VI. 지지체계

29

다음은 가출 전 가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해당하는 것이 하나도 없을 경우에는 맨 아래 '㉔ 경험한 적 없음'을 선택해 주세요.

- ① 부모님과 떨어져서 다른 사람 집에서 살았던 적이 있다
 - ② 부모님께서 일자리를 잃으셔서 가정형편이 급격히 어려워진 경우가 있다
 - ③ 술을 많이 마시는 등의 어려움이 있는 가족이 있다
 - ④ 우울증, 정신질환, 자살시도 등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힘든 가족이 있다
 - ⑤ 구치소나 교도소에 갇던 가족이 있다
 - ⑥ 부모님께서 이혼하셨거나 따로 사신 적이 있다
 - ⑦ 어머니 혹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
 - ⑧ 장애를 갖고 있거나 큰 질병(암, 만성질환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가족이 있다
-
- ⑨ 경험한 적 없음

30

다음은 현재 부모님(보호자)께서 귀하를 대하는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해 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와 주기적으로 연락을 한다	①	②	③	④
2) 나의 생활에 필요한 비용(용돈, 공부 등)을 대고 있다	①	②	③	④

31

다음의 시설이나 프로그램 이용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이용경험이 있다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응답한 후 확실표에 따라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해 주세요.

※ 이용 여부 '㉔ 있다'에 응답한 경우만 도움을 받은 정도(① ~ ④)에 응답합니다.

문항	이용 여부		도움을 받은 정도			
	없다	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약간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1) 청소년 센터	①	②	→ ①	②	③	④
2)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	①	②	→ ①	②	③	④
3) 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①	②	→ ①	②	③	④
4) 기타(내용을 적어주세요: _____)			→ ①	②	③	④

32

귀하에게 다음의 지원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해 주세요.

문항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1) 각종 고민에 대한 상담, 심리치료 제공	①	②	③	④
2) 인간관계 기술 프로그램 제공(사회성 발달을 위한)	①	②	③	④
3) 신체활동 시간, 프로그램 제공	①	②	③	④
4) 건강지원(건강검진, 질병치료 등)	①	②	③	④
5) 주거지(임대주택 등) 및 주거비(전월세) 지원	①	②	③	④
6) 자립정착금 지원(시설에서 퇴소한 만 18세 이후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수당)	①	②	③	④
7) 진로상담(진로적성 검사 포함)	①	②	③	④
8) 진로지도 및 진로설계, 진로정보 제공	①	②	③	④
9) 진로탐색을 위한 체험	①	②	③	④
10) 복고(학교로 다시 돌아가는 것) 절차 및 방법 안내	①	②	③	④
11) 검정고시 준비(학습멘토, 인터넷 강의, 비용 등)	①	②	③	④
12) 진학정보 제공	①	②	③	④
13) 대학 진학 준비(수능, 입시 상담 등)	①	②	③	④
14) 직업교육·훈련 지원(자격증 취득 등)	①	②	③	④
15) 취업준비 지원(구직 전략, 면접 준비/이력서 작성 지원, 노중전력 교육 등)	①	②	③	④
16) 취업정보 제공	①	②	③	④
17) 필요한 생활용품 제공	①	②	③	④
18) 생활비, 용돈 등 경제적 지원	①	②	③	④
19) 경제 교육(저축 관리, 총동구매 예방, 합리적 소비생활 등) 및 관련 정보 제공	①	②	③	④
20) 생활 교육(살림 및 음식하기, 청소, 세탁 등)	①	②	③	④
21) 다양한 청소년활동(문화예술, 체육, 진로체험, 동아리 활동) 참여 기회 제공	①	②	③	④
22) 기타(내용을 적어주세요: _____)	①	②	③	④

33

다음 각 문항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해 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자립하는데 있어 어떤 어려움이라도 극복할 자신이 있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어떻게든 나에게 닥치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혼자의 힘으로 어떤 일이든지 해낼 자신이 있다	①	②	③	④
4) 나는 앞으로 내가 갖고 있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Ⅶ. 가정 밖 경험

34 집을 처음 나왔을 때 몇 살이었습니까?

만 세

※ 학교 및 기관 행사, 여행 등을 이유로 보호자의 허락 아래 있었던 일,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이나 소년원학교 입소 등으로 집을 떠난 경우는 제외합니다.

35 가장 오랫동안 가출했던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년 개월 일

36 집을 나오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큰 이유부터 순서대로 두 가지를 선택해서 아래 빈칸에 **번호를 써주세요**

1순위

2순위

- ① 부모와의 갈등 때문에(학대, 무관심 등)
- ② 부모 간의 갈등 때문에(부모 사이가 좋지 않아서, 가정불화)
- ③ 가정 형편이 어려워(경제적 어려움)
- ④ 우울, 불안과 스트레스가 많아서
- ⑤ 자유롭게 살거나 놀고 싶어서
- ⑥ 학교 성적, 공부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 ⑦ 선생님과의 갈등, 학교 규칙 때문에 학교에 다니기 싫어서
- ⑧ 따돌림 등 학교폭력 때문에
- ⑨ 친구나 선후배 권유로
- ⑩ 기타(내용을 적어주세요: _____)

37

쉼터를 이용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 ① 부모, 형제, 친척 등 가족의 권유로
- ② 가족 경험이 있는 친구 또는 선후배, 지인의 소개로
- ③ 학교 선생님의 권유로
- ④ 1388 등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안내로
- 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의 안내로
- ⑥ 경찰, 주민센터, 그 외 보호시설의 안내로
- ⑦ 쉼터 거리상담을 통해
- ⑧ 홍보, 보도 등을 보고(홍보물, 홈페이지, SNS, 방송 등)
- ⑨ 기타(내용을 적어주세요: _____)

38

집을 나오면서(또는 집을 나온 뒤) 여러분이 겪은 힘들었던(힘든) 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해 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의식주(먹을거리나 잘 곳이 없음)를 해결하지 못함	①	②	③	④
2) 생활비가 부족함	①	②	③	④
3) 가족과의 분화	①	②	③	④
4) 건강이 나빠짐	①	②	③	④
5) 우울, 불안감	①	②	③	④
6) 할 일도 없고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의욕도 없음(무기력함)	①	②	③	④
7) 나를 이해해 주고, 믿어주며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음	①	②	③	④
8) 또래 친구를 만들기 힘들	①	②	③	④
9) 집을 나오면서 학교를 다닐 수 없음	①	②	③	④
10) 앞으로 뭘 해야 할지 진로가 막막함	①	②	③	④
11) 아르바이트, 일을 구하는 것이 힘들	①	②	③	④
12) 돈(사이버머니, 게임머니 포함)이나 물건을 강제로 뺏김	①	②	③	④
13) 폭행 등의 신체적 상해를 당함	①	②	③	④
14)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당함	①	②	③	④
15) 절도, 성매매 등 범죄를 주변사람으로부터 강요받거나 협박받음	①	②	③	④
16) 휴대폰 개통 매출(내구제 매출), 금융사기, 전세사기를 당함	①	②	③	④
17)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음	①	②	③	④
18) 집을 나온 것에 대한 사람들의 선입견, 편견, 무시	①	②	③	④
19) 기타(내용을 적어주세요: _____)	①	②	③	④

39

집을 나온 후 앞으로의 생활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① 다시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40** 으로 → ②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39-1

돌아가지 않을 계획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선택해서 오른쪽 빈칸에 번호를 써주세요

- ① 돌아갈 집이 없어서
 ② 가족들이 반기지 않고 이전에 겪었던 문제가 반복될까봐
 ③ 학교 적응이 안 될 것 같아서
 ④ 돈을 벌고 싶어서
 ⑤ 가출한 상태가 자유롭기 때문에
 ⑥ 현재 시설(쉼터 등) 생활이 만족스러워서
 ⑦ 기타(내용을 적어주세요: _____)

40

어렵고 힘들 때, 다음의 사람들을 얼마나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까?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해 주세요.

문항	전혀 믿고 의지하지 않는다	믿고 의지하지 않는 편이다	믿고 의지하는 편이다	매우 믿고 의지한다	해당사항 없음
1) 부모님	①	②	③	④	⑤
2) 부모님 외 다른 가족(형제자매, 조부모 등)	①	②	③	④	⑤
3) 친구/선호배	①	②	③	④	⑤
4) 학교 선생님	①	②	③	④	⑤
5) 청소년쉼터 선생님	①	②	③	④	⑤
6) 청소년 기관이나 시설 선생님(꿈드림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센터 담당자)	①	②	③	④	⑤
7)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	①	②	③	④	⑤
8) 기타(내용을 적어주세요: _____)	①	②	③	④	⑤

배문1

귀하가 집을 나오기 전에 함께 살았던 가족을 모두 표시해 주세요. 직장 또는 학교 때문에 따로 떨어져 살았던 가족도 모두 선택해 주세요. (단,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는 가족은 제외)

- ① (외)아버지 ② (외)할머니 ③ 아버지 ④ 어머니
 ⑤ 새아버지 ⑥ 새어머니 ⑦ 형제 또는 자매 ⑧ 친척
 ⑨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모든 설문은 종료되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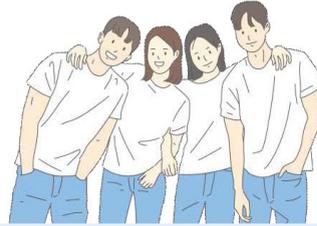
2) 가정·학교 밖 청소년 설문지(B유형)

기관 ID

응답자 ID

청소년 실태조사

B유형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각종 조사 연구와 정책 개발 업무를 맡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한국여론리서치와 함께 청소년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등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실태와 지원 요구를 파악하고,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본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청소년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자료로만 활용되며, **개인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정확하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문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쁘신데 본 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 8월

※ 성별과 출생연월을 꼭 표시한 후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 주십시오.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출생연월

년

월생

(예 : 2008년 3월 출생 시 →

년

월생)



I. 학교 관련 경험

1 귀하는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까? 아래에서 선택해 주세요.

※ 졸업 후 검정고시를 치러야 하는 비인가 대안학교를 다닌 경우는 아래에서 '②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를 선택하십시오.
학력인정이 되지 않고 검정고시를 봐야 하는 학교는 ②번을 선택해주세요.

① 학교를 다니는 중이다 → 유형확인 ②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자퇴, 유예 등) → 2 로

※ 본 설문은 B유형 설문지입니다.
현재 정규학교나 학력이 인정되는 대안학교에 다니는 경우, A유형 설문을 받아서 A유형 설문지에 응답하여 주세요.
졸업 후 검정고시를 봐야만 학력이 인정되는 대안학교(비인가)에 다니는 경우는, ②를 선택 후 문2부터 응답을 이어가 주세요.

2 가장 최근 학교를 그만두었을 때는 언제였습니까? 학교급을 선택한 후 학년을 적어주세요.
해당 학교급을 입학하지 않았다면 '입학하지 않음'에 동그라미(○) 표시해 주세요.

그만둔 학교급	그만둔 학년	입학하지 않음
① 초등학교	_____ 학년	
② 중학교	_____ 학년	
③ 고등학교	_____ 학년	

3 학교를 그만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큰 이유부터 순서대로 두 가지를 선택해서 아래 빈칸에 번호를 써주세요

1순위

2순위

- ① 신체 건강상의 이유로
- ② 심리·정신적인 문제(우울, 불안 등)로
- ③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서
- ④ 부모님과의 갈등, 가정불화로 인해
- ⑤ 집을 나오면서(학교 다닐 여건이 안돼서)
- ⑥ 학교 공부가 어려워서
- ⑦ 공부하기 싫어서
- ⑧ 학교 친구(선호배 포함)들과의 문제(폭력, 따돌림 등)로 인해
- ⑨ 선생님과의 갈등 때문에
- ⑩ 내 특기를 살리려고
- ⑪ 취업/아르바이트로 돈을 벌고 싶어서
- ⑫ 비행으로 보호처분 혹은 형사처분을 받게 되어서
- ⑬ 기타(내용을 적어주세요: _____)

4

학교를 그만둔 후 여러분이 경험했던(경험하) 어려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해 주세요.

문항	전혀 경험하지 않았다	별로 경험하지 않았다	약간 경험했다	자주 경험했다
1) 부모와 갈등을 겪음	①	②	③	④
2) 건강이 좋지 않음	①	②	③	④
3) (어디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아) 나 혼자라는 불안감이 있음	①	②	③	④
4) 할 일도 없고,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의욕도 없음(무기력함)	①	②	③	④
5) 나를 이해해 주고, 믿어주며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음	①	②	③	④
6) 학교 친구들과의 관계가 단절됨	①	②	③	④
7) 또래 친구를 만들기 어려움	①	②	③	④
8) 내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는 것이 어려움	①	②	③	④
9) 대학진학관련 정보를 찾는 것이 어려움	①	②	③	④
10) 아르바이트, 일을 구하기 어려움	①	②	③	④
11)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음	①	②	③	④
12)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선입견, 편견, 무시	①	②	③	④
13) 기타(내용을 적어주세요: _____)	①	②	③	④

5

학교를 그만둔 이후 학교부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를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 6 으로

② 아니오

5-1

학교를 그만둔 이후 학교부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를 이용하고 있지 않거나
이용한 경험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센터를 잘 몰라서
- ② 시간이 없어서
- ③ 도움 되는 서비스가 없어서(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 ④ 방문하기가 귀찮아서
- ⑤ 센터가 너무 멀어서
- ⑥ 내 생활을 간섭해서
- ⑦ 도움 받는 다른 곳(기관/센터)이 있어서
- ⑧ (다른 기관이나 부모님/지인 등을 통해) 받고 싶은 서비스를 다 받아서
- ⑨ 기타(내용을 적어주세요: _____)

6

향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현재 이용 중인 청소년들도 응답해 주세요)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는 일반 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청소년에게 상담 및 학업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지립지원, 급식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스스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입니다.

향후 참여의사

① 참여할 의향이 있다

② 참여할 의향이 없다



이유

이유

- ① 정보를 얻기 위해서
- ② 심리상담지원을 받기 위해
- ③ 사회적 관계(또래와의 교류 등)를 맺기 위해
- ④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어서
- ⑤ 혼자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힘들어서
- ⑥ 활동을 제공(또는 무료 지원)해 주기 때문에
- ⑦ 건강검진 등 지원을 받기 위해
- ⑧ 기타(내용을 적어주세요: _____)

- 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를 잘 몰라서
- ②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에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 ③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가 지리적으로 너무 멀어서
- ④ 기관에 소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하고 싶어서
- ⑤ 다른 지자체나 교육청의 유사 지원기관(예: 친구랑, 배움터 등)을 이용하고 있어서
- ⑥ 대안교육기관을 이용하고 있어서
- ⑦ 학원에 다니는 것으로 충분해서
- ⑧ 기타(내용을 적어주세요: _____)



II. 진로

7

진로와 관련해서 현재 주로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특별히 하는 일이 없다 → 8 로

7-1

아래 보기 중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 두 가지를 선택해서 오른쪽 빈칸에 번호를 써주세요

- ①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음
- ②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음 → 8 로
- ③ 대입(수능)을 준비하고 있음 → 7-3 으로
- ④ 진로체험을 하고 있음 → 8 로
- ⑤ 직업교육훈련을 받고 있음 → 8 로
- ⑥ 기타(내용을 적어주세요: _____) → 8 로

7-2

귀하는 어떤 검정고시를 준비 중입니까? 해당하는 것을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 ① 초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 ② 중학교 졸업 검정고시
- ③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7-3

검정고시 또는 대입 준비를 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당하는 보기를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 ① 청소년센터 도움으로(인터넷 강의, 학습멘토 포함)
- ②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 도움으로(인터넷 강의, 학습멘토 포함)
- ③ 사설 학원을 통해
- ④ 도움 없이 혼자서 준비하고 있음
- ⑤ 기타(내용을 적어주세요: _____)

8

귀하는 어느 수준까지 교육받기를 원합니까?

- ① 고등학교
- ② 전문대학(2-3년제)
- ③ 대학교(4년제)
- ④ 대학원 이상(석·박사)

9

향후 진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 ①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
- ② 정규학교로 복학
- ③ 검정고시 준비
- ④ 대학 진학 준비
- ⑤ 시간제 근로나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낼 예정
- ⑥ 직업교육훈련 예정
- ⑦ 취업 예정
- ⑧ 진학, 취업 등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
- ⑨ 기타(내용을 적어주세요: _____)

10

귀하가 진로에 대해 생각할 때 가장 영향을 준 대상이나 방법은 무엇입니까?

- ① 혼자 결정함
- ② 부모님
- ③ 주변 친구 또는 지인
- ④ 학교 선생님
- ⑤ 청소년쉼터 선생님
- ⑥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 선생님
- ⑦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진로체험지원센터 등 이용 기관의 선생님
- ⑧ 인터넷 또는 유튜브에서 접한 정보
- ⑨ 기타(내용을 적어주세요: _____)

11

다음 각 항목에 대해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해 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2)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3) 정래희망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①	②	③	④
5)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아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6) 나는 관심 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직업에 대하여 알아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12

다음의 진로와 관련된 교육과 활동을 받아 본 경험이 있습니까?

문항	경험해 본 적이 없다	경험해 본 적이 있다
1) 진로 탐색(나의 꿈, 미래 직업 관련 내용을 배우는 것)	①	②
2) 진로심리검사(진로관련 흥미 적성 검사)	①	②
3) 진로상담(나의 꿈, 미래직업, 적성 등에 관한 상담)	①	②
4) 진로체험(직업인 특강, 인터뷰, 직업인 업무 체험 등 진로체험학습 참여)	①	②
5) 현장학습이나 산업체 견학을 통한 진로 관련 활동	①	②
6) 진로박람회(잡월드, 키자니아 포함)에 간 경험	①	②
7) 대학의 학과(전공)관련 견학 프로그램	①	②
8) 창립 체험하기(도전(기업가)정신, 창의성 및 문제해결 능력 관련 활동 참여)	①	②
9) 직업교육 및 훈련	①	②
10) 자격증 취득 준비	①	②



12-1

(문 12 '② 경험해 본 적이 있다'에 하나라도 응답한 경우)
위의 진로에 대한 교육과 활동은 주로 어디를 통해서 경험했습니까?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 ① 학교
- ② 청소년센터
- ③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
- ④ 진로지원체험센터
- ⑤ 기타(내용을 적어주세요: _____)

13

희망하는 직업교육 훈련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14 로

13-1

아래의 보기 중 받고 싶은 과정 두 가지를 선택해서
오른쪽 빈칸에 번호를 써주세요

,

- ①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및 상담사
- ② 간호조무사, 수의사 보조원, 응급구조사
- ③ 보육교사(어린이집 교사)
- ④ (웹)디자이너, 게임/영상 그래픽디자이너
- ⑤ 유튜브 크리에이터(영상 콘텐츠 창작 포함)
- ⑥ 헤어디자이너
- ⑦ 메이크업 아티스트, 네일아트
- ⑧ 음료제조(바리스타, 소믈리에)
- ⑨ 제과제빵(파티시에)
- ⑩ 조리사(한식·중식·양식·일식 조리사 등)
- ⑪ 자동차(택시, 버스, 화물차 등) 운전
- ⑫ 코딩·게임 프로그래밍
- ⑬ 반려동물전문가(애견미용사, 반려동물행동교정사 등)
- ⑭ 기타(내용을 적어주세요: _____)



III. 건강

14

자기 자신의 현재 상태를 묻는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해 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신체적으로 건강하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정신적으로 건강하다	①	②	③	④

15

현재 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우울증, 불안장애 등 정신과 질환
 - ② 성 관련 문제(임신, 질병(성병 등) 등 산부인과 질환
 - ③ 충치 및 잇몸 치료 등 치과 질환
 - ④ 소화불량, 위염 등 소화기 내과 계통 질환
 - ⑤ 근육통, 골절 등 정형외과, 통증의학과 질환
 - ⑥ 기타 질환(호흡기질환, 피부질환 등)
-
- ⑦ 없음

16

최근 30일 동안, 담배를 한 대(한 개비)라도 피운 날은 며칠입니까?

- ① 최근 30일 동안 없다
- ② 월 1~2일
- ③ 월 3-5일
- ④ 월 6~9일
- ⑤ 월 10~19일
- ⑥ 월 20~29일
- ⑦ 매일

17

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날은 며칠입니까?

- ① 최근 30일 동안 없다
- ② 월 1~2일
- ③ 월 3-5일
- ④ 월 6~9일
- ⑤ 월 10~19일
- ⑥ 월 20~29일
- ⑦ 매일

18

다음은 평소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해 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2)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4) 나는 힘든 시기를 보낸 후에 빠르게 회복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스트레스가 많은 일에서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안 좋은 일이 발생했을 때 빨리 회복하는 것이 힘들다	①	②	③	④
7) 나는 보통 어려운 시기를 별 다른 문제없이 잘 이겨낸다	①	②	③	④

19

최근 12개월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까?

① 최근 12개월 동안 없다

② 최근 12개월 동안 있다

20

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얼마나 자주 이러한 감정을 느끼는지,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해 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드물게 그렇다	가끔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나는 이야기할 사람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2) 나는 혼자라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외로움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다른 사람들로로부터 괴롭혀어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21

최근 12개월 동안,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까?

① 최근 12개월 동안 없다 22 로

② 최근 12개월 동안 있다

21-1

죽고 싶다고 생각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한 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 ① 가족 간의 갈등(분화, 다툼, 가정폭력이나 학대 등)
- ②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 ③ 학업문제(학업부담감, 성적 스트레스 등)
- ④ 친구가 없어서, 인간관계 폭이 좁아져서(외로움, 고립감)
- ⑤ 선후배나 또래와의 갈등(학교폭력 등)
- ⑥ 경제적인 어려움
- ⑦ 기타(내용을 적어주세요: _____)

22

최근 12개월 동안,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까?

① 최근 12개월 동안 없다

② 최근 12개월 동안 있다



IV. 아르바이트/취업 경험

23 현재 일(아르바이트)을 하고 있거나 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현재 일(아르바이트)하는 중임
- ② 이전에 일(아르바이트)을 한 적이 있음
- ③ 한 번도 일(아르바이트)을 한 적이 없음 → 24 문

23-1 지금 하고 있거나 했던 일(아르바이트)은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전단지 돌리기(스티커 부착 포함)
- ② 카페(커피숍) 서빙 등
- ③ 노래방·게임방 카운터/서빙
- ④ 배달서비스(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퀵서비스 등)
- ⑤ 물류센터, 택배상하차(우편, 마켓컬리, CJ택배 등)
- ⑥ 식당(패스트푸드) 주방/서빙/카운터
- ⑦ 공장/건설현장 노동
- ⑧ 주점 등 유흥업소 호객, 서빙 및 접대
- ⑨ 24시간 편의점 점원
- ⑩ 일반상점(마트) 판매원
- ⑪ 오토바이, 자동차 등 정비 엔지니어
- ⑫ 이·미용이나 네일아트 등
- ⑬ 주유소 주유원
- ⑭ 기타(내용을 적어주세요: _____)

23-2 일(아르바이트)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생활비(용돈)를 벌기 위해서
- ② 미래 거주지(월세 등) 마련을 위해서
- ③ 학비를 벌기 위해서
- ④ 직업(취업) 준비를 위해(학원비, 자격증 취득 비용 등)
- ⑤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 ⑥ 호기심에
- ⑦ 주위의 권유로
- ⑧ 사회 경험을 쌓기 위해서
- ⑨ 현재 또는 미래에 직업을 구하는데 도움이 되어서
- ⑩ 기타(내용을 적어주세요: _____)

24

아르바이트 또는 일자리를 구하고자 할 때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두 가지를 선택해서 오른쪽 빈칸에 **빈칸을 써주세요**

 ,

- ① 주소지 불분명, 잦은 변경
- ② (미성년자인데) 보호자(부모) 동의서를 제출할 수 없음
- ③ 휴대전화(연락처)가 없음
- ④ 집을 나왔다는 편견
- ⑤ 학교를 중도에 그만둔 것에 대한 편견
- ⑥ 적성을 잘 모름
- ⑦ 학력 부족
- ⑧ 기술, 자격 부족
- ⑨ 취업정보 부족
- ⑩ 건강이 나빠서
- ⑪ 기타(내용을 적어주세요: _____)
- ⑫ 경험한 적 없음



V. 경제

25 귀하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못 산다	←	보통 수준	→	매우 잘 산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6 다음은 귀하의 현재 경제적 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보기에 선택해 주세요(저축과 빛이 있는 경우 금액도 적어주세요).

26-1 귀하는 현재 저축을 하고 있습니까?

- ① 저축을 한다 → 저축한 금액 만원
 ② 저축하지 않는다

26-2 귀하는 빚이냐 할 빚(돈)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현재 액수 만원
 ② 빚이 없다

27 현재 귀하의 평균 한 달 총 수입(용돈 포함)은 얼마입니까? '만원 단위'로 금액을 적어주세요.

만원 (예시 : 50만원일 경우 → 0 5 0 만원, 113만원일 경우 → 1 1 3 만원)
 → 0원인 경우는 28 로

27-1 수입의 출처는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부모, 형제 등으로부터의 용돈 ② 근로 소득(취업, 아르바이트 수입)
 ③ 친구, 선배의 도움 ④ 쉼터 등 시설 지원
 ⑥ 프로그램(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참여수당 ⑧ 지자체 지원금(교통비, 학원비, 치료비 등)
 ⑦ 자립지원수당 ⑧ 기초생활수급
 ⑨ 기타(내용을 적어주세요: _____)



VI. 지지체계

28

다음은 가출 전 가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해당하는 것이 하나도 없을 경우에는 맨 아래 '⑨ 경험한 적 없음'을 선택해 주세요.

- ① 부모님과 떨어져서 다른 사람 집에서 살았던 적이 있다
- ② 부모님께서 일자리를 잃으셔서 가정형편이 급격히 어려워진 경우가 있다
- ③ 술을 많이 마시는 등의 어려움이 있는 가족이 있다
- ④ 우울증, 정신질환, 자살시도 등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힘든 가족이 있다
- ⑤ 구치소나 교도소에 갇던 가족이 있다
- ⑥ 부모님께서 이혼하셨거나 따로 사신 적이 있다
- ⑦ 어머니 혹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
- ⑧ 장애를 갖고 있거나 큰 질병(암, 만성질환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가족이 있다

⑨ 경험한 적 없음

29

다음은 현재 부모님(보호자)께서 귀하를 대하는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해 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와 주기적으로 연락을 한다	①	②	③	④
2) 나의 생활에 필요한 비용(용돈, 공부 등)을 대고 있다	①	②	③	④

30

다음의 시설이나 프로그램 이용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이용경험이 있다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응답한 후 화살표에 따라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해 주세요.

※ 이용 여부 '②' 있다에 응답한 경우만 도움을 받은 정도(①~④)에 응답합니다.

문항	이용 여부			도움을 받은 정도			
	없다	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약간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1) 청소년 쉼터	①	②	→	①	②	③	④
2)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	①	②	→	①	②	③	④
3) 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①	②	→	①	②	③	④
4) 기타(내용을 적어주세요: _____)			→	①	②	③	④

31

귀하에게 다음의 지원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해 주세요.

문항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1) 각종 고민에 대한 상담, 심리치료 제공	①	②	③	④
2) 인간관계 기술 프로그램 제공(사회성 발달을 위한)	①	②	③	④
3) 신체활동 시간, 프로그램 제공	①	②	③	④
4) 건강지원(건강검진, 질병치료 등)	①	②	③	④
5) 주거지(임대주택 등) 및 주거비(전월세) 지원	①	②	③	④
6) 자립정착금 지원(시설에서 퇴소한 만 18세 이후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	①	②	③	④
7) 진로상담(진로적성 검사 포함)	①	②	③	④
8) 진로지도 및 진로설계, 진로정보 제공	①	②	③	④
9) 진로탐색을 위한 체험	①	②	③	④
10) 복교(학교로 다시 돌아가는 것) 절차 및 방법 안내	①	②	③	④
11) 검정고시 준비(학습멘토, 인터넷 강의, 비용 등)	①	②	③	④
12) 진학정보 제공	①	②	③	④
13) 대학 진학 준비(수능, 입시 상담 등)	①	②	③	④
14) 직업교육·훈련 지원(자격증 취득 등)	①	②	③	④
15) 취업준비 지원(구직 전략, 면접 준비/이력서 작성 지원, 노동권리 교육 등)	①	②	③	④
16) 취업정보 제공	①	②	③	④
17) 필요한 생활용품 제공	①	②	③	④
18) 생활비, 용돈 등 경제적 지원	①	②	③	④
19) 경제 교육(저축 관리, 총동구매 예방, 합리적 소비생활 등) 및 관련 정보 제공	①	②	③	④
20) 생활 교육(살림 및 음식하기, 청소, 세탁 등)	①	②	③	④
21) 다양한 청소년활동(문화예술, 체육, 진로체험, 동아리 활동) 참여 기회 제공	①	②	③	④
22) 기타(내용을 적어주세요: _____)	①	②	③	④

32

다음 각 문항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해 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자립하는데 있어 어떤 어려움이라도 극복할 자신이 있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어떻게든 나에게 닥치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혼자서 힘으로 어떤 일이든지 해낼 자신이 있다	①	②	③	④
4) 나는 앞으로 내가 갖고 있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Ⅶ. 가정 밖 경험

33 집을 처음 나왔을 때 몇 살이었습니까?

만 세

※ 학교 및 기관 행사, 여행 등을 이유로 보호자의 허락 아래 있었던 일,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이나 소년원학교 입소 등으로 집을 떠난 경우는 제외합니다.

34 가장 오랫동안 가출했던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년 개월 일

35 집을 나오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큰 이유부터 순서대로 두 가지를 선택해서 아래 빈칸에 번호를 써주세요

1순위

2순위

- ① 부모와의 갈등 때문에(학대, 무관심 등)
- ② 부모 간의 갈등 때문에(부모 사이가 좋지 않아서, 가정불화)
- ③ 가정 형편이 어려워(경제적 어려움)
- ④ 우울, 불안과 스트레스가 많아서
- ⑤ 자유롭게 살거나 놀고 싶어서
- ⑥ 학교 성적, 공부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 ⑦ 선생님과의 갈등, 학교 규칙 때문에 학교에 다니기 싫어서
- ⑧ 따돌림 등 학교폭력 때문에
- ⑨ 친구나 선배 권유로
- ⑩ 기타(내용을 적어주세요: _____)

36

심터를 이용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 ① 부모, 형제, 친척 등 가족의 권유로
- ② 가출 경험이 있는 친구 또는 선후배, 지인의 소개로
- ③ 학교 선생님의 권유로
- ④ 1388 등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안내로
- 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의 안내로
- ⑥ 경찰, 주민센터, 그 외 보호시설의 안내로
- ⑦ 심터 거리상담을 통해
- ⑧ 홍보, 보도 등을 보고(홍보물, 홈페이지, SNS, 방송 등)
- ⑨ 기타(내용을 적어주세요: _____)

37

집을 나오면서(또는 집을 나온 뒤) 여러분이 겪은 힘들었던(힘든) 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해 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의식주(먹을거리나 잘 곳이 없음)를 해결하지 못함	①	②	③	④
2) 생활비가 부족함	①	②	③	④
3) 가족과의 불화	①	②	③	④
4) 건강이 나빠짐	①	②	③	④
5) 우울, 불안감	①	②	③	④
6) 할 일도 없고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의욕도 없음(무기력함)	①	②	③	④
7) 나를 이해해 주고, 믿어주며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음	①	②	③	④
8) 또래 친구를 만들기 힘들	①	②	③	④
9) 집을 나오면서 학교를 다닐 수 없음	①	②	③	④
10) 앞으로 뭘 해야 할지 진로가 막막함	①	②	③	④
11) 아르바이트, 일을 구하는 것이 힘들	①	②	③	④
12) 돈(사이버머니, 게임머니 포함)이나 물건을 강제로 뺏김	①	②	③	④
13) 폭행 등의 신체적 상해를 당함	①	②	③	④
14)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당함	①	②	③	④
15) 절도, 성매매 등 범죄를 주변사람으로부터 강요받거나 협박받음	①	②	③	④
16) 휴대폰 개통 대출(내구제 대출), 금융사기, 전세사기를 당함	①	②	③	④
17)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음	①	②	③	④
18) 집을 나온 것에 대한 사람들의 선입견, 편견, 무시	①	②	③	④
19) 기타(내용을 적어주세요: _____)	①	②	③	④

38

집을 나온 후 앞으로의 생활은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 ① 다시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39 로 ②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38-1

돌아가지 않을 계획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선택해서 오른쪽 빈칸에 번호를 써주세요

- ① 돌아갈 집이 없어서
② 가족들이 반기지 않고 이전에 겪었던 문제가 반복될까봐
③ 학교 적응이 안 될 것 같아서
④ 돈을 벌고 싶어서
⑤ 가축한 상태가 자유롭기 때문에
⑥ 현재 시설(쉼터 등) 생활이 만족스러워서
⑦ 기타(내용을 적어주세요: _____)

39

어렵고 힘들 때, 다음의 사람들을 얼마나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까?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해 주세요.

문항	전혀 믿고 의지하지 않는다	믿고 의지하지 않는 편이다	믿고 의지하는 편이다	매우 믿고 의지한다	해당사항 없음
1) 부모님	①	②	③	④	⑤
2) 부모님 외 다른 가족(형제자매, 조부모 등)	①	②	③	④	⑤
3) 친구/선후배	①	②	③	④	⑤
4) 학교 선생님	①	②	③	④	⑤
5) 청소년쉼터 선생님	①	②	③	④	⑤
6) 청소년 기관이나 시설 선생님(꿈드림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센터 담당자)	①	②	③	④	⑤
7)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	①	②	③	④	⑤
8) 기타(내용을 적어주세요: _____)	①	②	③	④	⑤

배문1

귀하가 집을 나오기 전에 함께 살았던 가족을 모두 표시해 주세요. 직장 또는 학교 때문에 따로 떨어져 살았던 가족도 모두 선택해 주세요. (단,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는 가족은 제외)

- ① (외)할아버지 ② (외)할머니 ③ 아버지 ④ 어머니
⑤ 새아버지 ⑥ 새어머니 ⑦ 형제 또는 자매 ⑧ 친척
⑨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모든 설문이 종료되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소년 실태조사 B유형 | 21

3. 전문가 의견조사지

1) 1차 조사지

가정·학교 밖 이중 취약 청소년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 청소년 관련 국가정책을 연구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가정·학교 밖 청소년은 ‘가정과 학교에서 동시에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을 의미합니다. 본 조사는 가정·학교 밖 청소년들이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재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이나 불리함을 조명하고, 필요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학계 및 현장전문가 대상으로 가정·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을 중심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서비스 등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가정과 학교 모두에서 벗어나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지원 방안 모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간을 많이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0월 0일()까지** 회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응답하신 의견은 전적으로 연구의 자료로만 활용될 것임을 약속드리며, 본 1차 조사를 완료하신 분께는 소정의 사례금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귀하의 의견이 정확하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문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본 조사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4년 9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응답 요령은 따로 없으며, 질문 내용을 읽어주시고,
자유롭게 의견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1. 가정·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

1. 가정·학교 밖 청소년은 집을 나와 있는 상태에서 학교에도 다니지 않는 ‘가정과 학교에서 동시에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을 의미합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가정·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2. 현재 가정과 학교로부터 모두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정·학교 밖 청소년의 어려움/불리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각각의 어려움의 구체적인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정·학교 밖 청소년의 어려움/불리함	전혀 심각하지 않음	심각하지 않음	보통	심각함	매우 심각함	구체적 어려움/불리함
신체적 건강 문제						
정서적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또래관계 문제						
비행 문제						
진로 문제						
지지체계 문제						

- 2-1. 가정·학교 밖 청소년이 또래 청소년에 비해 **가장 어려움을 경험하는 분야(영역)**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분야(영역)	이유

2-2. 앞에서 지적하신 내용을 극복하기 위한 가정·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개입(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입(지원) 방안	- - -
--------------	-------------

II. 가정·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서비스

3. 현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정 밖 청소년 또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다음의 정책에 대한 중요도와 효과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	중요도					효과성				
	전혀 중요 하지 않음	중요 하지 않음	보통	중요	매우 중요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청소년쉼터 이용 청소년 주거정착금 지원										
청소년자립통장 지원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										
진로체험 카드 지원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지원										
대안교육기관 이용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기타()										

※ 기타 지자체 또는 정부에서 가정 밖 청소년 또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중요한 정책이 있다면 () 안에 직접 적고 중요도와 효과성에 대해서 체크해 주십시오.

4. 가정과 학교로부터 모두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여 이중 취약 환경에 놓여있는 가정·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음의 복지서비스의 중요도와 지원 정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서비스	중요도					지원정도				
	전혀 중요 하지 않음	중요 하지 않음	보통	중요	매우 중요	매우 적음	적음	보통	많음	매우 많음
일반 심리상담 지원										
자립에 대한 응원이나 도움 또는 멘토링										
대인관계훈련(예절교육, 인간관계 기술 등)										
경제 교육(저축 관리, 총동구매 예방, 합리적 소비생활 등) 및 관련 정보 제공										
생활 교육(살림 및 음식하기, 청소, 세탁 등)										
지역사회 자원(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관 등) 이용 교육										
건강 지원(건강검진, 질병치료 등)										
주거지 및 주거비 지원										
자립정착금 지원										
학업 및 학력 취득 지원(복학, 검정고시 등)										
학비 지원(등록금, 교재비 등)										
진로지도(진로상담, 적성검사 등)										
직업훈련 지원(인터십, 자격증 취득 등)										
취업준비 지원(구직전략 수립, 면접준비 및 이력서 작성 지원, 노동권리 알기)										
취업정보 제공										
취업 후 사후관리 (직장 내 어려움 상담, 이직 고민 등)										
기타()										

※ 기타 지자체 또는 정부에서 가정 밖 청소년 또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중요한 서비스가 있다면 () 안에 직접 적고 중요도와 지원 정도에 대해서 체크해 주십시오.

5. 청소년쉼터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과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은 청소년에게 제공하고 있는 지원 내용 중 가장 초점을 두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 대상 지원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은 청소년 대상 지원
-	-
-	-
-	-

5-1. 청소년쉼터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과 다니고 있지 않은 청소년에게 제공하고 있는 지원의 아쉬운 점이나 한계를 제시해 주시고 그 이유를 작성해 주십시오.

	아쉬운 점(한계)	이유(근거)
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 지원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은 청소년 지원		

5-2. 가정·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연계·협력하고 있는 지원체계(지자체 포함)는 무엇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무엇입니까?(예, 지자체 또는 기초지자체 특별지원 내용,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대안교육기관, 진로체험지원센터 등)

지원체계/기관명	연계·협력 지원 내용

2) 2차 조사지

안녕하십니까?

가정·학교 밖 이중 취약 청소년에 대한 1차 전문가 의견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2차 전문가 의견조사는 가정·학교 밖 이중 취약 청소년에 대한 1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를 개조식으로 정리하여 동의 여부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각각의 문항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체크해 주시고, 추가적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기타에 직접 의견을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 조사에 대한 응답은 ○월 ○일까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차 조사를 마치신 분께는 1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사례금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귀하의 의견이 정확하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문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본 조사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4년 10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1. 가정·학교 밖 청소년의 가장 주목해야 할 특성에 대하여 1차 조사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각각의 특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동의하십니까?

	특성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불안정한 심리·정서적 특성	①	②	③	④	⑤
2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3	범죄 등 고위기 노출 위험성	①	②	③	④	⑤
4	취약한 신체적 건강 문제	①	②	③	④	⑤
5	낮은 학습능력	①	②	③	④	⑤
6	강한 자기중심성 및 자기표현	①	②	③	④	⑤
7	미래 진로에 대한 희망 부재	①	②	③	④	⑤

문2A. 가정·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구체적인 신체적 건강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각각의 어려움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동의하십니까?

	신체적 건강문제의 구체적 어려움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불규칙한 식생활과 영양불균형	①	②	③	④	⑤
2	불안정한 수면(스마트폰 사용 조절 어려움 등)	①	②	③	④	⑤
3	위생으로 인한 문제(피부, 치아 등)	①	②	③	④	⑤
4	사전예방 또는 사후조치적 건강관리 미흡	①	②	③	④	⑤
5	건강보험증 부재로 의료기관 이용의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6	신체적 건강 문제가 인지·심리·사회적 측면에 영향을 미침	①	②	③	④	⑤
7	적절한 질병치료의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8	임신, 낙태, 성병 등	①	②	③	④	⑤
9	중독문제(알코올, 담배, 도박, 마약 등)	①	②	③	④	⑤

문2B. 가정·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구체적인 정서적 어려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각각의 어려움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동의하십니까?

구체적인 정서적 어려움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기본적인 의식주 불안정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	①	②	③	④	⑤
2	미래 진로에 대한 불안, 걱정	①	②	③	④	⑤
3	인자·정서·행동적인 문제(경계선지능, 공감능력 부족 등)	①	②	③	④	⑤
4	낮은 자존감	①	②	③	④	⑤
5	타인에 대한 신뢰 부족	①	②	③	④	⑤
6	심리적 고립에 따른 불안 및 우울 등의 심화	①	②	③	④	⑤
7	정서적 지지체계 취약으로 인한 우울, 불안, 무기력 등	①	②	③	④	⑤
8	충동성 및 공격성	①	②	③	④	⑤
9	무기력 상태	①	②	③	④	⑤

문2C. 가정·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구체적인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각각의 어려움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동의하십니까?

구체적인 경제적 어려움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의식주 등 기본 생계유지의 문제	①	②	③	④	⑤
2	경제적 파산	①	②	③	④	⑤
3	취업을 위한 학력 및 직업능력 부족	①	②	③	④	⑤
4	유형업소 등 불법적인 업종 취업	①	②	③	④	⑤
5	경제교육 미비로 인한 충동 소비	①	②	③	④	⑤
6	원가정에서의 경제적 지원의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7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고위기 노출 위험성 증가	①	②	③	④	⑤

문2D. 가정·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구체적인 사회적 관계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각각의 어려움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동의하십니까?

구체적인 사회적 관계 문제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대인관계 형성의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2	또래관계에 대한 자신감 부족	①	②	③	④	⑤
3	또래 친구의 부재	①	②	③	④	⑤
4	온라인 중심의 제한된 친구관계 형성	①	②	③	④	⑤
5	왕따, 따돌림 등으로 인한 고립	①	②	③	④	⑤
6	정서적, 인지적 기능 등의 저하로 또래에 의한 피해 발생	①	②	③	④	⑤
7	건강하지 않은 또래관계 형성으로 비행문제 발생 (도박, 절도, 약물 문제 등)	①	②	③	④	⑤

문2E. 가정·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구체적인 비행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각각의 어려움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동의하십니까?

구체적인 비행 문제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한 비행 노출(도박, 약물 등)	①	②	③	④	⑤
2	타인의 강요, 협박으로 인한 비행	①	②	③	④	⑤
3	생존 문제 해결을 위한 비행(폭력, 절도, 성매매 등)	①	②	③	④	⑤
4	호기심으로 인한 비행	①	②	③	④	⑤
5	온라인 또래관계를 통한 비행	①	②	③	④	⑤
6	비행의 반복 및 강화	①	②	③	④	⑤
7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	①	②	③	④	⑤

문2F. 가정·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구체적인 진로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각각의 어려움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동의하십니까?

구체적인 진로 문제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진로·진학 정보 부족	①	②	③	④	⑤
2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관련 정보 부족	①	②	③	④	⑤
3	진로설정, 탐색 등의 지원체계 결여	①	②	③	④	⑤
4	생계 문제로 진로에 대해 고민할 여유가 없음	①	②	③	④	⑤
5	무기력, 두려움 등으로 인한 진로 준비의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6	다양한 진로체험 기회의 부족	①	②	③	④	⑤
7	학력 및 진로역량 부족	①	②	③	④	⑤

문2G. 가정·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구체적인 지지체계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각각의 어려움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동의하십니까?

구체적인 지지체계 문제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의 부재	①	②	③	④	⑤
2	어른에 대한 신뢰 약화 및 건강한 성인상 부재	①	②	③	④	⑤
3	원가정으로부터의 지지체계 붕괴나 부재	①	②	③	④	⑤
4	또래집단으로부터의 고립	①	②	③	④	⑤
5	공적 지지체계 부족(법적, 제도적 장치 등)	①	②	③	④	⑤
6	청소년쉼터 등 공적 지지체계에 대한 정보 부재로 부적절한 지지망(가출팸 등) 위험에 노출	①	②	③	④	⑤

문2-1A. 가정·학교 밖 청소년의 정서적 문제를 위한 개입(지원)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각각의 개입(지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동의하십니까?

정서적 문제에 대한 개입(지원)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대상자 발굴 시 정신건강 문제 우선시	①	②	③	④	⑤
2	사례관리를 통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상담 개입	①	②	③	④	⑤
3	청소년센터 등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 활동을 통한 심신 건강 회복	①	②	③	④	⑤
4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역센터 등과의 협력을 통한 부모, 양육자 가정 사례관리 및 기능 강화 프로그램 진행	①	②	③	④	⑤
5	성취감 증진을 위한 활동을 제공하여 자신감 향상	①	②	③	④	⑤
6	잘 훈련된 멘토의 지속적인 지원	①	②	③	④	⑤
7	병리적 문제의 경우에 지속적인 임상전문가의 치료 지원	①	②	③	④	⑤
8	미학(예술)을 통한 성찰적 접근	①	②	③	④	⑤
9	거부감을 줄이고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개입 방안 개발	①	②	③	④	⑤
10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 지원	①	②	③	④	⑤

문2-1B. 가정·학교 밖 청소년의 경제적 문제를 위한 개입(지원)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각각의 개입(지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동의하십니까?

경제적 문제에 대한 개입(지원)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의·식·주 지원	①	②	③	④	⑤
2	1인실 생활공간 지원	①	②	③	④	⑤
3	진학을 위한 학원비 제공	①	②	③	④	⑤
4	기술자격증 취득·직업교육훈련 비용 지원	①	②	③	④	⑤
5	자립할 수 있는 일자리 제공	①	②	③	④	⑤
6	경제적 지원을 위한 특별수당 신설	①	②	③	④	⑤

문2-1C. 가정·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기타 개입(지원)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었습니까?
 다. 다음 각각의 개입(지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동의하십니까?

기타 문제에 대한 개입(지원)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사회적 관계 기회 확대	①	②	③	④	⑤
2	학교 지지체계(돌봄시스템) 구축	①	②	③	④	⑤
3	WEE센터 중심으로 총괄 지원	①	②	③	④	⑤
4	가정 밖, 학교 밖 청소년 발굴 체계 강화	①	②	③	④	⑤
5	가족 연계 프로그램 지원	①	②	③	④	⑤
6	부모 및 양육자 교육	①	②	③	④	⑤
7	가족 캠프 및 여행 프로그램 지원	①	②	③	④	⑤

문3-1. 청소년쉼터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원 영역 중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곳에 응답해 주십시오.

가정 밖 학생 청소년 대상 지원 영역	상세 내용
1. 심리적 지원	심리상담 지원, 사회적 관계(또래관계) 지원
2. 학업·학교생활 지원	학업 지원, 학습멘토링, 학교생활지도
3. 진로 지원	진로상담, 다양한 진로체험 기회 제공, 진로설계 및 진로·진학 지원
4. 자립 지원	직업교육·훈련 지원, 아르바이트 지원, 취업 정보 제공 등
5. 경제적 지원	교통비, 식비, 학원비 등 지원

학생 청소년 지원 영역	« 왼쪽 영역이 더 중요 »					중 요	« 오른쪽 영역이 더 중요 »»					학생 청소년 지원 영역						
	절대 중요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중요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절대 중요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1. 심리사회적 지원																		2. 학업·학교생활 지원
1. 심리사회적 지원																		3. 진로지원
1. 심리사회적 지원																		4. 자립지원
1. 심리사회적 지원																		5. 경제적 지원
2. 학업·학교생활 지원																		3. 진로지원
2. 학업·학교생활 지원																		4. 자립지원
2. 학업·학교생활 지원																		5. 경제적 지원
3. 진로지원																		4. 자립지원
3. 진로지원																		5. 경제적 지원
4. 자립지원																		5. 경제적 지원

문3-2. 청소년쉼터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지원 영역 중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곳에 **응답**해 주십시오.

가정·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지원 영역	상세 내용
1. 심리적 지원	심리상담 지원, 또래관계(사회적 관계) 지원
2. 복교·검정고시 지원	학교복귀 지원, 검정고시 지원
3. 진로 지원	진로상담, 다양한 진로체험 기회 제공, 진로설계 및 진로·진학 지원
4. 자립 지원	직업교육·훈련 지원, 아르바이트 지원, 취업 정보 제공 등
5. 경제적 지원	교통비, 식비, 학원비 등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영역	《《 왼쪽 영역이 더 중요 》》									이 야 영역	오른쪽 영역이 더 중요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영역
	절대 중요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1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절대 중요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1. 심리사회적 지원																				2. 복교·검정고시 지원
1. 심리사회적 지원																				3. 진로지원
1. 심리사회적 지원																				4. 자립지원
1. 심리사회적 지원																				5. 경제적 지원
2. 복교·검정고시 지원																				3. 진로지원
2. 복교·검정고시 지원																				4. 자립지원
2. 복교·검정고시 지원																				5. 경제적 지원
3. 진로지원																				4. 자립지원
3. 진로지원																				5. 경제적 지원
4. 자립지원																				5. 경제적 지원

문4-1. 청소년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원 중 가장 초점을 두고 있는 내용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각의 지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원 내용		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 (학생 청소년)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은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전혀 중요 하지 않음	중요 하지 않음	보통	중요	매우 중요	전혀 중요 하지 않음	중요 하지 않음	보통	중요	매우 중요
학업 지원	진로진학지도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학업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학습멘토링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사교육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학교생활지도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검정고시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복학(복교)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진로상담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심리 사회 지원	심리상담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사회적응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또래관계(사회적 관계)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일상생활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자립 지원	체험활동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자격증 취득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직업체험·훈련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경제 지원	아르바이트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용돈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안전, 복귀 지원	교통비, 식비 지원 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안전한 보호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의료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가정복귀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문4-2. 청소년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원의 한계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동의하십니까?

지원의 한계		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 (학생 청소년)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은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전혀 동의 하지 않음	동의 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 함	전혀 동의 하지 않음	동의 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 함
학업 관련 지원	학업 관련 지원 부족 (학원, 과외 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개인 발달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부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부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학교생활에 흥미 없는 경우에 학교 적응 지원의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진로 지원	다양한 직업군 탐색 및 체험의 한계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진로상담 지원 미비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사회 관계 지원	도래관계 증진을 위한 훈련 부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무기력, 대인관계 어려움 등으로 지원 거부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경제 지원	경제적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지원 부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경제적 자립에만 초점을 둠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용돈 부족(교통비 지원만 가능)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검정고시 등을 위한 지원 예산 부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기타	사례관리 시 시간 부족으로 학업(학교 재학) 유지에만 초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청소년쉼터 단기 이용으로 개입과 지원의 지속성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청소년의 정확한 욕구 파악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 부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깊이 있는 지원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국문초록

본 연구는 가정과 학교에서 모두 벗어나 있음에 따라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체계에서 이탈된 청소년들에 주목하였다. 가정과 학교로부터 동시에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중 취약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어떠한 경험을 하며 성장하고 있는지, 또 어떠한 어려움과 애로사항이 있는지 등에 대한 본격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에 기반하여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여러 양적연구 및 질적연구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먼저, 가정·학교 밖 청소년의 이중 취약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수행하였고, 가정 밖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선행연구 고찰과 행정 통계 및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였다. 또한 가정·학교 밖 청소년 대상의 실증데이터 수집을 위하여 전국의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들로부터 수집된 463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교 재학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의 조사 결과를 비교하였다. 기술통계분석을 위해 교차분석(Chi-squared test)과 독립표본 t-검정(t-test), 일원분산분석(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가정·학교 밖 청소년이 직면하는 어려움과 지원 요구를 예측하는 심화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활용하였다. 더욱 심층적인 실태 파악을 위해 가정·학교 밖 이중 취약 청소년 15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가정과 학교라는 주요 성장 체계로부터 모두 벗어나게 된 이유와 그 과정, 이에 따른 어려움과 지원 요구 등을 탐색하였다. 질적자료는 현상학적(phenomenological)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가정 밖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분야 학계 및 현장전문가 15명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과 Borich 요구도 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가정·학교 밖 이중 취약 청소년이 직면하고 있는 이슈와 현재 지원 내용 등을 파악하고, 지원 필요 내용과 정책과제 등에 대한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이외에도, 청소년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현장실무자 11명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다.

가정 밖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의 설문조사와 면접조사, 전문가 의견조사 및 현장실무자 FGI 등의 조사 수행 과정과 내용(조사지 포함)에 대해서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 및 승인 절차를 거쳤다. 학계 및 현장전문가들과 전문가 자문회의 및 워크숍 등을 개최하였으며, 그 결과들을 연구 내용, 조사설계, 정책방안 도출 등 연구의 전 과정에 반영하였다.

이러한 연구 과정을 통해 분석된 결과에 기초하여, 가정·학교 밖 이중 취약 청소년의 발굴 및 지원체계 개선, 심리·사회적 지지체계 강화, 가정 밖 학생·학교 밖 청소년 개별 맞춤형 진로 지원, 다중 취약 고위기 가정 밖 청소년 지원 등 변화하는 환경 대응으로 영역을 구분하여 정책과제들을 제안하였다.

핵심어: 가정·학교 밖 이중 취약 청소년, 다중 취약 고위기 청소년, 설문조사, 혼합연구, 청소년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ABSTRACT

This study focused on youth separated from both their home and school environments, which are key systems critical to their growth and development. The goal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alities faced by these youth, who experience dual vulnerability due to a lack of protection and support from both family and school. Specifically, it sought to understand their growth experiences, difficulties, and challenges, and to explore their support needs and potential measures to address these needs.

To achieve this goal, this study employed a combination of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ies from an integrated perspective. First, a theoretical discussion was conducted on the dual vulnerability of out-of-home and out-of-school youth, alongside a review of relevant literature, administrative statistics, and related materials. Empirical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 survey of 463 youth residing in youth shelters and youth self-support centers nationwide. Survey results for out-of-school youth were compared with those for youth attending school. For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cross-tabulation(chi-squared test), independent samples t-test, and one-way analysis of variance(ANOVA) were conducte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predict the

difficulties and support needs of out-of-home and out-of-school youth. To gain a more in-depth understanding,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5 out-of-home youth who had also dropped out of school. These interviews explored their reasons for separation from family and school, the processes involved, the difficulties they encountered, and their support needs. The qualitative data were analyzed using a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Moreover, analytic hierarchy process analysis and Borich needs analysis were conducted with 15 academic and field experts in the area of out-of-home and out-of-school youth. These analyses aimed to identify the issues faced by these youth, evaluate the current support systems, and establish the importance and prioritization of support needs and policy tasks. In addition, focus group interviews (FGI) were conducted with 11 field practitioners from youth shelters, out-of-school youth support centers, and youth counseling and welfare centers.

All research activities, including surveys targeting out-of-home and out-of-school youth, academic and field experts, and field practitioners, were approved by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Expert advisory meetings, workshops were held with academic and field professionals, and the inputs were incorporated into the research process, including the research content, survey design, and policy recommendations.

Based on the analysis, policy proposals were developed in terms of identifying and improving the support system for out-of-home and out-of-school youth, strengthening their psycho-social support system, supporting individually customized career design for the youth, and responding to the changing environment surrounding high-risk youth facing complex and multi-layered difficulties.

Keywords: out-of-home/out-of-school youth, dual vulnerability, high-risk youth facing multiple vulnerabilities, mixed-methods, youth shelters, out-of-school youth support centers

2024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간자료 목록

기관고유과제

- 연구보고24-기본01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정책 강화방안 연구 / 김지경·송현주·김일우·김윤희
- 연구보고24-기본02 청소년의 생성형 AI 이용실태 및 리터러시 증진방안 연구 / 이창호·모상현·배상률·이세영
- 연구보고24-기본03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한국형 Erasmus+ 모형 구축방안 연구 / 이윤주·김형주·오해섭·박대승
- 연구보고24-기본04 청소년 근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 황여정·임희진·정은주·이수정
- 연구보고24-기본05 청소년활동을 통한 환경 실천 지원방안 / 황세영·김정숙·최정원·이은주·손윤희
- 연구보고24-기본06 청소년은 어떻게 범죄의 길에 빠지게 되는가 : 청소년 범죄 경로와 예방 대책 / 이지연·김영지·박지수·한윤선·박선영
- 연구보고24-기본07 고립·은둔형 청소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서정아·강경균·최홍일·허창수
- 연구보고24-일반01 2024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 : 총괄보고서 / 유민상·이경상·서고운·유설희·유성렬
- 연구보고24-일반01-01 2024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기초분석보고서 / 유민상·이경상·서고운·유설희
- 연구보고24-일반05 2024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 사업보고서 / 하형석·김기현·최인재·한지형
- 연구보고24-일반05-01 2024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 데이터분석보고서 / 김기현·오병돈
- 연구보고24-일반06 2024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총괄보고서 / 신동훈·김희진·이정민·이용해·장윤선
- 연구보고24-일반06-01 2024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기초분석보고서(2기패널) / 신동훈·김희진·이정민·이용해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4-44-01 청년종합연구Ⅲ: 정책소외계층 청년 실태 및 정책개발 / (자체번호 연구보고24-일반02) 김승경·김지연·백혜정·전현정·김성아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4-44-02 2024년 시설퇴소청년의 생활 실태 및 정책개발 /
(자체번호 연구보고24-일반02-01) 김승경·김지연·백혜정·전현정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4-45-01 청년 친화적인 지역인재양성 및 일자리 창출 방안 I /
(자체번호 연구보고24-일반03) 최용환·김영한·권오영·박윤수·오문준·이경아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4-46-01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청소년보호정책 개선방안 연구 I
(자체번호 연구보고24-일반04) : 사이버도박 / 임지연·황진구·성윤숙·조제성

수 시 과 제

- 연구보고24-수시01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 개선방안 / 김정숙·조남익
- 연구보고24-수시02 일경험으로서 청년인턴 활성화 방안 연구 -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을 중심으로
/ 이윤주·황세영·하형석·서고운·최홍일·이용해
- 연구보고24-수시03 청소년기 인문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 강경균·최홍일
- 연구보고24-수시04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 성윤숙

연구개발적립금 과제

- 연구보고24-연적금01 가정·학교 밖 이중 취약 청소년 실태연구 : 청소년 쉼터를 중심으로 /
김희진·김경준·박지수·조혜영
- 연구보고24-연적금01-01 가정·학교 밖 이중 취약 청소년 실태연구 : 청소년 쉼터를 중심으로 -
기초분석보고서 / 김희진·박지수
- 연구보고24-연적금02 미래지향 정책연구 수행사업 /
김대웅·이진아·이유정·김정숙·권오영·변주영·조은혜·이윤주

수 탁 과 제

<일반>

- 연구보고24-수탁01 2024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
장근영·김기현·문호영·이용해·최홍일·구본호·이자경·서지형
- 연구보고24-수탁02 청년의 결혼 및 출산 의식과 세대지향적 저출생 정책지원망 구축 연구 /
김형주·정세정·박미선·김동훈·김지민

연구보고24-수탁03	2024 대안교육기관 실태조사 - 대안교육기관 현황조사 / 최인재·오해섭·권오영·유설희·김소연·박진수·윤철경
연구보고24-수탁03-01	2024 대안교육기관 실태조사 - 교원, 학생 및 학부모 실태조사 / 최인재·유설희·김소연·윤철경
연구보고24-수탁03-02	2024 대안교육기관 운영 사례집 / 최인재·오해섭·권오영·유설희·김소연·박진수
연구보고24-수탁04	제5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25-2027)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 이지연·하형석·박지수
연구보고24-수탁05	2024년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사업보고서 / 서고운·김영지·김지연·이정민·최홍일
연구보고24-수탁06	디지털기반 인성교육 플랫폼 운영지원 및 성과평가 / 임지연·하형석
연구보고24-수탁07	청소년 진로 및 디지털 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강경균
연구보고24-수탁08	2024년 학생 인성 함양 리더십새싹 캠프 결과보고서 / 최용환·이동성·박윤수·장혜윤·임채홍·임지영
연구보고24-수탁09	2024년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결과보고서 / 최용환·이창호·임지영
연구보고24-수탁10	2024년 중앙부처와 시도교육청의 인성교육 이행점검 및 인성교육정책 분석평가 / 최용환·박윤수·장혜윤·김보경·임지영·이경아
연구보고24-수탁11	2024년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관리 보고서 / 최용환·임지영·이경아
연구보고24-수탁12	2024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황진구·김영지·모상현·이용해·김경준
연구보고24-수탁13	광역지역단위 청소년활동 진흥 및 협력강화 방안 연구 / 황세영·유민상·남화성
연구보고24-수탁14	대안교육기관 실태조사 기초연구 / 조연수·하형석·유설희
연구보고24-수탁15	2024년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 / 황여정·임희진·정은주·유설희
연구보고24-수탁15-01	2024년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부록: 기초통계결과표) / 황여정·임희진·정은주·유설희
연구보고24-수탁16	보호관찰 청소년 사이버도박 실태분석 및 지도감독 방안 / 박지수·이지연
연구보고24-수탁17	2024년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 김지경·송현주·김균희·김일우
연구보고24-수탁18	학교안팎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연구 / 유민상·이경상·황세영·최인재·최홍일
연구보고24-수탁19	취약청년 현황 및 지원방안 연구-1인가구 청년 및 경계선 지능 청년을 중심으로 / 유민상·김기현·신동훈·변민수·박미선·한지형
연구보고24-수탁20	2024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 연구 / 서정아·장여옥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 연구보고24-학폭01 2024 학부모용 소식지 모음집 / 모상현·박재욱·전원지
- 연구보고24-학폭02 어울림 프로그램 개정 방향 모색을 위한 기초연구 / 모상현·김승혜·최희영·차민희·송채원
- 연구보고24-학폭03 2024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적용효과 분석 / 모상현·전원지·문은솔
- 연구보고24-학폭04 2023년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결과보고서 / 모상현·박선영·김예지
- 연구보고24-학폭05 2024년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운영안내서 / 모상현·박선영
- 연구보고24-학폭06 2023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우수사례집 / 모상현·최지윤
- 연구보고24-학폭07 개정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초등학교 1~2학년) / 모상현·정광훈·백성희·최인재·송채원 외
- 연구보고24-학폭08 개정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중학교 1학년) / 모상현·정광훈·백성희·최인재·송채원 외
- 연구보고24-학폭09 개정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고등학교 1학년) / 모상현·정광훈·백성희·최인재·송채원 외
- 연구보고24-학폭10 2024 학교폭력예방 컨설팅 매뉴얼 / 모상현·최지윤·문은솔

〈학업중단예방·대안교육지원센터〉

- 연구보고24-대안01 학업중단 숙려제 공동운영기준 / 황세영
- 연구보고24-대안02 청소년부모·한부모 지원매뉴얼 / 황세영·이진아·김시경·김미혜
- 연구보고24-대안03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실태조사 구축방안 / 김영지·임지연·유성렬·김강호·이종숙·정유경

〈위(WEE)프로젝트연구·지원센터〉

- 연구보고24-위센터01 2024년 위(Wee) 프로젝트 연구지원 사업 운영 결과보고서 / 김지연·김영지·백혜정·김승경·이정민·전현정·최홍일·양하나·김주영·문세진·나예인·이유진

자료집

〈세미나〉

- 세미나24-01 청소년의 생성형 AI 리터러시 증진방안 세미나 (24.5.24.)

〈워크숍〉

- 워크숍24-01 소년사건의 이해: 경찰 사랑의 교실, 법원 수강명령 이해하기 (24.8.29.)
- 워크숍24-02 2024 꿈지락 운영 워크숍 (24.8.7.)

〈포럼〉

- 포럼24-01 청소년 금융활동 역량강화 방안 (24.3.18.)
- 포럼24-02 청소년-가족 시설간 정책 연계 협업 관련 다문화 청소년 진로지원 포럼 (24.4.29.)
- 포럼24-03 다문화청소년 심리·정서 및 진로·진학 지원 정책의 현안과 발전방안 (24.7.18.)
- 포럼24-04 제1회 청소년 형사 법무 국제심포지엄 청소년 약물 남용과 도박문제 (24.8.19.)
- 포럼24-05 청소년 디지털 역량 강화 방안 (24.12.10.)

〈콜로키움〉

- 콜로키움24-01 가명정보 활용절차의 이해 - 청년종합연구 III: 정책소외계층 청년 실태 및 정책개발 (24.4.24.)

〈기타자료집〉

- 자료24-01 2024년 저경력 전문상담교사 연수
- 자료24-02 위(Wee) 센터 실장 역량강화 연수 자료집
- 자료24-03 가정형 위(Wee)센터 컨설팅
- 자료24-04 제1회 청소년 형사 법무 국제심포지엄 청소년 약물 남용과 도박문제
- 자료24-05 지역사회 환경교육 협력을 위한 청소년수련시설 학교 연계 프로그램 운영 안내서
- 자료24-06 2024년 대안교육기관 교직원 연수 - [제1차] 연수 강의자료
- 자료24-07 2024년 대안교육기관 교직원 연수 - [제2차] 연수 강의자료
- 자료24-08 2024년 대안교육기관 교직원 연수 - [제3차] 연수 강의자료
- 자료24-09 위(Wee) 이슈브리프
- 자료24-10 (초등학교) 위기사안별 개인상담 개입 지도서
- 자료24-11 위(Wee) 클래스 및 센터 운영 가이드
- 자료24-12 가정형 위(Wee)센터 매뉴얼
- 자료24-13 제13회 위(Wee) 희망대상 우수사례집
- 자료24-14 위(Wee) 뉴스레터
- 자료24-15 제13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 자료24-16 2024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매뉴얼
- 자료24-17 제11회 학업중단예방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품집

자료24-18 2024 학업중단예방·대안교육지원센터 연간사업보고서

자료24-19 2024 꿈지락 운영 워크숍 2차

학술지

「한국청소년연구」 제35권 제1호(통권 제112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5권 제2호(통권 제113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5권 제3호(통권 제114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5권 제4호(통권 제115호)

기타 발간물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51호 어울림 프로그램 현안 진단을 위한 탐색적 연구

152호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 분석 및 자립지원방안 연구

153호 가족환경 다변화에 따른 청소년 가족실태와 지원방안

〈NYPI Bluenote 통계〉

77호 청소년의 생성형 AI 이용실태조사

78호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Ⅲ: 시민권과 참여

79호 소년보호재판 준비메모(2013~2018) 데이터 구축 및 주요 결과

80호 청소년활동 실태

81호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정책 진단 및 제도보완 연구Ⅱ

82호 2023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주요 지표 결과

83호 청소년의 시민성 함양을 위한 정치참여 지원 방안 연구

84호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제6차년도 패널데이터 구축 및 주요 조사 결과

연구보고24-연적금01

가정·학교 밖 이중 취약 청소년 실태 연구
: 청소년쉼터를 중심으로

인 쇄 2024년 12월 24일

발 행 2024년 12월 31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백 일 현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계문사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442-5 94330

979-11-5654-441-8 (세트)

연구보고24-연적금01

가정·학교 밖 이종 취약 청소년 실태연구 : 청소년쉼터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
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ISBN 979-11-5654-442-5

ISBN 979-11-5654-441-8 (세트)